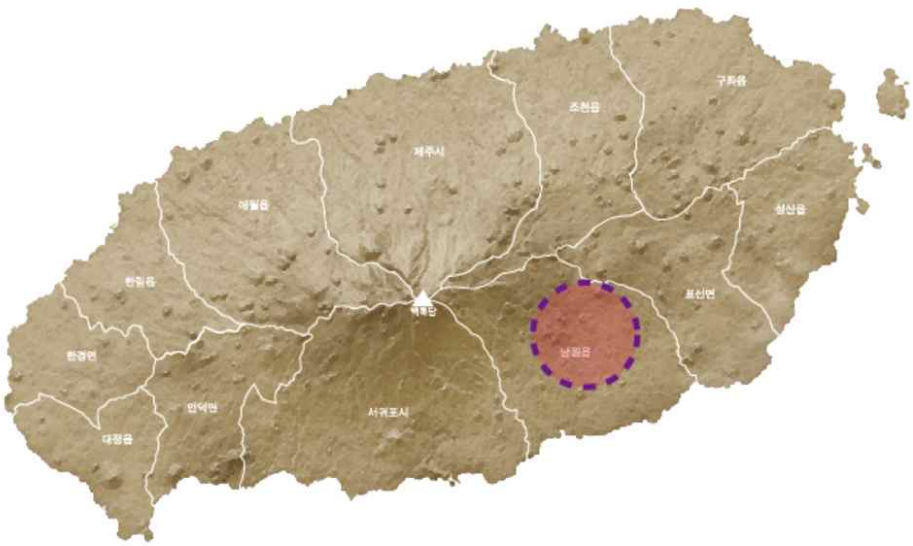
발간 등록 번호
79-6500000-000473-01

2018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15

-남원읍 수망리

구술: 김상옥 김두천 현금옥 김승남 고신화
채록·전사·표준어 대역: 최연미



Jeju 제주특별자치도
JRI 제주학연구센터

2018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11-20)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기관 대행 사업을 수탁한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가 작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15

-남원읍 수망리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5
2. 사업 기간 ····· 5
3. 사업 참여자 ····· 5
4.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 6
5. 사업 추진 과정 ····· 7
6. 표준어 대역 ····· 8
7. 주석 ····· 8

Ⅱ. 구술 자료

1. 조사 마을 ····· 9
2. 제보자 일생 ····· 22
3. 밭일 ····· 62
4. 들일 ····· 114
5. 의생활 ····· 138
6. 식생활 ····· 189
7. 주생활 ····· 243
8. 신앙 ····· 297
9. 세시풍속 ····· 301
10. 놀이 ····· 346
11. 통과의례 ····· 379
12. 민간요법 ····· 443
13. 경험담, 속담, 금기어 듣기 ····· 478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2018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 종료에 따라 구술 자료를 대중에게 널리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게 제주어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는 데 목적이 있다.

3개년에 걸쳐 이루어진 채록 사업의 성과물인 ≪제주어구술채록보고서≫(1~36)는 현장에서 조사된 내용을 그대로 전사하였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은 물론 어휘적 특색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보고서는 제주어를 어느 정도 알아야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서 보고서 활용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용의 제한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제주어 구술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고 주석을 다는 작업이 불가결한 일이다.

나아가 표준어로 대역하고 주석을 달아 만든 ≪제주어구술자료집≫은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제12조에도 부합한 일로, 소멸 위기의 제주어의 보전과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2. 사업 기간

2018년 3월 20일~2018년 12월 31일

3. 사업 참여자

‘2018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연구진은 2014년부터 시작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의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현지 조사와 표준어 대역 담당자를 동일하게 함으로써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현지 조사와 표준어 대역을 동일인으로 담당하게 한 것은 조사할 때의 발화 상황은 물론 조사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어서 표준어 대역 작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서다.

또 현지 조사자와 표준어 대역 연구자를 동일인으로 한 것은 조사할 때 미흡했던 내용이나 잘못된 내용을 수정, 보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더불어 추가 조사의 편이성도 고려하였다.

‘표준어 대역’ 사업의 연구진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자 현황

이름	소속	분야	구분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연구 책임 · 총괄 표선면 성읍리
강영봉	(사)제주어연구소	국어학(제주도방언)	교열 및 감수
김미진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조천읍 함덕리 성산읍 삼달리
김보향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구좌읍 한동리 애월읍 고내리
허영선	제주대학교 강사	한국학(제주역사)	표선면 성읍리
최연미	돋을양지책드르	국문학	남원읍 수망리
김승연	(사)제주학연구소	한국학(제주무속)	서귀포시 하원리
김성용	귀일중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안덕면 대평리
신우봉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대정읍 신도리
안민희	민요패 소리왓	한국학(제주민요)	한경면 청수리
현혜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재학	국어국문학	연구 보조

4.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2018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의 조사 지점, 그리고 제보자와 조사자를 보이면 <표 2>와 같다.

<표 2>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번호	조사 지점	제보자	조사자
11	조천읍 함덕리	한아섭, 이용진	김미진
12	구좌읍 한동리	오문봉, 오태봉	김보향
13	성산읍 삼달리	김해생	김미진
14	표선면 성읍리	송순원, 이미생, 현신생	김순자 ·허영선
15	남원읍 수망리	김상옥, 김두천, 현금옥, 김승남, 고신화	최연미
16	서귀포시 하원리	김기연, 오연옥	김승연
17	안덕면 대평리	강인숙, 양성지	김성용
18	대정읍 신도리	변동휘, 이부자, 유순옥, 박창임, 김희옥, 진옥열	신우봉
19	한경면 청수리	문창립, 강성현, 강대흥, 이오생, 오옥희, 김춘선, 강영래, 고성이, 박성요, 오행순	안민희
20	애월읍 고내리	고두규, 장윤삼, 고원방	김보향

5. 사업 추진 과정

'2018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은 총 9개월이 소요되었다. 현지 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추가 채록을 실시하고, 조사된 내용을 전사하도록 하였다.

전사의 통일성과 표준어 대역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구진 회의를 개최하였다. 연구진 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열렸는데, 이때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여 제주어 표기와 표준어 대역을 통일하려고 애썼다. 연구진 모임을 매달 가진 것은 가급적 오류를 줄이고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다음은 회의를 거치며 통일시킨 내용이다.

-제주어 표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주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한다.

-개인 정보는 숨김표로 표시하고, 청취가 안 되는 부분은 음절수만큼 꽃표(**)를 사용한다.

-필요하지 않은 잡담은 삭제한다.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주어와 표준어를 동일하게 한다.

-문장부호 가운데 마침표와 쉼표는 휴지(休止)와 문맥에 따라 표시한다.

-'하다'의 경우 'ᄒᆞ다'가 아닌 경우는 '허다'로 표기한다. '허는구나, 헷구나'처럼 'ㅓ'로 통일한다. 분명하게 '하다'로 발음한 경우에는 '하다'도 허용한다.

-표준 발음과 달리 제보자의 발음이 된소리로 나는 경우는 원형을 밝히어 적되, 발음기호인 [ ] 속에 표기한다.

-보고서의 번호는 2017년에 이어 제주시를 기준으로 동쪽부터 표기한다. 제주시의 표준어 대역 자료가 없기 때문에 '조천읍 함덕리' 구술 자료가『2018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11』이 되는 것이다. 구술 자료의 @는 조사자, #은 제보자라는 표시이다. 제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1, #2, #3 …처럼 표시하였다.

-활자 크기는 11포인트로 하고, 첫 줄은 '들여쓰기'를 하였다.

-장 구분은 두 줄을 띄었다.

한편 월별에 따른 주요 추진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월별에 따른 추진 내용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현지 추가 채록										
추가 전사										
표준어 대역										
자료집 편집·교열, 감수										
자료집 발간										

6. 표준어 대역

표준어 대역의 근거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두었으며, 몇 가지 원칙을 정하여 통일을 기하려고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사된 자료 가운데 10시간 분량의 구술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한다. 이는 조사자에 따른 구술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일의 형평성을 고려한 근거다.
- 조사된 내용 순서에 따라 표준어 대역을 한다. 곧 조사자와 제보자가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표준어 대역 또한 이에 따른다.
- 표준어 대역은 ( ) 속에 넣는다.
- 표준어 대역은 직역을 원칙으로 한다. 의역할 경우는 문맥에 맞게 주석에서 그 내용을 밝힌다.
- 대응 표준어가 없는 경우에는 제주어를 그대로 옮겨 작은따옴표(‘ ’)로 표시하고, 주석에서 그 내용을 밝힌다.(예: ‘바령팟’을)
- ‘에, 으’ 따위의 담화 표지도 가급적 그대로 둔다.
- 외래어는 번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외래어를 그대로 둔다.

7. 주석

주석은 원칙적으로 표준어로 바꿀 수 없는 경우,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달리 쓰인 경우, 지명 등 부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모아진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주석은 각주로 하되, 주석한 제주어에 주 번호를 부여한다.
- 주석은 주어-서술어의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 주석의 대상은 대응 표준어가 없을 경우, 본래의 뜻과 달리 쓰인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한 경우로 한다.
- 지명인 경우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하게 단다.
- 조사 과정의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한 경우에도 주석으로 처리한다.
- 동일한 내용을 주석으로 처리할 때는 면수(3~4면 간격)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Ⅱ. 구술 자료

(@: 최연미, #1: 김상옥, #2: 김두천, #3: 현금옥, #4: 김승남, #5: 고신화)

1. 조사 마을

101001 @ 어, 아까 저 말씀드렷지예? 그, 조사 마을을 제가 지금부터 시작하겟습니다. 여긴 수망리[1]고예.(어, 아까 저 말씀드렸지요? 그, 조사 마을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긴 수망리고요.)

101001 #1 예.(예.)

101001 @ 수망리에서, 이 수망리 마을이 어떻게 형성됀엇는지 삼춘이 아는 대로 골아줍서.(수망리에서, 이 수망리 마을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삼촌이 아는 대로 말해주세요.)

101001 #1 예. 지금 제 나이가 지금 내년이면 팔십을 바라보는데 그, 마을 유례에 대헤서 에, 제가 엿날 조상님들한테 들은 거 또, 제가 아는 거 그걸 중심헤서 조금 말씀드리겟습니다.(예. 지금 제 나이가 내년이면 팔십을 바라보는데 그, 마을 유례에 대해서 에, 제가 옛날 조상님들한테 들은 거, 또 제가 아는 거 그걸 중심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101001 @ 예.(예.)

101001 #1 이 수망리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젓는가 ᄒᆞ면은, 엿날에는 에 요즘 시대에는 신세대, 이 수도가 이거 물이 좋아가지고 아무데서나 사람을, 거줌 헤서 물을 먹엇엇는디 엿날에는 물이 어려워 가지고. 엿날 거, 우리 조상님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기도 강 농사짓고 저기도 강 농사짓고, 허다보니까 이게 그때 수망리라는 것은 아니고 이디 보니까 이 영아리 앞에 실리레 다니다보니까 좀 농사도 지을 만허고 보니깐 특히 물이 좋더라 이겁니다.(이 '수망리'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가 하면, 옛날에는 에 요즘 시대에는 신세대, 이 수도가 이거 물이 좋아가지고 아무데서나 사람을, 거의 해서 물을 먹었었는데 옛날에는 물이 어려워가지고. 옛날 거, 우리 조상님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기도 가서 농사짓고 저기도 가서 농사짓고, 하다보니까 이게 그때 수망리라는 것은 아니고 이리 보니까 이 영아리 앞에 실으러 다니다보니까 좀 농사도 지을 만하고 보니깐 특히 물이 좋더라는 겁니다.)

101001 @ 예.(예.)

101001 #1 이 물은 이 저 하천, 하천이영 물이 보니까 물이 한 서너 곤데 물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아 그럼 여기에 사람이 살만허다 헤가지고, 그때 소식을 들어

1) '수망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를 말한다.

가지고 사람이 하나 둘씩 모여가지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락을 이뤗다 그래요. 이게.(이 물은 이 저 하천, 하천이랑 물이 보니까 물이 한 서너 군데 물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아 그럼 여기에 사람이 살만하다 해가지고, 그때 소식을 들어가지고 사람이 하나 둘씩 모여가지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락을 이뤘다 그래요. 이게.)

101001 @ 저, 제주도 말로 골아줍서예.(저, 제주도 말로 말해주세요.)

101001 #1 예. 물이 그렇게 좋니까, 아 이거 여기서 우리가 여름에 농사짓다근에게 저녁 때 이제 몸 곰구저허면 아, 가까운디 강 목욕도 허고, 뭐 집에서 몸도 곰앗서서 그자 내창에 물 가까운디 가근에 모욕하고 몸 곰기가 가깝고 여 여기가 좋다 헤가지고 게 동네 일름을 지어야할 건디.(예. 물이 그렇게 좋으니까, 아 이거 여기서 우리가 여름에 농사짓다가 저녁 때 이제 몸 감고자하면 아, 가까운데 가서 목욕도 하고, 뭐 집에서 몸도 감아서 그저 냇가에 물 가까운데 가서 목욕하고 몸 감기가 가깝고 여 여기가 좋다 해가지고 그 동네 이름을 지어야할 건데.)

101001 @ 예.(예.)

101001 #1 그때는 동네 일름을 에, 맨 처음에는 수망리라 안하고 물아, 물, 물이 잇다헤고, 물아, 무라, 또 어떤 사름은 물우라, 이렇게 이름 불러 오다가, 에, 일제 말 후에 아 일제시대부터, 아마 그때는 아마 그 글자를 선택헤가지고 그 물 이건 물을 중심헤서 사름이 살기 시작헤시니깐 물 수자를 헤 가지고 마을 이름을 짓자 이렇게 헤가지고, 게 물을 바라보면서 사는 동네다.(그때는 동네 이름을 에, 맨 처음에는 수망리라 안하고 물아, 물, 물이 있다하고, 물아, 무라, 또 어떤 사름은 물우라, 이렇게 이름 불러 오다가, 에, 일제 말 후에 아 일제시대부터, 아마 그때는 아마 그 글자를 선택해가지고 그 물 이건 물을 중심해서 사람이 살기 시작했으니깐 물 수자를 해 가지고 마을 이름을 짓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물을 바라보면서 사는 동네다.)

101001 @ 예.(예.)

101001 #1 게, 겡헤가지고 수망리라 이렇게, 아마 그 물 수자 하고, 바랄 망자하고 마을 리자 헤 가지고 수망리라고 그렇게 지엇다고 합니다.(그래, 그래가지고 수망리라 이렇게, 아마 그 물 수자하고, 바랄 망자하고 마을 리 자해가지고 '수망리'라고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101001 @ 예.(예.)

101001 #1 게게, 그러후에도 이 한 메칠 가뭄이 계속뒈면은 이 인근 마을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그때 허벅으로 물을 져다 먹을 땐디, 허벅을 져가지고 수망리 내창에 와서 물을 길어다 먹고, 또 모욕허레도 가끔 우리가 보면은 이 신흥리[2], 요내 사름덜은 수망리 내창에 완 모욕하고 허영 가는 걸 우리가 보고 헷는데, 그때도 저희가 여기 살 때고, 그 물이 여기 바로 문지수[3]라는 물이 잇는데, 물이 아주 컷어요.(그렇지, 그 후에도 이 한 며칠 가뭄이 계속되면 이 인근 마을에서 물이 없어

2) '신흥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를 말한다.
3) '문지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에 수망리 냇가에 있는 용천수를 말한다.

가지고 그때 허벅으로 물을 져다 먹을 땐데, 허벅을 져가지고 수망리 내에 와서 물을 길어다 먹고, 또 목욕하러 가끔 우리가 보면 이 신흥리, 요 내 사람들은 수망리 내에 와서 목욕하고 해서 가는 걸 우리가 보고 했는데, 그때도 저희가 여기 살 때고, 그 물이 여기 바로 문지수라는 물이 있는데, 물이 아주 컸어요.)

101001 @ 예.(예.)

101001 #1 컷는데 거기 오라근엥에 모욕하는 것도 우리가 좀 기억나고, 또 그 옆이 먹는 물이 잇는데 그 물 길에 에, 여자 분들은 와가지고 그 옆에 모욕하고 갈 때는 허벅에 물 질엉가고 하는 걸 우리가 봣수다.(컸는데 거기 와서 목욕하는 것도 우리가 좀 기억나고, 또 그 옆에 먹는 물이 있는데 그 물 길에 에, 여자 분들은 와가지고 그 옆에 목욕하고 갈 때는 허벅에 물 길어가고 하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101001 @ 예.(예.)

101001 #1 이게 그게 이 저 그게 수망리 유례가 뭰 거 ᄀᆞ트고, 그렇게 그럭저럭 허다보니게 계산헤보는게 수망리 역사가 한 육백년 이상 뒛다고 허는 겁니다.(이게 그게 이 저 그게 수망리 유례가 된 거 같고, 그렇게 그럭저럭 하다 보니 계산해보니 수망리 역사가 한 육백년 이상 됐다고 하는 겁니다.)

101001 @ 예.(예.)

101001 #1 게, 그거 기록에 의하면은 수망리에 맨 처음에 설천헨 성씨가 경주김씨로 뒈어잇는데 그것을 지금에 와서는 그것을 수망리 사람이옌 살긴 살앗는데, 어느 조상이고 어느 성씨가 와서 모녀 정착헷느냐 흔건 살기 시작헤난 거를 증거 할 수가 없어가지고, 조사를 하다하다 보니까 경주 김씨, 제주도에서 제주서 입도 세 번짜 아들이 수망리에 살앗다 하는 기록이 잇어가지고 걸로 수망리 설촌을 지금ᄁᆞ자 잇는 거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씨가 가진 분이 바라보니까 경주 김씨우다. 저도 경주 김씨 자손입니다만은.(그래, 그거 기록에 의하면 수망리에 맨 처음에 설촌해서 성씨가 경주김씨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지금에 와서는 그것을 '수망리' 사람이라고 살긴 살았는데, 어느 조상이고 어느 성씨가 와서 먼저 정착했느냐 한건 살기 시작했던 거를 증거 할 수가 없어가지고, 조사를 하다하다 보니까 경주 김씨, 제주도에서 제주서 입도 세 번째 아들이 '수망리'에 살았다 하는 기록이 있어가지고 걸로 수망리 설 촌을 지금까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씨가 가진 분이 바라보니까 경주 김씨입니다. 저도 경주 김씨 자손입니다만.)

101001 @ 아 기구나 예.

101001 #1 에, 그렇게 헤가지고 그 수망리를 지금까지 이루어가지고 에, 지금에 와서는 수망리란 부락을 이뤄 현재는 이거 남조로 길도 뚫고 하니깐 수망리란게 어떤 부락이고 어떤 사람들은 아, 수망리는 춤, 촌부락 촌부락인데 아주 공기도 좋고 살기도 좋습니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수다.(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수망리'를 지금까지 이루어가지고 에, 지금에 와서는 수망리란 부락을 이뤄 현재는 이거 남조로 길도 뚫고 하니깐 수망리란게 어떤 부락이고 어떤 사람들은 아, 수망리는 참, 촌부락 촌부락인데 아주 공기도 좋고 살기도 좋습니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

이 있습니다.)

101001 @ 예.(예.)

101001 #1 많이 이서가지고 보니깐 뭐 이 웨지에 사름들이게 흔 번 와가지고 여기 감탄헤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멧 사름이 와가지고 여기 저 그 대지를 구입헤가지고 집을 지어서 사는 분들도 잇고, 이렇게 뒈가지고 지금 수망리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봅니다.(오래 있어 가지고 보니깐 뭐 이 외지의 사름들이 한 번 와가지고 여기 감탄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몇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저 그 대지를 구입해 가지고 집을 지어서 사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수망리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101001 @ 예.(예.)

101002 @ 게믄예, 그믄 다음엔 어, 이 수망리는 주로 어떤 성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잇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헤서 들어오게 뒈엇습니까?(그러면요, 그러면 다음엔 어, 이 수망리는 주로 어떤 성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101002 #1 에, 지금 수망리 성씨가진 사람들이 에, 성씨가 경주 김씨, 광산 김씨, 김해 김씨, 연주 현씨, 그것이 아마 대중으로 아마 살고 잇는 걸로 알고 잇습니다. 그니깐 그 성씨에 각 성씨에 대한 거 조상들은 어디서 어떻게 와서 수망리를 들어왓는지는 그건 전혀 모릅니다. 그건 뭐 그 자손들이랑 이게 가서 물어보면은 어디 살다가 수망리 멘 처음 들어왓다는 것이 헌 거시다, 지금 기록이 잇는 걸로 알고 잇습니다.(에, 지금 '수망리' 성씨가진 사람들이 에, 성씨가 경주 김씨, 광산 김씨, 김해 김씨, 연주 현씨, 그것이 아마 어림짐작으로 아마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깐 그 성씨에 각 성씨에 대한 거 조상들은 어디서 어떻게 와서 수망리를 들어왔는지는 그건 전혀 모릅니다. 그건 뭐 그 자손들이랑 이게 가서 물어보면 어디 살다가 '수망리' 맨 처음 들어왔다는 것이 한 것이다, 지금 기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1003 @ 어, 그러면 이 수망리 사람들은 주로 그 옛날에는 어떤 일 허멍 살고 이서낫수가?(어, 그러면 이 수망리 사람들은 주로 그 옛날에는 어떤 일 하면서 살았습니까?)

102003 #1 에, 일이라는 게 농사일이주. 일이라는 게 농사일인데 에, 뭐 봄에는 아 봄에는 농사 준비를 헤가지고 그 쉐로 헤영 쟁기로 헹 밧 갈고, 또 한 음력 한 에, 오월? 오월 유월 달엔 보면은 농사를 짓기 쉬운데 무슨 농사를 지으느냐면 조 농사. 조, 조금잇다가 음력으로 한 칠월 달 뒈면은 모뭘, 이건 오늘 말로하면 메밀이주만은.(에, 일이라는 게 농사일이지. 일이라는 게 농사일인데 에, 뭐 봄에는 아 봄에는 농사 준비를 해 가지고 그 소로 해서 쟁기로 해서 밭 갈고, 또 한 음력 한 에, 오월? 오월 유월엔 보면 농사를 짓기 쉬운데 무슨 농사를 짓나하면 조 농사. 조, 조금 있다가 음력으로 한 칠월 되면 모뭘, 이건 오늘 말로하면 메밀이지만.)

102003 @ 예.(예.)

102003 #1 뭐 또 여기 가까운디 밧이 엇인 사람은 저 디서 한 멈 산에 나가가지고 거 풀밧 개간헤가지고 거기다 뭐 피, 이런 뭐 저 산듸, 산듸라고 ᄒᆞ민 요즘 말로도 거 저 벼 일종인데 게난 뭐 밧, 지금은 거 표준말로 밭벼라고 하는데, 산듸, 그렇게 농사하고 농사 또 그 가을에는 거 거둬들인 다음에는 또 보리농사, 보리농사ᄒᆞ고 그어간에 이시멘은 겨울에는 무신 걸 ᄒᆞ민은 집에서 거 멍석. 지금 멍석이렌 ᄒᆞ믄 지금 시대들은 거 뭔지 몰르지만은 지금도 멍석, 가끔 잇긴 잇는데 멍석, 멧, 방석, 그걸 뭘로 허냐면 거 산듸찍으로, 산듸 찍으로 헤가지고 거 깨끗이 다듬어가지고 걸로 헤가지고 다 여끄는 것이 멍석, 메, 방석 깔고 앉는 방석, 그런 거 겨울에 주로 만들고, 경ᄒᆞ다근에 게 좀 날씨가 뜨뜻헤정 헤가믄 또 다음 농사 준비ᄒᆞ곡.(뭐 또 여기 가까운데 밭이 없는 사람은 저 디서 한 뭐 산에 나가가지고 거 풀밭 개간해가지고 거기다 뭐 피, 이런 뭐 저 밭벼, 밭벼라고 하면 요즘 말로 거 저 벼 일종인데 그러니까 뭐 밭, 지금은 거 표준말로 밭벼라고 하는데, 밭벼, 그렇게 농사하고 농사 또 그 가을에는 거 거둬들인 다음에는 또 보리농사, 보리농사하고 그동안에 있으면 겨울에는 무슨 걸 하냐면 집에서 거 멍석. 지금 멍석이라 하면 지금 시대들은 거 뭔지 모르지만 지금도 멍석, 가끔 있긴 있는데 멍석. 뭣, 방석, 그걸 뭐로 하냐면 거 밭벼 짚으로, 밭벼 짚으로 해가지고 거 깨끗이 다듬어가지고 걸로 해가지고 다 엮는 것이 멍석. 뭐, 방석 깔고 앉는 방석, 그런 거 겨울에 주로 만들고, 그러다가 그래 좀 날씨가 따뜻해져 가면 또 다음 농사 준비하고.)

102003 @ 예.(예.)

102003 #1 농사 준비는 뭐냐믄 밧듸 나가서 밧담들 씨러진 거 영 고처놓고, 뭐 검질도 뽑아주곡, 이런 거 또 겨울에 또 쉐도 멕이곡, 경ᄒᆞ멍 아마 우리 조상님들이 예 살아난 걸로 알고 잇습니다, 뭐.(농사 준비는 뭐냐면 밭에 나가서 밭담들 쓰러진 거 이렇게 고쳐놓고, 뭐 풀도 뽑아주고, 이런 거 또 겨울에 또 소도 먹이고, 그렇게 하면서 아마 우리 조상님들이 이렇게 살아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102003 @ 게민예, 그다음엔 여기 수망리는 또 다른 데하고 비교헤가지고 특별하게 오름이라든가 궤[4], 뭐 이런 것들이 잘도 많고 잘도 아름다운 곳들이 많더라고예?(그러면요, 그다음엔 여기 '수망리'는 또 다른 데하고 비교해가지고 특별하게 오름이라든가 '궤', 뭐 이런 것들이 잘도 많고 잘도 아름다운 곳들이 많더라고요?)

102003 #1 예.(예.)

101004 @ 여기는 오름이라든가 내창, 아니면 그 바위나 궤에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이 이신지 좀 골아줍서. 근데 골멍예, 그냥 예 저 저한테 그냥 이야기 헤주듯이 제주도 말로 골아줍서. 우리 제주어로예.(여기는 오름이라든가 내, 아니면 그 바위나 '궤'에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해주세요. 그런데 말하면서요, 그냥 예 저 저한테 그냥 이야기 해주듯이 제주도 말로 말해주세요. 우리 제주어로요.)

101004 #1 에. 에, 수망리 수망리는 조금 전에 제가 말하듯이 내창이 좋으니깐, 내창에 굴 잇는 것도 내창 읖이 잇게 뒌 거우다.(예. 에, '수망리' '수망리'는 조금

4) '궤'는 위로 큰 바위나 절벽 따위로 가려지고, 땅 속으로 깊숙하게 패어 들어간 '굴'을 말한다.

전에 제가 말하듯이 내가 좋으니깐, 내에 굴 있는 것도 내 옆에 있게 된 겁니다.)

101004 @ 예.(예.)

101004 #1 그것이 그 내창 옆이 보민 돌 영 언덕진딘 보민은 거 잘 모른디 들어가보민은 뭐 굴, 에, 자그마한 것 ᄀᆞᆯ앙은 굴, 좀 큰 건 보민 궤, 또 궤영도 ᄀᆞᆫ고 궤야[5] 영도 ᄒᆞ곡, 게 그런 것이 수망리 내창에 하우다.(그것이 그 내 옆에 보면 돌 이렇게 언덕진데 보면 거 잘 모른 데 들어가 보면 뭐 굴 에, 자그마한 것보고는 굴, 좀 큰 건보면 '궤', 또 '궤'라고도 말하고 '궤야' 이렇게도 말하고, 그래 그런 것이 '수망리' 내에 많아요.)

101004 @ 예.(예.)

101004 #1 헌데 여기 우선 젤 큰 궤는 그 영아리 물영아리 서녁 편 내창에 그 황칠낭도궤야[6], 황칠낭도 그 궤야가 제일 크고 그 밑에 ᄂᆞ려오민 거 또 아니몬진 궤야[7]라고 잇는데, 그 궤야도 크고, 그 밑에 내려가민 궤야 ᄌᆞᆫ 것덜, 기자 사름 기자 아잠시믄 ᄒᆞᆫ 대ᄋᆞ슷 사름썩 게아니믄 일굽, ᄒᆞᆫ 열 사름썩 경ᄒᆞ는 궤야. 그추룩 경 궤야 하수다.(그런데 여기 우선 젤 큰 굴은 그 영아리 물영아리 서녘 편 내에 그 '황칠낭도굴', 황칠나무도 그 굴이 제일 크고 그 밑에 내려오면 거 또 '아니몬진궤야'라고 있는데, 그 '굴'도 크고, 그 밑에 내려가면 '굴' 잔 것들, 그저 사람 그자 앉는다면 한 대여섯 사람씩 아니면 일곱, 한 열 사람씩 그러는 '굴', 그렇게 굴이 많습니다.)

101004 @ 예.(예.)

101004 #1 그리고 굴 ᄀᆞ튼 건, 뭐 건 조사헴시믄 이루 말헐 수 엇고, 그건 뭐 굴 저 굴이엔 헌 건 저 그자 돌 영 엎어져 가지고, 뭐 영 사람 기어들엉 앉을 수 잇는 덴 다 굴이옌 ᄀᆞᆯ으니까.(그리고 굴 같은 건, 뭐 건 조사해가면 이루 말할 수 없고, 그건 뭐 굴 저 굴이라고 한 건 저 그저 돌 이렇게 엎어져 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 기어들어 앉을 수 있는 데는 다 굴이라고 말하니까.)

101004 @ 예.(예.)

101004 #1 엿날 말로. 게 이젠 그 메칠 전에 제가 ᄒᆞᆫ 번 그 누게영 ᄀᆞ찌 가근엥 뎅겨보겐 헤근엥에 뎅겨 봣는디, 이 막 풀이 막 지금은 무성, 낭이영 무성헤부난 굴은 거려 그 가려전 잘 확인은 못허고, 궤는 엿날 그대로 이십디다.(옛날 말로. 그래 이젠 그 며칠 전에 제가 한 번 그 누구하고 같이 가서 다녀보자고 해서 다녀 봤는데, 이 마구 풀이 마구 지금은 무성, 나무하고 무성해버려서 굴은 가려 그 가려져서 잘 확인은 못하고, 굴은 옛날 그대로 있었습니다.)

101004 @ 예.(예.)

101004 #1 뭐, 큰 궤는 보난 이서 가지고 간보니깐 뭐 저 박쥐들도 만히 잇고,

---

5) '궤야'는 '궤'의 다른 표현이다.

6) '황칠낭도궤야'는 서귀포시 수망리에 있는 자연동굴이 하나이다. '황칠남도' 즉 '황칠나뭇길' 밑에 있는 굴 이름을 말한다.

7) '아니몬진궤야'는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에 있는 자연동굴로 '사리물궤'라고도 불린다. 또 다른 이름으로 '아이몬죽은궤'로도 불리는데 이 명칭은 4·3 이후에 붙여진 것으로 추측된다.

살고, 거기 머이가 그 안네 이름 모를 돌에 이끼도 만히 껴고 그건 우리는 모르는디 그거 지금은 만히 나이수다 지금.(뭐, 큰 굴은 보니까 있어서 가서보니까 뭐 저 박쥐들도 많이 있고, 살고, 거기 뭐가 그 안에 이름 모를 돌에 이끼도 많이 꼈고 그건 우리는 모르는데 그거 지금은 많이 나있습니다 지금.)

101005 @ 그리고, 지금 이 수망리는 그 기관 그 뭐 서귀포시에서 오는 기관이라든가 도 기관, 어떤 기관은 엇수가?(그리고, 지금 이 수망리는 그 기관 그 뭐 서귀포시에서 오는 기관이라든가 도 기관, 어떤 기관은 없습니까?)

101005 #1 기관이렌?(기관이라고?)

101005 @ 예를 든다면 무신 경찰서라든가, 뭐 그런 뭐 무슨 뭐 태풍센터라든가 이런 거 같은 거 엇수과?(예를 든다면 무슨 경찰서라든가, 뭐 그런 뭐 무슨 뭐 태풍센터라든가 이런 거 같은 거 없습니까?)

101005 #1 아 지금은 그 그전에는 그거 지금은 뭐 그 기관 무시거.(아 지금은 그 그전에는 그거 지금은 뭐 그 기관 뭐.)

101005 @ 지금 잇는 거마씸.(지금 있는 거요.)

101005 #1 지금 잇는 거는 저기 엇수다, 엇어. 지금 잇는 디는 엇고, 거 요 위에 태풍센터인가 그는 지형으로 한남리[8] 지형이고, 수망리 구역 안에는 뭐 무슨 건 좀 뭐 유명한 저건 기관 들어선 건 지금 엇고.(지금 있는 거는 저기 없습니다, 없어. 지금 있는 데는 없고, 거 요 위에 태풍센터인가 그는 지형으로 한남리 지형이고, 수망리 구역 안에는 뭐 무슨 건 좀 뭐 유명한 저건 기관 들어선 건 지금 없고.)

101005 @ 없고예?(없고요?)

101005 #1 나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이수다.(나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1006 @ 어, 그다음엔 그 이 마을엔 이 수망리에는 그 전에 지금 뭐 수리계[9]는 잇잖아예?(어, 그다음엔 그 이 마을엔 이 수망리에는 그 전에 지금 뭐 수리계는 있잖아요?)

101006#1 예.(예.)

101006 @ 이 수리계 말고 그 전에 뭐 물ᄀᆞ렛계[10]라든가 헤서 어떤 계들 어신가예?(이 수리계 말고 그 전에 뭐 연자매계라든가 해서 어떤 계들 없었나요?)

101006 #1 그전에는 저 일반 단체는 저 영 보민 거, 부인들 뭐 거 무신 여기에는 계라고 안하고 여기는 여기 뭐여 춤, 제주도 사투리 방어론 접이영 협주, 접.(그전에는 저 일반 단체는 저 이렇게 보면 거, 부인들 뭐 거 무슨 여기에는 계라고 안하고 여기는 여기 뭐야 참, 제주도 사투리 방언으론 '접'이라고 합죠, 계.)

101006 @ 아, 접.(아, 계.)

101006 #1 딱, 멧 사름이 모여가지고 우리 뭐 무시거 ᄒᆞ게 무시거 ᄒᆞ게ᄒᆞ믄, 그

8) '한남리'는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를 말한다.
9) '수리계'는 일정지역의 농사용 수도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물 저장고를 만들고 관리 사용하기 위해 조직된 '계'를 말한다.
10) '물ᄀᆞ렛계'는 연자매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까운 동네 사람끼리 만든 계를 말한다.

걸 보고 접이엔 ᄒᆞ여.(딱,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우리 뭐 뭐 하자, 뭐 하자하면, 그걸 보고 계라고 해.)

101006 @ 예.(예.)

101006 #1 아 우린 그 여저들 멧 사름이 아 우린 심심ᄒᆞ니까 접ᄒᆞ게 접ᄒᆞ게. 무슨 접이꽈 ᄒᆞ민 뭐 그자 뭐, 어멍 아방네 돌아가메 서로 기자 저 일 돌봐주는 그런 접.(아 우린 그 여자들 몇 사람이 아 우린 심심하니까 계하자, 계하자. 무슨 곕니까 하면 뭐 그자 뭐, 어머니 아버지네 돌아가며 서로 그저 저 일 돌봐주는 그런 계.)

101006 @ 예.(예.)

101006 #1 게아민 어디 ᄀᆞ찌 가근엥 헹 놈의 일 헤근에게 돈 벌어당에 ᄀᆞ찌 거 돈 모아가지고 예금하는 접.(아니면 어디 같이 가서 해서 남의 일 해서 돈 벌어다가 같이 그거 돈 모아가지고 예금하는 계.)

101006 @ 그걸 예금하는 접은 뭐렌 ᄀᆞᆯ앗수꽈?(그걸 예금하는 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101006 #1 어, 여기서 그냥, 그냥 접이엔 헷주, 접. 기자, 무신 접, 무신 접.(어, 여기서 그냥, 그냥 계라고 했지, 계. 그자, 무슨 계, 무슨 계.)

101006 @ 접.(계.)

101006 #1 에, 여기 뭐 그 전엔 접이엔 헨게 뭐. 에, ᄉᆞ삼사건 후에만 헤도 예를 들어 어, 상엿접.(에, 여기 뭐 그 전엔 계라고 했지 뭐. 에, 사삼사건 후에만 해도 예를 들어 어, 상여계.)

101006 @ 아, 그런 것도 이서낫수가?(아, 그런 것도 있었습니까?)

101006 #1 어, 상엿접, 장막접. 그건 뭐냐 허면은 상여를 흔 멧 사름이 그거 짜가지고 ᄒᆞ나 구입헤가지고 그 저번 안네서 부모 네가 돌아갈 땐 그냥 무료로 갖다 사용허고, 저번에 가입 안 헌 사람은 그 흔번 사용허면은 얼마 임대료 얼마 받고, 다 그렇게 헤수다. 게 장막도 마찬가지. 장막도 그렇게 헨 접이영 헤난 게 이서낫고.(어, 상여계, 장막계. 그건 뭐냐 하면 상여를 한 몇 사람이 그거 짜가지고 하나 구입해가지고 그 저번 안에서 부모 네가 돌아갈 땐 그냥 무료로 갖다 사용하고, 저번에 가입 안 한 사람은 그 한 번 사용하면 얼마 임대료 얼마 받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장막도 마찬가지. 장막도 그렇게 한 계라고 했던 게 있었고.)

101006 @ 예.(예.)

101006 #1 게, 또 그 엿날엔 뭐 거 접이엔 헌 게 종류가 이상한 접들이 하낫는데 저 무슨 벌통접이엔 헌 것도 잇고, 또 무신 검질접, 무신 뭐 무신 뭐 아까 나만 상엿접, 장막접, 이렇게 헤난에, 지금은 그것이 다 어서저불고.(그래, 또 그 옛날엔 뭐 거 계라고 한 게 종류가 이상한 계들이 많았는데 저 무슨 벌통계라고 한 것도 있고, 또 무슨 잡풀계, 무슨 뭐 무슨 뭐 아까 나만 상여계, 장막계, 이렇게 했었어, 지금은 그것이 다 없어져버리고.)

101006 @ 예.(예.)

101006 #1 내 거기서 운영하면 운영자금은 그 아메 돈이 이서야 뒈기 때문에

접원들이 뭐 어디 강 공동으로 놈의 일을 헨 벌든가, 그렇지 않으믄 수금을 허든가, 경헤가지고 공금을 만들어가지고 비용 쓰곡, 그렇게.(계속 거기서 운영하면 운영자금은 그 아마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접원들이 뭐 어디 가서 공동으로 남의 일을 해서 벌든가, 그렇지 않으면 수금을 하든가, 그래가지고 공금을 만들어가지고 비용 쓰고, 그렇게.)

101006 @ 음.(음.)

101006 #1 게, 접헤다가 라고 헤가지고 일 년 연말 뒈민 음력으로 연말 뒈민 딱 회의 소집헤가지고 거기서 그때에는 요즘은 먹을 것이 흔헤가지고 허면 그 당시에 수망리접이라고 하영 홀 때는 게 ᄒᆞ면은 그자 그대로 헤어질 수 없시니까, 그자 대게 보면은 국수 사당 그자 딸려가지고 ᄒᆞᆫ 그릇에 먹고 헤어지고 그렇게.(그래, 계하다가 라고 해가지고 일 년 연말 되면 음력으로 연말 되면 딱 회의 소집해가지고 거기서 그때에는 요즘은 먹을 것이 흔해가지고 하면 그 당시에 수망리계라고 많이 할 때는 그래, 하면 그저 그대로 헤어질 수 없으니까, 그저 대개 보면 국수 사다가 그저 끓여가지고 한 그릇에 먹고 헤어지고 그렇게.)

101006 @ 음.(음.)

101006 #1 그렇게 생활하면서, 겐데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이 아주 엿날 뒈가지고 요새 아으들은 접이영 ᄒᆞ민 무신 말도 몰르고, 엿날 그.(그렇게 생활하면서,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이 아주 옛날 돼가지고 요새 아이들은 계라고 하면 무슨 말도 모르고, 옛날 그.)

101006 @ 그 지금도 수리계는 계속 운영되고 잇지예?(그 지금도 수리계는 계속 운영되고 있지요?)

101006 #1 게, 수리계는 그 지금도 그건 법정에서 그건 인정헤 준거니깐.(그래, 수리계는 그 지금도 그건 법정에서 그건 인정해 준거니깐.)

101006 @ 게난 수리계는 몇 개쯤 이수가? 수망리 안에.(그러니까 수리계는 몇 개쯤 있습니까? 수망리 안에.)

101006 #1 사름?(사람?)

101006 @ 아니 수리계, 계가.(아니, 수리계, 계가.)

101006 #1 ᄒᆞ나, ᄒᆞ나.(하나, 하나.)

101006 @ 하나 이수가?(하나 있습니까?)

101006 #1 어, 하난디.(어, 하난데.)

101006 @ 그 수리계 이름은 뭐우꽈?(그 수리계 이름은 뭡니까?)

101006 #1 그냥 농사계랑, 농사계랑 수리계.(그냥 농사계랑, 농사계랑 수리계.)

101007 @ 아, 농사계량, 수망농사계랑수리계, 이거고 예? 그다음은 이 마을에는 예 어, 수망리만 갖고 잇는 뭔가 독특한 풍습 같은 건 엇수가? 다른 마을과 비교헤가지고.(아, 농사계량, 수망농사계랑수리계, 이거고요? 그다음은 이 마을에는 어, 수망리만 갖고 있는 뭔가 독특한 풍습 같은 건 없습니까? 다른 마을과 비교해가지고.)

101007 #1 풍속은 잇엇는데.(풍속은 있었는데.)

101007 @ 이서난 거, 옛날 이서난 거 골아줍서.(있었던 거, 옛날 있었던 거 말해주세요.)

101007 #1 어, 게 옛날에 풍속은 저 포제[11]엔 헤근엥에.(어, 게 옛날에 풍속은 저 포제라고 해서,)

101007 @ 아, 이젠 포제 안헤마씨?(아, 이제는 포제 안하나요?)

101007 #1 응, 거 중간에 폐지뒈근엥에. 포제도 이서나고, 또 에, 풍속은.(응, 거 중간에 폐지돼서. 포제도 있었고, 또 에, 풍속은.)

101007 @ 풍습, 예.(풍습, 예.)

101007 #1 저 뭐야, 그 요즘 그 부인들 남저덜토 베란보건데 저 일뤳당[12]이라고 헤가지고 어, 그거 일 년에 두 번 유월 초일렛날 ᄒᆞ고 가을 뜰민 음력으로 십일월월 초일렛날은 부녀자들이 그기 관심 잇는 사름덜은 거기 강 그 무당 심방, 심방을 옵센헤근엥에 그 간 자기 가정집에 안녕을 비는 거라마씀.(저 뭐야, 그 요즘 그 부인들 남자들도 봐보니까 저 이렛당이라고 해가지고 어, 그거 일 년에 두 번 유월 초이레 날하고 가을 들면 음력으로 십일월 초이레 날은 부녀자들이 거기 관심 있는 사람들은 거기 강 그 무당 심방, 심방을 오십시오 해서 그 간 자기 가정집에 안녕을 비는 거지요.)

101007 @ 건 지금도 잇수과?(그건 지금도 있습니까?)

101007 #1 예, 지금도 이서. 게가지고 우리 집이 좀 자손들이영 우리 집이 뭐 아프지 말고 자손들도 아프지 말고, 농사도 잘 뒈게시리 ᄒᆞ곡 그자 집이 모든 걸 그자 편안허게 헤줍서, 헹 심방 빌어근엥에 그.(예, 지금도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 집이 좀 자손들하고 우리 집이 뭐 아프지 말고 자손들도 아프지 말고, 농사도 잘 되게끔 하고 그저 집이 모든 걸 그저 편안하게 해주세요, 해서 심방 빌려서 그.)

101007 @ 비는 거예?(비는 거요?)

101007 #1 예 비는데, 옛날에는 아주 작은 굿, 이 일 년에 두 번.(예 비는데, 옛날에는 아주 작은 굿, 이 일 년에 두 번.)

101007 @ 그 심방은 어디 강 모셔와마씨?(그 심방은 어디 가서 모셔오나요?)

101007 #1 어 심방은 타 부락에 강, 응, 수망리는 엇고.(어 심방은 타 부락에 가서, 응, 수망리는 없고.)

101007 @ 아, 예.(아, 예.)

101007 #1 엿날에는 심방도 대게 ᄒᆞᆫ 부락에 ᄒᆞᆫ 두세 사름썩은 다 이섯는데 그것도 이젠 시대가 이영 뒈니까 심방도 어서저부니까, 타 부락에 어디 남원읍에 어디 저디 ᄒᆞ나 잇는데, 그분 초청헤다가 그 ᄒᆞ는 거 닮수다.(옛날에는 심방도 대개 한 부락에 한 두세 사람씩은 다 있었는데 그 것도 이젠 시대가 이렇게 되니까 심방도 없어져버려서, 타 부락에 어디 남원읍에 어디 저기 하나 있는데, 그분 초청해다가 그 하는 거 같습니다.)

---

11) '포제'란 '酺祭, 즉 마을을 지킨다는 신에게 온 마을이 정성을 다하여 소원을 비는 의식'을 의미한다.
12) '일뤳당'은 '이렛당'을 말한다. 7·17·27일에 다니는 신당. 이 당에 모신 신 일뤠할망은 어린아이의 치병과 산육을 담당한다.

101007 @ 예.(예.)

101007 #1 에, 거기 지금 그 그것이 이제 민속 뭐로 헤가지고 이제 그 행정당국에서 것도 거기 걸 보존허라고 헤가지고 그 신청허니까 그기 좀 집도 지어주고, 지금 헤 가지고 이제 집 지어주니까 또 그디 가는 사름덜은 사름의 욕심이라는 게 아주 밤에 보통 아침 새벡에들 갑니다게.(예, 거기 지금 그 그것이 이제 민속 뭐로 해가지고 이제 그 행정당국에서 것도 거기 걸 보존하라고 해가지고 그 신청하니까 거기 좀 집도 지어주고, 지금 해가지고 이제 집 지어주니깐 또 거기 가는 사람들은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아주 밤에 보통 아침 새벽에들 갑니다.)

101007 @ 예.(예.)

101007 #1 새벡에, 새벡에 한 다섯 시 만 뒈민 가는데 가보민 전깃불이 없어가지고 기냥 촛불 켜서 헷엇는데 이젠 전기를 대달라 헤근엥 또 말이 잇는 거 ᄀᆞ튼디, 건 앞으로 거 뭐 부락에 이장도 잇고 허니깐 건 알아서 ᄒᆞ는 거, 거 뭐 일뀃당이란 게 보존뒈 이수다.(새벽에, 새벽에 한 다섯 시 만 되면 가는데 가보면 전깃불이 없어가지고 그냥 촛불 켜서 했었는데 이젠 전기를 대달라 해서 또 말이 있는 거 같은데, 건 앞으로 거 뭐 부락에 이장도 있고 하니깐 건 알아서 하는 거, 거 뭐 '이렛당'이란 게 보존돼 있습니다.)

101008 @ 어, 저 수망리의 특산물로는 뭘 얘기할 수 잇수가?(어, 저 수망리의 특산물로는 뭘 얘기할 수 있습니까?)

101008 #1 지금 현재 감귤.(지금 현재 감귤.)

101008 @ 감귤예.(감귤요.)

101008 #1 어, 감귤.(어, 감귤,)

101008 @ 감귤밖에 없고예?(감귤밖에 없고요?)

101008 #1 응, 감귤벳긔 엇고.(응, 감귤밖에 없고.)

101009 @ 그다음에 아 수망리 하면 정말 이건 정말 자랑스러워라고 할 수 잇는 어떤 자랑스러운 건 뭐 잇수과?(그다음에 아 수망리 하면 정말 이건 정말 자랑스러워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자랑스러운 건 뭐 있습니까?)

101009 #1 자랑스러운 건 뭐 특히 무신 뭐 어 웨지엣 사람들 왕 보면서 첫 다 공기 좋다, 뭐 그거 자연, 자연이지만은 공기 좋다, 그거뿐이주 뭐, 다른 건 엇고.(자랑스러운 건 뭐 특히 무슨 뭐 어 외지의 사람들 와서 보면서 첫 다 공기 좋다, 뭐 그거 자연, 자연이지만은 공기 좋다, 그거뿐이지 뭐, 다른 건 없고.)

101009 @ 예.(예.)

101009 #1 그냥 공기 좋다, 사람 살기 좋다. 에 또 촌부락 중에선 교통이 조금 어느 정도 편리허다.(그냥 공기 좋다, 사람 살기 좋다. 에 또 촌부락 중에선 교통이 조금 어느 정도 편리하다.)

101009 @ 예, 교통이 편리한 거예.(예, 교통이 편리한 거요.)

101009 #1 그런 평을 지금 받고 잇는 겁니다.(그런 평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101009 @ 뭔가 마을 사람들끼리 어떤 뭐 화목한 거라던가 이런 것들은 어떵 생각헴수과?(뭔가 마을 사람들끼리 어떤 뭐 화목한 거라던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101009 #1 마을 사람들은 뭐, 막 동네가 족아놓니깐 별로 무신 여긴 동네사람들이 영 보니깐 뭐 춤 우스운 말로 쌉는 사람들도 엇고, 몇 년 전에 또 범줴 없는 마을이라고 헤가지고 그거 추천뒈 가지고, 또 경찰서장상도 받아나고 헤난 동네우다. 그난 뭐 무신 뭐 그렇게 동네가 족아놓니까양.(마을 사람들은 뭐, 막 동네가 작아놓으니까 별로 무슨 여긴 동네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깐 뭐 참 우스운 말로 싸우는 사람들도 없고, 몇 년 전에 또 범죄 없는 마을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추천돼 가지고, 또 경찰서장상도 받았고 했던 동넵니다. 그러니 뭐 무슨 뭐 그렇게 동네가 작아놓으니까요.)

101009 @ 예.(예.)

101009 #1 그 막 그렇게 시끄러운 동네는 아니라고 또 생각합니다.(그 막 그렇게 시끄러운 동네는 아니라고 또 생각합니다.)

101009 @ 기구나예. 아니 마을지 지금 가본[13] 읽다 보니까, 보난 베랑 이사 가는 사람이 없더라고예?(그렇군요. 아니 마을지 지금 가본 읽다 보니까, 보니 별로 이사 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101009 #1 예.(예.)

101009 @ 이사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건 그 마을이 계속 좋아근에 살고 잇다, 라는 말도 뒈기도 허잖아예? 보니까 두 가지로 평가하긴 헤선게마는예? 저는 좀 그런 걸 좀 느껴져가지고예? 여기 보니까 다 아늑아늑 하잖아예? 음, 그런 부분들 특히 수망리에서는 어떤 것들이 이서가지고 참 마을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잇는 거, 공기 말고 거 말고 다른 건 엇수가?(이사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건 그 마을이 계속 좋아서 살고 있다, 라는 말도 되기도 하잖아요? 보니까 두 가지로 평가하긴 했었는데요? 저는 좀 그런 걸 좀 느껴져 가지고요? 여기 보니까 다 아늑아늑 하잖아요? 음, 그런 부분들 특히 수망리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어가지고 참 마을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공기 말고 거 말고 다른 건 없습니까?)

101009 #1 수망리는 지금 이사 가는 사름이 별로 엇다는 거는 지금 건, 나 경우도 지금 나나 우리 영 둘이 죽어불민은 우리 아들들이 지금 시에 살고 서울에 사는디, 수망리에 살런지 말런지 그건 장담을 못허고, 그런 사름덜 젊은 사름만 지금 아들 뒌 사름덜만 다 저 어디 웨지에 나간 사름만 많지 그 웨로는 나이든 사름은 지금 수망리에 떠난 사름덜이 엇수다.(수망리는 지금 이사 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는 지금 건, 내경우도 지금 나나 우리 이렇게 둘이 죽어버리면 우리 아들들이 지금 시에 살고 서울에 사는데, 수망리에 살는지 말는지 그건 장담을 못하고, 그런 사람들 젊은 사람만 지금 아들된 사람들만 다 저 어디 외지에 나간 사람만 많지 그 외로는 나이든 사람은 지금 수망리에 떠난 사람들이 없습니다.)

13) '마을지 가본'은 현재 집필과 편집 중인 수망리 마을지를 말한다.

101009 @ 예.(예.)

101009 #1 그자 그 자기 에, 엿날 하르방 할망들 물려준 재산이 마, 지방이라고 헤가지고 지금 나가 지금 알기에는 대부분 다 지금 여길 지키는 게난, 그분들이 지금 대부분 보면은 나이든 분인디 그분들 돌아가면 몰릅주. 앞으로, 앞으로 어떻게 뒐런지.(그저 그 자기 에,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 물려준 재산이 마, 지방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알기에는 대부분 다 지금 여길 지키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대부분 보면 나이든 분인데 그분들 돌아가면 모르지요. 앞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101009 @ 음.(음.)

101009 #1 그건 뭐 거는 저 나 생각엔 그분들 대게 돌아가면은 아마 수망리는 앞으로 한 십년? 십년 후에는 호수가 만이 적어지지 않을런가? 거 나 지금 예칙허는 거 지금. 게, 그 지금 후대들이 아들들이나 에, 저 타부락에 살다근엥에 게, 여기 수망리 들어오기는 아주 뭐, 더러 들어오는 사름도 잇긴 이실 거우다.(그건 뭐 거는 저 내 생각엔 그분들 대개 돌아가면 아마 수망리는 앞으로 한 십년? 십년 후에는 호수가 많이 적어지지 않을런가? 거 내 지금 예측하는 거 지금. 그래, 그 지금 후대들이 아들들이나 에, 저 타 부락에 살다가 그래, 여기 수망리 들어오기는 아주 뭐, 더러 들어오는 사람도 있긴 있을 겁니다.)

101009 @ 예.(예.)

101009 #1 아 이게 조금 뭐 백프로 다 들어온다는 건 난 장담을 못헙주.(아 이게 조금 뭐 백프로 다 들어온다는 건 난 장담을 못하지요.)

101009 @ 게 삼춘네 아이들은 안 들어오켄마씨?(게 삼촌네 아이들은 안 들어오겠대요?)

101009 #1 그난 지금 들어온다 만다는 나 아직은 들어보지도 아녀고. 게니까 그 뭐 건 몰릅주. 우리 큰아들쯤은 우리가 또 죽으민 이디 오라근엥에 살는지는 몰를 거, 족은아들은 당추 안 올 거, 허허.(그러니까 지금 들어온다, 안 온다는 나 아직은 들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뭐 건 모르지요. 우리 큰아들쯤은 우리가 또 죽으면 여기 와서 살는지는 모를 거. 작은아들은 당최 안 올 거, 허허.)

101010 @ 그럼 이제는예 이 수망리 마을에 대헤가지고 저가 질문을 하지 않은 것들도 잇을거주마씨? 아 이건 수망리에는 꼭 이건 얘기하고 싶어, 헤서 말할 거 이시믄 골아줍서.(그럼 이제는요 이 수망리 마을에 대해가지고 저가 질문을 하지 않은 것들도 있을 거거든요? 아 이건 수망리에는 꼭 이건 얘기하고 싶어, 해서 말할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101010 #1 에, 수망리는 이거 뭐 제가 자랑이라 허면은 자랑일 수도 잇고 뭐헌데, 수망리가 인구가 족고 부락이 족아도 조금 사소한 인재들이 만히 이수다. 예를 들어 무슨 뭐 큰 인물은 못 뒈지만은 허다못헹 지방 공무원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수망리가, 지금 타 부락에서도 말헙니다. 아, 수망린 부락이 족아도 사람들이 인재가 좀 만히 나는 부락이다.(에, 수망리는 이거 뭐 제가 자랑이라 하면 자랑일

수도 있고 뭐한데, 수망리가 인구가 작고 부락이 작아도 조금 사소한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슨 뭐 큰 인물은 못 되지만 하다못해 지방 공무원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수망리가, 지금 타 부락에서도 말합니다. 아, 수망린 부락이 작아도 사람들이 인재가 좀 많이 나는 부락이다.)

101010 @ 인재가 많이예?(인재가 많이요?)

101010 #1 예를 들면 뭐 읍, 밑으로 가선 면장. 응, 엿날부터 면장 헤난 분, 읍장 헤난 분 뭐 또 중간에 와가서는 그 전에 군행위 때 군수 헤난 사름도 수망리 출신이고, 대학 교수도 수망리서 멧 사름이 보고, 지금 판사 ᄒᆞ는 사름도 또 아시지만 그 현승도 판사가 수망리 사름이우다. 지금 제주시에서 변호사 거 허는데, 기타 그 웨 공무원들 뭐 거도 직책이 얕은 공무원이 아니라 보통 보면은 제주도청에 가도 다 국장급 이상 공무원 헌 사름도 ᄋᆞ라 사름이나 헤낫수다.(예를 들면 뭐 읍, 밑으로 가선 면장. 응, 옛날부터 면장 했던 분, 읍장 했던 분 뭐 또 중간에 와서는 그 전에 군 행위 때 군수 했던 사람도 수망리 출신이고, 대학 교수도 수망리서 몇 사람이 보고, 지금 판사 하는 사람도 또 아시지만 그 현승도 판사가 수망리 사람입니다. 지금 제주시에서 변호사 거 하는데, 기타 그 외 공무원들 뭐 그것도 직책이 얕은 공무원이 아니라 보통 보면 제주도청에 가도 다 국장급 이상 공무원 한 사람도 여러 사람이나 했었습니다.)

2. 제보자 일생(1)

102001 @ 공부를 잘 헤낫구나예? 음, 알앗습니다. 그다음엔 그냥 이거는 그 개인적인 질문이라예? 여기서는 두 번째 제보자 일생인데, 어 삼춘이 여기 원래 수망리에서 태어나고 자랏다고 하셧잖아예?(공부를 잘 했었군요? 음, 알았습니다. 그다음엔 그냥 이거는 그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여기서는 두 번째 제보자 일생인데, 어 삼촌이 여기 원래 수망리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하셨잖아요?)

102002 #1 예.(예.)

102002 @ 그러면 그 낳고 자란 그 이야기들을 저가 지금부터 질문하겟습니다, 뭐. 삼춘네 부모님은 어떤 일을 헷수가?(그러면 그 낳고 자란 그 이야기들을 저가 지금부터 질문하겠습니다, 뭐. 삼촌네 부모님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102002 #1 농사. 엿날엔 농사.(농사. 옛날엔 농사.)

102002 @ 무신? 농사도 어떤 농사?(무슨? 농사도 어떤 농사?)

102002 #1 농사, 겨울엔 보리농사, 여름에는 조, 메밀, 산듸, 산듸렌 헤영 밧벼 그거.(농사, 겨울엔 보리농사, 여름에는 조, 메밀, 밭벼, '산듸'라고 해서 밭벼 그거.)

102002 @ 예, 그거예.(예, 그거요.)

102002 #1 감저, 지슬.(고구마, 감자.)

102003 @ 어머니 고향은 어디엿수가?(어머니 고향은 어디였습니까?)

102003 #1 에, 우리 어머니 고향은 저 옥기[14], 의귀리.(에, 우리 어머니 고향은 저 옥기, 의귀리.)

102004 @ 아 옥기예. 동네에서 시집왓구나예. 어, 그 삼춘네 어렷을 때, 어렷을 때는 어떤 놀이를 하면서 자라낫수가?(아 의귀리요. 동네에서 시집왔군요. 어, 그 삼촌네 어렸을 때, 어렸을 때는 어떤 놀이를 하면서 자랐습니까?)

102004 #1 우리 두린 땐 자치기. 에, 동네에 나가민 자치기헤근엥에 자치기도 그 종류가 두 가지라가지고.(우리 어린 땐 자치기. 에, 동네에 나가면 자치기해서 자치기도 그 종류가 두 가지라가지고.)

102004 @ 그때 그건 자치기에 대해서 저가 다시 물어볼 기회가 이실 거우다 뭐. 어떤 놀이들을 헷는지 골아줍서.(그때 그건 자치기에 대해서 저가 다시 물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뭐. 어떤 놀이들을 했는지 말해주세요.)

102004 #1 자치기.(자치기.)

102004 @ 예, 자치기.(예, 자치기.)

102004 #1 자치기, 방치기, 어 그런 정도.(자치기, 방치기, 어 그런 정도.)

102004 @ 그런 정도예, 여자들은마씸? 여자들.(그런 정도요, 여자들은요? 여자들.)

102004 #1 여자들은 대게 보민 고무줄, 방치기 여자도 방치기.(여자들은 대게 보면 고무줄, 방치기 여자도 방치기.)

102004 @ 벳뜰락 같은 거예?(줄넘기 같은 거요?)

102004 #1 예.(예.)

102004 @ 것도 나중에 자치기 방치기도 다시 자세히 물어볼 때 그때 또 자세히 골아줍서예. 그다음엔 어.(것도 나중에 자치기 방치기도 다시 자세히 물어볼 때 그때 또 자세히 말해주세요. 그다음엔 어.)

102004 #1 어 그 남자들은 방치기하고 그 저 고망치기라고 헤가지고 여기서 땅에다가 구멍을 파던가 요만큼 헤가져. 거기다 동전 던저가지고.(어 그 남자들은 방치기하고 그 저 구멍치기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땅에다가 구멍을 파든가 요만큼 해져가. 거기다 동전 던져가지고.)

102004 @ 아.(아.)

102004 #1 동전 던지는 걸로, 동전 엇이민은 거 돌이나, 돌아니면은 그 저 엿날엔 그 사그막주제기〔쭈제기〕엔 헤가지고 그 그릇 깨진 거. 그릇 깨진 거 똥글라케 만든 거에, 사방치기옌 헤근엥에.(동전 던지는 걸로, 동전 없으면 거 돌이나, 돌아니면 그 저 옛날엔 그 사금파리라고 해가지고 그 그릇 깨진 거. 그릇 깨진 거 동글게 만든 거에, 사방치기라 해서.)

102004 @사그막주제기예?(사금파리요?)

102004 #1 어, 기자 에, 길이는 자기네끼리 정헤 가지고 막 보면 보통 흔 삼메다.삼메다 거리헤가지고 그련 거기 넣는 거, 그런 놀이.(어, 그저 에, 길이는 자기네

14) '옥기'는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를 말한다.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와 붙은 마을이다.

끼리 정해 가지고 막 보면 보통 한 삼 미터. 삼 미터 거리해가지고 그려서 거기 넣는 거, 그런 놀이.)

102005 @ 그, 삼춘이 아까 삼십, 삼십칠 년생이엇덴 헷수과?(그, 삼촌이 아까 삼십, 삼십칠 년생이라고 했습니까?)

102005 #1 예.(예.)

102005 @ 삼십칠 년생이면 해방이 사십오 년이니까 해방 그때가 멧 나엿수과?(삼십칠 년생이면 해방이 사십오 년이니까 해방 그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102005 #1 에, 열, ᄀᆞ만이시라, 사삼사건 때가 열두 술이니까, 사십팔 년도니까 열세 술? 일곱, 아이 아홉 술인가?(에, 열, 가만있어라, 사삼사건 때가 열두 살이니까, 사십팔 년도니까 열세 살? 일곱, 아니 아홉 살인가?)

102005 @ 기지예? 아홉 살 쯤. 그믄 그때 일제강점기 때 아홉 살 때까지 혹시 기억나는 거 이시믄 ᄀᆞᆯ아줍서.(그렇지요? 아홉 살 쯤. 그러면 그때 일제강점기 때 아홉 살 때까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102005 #1 가물가물 허우다.(가물가물 합니다.)

102005 @ 그때 그.(그때 그.)

102005 #1 그때, 그때는 에, 일제시대 기억나는 건 우리 아버지가 그때 일제시대 반장을 뎅겻수다.(그때, 그때는 에, 일제시대 기억나는 건 우리 아버지가 그때 일제시대 반장을 다녔습니다.)

102005 @ 음.(음.)

102005 #1 반장을 뎅겨가지고 그때 일본 사름들이영 와가지고 그때 그 보리공출.(반장을 다녀가지고 그때 일본 사람들하고 와가지고 그때 그 보리공출.)

102005 @ 예.(예.)

102005 #1 보리공출을 내노라, 보리공출을. 게난 보리공출을 혼 밧, 수망리면 수망리 오면은 수망리 그땐 구장인디 반 별로 배당을 하는 거라마씀.(보리공출을 내놔라, 보리공출을. 그러니까 보리공출을 한 밭, 수망리면 수망리 오면 수망리 그땐 구장인데 반 별로 배당을 하는 겁니다.)

102005 @ 예.(예.)

102005 #1 어느 반에 멧 말, 어느 반에 멧 말 헤근엥에 헨. 게난, 그 반장이 거두와근엥에 보리를 내노라. 기연 우리 아버지가 반장일 때, 혼 번은 그 여름에 여름에는 첨, 농사지으민 밧듸 검질 멧수다.(어느 반에 몇 말, 어느 반에 몇 말해서 했어. 그러니까, 그 반장이 거둬 와서 보리를 내놔라,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반장일 때, 한 번은 그 여름에 여름에는 참, 농사지으면 밭에 김을 맸습니다.)

102005 @ 음.(음.)

102005 #1 조 밭이 강, 아장 검질양, ᄀᆞᆯ갱이로 검질을 메는디, 검질 멘 집에 돌아완 보니 마당에 살림들이 ᄆᆞᆫ딱 꺼내놧어 . 이건 뭐냐면 우리 반에 보리공출을 그거 할당량을 내놓지 못헤니깐 그 주재소. 그때는 그 일본놈들이 와가지고, 주재소에서 와가지고 우리 집이 곡식을 ᄆᆞᆫ 털어 가분거라마씀.(조 밭에 가서, 앉아서 김이

요, 호미로 김을 매는데, 김매서 집에 돌아와 보니 마당에 살림들이 모두 꺼내놓았어. 이건 뭐냐면 우리 반에 보리공출을 그 거 할당량을 내놓지 못하니까 그 주재소. 그때는 그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주재소에서 와가지고 우리 집의 곡식을 모두 털어 가버린 거예요.)

102005 @ 아.(아.)

102005 #1 겐 저녁거레가 없어가지고 요 뒷집에 사름이 사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아 우리 집에 완 보난 저 주재소에서 오란 먹을 거 문 털어 가부난 저냑 먹을 거 엇수다. 저냑 먹을 거 좀 꿔십센 헨 꾸언에 그날 저녁은 먹고.(그래서는 저녁거리가 없어가지고 요 뒷집에 사람이 사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아 우리 집에 와서 보니 저 주재소에서 와서는 먹을 거 모두 털어 가버려서 저녁 먹을 거 없습니다, 저녁 먹을 거 좀 꿔 주십사 해서 꿔서 그날 저녁은 먹고.)

102005 @ 예.(예.)

102005 #1 기엔 다음날은 먹어뒈야 뒐 거 아이꽈? 게난 우리 어머니가 옥께 친정엘 가는 거라마씀. 친정에 가가지고 빌어 온 거 보니까 보리 뭐 그때 보리 그냥엔, 지금은 뭐 차로 실른다 허당, 뭣슨 경헤도 그때는 지엉 뎅길 때난, 보리 거 멧 말산디. 아마 나가 보기엔 대충 흔 다슷말 아니믄 서 말쯤 뒐 건가? 거 보릴 지어, 빌언 오란에 빌어서. 오멍 빌엉 온 겁주. 그땐 뭐 친정이 가시니깐. 그거 먹언에 이젠 그 씨앗을 어떻게 구헤, 씨앗 씨 헐 거꼬지 문딱 거 털어가부니깐. 경헤 가지고 겨울에 농사 진 거. 전 다음에는 그거 기억이 확실히 나고.(그래서는 다음날은 먹어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어머니가 의귀 친정엘 가는 거예요. 친정에 가가지고 빌어서 온 것을 보니까 보리 뭐 그때 보리 그냥 에, 지금은 뭐 차로 싣는다 하다가, 무엇은 그렇게 해도 그때는 져서 다닐 때니까, 보리 거 몇 말인지. 아마 내가 보기엔 대충 한 다섯 말 아니면 서 말쯤 될 건가? 거 보릴 져, 빌어서 와서 빌어서. 오면서 빌어서 온 거지요. 그땐 뭐 친정에 갔으니까. 그거 먹어서 이젠 그 씨앗을 어떻게 구해, 씨앗 씨 할 거까지 모두 거 털어 가버리니깐. 그래 가지고 겨울에 농사 진 거. 지은 다음에는 그거 기억이 확실히 나고.)

102005 @ 아, 예.(아, 예.)

102005 #1 또 흔 번은 그 아마 일본놈들이 망헤 갈 땐ᄀᆞ라 일본놈들 제주도에 와가지고 ᄆᆞᆯ, 전쟁ᄆᆞᆯ인데 ᄆᆞᆯ 먹을 걸 또 반으로, 우리 아버지가 반장 뎅기멍 고초를 많이 거껏수다. 매도 하영 맞앗젠 ᄒᆞ고, 그 말 잘 안 들으고 할당량 못 채우면은 게, 보리북매[15], 보리북매 헌 말이 그때 나온 말이엔 헙주.(또 한 번은 그 아마 일본놈들이 망해 갈 때인지 일본놈들 제주도에 와가지고 말, 전쟁말인데 말 먹을 걸 또 반으로, 우리 아버지가 반장 다니며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다고 하고, 그 말 잘 안 듣고 할당량 못 채우면 그래, '보리북매, ''보리북매' 한 말이 그때 나온 말이라고 하지요.)

102005 @ 예.(예.)

15) '보리북매'는 일제강점기 때 보리쌀 등 공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맞는 매를 말한다.

102005 #1 보리 공출헐 때 안 내놔불민 지서에 심어당 놘 그자 막 두드리곡, 대표로 너네 반에 반장 그거 할당 못 체웟이니까 벌 받으렌 반장 막 두드리고 헤낫젠 헙니다. 겐 우리 아버지가 아마 고초를 만히 겨껏젠 헙주.(보리 공출할 때 안 내놓으면 지서에 심어다가 놓고 그저 마구 두드리고, 대표로 너네 반에 반장 그거 할당 못 채웠으니까 벌 받으라고 반장 막 두드리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우리 아버지가 아마 고초를 많이 겪었다고 하지요.)

102005 @ 예.(예.)

102005 #1 겐디 흔 번인가 그 물 먹을 걸 헤 노라, 겐 여름에니까 물 먹을 걸 뭘 하냐믄, 끅섭, 자굴, 멀리썹 그것을 반에서 활당헤가지고 얼마만큼 헤오라 헨. 겐, 우리 아버지가 반장이니까 반원을 전부 동원헨 그때 우리 영, 여기 살 때니까, 저 올레에 전부 집합시켜가지고, 게 우리 반에서 그때 물허고 마차허는 사람이 ᄒᆞ나 이서나수다. 거 물이 상당히 좋아마씀. 그 성은 강씨인데, 당신 이거 시꺼근엥에 남원이 주재소에 갇다주렌 헤가지고, 에 그 사람은 그 멀리꿀이영 꺽썹이영 자굴이영 헤논 거 시껀 남원 시껑 가난 그 주재소에 일본사름덜이 물 흔 번 타보겐 헨 물 탄 가부난 걸로 끗. 물도 일러불곡 그 사람은. 헤영 그 사람은 ᄉᆞ삼사건 때 죽엇수다.(그런데 한 번인가 그 말 먹을 걸 해 놔라, 그래서는 여름이니 말 먹을 걸 뭘 하냐면, 칡잎, 자귀풀, 머루잎 그것을 반에서 할당해 가지고 얼마만큼 해오라 해서. 그래서는, 우리 아버지가 반장이니까 반원을 전부 동원해서 그때 우리 이렇게, 여기 살 때니까, 저 올레에 전부 집합시켜가지고, 그래 우리 반에서 그때 말하고 마차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 말이 상당히 좋아요. 그 성은 강씨인데, 당신 이거 실어서 남원의 주재소에 갖다 주라 해가지고 에, 그 사람은 그 머루 줄기, 칡잎, 자귀풀이랑 해놓은 거 실어서 남원 실어서 가니까, 그 주재소에 일본사람들이 말 한 번 타보자고 해서 말 타서 가버리니까 걸로 끝. 말도 잃어버리고 그 사람은. 해서 그 사람은 사삼사건 때 죽었습니다.)

102005 @ 아, 예.(아, 예.)

102005 #1 또, 그 ᄉᆞ십팔년도에. 게 경 헌 일본시대에 그렇게 우리가 좀 고초를 겨꺼난 거 알아집니다. 그때 게아시믄 우리 평민들은 몰라실 건디 우리 그 그때 우리 아바지가 그 당시에 반장을 어떻게 경 헤가지고 그렇게 고초를 하영 겨꺼난 건, 건 확실히 지금도 기억이납니다.(또, 그 사십팔 년도에. 그래 그렇게 한 일본시대에 그렇게 우리가 좀 고초를 겪어난 거 알아집니다.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 평민들은 몰랐을 건데 우리 그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 당시에 반장을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고초를 많이 겪었던 건, 건 확실히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102005 @ 예.(예.)

102005 #1 대게는, ᄉᆞ십오 년도엔 게 그런디 그때 모물 갈레 가는 디 모물 갈안 집이오란 듣난 해방뒛저 헨, 소문이 나가지고, 저 해방뒌 줄 알고. 게난 거 그 두 후에 우리가 거 모물을 가는디 모물 어느 때쯤 갈앙 좋고마씀 허민, 거 들을 거 엇다, 양력 거 해방되는 해에 모물 잘 뒈나가는 양력 팔월 십오일 중심이믄 모물 갈

민 뒌다, 뒌다 헤근엥에 그런 속담도 나놧수다.(대게는, 사십오 년도엔 그래 그런데 그때 메밀 갈러 가는데 메밀 갈아서 집에 와서 들으니까 해방됐다 해서, 소문이 나가지고, 저 해방된 줄 알고. 그러니 거 그 뒤에 우리가 거 메밀을 가는데 메밀 어느 때쯤 갈아서 좋을까요 하면, 그거 들을 거 없다, 양력 거 해방되는 해에 메밀 잘 돼 나가는 양력 팔월 십오일 중심이면 메밀 갈면 된다, 된다 해서 그런 속담도 났었습니다.)

102005 @ 예.(예.)

102005 #1 게 거, 그게 우리가 모물 갈레 간 오랑보난 해방뒛젠 그때 알고, 그 두에 삼년 이딴 ᄉᆞ삼사건 뭐 생겨불고 ᄒᆞ난, 뭐 기어 그럭저럭 기자. 게 지금 우리 세대가 고생을 하영 헷수다, 영 생각헹보면은.(그래 거, 그게 우리가 메밀 갈러 간 와보니 해방됐다고 그때 알고, 그 뒤에 삼년 이따가 사삼사건 뭐 생겨버리고 하니까, 뭐 그래 그럭저럭 그저. 그래 지금 우리 세대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102005 @ 예.(예.)

102005 #1 이 일제시대, 일제시대의 무엇이 기억뒈고, ᄉᆞ삼사건 기억하고 ᄉᆞ삼사건 그 우에 살면서 거 흉년 들어가지고 먹지 못헤 가지고 그냥 막 고생헤난 생각 ᄒᆞ면은 뭐, 참, 한이 없는데 뭐 흉년 들 때도 그렇게 먹지 못헤가지고, 경 사람이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엇이 살앗고.(이 일제시대, 일제시대의 무엇이 기억되고, 사삼사건 기억하고 사삼사건 그 전에 살면서 거 흉년 들어가지고 먹지 못해 그냥 막 고생해난 생각하면 뭐, 참, 한이 없는데 뭐 흉년 들 때도 그렇게 먹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사람이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살았고.)

102006 @ 사삼사건 때, 어 여기는 중산간 마을이니까 막 소개도 하고 헷잖아예?(사삼사건 때, 어 여기는 중산간 마을이니까 막 소개도 하고 했잖아요?)

102006 #1 예, 여기 중산간 부락이니까, 막 부랙이 아주 막 전소 뒈낫수다.(예, 여기 중산간 부락이니까, 막 부락이 아주 막 전소 됐었습니다.)

102006 @ 사삼사건 때 겨껏거나, 봣거나, 그니까 들은 거 말고 예, 겨껏거나 그 봣던 얘기들을 좀 헤줍서.(사삼사건 때 겪었거나, 봤거나, 그러니까 들은 거 말고 예, 겪었거나 그 봤던 얘기들을 좀 해주세요.)

102006 #1 아이고 그건 ᄒᆞ젠ᄒᆞ민 내가 밤새도 다 못홀 건디?(아이고 그건 하려 하면 내가 밤새도 다 못할 건데?)

102006 @ 밤새도 게도 골아봅서.(밤새도 그래도 말해보세요.)

102006 #1 그 ᄉᆞ삼사건이, 그거 뭐 우리는 그때 나가 열 두 술이니까. 열두 술, 지금 초등학교 뭐여. 오학년 뭘 건가?(그 사삼사건이, 그거 뭐 우리는 그때 나가 열 두 살이니까. 열두 살, 지금 초등학교 뭐야. 오학년 될 건가?)

102006 @ 사·오 학년마씨.(사·오 학년요.)

102006 #1 게 요즘 아이들은 내가 생각헤보민 요즘 열두 술 난 애들 엿날 그 ᄉᆞ삼사건 당시추룩 ᄒᆞ면은 그렇게 좀 버텨나갈 수 잇엇을까, 난 영 생각남수다. 하,

근데 ᄉᆞ삼사건 그때 나니까, 고생이야. 그거 신발도 시카 초신 삼아근엥에 헤영 신으믄 그거 멧일이나 신어집니까?(게 요즘 아이들은 내가 생각해보면 요즘 열두 살 난 애들 옛날 그 사삼사건 당시처럼 하면 그렇게 좀 버텨나갈 수 있었을까, 난 이렇게 생각납니다. 하, 그런데 사삼사건 그때 나니까, 고생이야. 그거 신발도 있을까 초신 삼아서 해서 신으면 그거 며칠이나 신어집니까?)

102006 @ 예, 게메예.(예, 그러게요.)

102006 #1 거 뭐 그때 학실리 해방 뒌지 거 얼마 안 됴니까 뭐 정신들 출리지 못헨 ᄉᆞ삼사건 터저부니깐 그냥 이 소나이 ᄀᆞ튼 건 촌엔, 이 사름덜이 수망리는 중산간 부락이니까 무조건 빨갱이 부락이다, 무조건 다 그자 소탕시키라, 경 올라와가지고, 와가지고 사름 보이는 대로 그자 사름을 게 죽일려고 ᄒᆞ니까. 우선 아 우리가 속단 말로 허면은 뭐 꽁빙아리라도 여기 헴시믄 우리가 잡젠ᄒᆞ민 풀 속으로 겨들지 안헵니까. 그런 식이라.(거 뭐 그때 확실히 해방 된지 거 얼마 안 되니까 뭐 정신들 차리지 못해서 사삼사건 터져버리니까 그냥 이 사나이 같은 건 촌엔, 이 사람들이 수망리는 중산간 부락이니까 무조건 빨갱이 부락이다, 무조건 다 그저 소탕시키라, 그렇게 올라와가지고, 와가지고 사람 보이는 대로 그자 사람을 그래 죽이려고 하니까. 우선 아 우리가 속단 말로 하면 뭐 꺼병이라도 여기 하고 있으면 우리가 잡으려하면 풀 속으로 기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라.)

102006 @ 예.(예.)

102006 #1 게, 여기서 순경들이 심으레 감젠ᄒᆞ민 우선 곱아야 됴니까. 뭐 여런 낭 아래라든가, 내창에라든가. 그때는 이 낭이 별로 엿날에는 엇엇수다게. 이추룩 지금 낭이 하는디 엿날에는 이 가름만한 낭이 엇엇수다게 별로. 이 곡삭 안덴덴하멍 밧엠에 낭을 심그지 않아낫수다. 게믄 ᄃᆞᆯ으레 내창들에 ᄃᆞᆯ으나, 저 우녁 ᄒᆞ쏠가면 저 소낭밭에 강 곱앗다근엥에 순경들이나 군인들 영 내려가불믄 또 집 오랑 살당.(그래, 여기서 순경들이 잡으러 간다하면 우선 숨어야 되니까. 뭐 요런 나무 아래라든가, 내라든가. 그때는 이 나무가 별로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지금 나무가 많은데 옛날에는 이 아름만한 나무가 없었습니다, 별로. 이 곡식 안된다고 하면서 밭가에 나무를 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달리러 내들에 달리나, 저 윗녘 조금 가면 저 소나무밭에 가서 숨었다가 순경들이나 군인들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또 집 와서 살다가.)

102006 @ 아, 예.(아, 예.)

102006 #1 그겐, 겨울 그때 한 십일월 달, 시작은 뭐 가을 초가을부터 본격적인 시작이고 십일월부턴 이젠 본격 소탕 뒌, 아주 기냥 중산간부락 아주 기냥 완전 소탕시키렌 헌 그 명령 내려부니까, 이젠 기냥 오란 그자 초가집들 다 불질러불고, 젊은 사름덜은 무조건 보는 대로 그냥 막 현장에서 사살 시켜불고 헤가지고, 이게 ᄒᆞ루 살려면은 저 산들에 ᄃᆞ아야. 곱아야 됴니까. 그러면은 눈에 안 씌이면 총을 안 맞으니까. 눈에 보이면 총 맞아 죽으니까. 총 안 맞을라면 우선 풀 속으로 강 곱아야 됴여. 돌, 굴이든가. 게 수망리 굴이, 조금 전에 저가 말헷수다만은 수망리 궤[16]

하고 굴 많으니까 그 쏘곱에 난 사는 거라마씀. 그 살다근엥에 그놈들한테 발각뒈민 건 전멸뒈는거우다, 건.(그렇게 해서 겨울 그때 한 십일월 달, 시작은 뭐 가을 초가을부터 본격적인 시작이고 십일월부턴 이젠 본격 소탕 된, 아주 그냥 중산간 부락 아주 그냥 완전 소탕시키라고 한 그 명령 내려버리니까, 이젠 그냥 와서는 그저 초가집들 다 불질러버리고,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보는 대로 그냥 막 현장에서 사살 시켜버리고 해가지고, 이게 하루 살려면 저 산 쪽으로 뛰어야, 숨어야 되니까. 그러면 눈에 안 뜨이면 총을 안 맞으니까. 눈에 보이면 총 맞아 죽으니까. 총 안 맞으려면 우선 풀 속으로 가서 숨어야 돼. 돌, 굴이든가. 그래 수망리 굴이, 조금 전에 제가 말했습니다만 수망리 '궤'하고 굴 많으니까 그 속에 난, 사는 거지요. 그 살다가 그놈들한테 발각되면 건 전멸되는 겁니다, 그건.)

102006 @ 게난 삼춘이 그때 어떵 헷수가? 삼춘이.(그러니 삼촌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삼촌이.)

102006 #1 흐흐 그, 나는 그때 ᄉᆞ삼사건인지도 몰르고, 그때 봄엔데 ᄒᆞ루아침에는 보니까 알로 뭐 무슨 그냥 막 만세소린지 뭔지 몰르고, 뭐 무슨 꽹과리, 뭐 북 치고 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이게 그렌 호기심에 어린 김에 바로 여기 우리 살 때니까, 요래 나가보니깐, 빨간 현수막에 하얀 글로다가 뭐 인민공화국 뭐 어쩌구 써가지고 양쪽에 사가지고 머리에 띠 둘루고, 그건 보니까 바로, ᄉᆞ삼사건 그 바로 주모자들이여. 기냥, 게 수망리 ᄉᆞ무실에 악기가 좀 이서낫수다. 엿날 재일교포가 수망리 악기를 기증헤 가지고 그 악기를 가져 가지고 수망리 해방되는 해에 기쁘다고 헤가지고, 지금은 바로 농악인데 걸궁을 헤낫수다게.(흐흐 그, 나는 그때 사삼사건인지도 모르고, 그때 봄인데 하루아침에는 보니까 아래로 뭐 무슨 그냥 막 만세소린지 뭔지 모르고, 뭐 무슨 꽹과리, 뭐 북 치고 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이게 그래서 호기심에 어린 김에 바로 여기 우리 살 때니까, 요리로 나가보니깐, 빨간 현수막에 하얀 글씨로 뭐 인민공화국 뭐 어쩌구 써가지고 양쪽에 서가지고 머리에 띠 두르고, 그건 보니까 바로, 사삼사건 그 바로 주모자들이야. 그냥, 그래 수망리 리사무소에 악기가 좀 있었습니다. 옛날 재일교포가 수망리에 악기를 기증해가지고 그 악기를 가져가지고 수망리 해방되는 해에 기쁘다고 해가지고, 지금은 바로 농악인데 걸립을 해났습니다.)

102006 @ 예.(예.)

102006 #1 집 이신 마당 뎅기멍, 그 악기를 그 사람들이 뺏어가지고 그냥 두드리면서 그냥, 그것이 바로 알고 보니까 ᄉᆞ월 삼일 날이라마씀. ᄉᆞ월 삼일 날. 경헹 우트레 올라가는디 막 뭐 무슨 그냥 무슨 노래를 막 불러. 우린 그때 무슨 노랜줄도 몰르고. 그때 나도 열두 살이난 조금 글은 조금 아니깐, 보니깐 빨간 바탕에 인민공화국 뭐여 어쩌구 머리에 띠둘르고 헨 막 기자 북치고 꽹과리 치고 허멍 우트레 올라가니까. 뭐 어디사 올라가는지는 모르고, 겡헨게 아 저녁땐 보니까, 조용한 밤인디 봄이니까 봄 저녁이옌 날이 워낙 ᄇᆞ르 불르니까, 각 오름 꼭대기마다, 그때

16) '궤'는 위로 큰 바위나 절벽 따위로 가려지고, 땅 속으로 깊숙하게 패어 들어간 '굴'을 말한다.

수망리 카름엔 낭이 어시난 영 우리 올렛동산[17]에 강 영 사민 오름들 다 바레집니다게. 영아리오름[18], 저 뭐 검은오름[19], 민오름[20], 저 넉시오름[21], 세기오름[22] 다. 그 오름 꼭대기에 올라사근엥에 보니깐 횃불을 쏴근엥 영 흔드는 거라. 걸 보니까 이름이 걸로 봉홧불이라고 헙디다게.(집 있는 마당 다니며, 그 악기를 그 사람들이 뺏어가지고 그냥 두드리면서 그냥, 그것이 바로 알고 보니까 사월 삼일 날입니다. 사월 삼일 날. 그렇게 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막 뭐 무슨 그냥 무슨 노래를 막 불러. 우린 그때 무슨 노래인줄도 모르고. 그때 나도 열두 살이니까 조금 글은 조금 아니깐, 보니깐 빨간 바탕에 인민공화국 뭐야 어쩌구 머리에 띠 두르고 해서 막 그저 북치고 꽹과리 치고 하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뭐 어디에야 올라가는지는 모르고, 그렇게 해서 아 저녁땐 보니까, 조용한 밤인데 봄이니까 봄 저녁이어서 날이 워낙 날씨 좋으니까, 각 오름 꼭대기마다, 그때 수망리 동네에는 나무가 없으니까 이렇게 우리 '올렛동산'에 가서 이렇게 서면 오름들 다 보입니다. '영아리오름', 저 뭐 '검은오름', '민오름', 저 '넉시오름', '세기오름' 모두. 그 오름 꼭대기에 올라서서 보니깐 횃불을 붙여서 이렇게 흔드는 거라. 그걸 보니까 이름이 그걸 봉홧불이라고 하더군요.)

102006 @ 예.(예.)

102006 #1 걸 헤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맞촷는지, 어느 한 곳에서 만세 소리가 나민 그 봉우리에서 횃불을 흔들면서 만세를 부르는디, 세상이 떠들썩허게. 그게 스월 그 시초라. 그축헤가지고 대충 그 지역을 중산간 부락이옌 이거 빨갱이편이옌 무조건, 우리 집도 불타버리고. 우린 뭐 그때는 총소리만 들리면은 총소리 반대쪽으로 무조건 돌아나는거마씀. 살아나젠. 우리가 그때 굽으레 어딜 가왓냐면은, 저 성판악까지 굽으레 가와낫수다. 성판악에서 굽으레 갓당, 저 제주시 쪽으로 총소리 나민 또 이쪽으로 내려왓닥 허고.(그걸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맞췄는지, 어느 한 곳에서 만세 소리가 나면 그 봉우리에서 횃불을 흔들면서 만세를 부르는데, 세상이 떠들썩하게. 그게 사월 그 시초라. 그렇게 해가지고 대충 그 지역을 중산간 부락이라고 이거 빨갱이편이라고 무조건, 우리 집도 불타버리고. 우린 뭐 그때는 총소리만 들리면 총소리 반대쪽으로 무조건 달아나는 거지요. 살아나려고. 우리가 그때 숨으러 어딜 가왔냐면, 저 성판악까지 숨으러 가왔습니다. 성판악에서 숨으러 갔다가, 저 제주시 쪽으로 총소리 나면 또 이쪽으로 내려왔다가 하고.)

102006 @ 예.(예.)

---

17) '올렛동산'은 발화자의 집으로 들어오는 올레와 도로 사이에 있는 집보다 높은 대지를 말한다.
18) '영아리오름'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북서쪽 남조로 연변에 있는 '물영아리오름'을 말한다.
19) '검은오름'은 서귀포시 조천읍 교래리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남원읍 수망리 경계에 걸쳐진 오름을 말한다.
20) '민오름'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남조로변의 충혼묘지 서쪽에 있는 오름을 말한다.
21) '넉시오름'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의귀초등학교 남쪽, 내 건너편에 있는 오름을 말한다.
22) '세기오름'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향사동 동쪽에 있는 오름인 '숫오름'이라고도 하는데, '쉐기오름' '웅악雄岳'으로도 불린다.

102006 #1 에이, 그 우리 ᄉᆞ삼사건 때에 우리가 또 죽을 고비를 만히 넘겨, 그때 죽을 고비 만히 넘긴 거 보니까. 우리가 참 저 뭐 속뭰 말로 어디서 도왓는가. 우리 겐디 ᄉᆞ삼사건 때 우리집이서 죽은 사람은 ᄒᆞ나도 엇수다. 겡헤도. 그렇게 고생을 헤여도. 뭐 ᄉᆞ삼사건 후에 우리 아버지영 어머니영 다 점 병으로 돌아가셧주만은 ᄉᆞ삼사건 때 우리 죽은 사람은 엇수다.(에이, 그 우리 사삼사건 때에 우리가 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겨, 그때 죽을 고비 많이 넘긴 거 보니까. 우리가 참 저 뭐 속된 말로 어디서 도왔는가. 우리 그런데 사삼사건 때 우리 집에서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렇게 고생을 해도. 뭐 사삼사건 후에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다 참, 병으로 돌아가셨지만 사삼사건 때 우리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102006 @ 예.(예.)

102006 #1 어, 겐디 ᄉᆞ삼사건 그 나는 해 가을에 우리 고모가, 고모부. 고모부가 우리 집에 오랑 죽엇수다.(어, 그런데 사삼사건 그 나는 해 가을에 우리 고모가, 고모부. 고모부가 우리 집에 와서 죽었습니다.)

102006 @ 무사마씸?(왜요?)

102006 #1 게난 남원리 사름인디, 저녁 때 와가지고 갑자기 들어온 거 보니까 우리 고모부가. 게, 우리 할무니가 계신 때난, 어떵 헨 완딘 허난, 아 그 저 ᄆᆞᆯ 메연 나둰 놔둬난에 ᄆᆞᆯ 그만 줄레 끊언 나가비언 ᄆᆞᆯ 일러비언 ᄆᆞᆯ 춪으레 왓수다 허멍, 게민 ᄆᆞᆫ 어둑원디 이디 오민 ᄆᆞᆯ 춪아지느냐 허난, 엇수다게 저녁에랑 여기 잣당 낼랑 ᄆᆞᆯ 찾앙 ᄂᆞ려가쿠다. ᄆᆞᆯ 틀림없이 우트레 올라왓수다 허멍. 거 어떵헨 알아지크니 허난, 줄레 끄선 나간 거, 줄레 그 뭐, 옛날은 그 땅바닥이 흑바닥이난, ᄆᆞᆯ이 고삐를 끊으민 그 잘 보면은 그 걸 보니까 틀림없이 우트레 올라완 어디 수망리, 그때, 그때도 수망리엔 안 ᄀᆞᆯ안, 물아, 물우라, 물왓[23]트레 올라온 거 닮수다 헤영. 겐, 아멩이라도 허라. 아 듯날 아침엔 새벽엔 총소리가 나는 거 아니꽈? 뻥뻥. 게네 우리 아버진 총소리가 나니까, 우리 아버진 저 겁이 많아마씀. 뭐 무신, 거 활딱 일어나근엔 우리 아버지가 동생뻘 뒈난, 우리 고모가 아버지 보단 우의난에. 형님 옵써 저 서의 저 서에 ᄃᆞᆫ게, ᄃᆞᆫ게. 겐 우리 고모부는 죽젠사 헤신디. 야야 걱정말라. 기추룩 돌아뎅이당 그눔들언틔 젭히멘 폭도옌 허멍 죽여분다. 이디 ᄀᆞ만히 아자시믄 아멩토 아년다 허멍. 아 경허난 우리 아바진 네비돈 그냥 저기 서르레 내뻬니까 기냥 어디 간줄도 몰르고. 할아부지도 ᄀᆞ찌 내뻬불고. 우린 그자 어리고 그자 우리 어머니 할머니는 동생들이 여기 앉처두고. 아 우리 고모분, 우리 어머니영 아, 저 어떵 총소리 막 가깝게 들렴신게. 피헙서. 피헙서. 헷자 아따! 아멩토 아녀. ᄀᆞ만히 아자사사 거 쉐 없는 사람이엔 헹 살린다, 허멍.(그러니까 남원리 사람인데, 저녁 때 와서 갑자기 들어온 거 보니까 우리 고모부가. 그래, 우리 할머니가 계신 때난, 어떻게 해서 왔냐고 하니까, 아, 그 저 말 매어 놔두니 놔두니까 말 그만 줄 끊어서 나가버려서 말 잃어버려서 말 찾으러 왔습니다 하면서, 그러면 모두 어두웠는데 이

23) '물왓'은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잘 괴는 밭을 말한다. 여기서는 '수망리'를 말한다.

리로 오면 말 찾아지느냐 하니까, 아닙니다, 저녁에는 여기 잣다가 내일은 말 찾아서 내려가겠습니다. 말 틀림없이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하며. 거 어떻게 해서 알아지겠냐고 하니까, 줄 끌어서 나간 거, 줄 그 뭐, 옛날은 그 땅바닥이 흙바닥이니까, 말이 고삐를 끊으면 그 잘 보면 그 걸 보니까 틀림없이 위쪽으로 올라와서 어디 수망리, 그때, 그때도 수망리라고 안 말해, 물아, 물우라, '물앗'으로 올라온 거 닮습니다, 해서. 그래서 아무렇게라도 하라. 아 뒷날 아침엔 새벽엔 총소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뻥뻥. 그러니 우리 아버진 총소리가 나니까, 우리 아버진 저 겁이 많아요. 뭐 무슨, 그거 활딱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가 동생뻘 되니까, 우리 고모가 아버지 보단 위니까. 형님 오세요, 저 서쪽 저 서쪽에 뛰게, 뛰게. 그래 우리 고모부는 죽으려고 했는지. 야야 걱정마라.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그놈들한테 잡히면 폭도라고 하면서 죽여 버린다. 여기 가만히 앉았으면 아무렇지도 않는다, 하면서. 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진 내버려두고 그냥 저기 서쪽으로 내빼니까 그냥 어디 간지도 모르고. 할아버지도 같이 내빼버리고. 우린 그저 어리고 그저 우리 어머니 할머니는 동생들이 여기 앉혀두고. 아 우리 고모분, 우리 어머니랑 아, 저 어떻게 총소리 막 가깝게 들리네. 피하세요. 피하세요. 했지만 아따! 아무렇지도 않아. 가만히 앉아있어야 거 죄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살린다, 하면서.)

102006 @ 쩌쩌, 아이고.(쯧쯧, 아이고.)

102006 #1 에이, 추우난에 부섭, 부섭이옌 헌 거 알아집니까? 부섭.(에이, 추우니까, 화로. 화로라고 하는 거 알아집니까? 화로.)

102006 @ 예.(예.)

102006 #1 에, 마당에 강 낭 앗단 부섭이에 불이나 살랑 추켜 허멍. 좀 아침이난 추웟수다게. 가을이난. 아 불살르젠 허믄. 올레도 거 칼빈 총 들른 놈이 혼 서너 명. 너 이놈의 새끼덜 다 나와. 아 겐 우리 어머닌 조반 허단 나가가난 아 이것들게도 생각을 헴신가, 거 불 꺼동 나오렌 골아. 게연 우리 고모분 마리에 아자시난, 마리레 둘쓰란게 기냥 발로 차문서 너 이놈의 새끼 잘 뒀다. 나와, 나와 ᄒᆞ멍. 전부 나오렌 우리 ᄀᆞ랑. 게 요 저 조금 요 혼 오십 메다 쯤 넘어 강, 가만히 이시니까. 거기서 혼 삼십 분 쯤은 기다렷는가, 우리 기자 우리 여기서 죽여불젠 헴구나. 삼십 분 쯤 이시니깐 이 우루 툴럭툴럭. 혼, 두 놈이 내령 완 혼 놈은 권총 찬 셍이라 양.(에, 마당에 가서 나무 가져다가 화로에 불이나 살라서 쬐겠다, 하며. 조금 아침이이어서 추었습니다. 가을이니까. 아 불사르려고 하면. 올레도 거 캘빈 총 든 놈이 한 서너 명. 너 이놈의 새끼들 다 나와. 아 그래서 우리 어머닌 조반 하다가 나가가니까 아 이것들 그래도 생각을 하는가, 그거 불꺼두고 나오라고 말 해. 그래서 우리 고모분 마루에 앉아있으니까, 마루로 달려들더니 그냥 발로 차면서 너 이놈의 새끼 잘 됐다. 나와, 나와 하면서. 전부 나오라고 우리 보고. 그래, 요 저 조금 요 한 오십 미터 쯤 넘어 가서, 가만히 있으니까. 거기서 한 삼십 분쯤은 기다렸는가, 우리 그저 우리 여기서 죽여 버리려고 하는구나. 삼십 분 쯤 있으니까 이 위로 털레털레. 한, 두 놈이 내려와서 한 놈은 권총 찬 모양이야.)

102006 @ 예.(예.)

102006 #1 게 그것이 높은 사름 ᄀᆞ따. 그 사람이 딱 오더니만은 우리 ᄀᆞ랑 탁탁 어깨 치멍, 너네들랑 가, 가 허여. 우리 어머니 보고도 할무니 보고도 다 집에 가렌. 게 우리 고모부는 딱 떼여 놓는 거 아니라마씀. 경 우리 이디쯤 오니까 총소리가 나난. 보니까 그때 기냥 현장에서 우리 고모부를 쏴 죽여부리니까. 에에 강보자 간 보니깐 죽질 안헤십디다게.(그래 그것이 높은 사람 같아. 그 사람이 딱 오더니만 우리 보고 탁탁 어깨 치면서, 너희들은 가, 가 해. 우리 어머니 보고도 할머니 보고도 다 집에 가라고. 그래 우리 고모부는 딱 떼여 놓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우리 여기쯤 오니까 총소리가 나니까. 보니까 그때 그냥 현장에서 우리 고모부를 쏘아 죽여버리니까. 에에 가서 보자, 가서 보니까 죽지 안했더군요.)

102006 @ 음.(음.)

102006 #1 이 가슴을 총을 맞앗는디. 막 피 흘리고 허연.(이 가슴을 총을 맞았는데. 막 피 흘리고 해서.)

102006 @ 음.(음.)

102006 #1 게, 우리 할무니네, 이거 무신 이거 이런 놈의 세상도 어딧냐고. 어디 이렇게 저 불쌍한 사름을 죽이는 세상, 이거 나라가 망헤도, 게 우리 할무니가 조금 그 보면은 조금 말도 허곡, 조금 말하는 게 조금 유식헤나수다.(그래, 우리 할머니네, 이거 무슨 이거 이런 놈의 세상도 어딨냐고. 어디 이렇게 저 불쌍한 사람을 죽이는 세상, 이거 나라가 망해도. 그래, 우리 할머니가 조금 그 보면 조금 말도 하고, 조금 말하는 게 조금 유식했었습니다.)

102006 @ 예.(예.)

102006 #1 이놈으 나라가 망할 짓이주. 쥐 없는 사람 죽이는 건 절대 나라가 아이 뭰다 허멍. 겐 집이 어떵어떵헨 어깨 부축헨 오란 집이 오난 그냥 걸로 끗입디다. 게, 그거 보니까 야 이거 그땐 생각헌 게 이거 무조건 돌아나야 살로구나. 응? 돌아나야 살지. 이추룩 고만히 아잣다근엥 쥐 없는 사람도 죽여 부는디. 왜 우리 그때 열두 술이주만은 이추룩 헌 세상도 어신 거. 어디 죽일 바에는 제라헌 사름덜을 죽여야지 저 불쌍한 사름을 죽이는 세상이 어디 서. 아이 근데 그렇게 한 걸 내가 눈으로 목격허고.(이놈의 나라가 망할 짓이지. 죄 없는 사람 죽이는 건 절대 나라가 아니 된다, 하면서. 그래서는 집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깨 부축해서 오니까 집에 오니까 그냥 그걸로 끝입디다.

그래, 그거 보니까 야, 이거 그땐 생각한 게 이거 무조건 달아나야 살겠구나. 응? 달아나야 살지. 이처럼 가만히 앉았다가 죄 없는 사람도 죽여 버리는데. 왜 우리 그때 열두 살이지만 이처럼 한 세상도 없는 것. 어디 죽일 바에는 제대로 된 사람들을 죽여야지 저 불쌍한 사람을 죽이는 세상이 어디 있어. 아이 그런데 그렇게 한 걸 내가 눈으로 목격하고.)

102006 @ 음.(음.)

102006 #1 거 우리 또 깁으레 다니다가 하르버지하고 나하고 ᄀᆞ찌. 그때는 우리

가족 방침이, 밤에 즘잘 때는 ᄀᆞ찌 자고 낮에는 각각 떼어져서 다니자.(그거 우리 또 숨으러 다니다가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같이. 그때는 우리 가족 방침이, 밤에 잠 잘 때는 같이 자고 낮에는 각각 떼어져서 다니자.)

102006 @ 예.(예.)

102006 #1 ᄒᆞᆫ밧듸 잇다가는 다 죽어불민 우리 뭐 볼게 잇냐, 겐 아버지는 아버지 뚜루, 나는 하르버지하고 나하고, 우리 그 밑에 우리 동생들허고 어머니허고 할무니허고 또 뚜르게, 세 갈래로 갈라가지고, 게 다니다가 거 참 재수 없어근엥에 당하면 죽어지면 헐 수 없는 거고. 살면은 저녁때는 어딜로 모이자.

그렇게 헤가지고 하르버지허고 나하고 다니단 ,아 거 저 영아리 바로 물영아리 뒤엔디, 아침 뭐, 뭐 먹읍니까? 그때는 주식이 어떠니 고구마.(한군데 있다가는 다 죽어버리면 우리 뭐 볼게 있느냐, 그래선 아버지는 아버지 따로, 나는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우리 그 밑에 우리 동생들하고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 또 다르게, 세 갈래로 갈라가지고, 그래 다니다가 거 참 재수 없어서 당하면 죽어지면 할 수 없는 거고. 살면 저녁때는 어디로 모이자.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다니단 ,아 거 저 영아리 바로 물영아리[24] 뒤쪽인데, 아침 뭐, 뭐 먹습니까? 그때는 주식이 어떠니 고구마.)

102006 @ 감저.(고구마.)

102006 #1 ᄉᆞ삼사건 때 그 고구마는, 고구마는 많으니까 감저 앗땅 저 쩌가지고 그 이 ᄒᆞᆫ 멧 개씩 호주머니에 놘 뎅기당 먹고 기자. 것도 절약헤 가지고 저, 굶어 죽지 아일 정도로만.(사삼사건 때 그 고구마는, 고구마는 많으니까 감자 가져다가 저 쪄가지고 그 이 한 몇 개씩 호주머니에 넣어 다니다가 먹고 그저. 것도 절약해 가지고 저,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102006 @ 예.(예.)

102006 #1 아침엔 가단게 그 동쪽으로 군인들이 탁 거 재수 없게 닥치니까, 하르버진 하르버지대로 뛰고 나는 나대로 뛰고, 거 그놈들이 뒤에서 총을 ᄒᆞᆫ 멧 번 쏴도, 거 뭐 위협적으로 쐇는지, 우릴 향헤서 쏴신지, 그찌우찌 우린 살앗으니까. 게난 하르버지는 살아가지고 결국은 그날 잡혀 가지고 기냥 젭혀가버리고. 나는 그거 살자고 하니까 거 뛰다보니까 거 츰 수망리 이 줄기 내창이 한 이 줄기가 내창이 저 밀림ᄁᆞ지 벋어강 내창이, 내창에 들어간 디 잇다보니까 거 뭐, 뭐 세상도 몰르고. 겐 거니까 살아저서. 살아져가지고 그거 돌 밑에 굴 닮은디 영 엎더저 가지고 자단보난 어둑어 가지고, 거 뭐 배고프니까 깨난거주게 난. 어딜로 오라헨 거 춪을 수가 이십니까. 열두 살 난 게 뭐 밤에 어딜 춪읍니까. 게 어떻게 어떻게 허다보니깐 걸 춪아 가지고. 겐 간 보니깐 우리 어머니영 거기 다 잇고, 거난, 하르버지 어디 간? 하르버지는 ᄀᆞ찌 뛰엇는디 몰르쿠다. 젭혀사 가신지 죽어산지 몰르쿠다. 거난 우리 아버지 허는 말은 경허민 하르버지는 죽엇저. 내중엔 알고 보니까 돌아간 게 아니고 그놈들 그때, 그때 계엄령 전이니까. 기냥 포로로 잡혀 남원이 간 거 살

24) '물영아리오름'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북서쪽 남조로 연변에 있는 오름을 말한다.

다가 석방 뒈긴 헷는데. 게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겨껏수다. 게난 ᄉᆞ삼사건 그것이 에 저가 생각허는 거는 그땐 이 사름들이 그렇게 사름을 죽여도 구분을 혜영 죽일 건디 계엄령을 딱 선포뒈니깐양 이건 부녀자고 어린이고 그자 닥치는 대로 그자 죽여불라. 죽여도 총으로 쏩지 말라. 총으로 쏘으민 인근에 잇던 놈들이 또 딴드레 도망가불민 그레 촛지못헌다.(아침엔 가다가 그 동쪽으로 군인들이 탁, 거 재수 없게 닥치니까, 할아버진 할아버지대로 뛰고 나는 나대로 뛰고, 거 그놈들이 뒤에서 총을 한 몇 번 쏴도, 거 뭐 위협적으로 쐈는지, 우릴 향해서 쐈는지, 그찌우찌[25] 우린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살아 가지고 결국은 그날 잡혀 가지고 그냥 잡혀가버리고. 나는 그거 살자고 하니까 거 뛰다보니까 거 참, 수망리 이 줄기 내가 한 이 줄기가 내가 저 밀림까지 뻗어가서 내가. 내에 들어간 데 있다가보니까 거 뭐, 뭐 세상도 모르고. 그래서 그러니까 살아져서. 살아져 가지고 그거 돌 밑에 굴 닮은데 영 엎더져가지고 자다보니까 어두워가지고, 거 뭐 배고프니까 깨어난 거지난. 어디로 오라해서 거 찾을 수가 있습니까. 열두 살 난 게 뭐 밤에 어딜 찾습니까. 그래 어떻게 어떻게 하다보니깐 걸 찾아가지고. 그래서 가서 보니깐 우리 어머니랑 거기 다 있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어디 갔어?

할아버지는 같이 뛰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잡혀서 갔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버지 하는 말은 그렇다면 할아버지는 죽었다.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돌아간 게 아니고 그놈들 그때, 그때 계엄령 전이니까. 그냥 포로로 잡혀가지고 남원에 간 거 살다가 석방되기는 했는데. 그래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겪었습니다.

그러니 사삼사건 그것이 에, 저가 생각하는 거는 그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을 죽여도 구분을 해서 죽일 건데 계엄령을 딱 선포되니까 이건 부녀자고 어린이고 그저 닥치는 대로 그저 죽여 버려라. 죽여도 총으로 쏘지 마라. 총으로 쏘면 인근에 있던 놈들이 또 다른 곳으로 도망 가버리면 그리로 찾지 못한다.)

102006 @ 음.(음.)

102006 #1 총으로 쏩지 마랑 다른 방법으로 죽이라. 게 어떤 방법을 쓰냐면 예를 들민 대검으로 찔르든가, 그냥 그렇지 않으믄 돌멩이로 치던가.(총으로 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죽이라. 그래, 어떤 방법을 쓰냐면 예를 들면 대검으로 찌르든가, 그냥 그렇지 않으면 돌멩이로 치던가.)

102006 @ 하이고.(하이고.)

102006 #1 게, 그 계엄령이 십일월 흔 육일 날 발포텟는가? 그 송유찬 장군이 와가지고 계엄사헌트레 장군으로 와가지고 발표헤부니깐, 그때 근데 우리 계엄 발표한 후제 그때 십일월 달인디, 우리가 여럿이 그때는 사름 한 디 다녀도 위험헙디다게. 사름 한 디 다니면은 이 사름들이 눈에 띄기가 쉬워. 이제는, 우리 아버지는 그때 조금 그 머리를 써가지고 야, 우리 우리 뚜루만 다니게. 이 사름덜은 ᄀᆞ찌 벗헤근엥에 ᄀᆞᆸ으레 뎅기당 다 죽나. 우리 가족끼리만 뎅기당 죽으나 사나 허겐 헤연.

우리 가족을 어디 가느냐? 에, 저 성판악 밑에 잇다가 요, 물영아리 앞히에 보니

25) '그찌우찌'는 발화자가 그럭저럭을 표현한 듯하다.

까 그 굴이 하나 이수다. 그 굴에 간 여기서 살게. 게난 살다가 뚜루 그 십일월 달 계엄령 ᄒᆞ젠 허니까 뚜뜻한 날씨에 잇다보니깐 굴 바깟듸 좀 나와 거 좀 햇빗에라도 쪼일라고, 나가서 보니깐, 거 우리 아버지가 이게 무신 소리 남저 허멍 영 고개 내밀언 엽드레 베리니깐 철모 쓴 사름들이 ᄒᆞᆫ 멧 사름 보이는 거라.(그래, 그 계엄령이 십일월 한 육일 날 발포됐는가? 그 송유찬 장군이 와가지고 계엄사한테 장군으로 와가지고 발표 해버리니까, 그때 그런데 우리 계엄 발표한 후에 그때 십일월 달인데, 우리가 여럿이 그때는 사람 많은 데 다녀도 위험합디다. 사람 많은 데 다니면 이 사람들이 눈에 띄기가 쉬워. 이제는, 우리 아버지는 그때 조금 그 머리를 써 가지고 야, 우리, 우리 따로만 다니자. 이 사람들은 같이 벗해서 숨으러 다니다가 다 죽는다. 우리 가족끼리만 다니다가 죽으나 사나 하자고 해서.

우리 가족을 어디 가느냐? 에, 저 성판악 밑에 있다가 요, '물영아리' 앞에 보니까 그 굴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굴에 가서 여기서 살자. 그래서 살다가 따로 그 십일월 달 계엄령 하려고 하니까 따뜻한한 날씨에 있다 보니깐 굴 바깥에 좀 나와 거 좀 햇빛이라도 쪼이려고 나가서 보니깐, 그 우리 아버지가 이게 무슨 소리 난다 하면서 이렇게 고개 내밀어서 옆쪽으로 보니까 철모 쓴 사람들이 한 몇 사람 보이는 거라.)

102006 @ 아.(아.)

102006 #1 게난 우리 아버진 우리보고 굴소곱드레 다 밀쳐놓고, 이젠 ᄒᆞᆯ 수 엇다. 우리 명대로 살게. 느네 대랑 죽으나 사나. 이젠 우리 이걸로 끗이여. 허멍 아버지는 기자 튀어불고. 우린 굴속에 처 놔도비언. 하, 이제 이걸로 죽는구나. 이 그 사람들이 그냥 걸로 그냥 우리 거기 잇는 줄 몰르고 넘어 가버린 거라마씀. 겐 저녁 때 어두우니깐 아버지가 돌아완 야 니네들 살앗구나. 우린 난 죽은 줄 알앗저.

겐 다음날 아침 보니까 저 영아리 두에 그 앞이 트물[26]이옌 ᄒᆞᆫ 디가, 수망리 모 사람이 죽엇다더라. 그 사람이 바로 여 수망리 동쪽에 사는 사름인디, 죽은 사름은 그때 나이로 ᄒᆞᆫ 육십 세 뭔 노인허고 아들이 ᄒᆞ나 이섯수다게. 아들이 나보다 ᄒᆞᆫ나 밑에라. 그때 열ᄒᆞᆫ 술. 긴데 ᄒᆞᆫ 그때가 ᄒᆞᆫ 열한시쯤 뭔 땐데, 시간적으로. 그 아들이 열ᄒᆞᆫ 술 난 것이 어머니 배고프니까 어머니 보고 졸른 거라마씀. 배고파 살지 못하쿠다. 배고파 살지 못하쿠다 허난, 그나마 가정 뎅기던 감저나 ᄉᆞᆲ아주젠 불을 떼는디 연기 안 나게시리 뗀다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연기가 솟앗던 모양이라양. 게난 우리 옆으로 지나간 군인들이 그 연기를 보고 쫓아강 보니까 그 모녀가, 어머니영 아들이영 이신 거라. 겐 간 보니까 그냥 돌로 때령 죽여빈 거라 돌로.(그러니까 우리 아버진 우리보고 굴속에다 다 밀쳐놓고, 이젠 할 수 없다. 우리 명대로 살게. 너희 대랑 죽으나 사나. 이젠 우리 이걸로 끝이여. 하면서 아버지는 그저 튀어버리고. 우린 굴속에 쳐 놔둬버렸어. 하, 이제 이걸로 죽는구나. 이 그 사람들이 그냥 걸로 그냥 우리 거기 있는 줄 모르고 넘어 가버린 거였지요. 그래선 저녁 때 어두우니까 아버지가 돌아와서 야 너희들 살았구나. 우린 난 죽은 줄 알았다.

26) '트물'은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에 있는 지역 이름이다.

그래선 다음날 아침 보니까 저 '영아리' 뒤에 그 앞의 '트물'이라고 한 데가, 수망리 모 사람이 죽었다더라. 그 사람이 바로 여 수망리 동쪽에 사는 사람인데, 죽은 사람은 그때 나이로 한 육십 세 된 노인하고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이 나보다 한살 밑이야. 그때 열한 살. 그런데 한 그때가 한 열한시쯤 된 땐데, 시간적으로. 그 아들이 열한 살 난 것이 어머니 배고프니까 어머니 보고 조른 거예요. 배고파 살지 못하겠어요. 배고파 살지 못하겠어요 하니까, 그나마 가지고 다니던 지슬이나 삶아주려고 불을 때는데 연기 안 나게끔 땐다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연기가 솟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옆으로 지나간 군인들이 그 연기를 보고 쫓아가서 보니까 그 모녀가, 어머니랑 아들이랑 있는 거라. 그래선 가서 보니까 그냥 돌로 때려서 죽여 버린 거라 돌로.)

102006 @ 아.(아.)

102006 #1 겐 저번에도 그 어디 뭐 어찌뒛건 ᄉᆞ삼사건에 대한 그 허는 사람 오켄헤난 그 말 골으니까, 그 사람도 야, 그렇게 혯구나. 그렇게 헨 것 보단도 그런 사름덜이 아무리 계엄령 시대고 한 상태지만 아 그 사름덜 그 모녀가 뭘 안다고 그 죽 그렇게 죽인 거냐. 아 죽일라면 곱게 죽이던가. 게 그렇게 죽은 사람이 제주도 안에 부지기수다.

게난 우리 수망리 족은 부락이주만은 ᄉᆞ삼사건 때 죽은 사람이 한 오십 멧 멩 뒐 거우다 아마. 여, 흔 내 대략 짐작허민. 게 우리 처갓칩이가 우리 저 사람 할망[27] 이, 어멍 아방 오라방이 ᄉᆞ삼사건 때 다 죽엇수다.(그래서는 저번에도 그 어디 뭐 어찌됐건 사삼사건에 대한 그 하는 사람 오겠다니까 그 말 말하니까, 그 사람도 야, 그렇게 했구나. 그렇게 한 것 보다도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계엄령 시대고 한 상태지만 아 그 사람들 그 모녀가 뭘 안다고 그렇게 그렇게 죽인 거냐. 아 죽이려면 곱게 죽이던가. 그래, 그렇게 죽은 사람이 제주도 안에 부지기수다.

그러니까 우리 수망리 작은 부락이지만 사삼사건 때 죽은 사람이 한 오십 몇 명 될 겁니다, 아마. 어, 한 내 대략 짐작하면. 그래, 우리 처가집이 우리 저 사람 '내자' 이, 어머니 아버지 오라비가 사삼사건 때 다 죽었습니다.)

102006 @ 예.(예.)

102006 #1 건, 어떠냐면 아까 나가 저 궤 말한 디 거 궤에 잇단에 집단 아주 사살 뒈분거라마씀.(건, 어떠냐면 아까 내가 저 굴 말한 데 그 굴에 있다가 집단 아주 사살 돼버린 겁니다.)

102006 @ 아이고.(아이고.)

102006 #1이놈들이, 발각뒈가지고 것도 따로따로 살앗이민 살른지 모를 건디, 그 궤에 그자 사름덜 차 흔 잔 허젠 갓단 아침에 이 사름덜이 그냥 새벡에 완 그자 급습헤가지고 거 안에 이신사름, 거 안에 이신 사름덜은 전부 그자 막 사살시켜부니까. 뭐 뭐 그때 흔 삼십, 흔 이십 명? 한 십오 명 죽엇는가?(이놈들이, 발각돼가지고 것도 따로따로 살았으면 살았는지 모를 건데, 그 굴에 그저 사람들 차 한 잔

27) '할망'은 할머니를 말한다. 여기서는 곁에 있는 '내자'의 뜻으로 쓰였다.

하려고 갔다가 아침에 이 사람들이 그냥 새벽에 와서 그저 급습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그저 막 사살시켜버리니까. 뭐 뭐 그때 한 삼십, 한 이십 명? 한 십오 명 죽었는가?)

102006 @ 그때 궤 이름은 뭐여숫과?(그때 굴 이름은 뭐였습니까?)

102006 #1 아니몬직은궤야[28]. 아니몬진궤야.('아니몬직은궤야'. '아니몬진궤야'.)

102006 @ 아니몬직은궤야 안에서 그렇게, 그렇구나예.('아니몬직은궤야' 안에서 그렇게, 그렇군요.)

102006 #1 어 거기 잇다가 그렇게 사름덜이.(어 거기 있다가 그렇게 사람들이.)

102006 @ 그럼 여자삼춘 혼자 살아남은 거마씸?(그럼 여자삼촌 혼자 살아남은 거예요?)

102006 #1 어, 혼자.(어, 혼자.)

102006 @ 아, 세상에.(아, 세상에.)

102006 #1 혼자만 살아남안.(혼자만 살아남았어.)

102006 @ 그 어떵 혼자 살아남아신고예?(그 어떻게 혼자 살아남았을까요?)

102006 #1 그그그, 어떻게 뎅기단 보니까 그 혼자, 살아가지고 거 그때 어린 때난 저 사람이 나보단 실제 나이는 한 살 위우다게.(그그그, 어떻게 다니다 보니까 그 혼자, 살아 가지고 거 그때 어린 때난 저 사람이 나보다는 실제 나이는 한 살 위입니다.)

102006 @ 예.(예.)

102006 #1 위니깐 그 ᄉᆞ춘들이 지금 서귀포 살앗수다게. 게, ᄉᆞ삼사건 때 겨우 견뎌가지고 천구백ᄉᆞ십팔년도 ᄉᆞ삼사건 끝나니까 천구백ᄉᆞ십구년도에는 전부 그거 좀 내려오면 내려오는 사름 살려준다고 헤가지고 하니깐, 저 사람은 그 저 서귀포에 가면은 거 뭐 친척이주 거기 가서 살앗어. 저 나신디 왓는디, 지금은 우리 집이 저 할망[29]도 고셍 하영 헌 사람이우다게. ᄉᆞ삼사건 때에 그 우에 오빠죽고 어멍아방죽고. 아방은 이녁 집 마당에서 기냥 초가집 불붙이는 날에 기냥 그 마당에서 그자 죽여 버리고.(위니까 그 사촌들이 지금 서귀포 살았습니다. 그래, 사삼사건 때 겨우 견뎌가지고 천구백사십팔년도 사삼사건 끝나니까 천구백사십구년도에는 전부 그거 좀 내려오면 내려오는 사람 살려준다고 해가지고 하니까, 저 사람은 그 저 서귀포에 가면 거 뭐 친척이지 거기 가서 살았어. 저 나에게 왔는데, 지금은 우리 집에 저 '내자'도 고생 많이 한 사람입니다. 사삼사건 때에 그 위에 오빠죽고 어머니 아버지죽고. 아버지는 이녁 집 마당에서 그냥 초가집 불붙이는 날에 그냥 그 마당에서 그저 죽여 버리고.)

102006 @ 예.(예.)

102006 #1 어멍은 첨, 아까 말한 디 아니몬직은궤야에서 기냥 같이 이시니까 그자 죽여버리고. 에, 흔 집안 안에 전 식구가 아주 멜족헌 디가 흔 두 군데 이수다

28) '아니몬직은궤야'는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에 있는 자연동굴로 '사리물궤'라고도 불린다. 또 다른 이름으로 '아이몬죽은궤'로도 불리는데 이 명칭은 4·3 이후에 붙여진 것으로 추측된다.

29) '할망'은 할머니를 말한다. 여기서는 발화자의 아내를 호칭한다.

우리 수망리는, 그자 전부.(어머니는 참, 아까 말한 데 '아니믄직은궤야'에서 그냥 같이 있으니까 그저 죽여버리고. 에, 한 집안 안에 전 식구가 아주 멸적족한 데가 한두 군데 있습니다. 우리 수망리는, 그저 전부.)

102007 @ 아, 그 사삼사건 이후에 결혼은 언제 헷수과?(아, 그 사삼사건 이후에 결혼은 언제 했습니까?)

102007 #1 나?(나?)

102007 @ 예.(예.)

102007 #1 에, 오십구 년도.(에, 오십구 년도.)

102007 @ 멧 술 때?(몇 살 때?)

102007 #1 스물, 세 술인가? 오십구 년도.(스물, 세 살인가? 오십구 년도.)

102007 @ 결혼은 그믄 중매결혼 헨마씸? 아니면 연애결혼 헷수과?(결혼은 그러면 중매결혼 했나요? 아니면 연애결혼 했습니까?)

102007 #1 중매, 중매. 다 동네우다.(중매, 중매. 다 동네입니다.)

102007 @ 아 동네서 그냥 다 보멍 컷구나예?(아 동네서 그냥 다 보면서 컷군요?)

102007 #1 예, 에.(예, 예.)

102008 @ 그 결혼 할 때 사주는 봣수과?(그 결혼 할 때 사주는 봤습니까?)

102008 #1 ᄉᆞ주, 게. ᄉᆞ주 그자 봐. ᄉᆞ주는 그때 우리 하르버지가 살아계신 때니까, 우리 하르버지가 할므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허난 ᄉᆞ주보켄 헨 어디 간 들어보난, 뭐 흔엇이 좋든 아이도 쓸만하덴 헤라. 아, ᄉᆞ주보나마나 어떵 무신 뭐 동네, ᄀᆞ뜬 동네고 헌디 우리 서로 다 양쪽에서도 실증 안헨디고 어떻게 뭐 할 수 잇냐고, 게난 오십구 년도 오십구 년도 봄에 결혼, 어 봄에 결혼 헤가지고 그 해 여름에 내가 또 군대가고.(사주, 그래. 사주 그저 봐. 사주는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살아계신 때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하니까 사주보겠다고 해서 어디 가서 들어보니까, 뭐 별로 좋지는 안 해도 쓸 만하다고 했어. 아, 사주보나마나 어떻게 무슨 뭐 동네, 같은 동네고 한데 우리 서로 다 양쪽에서도 실증 안한 데고 어떻게 뭐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오십구 년도 오십구 년도 봄에 결혼, 어 봄에 결혼 해가지고 그 해 여름에 내가 또 군대 가고.)

102008 @ 예.(예.)

102008 #1 그 해 에, 유월 달에 여름에 내가 군대 갈 때.(그 해 에, 유월 달에 여름에 내가 군대 갈 때.)

102009 @ 그런데 그 결혼할 때, 어, 무슨 예물을 주고받거나 혼수품을 받거나 그런 거 있었나요?(근데 그 결혼할 때, 어, 무신 예물을 주고받거나 혼수품을 받거나 그런 거 이서난마씨?)

102009 #1 혼수품이 아니고 그 엿날에는 결혼헐 때 요즘은 혼수품이라고 하는디, 옛날에는 홍세[30]라고 헷어 홍세.(혼수품이 아니고 그 옛날에는 결혼할 때 요즘

30) '홍세'는 발화자가 '홍세함'을 말한 것이다. 혼례를 치르는 날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지고 가는 납폐

은 혼수품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홍세라고 했어 홍세.)

102009 @ 예.(예.)

102009 #1 홍세함이라고 헤가지고 요만한 함에다가 저 뭐 무명, 그때는 미녕.('홍세함'이라고 해가지고 요만한 함에다가 저 뭐 무명, 그때는 무명.)

102009 @ 미녕.(무명.)

102009 #1 게난 저 멩지나 혼 필, 혼 필이 그 뭐 자로 열다섯 잔가? 그거 놓곡, 예장 써놓곡 헤근에 그거 허영 가정, 그 처갓칩이 가정가면은 처갓칩에서 게 또 내중엔 보관헷다가 다시 뒈돌려 준덴헙니다. 그렇게 허고, 거 뭐, 그거 허고 뭐 예물이옌 헌건.(그러니까 저 명주나 한 필, 한 필이 그 뭐 자로 열다섯 잔가? 그거 놓고, 예장 써 놓고 해서 그거 해서 가져서, 그 처갓집에 가져가면 처갓집에서 그래 또 나중엔 보관했다가 다시 되돌려 준다합니다. 그렇게 하고, 거 뭐, 그거 하고 뭐 예물이라고 한건.)

102009 @ 뭐 이불이라도 흔 채 안 헷수꽈?(뭐 이불이라도 한 채 안 했습니까?)

102009 #1 아 ,이불 이불이야 건 신붓집에서 건 당연히 건.(아 ,이불 이불이야 그건 신부 집에서 그건 당연히 그건.)

102009 @ 이불 멧 채 헨 왓수과?(이불 몇 채 해서 왔습니까?)

102009 #1 두 개.(두 개.)

102009 @ 두 개.(두 개.)

102009 #1 것두 힘들주 옛날엔.(그것도 힘들지 옛날엔.)

102010 @ 게난예. 그럼 그 때 결혼식 할 때 어디서 헷수과?(그러게요. 그럼 그 때 결혼식 할 때 어디서 했습니까?)

102010 #1 수망리[31]서.(수망리서.)

102010 @ 예.(예.)

102010 #1 여기, 여기가 ᄉᆞ삼사건 후에 수망리 재건이라 헤가지고 오십, 오십년도 수망리 저 밑에 성담 쌓고 제건헨 거기서 살 때주게. 우리가 여기 게, 거기 살다가 내중에 완전히 평원뒈니깐 우리 옛날 살던 디 가자 헤가지고.(여기, 여기가 사삼사건 후에 수망리 재건이라 해가지고 오십, 오십년도 수망리 저 밑에 성담 쌓고 재건해서 거기서 살 때지. 우리가 여기 그래, 거기 살다가 나중에 완전히 평정되니까 우리 옛날 살던 데 가자 해가지고.)

102010 @ 그때 결혼할 때 결혼사진은 찍언마씨?(그때 결혼할 때 결혼사진은 찍었나요?)

102010 #1 엇수다. 사진 셍각이랑말앙. 그땐 사진사도 별로 엇엇고.(없습니다. 사진 생각이고말고. 그땐 사진사도 별로 없었고.)

102010 @ 그 후제라도 안 찍엇수과?(그 후에라도 안 찍었습니까?)

102010 #1 에, 안 찍엇수다.(예, 안 찍었습니다.)

함을 말한다. 함 속에는 예장과 무명을 넣었다.

31) '수망리'는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를 말한다.

102011 @ 그믄 그때 당시에 결혼헹 신혼살림은 어디서 헷수과?(그러면 그때 당시에 결혼해서 신혼살림은 어디서 했습니까?)

102011 #1 그 저 밑에 초가집에서.(그 저 밑에 초가집에서.)

102011 @ 초가집에서.(초가집에서.)

102011 #1 초가집 이렇게 헤가지고, 초가집 뭐 흔 다섯 평 쯤 됀나?(초가집 이렇게 해가지고, 초가집 뭐 한 다섯 평 쯤 되나?)

102011 @ 예.(예.)

101011 #1 헤가지고, 초가집이엔 말젠 문도 없어가지고 그냥 어웍 케다가 그냥 발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바람만 막이로만 헤근엥 그렇게 헤난, 살면서 결혼도 허고 잔치도 허고.(해가지고, 초가집이라고는 나중에는 문도 없어가지고 그냥 억새 캐다가 그냥 발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바람만 막이로만 해서 그렇게 해났어. 살면서 결혼도 하고 잔치도 하고.)

102012 @ 아이들은 멧 낫수과?(아이들은 몇 낳았습니까?)

102012 #1 지금 현재 오남매.(지금 현재 오남매.)

102012 @ 오남매. 아들 둘 딸 셋마씸?(오남매. 아들 둘 딸 셋요?)

102012 #1 에. 아들 둘 딸 셋.(예, 아들 둘 딸 셋.)

102012 @ 수망리 ᄀᆞ찌 사는 자식은 엇고마씨?(수망리 같이 사는 자식은 없고요?)

102012 #1 에?(예?)

102012 @ 수망리 마을 안에 사는 자식은 엇고마씨?(수망리 마을 안에 사는 자식은 없고요?)

102012 #1 아 자식덜?(아, 자식들?)

102012 @ 그니까 아들 한 분은 서울 산덴 헷잖아예?(그니까 아들 한 분은 서울 산다고 했잖아요?)

102012 #1 어.(어.)

102012 @ 한 분은 제주시 살고예?(한 분은 제주시 살고요?)

102012 #1 제주시.(제주시.)

102012 @ 뚤들은 다 어디 살암숫과?(딸들은 다 어디 삽니까?)

102012 #1 다 육지, 서울.(다 육지, 서울.)

102012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02012 #1 여기 ᄒᆞ나 잇고,(여기 하나 있고.)

102012 @ 아 여기 수망리에마씨?(아, 여기 수망리에요?)

102012 #1 아니, 아니. 저기 표선이.(아니, 아니. 저기 표선에.)

102014 @ 아, 기구나예. 그 저기 다섯 자식들은 다 결혼헷수과?(아, 그렇군요. 그 저기 다섯 자식들은 다 결혼했습니까)

102014 #1 지금 족은 아들은 결혼 안 헷수다.(지금 작은 아들은 결혼 안 했습니다.)

102014 @ 아 결혼 안 한 아들도 잇구나예?(아 결혼 안 한 아들도 있군요?)

102014 #1 거, 아니사 아니사 허젠 헴신지.(그거, 안하려고 안하려고 하려고 하는지.)

102015 @ 그, 며느리들은 마음에 들어마씨?(그, 며느리들은 마음에 드나요?)

102015 #1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뭐 요즘 세상에 자기네끼리만 마음에 들면 사는 거지 뭐. 뭐 오란 내리 뭐 손주도 세 개 낳고 허난 뭐 무신 뭐.(마음에 들고 안 들고 뭐 요즘 세상에 자기네끼리만 마음에 들면 사는 거지 뭐. 뭐 오란 내리 뭐 손주도 세 개 낳고 하니까 뭐 무슨 뭐.)

102015 @ 응, 게서 어디, 어디 육지, 서울 분이꽈? 메누리가?(응, 그래서 어디, 어디 육지, 서울 분입니까? 며느리가?)

102015 #1 부산.(부산.)

102015 @ 부산마씨? 응, 사위는 어떵헙니까?(부산요? 응, 사위는 어떠합니까?)

102015 #1 에?(예?)

102015 @ 사위들은?(사위들은?)

102015 #1 사위들은 뭐 기자 뭐 자기네 기자 먹을 정도로만 살고.(사위들은 뭐 그저 뭐 자기네 그저 먹을 정도로만 살고.)

102015 @ 살고예.(살고요.)

102015 #1 사람들 뭐 보통 무신, 평범한 사람들.(사람들 뭐 보통 무슨, 평범한 사람들.)

102016 @ 평범한 사람들. 그, 삼춘이, 지금 삼춘이 말씀헤주신 낳고 자라고, 일제강점기 지나고, 사삼 거치고, 이제 아이들 낳고 키우고 하면서예? 특별하게시리 수망리 살면서 그 기억나는 거.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뭔가 특별히 기억나는 거. 아니면 어렵게 결혼헤가지고 어려운 삶을 이렇게 큰 집도 지엇잖아예? 특별하게 기억나 가지고 그 기억나는 거 말할 거 이시믄 골아줍서.(평범한 사람들. 그, 삼촌이, 지금 삼촌이 말씀해주신 낳고 자라고, 일제 강점기 지나고, 사삼 거치고, 이제 아이들 낳고 키우고 하면서요? 특별하게 수망리 살면서 그 기억나는 거.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뭔가 특별히 기억나는 거. 아니면 어렵게 결혼해가지고 어려운 삶을 이렇게 큰 집도 지었잖아요? 특별하게 기억나서 그 기억나는 거 말할 거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102016 #1 에, 어려웟죠. 참 어려웟수다. 스삼사건이엔, 이디 집을 내가 두 곤데 짓으면서 저 밑에 수망리 처음 재건헤가지고 지을 때는 하르버지가 산 때난 그때는 할으버지 중심으로 헤가지고 살다가 나가 군대 간 제대헨 와가지고, 와도 그때는 상뎅히 어려웟수다, 삶이. 그 육십년 대니까 뭐 우리가 저 칠십 년대까지는 항쟁이 칠십 년대 후반부터는 쪼꼼 사람이 어느 정도 저 생활이 좋아전다고 헷는데 그 이전에는 상당히 어려웟수다게. 어려워가지고 내가 여기 왕 집을 짓젠 허니 낭이 이서야 집 지슬 거 아이꽈? 엿날엔 낭이 상당히 귀헷수다게.(예, 어려웠죠. 참 어려웠습니다. 사삼사건이라고, 여기 집을 내가 두 군데 지으면서 저 밑에 수망리 처음 재

건해가지고 지을 때는 할아버지가 산 때난 그때는 할아버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살다가 내가 군대 간 제대해서 와가지고, 와도 그때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삶이. 그 육십 년대니까 뭐 우리가 저 칠십 년대까지는 항쟁이 칠십 년대 후반부터는 쪼꼼 사람이 어느 정도 저 생활이 좋아진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워가지고 내가 여기 와서 집을 지으려고 하니 나무가 있어야 집지을 거 아닙니까? 옛날엔 나무가 상당히 귀했습니다.)

102016 @ 예.(예.)

102016 #1 지금은 밧마다 가며는 뭐 저거 뭐 지금은 오히려 집 지으젠 허면은 저런 낭은 다 끈엉 우리 집이 원 누게 오랑 끈어가비시믄 좋겟는디? 낭이 엇어가지고 낭을 요 어디 강 낭을 헤당 집을 지을 거냐. 그전에 춤 ᄀᆞᆯ을 말은 아니지만 낭을 도둑질 헤야 집을 지슬 거 아니꽈? 도둑질이 어디냐? 저 밀림에 강 낭을 비어오는 거라마씀. 게난 나라엣 거 도둑질 허는 셈 되는 거라마씀 낭을. 어디 가느냐 저 밀림 속에 가믄 저 낭들이 이서수다. 헐 수가 없어, 살젠허민. 그걸 가근엥에 ᄒᆞ나씩 ᄒᆞ나씩 어깨에 메당 이 집을 짓젠허민 거 낭 ᄒᆞᆫ 번 지오라 나민 ᄒᆞᆫ 사흘을 못 전뎡 ᄁᆞ딱 못헙니다. 거 낭이 낭이 짤라근엥에 ᄆᆞᆯ를 때는 좀 ᄀᆞ볍는데양.(지금은 밭마다 가면 뭐 저거 뭐 지금은 오히려 집 지으려 하면 저런 나무는 다 끊어서 우리 집에 원, 누가 와서 잘라가 버리면 좋겠는데? 나무가 없어가지고 나무를 요 어디 가서 나무를 해다가 집을 지을 거냐. 그전에 참, 말할 말은 아니지만 나무를 도둑질 해야 집을 지을 거 아닙니까? 도둑질이 어디냐? 저 밀림에 가서 나무를 비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나라에 거 도둑질 하는 셈 되는 겁니다, 나무를. 어디 가느냐면 저 밀림 속에 가면 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할 수가 없어, 살려고 하면. 그걸 가서 하나씩 하나씩 어깨에 메다가 이 집을 지으려하면 거 나무 한 번 져와 나면 한 사흘을 못 견뎌서 까딱 못합니다. 거 나무가 나무가 잘라서 마를 때는 좀 가벼운데요.)

102016 @ 예.(예.)

102016 #1 저 숙데낭 보통 숙데낭으로 집을 엿날엔 지엇는디, 그것 봄에나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ᄂᆞᆯ낭 헤놓민 낭 ᄒᆞ나가 그렇게 무거웁니다게.(저 삼나무 보통 삼나무로 집을 옛날엔 지었는데, 그것 봄에나,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생나무 해 놓으면 나무 하나가 그렇게 무겁습니다.)

102026 @ 예.(예.)

102026 #1 거 뭐 거벼운 건 집 짓지 못하니까 족은 건. 그거 저나민 여 어깨 거, 배로 헤근엥 지어나민 요 어깨가 몬 벳겨저근엥.(거 뭐 가벼운 건 집 짓지 못하니까 작은 건. 그거 져나면 여 어깨 거, 참바로 해서 져나면 요 어깨가 모두 벗겨져서.)

102016 @ 예.(예.)

102016 #1 저 여긴말로 북물어. 그렇게 고셍허멍 집을 짓는디, 그것이 ᄒᆞᆫ두 번만 그거 강오랑 집이 뒙니까?(저 여기말로 부르터. 그렇게 고생하면서 집을 짓는데, 그것이 한두 번만 그거 가오고 집이 됩니까?)

102016 @ 하이고.(하이고.)

102016 #1 집 흔 거리, 엿날 초가집 집 흔 거리 짓젠허믄 그 낭이, 낭 숫자로 보민 멧 개 든뎅 허더라? 그 숫자는 참 세젠 허며는 뭐 거 이름이 이거 집을 짓젠 허민 엿날 초가집은 거 낭 이름이 이서양.(집 한 채, 옛날 초가집 집 한 채 지으려면 그 나무가, 나무 숫자로 보면 몇 개 든다고 하더라? 그 숫자는 참 세려고 하면 뭐 거 이름이 이거 집을 지으려고 하면 옛날 초가집은 거 나무 이름이 있어요.)

102016 @ 예.(예.)

102016 #1 뭐 상ᄆᆞ루옌 헌다, 뭐 포영 허다, 무신 귀클이옌 헌다, 뭐 무신 요건, 요건 뭐 서리 ᄀᆞ슴이여 요건 지둥 ᄀᆞ슴이여, 요건 뭐 뭐 마리 ᄀᆞ슴이여, 뭐 귀클 ᄀᆞ슴이여 뭐, 그걸 다 내 그걸 다 짐으로 ᄒᆞ나씩 저다근엥에 집을 짓젠 헤봅서. 그거 요즘 사름덜은 들으믄 거 날고라 거짓말이옌 ᄀᆞᆯ읍니께.(뭐 용마루라고 한다, 뭐 보라고 한다, 무슨 귀틀이라고 한다, 뭐 무슨 요건, 요건 뭐 서까래감이야, 요건 기둥감이야, 요건 뭐 뭐 마루감이야, 뭐 귀틀감이야 뭐, 그걸 다 내가 그걸 다 짐으로 하나씩 져다가 집을 지으려 해보세요. 그거 요즘 사람들은 들으면 거 날보고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102016 @ 게난예. 그 직접 그 초집을 지을 때 직접 나무랑 다 준비헤가지고 하셔낫구나예? 초집 지을 때.(그러니까요. 그 직접 그 초집을 지을 때 직접 나무랑 다 준비해가지고 하셨군요? 초집 지을 때.)

102016 #1 예.(예.)

102016 @ 음, 그럼 저가 나중에 그 집 지을 때 그 필요한 질문들이 잇는데 그때는 삼춘한테 질문 하쿠다예. 오늘은 어 여기까지 하겟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예.(음, 그럼 제가 나중에 그 집 지을 때 그 필요한 질문들이 있는데 그때는 삼촌한테 질문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102016 #1 그거 뭐 도움이 잘 뎃는지 말앗는지.(그거 뭐 도움이 잘 됐는지 말았는지.)

2. 제보자 일생(2)

102001 @ 삼춘네 어머니 고향은 어디꽈?(삼촌네 어머니 고향은 어딥니까?)

102001 #2 신흥 2리 고수동[32]이엔 헌디서 태어난 사람인디.(신흥 2리 고수동이라고 한데서 태어난 사람인데.)

102002 @ 신흥 이리 고수동에서예. 게믄 삼춘네 부모님네는 무슨 일 하멍 살아낫수가?(신흥 이리 고수동에서요. 그러면 삼촌네 부모님 네는 무슨 일 하면서 살았습니까?)

102002 #3 일하고 살아서.(일하고 살았어.)

32)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 2 리에 있는 동 이름이다.

102002 @ 그냥 농사 지으멍마씨예?(그냥 농사 지으면서요?)

102002 #2 예.(예.)

102003 @ 예, 경헷구나예. 어, 아까 여기 잠깐 녹화 안뒈나부난, 마찬가지로 다 농사 지으멍 살앗지예?(예, 그랬군요. 어, 아까 여기 잠깐 녹화 안 돼버려서, 마찬가지로 다 농사 지으면서 살았지요?)

102003 #2 어, 예.(어, 예.)

102003 @ 경헷구나예. 그문 저기예? 삼춘네는 어머니 고향이 어디꽈?(그랬군요. 그러면 저기요? 삼촌네는 어머니 고향이 어딥니까?)

102003 #3 태흥리[33].(태흥리.)

102003 @ 아 태흥리꽈?(아, 태흥립니까?)

102003 #3 게난, 어제 들어보지 않앗수과?(그러니까, 어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102004 @ 예, 맞수다 맞수다. 그믄예, 그다음에 두 분이서 어릴 때 혹시 어떤 놀이 헷엇던 거 기억남숫과? 예를 든다면 남자어른들은 자치기라든가 여자 어른들은 공깃돌 놀이라든가. 그런 거 생각나는 대로 골아줍서.(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요, 그다음에 두 분이서 어릴 때 혹시 어떤 놀이 했었던 거 기억납니까? 예를 든다면 남자어른들은 자치기라든가 여자 어른들은 공깃돌 놀이라든가. 그런 거 생각나는 대로 말해주세요.)

102004 #3 하르방[34] 골읍서. 나 곧저.(할아버지 말하세요. 나 말하게.)

102004 #2 거 사실은 자치기렌 헌 것이 우리는 별로 못헤근엥 허는 이유가 이서.(거 사실은 자치기라고 한 것이 우리는 별로 못해서 하는 이유가 있어.)

102004 @ 아니 그난 어떤 놀이 하멍 살앗수과? 어떤 놀이를. 자치기 안 헤도 좋으난, 어떤 놀이 하면서 살앗수과?(아니 그니까 어떤 놀이 하면서 살았습니까, 어떤 놀이를. 자치기 안 해도 좋으니까, 어떤 놀이 하면서 살았습니까?)

102004 #2 놀이, 거 게 자치기허고, 구넉치기엔 헌 게 잇주?(놀이, 그거 그 자치기하고, 구멍치기라고 한 게 있지?)

102004 @ 예.(예.)

102004 #2 구넉치기 알아?(구멍치기 알아?)

102004 @ 그런 건 나중에 구넉치기 설명할 또 다른 게 이시난예, 어떤 놀이 헷수과? 구넉치기하고 자치기 하고, 또 어떤 거 잇수과?(그런 건 나중에 구멍치기 설명할 또 다른 게 있으니까요, 어떤 놀이 했습니까? 구멍치기하고 자치기 하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102004 #2 에 에, 거 저 남자들은 놀 일 별루 읏어.(에 에, 거 저 남자들은 놀 일 별로 없어.)

102004 @ 어섯수과? 뭐 예를 든다면, 뭐 막 그 생이, 아니 모여가지고 막 지어

33) '태흥리'는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를 말한다.
34) '하르방' 할아버지를 말한다. 여기서는 발화자의 남편을 가리킨다.

가지고 그런 놀이는 안 헤봔마씨?(없었습니까? 뭐 예를 든다면, 뭐 막 그 새, 아니, 모여가지고 막 지어가지고 그런 놀이는 안 해봤나요?)

102004 #2 아니 겐디, 자세허게 뒤편에 말하젠 허믄, 우리 ᄒᆞᆨ교 다닐 때는 차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남원이를 걸엉 다니젠 허믄 그런 거 헐 시간이 읏어.(아니 그런데, 자세하게 뒤편에 말하려면,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차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남원에를 걸어서 다니려하면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어.)

102004 @ 아, 경헷구나예.(아, 그랬군요.)

102004 #2 게난 ᄒᆞᆨ교 풀믄 벗들허곡 그자 오멍 이 우린 정심이옌 헌 걸 못 먹어본 사람이라 ᄒᆞᆨ교 다닐 때.(그러니 학교 풀면 벗들하고 그저 오면서 이 우린 점심이라고 한 걸 못 먹어본 사람이라 학교 다닐 때.)

102004 @ 아, 경헷구나예.(아, 그랬군요.)

102004 #2 정심 쌍 가젠 허믄 먹을 거 그 읏거든.(정심 쌍 가젠 하믄 먹을 거 그 없거든.)

102004 @ 예, 게믄 우리 여자 삼춘네는 어떤 놀이 하멍 지냇수과?(예, 그러면 우리 여자 삼촌네는 어떤 놀이 하면서 지냈습니까?)

102004 #3 나는 공기ᄒᆞ고, 오제미엔 ᄒᆞᆫ 거 알아저?(나는 공기하고, 오자미라고 한 거 알아?)

102004 @ 예, 예.(예, 예.)

102004 #1 오제미 ᄒᆞ고 줄넘기 ᄒᆞ고, 그런 거 헷주.(오자미 하고 줄넘기 하고, 그런 거 했지.)

102004 @ 예 맞수다, 맞수다. 그런 거 헷구나예?(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거 했군요?)

102004 #3 응, 오제미, 줄넘기.(응, 오자미, 줄넘기.)

102004 @ 나중에 그런 그 놀이는 또 구체적으로, 그 놀이는 어떤 거꽈 헤근엥 질문할 거라예.(나중에 그런 그 놀이는 또 구체적으로, 그 놀이는 어떤 겁니까 해서 질문할 겁니다)

102004 #3 응.(응.)

102005 @ 그다음엔 일제 시대에 공출 같은 거 막 헤낫잖아예? 그거 기억나는 대로 ᄀᆞᆯ아줍서.(그다음엔 일제 강점기에 공출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그거 기억나는 대로 말해주세요.)

102005 #2 공출은 우리는 직접 안 헤낫이니까, 그니까 부모네는 헌디.(공출은 우리는 직접 안 했었으니까, 그니까 부모네는 했는데.)

102005 @ 게난, 부모님들이 어떻게 헷던 거.(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던 거.)

102005 #3 아 공출 ᄀᆞ뜬 거는 무신 거 곡석.(아 공출 같은 거는 무슨 거 곡식.)

102005 @ 예.(예.)

102005 #3 얼마니 바찌라 ᄒᆞ고.(얼마만큼 바쳐라 하고.)

102005 @ 예.(예.)

102005 #3 그, 웨정 때 츰 거 무시거 엿날 제기.(그, 왜정 때 참, 거 무엇 옛날 제기.)

102005 @ 예.(예.)

102005 #3 놋그릇 그런 거 다 바쪄나고.(놋그릇 그런 거 다 바쳤었고.)

102005 @ 예, 다 바쪄나고예?(예, 다 바쳤고요?)

102005 #3 놋그릇 엿날 거 막 좋은 제기기들 믄딱 그 그시철에 뭐인고 ᄒᆞ민 우리 알기로는 비형기에 그 쉐를 헤다근에 비형기를 멘든덴 ᄒᆞ멍 믄 받아 가나서.(놋그릇 옛날 거 막 좋은 제기기들 모두 그, 그 시절에 뭐냐고 하면 우리 알기로는 비행기에 그 쇠를 해다가 비행기를 만든다고 하면서 모두 받아 갔었어.)

102005 @ 예.(예.)

102005 #2 그 놋그릇 내놓젠 ᄒᆞ믄 곱정 아이 내놓믄, 막 집이 들어왕 막 뒤여놧주.(그 놋그릇 내놓으려하면 숨겨 아니 내놓으면, 마구 집에 들어와서 마구 뒤졌었지.)

102005 @ 아, 그 뒤지는 건 누게가 왕 뒤젓수과?(아, 그 뒤지는 건 누가 와서 뒤졌습니까?)

102005 #2 아, 이디 동네 이디 동네 구장ᄒᆞ믄.(아, 여기 동네 여기 동네 구장하면.)

102005 #3 책임진 사름.(책임진 사람.)

102005 @ 음.(음.)

102005 #2 구장이 자기ᄒᆞᆫ틔 권당을 다 때렸다니까? 말 아이들으믄.(구장이 자기 한테는 권당을 다 때렸다니까? 말 안 들으면.)

102005 @ 음.(음.)

102005 #3 이장이 구장이랏주, 그 시철에는. 책임ᄒᆞᆫ 사름덜.(이장이 구장이었지, 그 시절에는. 책임진 사람들.)

102005 @ 음.(음.)

102005 #2 그 구장인데, 아이고 그때 게난에 네중엔 그 사사름덜이 좀 미움도 받앗주만은 왕, 왕, 왕.(그 구장인데, 아이고 그때 그러니까 나중엔 그 사람들이 좀 미움도 받았지만 왕, 왕, 왕.)

102005 @ 음.(음.)

102005 #3 왕이주게 멧 년.(왕이지 몇 년.)

102005 @ 일본 사람들이 왕 직접 ᄒᆞᆫ게 아니고예?(일본 사람들이 와서 직접 한 게 아니고요?)

102005 #2 아니아니, 이ᄁᆞ진 일본 사름덜이 못 오고, 할당을 메기거든. 그만히ᄒᆞ믄, 그 채우젠허민 어떵 헐 꺼라? 거 채우젠 허민 뭐.(아니아니, 여기까진 일본 사람들이 못 오고, 할당을 메기거든. 그만하면, 그 채우려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채우려고 하면 뭐.)

102005 @ 음.(음,)

102005 #3 곡석도 경 다 네놔야곡.(곡식도 그렇게 다 내놔야하고.)

102005 #2 쉐공출 밀 공출 다 헤낫는디.(소 공출 밀 공출 다 했었는데.)

102005 @ 그럼 그런 것들을 구장한티 시키믄 구장들은 마을 사람한티 안 냄덴 하면서 막 때리기도 허고마씸?(그럼 그런 것들을 구장한테 시키면 구장들은 마을 사람한테 안 낸다고 하면서 막 때리기도 하고요?)

102005 #2 응.(응.)

102005 #3 아 나 뜨림꾸장은 안 헷주마는. 저 누게니?(아, 나 때리기까지는 안 했지만. 저 누구니?)

102005 #2 상옥이 골아. 상옥인 지네 아방 반장인디 그렇게 구장한테 뚜드려 맞아가지고, 반장이 졸바로 안 헴뗀 뚜드려 맞은 거라.(상옥이 말해. 상옥인 자기네 아버지 반장인데 그렇게 구장한테 뚜드려 맞아가지고, 반장이 제대로 안 한다고 뚜드려 맞은 거라.)

102005 @ 음.(음.)

102005 #2 경헨 지금도 골아. 아방 뚜드려 맞아난 거.(그렇게 해서 지금도 말해. 아버지 뚜드려 맞아난 거.)

102006 @ 음, 알앗수다. 그다음엔예, 사삼 때도 여기 다 사셧엇잖아예? 사삼 때 직접 경험하거나, 직접 봤거나, 그런 것들을 골아줍서.(음, 알았습니다. 그다음엔요, 사삼 때도 여기 다 사셨잖아요? 사삼 때 직접 경험하거나, 직접 봤거나, 그런 것들을 말해주세요.)

102006 #3 ᄉᆞ삼 때는, 무시거 이디가 무신 저 재기 어디 노려부난.(사삼 때는, 무엇 여기가 무슨 저 빨리 어디 내려가 버려서.)

102006 #2 여기는 태흥리 웨가에 살아부난 몰라, 몰라.(여기는 태흥리 외가에 살아버려서 몰라, 몰라.)

102006 #3 내령 웃드레[35] 수망리가 더 무시거 헷는디, 저레 내려불고 그 시철에가 우리가 여레슷?(내려서 '웃드레' 수망리가 더 무엇 했는데, 저리로 내려버리고 그 시절에 우리가 열여섯?)

102006 #2 열여슷.(열여섯.)

102006 #3 여레슷 아니?(열여섯 아니?)

102006 #2 응.(응.)

102006 #3 겨난에 어떵헌 거 몰라. ᄉᆞ삼 때 어떵헌 거 난 모르고.(그러니 어떻게한 거 몰라. 사삼 때 어떻게 한 거 난 모르고.)

102006 @ 게난 삼춘넨, 어떵 헷수과?(그러니까 삼촌네는, 어떻게 했나요?)

102006 #2 나는 이집 불칼 때 흔마 죽을 뻔 헤낫어.(나는 이집 불탈 때 하마트면 죽을 뻔 해났어.)

35) '웃드레'는 한라산이 있는 쪽 벽지 근처의 들, 또는 그런 곳에 이루어진 마을을 말하는데 '웃드르'라고도 한다.

102006 @ 그 때 그때 봣던 장면들을 골아줍서. 그때 어떤 어떤 일이 이서낫인지.(그 때 그때 봤던 장면들을 말해주세요. 그때 어떤 어떤 일이 있었는지.)

102006 #2 그 내중에 내가 들은 이야긴데.(그 나중에 내가 들은 이야긴데.)

102006 @ 아니 들은 얘기 말고예, 그때 삼춘이 봣던 거마씨.(아니 들은 얘기 말고요, 그때 삼촌이 봤던 거요.)

102006 #3 말곤 거 말아.(말고는 거 말아.)

102006 #2 그 두에 나 그거 본걸 곧젠 허난에 어떤 일 따문에 경 헌 건데.(그 뒤에 내가 그거 본걸 말하려고 하니까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102006 @ 예, 예.(예, 예.)

102006 #2 그때 그 내중에 들은 말인데, 토벌대가 저 여 산으로 왓는데.(그때 그 나중에 들은 말인데, 토벌대가 저 여기 산으로 왔는데.)

102006 @ 예.(예.)

102006 #2 어디서 보초사단에 그 사름덜이 도망간 모양이여.(어디서 보초사다가 그 사람들이 도망간 모양이야.)

102006 @ 예.(예.)

102006 #2 아침 혼 그때 가을, 그때 시월달이니깐. 헌데, 밝안 얼마 엇일 땐디 총 소리가 형편없이 나드라고.(아침 한 그때 가을, 그때 시월달이니깐. 한데, 밝아서 얼마 없을 때인데 총 소리가 형편없이 나더라고.)

102006 @ 예.(예.)

102006 #2 나가지고 아 어떵헨 우리 어멍 막 무서와서 아까 내 이 옴의에도 ᄀᆞ찌 붕덥이 여기 불살라부는디 거 막 모다전에 막 불불불불 떨엇지.(나가지고 아 어떻게 해서 우리 어머니 막 무서워서 아까 내 이 옆에도 같이 화로에 여기 불태워버리는데 그거 막 모여서 벌벌벌벌 떨었지.)

102006 @ 예.(예.)

102006 #2 거 떨어노누렌 허니까, 주연 있소, 허는 소리가 나드라고. 주연 있소 허는 소리가나서, 나가 그디서 나가 젤, 게도 우리 동생들보단 나이가 많으니까 나가 젤 앞에 나갓어. 나가니까, 주연 어디 갓소 ᄒᆞ는 거야. 실쳇 말이.(거 떠느라고 하니까, 주인 있소,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 주인 있소 하는 소리가나서, 나가 거기서 내가 제일, 그래도 우리 동생들보단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제일 앞에 나갔어. 나가니까, 주인 어디 갔소, 하는 거야. 실제 말이.)

102006 @ 예.(예.)

102006 #2 주연 어디 갓소, 솔직히 그땐 모물 시끄레 가니까 모물 시끄레 갓수다 허난, 이 폭도 뿔겡이 집이엔.(주인 어디 갔소, 솔직히 그땐 메밀 실러 가니까 메밀 실으러 갔습니다 하니까, 이 폭도 빨갱이 집이라고.)

102006 @ 음.(음.)

102006 #2 당장 안 오멘 빨리 집 다, 나보고 성냥 가저와. 여기 이 저 이제 여기 사투리론 화곽[36] 화곽 허는데 성냥.(당장 안 오면 빨리 집 다, 나보고 성냥 가져

와. 여기 이 저 이제 여기 사투리론 ‘화곽’ ‘화곽’ 하는데, 성냥.)

102006 @ 예.(예.)

102006 #2 성냥 가저와 허기에.(성냥 가져와 하기에.)

102006 @ 그때 당시엔 성냥 가저와, 헙디가? 화곽 가저와, 헙디가?(그때 당시엔 성냥 가져와, 합디까? 화곽 가져와, 합디까?)

102006 #2 그디 저 이북 출신이여 화각, 거 성냥이엔 헷일 거라.(거기 저 이북 출신이여 화각, 거 성냥이라고 했을 거야.)

102006 @ 아, 그 사람이 그 서북청년단이어낫구나예?(아, 그 사람이 그 서북청년단이었군요?)

102006 #2 에, 에.(예, 예.)

102006 @ 아, 경헨마씸.(아, 그래서요?)

102006 #2 아니, 그때 이디 온 건 바로 이북사람 아니고 저 바로 현역, 현역.(아니, 그때 여기 온 건 바로 이북사람 아니고 저 바로 현역, 현역.)

102006 @ 아, 현역. 군인예?(아, 현역. 군인이요?)

102006 #2 어, 군인. 우리. 게네 가저완에. 가저와니까 그, 저 여기 촐단이 막 널어젓는디, 불 짇으렌 허드라고. 난 첫 번에 가저 올 때, 담베 피울 줄 알앗거든.(어, 군인. 우리. 그러니 가져와서. 가져오니까 그, 저 여기 꼴단이 막 너부러졌는데, 불 지피라고 하더라고. 난 첫 번에 가져 올 때, 담배 피울 줄 알았거든.)

102006 @ 예.(예.)

102006 #2 담베 필 줄 알앗는디 게 불 짇으렌 허니까, 벌벌벌벌벌벌 떨면서 불을 네니 그게 제대로 뒈냐말이어.(담베 필 줄 알았는데 게 불 지피라고 하니까, 벌벌벌벌벌벌 떨면서 불을 내니 그게 제대로 되냐 말이야.)

102006 @ 예.(예.)

102006 #2 불이 꺼빗단 말이여. 꺼브니까 또 네엇어, 또 불이 껏어. 두 번을 끄니까 총을 가슴에 팍 대는 거 아냐. 이 새끼 일부러 껌다고. 아, 게네 성냥을 뻬드라고.(불이 꺼져버렸단 말이야. 꺼져버리니까 또 붙였어. 또 불이 껐어. 두 번을 끄니까 총을 가슴에 팍 대는 거 아냐. 이 새끼 일부러 끈다고. 아, 그러니 성냥을 뺐더라고.)

102006 @ 예,(예,)

102006 #2 뺀에.(뺏어서.)

102006 #3 열으슷에, 열으슷 솔에.(열여섯에, 열여섯 살에.)

102006 #2 뻬, 뻬가지고 자기가 성냥 알을 한 멧 개, 멧 개 가저가지고는 불넨에, 불부쩌 가지고 여 이집, 바로 여기 ᄒᆞ고 이디영 저디 이디 우리 이디 저쪽에 우리 형님집 이섯는데, 세 곤대를 불부치젠 던저분 거 아니, 지붕위에.(빼, 빼가지고 자기가 성냥 알을 한 몇 개, 몇 개 가져가지고는 불내서, 불붙여가지고 여 이집, 바로 여기 하고 여기랑 저기 여기 우리 여기 저쪽에 우리 형님 집 있었는데, 세 군

36) ‘화곽’은 성냥을 말하는데 ‘곽’이라고도 한다.

대를 불붙이려고 던져버린 거 아니, 지붕 위에.)

102006 @ 아.(아.)

102006 #2 옛날 초가집이니까.(옛날 초가집이니까.)

102006 @ 예, 예.(예, 예.)

102006 #2 던젼에 다 불 부트는 거 봐가지고 걸라, 허는 거야. 어디 가는 고허니 바로 저기 저 원 우리 엿날 올레, 저기 바로 우리 집이난.(던져서 다 불 붙는 거 봐가지고 걸어라, 하는 거야. 어디 가는 가하니 바로 저기 저 원 우리 옛날 올레, 저기 바로 우리 집이니까.)

102006 @ 예.(예.)

102006 #2 저기 가니까 앉으라고 허더라고. 게난 앉앗단 말이야. 거고 게난 ᄒᆞ나가 딱 거기 지커 서고.(저기 가니까 앉으라고 하더라고. 그러니 앉았단 말이야.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가 딱 거기 지켜서고.)

102006 @ 예.(예.)

102006 #2 나머지는 이 밑에 밧 바로 지금 이 알력집 거기도 그 날, 그전에도 그집 살아난, 그 집에 간에 그 성냥으로 불부쩟지. 또 요 서짝에도 집이 이섯서. 거기 간에 또 그걸로 불 부쩟지. 부쩌근에 그 사이 나 나오니까, 요디 요 카보에 잇는디 거기 나오니까, 이 사름이 쫓아가믄서, 쫓아 가불드라고. 아무 말도 아녀고, 우리ᄀᆞ라 어떵허렌 말도 안 허고 그대로 쫓아 가불드라고.(나머지는 이 밑에 밭 바로 지금 이 아랫집 거기도 그 날, 그전에도 그 집 살아났던, 그 집에 가서 그 성냥으로 불붙였지. 또 요 서쪽에도 집이 있었어. 거기 가서 또 그걸로 불붙였지. 붙여서 그 사이 내가 나오니까, 요기 요 커브에 있는데 거기 나오니까, 이 사람이 쫓아가면서, 쫓아 가버리더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도 안 하고 그대로 쫓아 가버리더라고.)

102006 @ 예.(예.)

102006 #2 게네, 그 일에서 올케, 그추룩 헌지 훅 가분 저 후에 우리가 여기 우리 안에 걸 전부 네엿지. 우로 불부찌니까. 이 밑에예 빨리 안내려오니까. 겨네 이제 요디 이 두엔 영 헨 돌담으로 막아놧는디. 게네 그 앞엔. 게네 그걸 게도 먹언 살고, 여기 저 산듸연 한 것이, 우리는 목산[37] 헤가지고. 목산 헨, 목산 모르지?(그러니, 그 일에서 옳이, 그처럼 한지 훅 가버린 저 후에 우리가 여기 우리 안엣 걸 전부 꺼냈지. 위로 불붙이니까. 이 밑엔 빨리 안 내려오니까. 그래서 이제 요기 이 뒤엔 이렇게 해서 돌담으로 막아놨는데. 그래서 그 앞엔. 그래서 그걸 그래도 먹어서 살고, 여기 저 밭벼라고 한 것이, 우리는 '목산' 해가지고. '목산' 해서, '목산' 모르지?)

102006 @ 예.(예.)

102006 #2 목산이엔 헨 갈산듸[38]엔 헤가지고 산듸가 거무룽허니 갈산듸가 잇

37) '목산'은 밭벼의 일종이며, '갈산듸'로도 불린다.
38) '갈산듸'는 밭벼의 일종이며, 목산이라고도 한다.

서.(‘목산’이리고 해서 ‘갈산듸’라고 해가지고 밭벼가 거무스름하니 ‘갈산듸’가 있어.)

102006 @ 예.(예.)

102006 #2 거 저 새왓 갈아근엥에, 그 일 년벳긔 안 갈아. 그다음은 그 그레 따른 거 허고.(그거 저 띠밭 갈아서, 그 일 년밖에 안 갈아. 그다음은 그 거기에 다른 거 하고.)

102006 @ 예.(예.)

102006 #2 그거 헷는디, 그거 눌어젓는 디. 아 거기 불타난 거 우리 네중에 그거 전부 장만헨 먹엇으니까.(그거 했는데, 그거 가려있는 데. 아 거기 불탔던 거, 우리 나중에 그거 전부 장만해서 먹었으니까.)

102006 @ 예.(예.)

102006 #2 불태와분 걸.(불태워버린 걸.)

102006 #@ 아.(아.)

102006 #2 게난, 냄새는 거 쏘곱에 연기가 막 들어가나니까.(그러니까, 냄새는 거 속에 연기가 막 들어갔었으니까.)

102006 @ 예.(예.)

102006 #2 막 ᄉᆞ뭇 연깃내가 그렇게 나멍헤도 걸 먹어사주.(막 사뭇 연기냄새가 그렇게 나면서도 그걸 먹어야지.)

102006 #3 아무것도 엇이난 뭐. 게, 그 시철에 막 굶언.(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그래, 그 시절에 막 굶었어.)

102006 #2 그때 죽지 아녀난 산거지.(그때 죽지 안하니까 산거지.)

102006 #3 굶언, 저디 곧든 디 00이넨 흔디도 그 부모들 굶언 죽어서.(굶었어, 저기 말하던 데 00네 함께도 그 부모들 굶어서 죽었어.)

102006 #2 00씨네 부모님 네는 굶어 죽다시피도 헷수다.(00씨네 부모님 네는 굶어 죽다시피 했습니다.)

102006 #3 양, 어떵 살아신지 그 시철에.(예, 어떻게 살았는지 그 시절에.)

102006 #2 아 그자 우리는 그때 게도 내중에 저 신흥리[39]에 우리 고종 사촌 시니까 거기 내려강 살고. 이뒨 끗끗내 산에영 숨어 돌아다니니까, 숫자 식구는 상뎅에 만엣지.(아 그저 우리는 그때 그래도 나중에 저 신흥리에 우리 고종 사촌 있으니까 거기 내려가서 살고. ‘여긴’ 끝끝내 산이랑 숨어 돌아다니니까, 숫자 식구는 상당히 많았지.)

102006 @ 예.(예.)

102006 #2 근디 그난 00이 부모넨 다 죽다 헷다고. 굶어죽다시피 허고, 할아버지는 그때 살아게지고, 할아버지가 저거 결혼시켜 줘서, 허허.(그런데 그러니까 00이 부모 네는 다 죽다 했다고. 굶어죽다시피 하고, 할아버지는 그때 살아가지고, 할아버지가 저거 결혼시켜 줬어, 허허.)

102006 @ 그럼 그때 당시에 혹시 가족 중에 혹시 누구 이렇게 돌아가신 분은

39) ‘신흥리’는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를 말한다.

어섯수과?(그럼 그때 당시에 혹시 가족 중에 혹시 누구 이렇게 돌아가신 분은 없었습니까?)

102006 #2 우리 아버지 ᄉᆞ삼사건 때 돌아가셧지.(우리 아버지 사삼사건 때 돌아가셨지.)

102006 @ 게난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셧수가?(그러니까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102006 #2 우리 아버진 총살당헷어.(우리 아버진 총살당했어.)

102006 @ 그 총살된 과정을 좀 ᄀᆞᆯ아줍서.(그 총살된 과정을 좀 말해주십시오.)

102006 #2 건 아니, 우리 안 봐부니까.(그건 아니, 우리 안 봐버리니까.)

102006 @ 무사, 무사 지나가단마씸?(왜요, 왜요 지나다가요?)

102006 #2 아니, 우리허고 ᄀᆞ찌 엇어, 엇엇는데 저기 그.(아니, 우리하고 같이 없어, 없었는데 저기 그.)

102006 @ 예, 모물 시끄러 간 거?(예, 모물 실으러 간 거?)

102006 #2 아니 그 날이 아니고, 저 우에 거든. 거의 그루 후에 ᄒᆞᆫ 두 달 거의 후에, 죽은 건.

102006 @ 예.(예.)

102006 #2 우린 시월ᄃᆞᆯ이고, 동짓ᄃᆞᆯ 다 구물언 죽엇이니까.(우린 시월달이고, 동짓달 다 저물어서 죽었으니까.)

102006 @ 예, 예 예.(예, 예 예.)

102006 #2 건 뭐 그때 거 본 사름덜 말하는 뭐 헌데.(그건 뭐 그때 그거 본 사람들 말하는 뭐 하는데.)

102006 #3 그때 하영 여라이 죽여벳주게.(그때 많이 여럿 죽여 버렸지.)

102006 #2 거난, 거 우리 아버지 죽는 날, 여섯 사름을 죽여 버렷는데. ᄒᆞᆫ 사름은 게도 내중에 살아낫어.(그러니까, 그거 우리 아버지 죽는 날, 여섯 사람을 죽여 버렸는데, 한 사람은 그래도 나중에 살아났어.)

102006 #3 누게가?(누가?)

102006 #2 경추.(경추.)

102006 #3 그때 ᄒᆞ루꽈?(그때 하룹니까?)

102006 @ 음.(음.)

102006 #2 어. 거난에 그때 이 붓ᄇᆞ른듸렌 헌 디, 바로 영 안 맞이니까.(어. 그러니까 그때 이 급소라고 한 데, 바로 이렇게 안 맞으니까.)

102006 @ 예.(예.)

102006 #2 총으로 쏸에 거시기도 죽지 아네가지고. 내중엔 고생은 상뎅히, 거고 막 창으로 찔러부니까 내중에 여기 입을 뭐 음식 먹젠하믄.(총으로 쏴서 거시기도 죽지 않아가지고. 나중엔 고생은 상당히, 그리고 막 창으로 찔러버리니까 나중에 여기 입을 뭐 음식 먹으려하면.)

102006 @ 예.(예.)

102006 #2 그대로 입을 놀리질 못헤니까.(그대로 입을 놀리질 못하니까.)
102006 @ 예.(예.)
102006 #2 손으로 받아서 먹엇다고 헤여.(손으로 받아서 먹었다고 해.)
102006 @ 아.(아.)
102006 #2 그렇게 고셍허면서도 그 사름은.(그렇게 고생하면서도 그 사람은.)
102006 @ 예.(예.)
102006 #2 죽지 아녀니까.(죽지 않으니까.)
102006 @ 지금도 살아계셔마씨?(지금도 살아계셔요?)
102006 #2 아니아니 죽어볏주. 여녕이 그때 우리보다 나이 우인디, 여녕이 지금 살면 얼마니 뒈라고.(아니아니 죽어버렸지. 연령이 그때 우리보다 나이 위인데, 연령이 지금 살면 얼마나 되라고.)
102006 #3 우리 그때 열이슷인디.(우리 그때 열여섯인데.)
102006 @ 어디서 어떻게 잡혀갓덴 소리는 게민 그분헌티 들어시쿠다예?(어디서 어떻게 잡혀갔다는 소리는 그러면 그분에게 들었겠네요?)
102006 #2 아니 그때 가찌, 근데 그때 젊은 여자덜, 여자덜이영 어린아이들이 그저 본 아이들 어떻게 헤영 뒌 거 다 알주 우리도.(아니 그때 같이, 그런데 그때 젊은 여자들, 여자들하고 어린아이들이 그저 본 아이들 어떻게 해서 된 거 다 알지 우리도.)
102006 @ 게난, 그때 어떵헨 아버지가, 아버지랑 그 여섯 명 잡혀간 중에서 한 분 살아남앗덴 헷잖아예?(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서 아버지가, 아버지랑 그 여섯 명 잡혀간 중에서 한 분 살았다고 했잖아요?)
102006 #2 어.(어.)
102006 @ 게, 그 분이.(그래, 그분이.)
102006 #2 아 건 그 사람들은 다 현장에덜, 우리 아버지영 현장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죽여 부리니깐.(아, 그건 그 사람들은 다 현장들, 우리 아버지랑 현장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죽여 버리니까.)
102006 @ 게난 어떵헤근에 그 살아나, 살아나부난 그때 거를 저기 전헤주긴 헷일 거 아니꽈예? 이야기를예? 게 어떵헷덴 헙딧까, 무사?(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 살아나, 살아나버려서 그때 그거를 저기 전해주긴 했을 거 아닙니까? 이야기를요? 게 어떻게 했다고 합디까, 왜?)
102006 #1 말곧게 경 헤낫이카?(말하게 그렇게 했었을까?)
102006 #2 아니, 경 허난 그루 후제 저 내련에 수망리 안 살안 딴 디 강 살아부니까, 자세하게 그 사름안틘 못 듣고.(아니, 그렇게 하니까 그 후에 저 내려와서 수망리 안 살아서 다른 데 가서 살아버리니까, 자세하게 그 사람한테 못 듣고.)
102006 @ 예.(예.)
102006 #2 그때 가찌 잡히근엥 간 사름덜이 지금도 여기 지금도 시니까, 그때 이야기들은 다 얼마 우린 내용들은 다 알주.(그때 같이 잡혀서 간 사란들이 지금도

여기 지금도 있으니까, 그때 이야기들은 다 얼마 우린 내용들은 다 알지.)

102006 @ 게난, 그 내용을 ᄒᆞ끔 ᄀᆞᆯ아줘봅서.(그러니까, 그 내용을 조금 말해주세요.)

102006 #2 내용은 나 원 ᄀᆞᆫ고프도 아녀. 거 부모네 좋은 일이믄 허겠는데.(내용은 나 원 말하고 싶지도 안 해. 거 부모네 좋은 일이면 하겠는데.)

102006 @ 예.(예.)

102006 #2 이 좋은 일이믄 허겠는데. 여 좋은 일이 아닌데, 그거가 발표헹 뭐하냐. 거 후손들토 잇고, 모르는 게 잇는데. 상대방도 후손이다 이 관계가.(이 좋은 일이면 하겠는데. 여 좋은 일이 아닌데, 그것을 발표해서 뭐하냐. 그거 후손들도 있고, 모르는 게 있는데. 상대방도 후손이다 이 관계가.)

102006 @ 그난 그거랑 누게렌 ᄀᆞᆫ지 말고, 이게 ᄀᆞᆫ지 말고 영 얘기헤 줄 수 어서마씸?(그러니까 그거랑 누구라고는 말하지 말고, 이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없어요?)

102006 #1 아니, 그 난 ᄀᆞᆯ을 말이 엇어.(아니, 그 난 말할 말이 없어.)

102007 @ 알앗수다, 알앗수다. 게믄예 넘어가게예. 어, 게 두 분은 결혼을 중매결혼 헷수과, 연애결혼 헷수과?(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요 넘어갈게요. 어, 그래 두 분은 결혼을 중매결혼 했습니까, 연애결혼 했습니까?)

102007 #3 중매.(중매.)

102007 #2 우리 연애헐 줄 몰라.(우리 연애할 줄 몰라.)

102008 @ 아, 경헷구나예. 게 사주는 봔마씨?(아, 그랬군요. 그래 사주는 봤나요?)

102008 #3 ᄉᆞ주 봣주게. 그때 ᄉᆞ주팔저 봉헷주게.(사주 봤지. 그때 사주팔자 봐서했지.)

102008 @ 거난 사주팔자가 좋덴 헙디가?(그러니까 사주팔자가 좋다고 합디까?)

102008 #3 좋덴 헤신ᄀᆞ라 ᄀᆞ치 ᄀᆞ자 살앗잖아. 하하하.(좋다고 했는지 같이 지금까지 살았잖아. 하하하)

102009 @ 아, 맞수다예. 진짜예, 으음. 그때 결혼할 때 혼수론 뭐 가저왓수과?(아, 맞네요. 진짜요. 으음. 그때 결혼할 때 혼수론 뭐 가져왔습니까?)

102009 #3 혼수는 홍세.(혼수는 '납폐'.)

102009 @ 예, 홍세하고.(예, '납폐'하고.)

102009 #3 홍세 막 놓는 거.('납폐' 막 넣는 거.)

102009 @ 아, 이불이라든가 안 가저왓수과?(아, 이불이라든가 안 가져왔습니까?)

102009 #3 아이, 이불 ᄒᆞ주게.(아니, 이불하지.)

102009 @ 이불 멧 채 헤왓수과?(이불 몇 채 해왔습니까?)

102009 #3 아하, 그때 나 이불 하영헤완. 이불 세 채. 하영 ᄒᆞ민헷주.(아하, 그때 나 이불 많이 해왔어. 이불 세 채. 많이 하면했지.)

102009 @ 게난 하영 헷수다예.(그러게 많이 하셨네요.)

102009 #3 으, 두 채가 기자 ᄒᆞ쏠 낫게 ᄒᆞ민 두 채, 게민 ᄒᆞᆫ 채 경 ᄒᆞᆯ 땐디, 나 세 채 ᄒᆞ난 이불은 하렌.(으, 두 채가 그저 조금 낫게 하면 두 채, 그러면 한 채 그렇게 할 땐데, 나 세 채 하니까 이불은 많다고.)

102009 @ 어떵헨 세 채를 헤 집디가?(어떻게 해서 세 채를 해 집디까?)

102009 #3 아, 어떵 ᄒᆞ난사 헤신디, 시집을 재기 안 가난게.(아, 어떻게 하다가 했는지, 시집을 빨리 안 가니까.)

102009 @ 직접 솜 틀언 헷지예?(직접 솜 틀어서 했지요?)

102009 #3 응, 솜 틀언 ᄒᆞ고. 저 무시거 이불 ᄁᆞ풀 ᄀᆞ뜬 것도 거 이디 아이들인 땐 멩지 질른 걸로 다 ᄒᆞ고.(응, 솜 타서하고. 저 무엇 이불 꺼풀 같은 것도 그거 여기 아이들일 땐 명주 기른 걸로 다 하고.)

102009 @ 멩지로예, 아유 좋은 걸로 헷수다예?(명주로요, 아유 좋은 걸로 했네요?)

102009 #2 게난, 우리 집안은 허는데. 여기는, 놈들이 다 경헤도 세상모르게 큰 집안이주게.(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하는데. 여기는, 남들이 다 그렇게 해도 세상모르게 큰 집안이지.)

102009 @ 아이고, 경헷구나예. 친정 덕 봣저예?(아이고, 그랬군요. 친정 덕 봤네요?)

102009 #3 덕은 무슨 덕. 엿날에, 우리 친정 왕왕헷는디, 이젠 멜싹[40].(덕은 무슨 덕. 옛날에, 우리 친정 왕왕했는데, 이젠 몰락.)

102009 @ 기구나예.(그렇군요.)

102009 #3 친정들 못살아.(친정들 못살아.)

102009 @ 그때 게믄, 이불 세 채도 헹 와신디, 이제 남자삼춘은 게믄 무시거 헤줫수과?(그때 그러면, 이불 세 채도 해서 왔는데, 이제 남자삼촌은 그러면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102009 #2 아무것도 안 헤줘서. 하하하.(아무것도 안 해줬어. 하하하.)

102009 #3 헤준 게 뭣이 서.(해준 것이 무엇이 있어.)

102009 @ 기꽈?(그래요?)

102009 #2 우리 사진도 못 찍엇네.(우리 사진도 못 찍었네.)

102009 #3 그 시철에 사진도 안 찍구.(그 시절에 사진도 안 찍고.)

102010 @ 그 이후에도 안 찍엇수과?(그 이후에도 안 찍었습니까?)

102010 #3 어?(어?)

102010 @ 그 이후에도? 막 살멍 나중엔 사진이라도 찍어사 뒈켄 안 헷수과?(그 이후에도? 막 살면서 나중엔 사진이라도 찍어야 되겠다고 안 했습니까?)

102010 #1 아니, 지냥 무신거 ᄒᆞᆫ 건 ᄒᆞ는디. 사진을 찍젠ᄒᆞ민 애기들 난 거 가

40) '멜싹'은 '짜인 물건이 아주 망그러져 납죽하게 된 상태'를 의미하나 여기서는 집안이 '몰락'했다는 의미로 쓰였다.

족사진도 못쩌서. 뭐 카르 살아부난. 메울 수가 엇어.(아니, 자기대로 무엇을 한 건 하는데. 사진을 찍으려하면 애기들 난 거 가족사진도 못 찍어서. 뭐 따로 살아버려서. 모일 수가 없어.)

102010 @ 음.(음.)

102010 #3 직장 다 뜨나불고. 흔디 만날 수가 엇언에.(직장 다 달라버리고. 함께 만날 수가 없어서.)

102010 @ 멩질 땐 오지 않읍니까?(명절 때 오지 않습니까?)

102010 #3 멩질 땐 오란 멩질새 그거 블러당 어떵 홀 수 이서? 겨난 가족사진도 못 쩐 살암서. 우리만이.(명절 땐 와선 명절사이 그거 별렀다가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러니 가족사진도 못 찍어서 살고있어. 우리만.)

102010 #2 게난 지금 뚤도.(그러니 지금 딸도.)

102010 #1 늠들은 어떵 헌덴 헤도.(남들은 어떻게 한다고 해도.)

102010 #2 뚤도 육지간 사는 뚤있고, 아들도 육지간 사는디 이게 모이지질 못헤여.(딸도 육지 가서 사는 딸 있고, 아들도 육지 가서 사는데 이게 모여지질 못해.)

102010 #2 모이질 못헤여. 흔디 모이질 못ᄒᆞ난에 가족사진도 못 쩍언 살아.(모여지질 못해. 함께 모이지 못하니까 가족사진도 못 찍어서 살아.)

102011 @ 아 기구나. 게믄 신혼, 결혼헹 신혼살림은 어디서 헷수과?(아, 그렇구나. 그러면 신혼, 결혼해서 신혼살림은 어디서 했습니까?)

102011 #3 어디서 헤여서? 저, 영 헨 살면은, 흔 거리 안팟거리[41]믄 흔 거리는 씨어머니네 살고, 흔 거리는 우리 살고 겡 헷어.(어디서 했어? 저, 이렇게 해서 살면, 한 거리 '안팟거리'면 한 채는 시어머니네 살고, 한 채는 우리 살고 그렇게 했어.)

102011 @ 아, 안팟거리 집이 이서낫구나예?(아, '안팟거리' 집이 있어났군요?)

102011 #3 응, 경헨 살앗주.(응, 그렇게 해서 살았지.)

102011 #2 그 안팟끄레[42] 집이 우리 동생이 지은 집인데.(그 '안팟끄레' 집이 우리 동생이 지은 집인데.)

102011 @ 예.(예.)

102011 #2 어떻게 뒛냐믄, 나 밑에 직접 밑에 세 살 밑에 동생이 이섯는데.(어떻게 됐냐면, 나 밑에 직접 밑에 세 살 밑에 동생이 있었는데.)

102011 @ 예, 예.(예, 예.)

102011 #2 그 우리 그전에는 ᄉᆞ삼사건 때 성산[43] 저디 살앗주게.(그 우리 그전에는 사삼사건 때 '성산' 저기 살았지.)

102011 @ 예, 예 예.(예, 예 예.)

102011 #2 겐데, 나 군인 가분 때.(그런데, 내가 군인 가버린 때.)

102011 @ 예.(예.)

---

41) '안팟거리'는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안채와 바깥채를 말한다.
42) '안팟끄레'는 발화자가 '안팟거리'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43) '성산'은 성산포를 말한다. 서귀포시 성산읍에 있는 항구. 일출봉으로 유명하다.

102011 #2 그새 나완에 가의가 집을 지엇어.(그사이 나와서 그 아이가 집을 지었어.)

102011 @ 예.(예.)

102011 #2 가의가 집을 지엇는데, 나는 제댈 ᄒᆞ고, 가윈 군인 갓거든.(그 아이가 집을 지었는데, 나는 제댈 하고, 그 아인 군인 갔거든.)

102011 @ 예.(예.)

102011 #2 거난에 가의 집을 우리가 살앗주, 거기서.(그러니까 그 아이 집을 우리가 살았지, 거기서.)

102011 @ 아!(아!)

102011 #3 겐 그딘 죽어비언.(그랬는데 거긴 죽어버렸어.)

102011 @ 아!(아!)

102011 #2 겐 근디 그 군대 간 사고로 죽어벳주게.(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 군대 간 사고로 죽어버렸지.)

102011 #3 하!(하!)

102011 @ 아, 기꽈.(아, 그래요?)

102011 #2 사고도 춤 이상한 사고로 죽어서.(사고도 참 이상한 사고로 죽었어.)

102011 @ 음.(음.)

102011 #2 아니 제대 말엽 뒛는데.(아니, 재대 말엽 됐는데.)

102011 @ 예.(예.)

102011 #2 완전 고참. ᄒᆞ니까 그때는 춤, 저 군대도 무시거 엇어가지고, 거 기자 산에강 나무 헤단 난로 땡 뭐 헷주게.(완전 고참. 하니까 그때는 참, 저 군대도 무엇 없어가지고, 거 그저 산에가서 나무 해다가 난로 때서 뭐 했지.)

102011 @ 예.(예.)

102011 #2 게난, 부하들 데령간에, 저 육지서는 오름이엔 아녀는디, 오름새끼 쪼고마헌 거 오름새끼 낭 잇는 디, 우에서는 낭허고 밑에 간에 자빠젓거든.(그러니까 부하들 데려가서, 저 육지서는 오름이라고 안하는데, 오름새끼 쪼그마한 거 오름 새끼 나무 있는 데, 위에서는 나무하고 밑에 가서 자빠졌거든.)

102011 @ 예.(예.)

102011 #2 고참이난 헌디, 낭을 거기로 쓰러질 거주게.(고참이니까 한데, 나무를 거기로 쓰러질 거지.)

102011 @ 예.(예.)

102011 #3 자빠저서? 지시 시키단에, 게난 게, 낭이 사람 우트로 자빠저비언.(자빠졌어? 지시 시키다가, 그러니 그래, 나무가 사람 위로 자빠져버렸어.)

102011 #2 아니, 게난 근디 지시시켠, 거기 바려시민 낭 와 가민 도망이라도 갈 건디, 그대로 자빠전 고만히 이시니까, 낭이 드러누워 부니까 이 바로 이디 머리 맞아네,(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지시시켜서, 거기 봤으면 나무 오고 있으면 도망이라도 갈 건데, 그대로 자빠져서 가만히 있으니까, 나무가 드러누워 버리니까 바로 여

기 머리 맞아서,)

102011 @ 게믄, 그거 계속 그 뭔 받으멘 마씨?(그러면 그거 계속 그 뭔 받나요?)

102011 #2 겐디, 거도 부모네 꼬지 벳긔 못 받주게. 아 어머니 산 때 어머닌 받앗주.(그런데, 그것도 부모네 까지 밖에 못 받지. 아 어머니 산 때 어머닌 받았지.)

102011 @ 아, 기꽝.(아, 그래요.)

102011 #2 게네 우린 동기간이, 동기간인 해당 없어. 어머니 산 때꼬지. 게난 부모네는 받앗지. 아 어머니는 받고, 우린.(그러니 우린 동기간에, 동기간엔 해당 없어. 어머니 산 때까지. 그러니 부모는 받았지. 아 어머니는 받고, 우린.)

102012 @ 아, 경헷구나예. 어, 그므는 이제 두 분이서 아이들은 멧 명 나앗수과?(아, 그랬군요. 어, 그러면 이제 두 분이서 아이들은 몇 명 낳았습니까?)

102012 #3 다섯, 아들 둘 뚤 셋.(다섯, 아들 둘 딸 셋.)

102013 @ 아들 둘, 뚤 셋. 아 경헷구나예. 어, 그 시집살이 안팟거리 살젠허난. 시부모님이 잘 헤줍디가? 혹시 막 설룬 일은 엇엇수과?(아들 둘, 딸 셋. 아 그랬군요. 어, 그 시집살이 '안팟거리' 살려하니까. 시부모님이 잘 해줍디까? 혹시 막 설룬 일은 없었습니까?)

102013 #3 아니 우린, 응 그런 건 엇이 살고, 겨난 나도 경허난 그 애기들 궂게 안 헤지게 살아지고.(아니 우린, 응 그런 건 없이 살고, 그러니 나도 그렇게 하니까 그 애기들 궂게 안 해지게 살아지고.)

102013 @ 음.(음.)

102013 #3 메누리 ᄒᆞ난 육지 헤비고 ᄒᆞ난 이디 살고 헤도, 그런 것은 편안하게 걱정 엇이 살아.(며느리 하난 육지 해버리고 하난 여기 살고 해도, 그런 것은 편안하게 걱정 없이 살아.)

102013 @ 음.(음,)

102013 #2 게난 여기가, 지금 메누리지만은 부모나 다름엇어.(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며느리지만 부모나 다름없어.)

102013 @ 음.(음.)

102013 #2 밑에 동생들 전부 결혼을 헹 이 사름이 시켯시니까.(밑에 동생들 전부 결혼을 해서 이 사람이 시켰으니까.)

102013 @ 아.(아.)

102013 #2 부모나 다름없주게. 허허.(부모나 다름없지. 허허.)

102013 @ 아, 큰아덜안티 시집와부난예.(아, 큰아들한테 시집와버려서요.)

102013 #2 큰아덜은 아니주마는.(큰아들은 아니지만.)

102013 @ 아, 다른 성에.(아, 다른 성에.)

102013 #2 거난 그 우리 큰형님도 육이오 때 군인 간에 그디 아판에 일찍 죽어불고.(그러니 그 우리 큰형님도 육이오 때 군인 가서 거기 아파서 일찍 죽어 버리고.)

102013 @ 예.(예.)

102013 #3 겨난 이 아래, 저 씨아지방덜 다 결혼시키고.(그러니 이 아래, 저 시아주버니들 다 결혼시키고.)

102013 @ 멧이엇수가? 시아지방은.(몇이었습니까? 시아주버니는.)

102013 #2 밑에 씨아즈방은 둘인데.(밑에 시아주버니 둘인데.)

102013 #3 둘이 결혼시기고, 위 ᄒᆞ나 살단도 죽어빗주마는, 그 사름도 ᄎᆞ례루 우리보단 알앙 다 ᄒᆞᆯ때라도 못ᄒᆞ난 우리가 경 정 헨 살고. 우린 씨어머니도 잇고, 또 큰아바지에 어머니도 이섯주게.

102013 @ 예.(예.)

102013 #3 경ᄒᆞᆫ 어른도 기자 ᄒᆞᆫ디 저 올레 모셩 살고, 경헤도 그런 것이엔 ᄒᆞᆫ엇이 무시거엔 아녀근엔 살안.(그렇게 한 어른도 그저 함께 저 올레 모셔서 살고, 그렇게 해도 그런 것이라고 별로 뭐라고 안 해서 살았어.)

102014 @ 아이고 삼춘이 게믄 완전 고셍헤시켜예. 그다음에 지금 다섯 오누이는 다 시집장게 보냇수과?(아이고 삼촌이 그러면 완전 고생했겠네요. 그다음에 지금 다섯 오누이는 다 시집장가 보냈습니까?)

102014 #3 시집장게 다 간.(시집장가 다 갔어.)

102015 @ 잘 뒛다예.(잘 됐네요.)

102015 #3 응.(응.)

102015 @ 그 메누리는 막 착협니까?(그 며느리는 막 착합니까?)

102015 #3 메누리 막 착허는디, 하하하, 불만은 애기 ᄒᆞ나벳긔 안 난.(며느리 막 착하는데, 하하하, 불만은 애기 하나밖에 안 난.)

102015 @ 다 요즘 ᄒᆞ나벳긔 안 납니다게. 저도 ᄒᆞ나벳긔 안 낫수다게. 하하하.(다 요즘 하나밖에 안 납니다. 저도 하나밖에 안 낳습니다. 하하하.)

102015 #3 ᄒᆞ나만 나부난 것에 용심 난 이제.(하나만 낳아버려서 그것에 성이 나서 이제.

102015 @ 예.(예.)

102015 #2 헌디 우리 큰아덜은 두 개 아덜 두 개 나고 족은아덜, 족은아덜.(그런데 우리 큰아들은 두 개 아들 두 개 나고, 작은아들, 작은아들.)

102015 @ 족은아덜이.(작은아들이.)

102015 #3 응, 족은아덜. 족은아덜 뚤만 ᄒᆞ나 난 마난, 나는 무시거세 구진 ᄀᆞᆼᄒᆞ민, 나도 궂지 아년디 그 손저 ᄒᆞ나만.(응, 작은아들. 작은아들 딸만 하나 낳아서 마니까, 나는 무엇에 궂은 가하면, 나도 궂지 않은데 그 손지 하나만.)

102015 @ 음.(음.)

102015 #3 이루제 어떵ᄒᆞ당 어멍아방 엇곡 ᄒᆞ믄 지네만 불쌍, 지만 불쌍ᄒᆞᆫ 셍각, ᄒᆞ나만 벗 부쩌시민 좋을 거를.(이후에 어떻게 하다가 어머니아버지 없고 하면 자기만 불쌍, 자기만 불쌍한 생각, 하나만 벗 붙였으면 좋을 거를.)

102015 @ 예.(예.)

102015 #3 경ᄒᆞ난. 나는 다슷 개 나도 나난 거 담도 아녀곡, 애기들 저둘으지 아녀고 ᄒᆞ난.(그러니까. 나는 다섯 개 나도 낳았던 거 닮지도 안하고, 애기들 걱정시키지 안 하고 하니까.)

102015 @ 음.(음.)

102015 #3 난 원 하영 낳고 족영 낳고 존디.(난 원 많이 낳고 조금 낳고 좋은데.)

102015 @ 예.(예.)

102015 #3 ᄒᆞ나만 난 거 손지 ᄒᆞ나 기자 아이 울리젠만. 어멍아방 죽어불민 그거 어드레 부떠. 겨난 그거 생각만 헴주.(하나만 낳은 거 손주 하나 그저 아이 울리려고만. 어머니아버지 죽어버리면 그거 어디에 붙어. 그러니 그거 생각만 하지.)

102015 #2 어멍아방 죽을 때 ᄁᆞ지 살안지크라?(어머니아버지 죽을 때 까지 살아지겠어?)

102015 #3 아니 그거게, 그거. 손지 무시거 불쌍헌 생각ᄒᆞ주. 나는 에멩헤도 이보단 더 무시거, 이제 만일 죽어불민게 좋을 건디. 죽지 못하는 것벳긔 난 원 어서. 원이 어서.(아니 그거, 그거. 손주 무엇 불쌍한 생각하지. 나는 아무리해도 이보단 더 무엇, 이제 만일 죽어버리면 좋을 건데. 죽지 못하는 것밖에 난 소원 없어. 소원이 없어.)

102015 @ 경헷구나예.(그랬군요.)

102015 #3 어, 정헌디 자꾸 아프는 거. 이젠. 아프는 거 따문에, 확 죽어지는 것만 원이주. 이제만이 죽어도 을큰도 아녀고. 못 헌 거 잇구나 헌 생각도 아녀고.(어, 저렇게 한 데 자꾸 아파지는 거. 이젠. 아파지는 거 때문에, 확 죽어지는 것만 소원이지. 이제만큼 죽어도 섭섭하지도 않고. 못 한 거 있구나, 한 생각도 안 하고.)

102015 @ 음.(음.)

102015 #3 난 만족ᄒᆞ다 이만ᄒᆞ민 만족ᄒᆞ다, 헨 살아.(난 만족하다 이만하면 만족하다, 해서 살아.)

102015 @ 경헷구나예.(그랬군요.)

102015 #2 게난에 이디 우리 처남이, 누님ᄀᆞ란 뭐엔 ᄀᆞᆫ냐면, 우리 누님은 세상 모른덴 ᄀᆞᆫ주게.(그러니 여기 우리 처남이, 누님보고 뭐라고 말 하냐면, 우리 누님은 세상모른다고 말하지.)

102015 #3 시상을 몰르게 살암따문에, 난 원 시상을 몰라.(세상을 모르게 살기 때문에, 난 원 세상을 몰라.)

102016 @ 경헷구나예. 어,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질문은 다 끗나서예. 혹시나 수망리에 나고 자라면서 뭔가 특별하게시리 얘기하고 싶은 거 엇수과? 뭐 아이들 이야기라든가, 뭐.(그랬군요. 어,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질문은 다 끝났어요. 혹시나 수망리에 나고 자라면서 뭔가 특별하게시리 얘기하고 싶은 거 없습니까? 뭐 아이들 이야기라든가, 뭐.)

102016 #2 아니.(아니.)

102016 #3 엇어.(없어.)

102016 @ 엇어마씨? 예 알앗수다예, 그러면 마치겠습니다.(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3. 밭일

103001 @ 어, 지금부터는 밧일에 대헤서 저기 물어보쿠다.(어, 지금부터는 밭일에 대헤서 저기 물어보겠습니다.)

103001 #2 어.(어.)

103001 @ 우선, 밧일에는 어떤 일들이 이서낫인지 하나씩 하나씩 여쭤볼게예.(우선, 밭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하나씩 여쭤볼게요.)

103001 #2 어.(어.)

103001 @ 보리농사부터 먼저 시작허쿠다예. 보리농사를 지으려면 어떤 준비들이 필요허우꽈?(보리농사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보리농사를 지으려면 어떤 준비들이 필요합니까?)

103002 #3 돗걸름.(돼지거름.)

103002 @ 예, 돗걸름 헤야뒈고.(예, 돼지거름 해야 되고.)

103002 #3 하간 걸름 헤근엥 통시레 담앙, 엿날에 도새기 질루민, 그 오줌 싸고 불라불곡 흔거영, 쉐 질르면은 쉐똥에다 그레 터놔근엥이 걸르곡, 겡헹 걸름 멘들앙 돗걸름을 흐젠흐민 그거 문 네영 쉐헤영 씨뿌리멍 불려놩.(모든 거름해서 돼지우리에 담아서, 옛날에 돼지 기르면, 그 오줌 싸고 밟아버리고 한거하고, 소 기르면 소똥에다 그리로 섞어놔서 거르고, 그렇게 해서 거름 만들어서 돼지거름을 하려하면 그거 모두 꺼내서 소해서 씨 뿌리며 밟아놔서.)

103002 @ 겐디 그거를 차곡차곡 저가 질문할거라예. 먼저 그러면은예, 어 보리밭에 걸음은 어떻게 저기 장만헷수과?(그런데 그거를 차곡차곡 제가 질문할거에요. 먼저 그러면요, 어 보리밭에 거름은 어떻게 저기 장만했습니까?)

103002 #2 걸름, 아까 말한 건데.(거름, 아까 말한 건데.)

103002 @ 게난, 이제부터 걸 골아줍서.(그러니까, 이제부터 그걸 말해주세요.)

103002 #3 돗걸름을 네어근엥에 흐면.(돼지거름을 꺼내서 하면.)

103002 #2 아, 거 뭐냐 돗걸름 보단도 뭐냐.(아, 거 뭐냐 돼지거름 보다 뭐냐.)

103002 @ 예.(예.)

103002 #2 먼저 쉐걸름이 먼저지. 쉐걸름을 돗통시에 앗당 담앙 그걸 듯걸름 만드는거난, 쉐거름부터 먼저.(먼저 소거름이 먼저지. 소거름을 돼지우리에 갖다가 담아서 그걸 돼지거름 만드는 거니까, 소거름부터 먼저.)

103002 @ 예.(예.)

103002 #2 쉐걸름 알아? 저 소똥.(소거름 알아? 저 소똥.)

103002 @ 예, 쉐똥. 예.(예, 소똥. 예.)

103002 #2 어, 그 쉐걸름이주게. 쉐해서 자령[44], 그걸 터당 또 돗통시에 그 담는단말이여, 걸.(어, 그 소거름이지. 소해서 '자령', 그걸 떠다가 또 돼지우리에 그 담는단 말이야, 그걸.)

103002 @ 예.(예.)

103002 #2 담앙 그것이 도새기가 막 다니고 똥을 밟고 허영 그것이 내중에 단 또 그걸 꺼내근엥에.(담아서 그것이 돼지가 막 다니고 똥을 밟고 해서 그것이 나중에 단, 또 그걸 꺼내서.)

103002 #1 그게 돗걸름.(그게 돼지거름.)

103003 #2 그것이 완전 씨 뿌리멍 걸 완전 불리는 거주 쉐로.(그것이 완전 씨 뿌리면서 그걸 완전 밟는 거지 소로.)

103003 #3 쉐로 불렷당 이제 그 돗걸름 젱엔 헌 거 멩텡이에 담으멍 싣꺼당 밧듸 지만 썩, 지만 썩.(소로 밟았다 이제 그 돼지거름 쟁여서 한 거 망태에 담으면서 실어다가 밭에 자기만 씩, 자기만 씩.)

103003 #2 나 인칙이 저거 식당에서 돗걸름착[45]이엔 골앗지?(내가 일찍이 저거 식당에서 '돗걸름착'이라고 말했지?)

103003 @ 예, 예 예.(예, 예 예.)

103003 #2 지금 곧잖아.(지금 말하잖아.)

103004 @ 예. 경헷구나예. 거난 거름을 마련해난 다음에 보리는예 언제 갈앗수과?(예. 그랬군요. 그러면 거름을 마련해난 다음에 보리는요 언제 갈았습니까?)

103004 #3 구월들.(구월 달.)

103004 @ 구월 달에예, 게난 양력 구월이꽈 음력 구월이꽈?(구월 달에요, 그러면 양력 구월입니까 음력 구월입니까?)

103004 #3 하르방[46] 그때 구월, 구월 겨난 철이 일르곤 헐땐디. 어느 때 뒈민 돗걸름 시작헷수과? 하르방 그때 군인 갈 때 , 저 구월 수무일렛날 가는디 돗걸름 밧 다 헤돈 가서.('할아버지' 그때 구월, 구월 그러니까 철이 이르곤 할 땐데. 어느 때 되민 돼지거름 시작했습니까? '할아버지' 그때 군인 갈 때 , 저 구월 수무이렛날 가는데 돼지거름 밭 다 해놓곤 갔어.)

103004 #2 겐데.(그런데.)

103004 #3 음력이멍 양력이멍 몰라.(음력인지 양력인지 몰라.)

103004 #2 그때는, 그때는 어땟냐믄, 이 거의 여기 사름덜은 음력을 썻지 양력을 안 썬.(그때는, 그때는 어땠냐면, 이 거의 여기 사람들은 음력을 썼지 양력을 안 썼어.)

103004 @ 맞수다예. 음력으로 그믄 구월.(맞습니다. 음력으로 그러면 구월.)

---

44) '자령'은 으뜸꼴이 '자리다'이며 '굽싸다'를 말한다. '굽싸다'는 짐승의 네발을 모아 얽어매다를 뜻하지만, 여기서 발화자는 소똥을 차곡차곡 모아놓은 상태를 말하는 듯하다.

45) '돗걸름착'은 돼지거름을 담아 나르는 멱서리를 말한다.

46) '하르방'은 할아버지를 말한다. 여기서는 남편을 뜻한다.

103004 #2 게니까 지금 곧는 것이, 음력으로 구월 이십칠일 날, 내가 군인 갓는데. 겐에 우리 제사니까 이져불질 아녀는데, 그때 저 양력으로 십일월이라.(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이, 음력으로 구월 이십칠일 날, 내가 군인 갔는데. 그래서 우리 제사니까 잊어버리질 안하는데, 그때 저 양력으로 십일월이야.)

103004 @ 아, 양력으로 십일월이구나예.(아, 양력으로 십일월이군요.)

103004 #2 어.(어.)

103004 #3 그 돗걸름밧은 제기 안 허민 막 손 추운 때라, 케여.(그 돼지거름 밭은 빨리 안 하면 막 손 추운 때라, 터.)

103004 #2 게난 십일월이렌 헤, 십일월 달 빨르믄 눈 올 때가 다 뒌거주게.(그러니까 십일월이라고 해, 십일월 달 빠르면 눈 올 때가 다된 거지.)

103004 @ 맞수다.(맞습니다.)

103004 #3 게난, 그때 다 못 간 간 거. 돗걸름 밧들은 다 모깐 군인 간 거. 나도 그거 계산은 지금 알아저.(그러니까, 그때 다 못 갈아서 간 거야. 돼지거름 밭들은 다 못 갈아서 군인 갔던 거. 나도 그거 계산은 지금 알 수 있어.)

103004 #2 게난, 내가 십일월 십일일 날 군번을 받앗는디.(그러니까, 내가 십일월 십일일 날 군번을 받았는데.)

103004 @ 아, 경헷구나예.(아, 그랬군요.)

103004 #2 십일월 초.(십일월 초.)

103005 @ 십일월 초예? 겐 그며는 걸름 준비하면, 보리씨는 게민 어떵 뿌립니까?(십일월 초요? 그러면 거름 준비하면, 보리씨는 그러면 어떻게 뿌립니까?)

103005 #2 아니 건 아까 곧잖아. 보리씨 걸름을 영 이디 영 마당에 헤단에 영 넙게 헤가지고 쉐로 볼르면서 그 걸름에 막 뿌린단 말이여 거.(아니 그건 아까 말하잖아. 보리씨 거름을 이렇게 여기 이렇게 마당에 해다가 이렇게 넓게 해가지고 소로 밟으면서 그 거름에 막 뿌린단 말이야 그거.)

103005 #3 영 막 걸름물 들게.(이렇게 막 거름물 들게.)

103005 #2 경 걸름물 들게 경ᄒᆞ민 딱 헤근엥에 제경, 영.(그렇게 거름물 들게 그렇게 하면 딱 해서 쌓아, 이렇게.)

103005 @ 예.(예.)

103005 #2 그니까 그 걸름을 이거 보리씨 멧 말지기 영 허겟다, 딱 계획을 ᄒᆞ면, 그니까 그 놈을 그전에는 쉐로도 시끄공, 내중에는 마차로도 시끄고 시꺼다근에 그 밧듸 씨 계산허곡 그 걸름 헤근엥게 그 게 씨 그 밧듸 시꺼당 그 간격 벌여근에 거 다.(그러니까 그 거름을 이거 보리씨 몇 마지기 이렇게 하겠다, 딱 계획을 하면, 그니까 그 놈을 그전에는 소로도 싣고, 나중에는 마차로도 싣고 실어다가 그 밭에 씨 계산하고 그 거름해서 그 게 씨 그 밭에 실어다가 그 간격 벌여서 그거 모두.)

103005 #3 그 걸름을 그 밧듸 다 놔야 씨가 맞는 거.(그 거름을 그 밭에 다 뿌려야 씨가 맞는 거야.)

103005 #2 거난 그기 헤가지고 간격 벌려가지고 그걸 전부 퍼 논단 말이여. 거

놘엔 그거 그대로 막 보수멍, 보수멍 막 뿌리는 거라.(그러니까 거기 해가지고 간격 벌려가지고 그걸 전부 퍼 논단 말이야. 그거 놔서 그거 그대로 막 부수며, 부수며 막 뿌리는 거라.)

103005 @ 걸름이영 ᄀᆞ찌예, 그 안에 들어저 이시난예?(거름이랑 같이요, 그 안에 들어져 있으니까요?)

103005 #2 어.(어.)

103006 @아, 경헷구나예. 그러면예, 그 보리엔 어떤 종류들이 이서수과?(아, 그랬군요. 그러면요, 그 보리엔 어떤 종류들이 있었습니까?)

103006 #3 솔오리, 겉보리, 떡보리, 두줄보리, 줄보리[47] ᄀᆞ라 두줄보리엔.(쌀보리, 겉보리, 떡보리, 두줄보리, 줄보리 보고 두줄보리엔.)

103007 @ 아, 경헷구나예. 그며는 이제 보리는 ᄒᆞ끔 이제 싹 나기 시작헤가지고 얼마 안 뒈면 보리를 밟아야 뒈잖아예? 보리 밟기는 누가 어떵 언제쯤 밟앗수과?(아, 그랬군요. 그러면 이제 보리는 조금 이제 싹 나기 시작해가지고 얼마 안 되면 보리를 밟아야 하잖아요? 보리밟기는 누가 어떻게 언제쯤 밟았습니까?)

103007 #3 이딘, 육지서는 붋앗구나마는 이디서는 베랑 안 붋아.(여긴, 육지서는 밟았지만은 여기서는 별로 안 밟았어.)

103007 #2 우리 ᄒᆞ교 뎅길 때, ᄒᆞ교에서 학생덜토 ᄇᆞᆯ르레 뎅겨서.(우리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학생들도 밟으러 다녀서.)

103007 #3 경헤서.(그랬어.)

103007 #2 게난 우리 ᄒᆞ교에 가니까.(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가니까.)

103007 #3 밀도 이서낫고 밀. 밀이엔 ᄒᆞᆫ 것도 갈아낫고.(밀도 있었고 밀. 밀이라고 한 것도 갈았었고.)

103007 #2 그 일본 놈덜이, 그 공출 그기 내중에 허젠.(그 일본 놈들이, 그 공출 거기 나중에 하려고.)

103007 @ 예.(예.)

103007 #2 막 헤근엥 아 학생들 걸름 학생 저 퉤비 걸름도 막 가정 다녓다니까 일본 놈덜, 뭐 보통 원.(막 해서 아 학생들 거름 학생 저 퇴비거름도 막 가지고 다녔다니까 일본 놈들, 뭐 보통 원.)

103007 @ 예, 그믄 삼춘네가 간 보리는 안 붋아 봣수과?(예, 그러면 삼촌네가 간 보리는 안 밟아 봤습니까?)

103007 #3 우린 안 붋아봔.(우린 안 밟아봤어.)

103007 @ 안 붋아도 그냥 잘 자라줫구나예?(안 밟아도 그냥 잘 자라줬군요?)

103007 #2 그, ᄇᆞᆯ르는 이유가 잇주게.(그, 밟는 이유가 있지.)

103007 #3 땅 구겅[48].(땅 '구겅'.)

103007 #2 웃자란다고 헤가지고.(웃자란다고 해가지고.)

---

47) '줄보리'는 줄처럼 줄줄이 파종한 보리를 말한다. 곧 조파(條播)한 보리를 두고 이르는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두줄보리, 혹은 줄보리는 '맥주보리'를 의미한다.

48) '구겅'은 땅이 부풀어 오른 상태를 말한다.

103007 @ 예.(예.)

103007 #2 어제, 거고 여기는 땅이 뜬 땅이라, 아니 저기 대정허고 여기 완전히 뜰리주게. 대정은 지금 이 대정 수기목 이만히 큰 디 엇일 거라. 나무 큰 거보민 알아. 여긴 키만 크주게. 게난 보리도 여 뭐 헤근엥 웃자라게 헹 내불믄 그게 어디 내중엔 피믄 자빠저 부러.(어제, 그리고 여기는 땅이 뜬 땅이라, 아니 저기 대정하고 여기 완전히 틀리지. 대정은 지금 이 대정 삼나무 이만큼 큰 데 없을 거야. 나무 큰 거보면 알아. 여긴 키만 크지. 그러니 보리도 여 뭐 해서 웃자라게 해서 내버리면 그게 어디 나중에는 피면 자빠져 버려.)

103007 @ 예, 여긴 웃자라지 않앙 잘 자라주지 안 헷수과? 봃지 안 허게?(예, 여긴 웃자라지 않아서 잘 자라주지 안 했습니까? 밟지 안 하게?)

103007 #2 여긴 웃자라 분다는 거주게.(여긴 웃자라 버린다는 거지.)

103007 @ 웃자라 불지 안 허게 붋으는 거 아니마씸?(웃자라 버리지 안 하게 밟는 거 아닌가요?)

103007 #2 것도 붋고, 붋는 건데, 거 땅이 뜨니까 땅이 물싹, 텡텡ᄒᆞ질 못ᄒᆞ기 따문에.(것도 밟고, 밟는 건데, 그거 땅이 뜨니까 땅이 물컥, 탱탱하지 못하기 때문에.)

103007 @ 물싹물싹헤 부난에.(물컥물컥해 버려서요.)

103007 #2 게난 물싹 헤불민 그게 자빠저 분다는 거주게. 자빠지믄 뿌리가 메어저불 수도 잇고 ᄒᆞ니까, 붋는 건디.(그러니까 물컥해 버리면 그게 자빠져 버린다는 거지. 자빠지면 뿌리가 뽑아져 버릴 수도 있고 하니까, 밟는 건데.)

103007 #3 안 붋아봔. 이딘 수망리는 안 붋아봐서.(안 밟아봤어. 여긴 '수망리'는 안 밟아봤어.)

103007 @ 경헷구나예.(그랬군요.)

103007 #2 뒈야, 수망리 우리도 붋아낫어.(돼야, 수망리 우리도 밟아났어.)

103007 @ 어릴 땐예?(어릴 때는요?)

103007 #3 아휴, 난 안 ᄒᆞ여난 거 ᄀᆞ튼디.(아휴, 난 안 했던 거 같은데.)

103008 @ 보리밧듸 검질은 멧 번 멧수과?(보리밭에 김은 몇 번 맸습니까?)

103008 #3 아이고, 검질 메는 거사 이녁 ᄒᆞ구정 ᄒᆞᆫ냥 ᄒᆞ주. 이 밧듸 이 알력밧듸 이거 우릿거카부덴 놈의 헴시카부덴 세주만은 저 검질 봐. 검질 메는 거사 무신 ᄒᆞᆫ이 서?(아이고, 김매는 거야 이녁 하고 싶은 양 하지. 이 밭에 이 아래쪽 밭에 이거 우리건줄 알고 남이 하는 줄 알고 여기지만 저 김 봐. 김매는 거야 무슨 한이 있어?)

103008 #2 검질사 거 혼자 ᄒᆞ는 거지. 검질 잘 나는 밧듸ᄒᆞ고 안 나는 밧듸 차이 나난.(김이야 그거 혼자 하는 거지. 김 잘 나는 밭하고 안 나는 밭이 차이 나니까.)

103008 #3 이 알력밧듸 풀 보민 우리집 ᄀᆞ리첨시카부덴 나 걱정헤저. 이거 놈의 건디 풀이 이만히, 줄로 오는디도 경허믄.(이 아래쪽 밭에 풀 보면 우리 집 가리켜

버릴까봐 내가 걱정 하지. 이거 남의 건데 풀이 이만큼, 저리로 오는데도 그렇게 하면.)

103009 @ 음, 거믄 그 보리밧엔 어떤 검질 나낫수과? 검질에 이름들 생각나는 대로 그냥 골아봅서.(음, 그러면 그 보리밭에는 어떤 김이 났었습니까? 김의 이름들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해주세요.)

103009 #3 대우리도 나곡, 저 씨뭬껜[49] 헌 거, 씨뭬껜 헌 것도 잇주게.(귀리도 나고, 저 '며느리밑씻개'라고 한 거, '며느리밑씻개'라고 한 것도 있지)

103009 @ 예.(예.)

103009 #3 씨뭬껜 헌 거, 붉은 거 고장펴근엥 막 여름 여는 거.('며느리밑씻개'라고 한 것, 붉은 거 꽃피워서 막 열매 여는 거.)

102009 @ 예.(예.)

102009 #3 대우리, 씨뭬께.(귀리, '며느리밑씻개'.)

102009 @ 씨뭬께.('며느리밑씻개'.)

102009 #3 그런 거 이서.(그런 거 있어.)

103009 @ 다른 건 엇엇수과?(다른 건 없었습니까?)

103009 #3 보리밧듸 검질은 그거.(보리밭의 김은 그것.)

103009 @ 무신 저기 뭐꽈? 그거. 비듬이라든가.(무슨 저기 뭡니까? 그거, 비름이라든가?)

103009 #3 빈네, 그건 여름.(비름, 그건 여름.)

103009 #2 여름.(여름.)

103009 #3 빈네, 저슬이 서 무사.(비름, 겨울에 있어 왜.)

103009 @ 아 게 보리는 십일월 달에 갈아부난, 데우리나 씨뭬께. 이 정도엿구나예?(아, 그래 보리는 십일월 달에 갈아버려서, 귀리나 '며느리밑씻개'. 이 정도였군요?)

103009 #3 어.(어.)

103009 @ 그렇구나예. 그면 보리밧에는 그 검질을 막 여러 번 메지는 안 헤도 될 뻔 헷저예?(그렇군요. 그러면 보리밭에는 그 김을 막 여러 번 매지는 안 해도 될 뻔 했네요?)

103009 #3 으라번 아니 메여도 뒈는디, 씨아 신 디는 빌 때 뒈민 또 이서. 멘디도. 경허연 허주마는.(여러번 아니 매여도 되는데, 씨아 있는 데는 벨 때 되면 또 있어. 맨 데도. 그렇게 해서 하지만.)

103009 @ 게믄 빌 때 될 때 나는 검질은 뭐엿수가?(그러면 벨 때 될 때 나는 김은 뭐였습니까?)

---

49) '씨뭬께'는 '며느리배꼽'을 말한다. 2011년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서 발행한 <제주의 감귤원에서 볼 수 있는 자생식물 잡초원색도감>에 의하면 '며느리배꼽'을 제주어 표기로 '쉐메기'라고 수록되어 있다. '쉐메기'를 발화자가 된소리로 '씨뭬께', '쒜뭬께'라고 발음한 듯하다. 발화자의 설명에 의해 붉은 꽃이 핀다는 걸로 봐서 '며느리밑씻개'로 정리했음을 밝혀둔다. 그리고 어휘부분에서는 '환삼덩굴'을 '쉐메게'라고 하는 걸로 보아 가시가 있는 여름잡초를 두루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다.

103009 #3 빌 때 뒝 나는 거 씨뭬께.(벨 때 돼서 나는 거 며느리밑씻개.)

103009 @ 아.(아.)

103009 #2 검질 이름은 잘 알암저, 나는 검질메레 안 뎅겨나부난 잘 몰라.(김 이름은 잘 아네, 나는 김매러 안 다녀나 버려서 잘 몰라.)

103009 #3 대우리.(귀리.)

103010 @ 보리수확. 보리를 그 수확할 때, 거둬들일 때, 그 거둬들일 때는 처음에는 뭐 베고 어떵허고 어떵허고 헤근에 그 보리털 때까지 이야기를 죽 골아줍서.(보리수확. 보리를 그 수확할 때, 거둬들일 때, 그 거둬들일 때는 처음에는 뭐 베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해서 그 보리타작 때까지 이야기를 죽 말해주세요.)

103010 #3 어, 체음 보릴 익으면은 그걸 비엉.(어, 처음 보리가 익으면 그걸 베어서.)

103010 @ 예.(예.)

103010 #3 죽 ᄒᆞ게 비어근엥에 무껑.(죽 하게 베어서 묶어.)

103010 @ 예.(예.)

103010 #3 시꺼다근엥 시꺼다니고 아무게고 모야놩, 거 태작 ᄒᆞ는 거. 무시거엔 곧나만은, 거 보라. 것도 이져분 거. 젓, 보리장만하는 거.(실어다가 실어 다니고 아무 것이고 모아놔서, 그거 타작 하는 거. 뭐라고 말한다만, 그거 보라. 그것도 잊어버린 거. 저, 보리장만하는 거.)

103010 #2 ᄇᆞ릐는 거.(00는 거.)

103010 #3 아니 장만하는 거 무시거 기계.(아니 장만하는 그거 무슨 기계.)

103010 #2 홀트지 홀타.(홅지 홅어.)

103010 @ 아, 홀탓수과?(아, 홅었습니까?)

103010 #3 기계 저 틀로 홀탓는디.(기계 저 틀로 홅었는데.)

103010 @ 기계 엇일 땐마씨?(기계 없을 때는요?)

103010 #3 게메, 기계 엇인 때, 거 봉또[50]ᄀᆞ라 뭐옌 곧나만은, 이져불언.(그러게, 기계 없을 때, 거 봉또보고 뭐라고 말한다만, 잊어버렸네.)

103010 #2 게, 홀트는 게 그게, 어이고.(그래, 홅는 그래 그거, 아이고.)

103010 #3 거 이져빗저. 영 무시거 원래 돋는 거, 얼레기 쌀 닮은 걸로 영영 씰멍 홀타.(그거 잊어버렸네. 이렇게 무엇 원래 달리는 거, 머리빗 살 닮은 걸로 이렇게 이렇게 쓸면서 홅어.)

103010 #2 거 우리 집이 어디 그기 실거라.(그거 우리 집에 어디 거기 있을 거야.)

103010 #3 어디 잘 놔두지 아녀면.(어디 잘 놔두지 않으면.)

103010 #2 거기, 요 천장 우에 이실거여.(거기, 요 천정 위에 있을 거야.)

103010 #3 것ᄀᆞ라 뭐렌 곧나면은 이져비엉. 보리 영 보리 클로 홀트주게. 것ᄀᆞ라 무시거옌 곧는 것도 이제야 이져비언 몰르큰게. 경헤연 홀탕 도께로 두드려.(그

50) '봉또'는 확실하지는 않으나 농기구인 '가상'을 뜻하는 것 같다. 표준어 '개상'에 대응하는 말이다.

것보고 뭐라고 말 하냐면 잊어버렸어. 보리 이렇게 보리 틀로 홅지. 것보고 뭐라고 말하는 그것도 이제야 잊어버려서 모르겠네. 홅어 도리깨로 두드려.)

103010 #2 그 일름 이져부럿저.(그 이름 잊어버렸어.)

103010 @ 혹시 이시냐 나중에 찾아봅서. 이시믄 찾아근에 사진 좀 찍어 놓게예.(혹시 있나 나중에 찾아보세요. 있으면 찾아서 사진 좀 찍어 놓게요.)

103010 #3 어이코, 나둬질거 무시거.(아이고, 놔둬질까 뭐.)

103011 @ 게난 보리 그담엔, 보리타작헐 때 훌터 놓잖아예? 훌터논 그다음에는 어떵헷수과?(그러면 보리 그다음에는, 보리타작할 때 홅어놓잖아요? 홅어놓은 그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103011 #2 그게, 그다음이 태작이주.(그게 그다음이 타작이지.)

103011 #3 에에에, 도께.(에에에, 도리깨지.)

103011 #2 게게, 그게 타작ᄒᆞ는 거주게, 두두리는 게.(그래 그래, 그게 타작하는 거지, 두드리는 것이.)

103011 @ 도께질 허는 게.(도리깨질하는 것이.)

103011 #3 으응, 도께질 헨.(으응, 도리깨질했어.)

103011 #2 그게 태작이주게.(그것이 타작이지.)

103011 @ 그, 여기도 도께렌 골앗수과?(그, 여기도 도리깨라고 말했습니까?)

103011 #3 응, 도께.(응, 도리깨.)

103011 @ 도께질예, 그다음엔, 도께질한 걸로는 밥을 못헤 먹잖아예? 그다음엔 어떵헷수과?(도리깨질이요, 그다음엔, 도리깨질한 걸로는 밥을 못 해먹잖아요? 그다음엔 어떻게 했습니까?)

103011 #3 도께헤영 두드려당, ᄇᆞ름에 불령 널엇당, 이제 물ᄀᆞ레에 강 ᄀᆞ는 거라.(도리깨질해서 두드려다가, 바람에 불려서 널었다가, 이제 연자맷간에 가서 가는 거라.)

103011 @ 물ᄀᆞ레. 게난 여긴 물ᄀᆞ레가 이서수가?(연자맷간. 그러니까 여긴 연자맷간이 있었습니까?)

103011 #3 응, 몬 이섯주게.(응, 모두 있었지.)

103011 #2 물ᄀᆞ레 여기.(연자맷간 여기.)

103011 #3 수망리도 댓 밧듸 서.(수만이에도 댓 군데 있어.)

103011 #2 물ᄀᆞ레가 상뎅이 만앗주.(연자맷간이 상당히 많았지.)

103011 @ 게난, 물ᄀᆞ레, 물ᄀᆞ레 옛날엔 물ᄀᆞ랑계를 만들엉 뭐 헤낫잖아예?(그러니까 연자맷간, 연자맷간 옛날엔 연자맷계를 만들어서 뭐 했었잖아요?)

103011 #3,2 응.(응.)

103011 @ 그 물ᄀᆞ랑계 헷던 거 기억남숫과? 멧 집에 그 물ᄀᆞ랑를 ᄀᆞ찌 썻수과?(그 연자맷계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몇 집에 그 연자맷계를 같이 썼습니까?)

103011 #3 멧 집이서 그 동네만썩 영 쓰난, 물ᄀᆞ레 멧 개나 시난 건 알주만은.

(몇 집에서 그 동네만 씩 이렇게 사용하니까, 연자맷간 몇 개나 있었는지 그건 알

지만.)

103011 #2 아니, 게난.(아니, 그러니까.)

103011 #3 동네 만썩, ᄇᆞ든 디 만썩 가신디.(동네 만씩, 바툰 데 만씩 갔는데.)

103011 #2 그, 것도 이녁이 지금 ᄆᆞᆯᄀᆞ레가 바로 여기 이섯고, 저기 이섯는데, 우린 여기 꺼에 갈바엔 저기 꺼에 가켄 헷주게.(그, 그것도 이녁이 지금 연자맷간이 바로 여기 있었고, 저기 있었는데, 우린 여기 거에 갈 바에는 저기 거에 가겠다고 했지.)

103011 #3 ᄒᆞᆫ밧듸서 가입허곡.(한곳에서 가입하고.)

103011 #2 경헨, 영 헤근엥 영 멧 사름이 영 가보, 멧이서 팀을 구성허믄, 아무데도 가입 아년 사름은 딴디 강 부텅 허고, 거 다 게난.(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몇 사람이 이렇게 가보, 몇이서 팀을 구성하면, 아무데도 가입 않은 사람은 다른 데 가서 붙어서 하고, 거 다 게난.)

103011 #3 우리 ᄆᆞᆯᄀᆞ레 오널쯤, 낼쯤 그걸 ᄀᆞᆯ젠 ᄒᆞ면, 비차락이나 솔빡[51]이나 앗땅 그디 아땅 엎으는 거라. 그 ᄆᆞᆯᄀᆞ레 ᄀᆞᆯ켄 ᄒᆞᆫ 표시.(우리 연자맷간 오늘쯤, 낼쯤 그걸 갈려고 하면, 빗자루나 '솔박'이나 가져다가 그곳에 가져다 엎어놓는 거야. 그 연자맷간 갈겠다고 한 표시.)

103011 @ 표시로.(표시로.)

103011 #3 응, 경헹 ᄎᆞ레ᄎᆞ레 경 ᄒᆞ게 뒈언 경헨 ᄀᆞᆯ곡 경헤낫주.(응, 그렇게 해서 차례차레 그렇게 하게 돼서 그렇게 해서 갈고 그렇게 해났지.)

103011 @ 게믄 그 같은 계원들은, 그 특별하게시리 시기 안 놓쳐가지고 다 ᄀᆞᆯ아저마씸?(그러면 그 같은 계원들은, 그 특별하게시리 시기 안 놓쳐가지고 다 갈아지나요?)

103011 #3 응, 경헨 ᄀᆞᆯ암주게. 여러 밧듸난 지만썩이나 경ᄒᆞ난 이디 ᄀᆞᆯ아나민 저디 ᄀᆞᆯ곡 ᄒᆞᆫ 그 표시 앗다 놔시믄 갓당도 안헤여.(응, 그렇게 해서 갈았지. 여러 군데니까 자기 만씩 그렇게 하니까 여기 갈아나면 저기 갈고 한 그 표시 가져다 놓았으면 갔다가도 안 했어.)

103011 #2 아니, 게난 ᄋᆞ라 사름이 아니주게. 여기도 저기 이섯고 조기 이섯고 요기 이섯고 ᄆᆞᆯᄀᆞ랑이 바로 무신 거 저.(아니,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아니지. 여기도 저기 있었고 저기 있었고 요기 있었고 연자맷간이 바로 무슨 그거 저.)

103011 #3 경헹 ᄀᆞᆯ아당.(그렇게 해서 갈아다가.)

103011 #2 그렇게 이섯는디 뭐.(그렇게 있었는데 뭐.)

103011 #3 그 ᄀᆞᆯ아다근엥에 그 보리를 널어, 널엇다근엥에 막 ᄆᆞᆯ리왕 파삭ᄒᆞ게 ᄆᆞᆯ리민 그거 헤당 정ᄀᆞ레 헤난 거, 맷돌 영 ᄒᆞ는 거.(그 갈아다가 그 보리를 널어, 널었다가 막 말려서 파삭하게 마르면 그거 해다가 맷돌 했던 거, 맷돌 이렇게 하는 거.)

---

51) '솔박'은 나무를 둥그스름하고 납죽하게 파서 만든 작은 바가지 비슷한 그릇을 말한다. '솔빡'은 발화자가 '솔박'을 된소리로 발음한 것이며 속박, 손박, 좀팍, 좀팍세기라고도 한다.

103011 @ 예, 예. 정ᄀᆞ레예.(예, 예. 맷돌이요.)

103011 #3 응, 막 이어이어 ᄒᆞ는 거. 거 ᄀᆞᆯ멍 그 노래불멍 텔레비에도 나완게 그거 이어 이어. 그것에 ᄀᆞᆯ아근엥에 채로 믄 갈라근에 홁은 ᄊᆞᆯ 즘진 ᄊᆞᆯ ᄀᆞᆯ앙 밥헨 먹언.(응, 막 이어이어 하는 거. 거 갈면서 그 노래 부르며 텔레비전에도 나오던데 그거 이어 이어. 그것에 갈아서 채로 모두 골라서 굵은 쌀, 자잘한 쌀, 갈아서 밥해서 먹었어.)

103011 @ 거. 갈 때 불럿던 노래 기억 남수가?(그거. 갈 때 불렀던 노래 기억 나십니까?)

103011 #3 응.(은.)

103011 @ ᄒᆞ끔 불러봅서.(조금 불러보세요.)

103011 #3 ᄀᆞᆯ아지크라?

이어 이어 이어 이어도 ᄒᆞ라/ 다슴어멍 ᄀᆞ랑좁쏠[52]/

나가 ᄎᆞ레를 모르켜. 당, 저, 아니 무시거옌 ᄀᆞᆯ안, 아휴, 이져비언.

ᄀᆞ랑좁쏠 니 엇이 먹엉/ 다슴어멍 말 엇이 살라/

또 무시거 또 잇져만은,

가리 오리 세어본 세난/ 나도 입이랑 ᄀᆞᆯ을 말 잇나.

(말해지겠나?

이어 이어 이어 이어도 하라/ 의붓어미 'ᄀᆞ랑좁쌀'

내가 차례를 모르겠어. 당, 저, 아니 뭐라고 말해, 아휴, 잊어버렸어.

ᄀᆞ랑좁쌀 이 없이 먹어서/ 의붓어미 말 없게 살라/

또 무슨 또 있다마는,

가리 오리 세어본 혀니까 /나도 입이어서 말할 말 있나.)

103011 #2 다슴어멍안티 오죽 압박 받아사 저 소리가 나와?(의붓어미한테 오죽 압박 받아야 저 소리가 나올까?)

103011 #3 ᄀᆞ랑좁쏠이란 조가 잇주게. 거난 그게 니 엇이 ᄒᆞ민 경 어려웟던 ᄀᆞ라. ᄀᆞ랑좁쏠 니 어시 먹엉 다슴어멍 말 엇이 살라.('ᄀᆞ랑좁쌀'이란 조가 있지. 그러니 그게 이 없이 하면 그렇게 어려웠던 모양이야. 'ᄀᆞ랑좁쌀' 이 없이 먹어서 의붓어미 말 없게 살아라.)

103011 @ 음.(음.)

103011 #2 다슴어멍이엔 계모.(의붓어미라고 계모.)

103011 @ 게난 무시거엔 ᄀᆞᆯ으카부덴, 다슴어멍.(그러니까 뭐라고 말할까봐, 의붓어미.)

103011 #2 에.(예.)

103011 #3 ᄀᆞ랑좁쏠 니 어시 먹어 가민, 다슴어멍 말엇이 ᄒᆞ게 잘 헤진단 이말이라. 겨고 말엇이 살라.('ᄀᆞ랑좁쌀' 이 없이 먹어 가면, 의붓어미 말없이 하게 잘 해진다는 이 말이야. 그리고 말없이 살아라.)

---

52) 'ᄀᆞ랑좁쏠'은 조의 일종을 말한다. 아직 익기 전의 여린 조를 뜻하기도 한다.

103011 @ 음.(음.)

103011 #3 아이고, 또 무시거엔 곧젠 ᄒᆞ단 말아저니. 가리 오리 세언 문 세어도 나두 입이라 골을 말 잇나. 아이고 또 무시거 곧젠 헌데 이져비언.(아이고, 또 뭐라고 말하려고 하다가 말았지. 가리 오리 세어서 모두 세어도 나도 입이라 말할 말 있나. 아이고 또 뭐 말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어.)

103011 #2 나보다 백 곱 낫으크라.(나보다 백 곱 낫겠어.)

103011 #3 헤이고, 쉐 눈이 크덴헤도 니 눈이 크다. 아이고, 산덴 ᄒᆞ나 못 산덴 ᄒᆞ나. 나 얼굴에 지미나 보라, 얼굴에 지미나 보라. 산덴 ᄒᆞ나 못산덴 ᄒᆞ나 얼굴 보민 알아진다. 엿날에 그추룩이엔 골아나서.(하이고, 소 눈이 크다고 해도 네 눈이 크다. 아이고, 산다고 하나 못 산다고 하나. 내 얼굴에 기미나 보라, 얼굴에 기미나 보라. 산다고 하나 못산다고 하나 얼굴 보면 알아진다. 옛날에 그처럼 말했었어.)

103011 @ 그믄 그거는 시어멍 입장에서 곧는 소리꽈?(그러면 그거는 시어머니 입장에서 말하는 소립니까?)

103011 #3 그겔꺼주게. 시집 살젠 ᄒᆞ난 시집사는 거, 시집사는거세 곧는 거주게.(그걸 거지. 시집 살려고 하니까 시집 사는 거, 시집 사는 것에 말하는 거지.)

103011 @ 아.(아.)

103011 #3 산덴 ᄒᆞ나 못 산덴 ᄒᆞ나 붉은 양지에 지미나 보라.(산다고 하나 못 산다고 하나 붉은 얼굴에 기미나 보라.)

103011 @ 음.(음.)

103011 #3 뚤이 엿날엔 뚤이 시집이 갓당 오며는, 자꾸 오도 안헨 살다근에 ᄒᆞ쏠 오면, 시집이 오며는, 저 친정이 오며는, 뚤이 시집강 살다근엥 친정에 오며는, 뚤 얼굴 보미는 훤ᄒᆞ게 알아. 뚤 얼굴 보며는.(딸이 옛날엔 딸이 시집에 갔다가 오면, 자꾸 오지도 안 해. 살다가 조금 오면, 시집에서 오면, 저 친정에 오면, 딸이 시집가서 살다가 친정에 오면, 딸 얼굴 보면 훤하게 알아. 딸 얼굴 보면.)

103011 @ 음.(음,)

103011 #3 잘 살고 못 산거 보민 얼굴에도 알아진다게. 겨난

붉은 양지에 지미나 보라/

이거 이추룩 곧고,

ᄀᆞ랑좁쏠 니 엇이 먹엉/ 다슴어멍 말 엇이 살라/ 가단 질도 가당치지안ᄒᆞ건/ 걸음을 말고/ 말라 헤도 대답을 말라/

경ᄒᆞ멍 그런 츰앙 엿날에 살아서. 입 막음 멧 년, 귀 막안 멧 년, 눈 어둑엉 멧 년.(잘 살고 못 산거 보면 얼굴에도 알아진다. 그러니

붉은 얼굴에 기미나 보라/

이거 이처럼 말하고,

‘ᄀᆞ랑좁쌀’ 이 없이 먹어/ 의붓어미 말없이 살아라/ 가던 길도 가당치않거든/ 걸음을 말고/ 말라 헤도 대답을 말라/

그렇게 하며 그런 참아서 옛날에 살았어. 입막음 몇 년, 귀 막아서 몇 년, 눈 어

둬서 몇 년.)

103011 #2 게난 시집살이옌 ᄒᆞ는 것이 지금ᄒᆞ고 엿날ᄒᆞ고 뜰린 것이.(그러니까 시집살이 하는 것이 지금하고 옛날하고 다른 것이.)

103011 #3 기주만 이젠 경 안ᄒᆞ주게. 시어멍들이 막 배우기 따문에 절대 아니 궂어.(그렇지만 이젠 그렇게 안 하지. 시어미들이 막 배우기 때문에 절대 아니 등져.)

103011 #2 엿날, 엿날 사름덜은 뚤은, 경허고 시집갈 생각을 안헷거든.(옛날, 옛날 사람들은 딸은, 그리고 시집갈 생각을 안했거든.)

103011 @ 맞수다.(맞습니다.)

103011 #2 거난, 부모네 가렝허믄 거기서 저, 죽을 걸 각오헨 ᄒᆞ는 따문에, 요새민 영 비위에 안 맞으면 툭 차불면 될건듸, 엿날엔 그걸 못헷주.(그러니, 부모네 가라고하면 거기서 저, 죽을 걸 각오해서 하는 때문에, 요새면 이렇게 비위에 안 맞으면 툭 차버리면 될 건데, 옛날엔 그걸 못했지.)

103011 #3 우린 당추게. 그자 가렌하믄 가야고, 죽으나 사나 간딘 살아야 사람노릇ᄒᆞ주, 뎅경 요새 애기들은 울곡 서방 내비둥 돌아다니곡 ᄒᆞ는 건 사름으로 생각을 아녜저.(우린 당최. 그저 가라고하면 가야했고, 죽으나 사나 간곳에는 살아야 사람노릇하지, 다니고 요새 애기들은 울고 서방 내버려두고 돌아다니고 하는 건 사람으로 생각을 안 해지지.)

103011 @ 맞수다.(맞습니다.)

103011 #3 엿날엔 경 아녯주.(옛날엔 그렇게 안 했지.)

103013 @ 게민예 그다음엔 보리쌀로는 어, 뭘 헷수과? 보리밥도 헤 먹엇주만은 또 다른 거.(그러면요 그다음엔 보리쌀로는 어, 뭘 했습니까? 보리밥도 헤 먹었지만 또 다른 거.)

103013 #3 보리밥게.(보리밥.)

103013 @ 보리밥 말고.(보리밥 말고.)

103013 #3 보리밥 말고 보리쏠로 거 무시거 보리밥 말앙 ᄒᆞ는 게 서?(보리밥 말고 보리쌀로 거 무엇 보리밥 말고 하는 게 있어?)

103013 @ 뭐 개역도 헤먹고.(뭐 미숫가루도 해 먹고.)

103013 #3 ᄋᆞ, 개역도 ᄒᆞ주. 개역도 헤영 먹곡 보리쏠 틔왕 뒌장도 멘들곡 기추룩 헷주.(옳지, 미숫가루도 하지. 미숫가루도 해서 먹고 보리쌀 띄워서 된장도 만들고 기처럼 했지.)

103013 @ 보리쏠 틔워근엥마씨?(보리쌀 띄워서요?)

103013 #3 틔왕, 틔왕.(띄워서, 띄워서.)

103013 @ 아, 틔왕.(아, 띄워서.)

103013 #3 밥헤영 틔왕.(밥해서 띄워서.)

103013 @ 틔와근에.(띄워서.)

103013 #3 으, 뒌장도 만들고 개역도 헤영 먹고.(응, 된장도 만들고 개역도 해서

먹고.)

103014 @ 그담에, 그다음엔예? 보리를 다 그 수확헤나면, 보리 그 체나 그다음엔 보리찍이나, 그다음엔 그 보리고고리에서 가시 팍팍 찌르는 거 잇잖아예.(그다음에, 그다음에요? 보리를 다 그 수확해나면, 보리 그 겉겨나 그다음엔 보릿짚이나, 그다음엔 그 보리고고리에서 가시 팍팍 찌르는 거 있잖아요.)

103014 #3 ᄀᆞ스락.(까끄라기.)

103014 @ 예, ᄀᆞ스락, ᄀᆞ스락. 이런 것들은?(예, 까끄라기, 까끄라기. 이런 것들은?)

103014 #3 ᄀᆞ스락.(까끄라기.)

103014 @ 어, ᄀᆞ스락은 뭐에 사용헷수과? 우선 그 보리체는 뭐에 사용헷수과?(어, 까끄라기는 뭐에 사용했습니까? 우선 그 보리겉겨는 뭐에 사용했습니까?)

103014 #3 보리체는 ᄀᆞᆯ아나믄 거풀은 도새기 줭 질르고, ᄀᆞ스락은 불지더근엥 불치로 헹 쓰고 경헷주. 밧듸도 기자 뿌리붐도 ᄒᆞ곡, 저 불치 멘들엉.(보리겉겨는 갈아나면 꺼풀은 돼지 줘서 기르고, 겉겨는 불태워서 재로 해서 쓰고 그렇게 했지. 밭에도 그저 뿌려버리기도 하고, 저 재 만들어서.)

103014 @ 뿌리기도 하고예, 보리 찍은마씨?(뿌리기도 하고요, 보리 짚은요?)

103014 #3 보리 찍은 밧듸 끔도 ᄒᆞ곡, 통시에 담앙 걸름도 ᄒᆞ곡, ᄉᆞ라불진 아녀주 그거.(보리 짚은 밭에 깔기도 하고, 변소에 담아서 거름도 하고, 태워버리진 안 하지 그거.)

103014 @ 음, 계난.(음, 그러니까.)

103014 #2 불치가 거의 돗통시에 들어갓주.(불치가 거의 돼지우리에 들어갔지.)

103014 #3 담앙. 걸름헤주게.(담아서 거름했지.)

103015 @ 경헷구나예. 보리농사를 하면서 막 특별히 막 기억낫던 어떤 추억이나 그런 거 엇수과?(그랬군요. 보리농사를 하면서 막 특별히 막 기억났던 어떤 추억이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103015 #3 무시거 그런 건 엇고.(뭐 그런 건 없고.)

103015 @ 예, 저기 삼춘 군대 가불면 우리 여자삼춘 혼자서 그거 이제 막.(예, 저기 삼촌 군대 가버리면 우리 여자삼촌 혼자서 그거 이제 막.)

103015 #2 나 군인 갈 땐 이디 시집 오도 아녓주게.(내가 군인 갈 때 여기 시집 오지도 안했지.)

103015 #3 군인 강 온 때, 군인 저 ᄉᆞ주문서 헷단 군인 간 오난 결혼헨.(군인 가서 온 때, 군인 저 사주문서 했다가 군인 갔다 오니까 결혼했지.)

103015 @ 아 경헷구나예.(아, 그랬군요.)

103015 #3 견 저들 필요도 엇고.(그래서 근심할 필요도 없고.)

103015 #2 그, 그때, 그.(그, 그때, 그.)

103015 #3 ᄒᆞᆫ디 살아도 우린 연애도 아녀고 ᄒᆞᆫ동안 살암시난.(함께 살아도 우린 연애도 안 하고 한동안 살고 있으니까.)

103015 #2 그때는 게난 결혼 막 늦게 한 거라 쑤물ᄋᆞ슷에 결혼헤시난.(그때는 그러니까 결혼 막 늦게 한 거라 스물여섯에 결혼했으니까.)

103015 #3 나 쑤물ᄋᆞ슷에, 응.(내가 스물여섯에, 응.)

103015 @ 아 스물여섯에, 예. 아유 세상에.(아 스물여섯에, 예. 아유, 세상에.)

103015 #3 쑤물ᄋᆞ슷에. 당추 군인 갈 때도 이 사름신디 시집와지카부덴 아녀고.(스물여섯에. 당최 군인 갈 때도 이 사람에게 시집와질까봐 안하고.)

103015 @ 예.(예.)

103015 #3 걍, 감신가 완 허고. 우리집이도 군인가노렌 동네난, *** *** 군인간덴 헨 ᄀᆞᆯ안, 당추 몰라서.(그냥 가는가 와서 하고. 우리 집에도 군인 간다고 동네니까, *** *** 군인 간다고 해서 말해서, 당최 몰라서.)

103015 @ 경헷구나예.(그랬군요.)

103015 #3 겐 가분 후제 집이 온 ᄉᆞ진 모산에, 연예도 원 ᄒᆞᆯ 예기 아녀고, 겨고 나는 연애 ᄒᆞᆯ예기도 아녀고, 완전 연애ᄒᆞ는 건, 그 시철에 연애 아무나 아녀.(그래서는 가버린 후에 집에 온 사주는 모셔서, 연예도 원 할 얘기 안하고, 겨고 나는 연애 할 얘기도 안하고, 완전 연애하는 건, 그 시절에 연애 아무나 안 해.)

103015 @ 맞수다예.(맞습니다.)

103015 #3 어, 당추 이녁이 ᄆᆞ음 정 무시거 멩에 ᄉᆞᆯ리멍 경 ᄒᆞᆯ 필요가 엇다는 거, 난 경ᄒᆞ멍 산 사름이여.(어, 당최 이녁이 마음 그렇게 무엇 명예 차리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 난 그렇게 하면서 산 사람이야.)

조 농사

103016 @ 다음엔 조농사에 대헤가지고 저기 물어볼게예. 아까 보리농사 할 때 어떤어떤 준비가 필요한 지 물어봐낫잖아예, 조농사 할 때는 게믄 어떠헌 것들이 필요헤낫수과?(다음엔 조농사에 대해서 저기 물어볼게요. 아까 보리농사 할 때 어떤 어떤 준비가 필요한 지 물어봤었잖아요, 조농사 할 때는 그러면 어떠한 것들이 필요했었습니까)

103016 #3 조농사 ᄒᆞᆯ 땐, 기냥 그 시철엔 조 씨만 뿌령, ᄆᆞᆯ 헤당 막 ᄇᆞᆯ련.(조농사 할 땐, 그냥 그 시절엔 조 씨만 뿌려, 말 해다가 막 밟았어.)

103016 #2 그니깐 여기는 아까도 ᄀᆞᆯ앗주만은 땅이 뜨기 때문에 ᄇᆞᆯ려서, ᄇᆞᆯ려서.(그니깐 여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땅이 뜨기 때문에 밟았어, 밟았어.)

103016 #3 막 ᄇᆞᆯ라. ᄆᆞ시[53] 막 하영 그 어리 어리 어리 ᄒᆞ멍 막 텔레비에도 나오는게.(막 밟아. '머식' 매우 많이 그 어리 어리 어리 하면서 막 텔레비전에도 나오던데.)

103016 #2 그 영 우리 아버지가 그때도 막 ᄆᆞᆯ 많이 헤근엥에 그 그네 테우리[54] 렌 헤주게. ᄆᆞᆯ테우리.(그 영 우리 아버지가 그때도 막 말 많이 해서 그 그를 '테우

53) '머식'은 소(牛)를 모는 소리를 말한다. 여기서 발화자는 '머식'을 'ᄆᆞ시'로 발음한 듯하다.
54) '테우리'는 주로 말과 소를 들에 놓아먹이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목동을 말한다.

리’라고 했어. 말 ‘테우리’.)

103016 @ 예.(예.)

103016 #2 그축헨 밧 불리레 만히 다녀낫는데.(그렇게 해서 밭 밟으러 많이 다녀났는데.)

103016 @ 음.(음.)

103016 #3 경헌 불렷주.(그렇게 해서 밟았지.)

103016 #2 게난 웨냐, 여기 땅이 뜨기 때문에 막 붋아줘야 헤여.(그러니까 왜냐, 여기 땅이 뜨기 때문에 막 밟아줘야 해.)

103017 @ 그믄은 그 조밧 거름은 그믄 엇어낫수가?(그러면 그 조밭 거름은 그러면 없었습니까?)

103017 #3 아년.(않았어.)

103017 #2 조팟 걸름은, 조팟은 여 저 여름에 ᄒᆞ는디 거의 그딘 걸름 엇이.(조밭 거름은, 조밭은 여 저 여름에 하는데 거의 거긴 거름 없이.)

103017 #3 걸름 엇인 냥.(거름 없는 채로.)

103017 @ 그난 조를 씨를 뿌려난 다음에 저 마, 말, 물로 붋앗수가, 뿌리기 전에 붋앙 뿌렷수과?(그러니까 조를 씨를 뿌려난 다음에 저 마, 말, 말로 밟았습니까, 뿌리기 전에 밟아서 뿌렸습니까?)

103017 #3 체암 영 ᄒᆞ쏠 붋아놩, 설롸놔근에 그 우트레 또 뿌리는 거라, 씨를. 체암 ᄒᆞ쏠 술룸[55]이엔 흔거 ᄒᆞ쏠 영 헤놩, 두루뒈게 ᄒᆞ쏠 불려놩, 초벌 불려놩 다시 씨 뿌려.(처음 이렇게 조금 밟아놓고, 끝내놓고 그 위로 또 뿌리는 거야, 씨를. 처음 조금 ‘술룸’이라고 하는 거 조금 이렇게 해놓고, 덜되게 조금 밟아놔서, 초벌 밟아놔서 다시 씨 뿌려.)

103017 #2 글쎄 어떻게 뒛냐믄, 이거 밧을 갈아 논 밧, 막 판이지지 아녀?(글쎄 어떻게 됐냐면, 이거 밭을 갈아 논 밭, 막 판지지 않아?)

103017 @ 예, 예예.(예, 예예.)

103017 #2 그걸 ᄒᆞ쏠 불령 펜펜ᄒᆞ게 ᄒᆞ고. 게아문 그 저 고랑에 쯤은 막 짚이 묻어질거니까 ᄒᆞ쏠 영 밧을 불려근에 ᄒᆞ쏠 영 펜펜ᄒᆞ게 헤놔근에 씨를 뿌리주게.(그걸 조금 밟아서 평평하게 하고. 그게 아니면 그 저 고랑에 쯤은 막 깊이 묻어질 거니까 조금 이렇게 밭을 밟아서 조금 이렇게 평평하게 해놔서 씨를 뿌리지.)

103017 @ 음.(음.)

103017 #3 씨 뿌려근에 풀려는 디, 그 테우리 몽뎅이가 잇는 거난 그 몽뎅이로 영영 헤보멍 퀭퀭 들어가지 아니ᄒᆞ도록 불리는 거라.(씨 뿌려서 풀려있는 데, 그 ‘테우리’ 몽둥이가 있는 거니까 그 몽둥이로 이렇게이렇게 해보면서 꽝꽝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밟는 거야.)

103017 @ 아.(아.)

103017 #3 경헌디 그런 날은 테우리 밥이라고 마냑 잘 출려근엥 헤당 먹고.(그

55) ‘술룸’은 ‘딱딱해진 흙을 긁거나 파서 부드럽게 만든다.’는 의미인 듯하다.

런데 그런 날은 ‘테우리’밥이라고 마냥 잘 차려서 해다가 먹고.)

103017 @ 음.(음.)

103017 #2 그때는 그 잘 출리미엔 흔 거주.(그때는 그 잘 차리느라 한 거지.)

103018 @ 게믄 이제 그 조는 게난 언제 갈앗수가?(그러면 그 조는 언제 갈았습니까?)

103018 #2 보리 비민.(보리 베면.)

103018 #3 아, 하지 넘으면은 산듸끌 불림 시작헤영.(아, 하지 넘으면 밭벼포기 분리하기 시작해서.)

103018 @ 예.(예.)

103018 #3 추추, 좋은 맛은 낭중.(차차, 좋은 맛은 나중에.)

103018 @ 예.(예.)

103018 #3 궂인 맛은 이제 추추 헤 가는디, 하지 주, 저 하지여, 무신 유월절이여 부록 절기를 따저왕 ᄒᆞ는 거.(궂은 맛은 이제 차차 해 가는데, 하지 지, 저 하지야, 무신 유월절이야 부러 절기를 따져서 하는 거.)

103018 @ 게난 하지 지낭 헴수과?(그러면 하지 지나서 하십니까?)

103018 #3 응.(응.)

103018 #2 응, 하지 지나근엥에 저 유월절, 유월절 넘으믄 그 전엔 마 걷지, 마 걷젠 허주게. 마 거둬가민 이제 유월절 앞뒤에 ᄒᆞ주 대게.(응, 하지 지나서 저 유월절, 유월절 넘으면 그 전엔 장마 걷지, 장마 걷으려 하지. 장마 걷어 가면 이제 유월절 앞뒤에 하지 대개.)

103018 #3 유월절 안전 끗나기 전이 용시[56] 끗.(유월절 완전 끝나기 전에 ‘농사’ 끝.)

103019 @ 게, 저 조, 좁씨 뿌릴 땐 게민 어떵 뿌렷수가? 그냥 막 영영 막 뿌려수가?(그래, 저 조, 조 씨 뿌릴 땐 그러면 어떻게 뿌렸습니까? 그냥 마구 이렇게 이렇게 마구 뿌렸습니까?)

103019 #3 어, 그냥 영영영영 헤도 잘 뿌려, 엿날식이난 경헌디, 씨 뿌리는 거는 우리 하르방[57] 날만이 못 뿌려, 나가 잘 하주.(어, 그냥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해도 잘 뿌려, 옛날식이니까 그런데, 씨 뿌리는 거는 우리 ‘할아버지’가 나만큼 못 뿌려, 내가 잘 하지.)

103019 #2 하하하하.(하하하하.)

103020 @ 조팟 밟을 땐 아까 그 물로 붋으고예. 아까 저기 물로 붋으는디 잘 붋아져신지 안 붋아저신지 아까 뭘로 확인한덴 헤수과?(조밭 밟을 땐 아까 그 말로 밟고요. 아까 저기 말로 밟는데 잘 밟아졌는지 못 밟아졌는지 아까 뭐로 확인한다고 했습니까?)

103020 #3 낭으로 영 접앙.(나무로 이렇게 잡아서.)

---

56) ‘용시’는 ‘농시’ 즉 ‘농사’를 다르게 발음한 것으로 보인다.

57) ‘하르방’은 ‘할아버지’를 말한다. 여기서는 발화자의 남편을 이르는 말이다.

103020 @ 접앙, 음.(잡아서, 음.)
103020 #2 접앙이옌 그거시 거 저.(잡는다고 그것이 그거 저.)
103020 #3 튼튼, 튼튼ᄒᆞ민 끗난 거.(탄탄, 탄탄하면 끝난 거.)
103020 #2 ᄆᆞᆯ테우리렌 ᄒᆞ는디, ᄆᆞᆯ테우리가 그 막뎅이 아정다니멍.(말'테우리'라고 하는데, 말'테우리'가 그 막대기 가지고 다니며.)
103020 @ 예.(예.)
103020 #2 그 조름에 거 ᄆᆞᆯ 몰앙 뎅기는 사람 잇주게?(그 꽁무니에 그거 말 몰아 다니는 사람 있지?)
103020 @ 예, 예예.(예, 예예.)
103020 #2 그 막뎅이로 영 ᄒᆞ라, 영 ᄀᆞ리치민 그레 ᄆᆞᆯ곡.(그 막대기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가리키면 그리로 몰고.)
103020 @ 아.(아.)
103020 #2 영 ᄀᆞ리치민 그레 몰곡, 이거 대장이라, 앞에서.(이렇게 가리키면 그리로 몰고, 이거 대장이라, 앞에서.)
103020 @ 아.(아.)
103020 #2 테우린 대장이고.('테우리'는 대장이고.)
103020 @ 예.(예.)
103020 #2 밑에 사름은 그 그 사름 막뎅이로, 게난 영 솔피멍 요기 강 붋으겟다 ᄒᆞ면은, 그레 영 ᄒᆞ믄 그레 ᄆᆞᆫ 몰아주고.(밑에 사람은 그 그 사람 막대기로, 그러니까 이렇게 살피면서 요기 가서 밟겠다고 하면, 그리로 이렇게 하면 그리로 모두 몰아주고.)
103020 @ 예.(예.)
103020 #2 그렇게 헷다고.(그렇게 했다고.)
103020 @ 그 말떼, 그게 혹시 말떼렌 ᄀᆞᆯ앗수과?(그 말떼, 그게 혹시 말떼라고 말했습니까?)
103020 #2 말떼?(말떼?)
103020 #3 테우리 몽뎅이.('테우리' 몽둥이.)
103020 #2 게난 말떼영도ᄒᆞᆯ 수 잇주게. 말떼영도ᄒᆞᆯ 수 이서.(그러니까 말떼라고도할 수 있지. 말떼라고도할 수 있어.)
103020 @ 테우리 몽뎅이.('테우리' 몽둥이.)
103020 #2 말떼영도 ᄒᆞᆯ 수 이서.(말떼라고도할 수 있어.)
103020 @ 거민 남테는 뭐우꽈? 남테.(그러면 남태는 뭡니까? 남태.)
103020 #3 남테는 ᄆᆞᆯ 대신 사람이 메영 허는 거.(남태는 말 대신 사람이 매어서 하는 거.)
103020 #2 거 남테는 ᄆᆞᆯ 대신 허는 거.(그거 남태는 말 대신 하는 거.)
103020 @ ᄆᆞᆯ 대신 하는 거.(말 대신 하는 거.)
103020 #3 ᄆᆞᆯ 대신 그 바의 하영 낭 우에 돋정 박은 거.(말 대신 그 겉에 많이

나무 위에 돋우어 박은 거.)

103020 #2 그난 그 큰 낭에 발을 막 돋정, 끄성 뎅기멍 불르는 거.(그러니까 그 큰 나무에 발을 마구 돋우어, 끌어 다니면서 밟는 거.)

103020 @ 아.(아.)

103020 #3 그 문화제 구경 가보난 큰 거 막 돌아 진 거 선게, 따비.(그 문화제 구경 가보니까 큰 거 막 달아 진 거 있었어, 따비.)

103020 @ 아.(아.)

103020 #2 그거 봐나실 걸, 남테.(그거 봐났을 걸, 남태.)

103020 #3 아니, 난 대충 구경가나시믄 봐낫주게. 남테, 막 발 막 낭 영 까끈 거 하영 박앙 저 물에 메왕 끄성뎅기멍 ᄒᆞ는 거 이서.(아니, 난 대충 구경 갔었다면 봐났어. 남태, 마구 발 마구 나무 이렇게 깎은 거 많이 박아서 저 말에 매어서 끌어 다니며 하는 거 있어.)

103020 #2 거 물 대신 ᄒᆞ는 거.(거 말 대신 하는 거.)

103020 @ 아, 그게 남테, 그럼 돌테는 뭐꽈? 돌테.(아, 그게 남태, 그럼 돌태는 뭡니까? 돌태.)

103020 #3 돌테[58]도 서? (돌태도 이서?)

103020 @ 그럼 끙게는 뭐꽈, 끙게.(그럼 끙게는 뭡니까? 끙게.)

103020 #2 여기, 여기는 그런 게 엇엇는데.(여기, 여기는 그런 게 없었는데.)

103020 @ 아, 그렇구나예. 남테는 이서낫고예?(아, 그렇군요. 남태는 있었고요?)

103020 #3 응, 남테는 막 잇주.(응, 남태는 많이 있지.)

103020 #2 요덴 물 어신 사름덜이 그러는 거.(요긴 말 엇인 사람들이 그러는 거.)

103021 @ 그다음엔 조밧듸 검질은 일 년에 한 몇 번쯤 멧수과?(그다음엔 조밭의 김은 일 년에 한 몇 번쯤 맸습니까?)

103021 #3 아, 조팟디 검질은 세 번 메연, 원칙.(아, 조밭의 김은 세 번 맸어, 원칙.)

103021 #2 초벌 두벌 세벌 영 허주게.(초벌 두벌 세벌 이렇게 하지.)

103021 #3 검질은 어느 때 끗나는고ᄒᆞ민 팔월 십오일. 모물팟 홀 시작이주.(김은 어느 때 끝나느냐하면 팔월 십오일. 메밀밭 할 시작이지.)

103021 @ 예.(예.)

103021 #3 그때ᄁᆞ장 메민 완공.(그때까지 매면 완공.)

103021 @ 예.(예.)

103021 #3 팔월 십오일 양력.(팔월 십오일 양력.)

103021 @ 예.(예.)

103021 #3 이제 늴모리 돌아오는 거.(이제 낼모레 돌아오는 거.)

103021 @ 예.(예.)

58) '돌테'는 씨 뿌린 밭을 다지는 데 쓰는, 돌로 만든 농기구를 말한다.

103021 #3 그 조팟디 검질 끗나는 거. 세 번 메는 거 그 조팟디. 확실리 세 번.(그 조밭의 김 끝나는 거. 세 번 매는 거 그 조밭에. 확실히 세 번.)

103021 @ 세 번 메는 거예, 확실히 세 번예.(세 번 매는 거요, 확실히 세 번이요.)

103022 @ 어, 조밭에는예 검질들은 또 뭐가 이서수과?(어, 조밭에는요 김들은 또 뭐가 있었습니까?)

103002 #3 아이고, 조팟디는 하주겐, 제완지도 잇국, 그 저 ᄀᆞ싸 ᄀᆞᆯ아 맞다. 빈네영 무신 비눔이여, 여름검질에는 ᄀᆞᆯ일 수 엇이 하.(아이고, 조밭에는 많지, 바랭이도 있고, 그 저 아까 말한 맞다. 비름이랑 무슨 비름이여, 여름 김에는 고를 수 없이 많아.)

103002 @ 생각나는 대로 한 번 ᄀᆞᆯ아줘 봅서.(생각나는 대로 한 번 말해줘 보세요.)

103002 #2 쉐터럭이옌 헤근엥에, 하하하하.(방동산이라고 해서, 하하하하.)

103002 #3 쉐터럭이멍.(방동산이며.)

103002 #2 쉐터럭이옌 알아저?(방동산이라고 알아?)

103002 @ 쉐터럭예, 또 뭐 이섯수가?(방동산이요, 또 뭐 있었습니까?)

103002 #3 무시거 씨어멍깜낭이엔 ᄒᆞ는 거 그런 무시거ᄒᆞ곡, 아이고.(무엇 여우구술이라고 하는 거 그런 무엇하고, 아이고.)

103002 @ 씨어멍깜낭마씨?(여우구술이요?)

103002 #3 씨어멍깜낭이엔 ᄒᆞ는 거. 무신 감낭이여 무시거 거 조팟디 검질은 막 하난 ᄋᆞ라가지.(여우구술이라고 하는 그거. 무슨 여우구술이야 무엇 그거 조밭에 김은 막 많으니까 여러가지.)

103002 @ 여러 가지. 제완지, 빈네, 비눔, 쉐터럭, 씨어멍깜낭, 또 한번 생각나는 대로 ᄀᆞᆯ아봅서. 왜냐면 이거는.(여러 가지. 바랭이, 비름, 비름, 방동산이, 여우구술, 또 한 번 생각나는 대로 말해보세요. 왜냐면 이거는.)

103002 #3 제완지도.(바랭이도.)

103002 @ 예, 제완지 썻고 예.(예, 바랭이 썼고.)

103002 #3 저, 비눔.(저, 비름.)

103002 @ 비눔도 썻우다.((저, 비름도 썼습니다.))

103002 #3 쉐터럭도 썬?(방동사니도 썼어?)

103002 @ 예.(예.)

103002 #3 음, 저 무시거. 헤바레기풀.(음, 저 뭐. 깨풀.)

103002 @ 예.(예.)

103002 #3 그 무시거 영 헤가민 ᄌᆞ무라지는 거, 안, ᄀᆞ싸 시 뭐 무시거 갈고 뚤감낭. 그런 것도 막 이서.(그 뭐 이렇게 해가면 오므라드는 거, 안, 아까 시 뭐 무엇 갈고 미모사. 그런 것도 막 있어.)

103002 #2 뚤감낭?(미모사?)

103002 @ 뚤감낭예.(미모사요.)

103002 #2 낭이옌 하믄 나문데?('낭'이라고 하면 나문데?)

103002 #3 아녀 아녀.(아니, 아니.)

103002 @ 또 뭐 이섯수가?(또 뭐 있었습니까?)

103002 #3 저, 거시기 여름 요세사 하주. 쒜비름도 썻인가?(저, 거시기 여름 요새야 많지. 쇠비름도 썼는가?)

103002 @ 예.(예.)

103002 #2 이젠 뭐 몬딱이 이져부런 뭐.(이젠 뭐 모두 잊어버렸어 뭐.)

103002 #3 이자비연. 흔 거. 제완지, 조팟디 막 읏라가지라.(잊어버렸어. 한 그거. 바랭이, 조밭에 막 여러가지야.)

103002 #2 몰라, 풀이름.(몰라, 풀이름.)

103002 #3 씨메, 씨메께는 즛슬검질이라서 그건, 또 조 비여가민 ᄀᆞ레조. 조 건 비여가사 ᄀᆞ레조. 조팟딘 그런 거 이서.('씨메', 며느리밑씻개는 이른 김이라서 그건, 또 조 베어가면 가라지. 조 그건 베어가야 가라지. 조밭엔 그런 거 있어.)

103023 @ 아, 경헷구나예. 그다음엔 어, 조, 아까 보리수확 하듯이 조 수확은 처음에 어떻게, 베는 걸로부터 시작헹 ᄀᆞᆯ아줍서.(아, 그랬군요. 그다음엔 어, 조, 아까 보리수확 하듯이 조 수확은 처음에 어떻게, 베는 걸로부터 시작해서 말씀해주세요.)

103023 #3 비엉, 시꺼당, 꼬구리ᄐᆞ듬이옌 흔, 거 그 읏물만 코구리 이만 영 물질러놔근에 겐 도께로 두드리는 게주게.(베어서, 실어다가, 이삭 뜯음이라고 한, 거 그 알맹이만 이삭 이만 이렇게 문질러놓아서 그래서는 도리깨로 두드리는 거지.)

103023 #2 조코구리는 저, 여기선 거의 손으로 톹앗어.(조 이삭은 저, 여기선 거의 손으로 뜯었어.)

103023 @ 손으로, 아, 아예 베기 전에?(손으로, 아, 아예 베기 전에?)

103023 #2,3 아니, 아니 아니.(아니, 아니 아니.)

103023 #2 비어당, 집에서.(베다가, 집에서.)

103023 #3 비언 온 거 시껑 집에 앗당 영영 톹아근엥 영 ᄒᆞ곡.(베어서 온 거 실어 집에 가져다가 이렇게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하고.)

103023 @ 그 시끌 때 뭐 이케 뭐 단이나 그런 걸로 무끄지 않아마씸?(그 실을 때 뭐 이렇게 뭐 단이나 그런 걸로 묶지 않는가요?)

103023 #2 무끄주, 무꺼.(묶지, 묶어.)

103023 #3 아, 무꺼. 무꺼야.(아, 묶어, 묶어.)

103023 @ 비어난 다음엔 무꺼근엥, 집에 가저왕.(베어난 다음엔 묶어서, 집에 가져와서.)

103023 #2 게네, 쉐에도 시껑뎅기고, 마차에도 시끄고.(그렇게 해서, 소에도 실어 다니고, 마차에도 싣고.)

103023 @ 무껑 왕.(묶어서 와서.)

103023 #2 그 전에 그 전에는 마차가 하질 안ᄒᆞ니까, 쉐에 시껑 뎅기고 ᄒᆞ지. 우린 쉐들 시난, 쉐로.(그 전에 그 전에는 마차가 많지 안하니까, 소에 실어 다니고 하지. 우린 소들 있으니까, 소로.)

103024 @ 게난 쉐로 싯껑 왓잖아예? 그다음부터 ᄀᆞᆯ아줍서예. 타작을 맨 처음 시작할 때 아까 고고리를 손으로 ᄐᆞᆫ앗수과?(그러니까 소로 실어왔잖아요? 그다음부터 말해주세요. 타작을 맨 처음 시작할 때 아까 이삭을 손으로 뜯었습니까?)

103024 #3 응.(응.)

103024 @ 고고리를? 그다음 어떵헷수과?(이삭을? 그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103024 #2 이쪽엔 쳇 번아니라? 눌엉.(이쪽엔 첫 번 아니야? 가려서.)

103024 @ 예, 눌엉.(예, 가려서.)

103024 #2 눌어근엥에, 거 조를 종일 하루에 하영 못ᄒᆞ니까, 거 자꾸 그 트멍나는 대로 그자 ᄐᆞᆫ앗지.(가려서, 그거 조를 종일 하루에 많이 못하니까, 거 자꾸 그 틈나는 대로 그저 뜯었지.)

103024 #3 손으로 ᄐᆞᆫ앙.(손으로 뜯어서.)

103024 @ 경 ᄐᆞᆫ앙, 그다음엔?(그렇게 뜯어서. 그다음에는?)

103024 #3 도께로 두두려.(도리깨로 두드려.)

103024 @ 예, 도께로 두드렁(예, 도리깨로 두드려서.)

103024 #3 두두려근엥에 또 널엉 거 ᄀᆞᆯ아당 먹을 게주. 문 기계에다 ᄒᆞ는디 강.(두드려서 또 널어서 그거 갈아다가 먹을 거지. 모두 기계에다 하는 데 가서.)

103024 @ 그.(그.)

103024 #3 그 엿날엔 ᄆᆞᆯᄀᆞ레에 ᄀᆞᆯ앙, 그 것도 ᄆᆞᆯ고렌디 ᄒᆞ는 디서 ᄀᆞᆯ아나고, ᄆᆞᆯᄀᆞ레, 조도. 조도 보리도, ᄆᆞᆯᄀᆞ레에서 다 ᄀᆞᆯ아.(그 옛날엔 연자맷간에 갈아서, 그 것도 연자맷간이라고 하는 데서 갈아나고, 연자맷간, 조도. 조도 보리도, 연자맷간에서 다 갈아.)

103024 @ 그, 덩드렁마께[59]가 잇잖아예. 그 도께 말고 마께로 안 두드려낫수과?(그, '덩드렁마께'가 있잖아요. 그 도리깨 말고 방망이로 안 두드렸었나요?)

103024 #3 아니,(아니.)

103024 #2 던드렁마께엔 흔 건, 그건 이 저 무시거 이 뭐 이 엿날엔 노 꼬아놧주게. 그거 문 그거 폐 ᄆᆞ사근엥에 그 저 던드렁[60]이엔 헌게 돌이주게, 돌에 두엉게 두드리는 거주게.('던드렁마께'라고 한 건, 그건 이 저 뭐 이 뭐 이 옛날엔 노 꼬았었지. 그거 모두 그거 때려 부숴서 그 저 '던드렁'이라고 한 게 돌이지, 돌에 두어서 두드리는 거지.)

103024 @ 아, 그렇구나.(아, 그렇구나.)

103024 #3 거난, 먼저 엿날에, 저 신짝 ᄒᆞᆯ 때 찍 두드리는 거.(그러니까, 먼저 옛날에, 저 신짝 할 때 짚 두드리는 그거)

---

59) '덩드렁마께'는 짚이나 대 따위를 두드리는 방망이를 말하며 '던드렁마께'라고도 불린다.

60) '던드렁'은 딴딴하고 미끄닥하며 둥글넓적한, 짚 따위를 두드리는 돌판을 말하며 '덩드렁', '벌덩이'라고도 한다.

103024 #2 거난, 엿날에 초신 삼월 때 경헤근엥 게 거 찍 두드리는 거지.(그러니까, 옛날에 초신 삼을 때 그렇게 해서 그래 거 짚 두드리는 거지.)

103024 @ 아.(아.)

103024 #2 거 던드렁이지. 던드렁돌.(그거 '던드렁'이지. '던드렁'돌.)

103024 #3 아니, 조코구리도 ᄆᆞ숨니다.(아니, 조이삭도 부숩니다.)

103024 #2 조코구리?(조이삭?)

103024 #3 도께로 아년 그냥 ᄆᆞ산.(도리깨로 안 해서 그냥 부쉈지.)

103024 #2 아니 더 조코구리 ᄀᆞ뜬 건 지금 어쩌면 저 **** 흔게 조 씨를 저 조 도망못갈 거에 놔근엥 멍석엘 놩 두드리나 뭐ᄒᆞ지 던드렁돌에 놩 두드리진 아녀주게.(아니 더 조이삭 같은 건 지금 어쩌면 저 **** 한 게 조 씨를 저 조 도망못갈 거에 놔서 멍석엘 놔서 두드리나 뭐하지 '던드렁돌'에 놔서 두드리진 안 하지.)

103024 #3 던드렁엔 안 ᄒᆞ는디 던드렁돌로 두드림은 ᄒᆞ는디.('던드렁'엔 안 하는데 '던드렁돌'로 두드림은 하는데.)

103024 #2 아 그걸 한가운데 앗다 놩?(아 그걸 한가운데 갔다 놔서?)

103024 #3 그거 던드렁은 돌로뭰 맷돌이라.(그거 '던드렁'은 돌로된 맷돌이라.)

103024 @ 예.(예.)

103024 #3 맷돌에 던드렁이엔 헤연 찍 ᄀᆞ튼 거 하간 거 두두령 신도 삼고 노도 꼬고.(맷돌에 '던드렁'이엔 해서 짚 같은 거 여러 가지 거 두드려서 신도 삼고 노도 꼬고.)

103024 #2 던드렁마께연 헌 건 완전 나무로 뭰 마께주게.('던드렁마께'라고 한 건 완전 나무로 된 방망이지.

103024 @ 아, 경헷구나예. 그믄 이제 일단 거 타작헤근에 고고리 다 톹아근엥 도리께질 하잖아예? 그다음엔 강 저 그 ᄆᆞᆯᄀᆞ랑엔 강 갈앙 왕. 경헨 좁쌀, 그 밥헤먹을 때까지 쌀이 뒈기까지는 그다음엔 또 어떵헷수과?(아, 그랬군요. 그러면 이제 일단 거 타작해서 이삭 다 뜯어서 도리깨질하잖아요? 그다음엔 가서 저 그 연자맷간에 가서 갈아서 와서. 그렇게 해서 좁쌀, 그 밥해먹을 때까지 쌀이 되기까지는 그다음엔 또 어떻게 했습니까?)

103024 #3 그디 ᄆᆞᆯᄀᆞ리에서 ᄆᆞᆫ 경허고.(거기 연자맷간에서 모두 그렇게 하고.)

103024 @ ᄆᆞᆯᄀᆞ레에서 ᄀᆞᆯ앙 오면 아예 좁쌀이 다 뒈어 이서마씸?(연자맷간에서 갈아서 오면 아예 좁쌀이 다 되어 있나요?)

103024 #3 응.(응.)

103025 @ 게믄 바로 밥 헤먹을 수 잇게?(그러면 바로 밥 해먹을 수 있게?)

103025 #3 그디서 ᄀᆞᆯ앙, 그디서 복삭ᄒᆞ게[61] ᄒᆞ민 무시거 영 푸는체, 푸는체로 펑. 경희여근에 두불 ᄀᆞᆯ앙 늬, 늬 엇이.(거기서 갈아서, 거기서 '복삭ᄒᆞ게' 하면 뭐 이렇게 키, 키로 키질해. 그렇게 해서 두벌 갈아서 뉘, 뉘 없이.)

103025 @ 두불 ᄀᆞ는 것도 그냥 ᄆᆞᆯᄀᆞ랑에서 ᄀᆞᆯ안마씨?(두벌 가는 것도 그냥 연

61) '복삭하다'는 으깨어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자맷간에서 갈았어요?)

103025 #3 어, 물ᄀᆞ랑에서 씨 엇이 ᄀᆞ는 거. 게난 거적 엇이 ᄀᆞ는 거. 골앙 오민은 그 쏠을 불련, 판찍[62]ᄒᆞ게 불령 밥헹 먹엇주게.(어, 연자맷간에서 씨 없이 가는 거. 그러니까 껍질 없이 가는 거. 갈아서 오면 그 쌀을 불려서, '판찍'하게 불려서 밥해서 먹었지.)

103026 @ 아 경헷구나예, 그 좁쌀로는 어, 어떤 어떤 거 헤먹엇수과? 밥 말고.(아 그렇게 했군요, 그 좁쌀로는 어, 어떤 어떤 걸 해먹었습니까? 밥 말고.)

103026 #3 밥 말앙 죽도 헤영 먹주게.(밥 말고 죽도 해서 먹지.)

103026 @ 예, 또.(예, 또.)

103026 #3 조축도 헹 먹어.(조죽도 해서 먹어.)

103026 @ 예, 조죽.(예, 조죽.)

103026 #3 걸루 떡도 헹 먹고.(그걸로 떡도 해서 먹고.)

103026 @ 예, 떡도 헹 먹고. 또 다른 건 엇엇수가?(예, 떡도 해서 먹고. 또 다른 건 없었습니까?)

103026 #3 다른 거 그걸로, 무시거. 오메기[63] 만들앙 술도 만들아.(다른 거 그걸로, 무엇. '오메기' 만들어서 술도 만들어.)

103026 @ 술도 만들어 낫수과?(술도 만들어 났습니까?)

103026 #3 응, 응. 술두 만들앙 먹고, 나는 아니 멘들앗주만 겡헨 먹는 건 다 보고, 초상들 하는 거 보고, 술은 난 안 만들아봔.(응, 응. 술도 만들어서 먹고, 나는 아니 만들었지만 그렇게 해서 먹는 건 다 보고, 초상들 하는 거 보고, 술은 난 안 만들어 봤어.)

103026 @ 감주 같은 거는?(감주 같은 거는?)

103026 #3 감주는 ᄒᆞ주게, 감주는 ᄒᆞ는 거. 골게.(단술은 하지, 단술은 하는 거. 엿기름으로.)

103026 @ 예.(예.)

103026 #3 그 밀로 골 놩.(그 밀로 엿기름 넣어서.)

103026 @ 예.(예.)

103026 #3 물리왓다근에 그 저 골 누면은 나오민 게 팍삭ᄒᆞ게 덩어리지게 물류며는 그거 다 풀엉 싹 ᄒᆞ게 물리왕, 그거 저 영 ᄀᆞ는 것에 거평. 좁쏠은 거 감지 만드는 건 뭐인궁 ᄒᆞ민, 히린좁쏠로.(말렸다가 그 저 엿기름 넣으면 나오면 그래 파삭하게 덩어리지게 마르면 그거 다 풀어서 싹 하게 말려서, 그거 저 이렇게 가는 것에 거피여. 좁쌀은 그거 단술 만드는 건 뭔가 하면, 차조로.)

103026 @ 아.(아.)

103026 #3 히린좁쏠로 그 밥을 후딱ᄒᆞ게 멘들앙, 그 골은 서껑 놔두면은 보그락

62) '판찍'은 씻은 듯이 아무것도 없는 모양을 말하는 제주어인데, 여기서 '판찍ᄒᆞ게'는 '깨끗하게, 혹은 '깔끔하게' 조이삭의 꺼풀이나 이물질을제거한 상태를 말한다.

63) '오메기'는 차좁쌀 가루를 익반죽을 해 둥그렇게 만든 후 가운데에 큰 구멍을 뚫어 만들거나 둥굴납작하게 만들어서 삶아낸 떡을 말한다.

ᄒᆞ게 궤여. 보그락 ᄒᆞ게 궤이면은 걸러근에 딸리면 감지가 뒈어, 엿이 뒈고.(차조로 그 밥을 후딱 하게 만들어서, 그 엿기름은 섞어서 놔두면 부걱 하게 괴어. 부걱 하게 괴면 걸러서 달이면 단술이 되지, 엿이 되고.)

103026 @ 이젠 요즘은 안 헴수과?(이젠 안 하나요?)

103026 #3 아녀주게. 어디 ᄒᆞ는 듸사 신디. 그런 거 헤나건 때가 언제라. 게난 그거 두룻 딸리민 감주뒈고. 싹 ᄒᆞ게 오래 장 딸리민 엿이뒈어. 게난 그거 엿 만드는 거는 히린좁쏠로.(안 하지. 어디 하는 데야 있는지. 그런 거 했었던 때가 언제라. 그러니까 그거 덜 달이면 단술 되고. 싹 하게 오래 장 달이면 엿이 되어. 그러니 그거 엿 만드는 거는 차조로.)

103026 @ 아, 흐린좁쏠로예. 아, 경헷구나예.(아, 차조로요. 아, 그랬군요.)

103027 @그다음엔 그 조찍으로는 뭐로 썻수과??(그다음엔 그 조짚으로는 뭐로 사용했습니까?)

103027 #3 쉐 주언.(소 줬어.)

103027 @ 아, 쉐먹이로예. 아, 그냥 그.(아, 소먹이로요. 아, 그냥 그.)

103027 #3 쉐 멕연.(소 먹였어.)

103027 @ 몰려놧당마씨? 겨울에?(말려서 놨다가요? 겨울에?)

103027 #3 조겐, 무시거 몰라서 누나 어떵ᄒᆞ난에 무끌 때 뒈민은.(조는, 무엇 말려서 쌓으나 어떻게 하니까 묶을 때 되면.)

103027 #2 그, 그난 저, 저번 빈 때 헤난 몰라야 묵주게, 몰라야 무꺼.(그, 그러니까 저, 지난번 벤 때하니까 말라야 묶지, 말라야 묶어.)

103027 #3 몰라야 무꺼.(말라야 묶어.)

103027 @ 아아, 아 비어놧을 때 그냥 무껑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비어 놩은에.(아아, 아 베어놨을 때 그냥 묶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비어 놔서.)

103027 #3 ᄒᆞ쏠 몰른다음에.(조금 마른다음에.)

103027 @ 몰른다음에 무껑 왕 집에 강 고구리 땃구나예? 아 경헷구나.(마른다음에 묶고 와서 집에 가서 이삭 땄군요? 아 그랬구나.)

103027 #2 게, 저 누렁 놔두민 기대로 썩어불걸?(그래, 저 쌓아서 놔두면 그대로 썩어버릴걸?)

103027 #3 이제는 ᄒᆞ주마는 누럿당도 ᄒᆞ주, 미처 못ᄒᆞ민. 이디 핫주 엿날.(이제는 하지만 쌓았다가도 하지, 미쳐 못하면. 여기 많았지 옛날.)

103027 @ 게난 그런 거 다음 농사에 대헤서는 그거 골아줍서예.(그러니 그런 거 다음 농사에 대해서는 그거 말해주세요.)

103027 #3 몰류왕, 저 몰류왕 쓸잔인만이 ᄒᆞ면은 대게 피영 조영 궂인 밧 ᄒᆞ는 사름은 영 서껑, 반반이라. 피영 조영 거 궂인 거, 궂인 것도 서끄고 고랑조[64]도 흔 건 궂인 밧 ᄒᆞ는 사름덜. ᄒᆞ여놓민 싹 몰려왕 헤영 눌엉 놔둬, 건 어느 때 장만ᄒᆞ는 공 ᄒᆞ민 봄 나가야. ᄀᆞ울은 든디 이거허저 저거허저 바빵 장만 못ᄒᆞ난.(말려서, 저

64) '고랑조'는 조의 한 종류를 말한다.

말려서 쓸 만하면 대게 피랑 조랑 곶은 밭 하는 사람은 이렇게 섞어서, 반반이야. 피랑 조랑 그거 곶은 거, 곶은 것도 섞고 '고랑조'도 한 건 곶은 밭 하는 사람들. 해 놓으면 싹 말려서 해서 가려 놔둬, 그건 어느 때 장만 하는가 하면 봄 들어가야. 겨울은 들었는데 이거하자 저거하자 바빠서 장만 못하니까.)

103027 @ 예.(예.)

103027 #3 겡헷당 봄 나민 흰쏠밥이여 하간 거 경 맛좋게 헹 먹곡 경헤낫주.(그렇게 했다가 봄 오면 흰쌀밥이여 여러 가지 것 그렇게 맛있게 해서 먹고 그랬었지.)

103027 #2 지금 우리 세상에 ᄌᆞ냥[65]헷주. 엿날엔 그 세상에 조금만 틈나믄 먹을 거 준비가 그렇게 힘들엇지.(지금 우리 세상에 'ᄌᆞ냥'했지. 옛날엔 그 세상에 조금만 틈나면 먹을 거 준비가 그렇게 힘들었지.)

103027 #3 엿날에사 오죽 바빠서? 에구, 지금은.(옛날에야 오죽 바빴어? 에구, 지금은.)

103027 #2 아니, 거 먹을 거 준비.(아니, 그거 먹을 거 준비.)

103028 @ 조농사 지으멍 뭔가 특별하게시리 그때 아이고 그런 일 이섯젠 한 할 애기 엇수과?(조농사 지으면서 뭔가 특별하게시리 그때 아이고 그런 일 있었다고 한 할 애기 없습니까?)

103028 #3 그런 건 무시거.(그런 거 뭐.)

103028 @ 막 힘들엇덴 허는 거라든가.(막 힘들었다고 하는 거라든가.)

103028 #3 우린 그런 것.(우린 그런 것.)

103028 @ 갈아신디 막 흉년 들어내 뭐 농사 망친 거라든가?(갈았는데 막 흉년 들어서 뭐 농사 망친 거라든가?)

103028 #3 아이고게, 보리숭년사 들언 원 엇엇주, 보리숭년.(아이고, 보리흉년이야 들어서 원 없었지, 보리흉년.)

103028 @ 음.(음.)

103028 #3 보리숭년사 이제 보리숭년 시철이옌 ᄒᆞ민 다 알암주. 보리 갈 때에 보리 문 썩어비언 그 ᄒᆞ쏠 흔 거 비언 다 뭣에 앗앙 놔둬둬, 확 그때 비 오라불곡 비 오라불곡.(보리흉년이야 이제 보리흉년 시절이라고 하면 다 알지. 보리 갈 때에 보리 모두 썩어버려서 그 조금 한 거 베어서 다 무엇에 가져다 놔둬도, 확 그때 비 와버리고 비 와버리고.)

103028 @ 음.(음.)

103028 #2 그건 ᄉᆞ삼사건 후에.(그건 사삼사건 후에.)

103028 @ 음, (음.)

103028 #3 우리 그 후에, 번찍[66] 어선, 밀체 다 먹으멍, 어렵게 살앗어, 막 굶언.(우리 그 후에, '번찍' 없어서, 밀겨 다 먹으면서, 어렵게 살았어, 막 굶었어.)

103028 #2 언제냐믄 그때는 ᄉᆞ삼사건 후엔디, 그게 오십구년돈가? 언제냐믄 마

65) 'ᄌᆞ냥'은 식량이나 물건을 아껴서 비축함을 말한다.
66) '번찍'은 씻은 듯이 아무 것도 없는 모양을 말하며 '펀찍'이라고도 말한다.

가 저가지고, 여기 그니까 보리 빌철이 그거 마철이주게?(언제냐면 그때는 사삼사건 후인데, 그게 오십구 년돈가? 언제냐면 마가 져가지고, 여기 그러니까 보리 벨 철이 그거 장마철이지?)

103028 @ 예, 예.(예, 예.)

103028 #2 보리 벤 물리질 못헤놓으니.(보리 베서 말리질 못해놓으니.)

103028 @ 음.(음.)

103028 #3 그 시철에 돈을 들러도 쏠을 못 사.(그 시절에 돈을 들어도 쌀을 못 사.)

103028 @ 아, 못 사.(아, 못 사.)

103028 #2 아니 여기엔 ᄒᆞ난 보릴 완전히 버렷주 농사 일 년 농사를.(아니 여기에는 하니까 보릴 완전히 버렸지 농사 일 년 농사를.)

103028 @ 그건 사삼 잇엇던 다음 해마씨, 아니믄 한참 잇당 한국전쟁?(그건 사삼 있었던 다음 해요, 아니면 한참 있다가 한국전쟁?)

103028 #2 오십구 년돈가 ᄒᆞ난에. ᄒᆞᆫ 십 년 이상 뒈서.(오십구 년돈가 하니까. 한 십 년 이상 돼서.)

103028 @ 음.(음.)

103028 #3 게난 그 어디서 밀체엔 ᄒᆞᆫ 거 밀 어디서 가까놘 체하난 그런 거.(그러니까 그 어디서 밀 겨라고 한 거 밀 어디서 깎아놓은 겨하니까 그런 거.)

103028 #2 아, 오십구 년 전이다. 웨냐믄 난 그거 군대에 이서부난 몰라시니까.(아, 오십구 년 전이다. 왜냐면 난 그거 군대에 있어버려서 몰랐으니까.)

103028 @ 음.(음.)

103028 #3 아니우다게. 모물체인디 보리숭년일 땐 하르방[67] 온 때라.(아닙니다. 메밀 겉껍질인데 보리흉년일 땐 '남편' 온 때라.)

103028 #2 나 온 땐가?(내가 온 땐가?)

103028 #3 예, 온 때. 나 그거 못 먹켄 ᄒᆞ난, 하르방 그거 죽으민 죽어도 나 이런 건 못 먹켄 ᄒᆞ난 하르방 그 이거 먹어야 살 거우다, ᄒᆞ렌 ᄀᆞᆯ음 ᄁᆞ장 헤신디 무신.(예, 온 때. 내가 그거 못 먹겠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그거 죽으면 죽어도 나 이런 건 못 먹겠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그 이거 먹어야 살 겁니다, 하라고 말하기 까지 했는데 무슨.)

103028 #2 게믄 오십팔 년도 오십구 년도 육십 년도 쯤 뒈겟네?(그러면 오십팔 년도 오십구 년도 육십 년도 쯤 되겠네?)

103028 @ 음.(음.)

콩 농사

103029 @ 예, 알앗수다. 그다음엔 콩농사에 대헹 여쭤볼게예. 콩 농사는 조 농사 보리농사에 비교헤가지고 어떤 걸 준비헤야 뒛수과?(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엔

67) '하르방'은 할아버지를 이르는 말이다. 여기서는 발화자의 남편을 말한다.

콩 농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콩 농사는 조 농사 보리농사에 비교해가지고 어떤 걸 준비해야 됐습니까?)

103029 #3 아, 그것엔 아무것도 안 헨 간단이라. 그건 씨만 뿌려 놧당 빌 때 뒈민 그자 비어당 두드리면은 거 그냥 뒈난.(아, 그것엔 아무것도 안 해서 간단해. 그건 씨만 뿌려 놓았다가 벨 때 돼면 그저 베어다가 두드리면 거 그냥 되니까.)

103029 @ 아, 게믄예?(아, 그러면요?)

103029 #3 다른 거추룩 경 힘들엉 아네여. 검질메는 거는 ᄀᆞ뚜주만은.(다른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서 않아. 김매는 거는 같지만.)

103029 #2 여기 콩농사는.(여기 콩 농사는.)

103029 #3 조팟디 조팟디는 세 불 메도, 콩밧듸는 흔 불 메면 뒈고.(조밭의 조밭에는 세 벌 매도, 콩 밭에는 한 벌 매면 되지.)

103030 @ 게믄 한 번 이제부터 차곡차곡 물어볼게예. 콩은 게민 언제 갈앗수과?(그러면 한 번 이제부터 차곡차곡 물어볼게요. 콩은 그러면 언제 갈았습니까?)

103030 #3 츰, 콩은 어는 때 가는공 ᄒᆞ민 유월절보단 흔, ᄒᆞ쏠 일를 건가, 스무날 앞당겨.(참, 콩은 어는 때 가는가 하면 유월절보단 한, 조금 이를 건가, 스무날 앞당겨.)

103030 @ 아, 스무 날예?(아, 스무 날요?)

103030 #2 건 너무 빠르지 아년가?(그건 너무 빠르지 않은가?)

103030 #3 제기 갈아, 다 요센 경 갈아.(빨리 갈지, 다 요사인 그렇게 갈지.)

103030 #3 유월 둘 이 저 절기를, 요세는 아무것도 절기로 ᄒᆞ주.(유월 달 이 저 절기를, 요새는 아무것도 절기로 하지)

103030 #2 아, 요센 그 절기인데, 지금 나가 알기는, 그 콩을 일찍 갈믄, 그 남뎅이가 커 가지고. 요세는 콩닙 먹젠 일찍 갈지. 늦게 갈아야 콩은 열지, 그게 덜 열어.(아, 요사인 그 절기인데, 지금 내가 알기는, 그 콩을 일찍 갈면, 그 대가 커 가지고. 요새는 콩잎 먹으려고 일찍 갈지. 늦게 갈아야 콩은 열지, 그게 덜 열어.)

103030 #3 아니, 아니. 아니라, 이제는 비료를 ᄒᆞ기 따문에 남미나고[68], 그때는 비료엇일 시철이라부난 문저 갈아야는 거고. 유월절보다 스무날 앞디연.(아니, 아니. 아니라, 이제는 비료를 하기 때문에 '남미나고', 그때는 비료 없을 시대라서 먼저 갈아야하는 거고. 유월절보다 스무날 앞이었어.)

103030 #2 게난 나 빨리 가는 건 남뎅이 네우젠 ᄒᆞ난 빨리 가는 거주, 늦게 갈믄 그 남뎅이가 크질 못ᄒᆞ주게.(그러니까 내가 빨리 가는 건 대 내려고 하니까 빨리 가는 거지. 늦게 갈믄 그 남뎅이가 크질 못ᄒᆞ주게.)

103030 @ 아.(아.)

103030 #3 올기는 늦어야 ᄋᆞ는디, 남뎅이가 줄라.(열기는 늦어야 열리는데, 대가 짧아.)

103030 #2 늦어사 엇이 잘 올믄 혀. 근데 남뎅이가 크질 못ᄒᆞ지.(늦어야 없이

68) '남미나다'는 문맥으로 보아 '남뎅이' 즉 콩의 '대'를 말하는 것 같다.

잘 여물기는 해. 근데 대가 크질 못하지.)

103030 #3 남뎅이가 크진 못흔디, 짜끈짜끈 열믄 ᄒᆞ주. 경 ᄒᆞ는디, 픗은 거보다 더 늦게 갈고. 콩을 제기 갈아야 앞딩긴게 어느 땐궁 ᄒᆞ민 그보다 늦어도 뒈는디 대게 유월절 앞, 스무날만 뒈민 감 시작 ᄒᆞ민 유월 흔 열흘 안에, 유월절 열흘 안에 갈아야 콩이 뒈고.(대가 크진 못하는데, 작게작게 열기는 하지. 그렇게 하는데, 팥은 거보다 더 늦게 갈고. 콩을 빨리 갈아야 앞당긴 게 어느 땐가 하면 그보다 늦어도 되는데 대게 유월절 앞, 스무날만 되면 갈기 시작 하면 유월 한 열흘 안에, 유월절 열흘 안에 갈아야 콩이 되고.)

103030 @ 음.(음.)

103030 #3 저, 조도.(저, 조도.)

103030 #2 아메도 하지 넘엉 갈주.(아마도 하지 넘어서 갈지.)

103030 #3 무시거?(무엇?)

103030 #2 하지 넘어사 갈아.(하지 넘어야 갈아.)

103030 #3 조?(조?)

103030 #2 아니, 콩.(아니, 콩.)

103030 @ 콩, 콩.(콩, 콩.)

103030 #3 저 조팟이, 산듸끄르 하지 뒈가민 풀린덴 헤시난, 유월절이 끗난, 저, 유월절이 앞딩겨 가민 끗나가는 거 다.(저 조밭에, 밭벼밑동 하지 돼 가면 풀린다고 했으니까, 유월절이 끝나서, 저, 유월절이 앞당겨 가면 끝나가는 거 모두.)

103030 @ 음.(음.)

103030 #2 하지가 유월절 보름 전이난에.(하지가 유월절 보름 전이니까.)

103030 #3 엿날에, 엿날에 묵은짓밧[69]이 최고난, 묵은짓밧이 어딘공 ᄒᆞ민 우리 친정 밧이라.(옛날에, 옛날에 ‘묵은짓밧’이 최고난, ‘묵은짓밧’이 어딘가 하면 우리 친정 밭이야.)

103030 @ 아.(아.)

103030 #3 하느님도 못 막앗젠 ᄒᆞ여, 밧이 좋아.(하느님도 못 막았다고 해, 밭이 좋아.)

103030 @ 아.(아.)

103030 #3 아이고, 경헤나서. 날쎄 따문에 아, 그날 저날 넘어가멍 ᄂᆞ시 날쎄는 날쎄 궂언에 전혀 못ᄒᆞ난 좋은 밧이난 늦어 ᄒᆞ젠 헨 ᄒᆞ단, 낭 너믜 나카보덴, 좋은 밧듸. 경ᄒᆞ난 늦언, 유월절 넘언에 풀려도 하느님도 못 막앗젠 ᄒᆞ여. 겡헤도 좋아. 좋아나서. 경헌 밧 이젠 다 풀아비언 아무소용도 없고나마는.(아이고, 그래났어. 날씨 때문에 아, 그날 저날 넘어가며 도저히 날씨는 날씨 궂어서 전혀 못하니까 좋은 밭이니까 늦어서 하려고 하니까 하다가, 나무 너무 날까봐서, 좋은 밭에. 그러니까 늦어서, 유월절 넘어서 팔려도 하느님도 못 막았다고 해. 그래도 좋아. 좋아났어. 그랬던 밭 이젠 다 팔아버려 아무소용도 없구나마는.)

69) ‘묵은짓밧’은 밭 이름을 말한다.

103031 @ 음, 예 그럼, 이제 콩밧에 거름은 어떤 거 헷수과?(음, 예 그럼, 이제 콩밭에 거름은 어떤 거 했습니까?)

103031 #3 이제는 비루 헷주만, 안 헷주게.(이제는 비료 했지만, 안 했지.)

103031 @ 그때는 아예 안 헷수과?(그때는 아예 안 했습니까?)

103031 #2 콩, 콩 ᄒᆞ민 여기서 콩 가는 거 거의 장이나, 장이나 ᄒᆞ젠 콩 갈주, 만히 갈아나질 아녓주게.(콩, 콩 하면 여기서 콩 가는 건 거의 된장이나, 된장이나 하려고 콩 갈지, 많이 갈아나질 안 했지.)

103032 @ 그때도예? 그땐예. 게믄 콩 씨는, 콩 씨 뿌릴 때는 어떵 뿌렷수가? 조 뿌리듯이?(그때도요? 그땐요. 그러면 콩 씨는, 콩 씨 뿌릴 때는 어떻게 뿌렸습니까? 조 뿌리듯이?)

103032 #2 어, 어어.(어, 어어.)

103032 @ 거믄 우리는 영 헤보면 저 생이들 왕 다 먹어불잖아예? 그땐 어떵 헷수과?(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보면 저 새들 와서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땐 어떻게 했습니까?)

103032 #3 그땐 그런 거 엇주게. 이젠 문 먹엉 난리주게. 저런 거 어디 경 서? 으이고.(그땐 그런 거 없지. 이젠 모두 먹어서 난리지. 저런 거 어디 그렇게 있어? 으이고.)

103033 @ 아까, 콩밧에 검질은, 아까.(아까, 콩밭에 김은, 아까.)

103033 #3 ᄒᆞᆫ 번만 메도 뒈여.(한 번만 매도 돼.)

103034 @ 콩밧에 검질은 뭐 나낫수과?(콩밭에 김은 뭐 났었습니까?)

103034 #2 거의, 검질은 뭐, 조팟시나 콩밧이나, 거 그추룩 ᄀᆞ튼 철에.(거의, 김은 뭐, 조밭이나 콩밭이나, 거 그처럼 같은 철에.)

103034 #3 아이 ᄀᆞᆯ아젓저, 속, 속, 비늠.(안 말해졌어, 쑥, 쑥, 비름.)

103034 @ 소? 아, 쉐비늠? 쉐비늠?(소? 아, 쇠비름? 쇠비름?)

103034 #3 아니. 아니 저 속.(아니. 아니 저 쑥.)

103034 #2 속.(쑥)

103034 @ 속, 속. 아예 속. 속하고 비늠예. 또 뭐 이서낫수과?(쑥, 쑥. 아예 쑥. 쑥하고 비름이요. 또 뭐 있었습니까?)

103034 #3 아니, 속ᄒᆞ고 저 무시거게. 똘감낭인디, 무시거게.(아니, 쑥하고 저 무엇. 미모사인데, 무엇.)

103034 #2 똘감낭이엔 아까 ᄀᆞᆯ아서.(미모사라고 아까 말했어.)

103034 #3 아니, 콩밧듸.(아니, 콩밭에.)

103034 #2 게난, 콩밧이나 조팟이나 그 철에게.(그러니까, 콩밭이나 조밭이나 그 철에.)

103034 @ 여름철 거난.(여름철 거니까.)

103034 #2 철이난에 검질은 비둥한 검질이주 무신.(철이니까 김은 비등한 김이지 무슨.)

103034 #3 게, ᄋᆞ라 불 안 메어나난.(그래, 여러 벌 안 매니까.)

103034 #2 건디 검질인데 어떠냐믄, 콩은 이파리가 탁 덮어저부난 ᄒᆞᆯ 그늘치니깐 좀 덜 나오카몰루주.(그런데 김인데 어떠냐면, 콩은 이파리가 탁 덮어져버려서 조금 그늘지니까 좀 덜 나올까 모르지.)

103034 @ 아.(아.)

103034 #3 조팟듸가 ᄋᆞ라번 메주.(조밭에가 여러 번 매지.)

103035 @ 그다음엔 콩, 그 수확하는 거. 처음에 비는 것부터 ᄀᆞᆯ아줍서.(그다음엔 콩, 그 수확하는 거. 처음에 베는 것부터 말해주세요.)

103035 #3 비어당은에겐 콩 잘 ᄆᆞᆯ르믄 무꺼당 두드리국.(베어다가는 콩 잘 마르면 묶어다 두드리고.)

103035 #2 아 게난.(아, 그러니까.)

103035 @ ᄆᆞᆯ령예, 무꺼당.(말려서요, 묶어다가.)

103035 #3 밧듸서 잘 ᄆᆞᆯ룅.(밭에서 잘 말려서.)

103035 #2 거난 콩은 직접 그대로, 저, 직접 두드리니까.(그러니까 콩은 직접 그대로, 저, 직접 두드리니까.)

103035 @ 두드리고 막 ᄆᆞᆯᄀᆞ랑 갈 필요가 없엇잖아예?(두드리고 막 연자맷간 갈 필요가 없었잖아요?)

103035 #2 어, 그런 거 엇엇주게.(어, 그런 것 없었지.)

103035 #3 아니, 잘 ᄆᆞᆯ랑 콰상하게[70] 헤당은엥 ᄆᆞᆯ려근에 그자 두드려 풀앗든가 먹엇든가.(아니, 잘 말려서 '과상하게' 해다가 말려서 그저 두드려 팔든가 먹었든가.)

103035 #2 그 자리에서 헤근엥에 그자 테작헤불주.(그 자리에서 해서 그저 타작해버리지.)

103036 @ 게 콩으론 주로, 그저 메주 뭰장 할 메주 말고 뭐헷수과? 그다음엔.(그래 콩으로는 주로, 그저 메주 된장 할 메주 말고 뭐했습니까? 그다음엔.)

103036 #3 콩죽도 써 먹국, 콩국도 헹 먹곡, 무시거 조령도 먹고게 폼도 ᄒᆞ곡. 풀아, 하영 풀아.(콩죽도 써 먹고, 콩국도 해서 먹고, 뭐 조려도 먹고 팔기도 하고. 팔아, 많이 팔아.)

103036 @ 아, 콩나물은 안 헤먹엇수과?(아, 콩나물은 안 해먹었습니까?)

103036 #3 콩ᄂᆞ물도 놩먹고.(콩나물도 놓아먹고.)

103036 @ 콩가루 갈아당 이제 죽, 아 국 끓여 먹고예.(콩가루 갈아다가 이제 죽, 아 국 끓여 먹고요.)

103036 #3 응, 콩국도 헹 먹고.(응, 콩국도 해서 먹고.)

103036 @ 콩가루 갈 때에는 그냥 집에서 맷돌로 갈앗수과 아니면 ᄀᆞ레에 강 ᄀᆞᆯ아낫수과? 아까 ᄆᆞᆯᄀᆞ랑 간?(콩가루 갈 때에는 그냥 집에서 맷돌로 갈았습니까 아니

70) '콰상하게'는 '과상ᄒᆞ게'를 발화자가 된소리로 표현한 것이다. '과상ᄒᆞ다'는 습기가 없이 푸석푸석한 상태를 말한다.

면 연자매 가서 갈았습니까? 아까 연자매 가서?)

103036 #3 아니 엿날엔 맷돌로 골앗는디.(아니 옛날엔 맷돌로 갈았는데.)

103036 @ 물ᄀᆞ랑 안간마씨?(연자매에 안 가서요?)

103036 #3 어, 물ᄀᆞ랑 아이간. 맷돌로.(어, 연자매 안 갔어. 맷돌로.)

103036 #2 어, 거, 물ᄀᆞ랑가 게 경 많이 골질 안 헷어게.(어, 거, 연자매가 그 그렇게 많이 갈지를 안 했어.)

103037 @ 경헷구나예. 콩 찍으론 뭐헤수과? 콩 찍이렌 헷수과, 콩 낭이렌 헷수과?(그랬군요. 콩 짚으로는 뭐했습니까? 콩 짚이라고 했습니까, 콩 나무라고 했습니까?)

103037 #3 콩찍이옌도 ᄒᆞ곡, 콩낭이엔도 ᄒᆞ곡 ᄒᆞ는디, 거 무시거니게 밧듸 걸름 헷주.(콩 짚이라고도 하고, 콩 나무라고도 하고 하는데, 거 뭐지 밭에 거름했지.)

103037 @ 밧듸 걸름으로예. 그냥 저 저 그대로 이신 채로예? 막 짤르지 않아근에예.(밭에 거름으로요. 그냥 저 저 그대로 있는 채로요? 막 자르지 않아서요.)

103037 #3 아녕, 그냥 헷주.(아 했어, 그냥 했지.)

103038 @ 그다음, 콩 농사지을 때, 혹시 뭔가 특별하게시리 기억나는 거 엇수과?(그다음, 콩 농사지을 때, 혹시 뭔가 특별하게시리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103038 #3 그런 건 엇고. 거, 걸, 무시거 비류들은 ᄒᆞ쏠썩 헴실 거라. 이젠 막 뿌렴주만은, 엿날엔 것도 엇이 헷주.(그런 건 없고. 그거, 그걸, 뭐 비료들은 조금씩 하고 있을 거야. 이젠 마구 뿌리지만, 옛날에는 그것도 없이했지주.)

103038 #2 엿날에 비료가 어디 서?(옛날에 비료가 어디 있어?)

103038 #3 비료도 아녀곡 아무것도 아녀난 밧듸 아뭉치도 아년 뒈고, 이젠 그거 ᄒᆞ곡 저거 ᄒᆞ곡 ᄒᆞ난 ᄉᆞ뭇 밧, 에휴!(비료도 않고 아무것도 않으니까 밭이 아무렇지도 않아서 되고, 이젠 그거하고 저거하고 하니까 사뭇 밭, 어휴!)

밭벼 농사

103039 @ 이제, 예 알앗수다. 게믄 이젠 아까 산듸예. 산듸에 대헤 가지고 물어볼게예. 그 산듸 농사를 하려면은 어떤 준비가 필요헷수과?(이제,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젠 아까 밭벼요. 밭벼에 대해 가지고 물어볼게요. 그 밭벼 농사를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했습니까?)

103039 #3 산듸도 씨 뿌려근엥에 콩 ᄒᆞ듯 헤엿주. 산듸왓도 ᄒᆞ쏠 볼려신가? ᄒᆞ쏠 볼린 거 닮다. 조팟보다는 이?(밭벼도도 씨 뿌려서 콩 하듯 했지. 밭벼도 조금 밟았었나? 조금 밟은 거 닮다. 조밭보다는 응?)

103039 @ 아.(아.)

103039 #3 ᄒᆞ쏠 볼린디, 산디도 기자 물르민 홀타당 경헤당 골안 먹은 거 닮아.(조금 밟았는데, 밭벼도 그저 마르면 홅어다 그렇게 해다가 갈아서 먹은 거 같아.)

103040 @ 게 산뒨 언제 헷수과? 언제 어떻게 갈앗수과?(그래 밭벼는 언제 했습

니까? 언제 어떻게 갈았습니까?)

103040 #3 ᄉᆞ월 난 헤신가?(사월 돼서 했는가?)

103040 #2 산딘 좀 일찍 갈지.(밭벼는 좀 일찍 갈지.)

103040 #3 ᄉᆞ월 나민 헨디 거 베랑 아녀난, 거 웨우지 못헌 디, 거 뻑꾹뻐꾹 헤가민 산듸 갈 때 뒛젠 헤여.(사월 되면 했는데 거 별로 안 하니까, 거 외우지 못했는데, 거 뻐꾹뻐꾹 해가면 밭벼 갈 때 됐다고 했어.)

103040 #3 뻐꾹새 나민.(뻐꾸기 오면.)

103040 @ 아, 기구나.(아, 그렇구나.)

103040 #3 뻐꾹새 나민.(뻐꾸기 오면.)

103040 @ 뻐꾹새. 저가예, 뻐꾹새가 언제 우는 지를예 계속 그거 팔년 동안 살멍 이렇게 헤봤는데예. 사월 이십사일 날 뒈난 뻐꾸기가 옵디다.(뻐꾸기. 제가요, 뻐꾸기가 언제 우는 지를요, 계속 그거를 팔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 해봤는데요. 사월 이십사일 날 되니까 뻐꾸기가 옵디다.)

103040 #3 ᄋᆞ, 그거 헤가민 뒈어.(그래, 그거 해가면 되어.)

103040 @ 근데 깜짝 놀란예. 다음 해에도 이렇게 일기 쓴 거보난.(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다음 해에도 이렇게 일기 쓴 거보니까.)

103040 #3 알아, 알아.(알아, 알아.)

103040 @ 사월 이십삼일. 겅헨 저가 팔년 동안.(사월 이십삼일. 그렇게 해서 제가 팔년 동안.)

103040 #3 그거 소리나가믄 뒛젠 ᄀᆞᆯ앗주.(그거 소리 나가면 됐다고 말했지.)

103041 @ 아 겅헷구나예. 그러면 그다음엔 산듸에는 거름은 어떵 헷수과?(아 그랬군요. 그러면 그다음엔 밭벼에는 거름은 어떻게 했습니까?)

103041 #3 걸름사게 말젠 비루 나난 비루 뿌리주만은, 걸름이 이신말이라.(거름이야 나중에는 비료 나오니까 비료 뿌렸지만, 거름이 있어야지.)

103041 @ 산듸도 걸름 안 헨 그냥?(밭벼도 거름 안 해서 그냥?)

103041 #2 걸름 헐게 엇주게.(거름 할게 없지.)

103041 #3 밧이, 그 시철엔 걸름 아녀도 게구제나 그냥 ᄒᆞ민 뒈는 때난.

103041 #2 게헨 그 그 산듸 남의엔 여름농사 홀 때는 쉐도 다 목장에 가불곡 ᄒᆞ민 걸름 홀게 없주게. 뭘로 걸름 헤.(그렇게 해서 그 그 밭벼 난다는 여름농사 할 때는 소도 다 목장에 가버리고 하면 거름 할게 없지. 뭐로 거름 해.)

103042 @ 거민 산듸는 뿌릴 땐 이것도 마찬가지 막 조 뿌리듯이 콩 뿌리듯이 막 겅 헷구나예?

103042 #3 응. 엿날엔, 그 걸름이 어려우면 쉐들 막 메왕 여름에 밧듸 도 막앙 ᄀᆞ꽝, 밧, 낮이 ᄀᆞ꽝 그 촐 아지뎅경 오랑 그 밧, 도 막아진 디 놓아근엥 들이몰앙 파믄 그 밧듸서 재와서.(응. 옛날엔, 그 거름이 어려우면 소들 막 모아서 여름에 밭에 입구 막아서 가꿔서, 밭, 낮이 가꿔서 그 꼴 가져다니다 와서 그 밭 입구 막아진 데 놓아서 들이몰아서 파면 그 밭에서 재워서.)

103042 @ 아.(아.)

103042 #3 그 밧듸서 쉐를 재우면.(그 밭에서 소를 재우면.)

103042 #2 그 바령[71]이옌 혼 거 알아? 바령.(그 '바령'이옌 한 거 알아? '바령'.)

103042 #3 바령ᄒᆞ민 바령, 그디에 오줌도 싸놓고 똥도 싸놓고 혼 메틀 경 그 밧듸 바령 들이면은 그 밧이 걸엉 농사가 잘 뒈고, 경헨 살안.('바령'ᄒᆞ민 '바령', 거기에 오줌도 싸놓고 똥도 싸놓고 한 며칠 그렇게 그 밭에 '바령' 들이면 그 밭이 걸어서 농사가 잘 되고, 그렇게 해서 살았어.)

103042 @ 게, 그게 그믄은 밧벼, 게난 산듸 씨를 간 다음에 쉐를 드물려수가? 쉐 드물린 다음에?(그래, 그게 그러면 밭벼, 그러니까 밭벼 씨를 간 다음에 소를 들이몰았습니까? 소 들이몰아 놓은 다음에?)

103042 #2 아니, 거 산듸 갈젠허난 그 전에 걸름으로 헤 가지고 그렇게.(아니, 거 밭벼 갈려고 하니까 그 전에 거름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103042 @ 아 ,그렇게 헷구나예.(아, 그렇게 했군요.)

103042 #2 예, 미릇 헤 가지고. 거, 그난에 그 바령들인다는 것이.(예, 미리 해 가지고. 거, 그러니까 그 '바령'들인다는 것이.)

103042 @ 음.(음.)

103042 #2 그 막 사이 막 사이마다.(그 마 가이 막 사이마다.)

103042 #3 밧 바령 주는 거.(밭 '바령' 주는 거.)

103042 #2 쉐 똥오줌.(소 똥오줌.)

103042 #3 그 바령ᄒᆞ는 거 어떵 ᄒᆞ는 거카부덴, 보리 가는 거, 산듸 ᄒᆞ는 디가 아니고.(그 '바령'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걸까봐, 보리 가는 거, 밭벼 하는 데가 아니고.)

103042 @ 아니, 산듸하는 거.(아니, 밭벼 하는 거.)

103042 #3 산듸하는 건 기자.(밭벼 하는 건 그저.)

103042 #2 산듸하는 건 걸름 아녀.(밭벼 하는 거름 안 해.)

103043 @ 아 경헷구나예. 그다음에 산듸밧에는 검질 멧 번 멧수가?(아 그랬군요. 그다음에 밭벼밭에는 김 몇 번 맸습니까?)

103043 #3 건, 조팟보다 더 메살거라. 진작에 일찍 헤부난.(그건, 조밭보다 더 매얄 거야. 진작 일찍 해버려서.)

103043 @ 거믄 세 번보다 더?(그러면 세 번보다 더?)

103043 #3 거, 경헤도 조팟만이 힘들진 아녈거라. 조팟은 솎으는 거 때문에 더 드는디, 산듸왓은 검질메는 검질만 멜 거난 쉽고, 산듸왓디 씨 뿌리는 건 방수 부령삐기 따문에 쉽고. 조팟디는 하영 뿌령 나둬야 사는 거주. 못나는 거 헤부난. 깅헨 그건 솎아줘야.(거, 그렇게 해도 조밭만큼 힘들진 안할 거야. 조밭은 솎는 거 때문에 더 드는데, 밭벼밭은 김매는 김만 맬 거여서 쉽고, 밭벼밭에 씨 뿌리는 건 방수

71) '바령'은 농사를 쉬면서 마소를 밭 안으로 들여 똥을 싸게 하고, 그 똥을 거름이 되게 하여 땅심을 돋우는 일을 말한다.

부려서 뿌리기 때문에 쉽고. 조밭에는 많이 뿌려서 나둬야 사는 거지. 못 나는 거 해버려서. 그렇게 해서 그건 솎아줘야.)

103043 #2 겐데, 우리는 우리는 산듸를 많이 갈앗는데. 검질 별로 안나. 왜 검질 안나.(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밭벼를 많이 갈았는데. 김 별로 안나. 왜 김 안나.)

103043 #3 산듸왓인 씨 안 드난 디난게.(밭벼밭에는 씨 안 들어간 데니까.)

103043 #2 그 목, 저 목산[72]이엔 ᄒᆞᆫ 것이.(그 목, '목산'이라고 한 것이.)

103043 @ 예.(예.)

103043 #2 새왓 촐왓 갈아근엥이 당 그거 헌 디. 미릇 딴 풀씨가 거긴 없거든.(띠밭, 꼴밭 갈아서 바로 그거 한 데. 미리 다른 풀씨가 거긴 없거든.)

103043 @ 아, 그 쉐 멕일 풀 갈아난 데마씨?(아, 그 소 먹일 풀 갈아난 데요?)

103043 #2 아니 촐왓, 엿날 촐왓데, 촐왓 촐왓 ᄒᆞ자녀게.(아니 꼴밭, 옛날 꼴밭에, 꼴밭 꼴밭 하잖아.)

103043 @ 예.(예.)

103043 #2 건데 그걸 헤근엥에.(그런데 그걸 해서.)

103043 @ 예.(예.)

103043 #2 저 쉐 저리메와 저리메와근엥 쉐 두 개 앞데 메왕. 경헨 나 갈앗주게.(저 소 겨리매고 겨리매서 소 두 마리 앞에 매서. 그렇게 해서 내가 갈았지.)

103043 #3 저리메영 문 쉐 두개. 힘 ᄀᆞ찌 나가연에 힘이엔 ᄒᆞᆫ 거.(겨리매어서 모두 소 두 마리. 힘 같이 나가서 힘이라고 한 거.)

103043 #2 게난 경헤연 멫 쉐 역, 멧 쉐역[73]이엔 헌 것이 멧칠 간 거냐, 멧 시에 갈앗냐 ᄒᆞ는 거.(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몇 '소역', 몇 '소역'이라고 한 것이 며칠 간 것인가, 몇 시에 갈았나 하는 거.)

103043 @ 아,(아.)

103043 #2 게난 멧칠 간거냐. 그니까 우리 셋이 역 넷이 역 가니까 사흘 나흘 가는 거지게.(그러니까 며칠 간 거냐. 그러니까 우리 삼일 갈이 사흘 갈이 가니까 사흘 나흘 가는 거지.)

103043 @ 쉐 두 마리로마씨?(소 두 마리로요?)

103043 #2 어, 경헨에 그것에.(어, 그렇게 해서 그것에.)

103043 #3 두 마리민 ᄒᆞᆫ 줄에 ᄒᆞᆫ디 동겨지라고, ᄒᆞᆫ디 힘내렌 두 개 메와진 거.(두 마리면 한 줄에 함께 당겨지라고, 함께 힘내라고 두 개 매워진 거.)

103043 @ 아.(아.)

103043 #2 아, 게네 지금 저리메완 밧가는 거는 헤변에서 본 사름 엇일 거라. 우리 아바지는 매년 헷주.(아, 그래서 지금 겨리매서 밭가는 거는 해변에서 본 사람 없을 거야. 우리 아버지는 매년 했지.)

103043 #3 엿날엔 세왓 가는 사름 이서 멩**.(옛날엔 띠밭 가는 사람 있어 멩

72) '목산'은 '목산벼', 즉 벼의 한 종류를 말한다.
73) '쉐역'은 소가 작업한 역할의 량을 시간 단위로 재는 것을 말하는 듯하다.

**.)

103044 @ 산듸밧에 검질은 뭐 뭐 나낫수과?(밭벼밭에 김은 뭐 뭐 났었습니까?)

103044 #2 게난에 검질이 별로 날 게 나질 못헨다니까, 씨가, 씨가 없어서.(그러니까 김이 별로 날 게 나질 못했다니까, 씨가, 씨가 없어서.)

103044 @ 아 씨가 없어서예. 일찍 갈아불고 촐 갈아난 디 헤부난.(아 씨가 없어서요. 일찍 갈아버리고 꼴 갈았던 데 해버려서.)

103044 #2 응.(응.)

103044 @ 으음, 겐디 보리밧 이게 경헤도 사월 달에 갈아버리는 때문에 어, 검질이 ᄒᆞ끔 일찍 난 검질이, 보리밧이나, 아니 아니 콩이나 조밧 말고 또 다른 검질이 날 만도 헌디예?(으음, 그런데 보리밭 이게 그래도 사월 달에 갈아버리는 때문에 어, 김이 조금 일찍 난 김이, 보리밭이나, 아니 아니 콩이나 조밭 말고 또 다른 김이 날 만도 한데요?)

103044 #2 게, 지금 우리 검질 일름을, 검질 일름을 몰라 가지고 못 대답 헴쭈게.(그래 지금 우리 김 이름을, 김 이름을 몰라 가지고 못 대답 하고 있지.)

103044 #3 이져비엉, 검질멜 때는 다 알아젓는디, 이제는 이져비언.(잊어버려서, 김맬 때는 다 알았었는데, 이제는 잊어버려서.)

103044 #2 믄 이져부런.(모두 잊어버렸어.)

103044 @ 예. 혹시 막 그 저가 이제 요번 삼월 사월에 검질들 이렇게 조사헤보면 거 무시거꽈 그거 저기 어, 그 민들레라든가?(예. 혹시 막 그 제가 이제 요번 삼월 사월에 김들 이렇게 조사해보면 거 뭡니까 그거 저기 어, 그 민들레라든가?)

103044 #3 민들레는 전인 알지도 못헷는디 이젠 막 꼿이 경 막 이제야 잇는 거라.(민들레는 전엔 알지도 못했는데 이젠 막 꽃이 그렇게 막 이제야 있는 거야.)

103044 @ 아, 맞수다. 그 수웨 혹시.(아, 맞습니다. 그 씀바귀 혹시.)

103044 #3 수웨는 하주게. 아이, 그 밧듸 검질멜 때 수웨 ᄀᆞ튼 건 안 나고.(씀바귀는 많지. 아니, 그 밭에 김맬 때 씀바귀 같은 건 안 나고.)

103044 @ 수웨, 밧에 수웨 같은 건 없고?(씀바귀, 밭에 씀바귀 같은 건 없고?)

103044 #3 어. 쒜비늠이여 기자 춤비늠이여.(어. 쇠비름이야 그저 참비름이야.)

103044 #2 **, 이제 뭐 돗수염[74]이여 뭐연 ᄀᆞᆯ으민.(**, 이제 뭐 '왕고들빼기'이야 뭐라고 말하면.)

103044 #3 어, 이젠 허주만은.(어, 이젠 하지만.)

103044 @ 아까 무신 돗수염마씸?(아까 무슨 '왕고들빼기'요?)

103044 #2 돗수웨여 무시게여 거.(왕고들빼기야 무엇이야 거.)

103044 @ 아, 돗수웨, 돗수웨는 뭐우꽈?(아, 왕고들빼기, 왕고들빼기는 뭡니까?)

103044 #3 돗수웨는 거 뭐인궁 ᄒᆞ민 저 거시기 무시거 토끼 잘 먹언 헤다 주는

74) '돗수염'은 발화자가 '돗수웨'를 말한 듯하다(아래 두 번째 문장 참고.) '돗수웨'는 '왕고들빼기'를 말한다.

풀이라.(왕고들빼기는 거 뭐인가 하면 저 거시기 무엇 토끼 잘 먹어서 해다 주는 풀이야.)

103044 #2 게난 그 돗수염이연 헌게, 키가 컨에 막 웃자란 거렌 돗수염이엔 헌 거.(그러니까 그 고들빼기라고 하는 게, 키가 커서 막 웃자란 거하고 '왕고들빼기'라고 하는 거.)

103044 @ 게, 돗수웨 같은 경우에는 산듸밧에 나낫수과?(그래, 왕고들빼기 같은 경우에는 밭벼밭에 났었습니까?)

103044 #3 아니.(아니.)

103044 #2 그런 거는 별로.(그런 거는 별로.)

103044 #3 산듸왓딘 속, 제완지, 고니, 고니풀이나. 고니풀, 그런 거 나.(밭벼밭에는 쑥, 바랭이, 닭의장풀, 닭의장풀이나. 닭의장풀, 그런 거 나지.)

103044 #2 거난 그런 거(그러니까 그런 거.)

103044 @ 공이풀마씨?(공이풀요?)

103044 #3 고니풀. 산듸왓디 낫인가? 콩밧듸 콩밧듸 거 낫어. 거 줒이 안 나는 거. 고니풀.(닭의장풀. 빝벼밭에 났었나? 콩밭에 콩밭에 그거 났어. 그거 잦게 안 나는 거. 닭의장풀.)

103044 @ 아, 좋수다. 그다음엔.(아, 좋습니다. 그다음엔.)

103044 #2 고니풀, 저 죽을 줄 몰르는 풀 서.(닭의장풀, 저 죽을 줄 모르는 풀 있어.)

103044 @ 고니풀마씨?(닭의장풀요?)

103044 #2 고니풀 이제 앗당 베아 도렌 ᄒᆞ민 나 요디 어디 실 거라.(닭의장풀 이제 가져다 보여 달라 하면 내가 요기 어디 있을 거야.)

103044 @ 아, 기구나. 나중에 같이 보게예.(아, 그렇구나. 나중에 같이 보게요.)

103044 #3 그건 줒이 안 나난 뒛수다게. 그건 하영 안 나난.(그건 잦게 안 나니까 됐습니다. 그건 많이 안 나니까.)

103045 @ 어, 그다음엔 밭벼 수확헐 때, 그 베는 걸로부터 시작헹 ᄀᆞᆯ아봅서. 어떵헤신지.(어, 그다음엔 밭벼 수확할 때, 그 베는 걸로부터 시작해서 말해주세요. 어떻게 했는지.)

103045 #3 무신거 ᄒᆞᆫ 거?(무슨 거 한 거?)

103045 @ 산듸, 산듸 수확할 때. 수확할 때. 거둘 때, 벨 때.(밭벼, 밭벼 수확할 때. 수확할 때. 거둘 때, 벨 때.)

103045 #3 거둘 때게 비어놧다근에, 저 ᄆᆞᆯ라사 무껌쭈.(거둘 때엔 베어놨다가, 저 말라야 묶지.)

103045 @ 예, ᄆᆞᆯ랑 무끈 그 무끈 걸 뭐렌 ᄀᆞᆯ아낫수과?(예, 말라서 묶은 그 묶은 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103045 #3 산듸 무끈 거? 산듸찍, 산듸.(밭벼 묶은 것? 밭볏짚, 밭벼.)

103045 @ 게난 그걸.(그러니까 그걸.)

103045 #2 단.(단.)

103045 #3 단, 응.(단, 응.)

103045 @ 단, 예. 단으로 무껑 그다음마씨?(단, 예. 단으로 묶어서 그다음은요?)

103045 #3 단으로 무껑 시꺼당게 집이 그.(단으로 묶어서 실어다가 집에 그.)

103045 #2 집이 눌엇당 그 트멍나는 대로.(집에 가렸다가 그 틈나는 대로.)

103045 #3 보리틀로 홀탕, 데구젱이[75]도 줍앙 영 홀타동, 보리클[76]로 영 홀타근에.('그네'로 홅어, '데구젱이'도 집어서 이렇게 홅고는, '그네'로 이렇게 홅어서.)

103045 #2 근디 산듸는 홀트게 잘 안 헤, 그대로 막 두드려붐도 ᄒᆞ주.(그런데 밭벼는 홅게 잘 안 해, 그대로 막 두드려버리기도 하지.)

103045 #3 남 차?(짚 채로?)

103045 #2 어, 남 차. ** 우린 거의 남 차 두드려베서.(어, 짚 채로. ** 우린 거의 짚 채로 두드려버렸어.)

103045 @ 그 홀트기가 힘들엉마씨?(그 홅기가 힘들어서요?)

103045 #2 어.(어.)

103045 @ 음, 남 차 두드리는 거.(음, 짚 채 두드리는 거.)

103045 #3 즘지롱 영 남 난 거는 건 홀투기 좋고 복작흔 건 홀트기 궂인 건 두드렴신ᄀᆞ라. 모물도 경하고.(자잘한 이렇게 짚 나온 거는 건 홅기 좋고 복작한 건 홅기 궂은 건 두드리는지. 메밀도 그렇게 하고.)

103045 @ 어, 두드려난 다음.(어, 두드려난 다음.)

103045 #2 어이, 우리 우린 산듸나 모물엔 진작 두드려부러.(어이, 우리 우린 밭벼나 메밀에는 진작 두드려버려.)

103045 @ 그다음 두드련 겡 하면, 또 이것도 이제 그냥 밥헤 먹지 못하니까, 또 ᄆᆞᆯᄀᆞ레 강 또 갈아왓수과?(그다음 두드려서 그렇게 하면, 또 이것도 이제 그냥 밥해 먹지 못하니까, 또 연자맷간에 가서 또 갈아왔습니까?)

103045 #3 응, 응. ᄆᆞᆯᄀᆞ레 ᄀᆞᆯ아, ᄊᆞᆯ 놓고 ᄀᆞᆯ아.(응, 응. 연자맷간 갈아, 쌀 넣고 갈아.)

103045 #2 겐디 그난 산듸는 막 ᄋᆞ라 번 ᄀᆞᆯ아야주게.(그러데 그러니까 밭벼는 막 여러 번 갈아야지.)

103045 @ 아, 기꽈? 몇 번쯤 ᄀᆞᆯ앗수과?(아, 그래요? 몇 번쯤 갈았습니까?)

103045 #2 게난 우리 또 아까 ᄀᆞᆯ앗는디 아침 가근엥에 ᄆᆞᆯ 두 개 앗땅 메근에 하루 종일 ᄀᆞᆯ아낫젠 ᄒᆞ니까.(그러니까 우리 또 아까 말했는데 아침 가서 말 두 마리 가져다가 매서 하루 종일 갈아났다고 했다니까.)

103045 #3 거난 그거 ᄀᆞᆯ앙 초불 ᄀᆞᆯ앙 푸는체로 체 퍼동 또 놩 ᄀᆞᆯ곡 또 놩 ᄀᆞᆯ곡

75) '데구젱이'는 '짚모개미'를 말한 듯하다. 밭벼이삭을 훑으려면 밭벼 짚의 꼭지부분을 손으로 집어'보리클'에 집어넣어야 한다. '데'는 '대' 즉 줄기를 말하고 '구젱이'는 제주어 '고지' 또는 '고젱이'인 '꼬챙이'를 말한다.

76) '보리클'은 보리이삭을 떠는 농기구, 표준어 '그네'에 대응하는 말이다. 달리 '보리틀'이라 한다.

허는 거.(그러니까 그거 갈아서 초벌 갈아서 키로 겉겨 퍼두고 또 넣어서 갈고 또 넣어서 갈고 하는 거.)

103045 @ 잘도 힘들어시켜예?(잘도 힘들었겠네요.)

103045 #2 게난, 게니까 하루 종일 강 경 헌 거지.(그러니,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가서 그렇게 한 거지.)

103045 #3 게난 기계가 나놓난 놀미 시작한 게 놀암쭈덜게.(그러니까 기계가 나놓으니까 놀기 시작한 게 놀고들 있지.)

103046 @ 게, 산듸론 밥헤 먹는 거 말곤 또 뭐 헤낫수과?(그래, 밭벼론 밥해 먹는 거 말곤 또 뭐 했었습니까?)

103046 #3 밥도 헹 먹곡 떡도 헹 먹곡 죽도 쒀 먹곡, 산듸가 귀흔 거엔 경 아무나 경 먹어저?(밥도 해서 먹고 떡도 해서 먹고 죽도 쒀 먹고, 밭벼가 귀한 거여서 그렇게 아무나 그렇게 먹어졌어?)

103046 #2 겐디, 산듸는 아무나 밥 못헹 먹어.(그런데, 밭벼는 아무나 밥 못해서 먹었어.)

103046 @ 저기 귀헤부난예?(저기 귀해버려서요?)

103046 #2 어, 거 올케 그거 헤근엥에 엿날 제사 때나 그런 때나 사용헷지.(어, 그거 옳이 그거 해서 옛날 제사 때나 그런 때나 사용했지.)

103046 @ 음.(음.)

103046 #2 밥, 산듸밥 별로 못헤 먹엇주.(밥, 밭벼밥 별로 못해 먹었지.)

103046 @ 산듸 갈아신디도 그걸로 밥 안 헤 먹엇수과?(밭벼 갈았는데도 그걸로 밥 안 해먹었습니까?)

103046 #3 갈아도 아이고, 다른 거 하영 갈앗주. 거 얼마나 헤산디.(갈아도 아이고, 다른 거 많이 갈았지. 거 얼마나 했는지.)

103046 #2 거난에.(그러니까.)

103046 @ 무사 하영 안 갈아신고예?(왜 많이 안 갈았을까요?)

103046 #3 조 갈곡 콩 갈곡게, ᄒᆞ난 ᄒᆞ쏠썩 ᄒᆞ단 보난 밧은 어디 서 경?(조 갈고 콩 갈고, 하니까 조금씩 하다 보니까 밭은 어디 있어 그렇게?)

103046 @ 응, 기구나예.(응, 그렇군요.)

103046 #2 경헤도 잡곡 농사를 다 허젠 허민게.(그렇게 해도 잡곡 농사를 다 하려고 하면.)

103046 @ 맞수다예.(맞습니다.)

103046 #3 ᄒᆞ쏠썩 ᄒᆞ쏠썩 다 ᄒᆞ젠 ᄒᆞ민.(조금씩 조금씩 다 하려고 하면.)

103047 @ 어, 그면은 이제 산듸찍은 아주 여러 용도로 사용헤실건디예, 산듸찍으론 무신, 어떤 데 사용헤낫수과?(어, 그러면 이제 밭볏짚은 아주 여러 용도로 사용했을 건데요, 밭볏짚으론 무슨, 어떤 데 사용했었습니까?)

103047 #3 응, 저 무껑 놧다근에 어디 꼴앙도 앉고.(응, 저 묶어 놓았다가 어디 깔아도 앉고.)

103047 #2 두드령 초신도 삼곡.(두드려서 짚신도 삼고.)

103047 #3 신도 홀타난 남뎅이로 그 신도 삼곡, 경헷주게. 남뎅이 뒤뜨레 난 거 사 무시거 뜨곡 게.(짚신도 홅었던 줄기로 그 짚신도 삼고, 그렇게 했지. 줄기 나중에 남은 거야 뭐 뜨고.)

103047 #2 나도, 나도 초신이영.(나도, 나도 짚신하고.)

103047 @ 초집 지붕 같은 건 그걸로 안헷수과?(초가집 지붕 같은 건 그걸로 안 했습니까?)

103047 #3 그런 걸로 안 헤여.(그런 걸로 안 해.)

103047 #2 여기는, 초집, 육지는 전부 나루찍이영 ᄒᆞ는디 제주도는.(여기는, 초집, 육지는 전부 볏짚으로 하는데 제주도는.)

103047 #3 거 산듸찍 헤여근엥 고양 헨 ᄒᆞᆫ거 영 소둘겡이, 끅 기차근엥에 그걸 잿물에 숢앙, 고영 그 물 누리룽ᄒᆞ게 들이민 깍 보븨여근에 신 고영 삼는 거.(그거 밭볏짚 해서 고이 해서 한 거 이렇게 새꽤기, 칡 잘라서 그걸 잿물에 삶아, 고이 그 물 누르무레하게 들이면 총 비벼서 신 고이 삼는 거.)

103047 @ 아.(아.)

103047 #3 짚신 삼아.(짚신 삼아.)

103047 #2 겐디 난 산듸찍 저 그거 겐 베설 잇지, 저 영 피우는 거.(그런데 난 밭볏짚 저 그거 그래서 새꽤기 있지, 저 이렇게 피우는 거.)

103047 @ 예, 예예.(예, 예예.)

103047 #2 그걸, 그걸 헤근에 그걸로 저.(그걸, 그걸 해서 그걸로 저.)

103047 #3 봉우지 꺼꺼 놩, 산듸 ᄃᆞᆯ아저난 봉우지 꺼꺼 놩. 잿물 디렁 ᄒᆞ민 노리룽ᄒᆞ주. 경ᄒᆞᆫ거 영 깍 보병 이 신에 ᄒᆞ는 거.(봉우리 꺾어 넣어서, 밭벼 달려있던 봉우리 꺾어 넣어서. 잿물 들여서 하면 누르무레하지. 그렇게 한 거 이렇게 총 비벼서 이 짚신에 하는 거.)

103047 #2 초신 깍이엔, 초신 깍이엔 헤근엥에 그거.(짚신 총이라고, 짚신 총이라고 해서 그거.)

103047 #3 헷주.(했지.)

103047 @ 음.(음.)

103047 #2 건 우리 잘 헤낫어.(그건 우리 잘 했었어.)

103047 #3 나도 건 우리 하르버니네 이신 고향 살아부난. 곱닥ᄒᆞ게 살아부난 헤낫주게.(나도 그건 우리 할아버지네 있는 고향 살아서. 곱게 살아서 했었지.)

103048 @ 산듸 농사짓고 난 다음엔 뭐 초신 삼으멍 뭐 기억 같은 거 혹시 엇수과?(밭벼 농사짓고 난 다음엔 뭐 초신 삼으며 뭐 기억 같은 거 혹시 없습니까?)

103048 #3 그런 삼오멍 무시거엔 곤 거만 생각헷주만은, 그 산듸찍으로 저 멍석도 절곡, 멩텡이도 절곡, 신도 삼고 그추룩 헤낫주.(그런 삼으며 뭐라고 말한 것만 생각했지만, 그 밭볏짚으로 저 멍석도 겯고, 망태도 겯고, 짚신도 삼고 그처럼 했었지.)

103048 @ 근데 거 삼으멍 뭐 이제 막 여러 사람 앉아 가지고 삼거나 이러면서 뭔가 얘기 나누거나 헷던 기억 엇수과?(그런데 그거 삼으며 뭐 이제 막 여러 사람 앉아 가지고 삼거나 이러면서 뭔가 얘기 나누거나 했던 기억 없습니까?)

103048 #3 그런 건 엇고. 또 우리보다 웃대엔, 또 그 무시거라 저 그 삼두 삼아.(그런 건 없고. 또 우리보다 윗대에는, 또 그 뭐야 저 그 삼도 삼아.)

103048 @ 예.(예.)

103048 #3 우린 그거는 몰르고, 웃대에 어쓱한 거 우리 두린 때 봣주. 영 동무릅에 내놘 삼 삼은거영. 영 뚤러당 허멍 헤연. 삼 간 거 끄장은 나 알아져. 삼 골앙 그런 것도 헤나고, 또 우리 대엔.(우린 그거는 모르고, 윗대에 아쓱한 거 우리 어린 때 봤지. 이렇게 무릎에 올려놔서 삼 삼는 거. 이렇게 둘러다가 하면서 했어. 삼 갈은 거 까지는 내가 알지. 삼 갈아서 그런 것도 했었고, 또 우리 대에는.)

103048 #2 삼, 지금 육진 지금도 갈잖여게.(삼, 지금 육진 지금도 갈잖아.)

103048 #3 응, 우리 대엔 또 누웨 질르고.(응, 우리 대에는 또 누에 기르고.)

103048 @ 게난, 누에 질르는 건 나중에 다시 물어볼게예.(그러니까, 누에 기르는 건 나중에 다시 물어볼게요.)

103048 #3 응.(응.)

103048 @ 자 이제는, 게믄.(자 이제는, 그러면.)

103048 #2 지금 베, 베가 저 삼으로 만든 거주게.(지금 배, 배가 저 삼으로 만든 거지.)

103048 #3 응.(응.)

103048 @ 맞수다, 맞수다.(맞습니다, 맞습니다.)

고구마농사

103049 @ 산듸 농사는 이제 끝나난 저 감저농사 여쭤볼게예? 감저예.(밭벼농사는 이제 끝났으니까 저 고구마농사 여쭤볼게요? 고구마요.)

103049 #3 감저는 그 체암 저 감저 모종 영 놧당, 이젠 비누루라도 헴주만은 안 헤근엥에 거 아래 쉐걸름 깔아근엥에 영 판이 지성, 걸름 논드레 폭 더껑 감저 놩, 그 감저 꿀을 순 놩, 크면은 그 꿀 기차당, 감저 밧듸 감저 노민, 감저 들민, 파당, 저 썰엉, 절간헤근엥에 풀곡, 경헷주기.(고구마는 그 처음 저 고구마 모종 이렇게 놨다가, 이젠 비닐이라도 하지만 안 해서 그거 아래 소거름 깔아서 이렇게 판 지어, 거름 놓은데 푹 덮어서 고구마 놔서, 그 고구마 덩굴을 순 놔서, 크면 그 벋은 줄기 잘라다가, 고구마 밭에 고구마 놓으면, 고구마 들면, 파다가, 저 썰어서, 절간고구마 해서 팔고, 그렇게 했지.)

103050 @ 그 감저농사 지으젠하면 먼저 뭐뭐가 준비가 필요헷수과?(그 고구마농사 지으려하면 먼저 뭐뭐가 준비가 필요했습니까?)

103050 #3 거 무시거, 비룬 무시거 그자 찔럿주.(거 뭐, 비료는 뭐 그저 찔렀지.)

103050 @ 게도게 쉐 허당 판이도 만들고, 게난 그런 거 골아줍서.(그래도 소 해다가 판도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거 말해주세요.)

103050 #3 판이, 쉐 헤당 팟주게.(판, 소 해다가 팠지.)

103050 #2 아니 게난 저 그 쳇번 감저묘종 놈이연 헌 게 잇주게. 묘종 놈이연 헌건, 묘종도 두 가지로 놔.(아니 그러니까 저 그 첫 번 고구마모종 논다 하는 게 있지. 모종 논다고 한 건, 모종도 두 가지로 놔.)

103050 @ 아, 예 예.(아, 예 예.)

103050 #2 그대로 뭐옌 ᄒᆞ민 올케 저 그대로 딱 헤 가지고.(그대로 뭐라고 하냐면 옳이 저 그대로 딱 해 가지고.)

103050 @ 예.(예.)

103050 #2 이젠 묘종을, 그 묘종을 놔가지고.(이젠 모종을, 그 모종을 놓아가지고.)

103050 @ 예.(예.)

103050 #2 완전히 그 우에 뭐 덮어 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디허믄 거시기 비닐을, 하우스 허듯이.(완전히 그 위에 뭐 덮어 가지고, 완전히 이제 여기하면 거시기 비닐을, 하우스 하듯이.)

103050 @ 예.(예.)

103050 #2 그디 물도 못 들어가고.(거기 물도 못 들어가고.)

103050 @ 예.(예.)

103050 #2 완전히 그디 온실을 만들엉 뜨겁게 헤 가지고 겡. 게니까 그기 빨리 나주게?(완전히 거기 온실을 만들어서 뜨겁게 해 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 빨리 나지?)

103050 @ 예.(예.)

103050 #2 게믄 메칠, 딱 헤근에 메칠뒈믄 딱 그거 치와불믄 그대로 낫이믄 그대로 키우고.(그러면 며칠, 딱 해서 며칠되면 딱 그거 치워버리면 그대로 났으면 그대로 키우고.)

103050 @ 예.(예.)

103050 #3 기자도 놓곡게.(그냥도 놓고.)

103050 #2 기자도, 기자 논 건 좀 오래고.(그냥도, 그냥 놓은 건 좀 오래고.)

103050 @ 오래고예. 그리고 이 감저는 언제 심엇수과? 계절적으로.(오래고요. 그리고 이 고구마는 언제 심었습니까? 계절적으로.)

103050 #2 유월절[77] 앞두고.('유월절' 앞두고.)

103051 @ 유월절 앞두고예. 감저밭인 거름 안 헷수과?('유월절' 앞두고요. 고구마 밭에는 거름 안 했습니까?)

103051 #2 거름은 못 줜.(거름은 못 줬어.)

103051 @ 감저밧에도 거름 안헨예?(고구마 밭에도 거름 안 했어요?)

77) '유월절'은 24절기 중 소서 안팎을 말한다.

103051 #2 아, 게난 묘종 놀 땐 거름 헤근에.(아, 그러니까 모종 놀 땐 거름 했어.)

103051 @ 그 묘종 놀 때, 그 묘종 만들 때 예?(그 모종 놀 때, 그 모종 만들 때요?)

103051 #2 어.(어.)

103052 @ 어, 경헷구나예. 그리고 그 감저 심을 때 저 아까 판이를 만들엇잖아예? 감저는 그럼 어떵 심엇수과?(어, 그랬군요. 그리고 그 고구마 심을 때 저 아까 판을 만들었잖아요? 고구마는 그럼 어떻게 심었습니까?)

103052 #2 감저 허젠 ᄒᆞ민 꿀을 요 정도로 헹 막 짤르주게.(고구마 하려고 하면 줄기를 요 정도로 해서 막 자르지.)

103052 @ 예.(예.)

103052 #2 짤라근엥에 게, 그자, 요영.(잘라서 그래, 그저 요렇게.)

103052 #3 짤른 건 두 둠[78], 걸어야 석 둠. 경헨 이디 싹 다 찔럿는디, 우린 영헨 질렁 영 디 꾹꾹꾹꾹 질르는디, 이제 심그는 건 영 헤십디다? 저 아들네 심그는 건.(자른 건 두 '둠', 걸어야 석 '둠'. 그렇게 해서 여기 싹 다 찔렀는데, 우린 이렇게 해서 찔러서 이렇게 여기 꾹꾹꾹꾹 찌르는데, 이제 심는 건 이렇게 했던데요? 저 아들네 심는 건.)

103052 #2 쫄라부난.(짧아버려서.)

103052 @ 그냥 그 저 그 우리가 그 시장에서 보면 감저꿀 팔잖아예? 그 꿀 이렇게 한 가닥, 이파리, 이파리 하나만 잇는 거는 심으믄 감자 안 나마씨? 감자 안 나마씨? 이파리 하나만 이렇게 가젱이 딱 잘랑.(그냥 그 저 그 우리가 그 시장에서 보면 고구마줄기 팔잖아요? 그 줄기 이렇게 한 가닥, 이파리, 이파리 하나만 있는 거는 심으면 고구마 안 나나요? 고구마 안 나나요? 이파리 하나만 이렇게 가지 딱 잘라서.)

103052 #3 ᄒᆞ나만 성은 안 뒈주게.(하나만 있어서 안 되지.)

103052 @ 아니게, 아니 건 뿌리 안 내립니까, 그런 건?(아니, 아니 그건 뿌리 안 내립니까, 그런 건?)

103052 #3 영헨, 응. 영 헨 그 남이옌 헤도 그 저 돌아질 힘이 서사주. (이렇게 해서, 응. 이렇게 해서 그 난다고 해도 그 저 매달릴 힘이 있어야지.)

103052 @ 아.(아.)

103052 #3 영 ᄒᆞ쏠 영 헨 심근디, 우린 영 이 끗, 이 끗에 영 헨 헷는디, 아들네 심근 거ᄒᆞ난 영 고치 심그듯 세왕 심거서라. 우리 아들이 모르는 거 아닌가?(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서 심었는데, 우린 이렇게 이 끝, 이 끝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아들네 심은 거하니까 이렇게 고추 심듯 세워서 심었었어. 우리 아들이 모르는 거 아닌가?)

103052 #2 아니 게난, 그 전에 우리는 어떵 영 헤근엥에 이추룩 헹 양끗만 꽉

78) '둠'은 고구마덩굴줄기에서 잎줄기와 잎줄기 사이를 말한다.

눌러근엥예.(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처럼 해서 양끝만 꽉 눌러서.)

103052 @ 게, 여기 잎이 몇 개 잇는 거마씸?(그래, 여기 잎이 몇 개 있는 거요?)

103052 #3 응, 세 개 네 개 들어야.(응, 세 개 네 개 들어야.)

103052 @ 아, 세 개 네 개 들어사.(아, 세 개 내 개 들어야.)

103052 #3 응, 세 개 네 개 들어야.(응, 세 개 네 개 들어야.)

103052 #2 그축 헷는디 요즘.(그렇게 했는데 요즘.)

103053 @ 저 감저밧딘 검질 몇 번 멧수과?(저 고구마 밭엔 김 몇 번 맸습니까?)

103053 #3 에고, 메곡 하건 거, 잘 메믄 흔번 메고 게아민 감저꿀 더꺼지국 ᄒᆞ민 내불믄 제완지 숨빡. 밧이.(에고, 매고 여러 가지 거, 잘 매면 한 번 매고 그렇잖으면 고구마줄기 덮어지고 하면 내버리면 바랭이 함빡, 밭이.)

103053 #2 요 조팟ᄀᆞ치 그추룩 힘드리질 아녀주.(요 조밭같이 그처럼 힘들지 안하지.)

103053 @ 아, 감저밧듸 검질은 어떤 거 나나신지 혹시 모르쿠과?(아, 고구마 밭에 김은 어떤 거 났었는지 혹시 모르겠습니까?)

103053 #3 게, 제완지, 속이주. 뭐. 제완지, 속.(그래, 바랭이, 쑥이지 뭐. 바랭이, 쑥.)

103053 @ 제완지, 속.(바랭이, 쑥.)

103053 #2 그 검질은 원 조팟이나 메 꼭 ᄀᆞ뜬 검질들인데.(그 김은 원 조밭이나 모두 꼭 같은 김들인데.)

103053 #3 그 꿀 난 덕어지난, ᄒᆞ쏠 두루 메는 거.(그 줄기 나서 덮어지니까, 조금 덜 매는 거.)

103053 #2 어, 철이옌.(어, 철에는.)

103053 #3 잘 ᄒᆞ는 것들은 이 저 감저밧이 무시거 ᄒᆞ미옌 헤근엥에 영 고랑 갈아빌민 꿀 엇이도 검질 안 메영도 넘어가불고 경ᄒᆞ는 거.(잘 하는 것들은 이 저 고구마 밭에 뭐 한다고 해서 이렇게 고랑 갈아버리면 덩굴 없이도 김 안 매어도 넘어가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야.)

103055 @ 게믄 감저 그거 수확할 때 캘 때, 그 이야기를 쭉 골아줍서. 먼저 꿀 걷엉.(그러면 고구마 그거 수확할 때 캘 때, 그 이야기를 쭉 말해주세요. 먼저 덩굴줄기 걷어서.)

103055 #3 걷어근에.(걷어서.)

103055 @ 예.(예.)

103055 #3 팡.(파서.)

103055 @ 예.(예.)

103055 #3 고랑에 민짝 파근엥에 거 감저 풀젠 ᄒᆞ민 거 감젓마다리 멧 개 헤다

근에.(고랑에 모두 파서, 그거 고구마 팔려고 하면 그거 고구마마대 몇 개 해다가.)
103055 @ 예.(예.)
103055 #3 담앙 풀곡.(담아서 팔고.)
103055 @ 예.(예.)
103055 #3 절간ᄒᆞ게 뒈민 그거 담앙.(절간고구마하게 되면 그거 담아서.)
103055 @ 예.(예.)
103055 #3 시꺼네영 어디 저 테역밧드레 앗다 놩.(실어내서 어디 저 잔디밭에 가져다 놓지.)
103055 @ 예.(예.)
103055 #3 절간허곡 경 헷주.(절간고구마 그렇게 했지.)
103055 @ 예. 게믄예, 감저꿀 잇잖아예?(예. 그러면요, 고구마덩굴줄기 있잖아요?)
103055 #3 꿀은 쉐 주고.(덩굴줄기는 소 주고.)
103055 @ 그 쉐 주는데 어디다 어떵 보관헷당 줫수과?(그 소 주는데 어디다 어떻게 보관했다가 주었습니까?)
103055 #3 것도 잘 물뤼민 무껑 눌엇당.(그것도 잘 말리면 묶어서 가렸다가.)
103055 @ 무껑 눌어근에예?(묶어서 가렸다가요?)
103055 #2 ᄂᆞ람쥐 알아?(이엉 알아?)
103055 @ 예, 예.(예, 예.)
103055 #2 거난에, 눌 누렁 ᄂᆞ람쥐로 완전 덮엉 둥글게 ᄒᆞ잖아.(그러니까, 가리가려서 이엉으로 완전 덮어서 둥글게 하잖아.)
103055 @ ᄂᆞ람진 뭘로 만들엇수과?(이엉은 뭐로 만들었습니까?)
103055 #1,2 새.(띠.)
103055 @ 아, 새로, 기구나. 아 고구마로, 아까 저기 뻿데기마씨?(아, 띠로. 그렇구나. 아, 고구마로 아까 저기 절간고구마요?)
103055 #2 절간, 절간.(절간고구마, 절간고구마.)
103055 @ 아, 절간이렌 헷수과?(아, 절간고구마라고 했습니까?)
103055 #3 응. 절간감저가 뻿데기주.(응. 절간고구마가 '뻿데기'지.)
103055 @ 뻿데기, 그다음에 뭐이수과?(절간고구마, 그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103055 #3 것도 절간이로헨 풀아.(그것도 절간고구마로 해서 팔아.)
103055 @ 감저는 절간으로만 팔앗수과?(고구마는 절간고구마로만 팔았습니까?)
103055 #3 응. 절간으로도 풀고 통차로도 풀고.(응. 절간고구마로도 팔고 통째로도 팔고.)
103055 #2 그 전에 감저 놀 때.(그 전에 고구마 심을 때.)
103055 @ 예.(예.)
103055 #3 이 대정[79]분들이.(이 대정분들이.)

79) '대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를 이르는 말이다.

103055 @ 예.(예.)

103055 #2 거긴 감저 묻질 못헌덴 헤 가지고.(거긴 고구마 묻질 못한다고 해 가지고.)

103055 @ 예.(예.)

103055 #3 씨를 여기 완 전부 가지고 가낫다고.(씨를 여기 와서 전부 가지고 갔었다고.)

103055 @ 음.(음.)

103055 #2 것이 온도가 차이가 잇고 또 뭣따문인디, 여기는 지금 가을에 헤근엥에 앞 봄 나도록 그대로 묻엉 고대로 잇거든.(그것이 온도가 차이가 있고 또 무엇 때문인데, 여기는 지금 가을에 해서 앞 봄 오도록 그대로 묻어서 고대로 있거든.)

103055 @ 예, 예.(예, 예.)

103055 #3 근디 대정은 경 못헌다 이거라.(그런데 '대정'은 경 못한다 이거라.)

103055 #3 엿날엔 대정은 못살아낫주게.(옛날에 대정은 못살았지.)

103055 #2 못사는 게 아니고 경, 안, 못허난에, 겨난 여기 감저 씨 사례 계속 와낫어. 대정 사름덜.(못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안, 못하니까, 그러니 여기 고구마 씨 사러 계속 왔었어. '대정' 사람들.)

103055 @ 아, 경헸구나예.(아, 그랬군요.)

103055 #3 겨난, 감저 씨 묻엇당 감저씨 돈을 헹 사곡허단게 이리렌 지금 밀감 ᄒᆞ단 이펜드레 하영 돈 사는 식으로 감저 헹 돈 하영 사낫주, 엿날에.(그러니까 고구마 씨 묻었다가 고구마 씨 돈을 해서 사고하다가 이쪽엔 지금 밀감 하다가 이편에는 많이 돈 버는 식으로 고구마 해서 돈 많이 벌어났지, 옛날에.)

103056 @ 씨 감전 어떵 보관헷수과?(씨 고구마는 어떻게 보관했습니까?)

103056 #2 아니, 지금 ᄀᆞᆫ자니여. 구뎅이 깊이 구뎅이 팡 거기 묻은 거주게.(아니, 지금 말하잖아. 구덩이 깊이 구덩이 파서 거기 묻은 거지.)

103056 @ 음.(음.)

103056 #2 묻어불민, 그대로 막 담아놩, 막 담아놔근엥에 뭐에 딱 헤근엥에 영 헤영 흑쒜와근에 완전히 물 못 들어가게 완전히.(묻어버리면, 그대로 막 담아놔서, 막 담아놔서 뭐에 딱 해서 이렇게 해서 흙 씌워서 완전히 물 못 들어가게 완전히.)

103056 #3 흑 못 들어가게 에염에 영 헤가면은 에염에 빙빙ᄒᆞ게 검질[80] 세왕.(흙 못 들어가게 가에 이렇게 해가면 가에 빙빙하게 '짚'세워서.)

103056 #2 가운데 공기통만 잇주. 공기통. 공기는 통헤야 하니까.(가운데 공기통만 있지. 공기통. 공기는 통해야 하니까.)

103056 @ 음.(음.)

103056 #2 꼭대기에 공기통만 이서.

103056 @ 음.(음.)

103056 #2 경헷당 그게 봄나도록 거기 나두는 거주. 가을에 경헹 봄나도록 나두

80) '검질'은 '김'이나 잡풀을 말한다. 여기서는 보릿짚이나 볏짚을 말한다.

주. 경허난 그걸 사레 온다는 거주, 대정서 이디 와나서.(그렇게 했다가 그게 봄이 오기까지 거기 나두는 거지. 가을에 그렇게 해서 봄이 오도록 나두지. 그렇게 하니까 그걸 사러 온다는 거지, '대정'에서 여기 왔었어.)

103058 @ 예, 감저꿀로는 저기 쉐 멕이고예.(예, 고구마덩굴로는 저기 소 먹이고요.)

103058 #2, 3 어.(어.)

103058 #3 응, 감저꿀은 쉐 멕이고.(응, 고구마덩굴은 소 먹이고.)

103059 @ 그 감저농사 지으면서 혹시 뭔가 특별나게 잇엇던 기억 ᄒᆞ나만 ᄀᆞᆯ아 줍서.(그 고구마농사 지으면서 혹시 뭔가 특별나게 있었던 기억 하나만 말해주세요.)

103059 #2 기억, ᄒᆞᆯ 거. 없어.(기억, 할 거. 없어.)

103059 #3 절간ᄒᆞ곡 그 저 그 통차, 통감저로 풀앙 돈 살 생각만 헷주.(절간고구마 하고 그 저 그 통째, 통고구마로 팔아서 돈 벌 생각만 했지.)

103059 #2 게난에 그 절간허젠 ᄒᆞ민 그 발이엔 ᄒᆞ 거 잇주게.(그러니까 그 절간고구마 하려고 하면 그 발이라고 하는 거 있지.)

103059 @ 예.(예.)

103059 #2 발 저 그 어웍 알지?(발 저 그 억새 알지?)

103059 @ 예, 예.(예, 예.)

103059 #3 그 절간 감저 ᄒᆞ는디 발이 헷수과? 그건 생길이우다, 그건.(그 절간고구마 하는데 발에 했습니까? 그건 무말랭입니다, 그건.)

103059 #2 아, 발에 헤도 그거 영 헤근엥에 페왕 저 그걸 발에도 페와근엥에 널어야지. 경 안헤근엥에 거 ᄒᆞ나씩 게아민 ᄒᆞ나씩 주워야ᄒᆞᆯ 건디?(아, 발에 해도 그거 이렇게 해서 펴서 저 그걸 발에도 펴서 널어야지. 그렇게 안 해서 거 하나씩 그렇잖으면 하나씩 주어야할 건데?)

103059 #3 무시게, 그거 헷수과? ** 테역밧듸 상으로 글겡이로 박박 긁엉 네처서, 어이고.(무슨, 그거 했습니까? ** 잔디밭에 서서 갈퀴로 박박 긁어 내쳤어, 아이고.)

103059 #2 허허 헤이고 헤이고.(허허 헤이고 헤이고.)

103059 @ 테역밧듸 영영 썰멍 널언마씨?(진디밭에 이렇게이렇게 썰면서 널었어요?)

103059 #3 응, 탁탁 썰어근에 ᄆᆞᆫ 탁 헤쌍 놔두민, 뒈게 널엉 놔둬도 ᄆᆞᆯ라가민 가들가들 영 들러지멍 ᄆᆞᆯ라.(응, 탁탁 썰어서 모두 탁 해쳐 놔두면, 되게 널어서 놔둬도 말라가면 꼬들꼬들 이렇게 들뜨면서 말라.)

103059 @ 음.(음.)

103059 #3 겨민, 줍는 사름은 멀리 가분디 거 줍고, ᄒᆞ쏠 모두룩헌 딘 글겡이, 영영 엿날 무시거 솔입 긁는 글겡이 닮은 거, 이제도 그런 글겡이 잇주마는, 걸로 박박 모야놩 ᄒᆞ곡, 비 오람직 ᄒᆞ민 혼이 낭 난리라도, 우리 하르방[81] ᄀᆞ만이 눕곡,

난 저레 강 헤노민 ᄆᆞ수왕 저끗듸 오랑 저디 저 지켱 그디 누워도 나 베리멍 모숩진 안 헨다 ᄒᆞ난, 그디 강 눌 따이사 뭐 허레 가린 ᄒᆞ멍, 도와 절간 가지 안 헤연.(그러면, 줍는 사람은 멀리 가버린데 거 줍고, 조금 모도록한 데는 갈퀴, 이렇게이렇게 옛날 무엇 솔잎 긁는 갈퀴 닮은 거, 이제도 그런 갈퀴가 있지만, 그걸로 박박 모아놔서 하고, 비올 거 같으면 혼이 나서 난리여도, 우리 '남편' 가만히 눕고, 난 저리로 가서 해서 놓으면 무서워서 가까이 와서 저기 저 지켜서 거기 누워도 나 바라보면 무섭지는 안 한다 하니까, 거기 가서 누울 바에야 뭐 하러 가리 하면서, 도와서 절간고구마 가지 안 했어.)

103059 #2 에이고, 저 웨, 그 젓, 할머니 돌아가실 때 나 저 품 감에 ᄒᆞ멍 ᄉᆞ뭇 한남리[82] 가난, 예춘[83]가난 ᄉᆞ뭇, 절간감자 들이렌 난리 전에 두 번 들이멍 나 헤서.(아이고, 저 왜, 그 저, 할머니 돌아가실 때 나 저 품 가므로 하며 사뭇 '한남리' 가니까, '예춘'가니까 사뭇 절간고구마 들이라고 난리 나서 두 번 들이면서 내가 했어.)

103059 #3 겨난 들여도 저, 발 헤다 넌 건 왕길이, 생길이, 음.(그러니까 들여도 저, 발 해다가 넌 건 무말랭이, 무말랭이, 음.)

103059 @ 하하하.(하하하하.)

103059 #2 아, 겨난, 비왐 직 허믄 아무리 어두엉 밤이라도 거 들여, 다 들여야 뒈주게.(아, 그러니까 비올 것 같으면 아무리 어두워서 밤이라도 그것 들였어, 다 들여야 되지.)

103059 @ 아, 맞아예. 하하하하.(아, 맞아요. 하하하하.)

103059 #2 아 게난.(아, 그러니까.)

103059 @ 아, 그때 밧듸 ᄀᆞ찌 안 가주난 막 속에서 막 서럽고 그런 거 어섯수과?(아, 그때 밭에 같이 안 가주니까 막 속에서 매우 서럽고 그런 거 없었습니까?)

103059 #3 아이고, 막 설우완에. 난 무서완 저디 간 널어지난, 밤이 간디 무서운디, 무사 무섭는고, 비 막 오람직 ᄒᆞ고, 하늘이 왁왁ᄒᆞ난 하간딜로 그 횃불 싼 그거 디리는 거라. 게 파싹 모수완 나, 우리 하르방ᄀᆞ라 그 엠에 막 산덜도 하고, 뭐 한디 널엇는디, 저디 오랑 저 산담[84] 염에 ᄒᆞ쏠만 누워도 혜영 벗헤주민 나만이라도 들이키엔 허난, 그디 강 눌 바에사 뭐 들이지 뭘 허레 가느닌ᄒᆞ멍 안 간 고만이 누원 자비난 그 감저 문 썩어나서, 안 간. 절간감저 비맞안 문 썩어난. 하르방 말 안들어.(아이고, 막 서러워서. 난 무서워서 저기 가서 널어지니까, 밤에 갔는데 무서운데, 왜 무섭냐면, 비 막 올 것 같고, 하늘이 캄캄하니까 모든 데서 그 횃불 밝혀서 그거 들이는 거야. 그래 더할 나위 없이 무서워 내가, 우리 '할아버지' 보고, 그 옆에 막 무덤들도 많고, 뭐하니까 널었는데, 저기 와서 저 '산담' 옆에 조금만 누워도 해서 벗해주면 나만이라도 들이겠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누울 바에야 뭐 들

81) '하르방'은 할아버지를 말한다. 여기서는 발화자의 남편을 말한다.
82) '한남리'는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를 말한다.
83) '예춘'은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1리를 말한다.
84) '산담'은 무덤 주위로 네모지거나 둥글게 둘러싼 돌담을 말한다.

이지 뭐 하러 가느냐하며 안 가서 가만히 누워서 자버리니까 그 고구마 모두 썩어났어, 안 가서. 절간고구마 비 맞아서 모두 썩어났어. '할아버지' 말 안 들어서.)

103059 @ 하하하.(하하하.)

103059 #3 그런 시철도 살안. 이제야 뭐 대통령 삶이주. 경 정 살아ᄂᆞ난 ᄉᆞ뭇 이제는 뻬가 이추룩 아팡 걷지 못헨.(그런 시절도 살았어. 이제야 뭐 대통령 삶이지. 그렇게 저렇게 살아놓으니까 사뭇 이제는 뼈가 이처럼 아파서 걷지 못해.)

103059 @ 게난예. 고구마, 감저 농사는 그걸로 일단 끗나고예.(그러게요. 고구마, 고구마농사는 그걸로 일단 끝났고요.)

기타 농사

103060 @ 그다음은예, 아까 저기 그 수박이나 참웨 같은 거 집에서.(그다음은요, 아까 저기 그 수박이나 참외 같은 것 집에서.)

103060 #3 그런 거 안 헨. 쪼끔 흔 방울썩 헷당, 이녁 먹는 거나벳긔. 그런 것에 신경 안 썬.(그런 거 안 했어. 조금 한 방울씩 했다가, 이녁 먹는 거밖에. 그런 것에 신경 안 썼어.)

103060 @ 고친 어떵헷수과?(고추는 어떻게 했습니까?)

103060 #3 그런 것도 기자 이녁 헹 먹을 만히 ᄒᆞ쏠혜영 아녀.(그런 것도 그저 이녁 해서 먹을 만큼 조금해서 안 해.)

103060 @ 배추도예?(배추도요?)

103060 #3 응, 배추나 무우나 그런 거 ᄒᆞ쏠썩 만 ᄒᆞ곡 기자.(응, 배추나 무나 그런 거 조금씩만 하고 그저.)

103061 @ 그며는 일단 수박농사는 멧 구뎅이 안 헤도 어떵 헷수과?(그러면 일단 수박농사는 몇 구덩이 안 해도 어떻게 했습니까?)

103061 #3 아니, 그건 아녀고.(아니, 그건 안 하고.)

103061 @ 안 심어봣수과?(안 심어봤습니까?)

103061 #3 아, 아년.(아, 안 했어.)

103061 @ 참웨도 안 심어봣수과?(참외도 안 심어봤습니까?)

103061 #3 츰웨 ᄒᆞ쏠 흔 거 심건에 먹어난는디 그거 털어지민 도나곡[85] 도나곡 헤연, 아녀난 기자 봉가먹음만 허는디 올린 둬 곳 낫관 놔두난 하르방 문딱 메부런 씨 져불 거 이제. 문 메불언.(참외 조금 한 그거 심어서 먹었었는데 그거 떨어지면 '도나고' '도나고' 했어, 안 하니까 그저 주어먹음만 하는데 올해는 두어 곳 났기에 놔두니까 '할아버지' 모두 매버려서 씨 져버릴 거 이제. 모두 매버렸어.)

103062 @ 아아, 고치 농사는 어떵헤연마씨? 씨 뿌렷수과 아니믄 묘종?(아아, 고추 농사는 어떻게 했나요? 씨 뿌렸습니까 아니면 모종?)

103062 #3 아아니. 흔 멧 개 모종으로 사단 신경, 기자.(아 아니. 한 몇 개 모종으로 사다가 심었어, 그저.)

85) '도나다'는 곡식을 다 거두고 난 끝에 씨가 떨어져 저절로 나는 걸 말한다.

103062 @ 옛날에도 경헷수과?(옛날에도 그랬습니까?)

103062 #3 아니 엿날에도 그 쪼끔 헹 이녁 거 씨 ᄒᆞ쏠 뿌렷당, 경 엿날에는 이녁 고친 헨 먹엇는디 이젠 사당.(아니 옛날에도 그 쪼끔 해서 이녁 거 씨 조금 뿌렸다가, 그렇게 옛날에는 이녁 고추는 해서 먹었는데 이제는 사다가.)

103064 @ 배추농사도 경헷수과?(배추농사도 그랬습니까?)

103064 #3 배추는 그자 국 끌령 먹을 거 무씨 ᄒᆞ쏠 뿌렷당 국이나 끌려 먹공. 김치 ᄂᆞ물은 사당.(배추는 그저 국 끓여서 먹을 거 무씨 조금 뿌렸다가 국이나 끓여서 먹고. 김치 나물은 사다가.)

103064 @ 아니, 옛날에.(아니, 옛날에.)

103064 #3 아, 엿날엔 ᄒᆞ쏠썩 갈앙 그 이제 ᄂᆞ물추룩 아년 겨라도 짐치, 집에서 헷 먹엇주마는 이젠.(아, 옛날엔 조금씩 갈아서 그 이제 나물처럼 안한 거라도 김치, 집에서 해서 먹었지만 이제는.)

103064 @ 씨 다 모아놧당마씨?(씨 다 모아 놓았다가요?)

103064 #3 응.(응.)

103064 #2 엿날에 여기서는 이녁 먹을 거나 좀 헷지.(옛날에 여기서는 이녁 먹을 거나 좀 했지.)

103064 @ 먹을 거를 갈 때 씨를 시장에서 산 와신가 아니믄 그 헤 헤난 거에 열매를 열리면 보관헷당예?(먹을 거를 갈 때 씨를 시장에서 사서 왔는지, 아니면 그 해 해난 거의 열매를 열리면 보관했다가요?)

103064 #3 어, 어. 헤 놧당

103064 @ 배추씨나 ᄂᆞ물씨는 어디 놔뒷당 헷수과?(배추씨나 나물씨는 어디 놔뒀다가 했습니까?)

103064 #3 아, 잘 ᄆᆞᆯ른 거 거 요세예 무신 것에 시난에게, 다마네기 ᄒᆞᆫ 것에, 다마네기 잘리.(아, 잘 마른 것 그거 요새에 무슨 것에 있으니까, 양파 한 것에, 양파 자루.)

103064 @ 옛날엔, 옛날엔?(옛날엔, 옛날엔?)

103064 #3 아니, 엿날에도게 ᄆᆞᆯ령 영 봉지영 ᄒᆞ쏠 영 싸근에 ᄃᆞᆯ아메민 아멩토 안 ᄒᆞ여.(아니, 옛날에도 말려서 이렇게 봉지에 조금 이렇게 싸서 달아매면 아무렇지도 안 해.)

103064 #2 엿날에도 요거 모냥으로 그자 공쟁이에 마저 싸근에 ᄌᆞ근ᄌᆞ근 ᄃᆞᆯ아메엉.(옛날에도 요것 모양으로 그저 걸이에 마저 싸서 차근차근 달아맸어.)

103064 @ 아아, 경헹 다음에 뿌련예?(아아, 그렇게 해서 다음에 뿌렸어요?)

103065 @ 그다음 지슬은 하영 심것수과?(그다음 감자는 많이 심었습니까?)

103065 #3 지슬은 전인 ᄒᆞ쏠 하영 심건 뭐 헤낫는디 이젠 사당 먹어.(감자는 전에는 조금 많이 심어서 뭐 했었는데 이젠 사다가 먹어.)

103065 @ 지슬농사는 그땐 어떵 갈앗수과?(감자농사는 그땐 어떻게 갈았습니까?)

103065 #2 지슬은 얼마나 하영 갈아나구렌?(감자는 얼마나 많이 갈았었다고?)

103065 #3 지슬은게, 미릇 전이 갈 땐, 영 골 청, 그레 불치 놓곡 비료 ᄒᆞ쏠 뿌령은에 ᄒᆞ민 잘 든는디, 이제는 나무 따문 불리가 영 나오는 따문 잘 못 갈아.(감자는, 미리 그전에 갈 때는, 이렇게 골 쳐서, 그리로 재 놓고 비료 조금 뿌려서 하면 잘 드는데, 이제는 나무 때문에 뿌리가 이렇게 나오는 때문 잘 못 갈지.)

103065 @ 어.(어.)

103065 #3 낭 트멍에 ᄒᆞ쏠 허젠 헤도 낭뿔리 때문에 안 들어.(나무 틈에 조금 하려고 해도 나무뿌리 때문에 안 달려.)

103065 @ 불치, 흑을, 불치를 놩 흑에다 서꺼놔마씸?(재, 흙을, 재를 넣어서 흙에다 섞어놔요?)

103065 #3 불치예 흑 영 헤영 ᄒᆞ쏠썩 서껑 헤도 뒈여.(재에 흙 이렇게 해서 조금씩 섞어서 해도 되지.)

103065 @ 지슬을 거기다 심으민 뒈는 거마씸?(감자를 거기다 심으면 되는 거지요?)

103065 #3 응.(응.)

103065 @ 짤라근에예? 순 나는 대로.(잘라서요? 순 나는 대로.)

103065 #3 응, 순 나는 대로 짤랑 ᄒᆞ주게.(응, 순 나는 대로 잘라서 하지.)

103066 @ 아까 피 농사도 지어낫젠 헷잖아예?(아까 피 농사도 지었었다고 했잖아요?)

103066 #2 지슬을 순 나는 대로 짤랑 싱거?(감자를 순 나는 대로 잘라서 심는다고?)

103066 #3 하르방 몰람수다. 지슬을 눈으로 영영 끈엉 싱그는 거. 하르방 몰라, 이거 아녀보난.('할아버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감자를 순으로 이렇게이렇게 잘라서 심는 것. '할아버지' 몰라, 이런 거 안 해보니까.)

103066 @ 지슬을 이렇게 동그라미면 순 나는 대로 이렇게 영 짤라 가지고.(감자를 이렇게 동그라미면 순 나는 대로 이렇게 이렇게 잘라 가지고.)

103066 #2 아, 난 웨 우에 순을 끈으린 막 그 아년? 아, 그 지슬 벌렁?(아, 난 왜 위에 순을 자를까 막 그 않았나? 아, 그 감자 조각내서?)

103066 @ 예, 벌른 지슬에 불치를 버무령 헷수과, 아니문 흑에다 불치를 버무령 놓은 데다가 지슬을 심것수과?(예, 조각낸 감자에 재를 버무려서 했습니까, 아니면 흙에다 재를 버무려놓은 데다가 감자를 심었습니까?)

103066 #3 지슬 저 벌른 데 불치 서꺼도 좋아.(감자 저 조각낸 데 재 섞어도 좋아.)

103066 @ 서껑예?(섞어서요?)

103066 #3 서껑 영 헹 기자 놓민 불치를 우트레 영 놔도 아뭉치도 아녀, 불치는.(섞어서 이렇게 해서 그저 놓으면 재 위에 이렇게 놔도 아무렇지도 안 해, 재는.)

103066 @ 그다음, 피농사는 어떵헹 지엇수과?(그다음, 피농사는 어떻게 해서 지

었습니까?)

103066 #3 피농사는 우리 아녀봔.(피농사는 우리 안 해봤어.)

103066 @ 안 헤봔예?(안 해봤어요?)

103066 #3 밧 구진 사름만 헷젠 ᄒᆞ난.(밭 곶은 사람만 했다고 하니까.)

103066 #2 아, 피농산 우리 저 우리 아부지네 ᄒᆞ쏠 헤난는디, 우리 아부지 아까 목산[86]힛젠 헷지?(아, 피농사는 우리 저 우리 아버지네 조금 했었는데, 우리 아버지 아까 '목산'했다고 했지?)

103066 @ 예.(예.)

103066 #2 거난, 피, 산듸, 모물, 요 세 가지주게.(그러니까, 피, 밭벼, 메밀, 요 세 가지지.)

103066 @ 예.(예.)

103066 #2 게, 삼년 ᄒᆞ믄 ᄒᆞᆫ 등, ᄒᆞᆫ 등 게난 경 헤나민 내버리는 거.(그래, 삼년 하면 한 동, 한 동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나면 내버리는 것.)

103066 @ 아, 삼년 헤나면 그 밧듸 더 이상 못헤 가지고.(아, 삼년 하고나면 그 밭에 더 이상 못해 가지고.)

103066 #3 그, 새왓 갈앙 ᄒᆞ는 게난.(그, 띠밭 갈아서 하는 거니까.)

103066 #2 새왓 ᄒᆞᆫ 등이 삼년 이주게.(띠밭 한 등이 삼년 이지.)

103066 @ 아, 아.(아, 아.)

103066 #2 게난 산듸, 피, 모물.(그러니까 밭벼, 피, 메밀.)

103066 @ 모물 헤난 다음엔 또 세왓 갈고.(매밀 하고난 다음엔 또 띠밭 갈고.)

103066 #2 거난 메년 가니까. 먼저 헤난 건 내불곡.(그러니까 매년 가니까. 먼저 했던 건 내버리고.)

103066 @ 아.(아.)

103066 #2 메년 쭉 갈아난 워낙 밧이 큰 밧이난.(매년 쭉 갈아난 워낙 밭이 큰 밭이니까.)

103066 @ 아, 게민 메밀 농사, 피 농사도 그냥 마찬가지로 그냥 뿌령 내불어마씨?(아, 그러면 메밀 농사, 피 농사도 그냥 마찬가지로 그냥 뿌려서 내버려요?)

103066 #1,2 어.(어.)

103067 @ 메밀은 어떵헷수과? 모믈은?(메밀은 어떻게 했습니까? 메밀은?)

103067 #3 걸름에 좁아놩, 걸름은 뭐인고 ᄒᆞ민 불꺽, 불치.(거름에 집어넣어, 거름은 무엇인가 하면 재, 재.)

103067 @ 어떵? 불꺽?(어떻게, 재?)

103067 #3 불치에 씨 서껑.(재에 씨 섞어서.)

103067 @ 음.(음.)

103067 #3 씨 ᄒᆞᆫ 거 무시거, 비루영 조금 섞엉 이 저, 밧, 소 헤근엥에 골치는 그 골르레 그 씨 좁아 놩.(씨 한 그거 뭐, 비료하고 조금 섞어서 이 저, 밭, 소 해서

86) '목산'은 밭벼의 한 종류다.

골치는 그 골에 그 씨 집어 놓아.)

103067 @ 아.(아.)

103067 #2 우린 목산엔 그 불치도 못 아저가나실 거라.(우린 '목산'에는 그 재도 못 가져갔을 거야.)

103067 @ 음, 아.(음, 아.)

103067 #3 모물 깔 때?(메밀 갈 때?)

103067 #2 어.(어.)

103067 #3 무시걸로 줍아 놘? 씨로?(무엇으로 집어 놨어? 씨로?)

103067 #2 씨 뿌려도 뒈주 무신.(씨 뿌려도 되지 무슨.)

103067 @ 그냥 저기, 밧 갈아놩 그냥 뿌리는 거예?(그냥 저기, 밭 갈아놓고 그냥 뿌리는 거요?)

103067 #2 응.(응.)

103067 @ 밧 갈아놩 뿌리기는 헷잖아예?(밭 갈아놓고 뿌리기는 했잖아요?)

103067 #3 난, 그거 몰라. 저듸 줍아놓는 거벳긔.(난, 그거 몰라. 저기 집어넣는 거밖에.)

103067 #2 어려월 때 저.(여려울 때 저.)

103067 #2 이녁 골 긋은 드레 줍아놓는 거라, 그거벳긔 아녀보난.(이녁 골 그은 곳에 집어넣는 거야, 그것밖에 안 해보니까.)

103067 @ 아, 골 긋어나 가지고예?(아, 골 그어 가지고요?)

103067 #3 응, 골 골 처놓민 댓 귀 영 심엉 이만이 상 구덕에 불치 담으민 날라가는 사름 잇고 영영영영 영영영영영 쫙쫙쫙쫙 뿌려.(응, 골 골 그어놓으면 댓 귀 이렇게 심어서 이만큼 서서 바구니에 재 담으면 날라 가는 사람 있고 이렇게이렇게 이렇게이렇게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쫙쫙쫙쫙 뿌렸어.)

103067 @ 뿌려 가지고예.(뿌려 가지고요.)

103067 #3 게, 그 밧듸에 그걸로 꼭 맞이민, 이루후제 살림을 잘 살아.(그래, 그 밭에 그걸로 꼭 맞으면, 이후에 살림을 잘 살아.)

103067 @ 아, 경헤낫구나예?(아, 그랬군요.)

103067 #3 응.(응.)

103068 @ 담베농사는 어떵 지엇수과?(담배농사는 어떻게 지었습니까?)

103068 #3 에이, 거 왁왁 홀 거주. 거 헤봐서 무신?(에이, 그거 캄캄 할 거지. 그거 해봤어 무슨?)

103068 #2 담베농사 안 헤어봔.(담배농사 안 해봤어.)

103068 @ 어, 근데 수망리 그 뭐 자료조사 허다보니까 담베농사를 꿰 헤나십디다.(어, 그런데 수망리 그 뭐 자료조사 하다보니까 담배농사를 꾀 했었습디다.)

103068 #2 담베 농사 헤어난 사름도 실 거라.(담배농사 했었던 사람도 있을 거야.)

103068 #3 아니, 난 어떵사 헌건 모른디, 엿날에 우리 하르바님네 그 헤난 거

닮아. 허연 영 무시거 저, 예편[87], 경 헌 거 이서, 봐서.(아니, 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는데,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네 그거 했던 것 같아. 하얀 이렇게 무엇 저, '엮어서', 그렇게 한 그거 있어, 봤어.)

103068 #2 어, 우리아버지도 저 막 여편[88] 둘아메난.(어, 우리아버지도 저 마구 '엮어서' 달아맸었어.)

103068 #3 경흔 거 어썩 봣는디. 영 갈아 썹 토다단 영 무시거세 예편 둘아멘 물류와.(그렇게 한 거 언뜻 봤는데. 이렇게 갈아서 잎 뜯어다가 이렇게 무엇에 엮어서 달아매서 말려.)

103068 #2 ᄂᆞ람지 옆이 예펴근에 딱딱 둘아메주게. 경 물류와.(이엉 옆에 엮어서 딱딱 달아매지. 그렇게 말려.)

103068 @ 아, 아. 그 담베 할 때 씨로 뿌려신디 뭘로 헤신디 모르고예?(아, 아. 그 담배 할 때 씨로 뿌렸는지 뭐로 했는지 모르고요?)

103068 #3 응, 몰라. 예펜 ᄃᆞ라멘 것만 봐난.(응, 몰라. 엮어서 달아맨 것만 봤었어.)

103068 @ 예펜 둘아마씨?(엮어서 달아매요?)

103068 #2 담베 입, 입.(담배 잎, 잎.)

103068 @ 아, 입. 아 옙. 아, 잎 옙. 옙헨.(아, 잎. 아, 잎. 아, 잎 잎. 입해서.)

103068 #3 그런 건 봐놧주마는 어떵사 헤신디.(그런 건 봤었지만 어떻게 했는지.)

103068 #2 ᄂᆞ람지 옆이들 엽 헹.(이엉 옆에 잎 해서.)

103068 @ 아, 예. 알앗수다.(아, 예. 알았습니다.)

103068 #2 기축헹 둘아메놧덴 ᄒᆞ는 거주게.(그렇게 해서 달아맸었다고 하는 거지.)

4. 들일

소 기르기

104001 @ 그 밧일 지나고 이제 들일로 들어가겟습니다예. 들일 중에서 쉐는, 쉐 기를 때 어떤 식으로 길럿수가?(그 밭일 지나고 이제 들일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일 중에서 소는, 소 키울 때 어떤 식으로 길렀습니까?)

104001 #2 쉐 어떤 식으로.(소 어떤 식으로.)

104001 @ 예. 송아지 사당, 아니면 송아지 나게 헤근에?(예. 송아지 사다가, 아니면 송아지 낳게 해서?.)

87) '예편'은 기본형이 '예피다'이다. 띠(茅)나 짚으로 이엉 따위를 '엮다'라는 말이다. 즉 담뱃잎을 말리기 위해 띠나 짚으로 '엮어서' 매달았던 모습을 말한다.
88) '여편'은 발화자가 '예편'을 달리 말한 것으로 보인다.

104001 #2 아, 그거. 쳇 번이야 사다근엥에 구헤당 ᄒᆞ주. 저, 거의 집이서 낭, 저 이디서 ᄑᆞ는 거주. 송아지 낭 풀아야 그게 수입이니까. 그 웨로 수입이 엇이니까.(아, 그거. 첫 번에야 사다가 구해다가 하지. 저, 거의 집에서 낳아서, 저 여기서 파는 거지. 송아지 낳아서 팔아야 그게 수입이니까. 그 외로 수입이 없으니까.)

104001 @ 아, 경헴구나예. 그 쉐 종류에는 어떤 어떤 쉐들이 이서수과?(아, 그랬군요. 그 소 종류에는 어떤 어떤 소들이 있었습니까?)

104001 #3 엿날에 토종.(옛날에 토종.)

104001 #2 아, 우리는 나 홀 때는 토종벳긔, 그 웨에는 그 저 그루후제 저의 저 지금 소들은 그루 후에 들어온 거지. 우리 홀 땐 토종 전부 토종.(아, 우리는 내가 할 때는 토종밖에, 그 외에는 그 저 그 후에 저 이 저 지금 소들은 그 후에 들어온 거지. 우리 할 땐 토종 전부 토종.)

104001 @ 토종예.(토종이요.)

104001 #2 나 쉐 질런 디도 ᄒᆞᆫ 삼십 년 넘어실 건디.(내가 소 기른 지도 한 삼십 년 넘었을 건데.)

104002 @ 그때 그 쉐 토종인데 그 전체적으로 가끔 그 저 갈색깔 도는 이런 색깔 쉐마씨? 다?(그때 그 소 토종인데 그 전체적으로 가끔 그 저 갈색 도는 이런 색깔 소요? 다?)

104002 #3 응, 노린 쉐.(응, 노랑 소.)

104002 #2 응, 노린 쉐라 노린 쉐지 노린 쉐.(응, 노란 소야 노란 소지 노란 소.)

104002 @ 노린쉐예?(노랑 소요?)

104002 #2 검은 쉐는 엇어.(검은 소는 없어.)

104002 @ 음.(음.)

104002 #2 들어보지 아녀고.(들어보지도 않고.)

104002 @ 예, 쉐는 아까 그 다 팔아근에 뭐헷덴 헨게마는 주로 쉐로는 어떤 때 이용헷수과? 쉐 키와근에.(예, 소는 아까 그 다 팔아서 뭐했다고 하던데 주로 소로는 어떤 때 이용했습니까? 소 키워서.)

104002 #2 우린 쉐 헤봐도, 우린 지금은 지금은 저 숫쉐가 읍는데 우리는 꼭 집이 숫소 ᄒᆞ나씩은 길랏주게.(우리는 소를 해봐도, 우린 지금은 지금은 저 수소가 없는데 우리는 꼭 집에 수소 하나씩은 길렀지.)

104002 @ 그 숫쉐를 옛날엔 뭐렌 ᄀᆞᆯ앗수과?(그 수소를 옛날엔 뭐라고 말했습니까?)

104002 #2 부렝이.(부룩소.)

104002 @ 부렝이 키왓잖아예?(부룩소 키웠잖아요?)

104002 #2 부렝이 키왕 그걸로 마차 하고.(수소 키워서 그걸로 마차 하고.)

104002 @ 예.(예.)

104003 #3 밧 갈고.(밭 갈고.)

104003 #2 밧 갈고.(밭 갈고.)

104003 @ 음.(음.)

104003 #2 밧은 직접 갈고.(밭은 직접 갈고.)

104003 #3 쉐는 돈이 어려와 가민 그 쉐 ᄒᆞ나만 풀아도 ᄒᆞ쏠 용돈 쓰고.(소는 돈이 어려워 가면 그 소 하나만 팔아도 조금 용돈 쓰고.)

104003 @ 용돈 쓰고예.(용돈 쓰고요.)

104003 #3 게난 쉐로 살아.(그러니까 소로 살아.)

104003 #2 마차 ᄀᆞ뜬 건 이, 물로도 끌주만은 밧갈 쉐론 믄 전부 밧은 이녁냥으로 이녁 소로 가는 거라. 농사지엇으니까.(마차 같은 건 이, 말로도 끌지만 밭갈 소론 모두 전부 밭은 이녁대로 이녁 소로 가는 거야. 농사지었으니까.)

104003 #3 다 사는 사람들이 밧 사곡 빗 물고 하는 게 쉐 길왕.(다 잘사는 사람들이 밭 사고 빚 물고 하는 게 소 길러서.)

104004 @ 근데 그 쉐를 가저근에 밧이라도 갈젠 허민 길들여야 뒈잖아예? 어떵 길들엿수과? 처음에 길들일 때.(그런데 그 소를 가져서 밭이라도 갈려고 하면 길들여야 되잖아요? 어떻게 길들였습니까? 처음에 길들일 때.)

104004 #3 체암 송애기 부렝이 나민은 코 뀌곡 헤근에 이끄는 사름ᄒᆞ곡 조름에 헤영 막 ᄀᆞ리처. 흔 이틀 ᄀᆞ리치민 그 송애기 쉐가 말 잘들엉 헤가주.(처음 송아지 수소 나면 코 뀌고 해서 이끄는 사람하고 꽁무니에 해서 막 가르쳐. 한 이틀 그르치면 그 송아지 소가 말 잘 들어가지.)

104004 @ 아, 흔 이틀만 헤도예?(아, 한 이틀만 해도요?)

104004 #2 이틀에 힘들어.(이틀에 힘들어.)

104004 #3 이틀, 흔 이틀 헤가민 ᄎᆞ마 흔 수둘ᄒᆞ주게 체암만히 경헤여.(이틀, 한 이틀 해가면 차마 조금 시들하지 처음처럼 그렇게 해.)

104004 #2 체암만히는 아니지만은.(처음만큼은 아니지만.)

104004 #3 체암에는 드러눕곡 들락키곡 말젠 ᄉᆞ뭇 볼나이엇주게.(처음에는 드러눕고 날뛰고 나중엔 사뭇 볼품없지.)

104004 @ 음.(음.)

104004 #3 경헹 이틀헹 흔 사흘차 뒈가민 ᄎᆞᄎᆞ 헤 가.(그렇게 해서 이틀 해서 한 사흘째 돼 가면 차차 해 가.)

104005 @ 그 쉐들 한데는 그 사람하고는 달라 가지고 나이메기는 방법이 달르잖아예? 그 쉐 흔 살은 뭐렌 ᄀᆞᆫ고 두 살은 뭐렌 ᄀᆞᆯ앗수과? 흔 ᄉᆞᆯ, 두 ᄉᆞᆯ 그게.(그 소들 한데는 그 사람하고는 달라 가지고 나이매기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 소 한 살은 뭐라고 말하고 두 살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 살, 두 살 그게.)

104005 #3 쉐 나이 드는 거 ᄀᆞᆫ다간은 거 아니? 몰라?(소 나이 드는 거 말하다가 그거 아니? 몰라?)

104005 @ 쉐를 헐 땐 흔 ᄉᆞᆯ 짜리 그 쉐안텐 뭐렌 ᄀᆞᆯ앗수과?(소를 할 땐 한 살 짜리 그 소한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104005 #2 금승.(금승.)
104005 @ 금성마씨?(금성이요?)
104005 #2 금승.(금승.)
104005 @ 금승. 그다음은? 두 술은?(금승. 그다음은? 두 살은?)
104005 #3 다근? 다갈? 다간?(다근? 다갈? 두습?)
104005 #2 허허허, 다간.(허허허, 두습.)
104005 @ 세 술은마씨?(세 살은요?)
104005 #3 사릅.(사릅.)
104005 @ 사릅.(사릅.)
104005 #2 네 술은 나릅.(네 살은 사릅.)
104005 @ 나릅.(나릅.)
104005 #2 다습.(다습.)
104005 @ 그다음은 엇엇수과?(그다음은 없었습니까?)
104005 #3 다슷 다음은 으슷 술 뒈가곡 기자 그것만 골으믄 두린 때만 골으믄 그다음부떠는.(다섯 다음은 여섯 살 돼가고 그저 그것만 말하면 어린 때만 말하면 그다음부터는.)
104005 @ 다섯 다음은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마씨?(다섯 다음은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요?)
104005 #2 응.(응.)
104006 @ 다섯까지만, 기구나예. 그다음엔 그 쉐 밧 갈 때는 쟁기가 잇엇잖아예? 그 쟁기에는 어떤 어떤 이름들이 이수과? 예를 들면 잠대가 잇고 그다음엔.(다섯까지만, 그렇군요. 그다음엔 그 소 밭 갈 때는 쟁기가 있었잖아요? 그 쟁기에는 어떤 어떤 이름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쟁기가 있고 그다음엔.)
104006 #3 잠대는.(쟁기는.)
104006 #2 벳, 보섯[89], 보섭 보섭.(볏, 보습, 보습 보습.)
104006 #3 영 심는 건 양주머리.(이렇게 잡는 건 양지머리.)
104006 #2 양주머리.(양지머리.)
104006 #3 웨영 흔 거ᄀᆞ란 그거 무시거꽈?(요렇게 한 그것보고는 그거 뭡니까?)
104006 #2 뭐 어떤 거?(뭐 어떤 거?)
104006 #3 오그라진 영 보섭 끼우는 거. 장기몽클.(오그라진 이렇게 보습 끼우는 거. 쟁깃술.)
104006 @ 예, 몽클.(예, 쟁깃술.)
104006 #2 몽클, 아래 껀. 몽클이렌 아래 꺼.(쟁깃술, 아래 그건. 쟁깃술이라고 아래 그거.)
104006 @ 아래 꺼예.(아래 그거요.)
104006 #3 벳, 보섭, 양줏머리.(볏, 보습, 양지머리.)

89) '보섯'은 '보섭'을 달리 발음한 듯하다.

104006 @ 예.(예.)
104006 #2 성헤.(성에.)
104006 #2 퉷주 이제.(됐지 이제.)
104006 @ 설치는 뭐꽈?(한마루는 뭡니까?)
104006 #3 설치도 이서? 무사?(한마루도 있어? 왜?)
104006 @ 아, 이건 다른 마을에서는 밑에 뭐 하는 걸 설치렌 골읍디다게.(아, 이건 다른 마을에서는 밑에 뭐 하는 걸 설치라고 말합디다.)
104006 #3 양줏머리ᄀᆞ라?(양지머리더러?)
104006 #2 아니, 그 아래 영 우이 세운 거?(아니, 그 알에서 이렇게 위에 세운 그거?)
104006 @ 예.(예.)
104006 #2 것ᄀᆞ라 여기 우리 뭐엥 헨다마는 그저 알로 우트레 영 헹.(그것더러 여기 우리 뭐라고 한다만 그저 알에서 위로 이렇게 해서.)
104006 #3 아, 거 설치렌 헤도 뒈크라. 영 그것ᄀᆞ라 무시거산디. 영 세와진 거 요영.(아, 그거 한마루라고 해도 되겠어. 이렇게 그것더러 뭐인지. 이렇게 세워진 거 요렇게.)
104006 #2 세와진 거 잇주. 그 뭐엔 헤낫저만은 그 이서.(세워진 거 있지. 그 뭐라고 했었지만 그 있어.)
104006 @ 잇지예?(있지요?)
104006 #3 잇긴 잇는디 뭐싼디.(있긴 있는데 뭔지.)
104006 #2 거 뭐엔 헤낫저만은 이져부런.(거 뭐엔 했었다만 잊어버렸어.)
104006 #3 양줏머리.(양지머리.)
104007 @ 그다음에 그 소 질메가 잇잖아예?(그다음에 그 소 길마가 있잖아요?)
104007 #2 어.(어.)
104007 @ 소 질메는 또 그 부분 부분에 대헤 이름은 뭐렌 골앗수과?(소 길마는 또 그 부분 부분에 대해 이름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104007 #3 쉐 질멧가지여 무시거여.(소 길맛가지야 무엇이야.)
104007 #2 아, 거 가지인데 그 저 등테엔 헤근엥에.(아, 거 가지인데 그 저 겉언치라고 해서.)
104007 #3 오그라진 쉐 질멧가지옌 헤근에.(오그라진 소 길맛가지라고 해서.)
104007 #2 이름이 다 뚜로 잇는디.(이름이 다 따로 있는데.)
104007 @ 예.(예.)
104007 #2 이름을 이져부런. 아, 이름은 생각나는 거.(이름을 잊어버렸어. 아, 이름은 생각나는 거.)
104007 @ 기억나는 거 혼 번 골아줘봅서.(기억나는 거 한 번 말해보세요.)
104007 #2 원간 오레어놓난 이건 뭐 이져부런.(원채 오래되어놓으니까 이건 뭐 잊어버렸어.)

104007 @ 혹시 그거 이신 거 지금 남긴 건 없지예?(혹시 그거 있는 거 지금 남긴 건 없지요?)

104007 #3 쉐 질멧가진 네귀난 다음에 네귀나민 시리어 시리민 검나, 검은 거.(소 길맛가진 네모난 다음에 네모나면 시려 시리면 검어, 검은 건.)

104007 #2 에, 에.(에, 에.)

104007 #3 아니, 그런 거 헐 때 거느림도 이섯주만은 엿날에 쉐 질멧가지 네 고망 난다.(아니, 그런 거 할 때 거느림도 있었지만 옛날에 소 길맛가지 네 구멍 난다.)

104007 #2 그 저, 쉐 질메 서로 저 영 그 질메 만드는 디 믄 이름이 이서.(그 저, 소 길마 서로 저 이렇게 그 길마 만드는 데 모두 이름이 있어.)

104007 @ 예.(예.)

104007 #2 이름이 잇는디 이져부런.(이름이 있는데 잊어버렸어.)

104007 @ 음. 그랫구나예. 그다음에는 쉐 멍에 잇잖아예?(음. 그랬군요. 그다음에는 소 멍에 있잖아요?)

104007 #2 어.(어.)

104007 @ 멍에 할 때 여기 코 끼우는 건 뭐렌 골으고, 걸치는 건 뭐렌 골으고?(멍에 할 때 여기 코 꿰는 건 뭐라고 말하고, 걸치는 건 뭐라고 말하고?)

104007 #3 망올.(부리망.)

104007 @ 예, 망올.(예, 부리망.)

104007 #3 응.(응.)

104007 @ 막는 건 망올. 또.(막는 건 부리망. 또.)

104007 #3 저, 이디 홀 때 코 꿰는 거.(저, 여기 할 때 코 꿰는 거.)

104007 @ 코 꿰는 건 뭐렌 골앗수과?(코 꿰는 건 뭐라고 말했습니까?)

104007 #3 코 꿰는 거?(코 꿰는 거?)

104007 @ 예.(예.)

104007 #2 코 꿰는 거 무신.(코 꿰는 거 무신.)

104007 #3 우찌야 코 꿰는 건 낸 쉔 코 꿰는 거옌만 골아나고.(어쨌든 코 꿰는 건 낸 소는 코 꿰는 거라고만 말했었고.)

104007 @ 예.(예.)

104007 #3 망올은 이디 시방ᄒᆞ는 거고. 멍에는 이디ᄒᆞ곡 요디ᄀᆞ란 무신거렌 골아낫수과, 요영.(부리망은 여기 시방 하는 거고. 멍에는 여기하고 요기더러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렇게.)

104008 #2 게메, 그거 이져부럿신디.(그러게, 그거 잊어버렸는데.)

104008 #3 거 윤유리로 헷수과?(거 윤노리나무로 했습니까?)

104008 #2 아니 윤유리로 ᄒᆞ나마나 그건 이름이.(아니 윤노리나무로 하나마나 그건 이름이.)

104008 #3 몰르크라, 이젠. 저 상욱인 잘 알거라.(모르겠어, 이젠. 저 상욱인 잘

알거라.)

104008 #2 아이고, 이져부런 이져부런. 그거 중간에 영 안 골아나부난.(아이고, 잊어버렸어 잊어버렸어. 중간에 이렇게 안 말해서서.)

104008 #3 그 사름은 총기도 좋고 우리보다 하영 알고.(그 사람은 총기도 좋고 우리보다 많이 알고.)

104008 #2 거, 맞다. 쉐 질메도 나가 문 만들엉 네중에 헤낫는디도 문딱 이져부런.(그거, 맞다. 소 길마도 내가 모두 만들어서 나중에 했었는데도 모두 잊어버렸어.)

104009 @ 아까 목산[90]이렌 헷잖아예? 목산은 어떵 관리헤낫수과?(아까 목산이라고 했잖아요? 목산은 어떻게 관리했었습니까?)

104009 #2 목산?(목산?)

104009 @ 예.(예.)

104009 #3 목장?(목장?)

104009 @ 아까 쉐 키우는 데를 뭐렌 골앗수과?(아까 소 키우는 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104009 #2, 3 목장(목장.)

104009 @ 목장, 예.(목장, 예.)

104009 #2 목장은 공동목장 헤 가지고.(목장은 공동목장 해 가지고.)

104009 @ 예, 예.(예, 예.)

104009 #2 부락에 하나 하믄 그 공동으로 관리를 ᄒᆞ주게.(부락에 하나 하면 그 공동으로 관리를 하지.)

104009 @ 예, 예.(예, 예.)

104009 #2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104009 @ 예.(예.)

104009 #3 목장 관리 ᄒᆞ는 사름 빌엉 ᄒᆞ주.(목장 관리는 ᄒᆞ는 사람 빌어서 하지.)

104009 #2 목장 조합장이 따루 이신 거주.(목장 조합장이 따로 있는 거지.)

104009 @ 예. 아, 게난 우리 쉐영 놈의 쉐영 다 ᄀᆞ치 이렇게 헤주는 거.(예. 아, 그러니까 우리 소랑 남의 소랑 다 같이 이렇게 해주는 거.)

104009 #2 어.(어.)

104009 @ 다 관리를 둬 가지고예?(다 관리를 두어 가지고요?)

104009 #2 응. 조합장이 따로 이서. 거고 지금 수망목장에도 저 분유지가 많주게, 저거 임대료 지금 내.(응. 조합장이 따로 있어. 그리고 지금 수망목장에도 저 분유지가 많거든, 저거 임대료 지금 내.)

104009 @ 아, 예.(아, 예.)

104009 #2 임대료 내근에. 지금 거난 그 조합원들만 임대료도 내고.(임대료 내

90) '목산'은 '목장'을 잘못알고 '목산'이라고 한 것임을 밝혀둔다.

서. 지금 그러니까 그 조합원들만 임대료도 내고.)

104009 @ 그 쉐 질러낫덴 헷잖아예? 쉐 질르멍 뭐 특별하게 기억나는 거 엇수과? 쉐 이져먹엉 막 촞으레 다니는 거라든가.(그 소 길러났다고 했잖아요? 소 길으면서 뭐 특별하게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소 잊어먹고 막 찾으러 다니는 거라든가.)

104009 #2 난 쉐 촞이렌 벨로 이져부렁 촞이레 뎅겨나진 아녓는데.(난 소 찾으러 별로 잃어버려 찾으러 다녀나진 않았는데.)

104009 #3 우리 쉐들은 놈의 쉐추룩 아니영 목장에 혼 번 영 간 보난, 막 이디 구렵 짱 헤도 오랑 부량한 쉐들은 막 난리치는디 문덜 이녁 거나 놈의 거나 고집헌 날은 다 모야지면은 쉐가 이녁 수늬륭[91]마다 이녁 혼 집이 수룩 혼디 강 ᄒᆞ찡 영 무지성 다 이서.(우리 소들은 남의 소처럼 안 해서 목장에 한 번 이렇게 가서 보니까, 막 여기 그룹 짜서 해도 와서 불량한 소들은 막 난리치는데 모두들 이녁 거나 남의 거나 고집한 날은 다 모아지면 소가 이녁 '수늬륭'마다 이녁 한 집에 '수룩' 함께 가서 가지런히 이렇게 무리지어서 다 있어.)

104009 @ 아.(아.)

104009 #3 게난 우리 촞이메 힘들어보도 아녕 그렇게 아까와.(그러니까 우리 찾으며 힘들어보지도 안 해서 그렇게 아까워.)

104009 #2 아니 겨울이나 여름이나 끼럭[92] 혼밧듸만 그축 헤놩은. 혼수룩정[93] 이서, 거의.(아니 겨울이나 여름이나 끼리끼리 한군데만 그처럼 해놓아서는. '혼수룩'져 있어, 거의.)

104009 @ 아.(아.)

104009 #3 혼수룩정 이서. 놈의 쉐들은 난리가 나불고.('혼수룩'져 있어. 남의 소들은 난리가 나버리고.)

104009 #2 그디서 그 집이서 나쁜 게 시민 지랄허지만 나쁜 거 엇이민.(거기서 그 집에서 나쁜 게 있으면 지랄하지만 나쁜 거 없으면.)

104009 #3 강 보민 영 수리지영[94] 혼디 시민, 아이고 어찌도 아까운디 아까와.(가서 보면 이렇게 '수리지어서' 함께 있으면, 아이고 어찌도 아까운지 아까워.)

104009 #2 **** 혼쉐 새끼이기 때문에.(**** 한소 새끼이기 때문에.)

104009 @ 아, 아.(아, 아.)

104009 #2 그 새끼 어찌케 보민 나왕 키우고 나왕 키우고 그 그 남쉐, 우리 나 그추룩 헨에 여디 저 쉐, 밧, 쉐영 밧 막 바꾸겐도 헤난 사름인디.(그 새끼 어떻게 보면 낳아 키우고 낳아 키우고 그 그 낳는 소, 우리 내가 그처럼 해서 여기 저 소, 밭, 소하고 밭 막 바꾸자고 했던 사람인데.)

104009 @ 음.(음.)

---

91) '수늬륭'은 '수룩'을 달리 표현한 듯하다. '수룩'은 '수룩짓다'의 의미로 꿩 따위가 서로 벗을 거느려 떼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소들이 서로 모여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92) '끼럭'은 '끼리끼리'를 말한 듯하다.

93) '혼수룩정'은 '수룩짓다'의 의미에 '혼' 즉 '하나'의 의미가 덧붙여지며 한 곳에 소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의미한다.

94) '수리지영'은 '수룩짓다'와 같은 의미로 쓰였다. 표준어 '무리지어'에 대응하는 말이다.

104009 #2 새끼를 그렇게 매 해 나거든 새끼를 잘나는 쉐는.(새끼를 그렇게 매 해 나거든 새끼를 잘나는 소는.)

104009 @ 아. (아.)

104009 #2 그니까 그걸 저 그렇게 아까워 헤 가지고 어떤 건 잇다근에 어디 강 두 개, ᄒᆞ나 낳아근에 ᄒᆞ는 쉐도 잇는디, 새끼를 그렇게 잘 나니까 그걸 지신디 풀렌만ᄒᆞ멍 헤낫는디 그런 쉐가 아덜ᄒᆞ민[95] 재수고.(그니까 그걸 저 그렇게 아까워 해 가지고 어떤 건 있다가 어디 가서 두 마리, 하나 낳아서 하는 소도 있는데, 새끼를 그렇게 잘 낳으니까 그걸 자기에게 팔라고만 했었는데 그런 소가 '적중하면' 재수고.)

104009 @ 음.(음.)

104009 #3 쉐 뒘은 ᄆᆞ음대로 못헤.(소 됨은 마음대로 못해.)

104009 #2 거고 요새는 쉐 전부 수정헹 ᄒᆞ니깐 숫쉐가 필요 없는데 그때 우리는 수정은 아녀고.(그리고 요새는 소 전부 수정해서 하니까 수소가 필요 없는데 그때 우리는 수정은 안하고.)

104009 @ 그때 그 쉐 살 때 송아지 살 때 아니면 팔 때 송아지 그 한 마리에 얼마나 헤난 거 기억남수과?(그때 그 소 살 때 송아지 살 때 아니면 팔 때 송아지 그 한 마리에 얼마나 했던 거 기억납니까?)

104009 #2 아이고 아이고 그건 알 수가 없어. 원간 오래놓난.(아이고 아이고 그건 알 수가 없어. 워낙 오래놓으니까.)

말 기르기

104011 @ 그믄예 말 기르는 걸로 넘어가게예. ᄆᆞᆯ은 게민 어떵키웟수과?(그러면요 말 기르는 걸로 넘어갈게요. 말은 그러면 어떻게 키웠습니까?)

104011 #2 우리 ᄆᆞᆯ 안 길러나부난 알아지크라.(우리 말 안 길러버렸었어 알아지겠나.)

104011 @ ᄆᆞᆯ 안 길러나부난예. ᄆᆞᆯ의 종류들은 알아지겠지예?(말 안 길렀었어요. 말의 종류들은 알겠지요)

104011 #2 어.(어.)

104012 @ 어떤 어떤 종류가 이서수과?(어떤 어떤 종류가 있었습니까?)

104012 #2 유마, 적다, 가라ᄆᆞᆯ. 또 뭐 엇어난가? 백메, 흰색깔 백마엔 헤난.(유마, 적다마, 가라말. 또 뭐 없었었나? 백마, 흰 색깔 백마라고 했었어.)

104012 #3 얼룩ᄆᆞᆯ?(얼룩말?)

104013 @ 좋수다예. 주로 ᄆᆞᆯ로는 어떤데 ᄆᆞᆯ 부렷수과? ᄆᆞᆯ 부릴 때.(좋습니다. 주로 말로는 어떤데 말 부렸습니까? 말 부릴 때.)

104013 #2 아니 그난, 그전에 그전에는 그저 올케, 밧 ᄇᆞᆯ리젠 헤근에 적마, 겡

95) '아덜ᄒᆞ민'은 일본어 'あたり'맞음, 적중, 성공함, 단축, 감축 등 여러 의미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적중'의 의미로 쓰였다고 볼 수 있다.

질르곡 ᄒᆞ민 마 게 걸름 ᄇᆞᆯ르민 헨게 우리 대에는 그른 게 엇으니까.(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그전에는 그저 옳이, 밭 밟으려고 해서 적마, 그래서 기르고 하면 마 그래 거름 밟으면 해서 했는데 우리 대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104013 @ ᄆᆞᆯᄀᆞ레왕 돌릴 때 ᄆᆞᆯ 멩 헷덴 헷잖아예?(연자맷간 돌릴 때 말 매서 했다고 했잖아요?)

104013 #2 둠은, 우리는 우리 두린 때 벳게는 우리는 ᄆᆞᆯᄀᆞ레왕에.(매닮은, 우리는 우리 어린 때 밖에는 우리는 연자맷간에.)

104013 @ 게난, 두린 때 두린 때.(그러니까, 어린 때 어린 때.)

104013 #2 게난에 그건 무신 우리 부모 네가 헷지, 우리가 안헤나부니까.(그러니까 그건 무슨 우리 부모 네가 했지, 우리가 안했어버리니까.)

104013 @ 예, 예.(예, 예.)

104013 #2 모른다 이거주.(모른다 이거지.)

104013 @ 아.(아.)

104013 #2 게난 저 사삼사건 이후에는.(그러니 저 사삼사건 이후에는.)

104013 @ 예.(예.)

104013 #2 사삼사건 때 ᄆᆞᆯᄀᆞ레 전부 타버리니깐.(사삼사건 때 연자매 전부 타버리니까.)

104013 @ 예, 예예.(예, 예예.)

104013 #2 그루 후엔 ᄆᆞᆯᄀᆞ레엔 헌 게 엇어부리니깐.(그 후엔 연자매라고 한 게 없어버려서.)

104013 @ 아, ᄆᆞᆯᄀᆞ레도 다 태와부럿구나예.(아, 연자매도 다 태워버렸군요.)

104013 #3 싹, 다.(싹 다.)

104013 #2 여기 싹, 다 완전 다 타버리니까.(여기 싹, 다 완전 다 타버리니까.)

104013 #3 얼마나 고셍 헤여난 아이고.(얼마나 고생 했었나 아이고.)

104013 #2 ᄆᆞᆯᄀᆞ레엔 헌 게 어섯주. 사삼사건 이후엔. 근디 저 저기 하나 안탄 거 서 가지고 요기 견본으로 헨에 수망리 하나 갓다놔낫지 그건 뭐.(연자매라고 한 게 없었지. 사삼사건 이후엔. 그런데 저 저기 하나 안탄 거 있어 가지고 요기 견본으로 해서 수망리 하나 같다놨었지 그건 뭐.)

104013 @ 이젠 그거 엇수과?(이젠 그거 없습니까?)

104013 #2 없어.(없어.)

104014 @ ᄆᆞᆯ은 쉐하고 달라 가지고 ᄆᆞᆯ 나이는 어떵 헤낫수과? 나이, 한 살 두 살 할 때 ᄆᆞᆯ 나이는 어떵 정헤낫수과?(말은 소하고 달라 가지고 말 나이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나이, 한 살 두 살 할 때 말 나이는 어떻게 정했었습니까?)

104014 #3 사람이영 ᄀᆞ뜬덴 헤나서, ᄆᆞᆯ은.(사람이랑 같다고 했었어, 말은.)

104014 #2 아니, 겐디 부름을 뭐엔 불러나신고. ᄆᆞᆯ 안 질러나부난 알아지크라.(아니, 그런데 부름을 뭐엔 불렀었는고. 말 안 길러나서 알아지겠나.)

104014 @ 음.(음.)

먹이

104016 @ 그믄예 넘어갈게예. 쉐나 말 먹이들은 어떤 것들이 이수과?(그러면요 넘어갈게요. 소나, 소나 말 먹이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4016 #2 촐 베당 헷주 우린.(꼴 베다가 했지 우린.)

104016 @ 촐 베다 주고예? 아까 감저꿀 주고예?(꼴 베다 주고요? 아까 고구마 덩굴 주고요?)

104016 #3 응.(응.)

104016 #2 아니 게니깐.(아니, 그러니까.)

104016 @ 무신 존가 뭔가도 조 찍도.(무슨 존가 뭔가도 조 짚도.)

104016 #2 응. 곡식 찍은 다 줘시니까.(응. 곡식 짚은 다 주었으니까.)

104016 #3 다 줘.(다 줘.)

104016 @ 아, 경헷구나예. 겨울엣 거는 촐 베어낫당 주고예?(아, 그랬군요. 겨울엣 거는 꼴 베어놨다가 주고요?)

104016 #2, 3 응.(응.)

104016 #2 아, 다 겨울이 꺼주.(아, 다 겨울에 거지.)

104017 @ 기꽈? 촐은 어떵 준비헤낫수과?(그래요? 꼴은 어떻게 준비했었습니까?)

104017 #2 아, 게난 촐은, 지금 낫이엔 ᄒᆞᆫ 거 모르지? 낫.(아, 그러니까 꼴은, 지금 낫이라고 한 거 모르지? 낫.)

104018 @ 호미마씨?(호미요?)

104018 #3 아니 아니, 큰 거 촐 비는 거.(아니 아니, 큰 거 꼴 베는 거.)

104018 @ 우리가 제주도 에서는 그걸 호미렌 안헤마씨?(우리가 제주도 에서는 그걸 호미라고 안했나요?)

104018 #3 것ᄀᆞ라 낫당 육지사람 ᄒᆞ는 거 닮아라.(것보고 낫이라고 육지사람 하는 거 같아라.)

104018 #2 아니, 낫이 낫이 신디 몰른디 사진 ᄒᆞ나 찍젠?(아니 낫이 낫이 있는지 모르는데 사진 하나 찍을래?)

104018 @ 나중에 갈 때 찍으쿠다. 호미하고 또 다른 거꽈?(나중에 갈 때 찍겠습니다. 호미하고 또 다른 겁니까?)

104018 #2 오. 낫이엔 우리 낫이엔 ᄒᆞ는 건, 사서 바로 비는 거주.(어. 낫이라고 우리 낫이라고 하는 건, 서서 바로 베는 거지.)

104018 #3 산 영 헹 비는 거.(서서 이렇게 해서 베는 거.)

104018 @ 아. 건 낫이렌 ᄀᆞᆯ앗수과?(아. 그건 낫이라고 말했습니까?)

104018 #2 아니, 게난 그 육지선 낫이 호미. 지금 여기 호미가 낫인데.(아니, 그러니까 그 육지선 낫이 호미. 지금 여기 호미가 낫인데.)

104018 @ 예, 예예.(예, 예예.)

104018 #2 여기는 그것 ᄀᆞ라 낫이엔 ᄒᆞ고.(여기는 그것 더러 낫이라고 하고.)

104018 @ 아.(아.)

104018 #2 호미엔 ᄀᆞᆫ곡 검질메는 건 ᄀᆞᆯ갱이렌 ᄒᆞ는데.(호미라고 말하고 김매는 건 호미라고 하는데.)

104018 @ 예, 예예.(예, 예예.)

104018 #2 육지서는 그 ᄀᆞᆯ갱이렌 ᄒᆞ는 말은 엇고 저 호미 ᄀᆞ랑 낫이렌 ᄒᆞ주게.(육지서는 그 '골갱이'라고 하는 말은 없고 저 호미 보고 낫이라고 하지.)

104018 @ 예, 예예.(예, 예예.)

104018 #2 낫이렌 ᄒᆞ는디 이디 여기서는 낫으로 촐 벳는데.(낫이라고 하는데 여기 여기서는 낫으로 꼴 벴는데.)

104018 @ 예.(예.)

104018 #2 나도 촐 삼백 바리까지 헤본 사람인데.(나도 꼴 삼백 바리까지 해봤던 사람인데.)

104018 @ 예.(예.)

104018 #2 낫 꾼 ᄒᆞᆫ 뻔에 열사름 데령 가믄 한 사람에 열발이는 비거든.(낫 꾼 한 번에 열 사람 데려서 가면 한 사람에 열 바리는 베거든.)

104018 @ 예.(예.)

104018 #2 경헤근에 그.(그렇게 해서 그.)

104018 @ 바리라는 건 무슨 말이꽈?(바리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104018 #2 응?(응?)

104018 @ 열 바리 하믄 바리가?(열 바리 하면 바리가?)

104018 #2 ᄒᆞ나에 시끄는 거, 쉐 ᄒᆞ나에 시끄는 거.(하나에 싣는 거, 소 하나에 싣는 거.)

104018 @ 쉐구르마에 시끄는 게 ᄒᆞᆫ 바리꽈?(우마차에 싣는 게 한 바립니까?)

104018 #2 소 하나에 시끄는 거 마차에 시끄는 게 아니고.(소 한 마리에 싣는 거 마차에 싣는 게 아니고.)

104018 @ 아.(아.)

104018 #2 게니까 그 낫으로 벤 건 삼백 단 ᄒᆞᆫ 바리렌 ᄒᆞ주게.(그러니까 그 낫으로 벤 건 삼백 단 한 바리라고 하거든.)

104018 @ 아.(아.)

104018 #2 아, 삼십 단 서른 단.(아, 삼십 단 서른 단.)

104018 @ 아.(아.)

104018 #3 서른 단이 ᄒᆞᆫ 바리.(서른 단이 한 바리.)

104018 #2 서른 단이 ᄒᆞᆫ 바리.(서른 단이 한 바리.)

104018 #3 낫으로 베는 건 막 훌거.(낫으로 베는 건 막 굵어.)

104018 #2 게난 서른 단이 ᄒᆞᆫ 바리인디 백 바리민 삼백 바리민 멧 단이라 계산 헤봐. 얼마니나 만히 헤신가?(그러니 서른 단이 한 바리인데 백 바리면 삼백 바리면

몇 단이야 계산해봐. 얼마나 많이 했는가?)

104018 @ ᄒᆞ루에마씨?(하루에요?)

104018 #2 아니, 일년.(아니, 일년.)

104018 @ 아, 아아.(아, 아아.)

104018 #3 촐 비는 거는 우리 이틀이민 그 삼백 바리 끗나.(꼴 베는 거는 우리 이틀이면 그 삼백 바리 끝나.)

104018 @ 예.(예.)

104018 #3 견디, 나가 지 굴을 일이 핫주. 무사 하는공 ᄒᆞ민, 그 시철에 저 큰왓[96] 밧이렌 ᄒᆞ는 신흥목장[97]인디, 정심이 열 사름 ᄒᆞᆯ 거 두 번 먹으민 쑤무사름 나시 정심을 정 그 밧듸 전 올라나서. 나 그 촐 ᄒᆞ메 다리 다 병신 뒈서.(그런데, 내가 자기 말할 일이 많지. 왜 많은가 하면, 그 시절에 저 '큰왓' 밭이라고 하는 '신흥목장'인데, 점심이 열 사람 먹을 거 두 번 먹으면 스무 사람 깃의 점심을 져서 그 밭에 져서 올랐었어. 내가 그 꼴 하며 다리 다 병신 됐어.)

104018 @ 음.(음.)

104018 #3 물도 저디 저 내창 물 먼 디 거 지고, 그 애기들 키우곡 경ᄒᆞ멍 ᄒᆞ난 이 다 몽골아[98]. 촐왓디 밥헤 가미 못 전뎌, 그거를 짊어정 가야, ᄒᆞ루 정심 열시뒈민 ᄒᆞᆫ 번 먹고, 정심 때 뒈민 먹고 경헤야.(물도 저기 저 냇물 먼 데 것 지고, 그 애기들 키우고 그렇게 하며 하니까 이 다 '몽골아'. 꼴밭에 밥해 가는 게 못 견뎌, 그것을 짊어져서 가야, 하루 점심 열시되면 한 번 먹고, 점심 때 되면 먹고 그렇게 해야.)

104018 @ 예.(예.)

104018 #3 촐 비는 거는 경헤산디, 그걸 짊어젓만 가낫주게. 촐 비렌 아방[99]네 새벡이 보네동, 조반 새벡조반 헤근에 먹영 보네동, 정심이영 온조름에 가는 뒈게로 미처가멩 경 얼먹어난. 그거 촐 홈에 얼먹어난.(꼴 베는 거는 그렇게 해선지, 그걸 짊어져서만 갔었지. 꼴 베러 '아버지'네 새벽에 보내두고, 조반 새벽조반 해서 먹여 보내놓고, 점심이랑 온 꽁무니에 가는 되게 미쳐가면서 그렇게 얼먹어났어. 그거 꼴 함에 얼먹어난.)

104018 @ 갈 때 씨아주방이나 씨누이나 ᄀᆞ찌 가민 뒐 거 아니꽈?(갈 때 시아주버니나 시누이나 같이 가면 될 거 아닙니까?)

104018 #2 씨누이는 ᄒᆞ나토 엇인 집이. 아들만 ᄋᆞ슷 성제 이신디 시집오랑 그 고셍은 다 헤영. 또 씨어멍 노릇헹 그 씨아주방들 ᄆᆞᆫ 풀아주어. ᄆᆞᆫ 풀고 ᄒᆞ단, 씨아주방이 ᄋᆞ슷겐디 지금 하르방[100]ᄒᆞ고 ᄒᆞ나밧긘 안 살안, 둘리예.(시누이는 하나도

96) '큰왓'의 '왓'은 밧(田)이 변한 형태로, '왓'이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없고, '물왓·대왓·촐왓'처럼 합성어를 이룰 때만 실현된다. 여기서 '큰왓'은 '큰촐왓' 즉 '큰 꼴밭'을 뜻한다.

97) '신흥목장'은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에 있는 목장을 말한다.

98) '몽골아'는 기본형이 '몽글다'이다. '몽글다'는 물건이 너무 쓰이어 다 닳아지고 모지라짐을 뜻한다는 의미와 괴로움을 당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다는 의미가 있다. 여기서는 너무 많고 험한 노동에 몸이 다 못쓰게 됐다는 의미로 쓰였다.

99) '아방'은 아버지를 뜻한다. 여기서는 발화자의 남편을 의미한다.

없는 집. 아들만 여섯 형제 있는데 시집와서 그 고생은 모두 해. 또 시어머니 노릇 해 그 시아주버니들 모두 팔아주어. 모두 팔고 하다가, 시아주버니가 여섯 사람인데 지금 '할아버지'하고 하나밖에 안 살았어, 둘에.)

104018 @ 게난예.(그러게요.)

104018 #3 게난 제사, 오란 보난에 문 씨누인 엇고 동세덜토 엇고 ᄒᆞ난에 어떵헌 게 먼정공 ᄒᆞ민 제사 때 뒈면은 판 문 밥 ᄒᆞᆫ 여난 열뎃겐 넘어 거렁, 상에 올릴 거 거려동 국거리고 국거리동 나 혼자만 문, 하이고.(그러니 제사, 와서 보니까 모두 시누인 없고 동세들도 없고 하니까 어떻게 한 게 먼저인가 하면 제사 때 되면 판 모두 밥 한 열댓 개는 넘게 거려서, 상에 올릴 거 거려두고 국거리고 국 거려놓고 나 혼자만 모두, 하이고.)

104019 @ 게난 그 촐 운반할 땐 어떵 운반헷수과?(그러니까 그 꼴 운반할 땐 어떻게 운반했습니까?)

104019 #2, #3 마차.(마차.)

104019 @ 말이 끄는 거마씨?(말이 끄는 거요?)

104019 #2 응.(응.)

104019 @ 물 끄는 거에 실어근에예?(말 끄는 것에 실어서요?)

104019 #2 응.(으.)

104019 #3 우린 물은 엇고 쉐로 쉐만.(우린 말은 없고 소로 소만.)

104019 @ 알았습니다. 그다음에는 그 저장은 어떵 헷수과? 촐 비엉 오잖아예?(알았습니다. 그다음에는 그 저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꼴 베어서 오잖아요?)

104019 #2 어.(어.)

104019 @ 마차에 시껑 오잖아예?(마차에 실어서 오잖아요?)

104019 #2 어.(어.)

104019 @ 그민 그 촐은 어떵 헤난마씨?(그러면 그 꼴은 어떻게 했었나요?)

104019 #2 촐 눌이엔 헨 게 잇주.(꼴 가리라고 하는 게 있지.)

104019 #3 시작헤 놓면 ᄆᆞ끄도록 누는 게 잇주.(시작해 놓으면 마치도록 쌓는 게 있지.)

104019 @ 게민 그 촐은 말리지 안헤도 뒈마씨?(그러면 그 꼴은 말리지 않아도 되나요?)

104019 #2 아, 촐은 그디서.(아, 꼴은 거기서.)

104019 @ 아, 낫으로 비어놩.(아, 낫으로 베어놓고.)

104019 #2 낫으로 비믄 오늘 비믄 날이 창창헤야 바람이 이시믄 낼 무끄고.(낫으로 베면 오늘 베면 날이 창창해야 바람이 있으면 낼 묶고.)

104019 @ 예.(예.)

104019 #2 날이 어쓱 축축허민 낼 못 무껑 모리 무끄주게.(날이 아쓱 축축하면 낼 못 묶어서 모레 묶지.)

---

100) '하루방'은 할아버지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발화자의 남편을 의미한다.

104019 @ 아, 경헷구나예.(아, 그랬군요.)

104019 #2 게난 그때 우선 비젠 ᄒᆞ믄 우선 그 날짜부터 날씨부터 보는 거야. 낼 날이 창창히 좋다 헤야 비는 거.(그러니까 그때 우선 베려고 하면 우선 그 날짜부터 날씨부터 보는 거야. 낼 날이 창창히 좋다고 해야 베는 거.)

104020 @ 경 헷구나예. 그믄 촐 물리왕 무꺼놩 눌 눌어 가지고 이제 그 체에 놩 물 멕여야 뒈잖아예? 그 밥 쉐 것 만들 땐 그믄 어떵 헤낫수과? 그냥 촐 무끈 거 영 주믄 먹엇수과, 걸로 뭔가 다시 뭔가를 만들지 않고?(그렇게 했군요. 그러면 꼴 말려서 묶어놓고 가리 가려 가지고 이제 그 체에 넣어서 말 먹여야 되잖아요? 그 밥 소 먹이 만들 땐 그러면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냥 꼴 묶은 그거 이렇게 주면 먹었습니까, 그걸로 뭔가 다시 뭔가를 만들지 않고?)

104020 #3 아니, 영 그때 촐 만 영 줭만 내불곡, ᄒᆞ루 ᄒᆞᆫ 번 물 강 멕여오곡 경 헤여.(아니, 이렇게 그때 꼴만 이렇게 줘서만 내버리고, 하루 한 번 물 가서 먹여오고 그랬어.)

104020 @ 그러면 지대로 뜯엉 썰엉 먹엉예?(그러면 자기대로 뜯어서 썰어서 먹어요?)

104020 #2 아 게니까, 그 때는 지금은 그런디 쉐가 없는데 그때는 그때 소는 봄 나도록 목숨 부떠나민 잘뭰 거.(아 그러니까, 그 때는 지금은 그런데 소가 없는데 그때는 그때 소는 봄 나도록 목숨 붙어있으면 잘된 거.)

104020 #3 막 죽어.(마구 죽었어.)

104020 @ 아.(아.)

104020 #2 게, 그추룩 헤민, 영양가가 엇인 거 주어놓니까 쉐가 올케 배고프니까 먹엇지.(그래, 그처럼 하면, 영양가가 없는 거 주어놓으니까 소가 옳이 배고프니까 먹었지.)

104020 @ 음.(음.)

104020 #2 할 수없이 먹은 거라.(할 수없이 먹은 거야.)

104020 @ 음.(음.)

104020 #2 지금은 막 사료들 막 사다주지만 그땐 그걸 못헷거든.(지금은 막 사료들 막 사다주지만 그땐 그걸 못했거든.)

104020 @ 경헷구나예. 영 썰어서 멕이지도 안 헷수과?(그랬군요. 이렇게 썰어서 먹이지도 안 했습니까?)

104020 #2 아.<고개를 절레절레.>(아.<고개 절레절레.>)

104020 @ 경헷구나예.(그랬군요.)

104020 #2 거 쉐가 ᄒᆞ나두 개라야 경도 허지게.(거 소가 한두 마리라야 그렇게도 하지.)

104020 @ 맞수다게, 게난.(맞습니다, 그러니까.)

104020 #2 거고 지금은 수도로 전부 뗑겨 가지고, 수도 탁 틀민 그대로 물 다 주주게, 지금 사름들은. 지금 허난에 쉐 물 멕이레도 안 가, 지금은.(그리고 지금은

수도로 전부 당겨 가지고, 수도 탁 틀면 그대로 물 다 주지, 지금 사람들은. 지금 하니까 소 물 먹이려도 안 가, 지금은.)

104020 @ 게난예, 이제 맛수다예. 집집마다 다 뭐이시난.(그러게요, 이제 맞습니다. 집집마다 전부 뭐있으니까.)

104020 #2 이제 쉐도 그레 뗑겨근에당에 턱 네여그민 엥간이 ᄒᆞ민 딱 꺼불고 지금은. 우리는 거 ᄒᆞ루 ᄒᆞᆫ 번 꼭 시간 뒈민 물 멕이레 가야지 하천에.(이제 소도 그리로 당겨다가 턱 내밀면 어지간히 마시면 딱 잠그고 지금은. 우리는 그거 하루 한 번 꼭 시간 되면 물 먹이러 가야지 하천에.)

104020 @ 그 촐 빌 때 그 점심 헤날르젠 허난 그때 막 힘들엇잖아예?(그 꼴 벨 때 그 점심 해 나르려 하니까 그때 막 힘들었잖아요?)

104020 #3 아이고, 힘들어.(아이고, 힘들어.)

104021 @ 그 힘든 거 ᄒᆞ꼼만 다시 한 번 예기혜줘봅서. 그니까 무사 열시에 점심 먹고 또 열두시에 또 먹엇수과?(그 힘든 거 조금만 다시 한 번 얘기해주세요. 그러니까 왜 열시에 점심 먹고 또 열두시에 또 먹었습니까?)

104021 #3 전이 낫질ᄒᆞ난 시간뭼 세에 배고파.(전에 낫질하니까 시간되는 사이에 배고파.)

104021 @ 배고프면 그때는 간단하게 무신 뭐.(배고프면 그때는 간단하게 무슨 뭐.)

104021 #3 그런 거 뭐 이서.(그런 거 뭐 있어.)

104021 @ 다 밥으로만 헷수과?(다 밥으로만 했습니까?)

104021 #3 어, 밥 멕이주.(어, 밥밖에 없지.)

104021 #2 아니 그때는 살림 사는 게 그런 것이 엇이 간단히 헐 뭐 심은 서? 엇고, 아침 일찍 그 인부들이 일찍 왕 조반 먹어아정 가불민 그.(아니 그때는 살림 사는 게 그런 것이 없이 간단히 할 뭐 있기는 있어? 없고, 아침 일찍 그 인부들이 일찍 와서 조반 먹어서 가버리면 그.)

104021 #3 그 촐 헐 때도 보리쏠에 곤쏠 쪼곰씩 서껑 놓고 혜서.(그 꼴 할 때도 보리쌀에 흰쌀 조금씩 섞어서 놓고 했어.)

104021 음.(음.)

104021 #3 아이고 쏠밥이 어디 서.(아이고 쌀밥이 어디 있어.)

104021 #2 그만큼 살기가 힘들어 놓난 그런 정신 저런 정신, 쌀이라 지금하곤 하늘과 땅이라 놓난.(그만큼 살기가 힘들어 놓으니까 그런 정신 저런 정신, 쌀이라 지금하곤 하늘과 땅이라 놓아서.)

땔감

104022 @ 맞수다. 그다음에는 예 그 저 그 옛날엔 불 ᄉᆞ망 밥 혜먹엇잖아예? 불ᄉᆞᆷ을 때 그 땔감은 어떤 종류들이 이섯수과?(맞습니다. 그다음에는 그 저 그 옛날엔 불 때서 밥해 먹었잖아요? 불 땔 때 그 땔감은 어떤 종류들이 있었습니까?)

104022 #3 아이고, ᄒᆞ쏠만 추우나 날이 희령 제라ᄒᆞ게 밧듸 강 일 못하게 뒈민 거 낭 강 저당.(아이고, 조금만 추우나 날이 흐려서 제대로 밭에 가서 일 못하게 되면 그거 나무 가서 져다가.)

104022 @ 낭 강 저당.(나무 가서 져다가.)

104022 #3 응. 낭, 낭. 나무 저당 ᄒᆞ곡 그 무시거ᄒᆞᆫ 사름은 검질도 비엉 누렁낫당 짇곡.(응. 나무, 나무. 나무 져다가 하고 그 뭐한 사람은 잡풀도 베어서 쌓아놨다가 때고.)

104022 @ 예.(예.)

104022 #3 불 솜앙 그거 ᄒᆞ곡, 낭은 겨울에 ᄒᆞᆫ데 낭 지레 가민 날도 하주만은, 어디 밧듸 강오당 보민 엠에꺼 믄 짓고 ᄒᆞ민, 에엄[101]에 반찌룽[102] 헷죽. 이젠 ᄉᆞ뭇 사락헤도[103] 경 ᄒᆞ멍 살앗주게.(불 때서 그거 하고, 나무는 겨울에 추운데 나무 지러 가면 날도 많지만, 어디 밭에 가오다 보면 가에 것 모두 때버리고 하면, '가'가 '깨끗'했지', 이젠 사뭇 '흔해도' 그렇게 하면서 살았지.)

104022 #2 게난 쉐데취[104]엥 헤근엥에, 쉐 먹어난 거 찌꺼러기 그거.(그러니까 '쉐데취'라고 해서, 소 먹어난 거 찌꺼기 그거.)

104022 @ 아까그거 뭐마씸?(아까 그거 뭐라고요?)

104022 #2 쉐데취, 소 먹단 찌끄러기 그거 헤다근에 갖다근에 때곡.('쉐데취', 소 먹다가 남은 찌꺼기 그거 해다가 갖다가 때곡.)

104022 #3 나무 저당 때곡.(나무 져다가 때고.)

104023 @ 지들커[105]종류로는 낭 허당 때기도 하고 아까 쉐데취로도 헤신디 어 혹시나 쉐똥이나 ᄆᆞᆯ똥 그거헤당은 안 헷수과?('땔감' 종류로는 나무 해다가 때기도 하고 아까 '쉐데취'로도 했는데 어, 혹시나 소똥이나 말똥 그거 해다가는 안 했습니까?)

104023 #3 그거는 굴목[106] 짇어.(그거는 '굴목' 때.)

104023 #2 그건 굴목.(그건 '굴목'.)

104023 @ 굴목 짇어예?('굴목' 때요?)

104023 #3 응 굴목 때지.(응 굴목 때지.)

104023 @ 게난 소똥이나 말똥도 주우레 다녀봣수과?(그러니 소똥이나 말똥도 주우러 다녀봤습니까?)

104023 #3 ᄆᆞᆯ똥 헤다근에 여 솟듸.(몰똥 해다가 여기 솥에.)

104023 #2 그거 완전 ᄆᆞᆯ류왕.(그거 완전 말려서.)

---

101) '에엄'은 '옆', '가', '근처'를 뜻한다. 여기서는 길'가'나 밭'가'를 말한 듯하다.

102) '반찌룽'은 ㉠ 구김살이나 울퉁불퉁한 데가 없고 반반함. ㉡ 먼지나 어지러운 것이 없이 깨끗함. 여기서는 ㉡의 뜻으로 쓰였다.

103) '사락하다'는 물건이 겉이 미끄럽지 못하고 좀 거친 것을 뜻하나 여기서는 '흔하다'는 의미로 쓰였다.

104) '쉐데취'는 소가 먹다가 남은 꼴의 찌꺼기를 말한다.

105) '지들커'는 장작, 검불 따위의 불을 때는데 쓰는 재료를 말한다. 표준어 '땔감'에 대응하는 말이다.

106) '굴목'은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 밑 그 바깥 부분을 말한다.

104023 @ 음, 물리와근에예?(음, 말려서요?)

104023 #3 물리왕 굴목 때는 거.(말려서 '굴목' 때는 거.)

104024 @ 그 저기 소나무 잎들 막 떨어지잖아예?(그 저기 소나무 잎들 막 떨어지잖아요?)

104024 #3 솔입.(솔잎.)

104024 @ 솔입예, 솔입이렌 헷수과?(솔잎이요, 솔잎이라고 했습니까?)

104024 #3 응, 솔입.(응, 송잎.)

104024 @ 솔입 긁으레도 다녀낫수과?(솔잎 긁으러 다녔었습니까?)

104024 #2 응, 헷지.(응, 했지.)

104024 #3 아, 그거는 솔입 걷으레 뎅기는 건 저 헤벤사름이주, 웃드렌[107] 솔입 걷으레 가느니 저 웃듸 검질[108] 강 베당 ᄒᆞ주.(아, 그거는 솔잎 걷으러 다니는 건 저 해변사람이지, '웃드르'에는 솔잎 걷으러 가느니 저 위의 잡풀 베다가 하지.)

104024 @ 아, 경헷구나예.(아, 그랬군요.)

104024 #2 아, 그니까 이제 헤벤이 사름덜은 검질 빌 듸가 가까운 듸 읏거든. 경헹 낭밧듸 강 솔입 전부 걷어당은에 허는디, 여기는 솔입 걷는 사람 별로 없주.(아, 그니까 이제 해변의 사란들은 잡풀 벨 데가 가까운 데 없거든. 그렇게 해서 숲에 가서 솔잎 전부 걷어다가 하는데, 여기는 솔잎 걷는 사람 별로 없지.)

104024 @ 음.(음.)

104024 #3 검질ᄒᆞ민 불껑 쓰국게.(잡풀하면 재 쓰고.)

104024 #2 불치.(재.)

104025 @ 게민 그, 낭 지들커 허젠 하면 아까 낭 정 왓덴 헷인디 그 낭들은 어디시민 정 왓수과?(그러면 그, 나무 땔감 하려고 하면 아까 나무 져서 왔다고 했는데 그 나무들은 어디 있으면 져서 왔습니까?)

104025 #3 이 저레 가민 막 핫주.(이 저리로 가면 매우 많지.)

104025 #2 이디 나간만허민 나문데 전부.(여기 나가기만하면 나문데 전부.)

104025 #3 나무라난 뒨듸, 이젠 막 밧듸 정 밧을 멘들아부럿주.(나무였던 덴데, 이젠 막 밭에 저렇게 밭을 만들어버렸지.)

104025 #2 게난 나무도.

104025 @ 예.(예.)

104025 #2 이 저 해안가는 멀주게. 없주게 낭이. 엇는데 여긴 밖에 나가믄 나무거든.(이 저 해안가는 멀지. 없지 나무가. 없는데 여긴 밖에 나가면 나무거든.)

104025 @ 그 낭들은 그 살아잇는 나무에서.(그 나무들은 그 살아있는 나무에서.)

104025 #2 거, 가지 죽은 가지덜.(그거, 가지 죽은 가지들.)

---

107) '웃드렌'은 '웃드르에는'의 준말이다. '웃드르'는 한라산이 있는 벽지 근처의 들, 또는 그런 곳에 이루어진 마을을 말한다.

108) '검질'은 밭에서 나는'김'이나 '짚'따위의 잡풀의 뜻으로 쓰이나 여기서는 들이나 잡목사이에 자라는 잡풀을 말한다.

104025 @ 죽은 가지를 뭐렌 골앗수과?(죽은 가지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104025 #3 삭다리.(삭정이.)

104025 @ 삭다리. 삭다리를 끈엉 왓수과? 삭다리는 뭘로 끈어마씨, 톱으로?(삭정이. 삭정이를 끊어서 왔습니까? 삭정이는 뭐로 끊었나요, 톱으로?)

104025 #3 기냥도 거꺼지곡 나대[109]로 직엉도 거꺼오곡, 홍뎅이[110]로 둥경도 기치곡.(그냥도 꺾어지고 '나대'로 찍어도 꺾어오고, '홍뎅이'로 당겨도 꺾고.)

104025 #2 나대 알아저? 나대.('나대'알아? 나대.)

104025 @ 예 알아지쿠다. 그 낭들은 어떵 종류의 낭들이엇수과?(예 압니다. 그 나무들은 어떤 종류의 나무들이었습니까?)

104025 #3 저 우트레 가민 이제 엇주만은 ᄎᆞ남밧이엔 ᄒᆞᆫ 거. 엿날에 숫 묻는 ᄎᆞ남, 그런 거 ᄒᆞ민 막 불이 못 티곡.(저 위쪽으로 가면 이제 없지만 참나무밭이라고 한 것. 옛날에 숯 묻는 참나무, 그런 거 하면 막 불이 못 티고.)

104025 @ ᄎᆞ남마씨? ᄎᆞ남?(참나무요? 참나무?)

104025 #3 응, ᄎᆞ남.(응, 참나무.)

104025 @ ᄎᆞ남이 무슨 나문고예?(참나무가 무슨 나문가요?)

104025 #3 저 웃드리 이 발른 웃드리엔 막 ᄎᆞ낭이렌 헌 ᄎᆞ낭밧이 이서낫주. 이젠 벼랑 엇을꺼.(저 '웃드리' 이 바로 '웃드리'엔 막 참나무라고 한 참나무밭이 있었지. 이젠 별로 없을걸.)

104025 #2 ᄎᆞ낭 구경허켄 허민 나 갈 때 질 ᄀᆞ르켜 주곡 ᄎᆞ낭 ᄀᆞ리켜 주주.(참나무 구경하겠다고 하면 나 갈 때 길 가리켜주고 참나무 가리켜 주지.)

104025 #3 어딧수과?(어디 있습니까?)

104025 #2 아니, 요디 서성로[111] 가민 꽉 찻주.(아니, 요기 서성로 가면 꽉 찼지.)

104025 #3 에, 담잖은 소리. 가곡 서성로로 이레 걸어오게? 오늘 어디ᄁᆞ장 걸어가옵디가? 이 하르방[112].(에, 닮지 않은 소리. 가고 '서성로'로 이리로 걸어오게? 오늘 어디까지 걸어 가왔어요? 이 '할아버지'.)

104025 #2 아니, 아니 난.(아니, 아니 난.)

104025 #3 그때 올 때, 올 때 문제아니?(그때 올 때, 올 때 문제아니?)

104025 @ 아이, 그건 저가 모셔다 드리민 됩니다게.(아이, 그건 저가 모셔다 드리면 됩니다.)

104025 #2 아니 아니, 난 운동 삼아 거기 내려올 수도 잇으니까, 운동 느랑 다니주게.(아니 아니, 난 운동 삼아 거기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운동 늘 다니지.)

104025 #3 막 걷는 거 잘하주 하르방.(막 걷는 거 잘하지 '할아버지'.)

---

109) '나대'는 찍어서 나무 따위를 자르는 낫 비슷한 연장으로서 '메호미', 또는 '미호미'로도 불린다.

110) '홍뎅이'는 자그마하게 움푹하게 패어져 들어간 곳을 뜻하나, 여기서는 높은 곳에 있는 삭정이를 걸려 뜯어내는 도구를 말한다.

111) '서성로'는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와 성산읍을 연결하는 도로를 말한다.

112) '하르방'은 '할아버지'를 뜻하나 여기서는 '남편'을 이르는 말이다.

104025 @ 아, 거난 건강하시구나예.(아, 그래서 건강하시군요.)
104025 #3 멘날 걸어.(매일 걸어.)
104025 @ 거면은 혹시 낭도 헤당 불때주고.(그러면 혹시 나무도 해다가 불때주고.)
104025 #2 그 저, 도토리나무라고 알아?(그 저, 도토리나무라고 알아?)
104025 @ 예, 예예. 참나무.(예, 예예. 참나무.)
104025 #2 그거, 그거.(그거, 그거.)
104025 @ 아, 그걸 ᄎᆞ낭이렌 헷수과?(아, 그걸 참나무라고 했습니까?)
104025 #3 응, 그거.(응, 그거.)
104025 @ 아, 그걸 ᄎᆞ낭이렌.(아, 그걸 참나무라고.)
104025 #3 아니, 거시기 아니꽈?(아니, 거시기 아닙니까?)
104025 #2 도토리낭 그게 그거라게.(도토리나무 그게 그거야.)
104025 #3 가시, 가시남이.(가시, 가시나무가.)
104025 @ 제밤낭?(구슬잣밤나무?)
104025 #2 아니, 제밤낭 말고.(아니, 구슬잣밤나무 말고.)
104025 @ 제밤낭 말고?(구슬잣밤나무 말고?)
104025 #3 가시남이추룩.(가시나무처럼.)
104025 #2 도토리낭 그게 그거라.(도토리나무 그게 그거라.)
104025 @ 그게 참나무 참나무를 얘기하는거 닮다예, 참나무예?(그게 참나무 참나무를 얘기하는 거 같네요, 참나무요?)
104025 #2 응, 도토리낭 그게 그거라.(응, 도토리나무 그게 그거라.)
104026 @ 그다음 숫 같은 것도 구워봣수과?(그다음 숯 같은 것도 구워봤습니까?)
104026 #2 안 구워봔.(안 구워봤어.)
104026 @ 안 구워봣수과?(안 구워봤습니까?)
104026 #2 응.(응.)
104026 #3 응.(응.)
104026 #2 게민 ᄎᆞ낭 알큰게? 도토리낭 알암시믄.(그러면 참나무 알겠네? 도토리나무 안다면.)
104027 @ 예, 예예. 그 땔낭허레 다닐 때 지들커 허레 다닐 때 특별하게 뭐 기억나는 거 추억거리 엇수과?(예, 예예. 그 땔나무하러 다닐 때 땔감 하러 다닐 때 특별하게 뭐 기억나는 거 추억거리 없습니까?)
104027 #3 엇어, 기자 가민 낭헤아정 짊어저아정 오젱ᄒᆞ믄.(없어, 그저 가면 나무해가지고 짊어져가지고 오려하면.)
104027 #2 이디 산에 전부 그 낭이라.(여기 산에 전부 그 나무야.)
104027 @ 주로 지들커는 누게가헹 완마씨?(주로 땔감은 누가해서 왔나요?)
104027 #3 나 살민 나가 헷주. 무신 아이덜이 헤다 줘, 나가.(내가 사니 내가 했

지. 무슨 아이들이 해다 줘, 내가.)

104027 @ 삼춘 허레 안 갓수과?(삼촌 하러 안 갔습니까?)

104027 #3 아녀. ᄂᆞ믜 남자들은 헤도 이 하르방 안 헹. 나가 죽으라콕 나냥으로.(안 해. 남의 남자들은 해도 이 '할아버지' 안 했어. 내가 죽어라 나대로.)

104027 #2 아니.(아니.)

104027 @ 겐 혼자 갓다왓수과?(그래서 혼자 가왔습니까?)

104027 #2 아니 이, 내가 ᄀᆞᆯ으크라. 나는 젊은 때 목수질 뎅겻주게.(아니 이, 내가 말할 거야. 나는 젊은 때 목수로 다녔지.)

104027 @ 아, 아.(아, 아.)

104027 #2 게난, 저기 거 뭐사 들언지 난 몰라.(그러니, 저기 그것 뭐가 들었는지 난 몰라.)

104027 @ 음.(음.)

104027 #2 그자 헤근에 어디 나가민 ᄒᆞᆫ 메칠에 ᄒᆞᆫ 번 들어오나마나.(그저 해서 어디 나가면 한 며칠에 한 번 들어오나마나.)

104027 @ 아, 아.(아, 아.)

104027 #2 게난 뭐, 허허.(그러니까 뭐, 허허.)

104027 #3 나 막 얼먹언.(나 매우 얼먹었어.)

104027 @ 맞아예.(맞아요.)

104027 #3 게난 얼먹으멍 나 헤놓난 그 소리주. 쉐, 쉐출도 나가 다 줘.(그러니 얼먹으면서 내가 해놓으니까 그 소리지. 소, 소꼴도 내가 다 줬어.)

104027 #2 게난 어디 강 집 만들믄 거게 살멍. 게난 차가 엇고 뭐 엇이니깐 거기서 자고 거기서 일허고 허다근엥 메칠 만에 왕 보고. 게난 혼자 다헤부난.(그러니까 어디 가서 집 만들면 거기에 살면서. 그러니까 차가 없고 뭐 없으니까 거기서 자고 거기서 일하고 하다가 며칠 만에 와서 보고. 그러니 혼자 다해버렸어.)

104027 #3 엿날에, 하르방 강 살앙, 애기 나는 것도 몰라.(옛날에, '할아버지' 가서 살아서, 아기 낳는 것도 몰랐어.)

104027 @ 아.(아.)

104027 #3 몰라서, 아이고. 나가 경ᄒᆞ멍 살앙, 고셍헤난 게 이제. 나는 치성을 몰르게 친정에서 살앗건만은.(몰라서, 아이고. 내가 그렇게 하며 살아서, 고생했던 거 이제. 나는 정성을 모르게 친정에서 살았건만.)

사냥

104028 @ 여기 웃드르난에 그 꿩이나 짐승 같은 것도 잡으레 다녀낫지예?(여기 '웃드르'니까 그 꿩이나 짐승 같은 것도 잡으러 다녔었지요?)

104028 #2 요디 요디 가믄 사ᄂᆞᆼ동산이엔 ᄒᆞ는 동산 잇는디, 우리는 우리 두린 때 보기는 헷주 잡으레는 안 뎅겨낫는데.(요기 요기 가면 사냥동산이라고 하는 동산 있는데, 우리는 우리 어린 때 보기는 했지 잡으려는 안 다녔는데.)

104028 @ 안 뎅겨낫수과?(안 다녔었습니까?)

104028 #2 지금 요 우에 사거리 엿날엔 사농동산이엔 헤여근엥, 사농동산이렌 헌 이유가, 사농홀 때 그 꿩 잡을 때 그 망봐난 디.(지금 요 위에 사거리 옛날엔 사냥동산이라고 해서, 사냥동산이라고 한 이유가, 사냥할 때 그 꿩 잡을 때 그 망봐난 데.)

104028 @ 아.(아.)

104028 #2 사농동산, 이런 디가 잇주.(사냥동산, 이런 데가 있지.)

104029 @ 그렇구나예. 그럼 꿩도 안 잡아봣수과? 꿩코[113] 같은 것도 안 놔봔마씨?(그렇군요. 그럼 꿩도 안 잡아봤습니까? '꿩코' 같은 것도 안 놓아봤습니까?)

104029 #2 아이, 안 나봐서.(아니, 안 놓아봤어.)

104029 #3 아, 그 하르방 당췌. 헤농 거 먹음벳긔 아년.(아, 그 할아버지 당최. 해놓은 거 먹음밖에 않았어.)

104029 #2 꿩코 놓으러 뎅길 정신이 엇어 정신이.('꿩코' 놓으러 다닐 정신이 없어 정신이.)

104030 @ 예, 경헤낫구나예. 노루 같은 것도 잡으레 안 다녀 나고예? 혹시 여기 마을에서는 그런 사냥을 다닌 사람들은 이서낫수과?(예, 그랬군요. 노루 같은 것도 잡으러 안 다녀 나고요? 혹시 여기 마을에서는 그런 사냥을 다닌 사람들은 있었습니까?)

104030 #3 엇어.(없어.)

104030 @ 게믄 뭐 먹엇수과? 궤기론.(그러면 뭐 먹었습니까? 고기로는.)

104030 #3 닥, 닥 길롱.(닭, 닭 길러서.)

104030 @ 예.(예.)

104030 #2 그, 아니 나도 거시긴 헤나서. 사삼사건 후에 수망리[114] 그 위기[115] 저 위기 재건위서 위기수망을 수망에서 협조원이렌 헤 가지고, 경찰 협조원 잇주게, 그때 우리 총을 가저낫주게. 나 그걸로 노리 쏘우렌 다녀낫어.(그, 아니 나도 거시긴 했었어. 사삼사건 후에 '수망리' 그 '위기리' 저 '위기리' 재건위서 위기수망을 수망에서 협조원이라고 해 가지고, 경찰 협조원 있지, 그때 우리 총을 가졌었지. 내가 그걸로 노루 쏘러 다녔었어.)

104030 @ 노루 쏘아봣수과?(노루 쏴봤습니까?)

104030 #2 어. 나 노루 쏘안에 ᄒᆞ루 ᄌᆞ무랑 쫓아뎅기단, 그 노리 잡도 못허고 내중엔 ᄒᆞᆫ 메칠 후에 보난에 그 노루산디 아니라산디 죽은 걸 봔에.(어. 나 노루 쏘아서 하루 저물도록 쫓아다니다가, 그 노루 잡도 못하고 나중엔 한 며칠 후에 보니까 그 노루인지 아닌지 죽은 걸 봐서.)

104030 @ 예.(예.)

104030 #2 봉가와낫는데.(주어왔었는데.)

---

113) '꿩코'는 꿩을 잡기위한 올가미를 말한다.
114) '수망리'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를 말한다.
115) '위기'는 '위기리',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를 말한다. 수망리 바로 아랫마을이다.

104030 @ 예.(예.)
104030 #2 노릴 헷는데 다리를 맞앗는데.(노루를 쏘았는데 다리를 맞았는데.)
104030 @ 예.(예.)
104030 #2 이게 도망을 가더라고 이?(이게 도망을 가더라고 응?)
104030 @ 예.(예.)
104030 #2 도망을 가근엥에 허믄 빨리 뛰니까 어디간지 몰랑 막 춧앙 뎅기다 보민 이눔으게 사람 안 보이난 ᄀᆞ만 사근엥에 그대로 사민 사람 딱 비추민 또 도망하민.(도망을 가면 그러면 빨리 뛰니까 어디간지 몰라서 막 찾아서 다니다 보면 이놈이 사람 안 보이니까 가만히 서서 그대로 서면 사람 딱 비치면 또 도망가면.)
104030 @ 예,(예.)
104030 #2 결국은 뒷날 내중에 그게 죽으면 피 다 나와 부니까 죽은 모냥이여.(결국은 뒷날 나중에 그게 죽으면 피 다 나와 버리니까 죽은 모양이야.)
104030 @ 아, 아.(아, 아.)
104030 #2 내중에는.(나중에는.)
104030 #3 경헹 건 어디 강 먹어서?(그렇게 해서 그건 어디 가서 먹었어?)
104030 #2 건, 지 이디오기 전 협조원 헐 때.(그건, 자기 여기오기 전 협조원 할 때.)
104030 #3 게메, 난 안 봐저난.(그러게, 안 봤었어.)
104030 #2 아니, 게난 거 피가 다 나와버리니깐 죽은 모냥이여.(아니, 그러니까 그거 피가 다 나와 버려서 죽은 모양이야.)
104030 @ 아.(아.)
104030 #2 듯날은 막 돌아뎅기당 보난 발견헨에 그건가 다리 총 맞은 거난 그건가 헷지, 뭐 그날 직접 잡은 건 아니고.(뒷날은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발견해서 그건가 다리 총 맞은 거니까 그건가 했지, 뭐 그날 직접 잡은 건 아니고.)
104030 @ 게민 그거 잡으면 집에 왕 먹을 게 아니라 협조원 하는 그.(그러면 그거 잡으면 집에 와서 먹을 게 아니라 협조원 하는 그.)
104030 #2 아, 그때, 그때는.(아, 그때, 그때는.)
104030 @ 읍사무소에서 가저가불어마씨?(읍사무소에서 가져가버려요?)
104030 #2 아니, 경찰이 여기 살앗이니까.(아니, 경찰이 여기 살았으니까.)
104030 @ 아.(아.)
104030 #2 재건헨에. 이 우이 주둔소.(재건해서. 이 위의 주둔소.)
104030 #3 강 혼디 먹어실테주. 먹어저신가?(강 함께 먹었을 테지. 먹어졌는가?)
104030 #2 아, 당췌아녀. 이 우에도 민악주둔소[116] 저디 저 거시기 뭐 우에 주둔소가 다슷 개거든.(아, 당최 아냐. 이 위에도 '민악주둔소' 저기 저 거시기 뭐 위에 주둔소가 다섯 개거든.)
104030 @ 주둔소 경찰들이 다 먹어불엇구나예?(주둔소 경찰들이 다 먹어버렸군

116) '민악주둔소'는 수망리 위쪽에 있는 군인 경찰 주둔소를 말한다.

요?)

104030 #2 아니, 이게 거 가저오민 그때 그디서 와자작착[117] 헤빌죽.(아니, 이게 거 가져오면 그때 거기서 '와자작착' 해버리지.)

104030 @ 게난, 맞수다.(그러니까, 맞습니다.)

104030 #3 꼴도 못 봐실 거주.(꼴도 못 봤을 거지.)

104031 @ 혹시 지달이 같은, 지달이 사냥은 안 헤낫수과?(혹시 오소리 같은, 오소리 사냥은 안 했었습니까?)

104031 #2 게, 지달이 파레 뎅겨난 사름덜도 잇는데 나는.(그래, 오소리 파러 다녔던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104031 @ 게메예, 저 밑에는 보난 지달이 잡아당 그 팔앗덴 하드라고예. 저 무신 뭐 붓하고 뭐 만드는 것 때문에 걷어 가낫덴마씨 저 볼목리[118]쪽 사람들은.(그러게요, 저 밑에는 보니까 오소리 잡아다가 그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저 무슨 뭐 붓하고 뭐 만드는 것 때문에 걷어 갔었다고 저 보목동쪽 사람들은.)

104031 #3 아.(아.)

104031 #2 어, 그런 사름덜도 엿날부터 이서, 겐디이 우리는.(어, 그런 사람들도 옛날부터 있어, 그런데 우리는.)

104031 @ 그런 거 안헤낫구나예?(그런 거 안 했었군요.)

104031 #2 아, 여기도 이디 어디 지 아르비, 우리 지달이 구멍 잇젠 막 소문은 나나서.(아, 여기도 이디 어디 지 아래어디, 우리 오소리 구멍 있다고 막 소문은 났었어.)

104032 @ 족제비도 사냥 안 헤난마씨?(족제비도 사냥 안 했었나요?)

104032 #2 족제비 자주 보이믄 히여. 지금도 보여.(족제비 자주 보이기는 해. 지금도 보여.)

104032 @ 음, 맞수다.(음, 맞수다.)

104032 #2 이 앞이 자꾸 다니는디 거 보면 재수 없넨 헤여. 히히히.(이 앞에 자꾸 다니는데 그거 보면 재수 없다고 해. 하하하.)

104033 @ 아, 기꽈? 그 아까 그 막 노루 쏘아난 거 말고는 사냥에 대한 어떤 추억이 하나도 엇엇수과? 옛날에 어릴 때 막 꿩코나 생이 그물 같은 거 안놔난마씨?(아, 그래요? 그 아까 그 막 노루 쏘아난 거 말고는 사냥에 대한 어떤 추억이 하나도 없습니까? 옛날에 어릴 때 막 '꿩코'나 새 그물 같은 거 안 놨었나요?)

104033 #3 아이, 그런 거 좋아 아녀.(아이, 그런 거 좋아 안 해.)

104033 #2 아이 그건 그런디 그거 놀 시간이 없주게, 학교 다니난.(아이, 그건 그런데 그거 놀 시간이 없지, 학교 다니니까.)

104033 @ 아, 맛수다예.(아, 맞습니다.)

104033 #2 학교에 다니니까.(학교에 다니니까.)

---

117) '와자작착'은 한꺼번에 일이 끝나는 모양의 부사이며 '와작착'이라고도 표현한다.
118) '보목리'는 제주 서귀포시 보목동을 말한다.

104033 @ 음.(음.)

104033 #2 학교에 살아시믄 한 거지. 그런 이디서 남원[119]일 걸언 다녓으니까.(학교에 살았으면 한 거지. 그런 여기서 남원엘 걸어 다녔으니까.)

104033 @ 예.(예.)

104033 #2 남원리 우리 걸으믄 한 시간은 걸려야주게.('남원리' 우리 걸으면 한 시간은 걸렸지.)

104033 @ 맞수다.(맞습니다.)

104033 #2 게난, 아침에 겨울철에는 위귀리[120] 해뜨기 전에 위기리에 내려가야 지각을 안 허지.(그러니까, 아침에 겨울철에는 '의귀리' 해뜨기 전에 '의귀리'에 내려가야 지각을 안 하지.)

104033 @ 예.(예.)

104033 #2 그고 웨정 땐 또 지금은 아홉시에 허지만 여덥시에 헷단 말이여. 일본 놈이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을 궤롭혓다고. 경허믄 예전 아침 그축 헤근에 밤에 밥 먹엉 이듸서 뛰기 시작하믄 이듸서 가는 거까지 거리가 먼듸, 뛰기 시작하믄 계속 뛰어놓민, 발은 산 듸가 없지.(그리고 일제강점기 땐 또 지금은 아홉시에 하지만 여덟시에 했단 말이야. 일본 놈이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을 괴롭혔다고. 그러면 예전에는 아침 그처럼 해서 밤에 밥 먹어서 여기서 뛰기 시작하면 여기서 가는 거까지 거리가 먼데, 뛰기 시작하면 계속 뛰어놓으면, 발은 산 데가 없지.)

104033 @ 예.(예.)

104033 #2 이듸 뭐 믄 돌이거든. 요, 절루도 질도 안 질러놔놘.(여기 뭐 모두 돌이거든. 요, 저리로도 길도 안 닦아놓으니까.)

104033 @ 예.(예.)

104033 #2 경헤영 매일 뎅여놓난 뭐 나도 내가 원레 혹교 데닐 때 정심 갑이 정심이 뭔디 알도 못헤낫는디.(그렇게 해서 매일 다녀놓으니 뭐 나도 내가 원래 학교 다닐 때 점심 값이 점심이 뭔지 알지도 못했는데.)

104033 @ 맞수다.(맞습니다.)

5. 의생활

옷감

106001 @ 어, 지금부터는 그러면 그 의생활. 즉 옷감을 만들고, 그 옷감 만들어서 옷을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질문해 나가겟습니다예.(어, 지금부터는 그러면 그 의생활. 즉 옷감을 만들고, 그 옷감 만들어서 옷을 어떻게 만들

119) '남원'은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를 말하는데 수망리에서 걸어서 어른 걸음으로 1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120) '위기리'는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를 말하는데 수망리 아랫마을이다.

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질문해 나가겠습니다.)

106001 #3 응.(응.)

106001 @ 어, 우선은 어, 만들엇던 옷감의 종류가 어떤 것 어떤 것 이섯수가?(어, 우선은 어, 만들었던 옷감의 종류가 어떤 것 어떤 것 있었습니까?)

106001 #3 저, 멩지.(저, 명주.)

106001 @ 멩지.(명주.)

106001 #3 미녕.(면.)

106001 @ 미녕.(면.)

106001 #3 그거벳긔 난 몰라.(그거밖에 난 몰라.)

106002 @ 그것밖에 없지예? 그 우선 그럼 멩지부터 저기 물어 볼게예? 그 멩지로 그 실을 만들젠 하면, 실을 만드는 그 때까지의 것들을예, 질문하겟습니다예.(그것밖에 없지요? 그 우선 그럼 명주부터 저기 물어 볼게요? 그 명주로 그 실을 만들려고 하면, 실을 만드는 그 때까지의 것들을요, 질문하겠습니다.)

106002 #3 응.(응.)

106002 @ 어, 실 만들젠 하면 먼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헷수과?(어, 실 만들려고 하면 먼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106002 #3 누에 헤다근에 체암 씨 영 놧다근에.(누에 해다가 처음 씨 이렇게 놨다가.)

106002 @ 예.(예.)

106002 #3 혼 메틀 시멘 깨울 때 뒈민 거 파싹ᄒᆞ게 씨 영 무시거헨 바둑[121] 덴 것에서 그 누에가 나와.(한 며칠 있으면 깨울 때 되면 거 파삭하게 씨 이렇게 뭐 해서 '바둑' 댄 것에서 그 누에가 나와.)

106002 @ 예.(예.)

106002 #3 가만 거 나오민 그거 영 털엉.(까만 거 나오면 그거 이렇게 털어서.)

106002 @ 예.(예.)

106002 #3 뽕낭 헤영 복작 슬엉 ᄒᆞ쏠 영 밥 줘 가민 그디 영 ᄒᆞ쏠 역아가나 ᄒᆞ민 혼줌 자곡 일주일에 혼 번썩 잔 거라.(뽕나무 해서 빽빽이 슬어서 조금 이렇게 밥 줘 가면 거기 이렇게 조금 역어가나 하면 한잠 자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잠잔 거야.)

106002 @ 예, 예예.(예, 예예.)

106002 #3 그걸 줌을 자. 두 줌 자고 석 줌 자민 완류뒌 그게 이제 더 집짓게 뒈어도 한밥 먹게 뒈는 거.(그걸 잠을 자. 두 잠자고 석 잠자면 완료된 그게 이제 더 집짓게 되어도 같은 밥 먹게 되는 거.)

106002 @ 예.(예.)

106002 #3 경헹 키와근엥에 한밥 먹엉 혼 메틀 시민 누에가 그.(그렇게 해서 키

121) '바둑'은 곳. 공간적인 또는 추상적인 일정한 자리나 지역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누에의 알을 모아 둔 곳을 뜻한다.

워 한밥 먹어 한 며칠 있으면 누에가 그.)

106002 #2 그 한밥이엔 ᄒᆞ는 건 그전에는 그 꼭 그 저 썰엉 주단에 썰지 아녕 주 는 게 한밥이주게.(그 한밥이라고 하는 건 그전에는 그 꼭 그 저 썰어서 주다가 썰지 않고 주 는 게 한밥이지.)

106002 @ 아.(아.)

106002 #2 썰엉 주는 거하고 안 썰엉 막 크민 썰지 안 헹 주는 거.(썰어서 주는 거하고 안 썰어서 막 크면 썰지 안 해서 주는 거.)

106002 @ 누에 그 누에가 어떻게 키우고 하는 거는 그다음에 질문할 게예?(누에 그 누에가 어떻게 키우고 하는 거는 그다음에 질문 할게요?)

106002 #3 응.(응.).

106003 @ 어, 그 멩지에 종류에 대헹 얘기 헤줍서. 멩지엔 무슨 종류가 이섯수과? 멩지 종류 뭐? 생멩지가 잇고.(어, 그 명주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 해주세요. 명주에는 무슨 종류가 있었습니까? 명주 종류 뭐? 생명주가 있고.)

106003 #3 아, 생멩지는 그냥 씰 빤 짠 거.(아, 생명주는 그냥 실 뽑아서 짠 거.)

106003 @ 예.(예.)

106003 #3 생멩지고.(생명주고.)

106003 @ 예.(예.)

106003 #3 그 저 빤 멩지를.(그 저, 뽑은 명주를.)

106003 @ 예.(예.)

106003 #3 제 놘 녹여서.(재 넣어 녹여서.)

106003 @ 예.(예.)

106003 #3 영 노임이라고.(이렇게 누임이라고.)

106003 @ 예.(예.)

106003 #3 제 놘 영 궤우면[122]은 그게 몰싹ᄒᆞ게 죽어정 그 뽈앙 그 저 풀 헤영 막 다듬은 거라.(재 넣어 이렇게 '궤우면'은 그게 몰씬하게 죽어져서 그 빨아서 그 저 풀 먹여서 막 다듬은 거야.)

106003 @ 예.(예.)

106003 #3 경헹 그거는.(그렇게 해서 그거는.)

106003 @ 건 뭐렌 골앗수과?(그건 뭐라고 말했습니까?)

106003 #3 응?(응?)

106003 @ 풀 헹 다듬은 건 뭐렌 골앗수과?(풀 먹여서 다듬은 건 뭐라고 말했습니까?)

106003 #3 다듬인 거는 노인 멩지.(다음은 거는 누인 명주.)

106003 @ 노인 멩지?(누인 명주?)

---

122) '궤우면'은 기본형이 '궤우다'이다. 그 뜻으로는 ㉠ 뜨거워져서 끓기 시작할 정도로 끓이다. ㉡ 보리밥을 지을 때 보리쌀이 반쯤 익을 정도로 끓이다가 있다. 여기서는 ㉠의 의미로 쓰였다.

106003 #3 응. 노여서 그 풀 헹 다듬이 흔 거.(응. 누여서 그 풀 먹여 다듬이 한 거.)

106003 @ 아, 노인 멩지.(아, 누인 명주.)

106003 #3 어, 깅형 옷 멘들고 생멩지는 이 여름에 ᄒᆞ는 거 손그렝이 기자 허고, 생멩지 옷은.(어, 그렇게 해서 옷 만들고 생명주는 이 여름에 하는 거 고스란히 그저 하고, 생명주 옷은.)

106004 @ 그다음엔 멩지로 어떤 옷들을 만들엇수과?(그다음엔 명주로 어떤 옷들을 만들었습니까?)

106004 #3 아 그걸로 이불꺼풀도 ᄒᆞ고.(아 그걸로 이불꺼풀도 하고.)

106004 @ 예.(예.)

106004 #3 그걸로 꿀레이불도 ᄒᆞ고.(그걸로 누비이불도 하고.)

106004 @ 예.(예.)

106004 #3 그저 이 옷덜 저 엿날엔 그 무시거 죽으민 호상옷도 그 츰 이거엔 준거엔 그걸로 ᄒᆞ고.(그저 이 옷들 저 옛날엔 그 무슨 죽으면 수의도 그 참 이거에는 좋은 거라고 그걸로 하고.)

106004 @ 예.(예.)

106004 #3 결혼홀 때 도복 큰옷.(결혼할 때 예복 장옷.)

106004 @ 예, 예예.(예, 예예.)

106004 #3 그런 것ᄒᆞ곡 경헷주.(그런 것하고 그랬지.)

106004 @ 예, 경헷구나예.(예, 그렇게 했군요.)

106004 #3 장옷, 도복 장옷, 여자는 장옷이엔 곧곡.(장옷, 예복 장옷, 여자는 장옷이라고 말하고.)

106005 @ 그면은 그 누에고치에서 고치 똥글똥글한 거 잇잖아예, 고치에서 보면 멩지 실 만드는 데까지의 그 이야기를 골아줍서.(그러면 그 누에고치에서 고치 똥글똥글한 거 있잖아요, 고치에서 보면 명주 실 만드는 데까지의 그 이야기를 말해주세요.)

106005 #3 경ᄒᆞ난에 이예 고치를 그 ᄐᆞ면은.(그렇게 하니까 이제 고치를 그 타면.)

106005 #2 아 지금 허는 게 물레에 관헤서.(아 지금 하는 게 물레에 관해서.)

106005 #3 저, 지금 ᄒᆞ는 게 물레에 그거.(저, 지금 하는 게 물레에 그거.)

106005 #3 알암수다. 잘 ᄆᆞ리와근에.

106005 @ 예.(예.)

106005 #3 그 씰 뽑아내는 물레에 무르레 그 무르레를 영 헹 둘렁 저 뽜근엥에 그 실 빠 논 걸로 그걸로 헤근에 저 멩지를 씰로 헹 감앙 멩지ᄒᆞ는 거주.(그 실 뽑아내는 물레에 씨아 그 씨아를 이렇게 해서 둘러서 저 뽑아서 그 실 뽑아 놓은 걸로 그걸로 해서 저 명주를 실로 해서 감아서 명주 하는 거지.)

106005 @ 게난, 그거 처음에 그 저 속에 번데기 나와 버리면은 거 잇잖아예?

(그러니까, 그거 처음에 그 저 속에 번데기 나와 버리면 거 있잖아요?)

106005 #3 응, 고주워리 그게 고주워리.(응, 고치 그게 고치.)

106005 @ 고주워리? 고주워리를 처음에 그 실 가다가 뽑아야 뒈잖아예? 그기서부터 골아줍서.(고치? 고치를 처음에 그 실 가다가 뽑아야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말해주세요.)

106005 #3 게난게, 그거 뽑을 때 도르래로.(그러니까, 그거 뽑을 때 도르래로.)

106005 #2 아, 그거 뽑을 때 저것이 막 딸리거든.(아, 그거 뽑을 때 저것이 막 다리거든.)

106005 @ 아, 우선 쌂앙.(아, 우선 삶아서.)

106005 #2 응, 쏢앙 그 영 저븜에 젓갈 그걸로 영영 헤여믄 씰이.(응, 삶아서 그 이렇게 젓가락에 젓가락 그걸로 이렇게이렇게 해가면 실이.)

106005 #3 영 사발에 솖앙 사발인디 솟디 솖앙, 영 긁엉 영 올리면은 씰이 나오주게 나오면.(이렇게 사발에 삶아서 사발인데 솥에 삶아서,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올리면 실이 나오지 나오면.)

106005 #2 겅헹 젓갈에 걸령 나오민 그때 시작하민 그걸 그 물레에.(그렇게 해서 젓가락 걸려서 나오면 그때 시작하면 그걸 그 물레에.)

106005 @ 한 방울 한 방울씩마씨?(한 방울 한 방울씩이요?)

106005 #3 아니 아니, 이레 혼 그 족은 솟디 영 헤영 혼 번실 올라오민 어느 정도 뒈게 톡ᄒᆞ게 영 줍아놔, 경헹 솖앙ᄒᆞ민 그걸 하시로 영 ᄒᆞ민 그걸 다 연결이 뒈어.(아니 아니, 이리로 한 그 작은 솥에 이렇게 해서 한 번실 올라오면 어느 정도 되게 톡하게 이렇게 집어넣어, 그렇게 해서 삶아서하면 그걸 젓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그걸 다 연결이 되어.)

106005 @ 아, 아.(아, 아.)

106005 #3 고치에 그 연결뒈민, 그걸 씰ᄒᆞ민 저 이레 감는 무루레는 요정도로 혼 거라.(고치에 그 연결되면, 그걸 실하면 저 이리 감는 물레는 요정도로 한 거야.)

106005 #2 무루레에 아래 꺼는 이름은 모르크라.(물레에 아래 거는 이름은 모르겠어.)

106005 #3 가레기, 가레기는 저 거시기 미녕 젓는 것ᄀᆞ라 가레기렌 곧고.(가락, 가락은 저 거시기 무명 젓는 것보고 가락이라고 말하고.)

106005 #2 거 가레기 뽑는디 영 헤근엥에 씰 쳇 번 영 무꺼근에 둥겨네영 그건 뭐라?(거 가락 뽑는데 이렇게 해서 실 첫 번 이렇게 묶어서 당겨내어 그건 뭐야?)

106005 #3 뭐싼디 그건 몰르고, 이 무르레예 영영 둘르멍 그걸 이추룩 ᄒᆞ민, 씰이 짝짝 나오민 이것에 감아근엥예 영 이런 거 이 닮은 그 물르레에 믄 감아정 나오면은, 그거 따시 감아근엥예 영ᄆᆞᆼ영ᄆᆞᆼ 감아놩 그 몽뎅이 또 노는 날은 저 뜨는 놀미엔 ᄒᆞ주. 과짝 그거 세와. 세여근엥에 영 노라. 영헹 노라근엥예 무시거 솔 헤근에 불 솟 찔르멍 믄 헹 그 무신 베클이에 헨 디 담앙.(뭐인지 그건 모르고, 이 물레에 이렇게이렇게 두르며 그걸 이처럼 하면, 실이 쭉쭉 나오면 이것에 감아서 이

렇게 이런 거 이 닮은 그 물레에 모두 감아져 나오면, 그거 다시 감아서 이렇게 뭉텅이 이렇게 뭉텅이 감아놓아 그 뭉텅이 또 누는 날은 저 땋는 눈다고 하지. 곧게 그거 세워. 세워서 이렇게 누여. 이렇게 해서 누여서 무슨 솔 해서 불 솥 찌르며 모두 해서 그 무슨 베틀이라고 하는 데 담아서.)

106005 #2 아니, 어제 사진에 보니깐 그 멩진 ᄒᆞ는 건 이선게.(아니, 어제 사진에 보니깐 그 명주는 하는 건 있었어.)

106005 @ 예예, 그 저 그건 미녕 하는 거잖아예.(예예, 그 저 그건 무명 하는 거잖아요.)

106005 #2 아, 미녕이나 멩지나 ᄒᆞ는 게 잇주게.(아, 무명이나 명주나 하는 게 있지.)

106005 @ 예.(예.)

106005 #2 그런 건 엇언게.(그런 건 없었어.)

106005 #3 게, 미녕도 ᄒᆞ곡 멩지도 ᄒᆞ곡 ᄒᆞ는디.(그래, 무명도 하고 명주도 하고 하는데.)

106005 @ 예.(예.)

106005 #3 난 그건 헤남은 헷는디.(난 그건 했었기는 했는데.)

106005 @ 예.(예.)

106005 #3 이젠 원 팔보뒈언에 아 잘 알질 못헹 이져벤 못 몰를로구나만은.(이젠 원 바보 되어서 아 잘 알지 못해서 잊어버려 못 모르겠구나만.)

106005 @ 이제 나중에 저가 그걸 부분 부분적으로 이렇게 여쭤볼거예. 어 그다음에는 누에치는 거 옛날엔 누에를 뭐렌 ᄀᆞᆯ앗수과?(이제 나중에 저가 그걸 부분 부분적으로 이렇게 여쭤볼게요. 어, 그다음에는 누에치는 거 옛날엔 누에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106006 #3 누에엔 ᄀᆞᆫ주 무시거렌 ᄀᆞᆯ아.(누에라고 말하지 뭐라고 말해.)

106006 @ 거면 누에를 처음에 어디서 가져와서 뽕잎은 어떻게 헷는지 처음부터 ᄀᆞᆯ아줍서.(그러면 누에를 처음에 어디서 가져와서 뽕잎은 어떻게 했는지 처음부터 말해주세요.)

106006 #3 아 누에는 이 저 어디서 청구ᄒᆞ민은 ᄒᆞᆫ 멧 바둑[123]ᄒᆞ민 그 일곱 바둑이여 세 바둑이여 ᄒᆞ는 거 멧 개 나오는 거라.(아 누에는 이 저 어디서 청구하면 한 몇 바둑하면 그 일곱 바둑이여 세 바둑이여 하는 몇 개 나오는 거라.)

106006 @ 예.(예.)

106006 #3 게난 이녁 질린 보통 일곱 바둑 질리민 맞아.(그러니까 이녁 키우기는 보통 일곱 바둑 키우면 맞아.)

106006 @ 음.(음.)

106006 #3 경 아녀민 하면은 그 처리ᄒᆞ미 어려우난 경헹 앗땅 질황 석 점 ᄁᆞ장장, 한밥 먹어가민 이제 한글헤가주게. 낭썹 잘 주민, 하영 왕창 주어도 먹고, 비오

123) '바둑'은 '새끼누에 숫자를 재는 단위'로 네모난 판을 말한다.

는 거 닮아 먹는 소리가 과사상[124]희여.(그렇게 안하면 많으면 그 처리함이 어려워서 그렇게 해서 가져다가 키워서 석 점 까지 잠자, 온전한 잎 먹어 가면 이제 한가해 가지. 나뭇잎 잘 주면, 많이 왕창 주어도 먹고, 비오는 것 같아 먹는 소리가 '과사상'해.)

106006 @ 메칠쯤 그 누에를.(며칠쯤 그 누에를.)

106006 #3 경허난 메칠사 뒈영 올르게 뒈엔디 일주일에 혼 번은 똑 좀잔 거 닮아. 경허난 그 올를 때에 뒈어가민 그 누에가 밥도 안먹엉. 먹어진게 이 일로 알르레 판찍[125]헤영 헤둠서 고게 혼들혼들혼들 그거 벌써 집 지슬 중후라. 이레 느랑 먹는 거 엇어저 가.(그러니까 며칠이나 되어서 오르게 되었는지 일주일에 한 번은 똑 잠잔 거 같아. 그러니까 그 오를 때에 돼 가면 그 누에가 밥도 안 먹어. 먹어진게 이 여기서 아래로 '판찍'하게 해두면서 고게 한들한들한들 그거 벌써 집 지을 징후야. 여기 늘 먹는 거 없어져 가.)

106006 @ 음.(음.)

106006 #3 똥을 문 싸져가는 거, 겨난 그 우이 껀 벌써 알아정 그런 거 골리영 엿날에 마보시[126]라고 노 영 꽈근에 세로 영 그레 영 찔렁 영영영영영영 헤가민 짝허게 이추룩 누에 영 거시기 헤여지게 마보시로 혼 것에 좀박에 놩 튼틀하게시리 팡 이디 저 칭기칭기허게 헨에, 그디 줏어 놩 영영 헹 나두민 이 세에 저 세에 문허멍 영 서껑 집을 짓주게.(똥을 모두 싸져가는 거, 그러니 그 위의 것은 벌써 알아져서 그런 거 골라서 옛날에 '마보시'라고 노 이렇게 꽈서 띠로 이렇게 그리로 이렇게 찔러서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해가면 쫙 하게 이처럼 누에 이렇게 거시기 해지게 '마보시'로 한 것에 잠박에 넣어서 튼튼하게 파서 여기 저 층계 층계 하게 해서, 거기 주워 넣어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놔두면 이 사이에 저 사이에 모두 하면서 이렇게 섞어 집을 짓지.)

106006 @ 예.(예.)

106006 #3 경헹 그 집 다 지슨 다음엔 누에잘 뒈면은 곱곡, 안 뒈면은 집지스멍도 막 썩어불곡 데곡 막 안 뒈는 거.(그렇게 해서 그 집 다 지은 다음에 누에 잘되면 곱고 안 되면 집지으면서도 마구 썩어버리고 막 안 되는 거야.)

106006 @ 아 지 몸이 썩어불고?(아, 자기 몸이 썩어버리고?)

106006 #3 아아, 그추룩 헤영 잘뒈민 꺼턱어시 곱딱ᄒᆞ게 뒈고 그 누에 어떵 안 뒝 숭 남시작ᄒᆞ민 것도 벵이 절렴 뒈신구라 그추룩 허멍 음.(아아, 그처럼 해서 잘되면 끄떡없이 곱게 되고 그 누에 어떻게 안 돼 흉 나기시작하면 그것도 병이 전염됐는지 그처럼 하면서 음.)

106006 #2 절렴이주.(전염이지.)

106006 #3 경허멍 ᄒᆞ민 낭썹은 어떵 ᄒᆞ는궁 ᄒᆞ민 이디 집이 낭썹 다 엇인 사름

124) '과사상'은 누에들이 뽕잎을 갉아먹는 소리를 표현한 것이다.
125) '판찍'은 씻은 듯이 아무 것도 없는 모양을 표현할 때 쓰는 제주어이다.
126) '마보시'는 띠로 노를 꼰 후 한 뼘 크기로 노 사이사이에, 다시 꼰 노를 끼운 세탁솔 모양의 도구를 말한다. 누에가 고치를 만들기 전 그 '마보시'에 기대어 실을 뽑으며 고치를 만든다고 한다.

은 고지 강 헤당 헤여.(그렇게 하면서 하면 나뭇잎은 어떻게 하는지 하면 여기 집이 나뭇잎 다 없는 사람은 고지 가서 해다가 해.)

106006 @ 음.(음.)

106006 #3 고지, 고지가면은 그 덤벌에 가근에.(고지, 고지가면 그 덤불에 가서.)

106006 #2 이디 바로 이 밧듸 뽕나무 밧이엔 엿날엔 뽕낭 심가난.(여기 바로 이 밭에 뽕나무 밭이라고 옛날엔 뽕나무 심었었어.)

106006 #3 경헤당 질왕 그거 씨를 ᄒᆞ민 이런 것에 영 네귀 체암 고치 씰 빠놓면은 이런 것에 감아 나와근엥예 ᄯᅳ시 그거를 영 믄 또 훈들렁 다 감앙, 모둥이랑 그걸 모둥이연 ᄒᆞ주. 모둥이 영 멘들아 노민 놀 때는 놀 때는 여 이 몽뎅이 열 깨 썩 놔근엥에 잘잘 저레허민 씰이 열 겁 다 가는 거라.(그렇게 해다가 키워서 그거 씨를 하면 이런 것에 이렇게 네모 처음 누에고치 실 뽑아놓으면 이런 것에 감아 나와서 다시 그거를 이렇게 모두 또 휘둘러서 다 감아서, 실몽당이 그걸 실몽당이라고 하지. 실몽당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눌 때는 눌 때는 여기 이 실몽당이 열 개 씩 놔서 잘잘 저리로 하면 실이 열 가닥 다 가는 거라.)

106006 @ 음.(음.)

106006 #3 그 계산 ᄒᆞ멍 ᄇᆞ디기 께는 것도 멧 벰허민 얼마니 경해놧주만은 이제 이져비연.(그 계산 하면서 가깝게 꿰는 것도 몇 뻠 하면 얼마인가 그래났지만 이제 잊어버렸어.)

106006 @ 음.(음,)

106006 #3 또 미녕은 미녕은 소게 멘네허영.(또 무명은 무명은 솜 면화해서.)

106006 @ 그건 나중에 질문할게예.(그건 나중에 질문할게요.)

무명

106007 @ 그믄 누에치는 건 그걸로 끗나고 이제는 미녕에 들어가겟습니다예. 미녕에 종류가 어떤 게 이수과? 미녕의 종류.(그러면 누에치는 건 그걸로 끝나고 이제는 무명에 들어가겠습니다. 무명의 종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무명의 종류.)

106007 #3 미녕은 소게 헤여다근엥에 저 소게, 영 갈앙.(무명은 솜 해다가 저 솜, 이렇게 갈아서.)

106007 @ 예, 예예.(예, 예예.)

106007 #3 멘네, 멘네 갈앙도 ᄒᆞ곡 사당도 헤서, 어디 강 사당도 ᄒᆞ곡 허는디 그걸.(면화, 면화 갈아서도 하고 사다가도 했어, 어디 가서 사다가도 하고 하는데 그걸.)

106007 #2 (무명 종류를 지금은 종류를.)

106007 @ 게니까 토목이 잇고 무신 저 무슨 생목도 잇고 광목도 잇고 닷세미녕 엿세미녕 종류들을 ᄀᆞᆯ아줍서.(그러니까 포목이 있고 무슨 저 무슨 생목도 있고 광목도 있고 닷세미녕 엿세미녕 종류들을 말해주세요.)

106007 #3 아, 그거는 닷세.(아, 그거는 닷새.)

106007 @ 예.(예.)

106007 #3 저 엊세, 엊세미녕 닷세미녕은 닷세는 완전 까짝[127] 구진 거.(저 엿새, 엿새무명 닷새무명은 닷새는 완전 '까짝' 구진 것.)

106007 @ 예,(예.)

106007 #3 일굽세가 존 거.(일곱새가 좋은 거.)

106007 @ 예.(예.)

106007 #3 일굽세 미녕씰은 아무나 안 줏는 거.(일곱새 무명실은 아무나 안 잣는 거.)

106007 @ 예, 예예.(예, 예예.)

106007 #3 겨난 일굽세 넘은 거는 없는 거고.(그러니까 일곱새 넘은 거는 없는 것이고.)

106007 @ 예. (예.)

106007 #3 겨난 엊세미녕 일굽세미녕 ᄒᆞ주게.(그러니 엿새무명 일곱새무명 하지.)

106007 @ 예.(예.)

106007 #3 게난 일곱쉐미녕은 완전 존 거.(그러니 일곱새무명은 완전 좋은 것.)

106007 @ 음.(음.)

106007 #3 씰 그렇게 잘 골라 잘 뽑아야.(씰 그렇게 잘 골라 잘 뽑아야.)

106009 @ 토목은 뭐꽈? 토목은. 토목 미녕 종류 중에서 토목.(토목은 뭡니까? 토목은. 토목 무명 종류 중에서 토목.)

106009 #3 게난 그 엊세에 엊세미녕 닷세미녕 그거벳긔 몰라.(그러니까 그 엿새에 엿새무명 닷새무명 그거밖에 몰라.)

106009 @ 생목이나 광목은?(생목이나 광목은?)

106009 #3 광목은 요 어디 나오는 거주, 이디서 안 만들아.(광목은 요 어디 나오는 거지, 여기서 안 만들어.)

106009 @ 아, 아(아, 아.)

106009 #2 광목은 여기서 이디 누에로 만든 게 아니주.(광목은 여기서 여기 누에로 만든 게 아니지.)

106009 #3 이디서 만들지 아녀고.(여기서 만들지 안 하고.)

106009 @ 아니, 누에가 아니라 지금 미녕 하멘예. 목화로 하는 미녕.(아니, 누에가 아니라 지금 무명 합니다. 목화로 하는 무명.)

106009 #3 목화로 흔 미녕은 토목이여 그 저 거시기ᄀᆞ라 광목ᄀᆞ라 토목이여 무시거여 ᄀᆞᆯ앗는디 미녕ᄀᆞ란 그런 거 엇엇어.(목화로 한 무명은 토목이여 그 저 거시기보고 광목보고 토목이야 뭐야 말했는데 무명보고 그런 거 없었어.)

---

127) '까짝'은 '과짝'을 달리 표현한 듯싶다. '과짝, 혹은 구짝'은 '곧장', 즉 옆으로 빠지지 않고 곧바로를 뜻하지만 여기서는 부드럽지 못해 뻣뻣한 상태를 의미한다.

106008 @ 기구나예. 그 미녕으로는 어떤 옷들을 만들엇수과?(그렇군요. 그 무명으로는 어떤 옷들을 만들었습니까?)

106008 #3 대게 저 갈옷.(대게 저 갈옷.)

106008 @ 갈옷 만드는 거예.(갈옷 만드는 거요.)

106008 #3 또 무시거겐 저 광목으로도 이불안 헷주만은 이불안도 ᄒᆞ곡.(또 무엇 저 광목으로도 이불안 했지만 이불안도 하고.)

106008 @ 예, 이불안도 허고예.(예, 이불안도 하고요.)

106008 #3 응, 광목 저 감 들이는 옷이 췌고라서.(응, 광목 저 감 물들이는 옷이 최고였어.)

106008 @ 갈옷 들이는 거예.(갈옷 들이는 거요.)

106009 #3 응, 광목이 췌고 저 광목인디 미녕이 감들이는 것도 췌고 이젠 그만이헌 게 엇주기. 광목은 즘진 뿐이주 미녕만이 못헤여.(응, 광목이 최고 저 광목인데 무명이 감 물들이는 것도 최고 이젠 그만한 게 없지. 광목은 잘고 가늘 뿐이지 무명만큼 못해.)

106009 @ 아 그 토목이라는 미녕 종류 중에서.(아 그 토목이라는 무명 종류 중에서.)

106010 #3 토목이엔 흔 거 광목 아닌가?(토목이이라고 한 거 광목 아닌가?)

106010 @ 광목 따로 이수다, 뭐.(광목 따로 있습니다, 뭐.)

106010 #3 그 광목은 옥광목 웩영목 경은 헤여.(그 광목은 옥광목 옥양목 그렇게는 해.)

106010 @ 예.(예.)

106010 #3 견디 난 미녕헤연에, 저 멘네헤연에, 미녕 줏앙 미녕 헤난 거 밖에 몰라 일굽 쉐예 미녕ᄒᆞ주.(그런데 난 무명해서, 저 면화해서, 무명 자아서 무명했던 거 밖에 몰라 일곱 새에 무명하지.)

106010 @ 게난 일곱세 미녕까지 헷수과?(그러니까 일곱새 무명까지 했습니까?)

106010 #3 어, 일굽세 미녕 줏는 거.(어, 일곱새 무명 잣는 거.)

106010 @ 예.(예.)

106010 #3 짜나 ᄒᆞ던 아녀고 줏는 거.(짜거나 하진 않고 잣는 거.)

106010 @ 예.(예.)

106010 #3 미녕 줏앙 그 씰 만들앙 놓는 거 나 췌고라 두려부난 올리지 못ᄒᆞ민.(무명 자아서 그 실 만들어서 놓는 거 내가 최고야 어려 버려서 올리지 못하면.)

106001 #2 미녕 짜나진 안 헤실 거라 이거.(무명 짜나진 안 했을 거야 이거.)

106010 #3 아, 짜난 건 엇곡. 짜진 아녀곡, 실 줏고 짜는 건 우리 할마님네가 짜고.(아, 짰던 건 없고. 짜진 안하고, 실 잣고 짜는 건 우리 할머니 네가 짜고.)

106010 @ 예, 그러면 광목은 여기서 만들지 안 헷덴 헷고예?(예, 그러면 광목은 여기서 만들지 안 했다고 했고요?)

106010 #3 아녀고.(안하고.)

106011 @ 그다음엔 토목도 아니고 홍세미녕[128] 이라고 들어봣수과?(그다음엔 토목도 아니고 '홍세미녕' 이라고 들어봤습니까?)

106011 #3 홍세미녕?('홍세미녕'?)

106011 @ 예.(예.)

106011 #3 아, 미녕? 홍세미녕은 홍세도 놓곡게.(아, 무명? '홍세미녕'은 납폐에도 놓고.)

106011 @ 예.(예.)

106011 #3 멩지도 놓고 경해나난.(명주도 놓고 그렇게 했었어.)

106011 @ 아, 아.(아, 아.)

106011 #3 말제라 가난 삿바허렌 저 시라목[129] ᄒᆞ고.(말째에 가니까 기저귀하라고 저 시라목 하고.)

106011 #2 홍세옌 헌 건 그 저 결혼헐 때 놓는 홍세 말 아니라?(홍세라고 하는 건 그 저 결혼할 때 놓는 홍세 말하는 거 아니야?)

106011 @ 예.(예.)

106011 #3 미녕도 놔신디사 몰라. 저 시라목 놓곡 멩지 놓곡 그런 거 봣주만은 미녕 논 거 몰라.(무명도 넣었는지 몰라. 저 '시라목' 넣고 명주 넣고 그런 거 넣었지만 무명 넣은 거 몰라.)

106011 #2 미녕도 저 멩지 이거.(무명도 저 명주 이거.)

106011 #3 하르방은 무시거 싼왕 오라신디 나신디 올 때 나 몰라.('할아버지'는 무엇을 싸서 왔는지 나에게 올 때 난 몰랐어.)

106011 #2 허허허, 우리 그땐 무시거 서사 놓주, 번찍[130] 엇언.(허허허, 우리 그땐 무엇 있어야 놓지, '번찍' 없어.)

106012 @ 그리고 그 목화도 직접 그 심어낫수과?(그리고 그 목화도 직접 그 심었었습니까?)

106012 #3 아니, 어디 저.(아니, 어디 저.)

106012 @ 멘네, 멘네.(면화, 면화.)

106012 #3 응, 우리 태흥리[131] 웨가 집이서 갈안에 그디서 헤어낫주 미녕은.(응, 우리 태흥리 외가 집에서 갈아서 거기서 했었지 무명은.)

106012 @ 게, 어렸을 때 친정에서 멘네 갈아난 거 기억남수과?(그래, 어렸을 때 친정에서 면화 갈았던 거 기억납니까?)

106012 #3 아, 웨가칩이.(아, 외갓집에.)

106012 @ 웨갓집에서 아.(외갓집서 아.)

106012 #3 응, 웨가칩이서 갈아나고 요디 우리 친정은 수망린[132]디 안 갈안.(응,

128) '홍세미녕'은 혼례를 치르는 날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지고 가는 납폐함 속에 넣는 무명을 말한다.
129) '시라목'은 기계로 면실을 얇으면서도 성글게 짠 부드러운 천을 말한다. 달리 '시렁목'이라 한다.
130) '번찍'은 ㉠ 아주 의심할 여지없이 말갛게. ㉡ 빛이 잠깐 비치는 모양을 뜻하는 제주어이다. 여기서는 ㉠의 의미로 쓰였으며 '버찍'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131) '태흥리'는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로 수망리 아랫마을이다.
132) '수망리'는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를 말한다.

외갓집에서 갈았었고 요기 우리 친정은 '수망린'데 안 갈았어.)

106012 @ 안 갈안.(안 갈았다고.)

106012 #3 웨갓칩이서 갈아근에 그 웨갓칩이서 그 미녕ᄒᆞ고.(외갓집에서 갈아서 그 외갓집에서 그 무명하고.)

106012 @ 예.(예.)

106012 #3 멩지는 수망리 오랑 ᄒᆞ고.(명주는 '수망리' 와서 하고.)

106012 @ 아, 갈아난 걸 헤다가예?(아, 갈았었던 걸 해다가요?)

106012 #3 응.(응.)

모시, 삼

106013~106018 @ 그면은 모시하고 삼은 안 헤낫덴 헷지예?(그러면 모시하고 삼은 안 했었다고 했지요?)

106013~106018 # 1,2 안 헤나고.(안 했었고.)

106013~106018 알앗수다.(알았습니다.)

도구

106019 @ 그다음엔 그 저기 그 물레라든가 아까 저 멘네하고 그 솜 분리뭰 걸 뭐렌 ᄀᆞᆯ앗수과?(그다음엔 그 저기 그 물레라든가 아까 저 면화하고 그 솜 분리된 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106019 #3 그 씨 볼르는 물레가 잇고.(그 씨 바르는 물레가 있고.)

106019 @ 그 씨 볼르는 걸 뭐렌 ᄀᆞᆯ앗수과?(그 씨 바르는 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106019 #3 씨 갈르는 물레렌 헤여. 씨앗 씨 갈르는 거.(씨 가르는 물레라고 해. 씨앗 씨 가려내는 것.)

106019 @ 씨아예? 씨아예?(씨아요? 씨아요?)

106019 # 응.(응.)

106019 @ 아니 아까 뭐렌 ᄀᆞᆯ아신디게.(아니 아까 뭐라고 말했는데.)

106019 #3 물레.(물레.)

106019 @ 아니 물레 말고.(아니 물레 말고.)

106019 #3 씨 갈르는 씨 볼르는 거.(씨 가르는 씨 바르는 거.)

106019 @ 예.(예.)

106019 #3 씨 볼르는 거.(씨 바르는 거.)

106019 @ 예.(예.)

106019 #2 무시거 나는 그것에 대헤서 무시건엔 안 ᄀᆞᆯ아서.(뭐 나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안 말해서.)

106019 #3 그거벳긘 ᄯᅮ룬 몰라.(그것밖에 따로는 몰라.)

106019 #2 아, 나도 어제도 ᄀᆞᆯ아.....(아, 나도 어제도 말해.....)

106019 #3 아, 이 씰을 줄를 때 저 거시기 영 가레기엔 흔 거 서.(아, 이 실을 결 때 저 거시기 이렇게 가락이라고 한 것 있어.)

106019 @ 가레기, 가레기가.(가락이, 가락이가.)

106019 #3 그거 미녕 줏을 때.(그거 무명 자을 때.)

106019 #2 저저, 미녕씰 홀 때.(저저, 무명실 할 때.)

106019 #3 그건 미녕씰 줏을 때.

106019 @ 줏을 때 씨하고 솜하고 분리뒌 그거 하는 게 가레기렌 헴수과?(자을 때 씨하고 솜하고 분리된 그거 하는 게 가락이라고 합니까?)

106019 # 2 아니.(아니.)

106019 @ 아니? 그것도 아니?(아니? 그것도 아니?)

106020 #3 응. 체옴 홀 때 씨를 갈랑 씨 갈르는 무르레 물레가 잇고, 또 이디 저 씨 갈라놩 저 호는 디 가근엥예 그 솜테우는 디 강 테왕.(응. 처음 할 때 씨를 갈라서 씨 가르는 씨아 물레가 있고, 또 여기 저 씨 갈라놔서 저 호는 디 가서 그 솜 태우는 데 가서 태워.)

106019 @ 예.(예.)

106019 #3 무신 저 젯가락 닮은 것에 영영영 물아당 요만 썩 요만 썩 정[133]이엔 흔 건 만들아전.(무슨 저 젓가락 닮은 것에 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아다가 요만큼씩 요만큼 씩 '정'이라고 한 건 만들어져.)

106019 음.(음.)

106019 #3 그 만들아진 거 그거 앗당 그 가레기 무르레에 영 연결헤여근엥에 막 뽑아당 영 올령 영 올령 ᄒᆞ는 거.(그 만들어진 그거 그거 가져다가 그 가락 물레에 이렇게 연결해서 막 뽑아다가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올려서 하는 거.)

106019 #2 그 가레기엔 헌 건 이만이 긴 건데.(그 가락이라고 한 건 이만큼 긴 건데.)

106019 @ 예.(예.)

106019 #2 저, 그 고젱이 쭉 난거주게. 거난 그 씰 감아지는 건 그디 끼아근에 그게 물레 돌아가믄 그게 막 돌리는거주게.(저, 그 꼬챙이 쭉 난거지. 그러니 그 실 감아지는 건 거기 끼워서 그게 물레 돌아가면 그게 막 돌리는 거지.)

106019 @ 아.(아.)

106019 #2 아 씰이 씰이 막 꼬아지는 거야.(아 실이 실이 막 꼬아지는 거야.)

106020 @ 아, 예.(아, 예.)

106020 #3 게난 그 가레기엔 헌 거 그런 거.(그러니까 그 가락이라고 한 거 그런 거.)

106020 #2 막 도는 거주게 도는 거.(막 도는 거지 도는 거.)

106020 @ 음.(음.)

---

133) '정'은 '멘넷정'을 말한다. '멘넷정'은 목화솜을 다룰 때 표현하는 낱말로 솜을 가늘게 말아서 두 뼘 가량의 길이로 끊어 낸 그 상태를 의미한다.

106020 #3 가레기 끼아진 거, 거 무시건디 데와진 거 도는 거.(가락 끼워진 거, 거 뭔지 꼬여진 거, 도는 거.)

106020 #2 가레기, 거 도는 거주게.(가락, 그거 도는 거지.)

106020 @ 예.(예.)

106020 #3 경헨에 그런 거 뽑아놔나난. 경 두려도 일곱 쉐 그때가 어느 때 예레슷 예레일곱에산디 예레슷산디 그 미녕씰 줏아나서. 아장 쫄랑 올르지 못ᄒᆞ민 일어상 발로 일어사멍 올려나서.(그렇게 해서 그런 거 뽑아났어. 그렇게 어려도 일곱 새 그때가 어느 때 열여섯 열여섯일곱이었는지 열여섯이었는지 그 무명실 자았었어. 앉아서 짧아 올리지 못하면 일어서서 발로 일어서며 올려났어.)

106021 @혹시 멘네클이라는 말 들어봣수과? 멘네클.(혹시 면화틀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면화틀.)

106021 #3 멘네클 멘네 테우는 틀게.(면화틀 면화 태우는 틀.)

106021 @ 멘네 테우는 틀?(면화 태우는 틀?)

106021 #3 응, 테와.(응, 태워.)

106021 @ 아까 거기서 가레기는 어느 거꽈?(아까 거기서 가락은 어느 겁니까?)

106021 #3 가레기는 저 씰 뽑앙 감는 거.(가락은 저 실 뽑아서 감는 거.)

106021 @ 여기 이시냐 봅써. 이 그림 안에. 그 요 그림 안에.(여기 있는지 보세요. 이 그림 안에. 그 요 그림 안에.)

106021 #3 이거는, 이거는 짜는 거 아니? 짜는 건게. 이건 베클에 아장.(이거는, 이거는 짜는 거 아냐? 짜는 거네. 이건 베틀에 앉아.)

106021 @ 예.(예.)

106021 #3 요거는 짜는 거.(요거는 짜는 거.)

106021 #2 이게, 이게 가레기 가뜬데 이게 도는 거.(이게, 이게 가락 같은데 이게 도는 거.)

106021 #3 어느 거?(어느 거?)

106021 #2 이거 이거, 이게 이게.(이거 이거, 이게 이게.)

106021 @ 예, 가락 맞수다. 가레기.(예, 가락 맞습니다. 가락.)

106021 #3 가레기. 이거 가레기가 맞일 거여.(가락. 이거 가락이 맞을 거야.)

106021 #2 이게, 이게 맞아 이거.(이게, 이게 맞아 이거.)

106021 #3 이거.(이거.)

106021 @ 예.(예.)

106021 #3 맞아, 응.(맞아, 응.)

106021 #2 맞아, 우리 가레기 가레기 ᄒᆞ는 거.(맞아, 우리 가락 가락 하는 거.)

106021 #3 나가 가레기렌 허는 거.(내가 가락이라고 하는 거.)

106021 @ 나중에 다시 이거 하나씩 하나씩 여쭤볼게예. 가락인데 가레기.(나중에 다시 이거 하나씩 하나씩 여쭤볼게요. 가락인데 '가레기'.)

106021 #2 가레기렌도 ᄒᆞ고 가락.('가레기'라고도 하고 가락.)

106021 #3 가레긴디 가레긴디 비슷ᄒᆞ다.(가락이긴 가락인데 비슷하다.)
106021 @ 맞수다게.(맞습니다.)
106021 #3 이거는 짜는 거.(이거는 짜는 거.)
106021 @ 예.(예.)
106021 #3 이거는 무시거 허는 거 맞은게. 씰 둘아메고 베클.(이거는 뭣 하는 거 맞네. 실 달아매고 베틀.)
106021 @ 베클예.(배틀요.)
106021 #3 응, 이거 베클 이 저 멩지.(응, 이거 배틀 이 저 명주.)
106021 #2 게난 이거허고 이게 뜰린 것이 이건 멩지씰 짜는 거 닮고.(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게 다른 것이 이건 명주실 짜는 거 닮고.)
106021 #3 멩지씰 짜는 거어?(명주실 짜는 것?)
106021 #2 응, 이거 멩지씰 짜는 거 이거. 이디이 잇지이. 이건 가레기가 없다 말이여.(응, 이거 명주실 짜는 거 이거. 여기 있지. 이건 가락이 없단 말이야.)
106021 #3 아니, 가레기 ᄒᆞ는 건 미녕씰 ᄒᆞ는 거어.(아니, 가락 하는 건 무명실 하는 거야.)
106021 #2 거난, 이거 이건 멩지씰허는 거란 말이지 사진, 이건.(그러니까, 이거 이건 명주실 하는 거란 말이지 사진, 이건.)
106021 #3 응.(응.)
106021 @ 이거는 저.(이거는 저.)
106021 #3 이건 미녕이고 이건 멩지.(이건 무명이고 이건 명주.)
106021 @아.(아.)
106021 #3 맞아, 이건 맞아. 저 거시기.(맞아, 이건 맞아. 저 거시기.)
106021 @ 맞수다.(맞수다.)
106021 #2 이건 멩지, 이건 미녕.(이건 명주, 이건 무명.)
106021 @ 예.(예.)
106021 #3 맞아. 요건 또 무시거라?(맞아. 요건 또 뭐야?)
106021 #2 거, 저, 멩지. 저 거시기 허는 거 아니라? 풀칠허는 거.(거, 저, 명주. 저 거시기 하는 게 아니라? 풀칠하는 거.)
106021 #3 어디 풀칠ᄒᆞ는 거?(어디 풀칠하는 거?)
106021 #2 이거, 저 가렝이 돌리는 거 맞아. 씰 뽑는 거라 씰 뽑는 거. 이거 이거나 ᄀᆞ튼 거. 아 요거 요거 요거 요거영 ᄀᆞ튼 거. 이게 요고영 ᄀᆞ튼 거. 이거랑 ᄀᆞ튼 거라. 씰 뽑는 거아니라게. 이거 이거영 요거영 ᄀᆞ튼거라. 이거영 이거영 ᄀᆞ튼거 아니? ᄀᆞ튼 거 달믄디?(이거, 저 가락 돌리는 거 맞아. 실 뽑는 거야 실 뽑는 거. 이거 이거나 같은 거. 아 요거 요거 요거 요거랑 같은 거. 이게 요거랑 같은 거. 이거랑 같은 거야. 실 뽑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랑 요거랑 같은 거야.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 아니? 같은 거 닮은데?)
106021 @ 아니 좀 다른 거마씨.(아니 좀 다른 거예요.)

106021 #3 이거는 확실허게 알고.(이거는 확실하게 알고.)
106021 #2 이거 씰 뽑는 거 달믄디?(이거 실 뽑는 거 닮은데?)
106021 @ 예 이거 씰 감는 거.(예 이거 실 감는 거.)
106021 #3 멩지씰.(명주실.)
106021 @ 예.(예.)
106021 #2 감는 거옌, 감는 거.(감는 거라네, 감는 거.)
106021 #3 요 이거는 저.(요 이거는 저.)
106021 #2 이거는 멩지고.(이거는 명주고.)
106021 @ 예.(예.)
106021 #2 이건 미녕.(이건 무명.)
106021 @ 예. 이거는 저기 씰을 요기 그 저 이렇게 감아놔야 나중에 옷을 짤 거잖아예?(예. 이거는 저기 실을 요기 그 저 이렇게 감아놔야 나중에 옷을 짤 거잖아요?)
106021 #3 어.(어.)
106021 @ 헤논 거를 다시 또 씰로 감아논 거마씨. 물레나 베클이나 전부 다 다 헤낫잖아예?(해놓은 거를 다시 또 실로 감아놓은 거요. 물레나 베틀이나 전부 다 다 했었잖아요?)
106021 #2 이것도 베클.(이것도 베틀.)
106021 @ 베클도 앉앙 헤낫지예?(베틀도 앉아서 했었지요?)
106021 #2 베클은 우리집엔 아녀나고.(베틀은 우리 집엔 안 했었고.)
106021 #3 아, 씰 줏는 거, 멩지ᄒᆞ는 멩지 저 누에 질황 씰 뽑아 놓는 거, 거벳 긘 따른 건 안 혀봔.(아, 실 잣는 거, 명주 하는 명주 저 누에 키워서 실 뽑아 놓는 거 거밖에 다른 건 안 해봤어.)
106021 #2 응, 짜는 건 아녀봔.(응, 짜는 건 안 해봤어.)
106021 #3 짜는 건 건 아녀봔. 짜는 건 아녀봔.(짜는 건 건 안 해봤어. 짜는 건 안 해봤어.)
106021 @ 그 저 베클은 안 헤봣수과?(그 저 베틀은 안 해봤습니까?)
106021 #3 응, 베클은 저 우리 할마님이 잘헤여낫는디 베클 잘 때는 나 두려.(응, 베틀은 저 우리 할머님이 잘했었는데 베틀 자을 때는 내가 어려.)
106021 #2 저저 배클은 젊은이들은 별로 안 헷주게.(저저 배틀은 젊은이들은 별로 안 했지.)
106021 #3 두려, 베클 잘 때는 두려.(어려, 베틀 자을 때는 어려.)
106021 @ 음.(음.)
106021 #3 씰 줏는 거는 췌고.(실 잣는 거는 최고.)
106021 @ 음.(음.)
106021 #3 일곱 쉐 미녕은 완전 췌고 미녕은, 완전 잘 줏넨 나 소문나낫어.(일곱 새 무명은 완전 최고 미녕은, 완전 잘 잣는다고 내가 소문났었어.)

106021 @ 으음.(으음.)

106021 #3 두린 땐디.(어린 땐데.)

106021 #2 *** 베틀은 나이 많은 사름만. ᄒᆞ고 베틀은 아무 집이나 엇이난.(*** 베틀은 나이 많은 사람만. 그리고 베틀은 아무 집이나 없으니까.)

106021 @ 음.(음.)

106021 #3 우리 할머니네 ᄒᆞ곡 일굽 세 일굽 세 미녕 잘 쫀덴 나 막 추려받고[134] 나 춤 놈의 말 골아나서.(우리 할머니네 하고 일곱 새 일곱 새 무명 잘 잣는다고 나를 매우 '추려받고' 나 참 남의 말 말했었어.)

106021 @ 음.(음.)

106021 #3 쭉, ᄒᆞ민 그대로 씰이 구짝 박는 거라.(쭉, 하면 그대로 실이 곧장 박는 거라.)

106021 @ 음, 씰로만 만들고 그걸로 천은 안 만들어낫수과?(음, 실로만 만들고 그걸로 천은 안 만들었습니까?)

106021 #3 응, 씰만 만들면 우리 할마니는 영 천을 찬에.(응, 실만 만들면 우리 할머니는 이렇게 천을 짰어.)

106021 @ 천을 만들어낫구나예? 아 그렇구나예.(천을 만들었었군요? 아 그렇군요.)

106021 #3 응, 겨난 이 짜는 거는 나 안헤봔.(응, 그러니까 이 짜는 거는 나 안 해봤어.)

바느질

106022 @ 그다음엔 그 바느질은 늘상 하멍 살아실 거 아니꽈예?(그다음엔 그 바느질은 늘 하면서 살았을 거 아닙니까?)

106022 #3 바눙질은 그자 이녁 거는 이녁대로 헤입엉 살아.(바느질은 그저 이녁 거는 이녁대로 해 입어 살았어.)

106022 @ 그 바눙질 할 때 바눙질 할 때는 뭐뭐가 이서낫수과? 뭐 바눙이 잇어낫고 그다음엔 바눙질 하젠하면 씰도 이서낫고.(그 바느질 할 때 바느질 할 때는 뭐뭐가 있었습니까? 뭐 바늘이 있었고 그다음엔 바느질 하려하면 실도 있었고.)

106022 #3 씰 잇곡.(실 있고.)

106022 @ 그다음 뭐 이섯수과?(그다음 뭐 있었습니까?)

106022 #2 우리 집 할망[135]신디 지금도 바눙싼지 이서.(우리 집 할머니에게 지금도 반짇고리 있어.)

106022 @ 거난에 바눙싼지 안에 들어진 거 영 생각하멍 골아봅써. 아니면 가정 왕.(그러니까 반짇고리 안에 들어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해보세요. 아니면 가져와서.)

---

134) '추려받다'는 "추리다' 즉 '누구만을 특별히 칭찬해 올리다'의 제주어다.

135) '할망'은 할머니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발화자의 아내를 뜻한다.

106022 #3 에에에, 바눙ᄒᆞ고 씰허민 그거민 해결이주 무시거 들어.(에에에, 바늘하고 실하면 그거면 해결이지 무엇이 들어있어.)

106022 @ 아니 ᄀᆞ세도 이서야 뒈고.(아니 가위도 있어야 되고.)

106022 #3 ᄀᆞ세 들국.(가위 들어있고.)

106022 @ 예.(예.)

106022 #3 거 말안.(거 말고.)

106022 #2 거 바눙쌍지 앗당 다 붸와.(거 반짇고리 가져다가 다 보여줘.)

106022 #3 에, 엇어 엇어 당추 거벳긔 그게민 벨거라도 헷주.(에, 없어 없어 당최 거밖에 그거면 별거라도 했지.)

106022 @ ᄀᆞ세에 바눙질감 허고예?(가위에 바느질감 하고요?)

106022 #3 응.(응.)

106022 @ 골무 같은 건 엇엇수과?(골무 같은 건 없었습니까?)

106022 #3 아, 그런 것도 아녀고.(아, 그런 것도 안 하고.)

106022 @ 음.(음.)

106022 #3 당초 아녀. 골무 그런 것도 아녀고 아녀는디.(당최 안 해. 골무 그런 것도 안 하고 안했는데.)

106022 @ 바눙 그 바눙을 보관하젠허면 바눙은 어디다 놧수과?(바늘 그 바늘을 보관하려하면 바늘은 어디다 놓았습니까?)

106022 #2 바눙쏨지.(바늘쌈지.)

106022 @ 바눙쌍지 안에?(반짇고리 안에?)

106022 #3 바눙쌍지 허질 아녀고, 씰.(반짇고리 하지 않고, 실.)

106022 #2 쏨지, 쏨지.(쌈지, 쌈지.)

106022 #3 씰 영 감아진 것에 훅 꿰 영 등경 네빗주.(실 이렇게 감아진 것에 훅 꿰어 이렇게 늘어뜨려 내버렸지.)

106022 @ 아, 씰 감아진 거에마씨? 막 머리까락 같은 거 짤라 가지고.(아, 실 감아진 것에요? 막 머리카락 같은 거 잘라 가지고.)

106022 #3 아, 거 저 바눙짤레 안 만들아 안 만들아, 놈 다 허는 사람들 고양 만들주.(아, 거 저 바늘겨레 안 만들어 안 만들어, 남 다 하는 사람들 고이 만들지.)

106022 #2 아, 거난 나 짤라나나신디.(아, 그러니까 나 잘랐었는데.)

106022 @ 바눙짤레렌 골앗수과?(바늘겨레라고 말했습니까?)

106022 #3 응, 바눙짤레, 바눙짤레. 우린 그런 것도 아녀고.(응, 바늘겨레, 바늘겨레. 우린 그런 것도 안 하고.)

106022 @ 음.(음.)

106022 #2 것도 이신 집 엇인 집.(그것도 있는 집 없는 집.)

106022 @ 음.(음.)

106022 #3 경헤도 안 혀도 이거 줍는 거는 아무것에 앗다 놔도 내 주어.(그래도 안 해도 이거 줍는 거는 아무것에 가져다 놔도 내 줍지.)

106022 @ 음.(음.)

106022 #3 만들앙.(만들어서.)

106023 @ 바눙질할 때 바눙질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잇잖아예?(바느질할 때 바느질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106023 #3 어.(어.)

106023 @ 어떤어떤 것들이 이섯수과?(어떤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106023 #3 어떵어떵 흔 게 이서.(어떤어떤 한 게 있어.)

106023 @ 예를 든다면 이렇게 옷을 헷을 때 영영 감으멍 하는 바눙질도 잇고 또 이렇게 이렇게 그.(예를 든다면 이렇게 옷을 했을 때 이렇게이렇게 감으면서 하는 바느질도 있고 또 이렇게이렇게 그.)

106023 #3 아이고, 우리 시철에 그런 거 저런 거 어성.(아이고, 우리 시절에 그런 거 저런 거 없어.)

106023 @ 예.(예.)

106023 #3 기자 요영 주민 요영 줍는 거 요영 줍는 거.(그저 요렇게 기우면 요렇게 깁는 거 요렇게 깁는 거.)

106023 @ 예.(예.)

106-23 #3 영 호민 영 동굴씰밥[136] 영 주민 홉는 거.(이렇게 호면 이렇게 '동굴씰밥' 이렇게 기우면 호는 거.)

106023 @ 이런 걸 동굴씰밥이렌 헷수과?(이런 걸 '동굴씰밥'이라고 했습니까?)

106023 #3 응. 동굴씰밥이렌 흔건 영 동구라네영 영 똥굴랑ᄒᆞ게 영 감아내는 것ᄀᆞ라 동굴씰빱.(응. '동굴씰밥'이라고 한건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감아내는 것보고 '동굴씰밥'.)

106023 @ 예.(예.)

106023 #3 경 아년 건 영 헹 내빌곡.(그렇지 않은 건 이렇게 해서 내버리고.)

106023 @ 예.(예.)

106023 #3 웨영 ᄒᆞ민 바눙감침이엔 흔 건 웨영 흔 것 골려당 요영 ᄒᆞ곡, 고미[137]옌 영 헤당 바눙 숨방숨방[138] 저레 영 주어가는 거.(요렇게 하면 바늘감침질이라고 한건 요렇게 한 것 골라다가 요렇게 하고, '고미' 이렇게 해놓고 바늘 '숨방숨방' 저리로 이렇게 기워가는 것.)

106023 @ 주어가는 거예?(주어가는 거요?)

106023 #3 응.(응.)

106023 @ 주어가는 것도 보면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줍기도 하지만 한번 꺼내 가지고 뺀 다음에 다시 뒤로 가는 것도.(주어가는 것도 보면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깁기도 하지만 한번 꺼내 가지고 뺀 다음에 다시 뒤로 가는 것도.)

106023 #3 어, 건 뒷바눙질.(어, 그건 뒷바느질.)

---

136) '동굴실밥'은 바느질할 때 감침질하는 '감치기'를 말한다.
137) '고미'는 옷의 단이 접혀지는 부분을 말한다.
138) '숨방숨방'은 '숭덩숭덩'의 다른 표현인 듯하다.

106023 @ 그걸 뒷바눙질이렌 헤낫수과?(그걸 뒷바느질이라고 했었습니까?)
106023 #3 응. 뒷바눙질.(응, 뒷바느질.)
106023 @ 아, 뒷바눙질예, 알앗수다.(아, 뒷바느질요, 알았습니다.)

옷 종류

106024 @ 그다음에는 옷에 종류에 대해 가지고 저기 여쭤볼게예? 어 남자들 옷들엔 어떤 것들 어떤 것들 이섯수가?(그다음에는 옷에 종류에 대해 가지고 저기 여쭤볼게요? 어, 남자들 옷들에는 어떤 것들 어떤 것들 있었습니까?)
106024 #3 남 남저들은게 저 남저나 여저나 ᄀᆞ찌 ᄀᆞᆯ주. 중의적삼이라고.(남자들은 저 남자나 여자나 같이 말하지. 중의적삼이라고.)
106024 @ 예.(예.)
106024 #2 이 할망 대장 아니라 곧잘 알암지?(이 '할머니' 대장 아니야 곧잘 알지?)
106024 @ 예.(예.)
106024 #3 에 에.(에 에.)
106024 @ 예, 중의적삼.(예, 중의적삼.)
106024 #3 응. 중의적삼.(응. 중의적삼.)
106024 @ 예.(예.)
106024 #3 우의 쪼끼.(위에 조끼.)
106024 @ 예.(예.)
106024 #3 그 우의 두루마기나 후루마기나 영 걸치는 건, 그런 거.(그 위에 두루마기나 후루마기나 이렇게 걸치는 건, 그런 거.)
106024 @ 예.(예.)
106024 #3 남저는 경ᄒᆞ곡, 여저도게 여전 엿날에 결혼ᄒᆞᆯ 때 우의 입는 건 그 장옷이엔 ᄀᆞᆫ주.(남자는 그렇게 하고, 여자도 여잔 옛날에 결혼할 때 위에 입는 건 그 장옷이이라고 말하지.)
106024 @ 예.(예.)
106024 #3 장옷. 여저장옷. 여저 거.(장옷. 여자장옷. 여자 것.)
106024 @ 여자 옷은 따로 저가 다시 물어볼게예.(여자 옷은 따로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106024 #3 응.(응.)
106024 @ 남자 옷 중에서 중의적삼은 바지 얘기 하는 거꽈?(남자 옷 중에서 중의적삼은 바지 얘기 하는 겁니까?)
106024 #3 응.(응.)
106024 @ 위에는?(위에는?)
106024 #3 중이적삼은 이 우에는 적삼.(중이적삼은 이 위에는 적삼.)
106024 @ 예.(예.)

106024 #3 아래는 저 정벵이.(아래는 저 잠방이.)
106024 @ 예.(예.)
106024 #3 정벵이엔 곧주. 중의적삼이엔 헤도 정벵이.(잠방이라고 말하지. 중의적삼이라고 해도 잠방이.)
106024 @ 예.(예.)
106024 #3 또 겨울옷엔 우의는 두루막.(또 겨울옷엔 윗도리는 두루마기.)
106024 @ 누벼진 거마씨?(누벼진 거요?)
106024 #3 아니 두루마기 아니고 후루메.(아니 두루마기 아니고 두루마기.)
106024 #2 두루마기 아니, 후루메 후루메.(두루마기 아니, 두루마기 두루마기.)
106024 @ 예.(예.)
106024 #3 장옷.(장옷.)
106024 @ 후루메?(두루마기?)
106024 #2 응.(응.)
106024 #3 여름에는 창옷이엔 현 거, 홑옷으로 뒌 거. 모시나 저 멩지나 그런 거 뒈곡 겨울인 저 후루메엔 헌거 검은 걸로 헌 거ᄒᆞ곡.(여름에는 창옷이라고 한 거, 홑옷으로 된 거. 모시나 저 명주나 그런 거 되고 겨울엔 저 두루마기라고 한 거 검은 걸로 한 거하고.)
106024 @ 음.(음.)
106024 #3 아래는 그대로 후루메에 따랑은 바지ᄒᆞ곡.(아래는 그대로 두루마기에 따라서는 바지하고.)
106024 @ 그것도 다 만들엉 입혓수과?(그것도 다 만들어서 입혔습니까?)
106024 #3 게, 경헷주게.(그럼, 그랬지.)
106024 @ 속옷은 뭐렌 골앗수과? 속에 입는 이런 런닝구 비슷한 것 들은 뭐렌 골앗수과?(속옷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속에 입는 이런 러닝셔츠 비슷한 것 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106024 #3 난닌구 말앙 그 무시거 저 이서? 나닝구 입엇주 무신. 난닝구ᄒᆞ곡 쏘곱에 그냥 내의 입은 양 저 다른 거 무시거 입은 거 서? 그거 입어실 테주.(러닝셔츠 말고 그 뭐 저 있어? 러닝셔츠 입었지 무슨. 러닝셔츠하고 속에 그냥 내의 입은 양 저 다른 거 무엇 입은 거 있어? 그거 입었을 테지.)
106024 @ 그 속에 그 밑에 빤스 같은 건 뭐렌 골앗수과?(그 속에 그 밑에 팬티 같은 건 뭐라고 말했습니까?)
106024 #2 소중의.(속옷.)
106024 @ 소중이는 안 만들엇수과?(속옷은 안 만들었습니까?)
106024 #3 아이, 남저가 소중이꽈? 여저가 소중이주.(아이, 남자가 속옷입니까? 여자가 속옷이지.)
106024 #2 게, 여자.(그래, 여자.)
106024 @ 남자는 안 입엇수과?(남자는 안 입었습니까?)

106024 #3 남자는 빤스게, 팬티.(남자는 빤스, 팬티.)

106024 @ 그거는 누가 것도 만들언마씨?(그거는 누가 그것도 만들었나요?)

106024 #3 다 만들안.(다 만들었어.)

106024 #2 거의 만들안.(거의 만들었어.)

106024 @ 미녕으로예?(미녕으로요?)

106024 #3 미녕으로곡 광목으로곡 거거야 뭐 아무 거라도 만들안 다 만들안 입엇주기.(무명으로고 광목으로고 그거야 뭐 아무 거라도 만들어서 다 만들어서 입었지.)

106025 @ 그담엔예 어 여자들 옷들 어떤 것들 이섯수과?(그다음에는 어 여자들 옷들 어떤 것들 있었습니까?)

106025 #3 아휴! 여저 옷사 엿날엔 무시거 헷젠 헤도 난 그런 거 안 헤봣는디, 영 옷을 헤도 우리 할마님 네 입은 거 보민 엿날에 영 아이 막아정 무신 고장중의엔 ᄒᆞ멍 정벵이에나 안에나 영 합치지 아녕 굴리는 디 밑 붙영 탁 씌왕 입곡, 거 이런 디 알룬 터지곡 ᄒᆞ게 옷을 입곡, 또 어룬덜 속옷을 안 입어. 엿날엔 소중일 몰라.(아휴! 여자 옷이야 옛날엔 뭐 했다고 해도 난 그런 거 안 해봤는데, 이렇게 옷을 해도 우리 할머님 네 입은 거 보면 옛날에 이렇게 아니 막아져서 무슨 고쟁이라고 하며 잠방이에나 안에나 이렇게 합치지 안 해서 굴리는 데 밑 붙여 탁 씌워서 입고, 거 이런 데 알로는 터지고 하게 옷을 입고, 또 어른들 속옷을 안 입어. 옛날엔 속옷을 몰라.)

106025 @ 음.(음.)

106025 #3 소굽엘 역불러 어른들은 안 입엉 살고 경헨게. 우리 때 뒌 때는 겐 저 소중인 아무나 안 입어서 이거.(속에 일부러 어른들은 안 입어서 살고 그렇게 했어. 우리 때 된 때는 그렇게 저 속옷은 아무나 안 입었어, 이거.)

106025 @ 음.(음.)

106025 #3 소중인 안 입어도 팬트게, 팬트입고, 또 영 쫄른 거나 진 거나 경 입국헹 살앗주만은 엿날어른덜은 거 영 터진 거, 이디 아이 막아정 영 ᄒᆞ민 강알 다 베레지는 거 입곡, 요만은 ᄒᆞᆫ 거 굴루이[139] 이만은 중의 입곡 경ᄒᆞ멍 그 소중인 놎은 사람이 입넨 안 입고 경헤나서.(속옷은 안 입어도 팬티, 팬티입고, 또 이렇게 짧은 거나 긴 거나 그렇게 입고서 살았지만 옛날어른들은 거 이렇게 터진 거, 여기 안 막아져서 이렇게 하면 사타구니 다 보이는 거 입고, 요만큼 한 거 '굴루이' 이만은 중의입고 그렇게 하면서 그 속옷은 낮은 사람이 입는다며 안 입고 그렇게 했었어.)

106025 @ 그 요기까지 속에 속옷입고 요기까지 그건 뭐렌 ᄀᆞᆯ앗수과? 무릎 위에 요기까지 오는 거.(그 요기까지 속에 속옷입고 요기까지 그건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릎 위에 요기까지 오는 거.)

106025 #3 엿날 어른사 그런 거 헤서? 저 굴중의[140]엔 헌 거.(옛날 어른이야 그

139) '굴루이'는 원래의 것이 아니라 별도로 라는 뜻이다.

런 거 했어? 저 '굴중의'라고 한 거.)

106025 @ 예, 굴중의.(예, '굴중의'.)

106025 #3 응, 굴중의.(응, 굴중의.)

106025 @ 아, 그렛구나예 굴중의.(아, 그랬군요. '굴중의'.)

106026 @ 그다음엔 아이들 옷들은 어떤 거 이섯수과? 아이들 옷.(그다음엔 아이들 옷들은 어떤 거 있었습니까? 아이들 옷.)

106026 #3 아이서사, 요세 사는 거 ᄑᆞ는 거 사당 아무 거라도 그자 입엇주 무신 멘들아 줘서.(아이들이야, 요사이 사는 거 파는 거 사다가 아무 거라도 그저 입었지 무슨 만들어 줬어.)

106026 @ 옛날에사 ᄑᆞ는 거 엇엇을 때마씨, 엇엇일 때.(옛날에야 파는 거 없었을 때요, 없었을 때.)

106026 #3 엇엇일 땐, 기자 그 모냥으로 멘들안 입엇주 무신. 저 무시거라게 저, 봇뎃옷[141] ᄀᆞ튼 것도 그거사 다 아는 거.(없었을 땐, 그저 그 모양으로 만들어서 입었지 무슨. 저 뭐야 저, '봇뎃옷' ᄀᆞ튼 것도 그거야 다 아는 거.)

106026 @ 예.(예.)

106026 #3 전 ᄉᆞ미로 놩 기자 애기 쪼꼴락 ᄒᆞ곡 영 멩지라도 영 세에 기자 ᄒᆞᆫ 굴 다 놔근에 이레 막 걸게헤 놩 봇뎃옷 멘들앙 입곡, ᄍᆞ른 건 조께 ᄒᆞ쏠 멘들앙 입곡, 아멩이나 헷주. 아이 그땐 사논 거 얻이당 ᄒᆞ쏠 씌왕 네불엇주. 베랑 옷이엔 잘 안헷주.(전체 소매로 놓아 그저 애기 쪼그만 하고 이렇게 명주라도 이렇게 사이에 그저 한꺼번에 다 놓아서 이리로 막 넉넉하게 놓아 '봇뎃옷' 만들어서 입고, 짧은 건 조끼 조금 만들어서 입고, 아무렇게나 했지. 아이, 그땐 사놓은 거 얻어다가 조금 씌워서 내버렸지. 별로 옷이라고 잘 안 했지.)

106027 @ 그다음엔 옷 만들 때 이제 천을 떠서 올 거 아니꽈예?(그다음엔 옷 만들 때 이제 천을 떠서 올 거 아닙니까?)

106027 #3 응.(응.)

106027 @ 그때부터 옷이 다 만들어 질 때까지 이야기를 좀 ᄀᆞᆯ아줍서. 옷 천 상왕. 그다음 아니면 저기 미녕으로 천 만들엉 그다음 어떵 헷수과?(그때부터 옷이 다 만들어 질 때까지 이야기를 좀 말해주세요. 옷 천 사서 와서. 그다음 아니면 저기 무명으로 천 만들어서 그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106027 #3 멘들앙 어떵 헹. 멘들앙 이녁 몸에 맞게 멘들앙게 고물 든아 단출 든아 헹.(만들어서 어떻게 해. 만들어서 이녁 몸에 맞게 만들어서 고무줄을 달든가 단출 달든가 하지.)

106027 @ 아 만들려면 이케 그 본을 떠야 뒐 거 아니꽈예? 옷 크기라든가 이런 거 그거는 어떤 식으로.(아 만들려면 이렇게 그 본을 떠야 될 거 아닙니까? 옷 크기라든가 이런 거 그거는 어떤 식으로.)

---

140) '굴중의'는 허리 편에 주름이 잡히고 보통 중의보다 폭이 넓은 부녀자들이 입는 중의를 말한다.

141) '봇뎃옷'은 아기가 태어나서 사흘 만에 입히는, 간편하게 지은 베옷을 말하며, '베창옷', '봇뒤창옷', '봇뒤옷', '봇뒤적삼', '봇딧옷', '봇딧창옷', '붓딧적삼', '붓듸창옷'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106027 #3 아이고, 그거 본뜰 생각. 영 헤봐근엥에 옷 봥.(아이고, 그거 본뜰 생각. 이렇게 해봐서 옷 봐서.)

106027 @ 예.(예.)

106027 #3 영 다른 옷 영 짐작 헹 입단 거 심엉.(이렇게 다른 옷 이렇게 짐작해서 입단 거 잡아서.)

106027 @ 예.(예.)

106027 #3 그거 영 생각헹 놩 그 옷보단 크게 헤살 거민 더 훈둘렁 ᄆᆞᆯ르고.(그거 이렇게 생각해 놓고 그 옷보단 크게 해야 할 거면 더 휘둘러서 마름질하고.)

106027 @ 멀로 훈들러마씨?(뭐로 휘둘러요?)

106027 #3 옷은 영 놀 거 아니라 영.(옷은 이렇게 누일 거 아니야 이렇게.)

106027 @ 예.(예.)

106027 #3 저, 옷은 신 거.(저, 옷은 있는 거.)

106027 @ 예.(예.)

106027 #3 그보단 크게 헤살 거민, 옷 짐작헤서 본뜨곡 하간거, 숭당숭당 ᄀᆞ사 근엥에 영 허민, 더 크게 헬게민 더 너의 훈둘르곡.(그보다는 크게 해야 할 거면, 옷 짐작해서 본뜨고 여러 가지, 숭덩숭덩 잘라서 이렇게 하면, 더 크게 할 거면 더 넓게 휘두르고.)

106027 @ 예.(예.)

106027 #3 족게 헐 거민 거껑 조리게 허곡, 경헨에 멘들아사 봣주.(작게 할 거면 꺾어서 줄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야봤지.)

106027 @ 게민 먼저 옷을 바늘로 이렇게 시침질 안 혜근에 바로 바느질 들어갓수과?(그러면 먼저 옷을 바늘로 이렇게 시침질 안 해서 바로 바느질 들어갔습니까?)

106027 #3 아니, 경헤영 기차놔근에.(아니, 그렇게 해서 잘라놓아서.)

106027 @ 예.(예.)

106027 #3 기차놩, 영 ᄃᆞᆯ아나지 못ᄒᆞ게 영 ᄒᆞ쏠 영 시꺼.(잘라놔서, 이렇게 달아나지 못하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시침질해.)

106027 @ 예.(예.)

106027 #3 시끄민 영 얼러놔.(시침질하면 이렇게 펴놔.)

106027 @ 예.(예.)

106027 #3 경헤놔근엥에 줍곡.(그렇게 해놓고 깁고.)

106027 @ 음.(음.)

106027 #3 이, 다른 옷에 영 헹 놩, 저 옷 베리멍 이사람 베리면은 이거 보다는 커야 할로구나 ᄒᆞ민.(이, 다른 옷에 이렇게 해서 놓아, 저 옷 바라보며 이사람 보면 이거 보다는 커야 하겠구나, 하면.)

106027 @ 예.(예.)

106027 #3 그 짐작헹 헷주.(그 짐작해서 했지.)

106027 @ 음.(음.)

106027 #3 경 하간 것 이제추룩 본뜨국 하간 거 경헤사 무사 틀려?(그렇게 여러 가지 것 지금처럼 본뜨고 여러 가지 것 그렇게 해서야 왜 틀려?)

106027 @ 애기들 옷은 그믄 사 입혓수과?(애기들 옷은 그러면 사 입혔습니까?)

106027 #3 사 입으나, 그거 짐작헹 멘들구정 ᄒᆞ민 이만이 놩 옷을, 이만이 커살 거민.(사서 입으나, 그거 짐작해서 만들고 싶으면 이만큼 놔서 옷을, 이만큼 커야 된다면.)

106027 @ 예.(예.)

106027 #3 이 족은 옷으로 영 걸게 놩 ᄒᆞ고.(이 작은 옷으로 이렇게 얼거리 놔서 하고.)

106027 @ 아.(아.)

106027 #3 이 옷이 크면은 웨영 꺼꺼동 ᄆᆞ르고, 경헹 살안.(이 옷이 크면 요렇게 꺾어놓고 마름질하고, 그렇게 해서 살았어.)

106027 @ 음.(음.)

106027 #2 족게 헐거사 끈어불민 뒐거주.(작게 할 거야 끊어버리면 될 거지.)

106027 #3 아니아니, 족게 ᄒᆞᆯ 건 이 ᄆᆞ저 본 대는 옷을 예영 거꺼불민 족오 비연.(아니아니, 작게 할 건 이 먼저 본 대는 옷을 요렇게 꺾어버리면 작아 보이면.)

106027 @ 음.(음.)

106027 #3 **** 맞고, 아기들 옷 사 입히곡 사온 것에서 짐작헹 놓곡. 경헤연 멘들아 줫주.(**** 맞고, 아기들 옷 사 입히곡 사온 것에서 짐작해서 놓곡. 그렇게 해서 만들어 줬지.)

106028 @ 경헷구나예. 그러면 그다음엔예 바지하고 저고리 치마 그다음에 보선이 잇는데, 바지가 만들잖아예?(그랬군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바지하고 저고리 치마 그다음에 보선이 있는데, 바지를 만들잖아요?)

106028 #3 응.(응.)

106028 @ 바지 멘 밑에 잇는 요걸 뭐렌 ᄀᆞᆯ앗수과?(바지 맨 밑에 있는 요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106028 #3 어느 거?(어느 거?)

106028 @ 바지가 이렇게 잇잖아예? 바지는 바지 요 멘 밑에 요 우에 잇는 단을 뭐렌 ᄀᆞᆯ앗수과?(바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바지는 바지 요 맨 밑에 요 위에 있는 단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106028 #3 바짓단?(바짓단?)

106028 @ 바짓단?(바짓단?)

106028 #3 바짓단 이게 이 바위에 ᄒᆞᆫ 거?(바짓단 이게 이 가장자리에 한 거?)

106028 @ 예.(예.)

106028 #3 바짓단이주 무시거라?(바짓단이지 뭐야?)

106028 @ 예, 그면 요기는 뭐렌 ᄀᆞᆯ앗수과?(예, 그러면 요기는 뭐라고 말했습니

까?)

106028 #3 그딘 무시것가 이서?(거긴 무엇이 있어?)

106028 @ 다른 이름이 엇엇수과?(다른 이름이 없었습니까?)

106028 #3 바지셋북이여 무신 무시거 상복이여 흔 거 말인가?(바지사폭이야 무슨 뭐 마루폭이야 한 거 말인가?)

106028 @ 아, 일단 이게 바짓단이잖아예?((아, 일단 이게 바짓단이잖아요?)

106028 #3 응.(응.)

106028 @ 바짓단이고 그다음에 바짓단을 이렇게 좁혀놧잖아예?(바짓단이고 그다음에 바짓단을 이렇게 좁혀놨잖아요?)

106028 #3 응.(응.)

106028 @ 더 요기 좁혀잇는 요기는 뭐렌 골앗수과?(더 요기 좁혀있는 요기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106028 #3 주름.(주름.)

106028 @ 주름, 주름?(주름, 주름?)

106028 #3 응, 바짓주름.(응, 바지주름.)

106028 @ 바짓주름. 그다음엔 바지 이 바지 주머니는 뭐렌 골앗수과?(바지주름. 그다음엔 바지 이 바지 주머니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106028 #3 주머니사 무시거 저 쑤봉주머니?(주머니야 뭐 저 바지주머니?)

106028 @ 주머니 말고 다른 말 엇엇수과?(주머니 말고 다른 말 없었습니까?)

106028 #3 보게또[142]?(주머니?)

106028 @ 보게또 말고.(주머니 말고.)

106028 #2 게와.(호주머니.)

106028 @ 게와?(호주머니?)

106028 #3 응, 어. 거 그거 맞이켜. 게와엔 골아사 맞일 거 담다.(응, 어. 거 그거 맞겠다. 호주머니라고 말해야 맞을 거 닮다.)

106028 @ 게와?(호주머니?)

106028 #3 응, 게와.(응. 호주머니.)

106028 @ 게와.(호주머니.)

106028 #3 응, 이것 ᄀᆞ라 게와.(응, 이것 보고 호주머니.)

106028 @ 예, 게와.(예, 호주머니.)

106028 #3 응, 게와가 맞고.(응, 호주머니가 맞고.)

106028 @ 그다음엔 이 여기 이 허리 허릿단마씨 허리.(그다음엔 이 여기 이 허리, 허릿단이요 허리.)

106028 #3 허리는 뭐인고?(허리는 뭐이지?)

106028 @ 그냥 허리엔 골앗수과?(그냥 허리라고 말했습니까?)

106028 #2 게, 뭐코? 콤콤헹 뭐헹 기억헤지질 아여노난 통통 몰라.(그래, 뭘까?

142) '보게또'는 영어 'pocket'이 일본어 발음으로 변형된 것이다.

캄캄해서 뭐해서 기억해지질 안 해놓으니까 통통 몰라.)

106028 #3 허리엔 말앙 뭐엔 골아사 뒐 건고? 바짓허리 ᄒᆞ쏠ᄒᆞ민 이건 바짓허리 이건 바지 셋복, 상복 경헤난.(허리라 말고 뭐라 말해야 될 거지? 바지허리 조금 하면 이건 바지허리 이건 바지 사폭, 마루폭 그렇게 했었어.)

106028 @ 경헹 셋복은 뭐고 상복은 뭐꽈?(그렇게 해서 사폭은 뭐고 마루폭은 뭡니까?)

106028 #3 셋복은 이런 디 족은 거 ᄒᆞ쏠 일루루 영 헹 주여진 거 셋복.(사폭은 이런 데 작은 거 조금 이리로 이렇게 해 기워진 거 사폭.)

106028 @ 예.(예.)

106028 #3 셋복광 이 경 골은 거 셋복이여 무신거여 헌 거는 알아질루구나만은.(사폭하고 이 그렇게 말한 거 사폭이야 무엇이야 한 거는 알겠다만.)

106028 @ 상복은마씨.(마루폭은요?)

106028 #3 상복은 이디 큰 거. 큰가달.(마루폭은 여기 큰 거. 큰다리.)

106028 @ 큰가달, 그걸 상복예?(큰다리, 그걸 마루폭이요?)

106028 #3 응.(응.)

106028 @ 그다음엔 그 어 저구리 만들 때.(그다음엔 그 어 저고리 만들 때.)

106028 #3 응.(응.)

106028 @ 일단 저구리를 저 뭐렌 골앗수과? 저구리?(일단 저고리를 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고리?)

106028 #3 저구리.(저고리.)

106028 @ 저구리, 저구리 헷을 때 요걸 뭐렌 골앗수과? 저구리 요 끝에.(저고리, 저고리 했을 때 요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고리 요 끝에.)

106028 #3 끗둥?(끝동?)

106028 @ 예.(예.)

106028 #3 끗둥이엔가?(끝동인가?)

106028 @ 끗동?(끝동?)

106028 #3 응.(응.)

106028 @ 소매의 끝에 부분?(소매의 끝에 부분?)

106028 #3 응, 이디 끗둥.(응, 여기 끝동.)

106028 @ 그다음 이거는마씨?(그다음 이거는요?)

106028 #3 이거 ᄉᆞ믜.(이거 소매.)

106028 @ ᄉᆞ믜예?(소매요?)

106028 #3 응.(응.)

106028 @ ᄉᆞ믜.(소매.)

106028 #3 요영 헤진 거 짓.(요렇게 해진 건 짓.)

106028 @ 짓예?(짓이요?)

106028 #3 응, 웨영 헤진디 큰앞섭은 밧앞섭, 웨영 앞트레강 안앞섭 흔디. 이제

는 믄 거꾸로 골아. 안앞섭 헌게 밧끠뜨레가고 엿날만히 아니고.(응, 요렇게 해진데 큰 앞섶은 겉섶, 요렇게 앞쪽으로 가서 안섶 했는데. 이제는 모두 거꾸로 말해. 안섶 한 것이 밖으로 가고 옛날만큼 아니고.)

106028 @ 밧앞섭, 안앞섭예?(겉섶, 안섶이요?)

106028 #3 응, 바뀌져서 지금.(응, 바뀌져서 지금.)

106028 @아.(아.)

106028 #3 지금 막 보건 텔레비 보민 바꽈저.(지금 막 보는데 텔레비전 보면 바뀌어졌어.)

106028 @ 음.(음.)

106028 #3 엿날엔 믄 기축 만들앗주.(옛날엔 모두 그처럼 만들었지.)

106028 @ 밧앞섭 안앞섭.(겉섶, 안섶.)

106029 @ 그다음엔 그 지금 이렇게 단추로 이렇게 헷잖아예?(그다음엔 그 지금 이렇게 단추로 이렇게 했잖아요?)

106029 #3응.(응.)

106029 @ 단추를 메기 위해서 요기사이에 이렇게 꼬멘거는 건 무신것과?(단추를 매기 위해서 요기사이에 이렇게 기운 거는 건 뭡니까?)

106029 #3 이거 단추게 단추 코.(이거 단추지 단추 코.)

106029 @ 단추 코?(단추 코?)

106029 #3 웅, 단추 코. 이거는 이거 엿날식으로 ᄆᆞ진단추.(웅, 단추 코. 이거는 이거 옛날식으로 매듭단추.)

106029 @ ᄆᆞ진단추?(매듭단추?)

106029 #3 어. 이제 이거 허렌 ᄒᆞ민 아무도 못 홀 거메.(어. 이제 이거 하라고 하면 아무도 못 할 거야.)

106029 @ 음.(음.)

106029 #3 이런 거 못 ᄆᆞ자. 이거 이건 ᄆᆞ진단추.(이런 거 못 매듭져. 이거 이건 매듭단추.)

106029 @ 음.(음.)

106029 #3 저 이런 거 ᄆᆞ진 것ᄀᆞ라 볼ᄆᆞ작.(저 이런 거 매듭진 것보고 벌매듭.)

106029 @ 볼ᄆᆞ작?(벌매듭?)

106029 #3 볼ᄆᆞ작.(벌매듭.)

106029 @ 예게, ᄆᆞ진단추 볼ᄆᆞ작, 볼ᄆᆞ작으로 ᄆᆞ진단추를 만들엇구나예?(예, 매듭단추 '벌매듭', '벌매듭'으로 매듭단추를 만들었군요?)

106029 #3 응, 볼ᄆᆞ작으로 볼ᄆᆞ작이엔 곧는 거. 원, 원래가.(응, '벌매듭'으로 벌매듭이라고 말하는 거. 원, 원래가.)

106029 @ ᄆᆞ진단추허고예?(매듭단추하고요?)

106029 #3 응.(응.)

106028 @ 게, 여기는 뭐렌 골앗수과? 여긴?(그래, 여기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긴?)
106028 #3 짓게.(깃이야.)
106028 @ 짓?(깃?)
106028 #3 응, 한복에선 짓, 기냥 이런 것에는 에리엔 골암실거주만은 한복에서는 짓.(응, 한복에선 깃, 그냥 이런 것에는 깃이라고 말하겠지만 한복에서는 깃.)
106028 #2 에린 일본 말마씨.('에린' 일본말.)
106028 #3 에린 일본 말.('에린' 일본 말.)
106028 @ 짓예.(깃이요.)
106028 #2 거거 거시기연 동전이엔도 곧고.(그거 거시기에는 동전이라고도 말하고.)
106028 @ 맞수다.(맞습니다.)
106028 #3 동전은 한복 짓둥이 도는 거 동전. 마무리 ᄒᆞ는 거 동전.(동전은 한복 깃동에 다는 거 동전. 마무리 하는 거 동전.)
106028 @ 치마는.(치마는.)
106028 #3 응.(응.)
106028 @ 치마는 예를 든다면 이제 이게 한복 치마잖아예?(치마는 예를 든다면 이제 이게 한복 치마잖아요?)
106028 #3 응.(응.)
106028 @ 그래서 이렇게 치마가 잇으면 여기 이렇게 끈 메잖아예?(그래서 이렇게 치마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끈 매잖아요?)
106028 #3 응.(응.)
106028 @ 그럼 여기를 뭐렌 골앗수과?(그럼 여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106028 #3 치멧달.(치맛단.)
106028 @ 치멧단?(치맛단?)
106028 #3 치멧알.(치맛단.)
106028 @ 치멧알? 치멧알. 그다음엔 이거는마씨?(치맛단? 치맛단. 그다음엔 이거는요?)
106028 #3 어디라 그거?(어디라 그거?)
106028 @ 그니까 이거 이게 치메잖아예?(그러니까 이거 이게 치마잖아요?)
106028 #3 응.(응.)
106028 @ 이게 치멧알예?(이게 치맛단이요?)
106028 #3 응.(응.)
106028 @ 요기는 뭐렌 골앗수과?(요기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106028 #2 옆에, 옆에.(옆에, 옆에.)
106028 #3 몰라, 그건.(몰라, 그건.)
106028 @ 그리고 그면 요기는 뭐렌 골앗수과?(그리고 그러면 요기는 뭐라 말했습니까?)

106028 #3 허리? 치메허리.(허리? 치마허리.)
106028 @ 치메허리.(치마허리.)
106028 #3 응.(응.)
106028 @ 그다음에 옛날에 이건 무꺼낫잖아예?(그다음에 옛날에 이건 묶었었잖아요?)
106028 #3 응.(응.)
106028 @ 이건 뭐렌 골앗수과?(이건 뭐라고 말했습니까?)
106028 #3 치멧곰(치마끈.)
106028 @ 치멧곰예.(치마끈이요?)
106028 #3 응 무끄는 건 치멧곰.(묶는 건 치마끈.)
106028 @ 그다음엔 치메가 열려저근에 이렇게 감앙 입엇잖아예?(그다음엔 치마가 열려져서 이렇게 감아서 입었잖아요?)
106028 #3 응.(응.)
106028 @ 그 열려잇는 요 열려잇는 부분은 뭐렌 골앗수과? 치메가 열려서 이렇게 겹첫잖아예?(그 열려있는 요 열려있는 부분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치마가 열려서 이렇게 겹쳤잖아요?)
106028 #3 응.(응.)
106028 @ 요 부분을.(요 부분을.)
106028 #3 훈들른 거.(휘두르는 거.)
106028 @ 훈들르는걸 뭐렌 골앗수과?(휘두르는 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106028 #3 몰르크라. 깍치메 훈들러. 경 골앗주. 훈둘르민. 깍치메 훈둘른 거.(모르겠어. 풀치마 휘둘러. 그렇게 말했지. 휘두르면. 풀치마 휘두른 거.)
106028 @ 훈들르라 할 때.(휘두르라할 때.)
106028 #3 이것ᄀᆞ라 깍치메.(이것보고 풀치마.)
106028 @ 뭐 훈들르라 헷수과?(뭐 휘두르라 했습니까?)
106028 #3 치매 영 헹 훈들렁, 이레 영 허민 깍치메 훈둘르고 기자 경 골아낫인디 몰라.(치마 이렇게 해서 휘둘러서, 이리 이렇게 하면 풀치마 휘두르고 그저 그렇게 말해났는데 몰라.)
106028 @ 그니깐 그.(그러니까 그.)
106028 #3 뚠 거 이서?(다른 거 있어?)
106028 @ 그 이게 치메잖아예?(그 이게 치마잖아요?)
106028 #3 응.(응.)
106028 @ 치메는 요렇게 뒈잖아예?(치마는 요렇게 되잖아요?)
106028 #3 음.(음.)
106028 @ 치마가예 이렇게 요렇게 해야 치매가 입어지잖아예? 게민 요부분을 뭐렌 골앗수과? 요 부분을. 요요요 요 부분, 원래 치매가.(치마가요 이렇게 요렇게 해야 치마가 입어지잖아요? 그러면 요 부분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 부분을. 요요

요 요 부분, 원래 치마가.)

106028 #3 음.(음.)

106028 @ 무꺼진 게 아니라 열어진 거잖아예?(묶어진 게 아니라 열어진 거잖아요?)

106028 #3 응.(응.)

106028 @ 그믄 치메를 이렇게 해서 영 헹 입엇잖아예? 영 헹. 영 헹 감아근에 요기 끈으로 치메 허리로 헷잖아예?(그러면 치마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입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감아서 요기 끈으로 치마허리로 했잖아요?)

106028 #3 경 후둘른 거 벳께는 난 알지 못허크라.(그렇게 휘두른 거밖에는 난 알지 못하겠어.)

106028 @ 요걸 뭐렌 안 골앗수과? 요걸 치메섭 요 부분을?(요걸 뭐라고 안 말했습니까? 요걸 치마 섭 요 부분을?)

106028 #3 응 치매깔 영 훈둘르는 거 말 아니?(응 치마 섭 이렇게 휘두르는 거 말 아니?)

106028 @ 예, 요걸 뭐렌 골앗수과?(요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106028 #3 그거 몰라.(그거 몰라.)

106028 @ 모르쿠과? 게난, 치메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치마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106028 #3 훈들른 거는 맞주만은 나 모르크라.(휘두르는 거는 맞지만 나는 모르겠어.)

106028 @ 훈들른덴 헤신디 뭐 훈둘르렌 헤수과? 뭐 훈들르렌?(휘두른다고 했는데 뭐 휘두른다고 했습니까? 뭐 휘두른다고?)

106028 #3 치메깍 훈둘러.(치맛자락 휘둘러.)

106028 @ 치메깍예?(치맛자락이요?)

106028 #3 응.(응.)

106028 @ 깍예? 깍.(자락이요? 자락?)

106028 #2 치멧단이엔도 허고 그건 뭐라.(치맛단이이라고도 하고 그건 뭐야.)

106028 #3 아니, 치메깍.(아니, 치맛자락.)

106028 @ 치멧단은 요거고예 깍 치메깍.(치맛단은 요거고요 자락 치맛자락.)

106028 #3 응.(응.)

106028 @ 맞을 거우다. 그다음엔예? 우리가 저기 버선 신잖아예?(맞을 겁니다. 그다음은요? 우리가 저기 버선 신잖아요?)

106028 #3 응.(응.)

106028 @ 옛날엔 버선을 뭐렌 골앗수과?(옛날엔 버선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106028 #3 버선ᄀᆞ라 코지버선[143]이엔 곧지 무신.(버선보고 '코지버선'이라고 말하지 무슨.)

143) '코지버선'은 버선코를 빗대어 표현한 듯하다.

106028 @ 코지버선예.(‘코지버선’이요.)
106028 #3 응.(응.)
106028 @ 코지버선이면 버선에서 요 앞부분을 뭐렌 ᄀᆞᆯ앗수과?(‘코지버선’이면 버선에서 요 앞부분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106028 #3 앞코지.(앞코지.)
106028 @ 앞코지?(앞코지?)
106028 #3 응.(응.)
106028 @ 그럼 요런 딘마씨.(그럼 요런 데는요.)
106028 #3 그런 듸사 무시거엔 ᄀᆞᆯ아서, 기자 보선 앞코지 앞코지 곱고 곶고 그것에 호랭인디 이런 것엔 몰르고 ᄀᆞ자도 웨영웨영 놓멍 막 요꼬장 이런 코지 놓멍 뽄을 네여근에 영 받아.(그런 데야 뭐라고 말해서, 그저 보선 앞 코지 앞 코지 곱고 곶고 그것에는 호랑인데 이런 것에는 모르고 아까도 요렇게 요렇게 놓으면서 막 요기까지 이런 코 놓으며 본을 떠서 이렇게 받아.)
106028 @ 예.(예.)
106028 #3 경헹 욜로 본놓곡 헤영 고영.(그렇게 해서 욜로 본뜨고 해서 곱게.)
106028 @ 요듸 버선에서 요부분을 뭐렌 ᄀᆞᆯ앗수과? 가운데 부분으로 이렇게.(요기 버선에서 요 부분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운데 부분으로 이렇게.)
106028 #3 그거 나 몰라.(그거 나 몰라.)
106028 @ 뒤에는마씨 뒤에는 보선 뒤에.(뒤에는요, 뒤에는 보선 뒤에.)
106028 #2 아따. 그것.(아따. 그것.)
106028 #3 둣치기 앞치기밖엔 난 몰라.(뒤꿈치 앞볼밖에 난 몰라.)
106028 @ 뒷치기?(뒤꿈치?)
106028 #3 둣치기.(뒤꿈치.)
106028 @ 둣치기예, 둣치기.(뒤꿈치요, 뒤꿈치.)
106028 #3 앞보선 앞코지.(앞 보선 코.)
106028 @ 앞코지예.(코.)
106028 #3 응.(응.)
106028 @ 그다음엔 보선 이렇게 올라가잖아예? 요 끗 부분을 뭐렌 ᄀᆞᆯ앗수과?(그다음엔 보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요 끝 부분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106028 #3 보선모개기[144].(버선 목.)
106028 @ 모개기?(목?)
106028 #3 응.(응.)
106028 @ 모개기예?
106028 #3 응, 보선 모개기허고 보선 앞코지, 둣코지.(응, 보선 목하고 보선 코, 뒤꿈치.)
106029 @ 아까 그 단추 그 무신단추렌 헷수과? 그거.(아까 그 단추 그 무슨 단

144) ‘모개기’는 ‘목’의 낮춤말이다.

추라고 했습니까? 그거.)

106029 #3 볼ᄆᆞ작.(벌매듭.)

106029 @ 볼ᄆᆞ작.(벌매듭.)

106029 #3 응.(응.)

106029 @ 단추에 종류들 볼ᄆᆞ작, 볼ᄆᆞ작단추 또 그다음 뭐가 이서수과? 무슨단추?(단추의 종류들 벌매듭, 벌매듭단추 또 그다음 뭐가 있었습니까? 무슨 단추?)

106029 #3 ᄆᆞ진, 볼ᄆᆞ작ᄒᆞ곡 이건 ᄆᆞ진단추엔뻿긔.(매듭, 벌매듭하고 이건 '매듭단추'라고밖에.)

106029 @ ᄆᆞ진단추허고 다른 이름?(매듭단추하고 다른 이름?)

106029 #3 볼ᄆᆞ작이 진짜라아.(벌매듭이 진짜야.)

106029 @ 볼ᄆᆞ작예.(벌매듭이요.)

106029 #3 응, 볼ᄆᆞ작단추.(응, 매듭단추.)

106029 @ 다른 이름, 다른 건 엇엇수과?(다른 이름, 다른 건 없었습니까?)

106029 #3 엇어.(없어.)

106029 @ 그냥 이렇게 단추를 다 그렇게, 예쁘게 안 헤 가지고.(그냥 이렇게 단추를 다 그렇게, 예쁘게 안 해 가지고.)

106029 #3 응.(응.)

106029 @ 속에 뭐 집어놩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한 단추들도 이섯잖아예? 그건 무신 단추렌 헷수과?(속에 뭐 집어넣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한 단추들도 있었잖아요? 그건 무슨 단추라고 했습니까?)

106029 #3 몰라. 그런 건 ᄒᆞ곡 이거는 진짜 여 식이고, 이게 몰ᄆᆞ작이 진짜 이거는 ᄆᆞ진 거.(몰라. 그런 건 하고 이거는 진짜 여기 식이고, 이게 벌매듭이 진짜 이거는 매듭진 거.)

106029 @ 음.(음.)

106029 #3 이디, 이추룩 납작헤비엿주만은 똥글락허게.(여기, 이처럼 납작해버렸지만 동그랗게.)

106029 @ 음.(음.)

106029 #3 이거는 헤온 디 강 헷주만은 이거는 ᄆᆞ는 사름은 진짜로 뭇젠ᄒᆞ민 뽀끌랑ᄒᆞ게 ᄒᆞ는디, 이거는 완전 홀타지게 안 헨에 힘 매겐, 봉우지 힘 메겐에 ᄒᆞ는 사름 빌언 헨 게라. 이건 멜락멜락 헤여. 이거 이추룩 안 허게 ᄆᆞ는 거. 볼ᄆᆞ작 진짜로 ᄆᆞᄁᆞ는 사름은 이런 디 뽀짝ᄒᆞ게 ᄆᆞ는디, 똥끌똥끌락 아깝주게.(이거는 해온 데 가서 했지만 이거는 매듭짓는 사람은 진짜로 매듭지으려면 뽕뽕하게 하는데, 이거는 완전 홅어지게 안 해서 힘 맡겨, 봉오리 힘 맡겨서 하는 사람 빌어서 한 거야. 이건 말랑말랑 해. 이거 이처럼 안 하게 매듭짓는 거야. 매듭 진짜로 마치는 사람은 이런 데 뽀족하게 매듭짓는데, 똥글똥글 아깝지.)

106029 @ 음.(음.)

106029 #3 게난 이거 ᄒᆞ는 디 강 ᄒᆞᆫ 거. 난 이추룩 엿날에 ᄆᆞ질 때 이추룩 안헹

잘 ᄆᆞ자. ᄆᆞᆼ쿨락ᄒᆞ게[145].(그러니 이거 하는 데 가서 한 거야. 난 이처럼 옛날에 매듭지을 때 이처럼 안 해서 잘 매듭져. ‘ᄆᆞᆼ쿨락ᄒᆞ게’.)

재단과 염색

106030 @ 그다음엔 이제 그 어 옷을 아까 옷감을 사 가지고 이렇게 본 놩 영 헷덴 헷잖아예?(그다음엔 이제 그 어 옷을 아까 옷감을 사 가지고 이렇게 본 놔서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106030 #3 응.(응.)

106030 @ 그렇게 할려면은 그 옷감을 그냥 사당 바로 한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뭐 빤다든가 뭔가 헤나지 안 헷수과? 옷감.(그렇게 하려면 그 옷감을 그냥 사다가 바로 한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뭐 빤다든가 뭔가 했었지 안 했습니까? 옷감.)

106030 #3 사단게 뽈 것도 잇ᄀᆞᆨ 기자 대게 ᄒᆞ주. 그 뽈멍 누게가.(사다가 빨 것도 있고 그저 대게 하지. 그 빨면서 누가.)

106030 @ 뽈멍 안 헨예?(빨면서 안 했어요?)

106030 #3 응, 경 헐 거도 잇곡 아녀는 사름은 기냥 ᄒᆞ곡.(응, 그렇게 할 것도 있고 안 하는 사람은 그냥 하고.)

106030 @ 옷감 손질할 때 그 저 갈옷만들 때 옛날 그 갈옷이렌 안 헹 뭐렌 ᄀᆞᆯ앗수과? 감헤 가지고하는 거.(옷감 손질할 때 그 저 갈옷 만들 때 옛날 그 갈옷이라고 안 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감해 가지고하는 거.)

106030 #3 감 드린 거.(감 드린 것.)

106030 @ 그걸 뭐렌 뭘?(그럴 뭐라고 뭘?)

106030 #2 저 보통 갈옷이렌.(저 보통 갈옷이라고.)

106030 #3 미녕? 미녕.(무명, 무명.)

106030 @ 미녕을 사당 미녕 그 천 짜근에 옷 만들기 전에 우선.(무명을 사다가 무명 그 천 짜서 옷 만들기 전에 우선.)

106030 #3 아. 전에. 미녕헤영.(아. 전에. 무명해서.)

106030 @ 예.(예.)

106030 #3 그 옷 만들기 전에.(그 옷 만들기 전에.)

106030 @ 예.(예.)

106030 #3 그 저 그 저 감 들이는 거는.(그 저 그 저 감 들이는 거는.)

106030 @ 예.(예.)

106030 #3 만들아 놩.(만들어 놔서.)

106030 #3 그 진물을 지와비동.(그 진물을 지워버리고.)

106030 @ 예.(예.)

106030 #3 그 풀 멕이멍 저 미녕 멘들젠 ᄒᆞ난 그런 게 잇주게.(그 풀 먹이며 저

145) ‘ᄆᆞᆼ클락ᄒᆞ다’는 손에 쥘 수 있을 만큼 자그마한 물건이 겉은 보드랍고 매끄러우면서도 속은 단단하다는 것을 뜻한다.

무명 만들려고 하니까 그런 게 잇지.)

106030 @ 예.(예.)

106030 #3 풀메긴 거. 거 부병 지와동, 엿날에.(풀먹인 거. 그거 비벼서 지워 가지고, 옛날에.)

106030 @ 예.(예.)

106030 #3 제 ᄒᆞ쏠 놩, 그걸 궤와놓는 거라.(재 조금 넣어서, 그걸 삶아놓는 거야.)

106030 @ 예.(예.)

106030 #3 게민 그거가 푹싹하게 잘 뒈부는 거.(그러면 그게 폭삭하게 잘 돼버리는 거.)

106030 @ 예.(예.)

106030 #3 겡헨다음에 서너 벌 뿔아동, 감물들이민 때 경 좋을 수가 엇는디.(그렇게 한 다음에 서너 벌 빨아두고, 감물들이면 태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

106030 @ 예.(예.)

106030 #3 이제는 나 믄 알즌 아녀도 인제 사름덜은 그 미녕이엔 한 것도 진짜도 아니주만은 뿔아도 기냥 숢도 아녀고 기자 들이는 거.(이제는 내가 모두 알지는 안 해도 이제 사람들은 그 무명이라고 한 것도 진짜도 아니지만 빨아도 그냥 삶지도 안 하고 그저 들이는 것.)

106030 @ 음.(음.)

106030 #3 젯물에 영 숢앙.(잿물에 이렇게 삶아.)

106030 @ 숢아야 하는디.(삶아야 하는데.)

106030 #3 응, 숢앙 헤사 싹 그 저 무신 물이 다 빠정.(응, 삶아서 해야 싹 그 저 무슨 물이 다 빠져서.)

106030 @ 음.(음.)

106030 #3 저 풀물도 빠지곡 미녕이 푹삭하민, 경 감들이민 경 곱고 오래가고 경헷는디.(저 풀물도 빠지고 무명이 폭삭하면, 그렇게 감들이면 그렇게 곱고 오래가고 그렇게 했는데.)

106030 @ 음.(음.)

106030 #3 이제는 기냥 뿔앙 들여.(이제는 그냥 빨아서 들여.)

106030 @ 음.(음.)

106030 #3 그냥 뿔앙.(그냥 빨아서.)

106030 @ 음.(음.)

106030 #3 뭔 엇이, 나도 헤보난 경은 헤난게.(뭐 없이, 나도 해보니까 그렇게는 했었어.)

106030 @ 그래서 이제 감물 다 들여 가지고 바짝하게 말르면.(그래서 이제 감물 다 들여 가지고 바싹하게 마르면.)

106030 #3 음.(음.)

106030 @ 와 가지고, 그다음은 어떤 방법으로 옷에 들어갓수과?(와 가지고, 그다음은 어떤 방법으로 옷에 들어갔습니까?)

106030 #3 그거 ᄆᆞᆯ랑 감은 들이면.(그거 말라서 감물 들이면.)

106030 @ 예.(예.)

106030 #3 들영 널엇당 뽀들뽀들 헤가민, 이 풀 한 거식으로 손 잘 봉.(들여서 널었다가 보들보들 해가면, 이 풀 먹인 거식으로 손 잘 봐서.)

106030 @ 예.(예.)

106030 #3 손 잘 뽜근엥에, 직깍ᄒᆞ게 시리 잘 뽕, 거 오그라진 거 엇이 바짝 페우민 그 그 발멍도 바짝 오그라진디 희뜩희뜩[146]헌 디 엇이 잘뒈곡 ,아년 뒨 아녀는디, ᄋᆞ라 질이난 이젠 물도 들영 감 들인다 어떵 ᄒᆞᆫ다라, 다 몰라.(손 잘 봐서, 빽빽하게끔 잘 뽑아서, 그거 오그라진 거 없이 바짝 펴면 그 바래가면서 바짝 오그라진 디 '희뜩희뜩'한 데 없이 잘되고, 않은 덴 안하는데 여러 질이어서 이젠 물도 들여서 감 들인다 어떻게 한다며, 모두 몰라.)

106030 @ 아니, 그난 그때 옛날에 게 옷 만들젠 하면.(아니, 그러니까 그때 옛날에 그래 옷 만들려고 하면.)

106030 #3 응.(응.)

106030 @ 감물들인 천을 이제 바닥에 놩.(감물들인 천을 이제 바닥에 놔서.)

106030 #3 응.(응.)

106030 @ 옷을 놓고 이제 본을 헹 가위로 잘른덴 헷잖아예?(옷을 놓고 이제 본을 해서 가위로 자른다고 했잖아요?)

106030 #3 음.(음.)

106030 @ 그 그 거기까지 어떻게 헷는지 ᄀᆞᆯ아줍서.(그 그 거기까지 어떻게 했는지 말해주세요.)

106030 #3 봇[147]을 저 드린 덴 그 뽀[148] 놩, 헌덴 허는 사름 허는 건.(본을 저 드린 데는 그 본 놔서, 한다고 하는 사람 하는 건.)

106030 @ 예.(예.)

106030 #3 다른 사름덜은 그 옷 놓고, 그 정확하게 자 헴주만은.(다른 사름들은 그 옷 놓고, 그 정확하게 자 하고 있지만.)

106030 @ 음.(음.)

106030 #3 나닮은 사름은 그런 것도 저런 것도 본도 엇고 허난, 놈 입은 옷을 보면은.(나닮은 사람은 그런 것도 저런 것도 본도 없고 하니까, 남 입은 옷을 보면.)

106030 @ 예.(예.)

106030 #3 저 옷이가 어디가 숭 나고 어디가 파르난.(저 옷은 어디가 흉 지고 어디가 바르니까.)

---

146) '희뜩희뜩'은 감물 드린 무명천에 희읍스름한 얼룩이 여기저기 보여 깔끔하지 않은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147) '봇'은 발화자가 '본'을 달리 발음한 것이다.

148) '뽀'는 발화자가 '본'을 달리 발음한 것이다.

106030 @ 음.(음.)

106030 #3 그 옷 봉 숭 나 빈 디는 줄이구, 배우곡 겡 ᄆᆞᆯ란.(그 옷 놓아서 흉나 보인 데는 줄이고, 배우고 그렇게 말랐어.)

106030 @ 아.(아.)

106030 #3 그 뽄 따랑 나는 헤연 살구라 이 말이라.(그 본 따라서 나는 하면서 살았노라 이 말이야.)

106031 @ 예. 그다음엔 예 감물들인 거 말고 다른 색깔들 들였을 거 아니꽈 예?(예. 그다음엔 예 감물들인 거 말고 다른 색깔들 들였을 거 아닙니까?)

106031 #3 음.(음.)

106031 @ 그 다른 색깔들 그 저 그 색깔은 뭘로 들엿수꽈? 어떤 색깔?(그 다른 색깔들 그 저 그 색깔은 무엇으로 들였습니까? 어떤 색깔?)

106031 #3 다른 색깔 엿날엔 그거 아녓주. 붉은 물이민 붉은 물, 푸린 물이민 푸린 물, 영 헷는디 감만 들이곡 경헷는디 이제는 막 색깔이 경 헌덴 허는디 고와.(다른 색깔 옛날엔 그거 안했지. 붉은 물이면 붉은 물, 푸른 물이면 푸른 물, 이렇게 했는데 감만 들이고 그랬는데 이제는 막 색깔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고와.)

106031 #2 요 색깔로 색깔 내는 거 이제사 난 거.(요 색깔로 색깔 내는 거 이제야 난 거.)

106031 @ 아니 저 뭐꽈, 미녕 말고 멩지로 할 땐.(아니 저 뭡니까, 무명 말고 명주로 할 땐.)

106031 #3 어.(어.)

106031 @ 멩지 이불허젠 허난 색깔 안 들영 왓수과?(명주 이불하려고 하니까 색깔 안 들여서 왔습니까?)

106031 #3 아, 그거는 색깔 들이는디.(아, 그거는 색깔 들이는데.)

106031 @ 예.(예.)

106031 #3 멩지민 붉은 물은 붉은 물만 들이고.(명주면 붉은 물은 붉은 물만 들이고.)

106031 @ 붉은 물은 무시거로 붉은 물 들련마씨? 물감은.(붉은 물은 무엇으로 붉은 물 들였나요? 물감은.)

106031 #3 물감, 그런 물로 사당.(물감, 그런 물로 사다가.)

106031 @ 아, 물감을 사다가.(아, 물감을 사다가.)

106031 #3 으응, 물감 사당 이제는 붉은 물이여 푸른 물이여 합헹 들이민 영 어우러지민 막 뽀 나는 것도 이시난 그런 거는 왁왁ᄒᆞ곡, 그때는 이불ᄁᆞ움지 돌거는 붉은거.(으응, 물감 사다가 이제는 붉은 물이야 푸른 물이야 합쳐서 들이면 이렇게 어우러지면 막 폼 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캄캄하고, 그때는 이불감 달 거는 붉은 거.)

106031 @ 음.(음.)

106031 #3 이런 저 무시거헐 거는 큰 거적 헐거는 푸린 거 경헨 헷는디.(이런

저 뭐할 거는 큰 거적할 거는 푸른 것 그렇게 해서 했는데.)

106031 @ 예.(예.)

106031 #3 그런 물로 사당 또루 또루 들여.(그런 물로 사다가 따로따로 들였어.)

106031 @ 뭔가 다른 잎이나 이런 것들도 안 헤 가지고예?(뭔가 다른 잎이나 이런 것들도 안 해 가지고요?)

106031 #3 아녜여.(안 해.)

106031 #2 그때 그런 거 생각 꿈에도 몰랏주.(그때 그런 거 생각 꿈에도 몰랐지.)

106031 #3 이젠 거 서끄는 거 한한 헷주게.(이제는 거 섞는 거 많고 많지.)

106031 @ 음.(음.)

106031 #3 막 엿날 옷 하네, 이제 물들이는 사름 하도, 난 이젠 알지도 못ᄒᆞ곡 거 들영 뭐ᄒᆞ린 다 내비언 ᄉᆞ라불 철.(매우 옛날 옷 많아서, 이제 물들이는 사람 많도, 난 이젠 알지도 못하고 그거 들여서 뭐할까 다 내버렸어 태워버릴 거야.)

106031 @ 음, 게도 ᄉᆞ라불지 말앙 놔둡써.(음, 그래도 태워버리지 말고 놔두세요.)

106031 #3 낫당 무시거 헐 거라.(놔뒀다가 무엇 할 거야.)

106031 @ 지금 잇지예?(지금 있지요?)

106031 #3 응.(응.)

106031 @ 그때 시집올 때 헷던 거예?(그때 시집올 때 했던 거요?)

106031 #3 응.(응.)

106031 @ 그거 오늘은 카메라 안 가저왕. 찍게 한번에예? ᄉᆞ라불지 말앙 나둡써예.(그거 오늘은 카메라 안 가져와서. 찍게 한번에요? 태워버리지 말고 나두십시오.)

106031 #3 아이고.(아이고.)

신발

106032 @ 그다음 신발 만들어난 거 물어 볼게예? 그 신발들은 어떤 어떤 종류들이 이섯수과? 옛날에.(그다음 신발 만들었던 거 물어 볼게요? 그 신발들은 어떤 어떤 종류들이 있었습니까? 옛날에.)

106032 #3 초신?(짚신?)

106032 @ 예. 초신 잇고, 또.(예. 짚신 있고, 또.)

106032 #3 초신은.(짚신은.)

106032 @ 종류, 종류. 초신 잇고 그다음엔 또.(종류, 종류. 짚신 있고 그다음엔 또.)

106032 #3 초신 잇곡 일본 웨경 때엔 게다가 잇고.(짚신 있고 일본 일제강점기 때엔 게다가 있고.)

106032 @ 예, 게다.(예, 게다.)

106032 #3 게다.(게다.)
106032 @ 그다음?(그다음?)
106032 #3 그다음 그거 말앙 조리가 잇곡.(그다음 그거 말고 조리가 있고.)
106032 @ 조리가 잇고 그다음에.(조리가 있고 그다음에.)
106032 #3 그거 벳긘 엇주 무신.(그거 밖에는 없지 무슨.)
106032 #2 초신.(짚신.)
106032 #3 게, 초신.(그래, 짚신.)
106032 @ 초신하고 게다, 조리예?(짚신하고 게다, 조리요?)
106032 #3 응.(응.)
106032 @ 거면은.(그러면.)
106032 #2 게다옌 헌 말은 일본말.(게다라고 한 말은 일본말.)
106032 #3 게메, 건 일본.(그래, 그건 일본.)
106032 #2 게, 우리나라말로 골아야지.(그래, 우리나라말로 말해야지.)
106032 #3 이제 앞으론 신도 아녀. 왜경 때나.(이제 앞으론 신지도 안 해. 일제 강점기 때나.)
106033 @ 그 가죽으론 신 안 만들어 봣수과? 쉐나 뭐 무신.(그 가죽으론 신 안 만들어 봤습니까? 쇠나 뭐 무슨.)
106033 #3 아, 거, 저 놈의 하르방 엿날에 흔 거.(아, 거, 저 남의 할아버지 옛날에 한 거.)
106032 #2 가죽으로 우리 아버진 보선, 보선.(가죽으로 우리 아버진 버선, 버선.)
106033 #3 가죽 보선이여 가죽으로 옷 ᄒᆞ는 사름 엿날에 잇주게.(가죽 버선이여 가죽으로 옷 하는 사람 옛날에 있지.)
106033 @ 아, 아.(아, 아.)
106033 #2 아 게난, 그건 생짐승 신는 거난.(아 그러니까, 그건 날짐승 신는 거니까.)
106033 @ 에, 예.(예, 예.)
106033 #2 거난, 저 거죽으로 헤민 거 추울 때나 뭐나 걱정 없주게 저.(그러니 저 가죽으로 하면 거 추울 때나 뭐나 걱정 없지 저.)
106033 @ 예, 게난 아, 그믄은 가죽으로 보선을 만들엉 초신을 신엉 다녓수과?(예, 그러니까 아, 그러면 가죽으로 버선을 만들어서 짚신을 신어서 다녔습니까?)
106033 #2 아니, 신이 아니고 보선, 보선. 그 벳긔띠 또 신을 신는 거.(아니, 신이 아니고 버선, 버선. 그 밖에 또 신을 신는 거.)
106033 @ 그난 그 벳긔띠 그니까 가죽보선 위에다가 그면 초신 신엉 다녀마씨?(그러니까 그 밖에 그러니까 가죽버선 위에다 그러면 짚신 신어서 다녔나요?)
106033 #2 응.(응.)
106033 @ 겨울에도?(겨울에도?)

106033 #2 아, 겨울 겨울에.(아, 겨울 겨울에.)
106033 #3 신도 깍신 잇곡.(신도 딴총박이 있고.)
106033 @ 음.(음.)
106033 #3 초신 깍신이 잇고.(짚신 딴촐박이가 있고.)
106033 @ 예.(예.)
106033 #3 털멩이 신 잇곡.(털메기 신 있고.)
106033 @ 아, 초신에도마씨?(아, 짚신에도요?)
106033 #3 응.(응.)
106036 @ 아, 초신에도 종류가 잇구나.(아, 짚신에도 종류가 있구나.)
106036 #3 두 가지 두 가지.(두 가지 두 가지.)
106036 @ 아까 초신에 무시거 무시거마씨?(아까 짚신에 뭐 뭐요?)
106036 #3 깍신, 털멩이신.(딴총박이, 털메기.)
106036 #2 하하하하!(하하하하!)
106036 #3 날만이 알아지쿠과?(나만큼 알아지겠습니까?)
106036 @ 깍신은 뭐고 톨멩이, 털멩이 신은 뭐꽈?('깍신'은 뭐고 털메기, 털메기 신은 뭡니까?)
106036 #3 깍신은 깍 내으멍 고양 예쁘게.('깍신'은 총 내면서 고이 예쁘게.)
106036 @ 예.(예.)
102036 #3 고양 힘 첨, 시상 재주 다 뺏견 흔 거고.(고이 힘 참, 세상 재주 다 뺏기며 한 것이고.)
102036 @ 예.(예.)
102036 #3 털멩이는 산듸찍으로 영 헹 꼬아가당 흐쏠 요마니흐민 영 꼬왕 오그리멍 그냥 흐루신엉 마는 털멩이신.(털메기는 밭볏짚으로 이렇게 해서 꼬아가다가 조금 요만큼하면 이렇게 꼬아서 오그리며 그냥 하루신어서 마는 털메기.)
106036 #2 털멩이신이렌 헌건 직접 깍을 영영, 그대로 그걸로 헤영 내우멍 찍 삼는 거고.(털메기라고 한건 직접 총을 이렇게이렇게, 그대로 그걸로 해서 내면서 짚 삼는 거고.)
106036 @ 음.(음.)
106036 #2 저 깍신은 미리 깍을 내여근엥에 헌 거주게.(저 딴총박이는 미리 총을 내여서 한 거지.)
106036 #3 경헌디 또 그 곤 신에 또 무시거 신골이엔 헌 게 잇주, 실골.(그렇게 한데 또 그 고운 신에 또 뭐 신골이라고 한 게 있지, 신골.)
106036 @ 예.(예.)
106036 #3 곤 신에 그 골을 놔 강, 그 신에 곱딱하게 흐젠 흐민.(고운 신에 그 골을 놓아 가서, 그 신에 곱게 하려고 하면.)
106036 @ 예.(예.)
106036 #3 앞 골, 뒷치기, 중간에 두 개.(앞 골, 뒤꿈치, 중간에 두 개.)

106036 @ 예.(예.)

106036 #3 본 내우는 거 ᄒᆞ민 멧 개지 그 가지를 놔야 그 신을 모양 만드는 거.(본 내는 거 하면 몇 가지 그 가지를 놓아야 그 신을 모양 만드는 거.)

106036 @ 게, 거 만들앙 신어봣수과?(그래, 그거 만들어서 신어봤습니까?)

106036 #3 거, 곤 신사 신어봣주게 깍신.(거, 고운 신이야 신어봤지 딴총박이.)

106036 @ 아.(아.)

106036 #3 우리하르바지 짜서.(우리할아버지 결었어.)

106036 #2 아이 이제 새각시신 신는 걸로 하지 아네?(아이 이제 새색시 신 신는 걸로 하지 않아?)

106036 @ 아.(아.)

106036 #3 새각시 신도 엿날에 헷주게. 그거 헹 신고, 시집올 때 어떵 헤신고허민, 나 ᄆᆞᆯ 메우고 가메 탕, 둣게 탄 씨집오고 머리는 어떵허는고 ᄒᆞ민 이만헌 한 건지, ᄃᆞ겡이 ᄐᆞ라지는 건지 쓰곡.(새색시 신도 옛날에 했지. 그거 해서 신고, 시집올 때 어떻게 했느냐하면, 나는 말 매고 가마 타서, 따뜻하게 탄 시집오고 머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만한 한 딴머리, 머리 비뚤어지는 딴머리 쓰고.)

106036 @ 나중에는 것도 질문할 거 이서예. 시집 올 때 어떵 한 거에 대해서예, 아까 가죽은 신은 안 만들고 보선만 만들엉 신엇고예, 그다음엔.(나중에는 것도 질문할 거 있어요. 시집 올 때 어떻게 한 것에 대해서요, 아까 가죽은 신은 안 만들고 버선만 만들어서 신어고요, 그다음엔.)

106036 #2 가죽옷도 이서.(가죽옷도 있어.)

106036 #3 어딧수과?(어디 있습니까?)

106034 @ 아니 지금은 신발에 대해서 질문 하멘예. 아까 조리는 나무로 만든 거꽈?(아니 지금은 신발에 대해서 질문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리는 나무로 만든 겁니까?)

106036 #2 응.(응.)

106036 @ 그믄 나막신은 뭐꽈?(그러면 나막신은 뭡니까?)

106036 #3 조리는 짠 거.(조리는 짠 거.)

106036 #2 나막신은 낭으로 만든 거.(나막신은 나무로 만든 거.)

106036 @ 나막신도 만들어봣수과?(나막신도 만들어봤습니까?)

106036 #2 남신이엥 헹 그자.(나막신이라고 해서 그저.)

106036 @ 남신?(나먹신?)

106036 #3 응.(응.)

106036 @ 남신도 만들어봣수과?(나막신도 만들어봤습니까?)

106036 #2 아니.(아니.)

106036 @ 신어는 봣수과?(신어는 봤습니까?)

106036 #3 아이 신어, 거는 엿날 어른들 ᄒᆞ는 거 봔. 신엉 뎅기는 거 봔.(안 신었어, 그거는 옛날 어른들 하는 거 봤어. 신어 다니는 거 봤어.)

106036 @ 아, 엿날어른들 신어난 거 봣수과?(아, 옛날어른들 신었던 거 봤습니까?)

106036 #3 응.(응.)

106036 #2 거 엿날에 눈에 빠지지 말젠.(그거 옛날에 눈에 빠지지 않으려고.)

106036 @ 예, 게난.(예, 그러니까.)

106036 #3 저 나무로 판 신 남신.(저 나무로 판 신 나막신.)

106036 @ 게, 거 남신은 무슨 낭으로 만들어나신지 모르쿠과?(그래, 그거 나막신은 무슨 나무로 만들었었는지 모르겠습니까?)

106036 #3 몰라, 무시거싼디.(몰라, 뭐였는지.)

106036 #2 그때 뭔낭인지 엿날 사름덜이 만들어놓난 우린 봄만 헷지. 헤보진 아네연.(그때 무슨 나무인지 옛날 사람들이 만들어놓으니 우린 보기만 했지. 만들어보진 안했어.)

106035 @ 그다음엔 초신 만들 때 어떤 식으로 헷는지 처음부터 그거 초신 만들 때 무신걸로 헌덴 헷수과? 새?(그다음엔 짚신 만들 때 어떤 식으로 했는지 처음부터 그거 짚신 만들 때 무슨 걸로 한다고 했습니까? 띠?)

106035 #3 산듸찍.(밭볏짚.)

106035 @ 산듸찍?(밭볏짚?)

106035 #3 응, 산듸찍으로 허는디, 그 산듸 영 여물 도라지는 디 ᄒᆞ고, 요런 남뎅이 영 ᄒᆞᆫ 세예 봉우질 끈엉.(응, 밭볏짚으로 하는데, 그 밭벼 이렇게 이삭 매달리는 데 하고, 요런 줄기 이렇게 한 사이에 봉오리를 끊어서.)

106035 @ 예.(예.)

106035 #3 그걸 모야놩 잿물 들영, 솖는 거라.(그걸 모아놓아서 잿물 들여서, 삶는 거야.)

106035 @ 예.(예.)

106035 #3 그걸로 솖으믄 그 찍이 산듸찍에 거, 경 노랑 헹 곱나고.(그걸로 삶으면 그 짚이 밭볏짚에 것, 그렇게 노랗게 돼서 곱지.)

106035 @ 예.(예.)

106035 #3 경 고면은 영 어르신들 아장 영 보병 싹 허게 허믄, 꼭 고양 놀 꼬아지는 거.(그렇게 고우면 이렇게 어르신들 앉아서 이렇게 부비며 싹 하게 하면, 꼭 고이 놀 꼬아지는 거.)

106035 @ 아, 예.(아, 예.)

106035 #3 꼽닥ᄒᆞ게[149].('곱닥하게'.)

106035 @ 예.(예.)

106035 #3 경헹 꼬면, 요만씩 요만씩 허게 ᄆᆞᆫ 경헤영 멘들아놩.(그렇게 해서 꼬면, 요만큼씩 요만큼씩 하게 모두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놔서.)

106035 @ 예.(예.)

149) '곱닥ᄒᆞ다'는 아주 매끈하고 곱다는 뜻이며, '곱들락ᄒᆞ다'라고 하기도 한다.

106035 #3 그 초신을 삼는디.(그 짚신을 삼는데.)

106035 @ 예.(예.)

106035 #3 그 그거를 앗아 붙히멍 삼아.(그 그거를 가져 붙이면서 삼아.)

106035 @ 음.(음.)

106035 #3 영 삼는디 신골이 멧 겐공 ᄒᆞ민 앞 골, 뒷골, 중간에 요 두 개. 또 멘들아 놩, 금을 끗는 거 무신 남죽 닮은 거ᄒᆞ민 그거가 다슷 개 다슷 개라이.(이렇게 삼는데 신골이 몇 겐가 하면 앞골, 뒷골, 중간에 요 두 개. 또 만들어 놓아서, 금을 긋는 거 무슨 죽젓개 닮은 거하면 그거가 다섯 개 다섯 개야.)

106035 @ 음.(음.)

106035 #3 다슷 갠디 이거 헤근에 쭉 ᄒᆞ게 헤여 놓민 경 고와.(다섯 갠데 이거 해서 쭉 하게 해서 놓으면 그렇게 고왔어.)

106035 @ 음.(음.)

106035 #3 경 고운 거민 새각시 신으로도 ᄒᆞ곡.(그렇게 고운 거면 새색시 신으로도 하고.)

106035 @ 음.(음.)

106035 #3 또 경 아년 건 산듸찍으로 영 헹 삼아가당은에게 털멩이엔 ᄒᆞᆫ 거는 그거는 영 꼬앙 부병 이추룩 ᄒᆞ곡. 털멩이는 그날 신엉 일헹 설러불고.(또 그렇지 않은 건 밭볏짚으로 이렇게 해서 삼아가다가 털메기 한 거는 그거는 이렇게 꼬아서 부벼서 이처럼 하고. 털메기는 그날 신어서 일해서 마쳐버리고.)

106035 @ 음.(음.)

106035 #3 거 새각시에 ᄒᆞ영 신는 신은 삼도 홉는 것도 공들이고.(거 새색시에 해서 신는 신은 삼는 것도 호는 것도 공들이고.)

106035 #2 거 새각시 신은 아무나 숨도 아녀서.(그거 새색시 신은 아무나 삼지도 않았어.)

106035 #3 아무나 아녜여. 엿날 우리 하르바지가 그추룩 허는 거 나가 봐나난 거라.(아무나 안 해. 옛날 우리 할아버지가 그처럼 하는 거 내가 봤었던 거야.)

106035 @ 집에서 흔히 신는 초신은 게민 어떵 꼬앗수과? 털멩이?(집에서 흔히 신는 짚신은 그러면 어떻게 꼬았습니까? 털메기?)

106035 #3 털멩이.(털메기.)

106035 @ 털멩이?(털메기?)

106035 #3 응.(응.)

106035 @ 털멩이, 거민 학교갈 땐 뭐 신엉 갓수과?(털메기, 그러면 학교 갈 땐 뭐 신어서 갔습니까?)

106035 #3 조리나 신엉 가실테주.(조리나 신어서 갔겠지.)

106035 #2 아, 나도 초신 삼아나서.(아, 나도 짚신 삼았었어.)

106035 #3 삼아서? 누게, 수원이 수원이 선생 경 잘 삼앗젠 골아.(삼았어? 누구, 수원이 수원이 선생 그렇게 잘 삼았다고 말해.)

106035 #2 수원이 선생 나보다 두 나 아렌디 그 사름이 삼앗는디 내가 못 삼아?(수원이 선생 나보다 두 살 아래인데 그 사람이 삼았는데 내가 못 삼아?)

106035 @ 음.(음.)

106035 #3 게난, 그거를 솜씨 좋은 사름이 잘 만들아.(그러니까, 그거를 솜씨 좋은 사람이 잘 만들어.)

106035 @ 맞수다.(맞습니다.)

106035 #2 게난, 우리도 그추룩 ᄒᆞ난에 공일날마다 마다 삼아야 한단 말이야.(그러니까, 우리도 그처럼 하니까 공일마다 삼아야 한단 말이야.)

106035 @ 아, 일주일 동안에 학교 다닐 신을 신을.(아, 일주일 동안에 학교 다닐 신을 신을.)

106035 #2 거난, 초신을 나냥으로 삼으면 일주일 신기가 힘들어.(그러니까, 짚신을 나대로 삼으면 일주일 신기가 힘들어.)

106035 @ 아.(아.)

106035 #2 웨냐, 사흘 신엉 뒈쌍 사흘 신어야 허는데.(왜냐, 사흘 신어서 뒤집어 사흘 신어야 하는데.)

106035 @ 예.(예.)

106035 #2 뒈쌍 사흘신기 전에 터저분단 말이여 이게.(뒤집어 사흘 신기전에 터져버린단 말이야 이게.)

106035 @ 예.(예.)

106035 #3 그 신은 초신이렌 ᄒᆞᆫ 거.(그 신은 짚신이라고 한 그거.)

106035 #2 것이 힘이 좋앙 잘 재왕 삼아지민.(그것이 힘이 좋아서 잘 재워서 삼아지면.)

106035 #3 뒈쌍도 신곡 헤여근에 경 신엄주게. 얼마 못신엉 겨난 게다도 멘들앙 게다도 멘들앙 신곡, 게다는 일분 말이주게 그거.(뒤집어서도 신고 해서 그렇게 신었지. 얼마 못 신어서 그러니 게다도 만들어서 게다도 만들어서 신고, 게다는 일본 말이지 그거.)

106035 @ 음.(음.)

106035 #3 경허고 엿날에 신이 어디 서.(그리고 옛날에 신이 어디 있어.)

106035 @ 게, 조리는 뭘로 만들엇수과?(그래, 조리는 뭐로 만들었습니까?)

106035 #3 산듸찍으로.(밭볏짚으로.)

106035 @ 아, 조리도?(아, 조리도?)

106035 #3 응.(응.)

106035 #2 거의 똑 같은 건데, 신 ᄂᆞᆯ, 조린 ᄂᆞᆯ 헌 건 무스걸로 헌지 하냐믄 미우젱이 허면 알아져?(거의 똑 같은 건데, 신 날, 조리는 날을 한 건 무엇으로 하는지 하냐면 새품 알아?)

106035 @ 예, 미우젱이 저 억새 속에 잇는 거예?(예, 새품 저 억새 속에 있는 거요?)

106035 #3 응.(응.)

106035 #2 그거 뽑아다근엥 그거 몰리왕 그걸로 헨에, 거 노를 꼬안에 그 신을 헌거라. 거 다른 날은 산듸찍 ᄀᆞ튼 거 약헹 안 뒈주게.(그거 뽑아다가 그거 말려서 그걸로 해서, 그거 노를 꼬아서 그 신을 한 거야. 그 다른 날은 밭볏짚 같은 거 약해서 안 되지.)

106035 @ 거 억새꽃을 미우젱이렌 ᄀᆞᆯ앗수과?(그거 억새꽃을 새품이라고 말했습니까?)

106035 #3 응, 거 미우젱이.(응, 그거 새품.)

106035 #2 아니, 저 그.(아니, 저 그.)

106035 @ 억새 속을 뭐렌 ᄀᆞᆯ앗수과? 그때.(억새 속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때.)

106035 #2 미우젱이엔 헌 거 이제 그 저.(새품라고 한 거 이제 그 저.)

106035 #3 거 흔들흔들 헌 저거 미우젱이.(그거 흔들흔들 한 저거 새품.)

106035 @ 그 꽃을 그 억새를 아예 미우젱이렌 ᄀᆞᆯ앗구나예?(그 꽃을 그 억새를 아예 새품이라고 말했군요?)

106035 #2 응, 경ᄒᆞ곡 그 저 꽃 말고 꽃 벳긔듸 잇는 게 그 그걸 헤다근엥에 신을 꼬앗주게.(응, 그렇게 하고 그 저 꽃 말고 꽃 밖에 있는 게 그 그걸 해다가 신을 꼬았지.)

106035 #3 그건 신을 꼬우고.(그건 신을 꼬고.)

106035 @ 아, 그담에 그 초신에는 깍신이 잇고 털멩이 신이 잇는데 그 미우젱이로 한 거는 조리를 만들엇다는 거꽈?(아, 그다음에 그 짚신에는 딴총박이가 있고 털메기 신이 있는데 그 새품으로 한 거는 조리를 만들었다는 겁니까?)

106035 #2 아니, 아니 놀 놀 놀.(아니, 아니 날 날 날.)

106035 #3 놀, 놀. 그 저 거시기 무시거라게 미우젱이 나가는 속에걸 헤당 꼬는 놀.(날, 날. 그 저 거시기 뭐야 새품 나가는 속에 걸 해다가 꼬는 날.)

106035 #2 놀이렌 흔 건 모르는 모냥인데.(날이라고 한 건 모르는 모양인데.)

106035 @ 예, 예.(예, 예.)

106035 #2 거 초신 삼젠ᄒᆞ민 거 속에 노[150] 헤근엥에 거 찔긴 거헤야주게.(거 초신 삼으려고 하면 그거 속에 '미' 해서 그거 질긴 거 해야지.)

106035 @ 예.(예.)

106035 #2 그 재우는 거.(그 재우는 것.)

106035 @ 예.(예.)

106035 #2 그걸 놀이엔 허주게. 그 그 그걸 헤근엥에 넉 줄 헤근엥에.(그걸 날이라고 하지. 그 그 그걸 해서 넉 줄 해서.)

106035 @ 예.(예.)

106035 #2 이거 영 헹 넉 줄 헤근엥에 이거 여끄는 거주게. 여꺼근엥에 영 그걸

150) '노' 는 '미'를 말한다. '미'는 '참억새의 꽃이 나오기 전에 그것을 싸고 있는 껍질'을 말한다.

재와근엥에.(이거 이렇게 해서 넉 줄 해서 이거 엮는 거지. 엮어서 이렇게 그걸 재워서.)

106035 @ 그래서 초신을 삼는 거예?(그래서 짚신을 삼는 거요?)

106035 #2 응.(응.)

106035 @ 그럼 발 막 안 아판마씨? 발.(그럼 발 막 안 아팠나요? 발.)

106035 #3 아이고 체암 그 초신을 신어나민 발 베껴지는 사름도 하는디.(아이고 처음 그 짚신을 신어나면 발 벗겨지는 사람도 많은데.)

106035 @ 예.(예.)

106035 #3 추추 신어가민 그런 것도 연십뒈근에 안 ᄒᆞ곡, 체암은 발 베껴정 막 아파.(차차 신어가면 그런 것도 연습되어서 안 하고, 처음은 발 벗겨져서 매우 아프지.)

106035 #2 초신 신을 때 발 뒤치기가 완전히 궹이 뒈주 궹이.(짚신 신을 때 발 뒤꿈치가 완전히 괭이지지 괭이.)

106035 #3 하이고, 잘못뤤 강 엿날에는 그런 고셍, 이제 사름덜사 호강 버쳐가난 별 지랄을 다헴주.(하이고, 잘못돼 가면 옛날에는 그런 고생, 이제 사람들이야 호강 부쳐서 별 지랄을 다하지.)

106035 @ 아이고, 알앗수다예.(아이고, 알았습니다.)

모자 등

106037 @ 그다음엔 모자에 대해서 저기 물어 볼게예? 혹시 모자 같은 경우에는 엿날 일하멍도 쓰고 어디 나들이 다니멍도 썻일 건디 모자는 어떤 종류들이 이서신지 혹시 기억남수과?(그다음엔 모자에 대해서 저기 물어 볼게요? 혹시 모자 같은 경우에는 옛날 일하면서도 쓰고 어디 나들이 다니면서도 썼을 건데 모자는 어떤 종류들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납니까?)

106037 #2 일헐 때 뒈민 페렝이 썽 뎅기고.(일할 때 되면 패랭이 써서 다니고.)

106037 @ 옛날에도 페렝이 썻수과?(옛날에도 패랭이 썼습니까?)

106037 #3 엿날에 페렝이, 페렝이 하영 썻주게.(옛날에 패랭이, 패랭이 많이 썼지.)

106037 #2 페렝이 우리도 하영 만들어나서.(패랭이 우리도 많이 만들었었어.)

106037 @ 아, 직접 만들어낫수과?(아, 직접 만들었었습니까?)

106037 #3 응, 짜네. 밀찍 봉우지 짜근엥에 영 만들아. 만든 게 으라 해 쓰곡 좋아.(응, 짰어. 밀짚 봉우리 짜서 이렇게 만들어. 만든 게 여러 해 쓰고 좋아.)

106037 @ 그 페렝이 만들 땐 뭘로 만들어낫수과?(그 패랭이 만들 땐 뭐로 만들었었습니까?)

106037 #3 밀찍 봉우지 거꺼 놩.(밀짚 봉우리 꺾어 놔서.)

106037 #2 밀찍.(밀짚.)

106037 @ 밀찍이면 밀 갈아난?(밀짚이면 밀 갈아났던?)

106037 #3 응, 엿날에 밀 막 갈앗주게.(응, 옛날에 밀 많이 갈았지.)

106037 @ 아, 기구나. 페렝이 말고는 또 엇엇수과?(아, 그렇구나. 패랭이 말고는 또 없었습니까?)

106037 #2 그전엔 그 페렝이는 그늘 허젠 쓰는 거곡.(그전엔 그 패랭이는 그늘 하려고 쓰는 거고.)

106037 @ 예.(예.)

106037 #2 그늘허젠 쓰는 거곡, 그때는 모자들은 페렝인 모자가 아니고 거 여름철에 거 그늘허젠 허는 거.(그늘하려고 쓰는 거고, 그때는 모자들은 패랭인 모자가 아니고 그거 여름철에 그거 그늘하려고 하는 거.)

106037 #3 페렝이 아녀곡 여름에 그거 그늘 허젠 쓰곡 겨을인 지금궁ᄒᆞ민 대겐 수건 썬 살아.(패랭이 안하고 여름에 그거 그늘 하려고 쓰고 겨울엔 지금쯤이면 대게 수건 써서 살아.)

106037 @ 수건으로예?(수건으로요?)

106037 #3 응, 하르방들은 나까오리[151] 쓰곡 할망들은 수건 썽 살아. 영 헹 마수건 무껑.(응, 할아버지들은 '중절모' 쓰고 할머니들은 수건 써서 살았어. 이렇게 해서 마수건 묶어서.)

106037 @ 겨울에 막 추울 때 어디 먼 디 가젠허면 뭐 쓰는 거 엇엇수과?(겨울에 매우 추울 때 어디 먼 데 가려고하면 뭐 쓰는 것 없었습니까?)

106037 #3 거 게메, 수건 더겡이에 쓰는 거 쓰곡, 그 무시거 수건이나 훈들럿주 모저, 여전 엇엇어.(그거 글쎄, 수건 머리에 쓰는 것 쓰고, 그 무엇 수건이나 휘두르지 모자, 여자는 없었어.)

106037 @ 남자 어른들은마씨?(남자 어른들은요?)

106037 #2 지금은 허지만은 엿날엔 여자는 올케 박게 출입이 힘들엇주.(지금은 하지만 옛날엔 여자는 옳이 밖에 출입이 힘들었지.)

106037 @ 남자어른들은 예를 들어 목수 하시면 이제 먼 디 집짓으레 갈 때 며칠씩 잇다가 오잖아예, 가고 올 때 뭐 안 썽 다녓수과?(남자어른들은 예를 들어 목수 하시면 이제 먼 데 집지으러 갈 때 며칠씩 있다가 오잖아요, 가올 때 뭐 안 써서 다녔습니까?)

106037 #2 저 그땐 그자 아무 거라도 쓸 거 봉강 써야지.(저 그땐 그저 아무 거라도 쓸 거 주워서 써야지.)

106037 #3 아, 저런 모저 썬 살아지나.(아, 저런 모자 써서 살아졌나.)

106037 #2 그때는 허곡 이 저 남저덜토 어디 전 뭐 ᄒᆞ쏠 어디 일헤 난다하믄, 이 향교 ᄀᆞ뜬 거 뎅기는 사름덜은 조곰 나은 거 뭐 어디 상 썽 뎅기고 게안 사름덜은.(그때는 그리고 이 저 남자들도 어디 전 뭐 조금 어디 일이 났다하면, 이 향교 같은 거 다니는 사람들은 조금 나은 거 뭐 어디 사서 써서 다니고, 그렇지 안 한 사람들은.)

151) '나까오리'는 'なかおり' 즉 '중절모자'를 말한다.

106037 @ 거난 걸 뭐렌 골아신지 혹시 모르쿠과? 썽 다녔던 모자가.(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말했는지 혹시 모르겠습니까? 써서 다녔던 모자가.)
106037 #3 나까오리.('중절모'.)
106037 #2 아, 나까오리는.(아, '중절모'는.)
106037 @ 나까오리?('중절모'.)
106037 #2 건, 일본말이고.(그건, 일본말이고.)
106037 @ 나까오리는 뭐꽈? 나까오리.(중절모는 뭡니까? 중절모.)
106037 #3 나까오리는 영 동글랑헤정 전헤진 거 대게 써지고.('중절모'는 이렇게 동그래서 전해진 거 대게 써지고.)
106037 @ 음, 옛날 막 저.(음, 옛날 막 저.)
106037 #2 나까오리 그.('중절모' 그.)
106037 @ 순사들 쓰고 헷던 건가.(순사들 쓰고 했던 건가.)
106037 #2 여름 거는.(여름 거는.)
106037 #3 겨울 거 이디 아정오라봅서, 겨슬 건 어디 서?(겨울 거 이디 가져와 보세요, 겨울 건 어디 있어?)
106037 #2 겨울 거는 엇어.(겨울 거는 없어.)
106037 #3 어? 아이 거먼 거.(어? 아이 그러면 그거.)
106037 #2 이런 식이 나까우리.(이런 식이 '중절모'.)
106037 #3 저거, 저런 나까우리.(저거, 저런 '중절모'.)
106037 @ 아, 그걸 일제시대 부터 썼구나예?(아, 그걸 일제강점기부터 썼군요?)
106037 #3 응, 그거.(응, 그거.)
106037 @ 그전엔 엇엇고예?(그전엔 없었고요?)
106037 #2 그전 일제시대 그전에는 거 그전에는.(그전 일제강점기 그전에는 그거 그전에는.)
106037 #3 그전에는 엇어, 저런 거 서?(그전에는 없어, 저런 거 있어?)
106037 #2 이건 여름 거주게.(이건 여름 거지.)
106037 #3 본이 저런 거.(본이 저런 거.)
106037 #2 나도 이거 사놓긴 사놧는데.
106037 #3 아이 써.(안 써.)
106037 #2 지금 쓰는 사람이 없어. 이거 거난 나도 안 쓰주게.(지금 쓰는 사람이 없어. 이거 그러니까 나도 안 쓰지.)
106037 #3 놈 쓰국 안 쓰국 거멕이주.(남 쓰고 안 쓰고 그거뿐이지.)
106037 @ 그믄 그냥 뭐 페렝이 썻고예?(그러면 그냥 뭐 패랭이 썼고요?)
106039 @ 겨울모자는, 막 겨울에는 특별하게 쓴 건 엇어나고마씨?(겨울모자는, 막 겨울에는 특별하게 쓴 건 없었고요?)
106039 #3 겨울 모저도 저 닮은 거 겨울 거 썻주게. 저디 요 바로.(겨울 모자도 저 닮은 것 겨울 거 썼지. 저기 요 바로.)

106040 @ 그믄 양태는 뭐꽈? 양태.(그러면 양태는 뭡니까? 양태.)

106040 #3 양태가 무시거라? 건 어디 표현이라.(양태가 뭐야? 그건 어디 표현이야.)

106040 @ 모자 모자.(모자, 모자.)

106040 #2 아, 양태모자 그 그것이.(아, 양태모자 그 그것이.)

106040 #3 양털모저?(양털모자?)

106040 #2 양태는 그 저 거시기 우리 아버지도 걸 썽 다녓는데 그 저 뭐인디 저 잇지 저 땅 쏘곱에 사는 저 무시거?(양태는 그 저 거시기 우리 아버지도 그걸 써서 다녔는데 그 저 뭐인지 저 있지 저 땅 속에 사는 저 무엇?)

106040 #3 오로 감티[152]?(오소리 '감티')

106040 #2 오로 감티.(오소리 '감티'.)

106040 #3 오르 감티.(오소리 '감티')

106040 @ 오로 감티?(오소리 '감티'?)

106040 #2 거, 거. 그거 말하는 건게.(거, 거. 그거 말하는 거네.)

106040 @ 오로 감티는 뭘로 만드는 건데마씨?(오소리 '감티'는 무엇으로 만드는 건데요?)

106040 #2 오로가죽.(오소리가죽.)

106040 @ 오로? 오로가 뭐꽈?(오소리? 오소리가 뭡니까?)

106040 #2 오로가 저 땅 소급에 사는 거 저 지다리.(오소리가 저 땅 속에 사는 것 저 오소리.)

106040 @ 아, 지다리로 만든 거예.(아, 오소리로 만든 거요.)

106040 #2 어, 지다리 가죽.(어. 오소리 가죽.)

106040 @ 겨울에는 예, 아, 오로감티 오로감티꽈?(겨울에는 예, 아, 오소리'감티' 오소리'감티'요?)

106040 #2 오로, 오로 하난에.(오소리, 오소리 하니까.)

106040 @ 오로 오로 하난예? 그 오로감티는 지다리로 만들고예?(오소리 오소리 하니까요? 그 오소리 '감티'는 오소리로 만들고요?)

106041 @혹시 그러면 총모자라는 거 들어낫수과? 총모자.(혹시 그러면 총모자라는 것 들었었습니까? 총모자.)

106041 #2 총모저 총으로 만든 모전 모냥인데 그런 모저 저 봐난 거 닮은디.(총모자 총으로 만든 모자인 모양인데 그런 모자 저 봐난 거 닮은데.)

106041 @ 총이 뭐꽈? 총.(총이 뭡니까? 총.)

106041 #2 총은 지금 말허민 ᄆᆞᆯ총.(총은 지금 말하면 말총.)

106041 #3 ᄆᆞᆯ총.(말총.)

106041 @ 말꼬리?(말꼬리?)

106041 #2 말꼬리 그 ᄆᆞᆯ총.(말꼬리 그 말총.)

152) '감티'는 짐승의 가죽이나 천 따위로 만든 방한모의 총칭이다.

106041 @ 아.(아.)

106041 #2 그런 걸로 만든 거주게.(그런 걸로 만든 거지.)

106041 @ 음.(음.)

106041 #3 문 하간듸[153]강 들어오라신게게.(모두 '하간듸'가서 들어서 왔나보네.)

106041 #2 아 게, 딴 데 조사하고 헹 문딱 ᄒᆞ는 거지게.(아 그래, 딴 데 조사하고 해서 모두 하는 거지.)

106042 @ 그 혹시 탕건은 알아지쿠과?(그 혹시 탕건은 알겠습니까?)

106042 #2 탕건도 알주게.(탕건도 알지.)

106042 @ 탕건은 썽 다녓던 분 엇수과?(탕건은 써서 다녔던 분 없습니까?)

106042 #2 탕건은 건 좀 어디 뎅기는 사름덜. 겐디, 탕건은 무시거 뎅기는 사름.(탕건은 건 좀 어디 다니는 사람들. 그런데, 탕건은 무엇에 다니는 사람.)

106042 #3 탕건은 무시거고 멩견은 무시거라, 만히 ᄀᆞᆯ은 담시루?(탕건은 뭐고 망건은 뭐야, 많이 말하는 때문에)

106042 @ 게난, 지금 탕건하고 망건하고.(그러니까, 지금 탕건하고 망건하고.)

106042 #2 탕건이엔 헌 건 그 저 올케 저 옷도 건사하게 출려입고 우에 탕건 영 썽 뎅기는 게 탕건이주게.(탕건이라고 한 건 그 저 옳이 저 옷도 근사하게 차려입고 위에 탕건 이렇게 써서 다니는 게 탕건이지.)

106042 @ 예. 수망리[154]에서는 탕건 만드는 사람 엇어난마씨? 썽 다니는 사람도 엇어낫수과?(예. '수망리'에서는 탕건 만드는 사람 없었나요? 써서 다니는 사람도 없었나요?)

106042 #3 몰라.(몰라.)

106042 #2 거 탕건을 ᄆᆞᆯ총으로 만들아실 거라.(거 탕건을 말총으로 만들었을 거야.)

106042 @ 탕건도마씨? 아 기구나.(탕건도요? 아, 그렇구나.)

106043 @ 망건은마씨?(망건은요?)

106043 #2 망건이나 마나 그거 다 그걸로 만들앗일 건데.(망건이나 마나 그거 다 그걸로 만들었을 건데.)

106043 @ 망건도예?(망건도요?)

106043 #2 어, 게난 그거 우리 만들아보지 아녀난에 모르곡, 거 문딱 그 짜난 사람이 엿날 이서낫주게.(어, 그러니까 그거 우리 만들어보지 않아서 모르고, 거 모두 그 짜난 사람이 옛날 있었었지.)

106043 @ 아, 예.(아, 예.)

106043 #2 테레비에도 흔 번 나오데 거.(텔레비전에도 한 번 나오던데 그거.)

106043 @ 예, 자주 나올거우다 아마도.(예, 자주 나올 겁니다, 아마도.)

153) '하간듸'는 여기저기 여러 곳을 말한다.
154) '수망리'는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를 말한다.

106043 #2 거거 문딱 물총으로 멘든 것덜.(그거 그거 모두 말총으로 만든 것들.)
106044 @ 비 올 때 우장은 입어낫지예?(비 올 때 우장은 입어났지요?)
106044 #2 어.(어.)
106044 @ 우장으론 보통 뭘로 헤근에?(우장으론 보통 뭐로 해서?)
106044 #2 새로 새 벨완.(띠로, 띠 발려서.)
106044 @ 새로 헤근에예?(띠로 해서요?)
106044 #2 새 영 가운 디 꺼 영 꼬리로 문 멘들앗주.(띠 이렇게 가운 데 것 이렇게 꼬리로 모두 만들었지.)
106044 @ 우장은 여기선 우장은 뭐렌 골앗수과?(우장은 여기선 우장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106044 #2 여기도 우장.(여기도 우장.)
106044 #2 우장.(우장.)
106044 @ 혹시 도롱이란 말은 안 들어낫수과?(혹시 도롱이란 말은 안 들었었습니까?)
106044 #3 도롱이? 건 몰라.(도롱이? 그건 몰라.)
106044 #2 도롱이?(도롱이?)
106044 @ 예, 우장을 도롱이렌 헤낫거든마씨.(예, 우장을 도롱이라고 했었거든요.)
106044 #2 난 그 저 고향마다 이디 이름 뜰려근엥에.(난 그 저 고향마다 여기 이름 틀려서.)
106044 #3 우장, 우장.(우장, 우장.)
106044 @ 우장, 우장. 도롱이를 우장, 우장 헷구나. (우장, 우장. 도롱이를 우장, 우장 했구나.)
106044 #2 아, 표준언 몰르고.(아, 표준어는 모르고.)
106044 @ 거 우장도 긴 거 잇고 짧은 거 이섯지예?(거 우장도 긴 거 있고 짧은 거 있었지요?)
106044 #2 아, 건, 사름 키에 마창 ᄒᆞ는 거난.(아, 그건, 사람 키에 맞춰하는 거니까.)
106044 @ 아, 경헷수과? 아이들 건 아이들 거 따로 잇고마씨?(아, 그랬습니까? 아이들 건 아이들 거 따로 있고요?)
106044 #2 아이들은 우장 썽 뎅기는 아이는 별로 엇고.(아이들은 우장 써서 다니는 아이는 별로 없고.)
106044 @ 게민 학교 갈 때 어떵 헷수과? 비오면.(그러면 학교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비오면.)
106044 #2 아이고, 아이고, 학교 거 아정강 어디 강 걸 춪아네여?(아이고, 아이고, 학교 거 가져가서 어디 가서 그걸 찾아내?)
106044 @ 아, 맞다예.(아, 맞네요.)

106044 #2 아, 학교 다닐 땐 학교 데니는 아이는 그거 쓸 생각을 아녀고.(아, 학교 다닐 땐 학교 다니는 아이는 그거 쓸 생각을 안 하고.)

106044 @ 그믄 비 오면 어떵헷수과?(그러면 비 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106044 #3 비 오민 그냥 살 거주. 무신 죽지 아민 살기지, 무신 엿날엔 우산이서 무시거 서. 무시거 우의 갈주럭[155] ᄒᆞ나 둘러쓰민 강오고 헷주.(비 오면 그냥 살 거지. 무슨 죽지 않으면 살기지, 무슨 옛날엔 우산이 있어 뭐 있어. 뭐 위에 '갈주럭' 하나 둘러쓰면 가오고 했지.)

106044 @ 거 학교 먼 먼 학교를 가젠 허면 아침부터 비 와버리면?(그 학교 먼 먼 학교를 가려고 하면 아침부터 비 와버리면?)

106044 #3 아이고, 경헤도 가고.(아이고, 경헤도 가고.)

106044 #2 아, 게난 비오면 안 가불고 거 무신 ᄒᆞ교 데니멍 거 뭐 어딜 가져?(아, 그러니까 비오면 안 가버리고 거 무슨 학교 다니면서 거 뭐 어딜 가져?)

106044 @ 아, 그러게예.(아, 그러게요.)

106044 #3 아이들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비가 젖고 눈이 오고가난에 우리 먼 디서 걸어 아정덜.(아이들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비가 젖고 눈이 오고가니까 우리 먼 데서 걸어 가지고.)

106044 @ 음.(음.)

106044 #3 남원[156]일 걸엉 뎅겨서어, 우리아이덜.('남원'에를 걸어서 다녔어, 우리아이들.)

106044 @ 게난예.(그러게요.)

106044 #2 우리아이들만 걸어뎅긴게 아이라 아방[157]도 걸언 뎅겨서.(우리아이들만 걸어 다닌 게 아니라 아버지도 걸어서 다녔어.)

106044 @ 맞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식생활로 넘어갈게예, 잠깐 쉬고예.(맞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식생활로 넘어갈게요, 잠깐 쉬고요.)

106044 #3 응.(응.)

6. 식생활

밥과 국

107001 @자 시작할게예. 이제, 이제까지는 옷이라던가 집에 대해서 여쭤봣지예? 이제부터는 식생활에 대해서 물어볼게예. 밥에는 어떤 종류가 이수과? 밥 종류. 먼저 밥에 대해서 먼저 여쭤볼 건데예?(자 시작할게요. 이제, 이제까지는 옷이라든가

155) '갈주럭'은 감물들인 천으로 헐떨어져서 찢어진 헝겊조각 따위를 뜻하는데 닳아서 헐떨어진 옷 따위를 낮추어 이르는 말이다.

156) '남원'은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지인 남원리를 말한다. 수망리에서 남원까지는 어른 걸음으로 1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157) '아방'은 아버지를 말하나 여기서 아방은 '발화자인 자신'을 뜻한다.

집에 대해서 여쭤봤지요? 이제부터는 식생활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밥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밥 종류. 먼저 밥에 대해서 먼저 여쭤볼 건데요.)

107001 #3 어휴!<크게 한숨.>(어휴!<크게 한숨.>)

107001 @ 하하하! 밥에는 어떤 종류가 잇수과? 어떤 종류.(하하하! 밥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어떤 종류.)

107001 #3 밥은게 요새 늘어진[158] 기자 쏠밥이고.(밥은 요새 '늘어진' 그저 쌀밥이고.)

107001 @ 예, 쏠밥.(예, 쌀밥.)

107001 #3 국은 기냥.(국은 그냥.)

107001 @ 아니 밥만, 밥만. 국은 나중에 또 질문할게예.(아니 밥만, 밥만. 국은 나중에 또 질문할게요.)

107001 #3 응, 밥은게 그 쏠밥에.(응, 밥은 그 쌀밥에.)

107001 @ 예.(예.)

107001 #3 이따근엥에 무시거 픗도 서껀 ᄒᆞ쏠 먹고.(이따가 무슨 팥도 섞어 조금 먹고.)

107001 @ 옛날에, 옛날에.(옛날에, 옛날에.)

107001 #3 아, 엿날에 헤난 거?(아, 옛날에 했던 거?)

107001 @ 네, 옛날에 거.(네, 옛날에 거.)

107001 #3 아이고, 엿날엔 쏠밥이 어디 시난?(아이고, 옛날엔 쌀밥이 어디 있어서?)

107001 @ 게난.(그러니까.)

107001 #2 엿날에 쏠밥은.(옛날에 쌀밥은.)

107001 #3 보리쏠에 좁쏠 서꺼동 먹고.(보리쌀에 좁쌀 섞어서도 먹고.)

107001 @ 예.(예.)

107001 #3 감저도 놘 먹고.(고구마도 넣어서 먹고.)

107001 @ 예.(예.)

107001 #3 서껑 먹언, 경헷주.(썩어서 먹었어, 그랬지.)

107001 @ 그다음마씨? 그런 밥 밖에 엇엇수가?(그다음은요? 그런 밥 밖에 없었습니까?)

107001 #3 응, 모물ᄀᆞ루헹 요 범벅도 ᄒᆞ쏠 헹 먹고.(응, 메밀가루해서 요 범벅도 조금 해서 먹고.)

107001 @ 맞아예, 거 맛잇잖아예?(맞아요, 그거 맛있잖아요?)

107001 #3 응.(응.)

107001 @ 범벅은.(범벅은.)

107001 #3 그거 ᄒᆞ쏠 만들엉 먹고. 곤밥이 어디 실 말이라.(그거 조금 만들어서

158) '늘어진'은 기본형이 '늘다' 즉 ㉠ 물체의 길이나 넓이, 부피 따위가 본디보다 커지다. ㉡ 수나, 분량 따위가 본디보다 많아지다는 의미로 쓰이나, 여기서는 '흔하다'의 뜻으로 쓰였다.

먹고. 쌀밥이 어디 있을 말이야.)

107001 @ 예.(예.)

107001 #3 감저밥 헹 먹고 조팝 헹 먹고.(고구마밥 해서 먹고 조밥 해서 먹고.)

107001 @ 예.(예.)

107001 #3 보리쏠 ᄒᆞ쏠썩 서껑도 먹고.(보리쌀 조금씩 섞어서도 먹고.)

107001 @ 예.(예.)

107001 #3 곤쏠은 아녀고 제서 때벳긔.(흰쌀은 안 하고 제사 때밖에.)

107002 @ 그다음에 그 밥하기 위해서는 어 밥을 하는 그 쌀들 종류 좀 이야기해 줍서. 아까 곤쌀도 이섯고, 좁쌀도 이섯고, 그다음 뭐가 이섯수과? 밥, 밥하기 위해서 쌀들.(그다음에 그 밥하기 위해서는 어 밥을 하는 그 쌀들 종류 좀 이야기 해 주세요. 아까 흰쌀도 있었고, 좁쌀도 있었고, 그다음 뭐가 있었습니까? 밥, 밥하기 위해서 쌀들.)

107002 #3 보리쌀도 잇고게.(보리쌀도 있고.)

107002 @ 예. 보리쌀도 잇고.(예. 보리쌀도 있고.)

107002 #3 어, 엿날에 그 피쏠도 이서도 피쏠은 경 안 먹으난. 아무나 경 먹어저서? 피쏠도 잇고.(어, 옛날에 그 핍쌀도 있어도 핍쌀은 그렇게 안 먹으니까. 아무나 그렇게 먹어졌어? 핍쌀도 있고.)

107002 @ 피쏠, 예. 그다음에.(핍쌀, 예. 그다음에.)

107002 #3 모물쏠도 잇고. 그거주.(메밀쌀도 있고. 그거지.)

107002 @ 모물쏠도 잇고.(메밀쌀도 있고.)

107002 #2 우리 살림 산지 후젠 피쏠은 힘들고.(우리 살림 산지 후엔 핍쌀은 힘들고.)

107002 @ 좁쏠도, 좁쏠도?(좁쌀도, 좁쌀도.)

107002 #3 좁쏠도 두 가지가 잇주, 히린 쏠이 잇고, 모힌 쏠이 잇고.(좁쌀도 두 가지가 있지, 찰진 쌀이 있고, 메진 쌀이 있고.)

107002 @ 모인 쏠도 잇었고예. 그다음엔(메진 쌀도 있었고요. 그다음엔)

107002 #3 또, 곤쏠도 석산베[159]쏠이렌 헌거.(또, 흰쌀도 '석산벼'쌀이라고 한 거.)

107002 @ 예, 석산베쌀예.(예. '석산벼'쌀요.)

107002 #3 또, 저 보리쏠도 거시기 보리쏠은 여러 가지주, 두줄ᄇᆞ리쏠도 잇고, 솔오리쏠도 잇고, 그자 것보리쏠도 잇고.(또, 저 보리쌀도 거시기 보리쌀은 여러 가지지, 맥주보리쌀도 있고, 쌀보리쌀도 있고, 그자 겉보리쌀도 있고.)

107003 @ 이섯고예. 그믄은 보리쏠로 밥 해먹을 때, 보리밥에는 어떤 종류가 이섯수과?(있었고요. 그러면 보리쌀로 밥 해먹을 때, 보리밥에는 어떤 종류가 있었습니까?)

107003 #3 보리밥에는 기냥 보리쏠만헨 먹고. 어리완ᄒᆞ난 그것에 좁쏠이나 ᄒᆞ쏠

159) '석산베'는 밭벼의 일종이며 찰진 벼를 말한다.

서껀 먹고 허주 무신.(보리밥에는 그냥 보리쌀만해서 먹고. 어려워서하니까 그것에 좁쌀이나 조금 섞어서 먹고 하지 무슨.)

107003 @ 뭐, 이런 감저나 지슬 같은 건 안 헷수과?(뭐, 이런 고무마나 감자 같은 건 안 했습니까?)

107003 #3 저, 무시거 감저도 놘 ᄒᆞ쏠썩 감저도 놘 먹어서 밥에.(저, 뭐 고구마도 넣어서 조금씩 고구마도 넣어 먹었어, 밥에.)

107004 @ 아, 경헷구나예. 그다음 반지기 밥이 뭐우꽈? 반지기 밥.(아, 그랬군요. 그다음 반지기 밥이 뭡니까? 반지기 밥.)

107004 #3 반지기 밥은겐 무시거게 곤쏠에.(반지기 밥은 뭣에 흰쌀에.)

107004 #2 반지기 밥은 여러 가지 서끈 게 반지기주게.(반지기 밥은 여러 가지 섞은 게 반지기 밥이지.)

107004 #3 서꺼, 서끈 걸로 반지기 밥.(섞어, 섞은 걸로 반지기 밥.)

107004 #2 곤쏠도 서끄고 이 뭐 ᄒᆞ는 거.(흰쌀도 섞고 이 뭐 하는 거.)

107005 @ 예, 그다음엔예 흰밥에 대헹 ᄀᆞᆯ아줍서.(예, 그다음에는 흰밥에 대해 말해주세요.)

107005 #2 흰밥이 쏠밥이여, 흰밥이.(흰밥이 쌀밥이여, 흰밥이.)

107005 @ 흰밥이 쌀밥이고 그걸 또 우린 뭐렌 ᄀᆞᆯ앗수가?(흰밥이 쌀밥이고 그걸 또 우린 뭐라고 말했습니까?)

107005 #2 곤밥이옌 고랏주.('곤밥'이라고 말했지.)

107006 @ 곤밥이렌 ᄀᆞᆯ앗지예. 그다음에는 조밥엔 어떤 것들이 잇는지 조밥에 대해서 말헤줍써.('곤밥'이라고 말했지요. 그다음에는 조밥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밥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107006 #3 좁쌀에 조팝이옌 감저도 놓고 모물 느쟁이옌디 흔 것도 ᄒᆞ쏠 서껀 먹고.(좁쌀에 조밥이라고 고구마도 넣고 메밀나깨 한 것도 조금 섞어서 먹고.)

107006 @ 모물느쟁이마씨?(메밀나깨요?)

107006 #3 으, 모물느쟁이, 모물ᄏᆞ루 못헌 거. 그 초불쏠 두불쏠 ᄒᆞ는디. 곤 거, 곤 거로 만들젠 ᄒᆞ민 두불쏠로 ᄒᆞ곡.(어, 메밀나깨, 메밀가루 못한 거. 그 애벌 쌀 두 벌 쌀 하는데. 고운 거, 고운 거로 만들려고 하면 두 벌 쌀로 하고.)

107006 @ 예.(예.)

107006 #3 초불 쏠로 경 ᄀᆞᆯ아난 느젱이 헷주.(애벌 쌀로 그렇게 갈았던 나깨 했지.)

107007 @ 아, 기구나예. 그러면, 그러면 그다음엔 풋밥은 어떵 헷엇수과?(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러면 그다음엔 팥밥은 어떻게 했었나요?)

107007 #3 풋도 ᄒᆞ쏠 서껑 먹고.(팥도 조금 섞어 먹고.)

107007 #2 풋밥이옌, 쏠밥에 풋 놓면 풋밥이주.(팥밥이라고, 쌀밥에 밭 넣으면 팥밥이지.)

107007 @ 풋밥이잖아예. 보리에나 조에는 풋 안 서껑 먹엇수가?(팥밥이잖아요.

보리에나 조에는 팥 안 섞어 먹었습니까?)

107007 #3 그 저 거시기, 무사 보리쌀 솖을 때 픗 놩 솖으민 또 좁쌀도 서끄곡 이거저거 ᄒᆞ민 문 서꺼저부는 거주.(그 저 거시기, 왜 보리쌀 삶을 때 팥 넣어서 삶으면 또 좁쌀도 섞고 이거저거 하면 모두 섞어져버리는 거지.)

107008 @ 음, 경헷구나예. 그다음엔 아까 피밥은 보통사람들 안 먹엇덴 핸게만은, 피밥은 어떤 거꽈?(음, 그랬군요. 그다음엔 아까 피밥은 보통사람들 안 먹었다고 하던데, 피밥은 어떤 겁니까?)

107008 #3 그, 피밥은.(그, 피밥은.)

107008 #2 보통 잘 안 먹음이 아니고, 조금.(보통 잘 안 먹음이 아니고, 조금.)

107008 #3 그 엿날에.(그 옛날에.)

107008 #2 건 농촌이 완전 산에밧긔 안 갈기 때문에. 여기에 저 이기 해변 사람들은 거를 갈아나질 아녓지, 아예.(건 농촌이 완전 산에밖에 안 갈기 때문에. 여기에 저 여기 해변 사람들은 그거를 갈아나질 않았지, 아예.)

107008 @ 수망리에서는 피밥을 안 먹어봔마씨?('수망리'에서는 피밥을 안 먹어봤나요?)

107008 #3 아니, 엿날에 ᄒᆞ쏠 먹어 뎅겻주마는, 베랑.(아니, 옛날에 조금 먹어 다녔지만, 별로.)

107008 #2 피밥, 우리아버지 산 때 피밥 우린 많이 먹엇주.(피밥, 우리아버지 산 때 피밥 우린 많이 먹었지.)

107008 @ 그럼 피밥은, 부제가 먹는 거꽈, 아니면?(그럼 피밥은, 부자가 먹는 겁니까, 아니면?)

107008 #2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7008 @ 엇인 사름덜이, 엇인 사름덜이 먹는 거꽈?(없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먹는 겁니까?)

107008 #2 어, 어.(어, 어.)

107009 @ 그다음엔 감저밥은 뭐꽈? 감저밥.(그다음엔 고구마밥은 뭡니까? 고구마밥.)

107009 #3 감저밥은게.(고구마밥은.)

107009 #2 고구마!(고구마.)

107009 #3 으.(으.)

107009 @ 게난 감저에 무슨 그 쏠들 서끈 거마씸?(그 고구마에 무슨 그 쌀들 섞은 거요?)

107009 #3 응, 밥 ᄒᆞ는 디 서꺼 난ᄀᆞ라 감저밥이엔.(응, 밥 하는 데 섞은 것보고 고구마밥이라고.)

107009 #2 밥, 밥에 감저 논디, 그 서끈 거주.(밥, 밥에 고구마 넣은 데, 그 섞은 거지.)

107010 @ 음. 그다음에 무밥도 먹어낫수가?(음. 그다음에 무밥도 먹었었습니

까?)

107010 #3 아니, 우리는 그런 건 안 헤 먹어난.(아니, 우리는 그런 건 안 해먹었었어.)

107010 @ 놈삐밥 안 헤 먹어난마씨?(무밥 안 해먹었었어요?)

107011 @ 그다음엔 예 여기 바닷가 사람들은 늘상 헤먹엇다고 헨게만은, 저 톨로, 톨밥 헤먹어낫수과?(그다음엔 예 여기 바닷가 사람들은 늘 해먹었다고 하던데, 저 톳으로, 톳밥 해먹었었나요?)

107011 #3 아니.(아니.)

107011 #2 아니. 그런 거 안헤난.(아니. 그런 거 안 했었어.)

107011 @ 그런 거 안 헤먹어보고예?(그런 거 안 해먹어보고요?)

107011 #2 거 이제 톨 여 할망[160] 여 뭐 ᄒᆞ쏠 사완게만 데껴불렌 헷주, 하하하.(그거 이제 톨 여기 '내자' 여기 뭐 조금 사왔기에 던져버리라고 했지, 하하하.)

107012 @ 음, 패밥은마씨?(음, 패밥은요?)

107012 #2 것도 아녀보고.(그것도 안 해보고.)

107012 @ 패밥도 바닷가가 아니난 안 헷구나예?(패밥도 바닷가가 아니어서 안 했군요?)

107013 @ 자 이제는예, 국에 대해 ᄀᆞᆯ아줍서. 국에는 어떤 종류가 이서낫수가? 옛날에.(자 이제는요, 국에 대해 말해주세요. 국에는 어떤 종류가 있었습니까? 옛날에.)

107013 #3 국은 놈삐국도 먹곡게, 또 저 무시거 메역국도 헹 먹고.(국은 무국도 먹고, 또 저 뭐 미역국도 해서 먹고.)

107013 @ 예.(예.)

107013 #3 또, 웨넹국도 헹 먹고.(또, 오이냉국도 해서 먹고.)

107013 @ 예.(예.)

107013 #3 그런 것에 놓는 거는 이제 가지각색. 고깃국 끌렁먹구정 ᄒᆞ민 그거 메역도 놩 먹고, 무도 놩 먹고.(그런 것에 놓는 거는 이제 가지각색. 고깃국 끓여먹고 싶어 하면 그거 미역도 넣어먹고, 무도 넣어먹고.)

107013 @ 음, 그다음에는 그 국에 뭐 뒌장국 같은 것도 잇고 저 궤기국할 때 쉐궤기도 놓주만은.(음, 그다음에는 그 국에 뭐 된장국 같은 것도 있고 저 고기국할 때 소고기도 넣지만.)

107013 #3 거, 국할 때 뒌장국은 ᄂᆞ물국 ᄀᆞ뜬 거 할 때 좋고, 저 거시기는 고기에, 소고기나 바닷궤기나 홀 때는 이딧 장 놔야 이딧 장이 맛 좋주. 나 산 장으로는 안 먹어봐서 ᄀᆞ자, 집이 장 ᄃᆞᆷ은 걸로 먹주.(그거, 국할 때 된장국은 나물국 같은 거 할 때 좋고, 저 거시기는 고기에, 소고기나 바닷고기나 할 때는 여기 장 넣어야 여기 장이 맛 좋지. 나는 사온 장으로는 안 먹어봐서 여태까지, 집의 장 담근 걸로 먹지.)

160) '할망'은 '할머니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아내인 '내자'를 이른다.

107013 @ 해마다 장 담감수과?(해마다 장 담고 있습니까?)

107013 #3 음, 안 듬아, 작년부터는 안 듬안.(음, 안 담가, 작년부터는 안 담가.)

107013 @ 무사마씨?(왜요?)

107013 #3 이제 실퍼.(이제 싫어서.)

107013 @ 경헤도, 게믄 집에서 장 안 담으면.(그래도, 그러면 집에서 장 안 담그면.)

107013 #3 안 먹언. 안직ᄁᆞ장. 이제 이 해 구물민 듬앙 먹을 때 뒈켄 헤야.(안 먹었어. 아직까지. 이제 이 해 저물면 담아서 먹을 때 되겠다고 해야.)

107013 @ 아, 콩은 게믄 사다근에마씸?(아, 콩은 그러면 사다가요?)

107013 #3 아직까진 산 아녀 보난, 어성 사살 거난 아년에.(아직까진 사서 안 해보니까, 없어 사야할 거여서 안 해서.)

107013 @ 게믄 내년에 콩 갑서예.(그러면 내년에 콩 가세요.)

107013 #3 사사 ᄒᆞ크라. 우리 간 거 서야 거 저 듬을 건디. 못헐 꺼.(사야 하겠어. 우리 간 거 있어야 그거 저 담글 건데. 못할 거.)

107013 #2 우리도 ᄒᆞ쏠 가는디, 잘 안뒈.(우리도 조금 가는데, 잘 안 돼.)

107013 @ 기꽈?(그래요?)

107013 #3 게난 니랑 ᄒᆞ쏠썩 집이꺼 산, 사자니언 국을 헷는디.(그러니까 늘 조금씩 집에 것 산, 사지 않아서 국을 했는데.)

107013 @ 음.(음.)

107013 #3 작년은 콩을 사살 거난 장 안 듬으난.(작년은 콩을 사야할 거여서 장 안 담그니까.)

107013 @ 음.(음.)

107013 #3 경헤도 그 문저 장으로 이제ᄁᆞ장 먹엇는디.(그래도 그 먼저 장으로 이제까지 먹었는데.)

107013 @ 음.(음.)

107013 #3 이 해 구물면은 겨울인 콩 상 줍아사.(이 해 그물면 겨울에는 콩 상 집어야.)

107013 @ 음.(음.)

107013 #3 겨난 난 산 장으로만 먹주게.(그래서 나는 사온 장으로 만 먹주게.)

107014 @ ᄂᆞ물국에 대해서 ᄀᆞᆯ아줍서. ᄂᆞ물국은 어떤 무신 ᄂᆞ물, 어떵 끌렷수과?(나물국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나물국은 어떤 무슨 나물, 어떻게 끓였습니까?)

107013 #3 ᄂᆞ물은 겐, 뭰장, 뭰장 놘 ᄂᆞ물국은 끌리고.(나물은 그래서, 된장, 된장 넣어 나물국은 끓이고.)

107014 @ 음.(음.)

107014 #3 무 ᄀᆞ뜬 거 무신 저 거시기 메역국 ᄀᆞ뜬 건 이디 물장 놘 끌리고.(무 같은 것은 무슨 저 거시기 미역국 같은 건 여기 간장 넣어 끓이고.)

107013 #2 메역은 ᄂᆞ물국이 아이주게.(미역은 나물국이 아니지.)

107014 @ 음, ᄂᆞ물국에 대헹예. 뒌장으로 만들엉예. 콩나물국은 아까 콩나물은 직접 콩나물 틔왕도 먹엇덴 헷잖아예?(음, 나물국에 대해서요. 된장으로 만들어서요. 콩나물국은 아까 콩나물은 직접 콩나물 틔워서도 먹었다고 했잖아요?)

107014 #3 전인 틔완도 먹고, 난 우린 원레가 원 뒌장을 잘 안 먹어져. 국 하는 건, 뒌장에서, 국물장, 그런 것만 잘 먹고. ᄂᆞ물국에만 뒌장 ᄒᆞ쏠 놓고.(전에는 틔워도 먹고, 난 우린 원래가 원 된장을 잘 안 먹어지지. 국 하는 건, 된장에서, 간장, 그런 것만 잘 먹고. 나물국에만 된장 조금 넣고.)

107014 @ 음, 그럼 콩나물국에는 게믄 뭐 놧수과?(음, 그럼 콩나물국에는 그러면 뭐 넣었습니까?)

107014 #3 나는 물장만 놔.(나는 간장만 넣어.)

107014 @ 아, 물장예.(아, 간장이요.)

107014 #3 응.(응.)

107016 @ 그다음엔 무국은마씨? 무, ᄂᆞᆷ삐국.(그다음엔 무국은요? 무, 무국.)

107016 #3 물장. 물장.(간장, 간장.)

107016 @ ᄂᆞᆷ삐국도 물장예?(무국에도 간장이요?)

107016 #3 어, ᄂᆞ물국 ** 건만.(어, ᄂᆞ물국 ** 건만.)

107016 @ ᄂᆞᆷ삐국에는 그냥 ᄂᆞᆷ삐만 놘헷수과?(무국에는 그냥 무만 넣어서했습니까?)

107016 #3 그 그것이 무시거 콩ᄂᆞ물도 ᄒᆞ쏠 놓고.(그 그것이 뭐 콩나물도 조금 넣고.)

107016 @ 놓기도 하고예.(넣기도 하고요.)

107016 #3 메역도 ᄒᆞ쏠 뿔아 놘 서껑.(미역도 조금 빨아 넣어 섞어.)

107017 @ 콩국, 어.(콩국, 어.)

107017 #3 콩국에는 소금 놘 끌련.(콩국에는 소금 넣어 끓였어.)

107017 @ 아, 콩. 그 뜨거운 콩가루로.(아, 콩. 그 뜨거운 콩가루로.)

107017 #3 응.(응.)

107017 @ 우리 오늘 먹은 건 생, 아니 그 뭐지? 오늘은?(우리 오늘 먹은 건 생, 아니 그 뭐지? 오늘은 그.)

107017 #3 기냥 ᄀᆞ루로 ᄒᆞᆫ 거게.(그냥 가루로 한 거지.)

107017 @ 아, 기지예?(아, 그렇지요?)

107017 #3 그거는 소금ᄒᆞᆫ 거주.(그거는 소금한 거지.)

107017 @ 콩국에는 뭐 뭐 놘 헷수가? 물장도 놧주만은. ᄂᆞᆷ삐?(콩국에는 뭐 뭐 넣어 했습니까? 간장도 넣었지만. 무?)

107017 #3 아니, 콩국에는 저 무시거 뒌장, 저 저 소금.(아니, 콩국에는 저 뭐 된장, 저 저 소금.)

107017 @ 예, 소금.(예, 소금.)

107017 #3 소금 놓고 무 놔도 뒈고, 썹ᄂᆞ물도 뒈고.(소금 넣고 무 넣어도 되고, 잎나물도 되고.)

107017 @ 아, 기꽈?(아, 그래요?)

107017 #3 그거는 아무거도 뒈어.(그거는 아무것도 돼.)

107017 @ 아, 기꽈? 아 썹ᄂᆞ물도 놧수과?(아, 그래요? 아 잎나물도 넣었습니까?)

107017 #3 음.(음.)

107018 @ 호박입국도 끌령 드셤지예?(호박잎국도 끓여서 드시고 계시지요?)

107018 #3 호박입국에는 저 무시거 놔야, ᄀᆞ루 ᄒᆞ쏠 서꺼야.(호박잎국에는 저 뭐 넣어야, 가루 조금 섞어야.)

107018 @ 아, 밀ᄀᆞ루마씸?(아, 밀가루요?)

107018 #3 응, 거 서꺼야. 밀ᄀᆞ루고 모물ᄀᆞ루고 호박입국엔 놔야.(응, 거 섞어야. 밀가루고 메밀가루고 호박잎국에는 넣어야.)

107019 @ 몰망국은 안 끌려 먹어봣수과?(모자반국은 안 끓여 먹었었습니까?)

107019 #3 아니, 몰망국은 아니 먹고, 몰망국은 저 무시거 큰일 때예.(아니, 모자반국은 아니 먹고, 모자반국은 저 무슨 큰일 때에.)

107019 @ 예.(예.)

107019 #3 그 엿날에 무신 큰일허젠 ᄒᆞ민, 헤근에 그 고기 ᄉᆞᆲ아난 물에 몰망 놓고 ᄀᆞ루 ᄒᆞ쏠 놓곡 헤근에.(그 옛날에 무슨 큰일하려고 하면, 해서 그 고기 삶았던 물에 모자반 넣고 가루 조금 넣고 해서.)

107019 @ 수망리도 몰망국, 몸국은 헤낫지예? 잔칫날 같은 때.('수망리'도 모자반국, 모자반국은 헤 했었지요? 잔칫날 같은 때.)

107019 #3 어, 응 응. 그런 거. 그거.(어, 응 응. 그런 거. 그거.)

107020 @ 그다음에 생선으로 만드는 물고기, 생선으로 만드는 국은 어떤 종류가 잇수과?(그다음에 생선으로 만드는 물고기, 생선으로 만드는 국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107020 #3 생선으로 ᄒᆞ는 거는 메역 놔야.(생선으로 하는 거는 미여 넣어야.)

107020 @ 아, 메역.(아, 미영.)

107020 #3 어, 생선국엔 메역 놔야.(어, 생선국엔 미역 넣어야.)

107020 @ 생선은 주로 어떤 걸 썻수과?(생선은 주로 어떤 걸 썼습니까?)

107020 #3 솔라니.(옥돔.)

107020 @ 솔라니만예? 솔라니로만 국 끌렷수가?(옥돔만이요? 옥돔으로만 국 끓였습니까?)

107020 #3 기자 ᄒᆞ는 건 다른 거 ᄒᆞ쏠썩 ᄒᆞᆫ 거 끌리주만은 솔라니국이나 소고기국이나 메역놓고.(그저 하는 건 다른 거 조금씩 한 거 끓이지만 옥돔국이나 소고기국이나 미역 놓고.)

107020 @ 게, 메역국에 할 때는 솔라니나 쉐고기나 놓는 게 메역국예?(그래, 미

역국에 할 때는 옥돔이나 소고기나 놓는 게 미역국이요?)

107020 #3 응, 메역국에 그거 ᄒᆞ는 디 집이 장.(응, 미역국에 그거 하는 디 집엣 장.)

107020 @ 집이 장으로예? 물장으로예.(집엣 장으로요? 간장으로요.)

107020 #3 응.(응.)

107022 @ 음, 그러면 아까 넹국 잠깐 저기 오이넹국인가? 넹국은 어떤 어떤 것들이 이섯수가?(음, 그러면 아까 냉국 잠깐 저기 오이냉국인가? 냉국은 어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107022 #3 저 웨넹국엔 뒌장 놩 헤여.(저 오이냉국엔 된장 넣어 해.)

107022 @ 웨, 게난 넹국에는 어떤 종류가 잇수과? 웨넹국 잇고, 또.(오이, 그러니까 냉국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오이냉국 있고, 또.)

107022 #3 난 그거벳긔 몰라.(난 그거밖에 몰라.)

107022 @ 웨냉국 말고예, 음.(오이냉국 말고요, 음.)

107022 #3 뒌장에 이거저거 문딱 헷당 그거 ᄒᆞ쏠 거려 놩 그자 먹어.(된장에 이거저거 모두 했다가 그거 조금 떠 넣어 그저 먹어.)

107023 @ 그다음에는, 성게국도 끌려봣수과?(그다음에는, 성게국도 끓여봤습니까?)

107023 #3 응.(응.)

107023 @ 성게국에는 뭐 놔마씨?(성게국에는 뭐 넣어요?)

107023 #3 성게국엔 조개다시다[161].(성게국에는 '조개다시다'.)

107023 @ 조개다시다를 놔 가지고.('조개다시다'를 넣어 가지고.)

107023 #3 응.(응.)

107023 @ 음, 그 저기 건더기는마씨? 성게 말고, 건더기는? 미역, 메역?(음, 그 저기 건더기는요? 성게 말고, 건더기는? 미역, 미역?)

107023 #3 메역.(미역.)

107023 @ 메역만예.(미역만이요.)

107023 @ 그다음엔 혹시 보말국도 끌려먹어봣수과?(그다음엔 혹시 보말국도 끓여 먹어봤습니까?)

107023 #3 아니, 그런 거 어디신줄, 헤 와야 말이주.(아니, 그런 거 어디 있는지, 해 와야 말이지.)

107023 @ 너패국도 안 끌려 먹고예?(패국도 안 끓여 먹고요?)

107023 #3 아, 너패국은 모물ᄀᆞ루 놔.(아, 패국은 메밀가루 넣어.)

107023 @ 아, 너패국은 끌려먹어 봣수과?(아, 패국은 끓여먹어 봤습니까?)

107023 #3 음. 거는 저, 어디서 태흥리[162] 이신 때.(음. 거는 저, 어디서 태흥리 있을 때.)

---

161) '다시다'는 일본어 'だし'에서 온 말로, '멸치, 다시마, 조개 따위를 우려내어 맛을 낸 국물'을 말하는데 여기서 '조개다시다'는 '화학조미료로 조개 맛을 낸 상품'이름을 말한다.

162) '태흥리'는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를 말한다. 바닷가 마을이다.

107023 @ 아, 바닷가.(아, 바닷가.)

107023 #3 수망리에는 당추 엇어.('수망리'에는 당최 없어.)

107023 @ 게난 태흥리 이실 때 헷던 것도 생각나는 대로 ᄀᆞᆯ아줘예.(그러니까 '태흥리' 있을 때 했던 것도 생각나는 대로 말해주세요.)

107023 @가시리로는 국 끌려 먹어봣수과? 가시리.(풀가사리로는 국 끓여먹어 봤습니까? 풀가사리.)

107023 #3 메역새[163]사 국 끌렁 먹엇지만 가시리 국사 끌려?('미역새'야 국 끓여 먹었지만 풀가사리 국이야 끓여?)

107023 @ 음.(음.)

107023 #3 가시리? 너패국은 이서도.(풀가사리? 패국은 있어도.)

107023 @ 너패국은 이서도예.(패국은 있어도요.)

107023 @ 그다음엔 파래국은 끌려먹어 봣수과?(그다음엔 파래국은 끓여먹어 봤습니까?)

107023 #3 파래 엿날 엿적에 어어 어디고 ᄒᆞ쏠 끌린 거 얻어, ᄒᆞᆫ 번 얻어먹어나신디 어떵사 헤신지.(파래 옛날 옛적에 어어 어디고 조금 끓인 거 얻어, 한 번 얻어 먹었었는지 어떻게야 했는지.)

107023 @ 물훼는, 안 헹 드셔봣수과?(물회는, 안 해서 드셔봤습니까?)

107023 #3 아니. (아니.)

107023 @ 자리물훼도 안 헤봣수과?(자리물회도 안 해봤습니까?)

107023 #3 아, 그런 거는 먹주.(아, 그런 거는 먹지.)

107023 @ 게난, 자리물훼, 물훼, 물훼.(그러니까, 자리물회, 물회, 물회.)

107023 #3 뭐, 물훼. 자리, 그런 건 잘 먹어. ᄒᆞ지는 실퍼도.(뭐, 물회. 자리돔, 그런 건 잘 먹어. 하기는 싫어도.)

107023 @ 여기, 하하. 수망리에서도 자리물훼는 헤 드시지예?(여기, 하하. '수망리'에서도 자리물회는 해 드시지요?)

107023 #3 응, 막 그건 먹어.(응, 막 그건 먹어.)

107023 @ 자리물훼 말고 물훼 종류는 다른 거 엇수과?(자리물회 말고 물회 종류는 다른 거 없습니까?)

107023 #3 몰라, 난 자리훼만 거 먹어난.(몰라, 난 자리훼만 거 먹어난.)

107023 #2 요새 요새도 우리 경로당 모임하믄 자리물훼들 여름철 먹는디.(요새 요새도 우리 경로당 모임하면 자리물회들 여름철 먹는데.)

107023 #3 저 경로당 모임으로 강 막 먹어, 먹으믄.(저 경로당 모임으로 가서 막 먹어, 먹기는.)

107023 @ 경로당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먹엄수과?(경로당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먹습니까?)

163) '메역새'는 '바다의 돌에 짤막하게 돋은, 미역과 비슷하게 생긴 해초'를 말하며 '미역쉐'라고 하기도 한다.

107023 #2 아, 건 경로당마다 뜰리주게.(아, 그건 경로당마다 다르지.)

107023 #3 아, 흔 둘에 흔 번은 맞아.(아, 한 달에 한 번은 맞아.)

107023 #2 아 게, 우리 수망리는 한 달에 한번 허고. 게난 그 경로당에 그 훼의에 지정허기예 달려 잇으니까.(아 그래, 우리 '수망리'는 한 달에 한번 하고. 그러니 그 경로당에 그 회의에 지정하기에 달려 있으니까.)

107023 @ 맞수다예.(맞습니다.)

죽류

107024 @ 다음에는 죽에 대해서 저가 저기 물어볼게예. 어, 죽에는 어떤 종류들이 잇수과?(다음에는 죽에 대해서 제가 저기 물어볼게요. 어, 죽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107024 #3 풋죽도 잇고.(팥죽도 있고.)

107024 @ 예.(예.)

107024 #3 콩죽도 잇고.(콩죽도 있고.)

107024 @ 예.(예.)

107024 #3 전복죽도 잇고.(전복죽도 있고.)

107024 @ 예.(예.)

107024 #3 무신 죽사 멧 가지 핫주.(무슨 죽이야 몇 가지 많지.)

107024 @ 게난 생각나는 대로 다 굴아봅서.(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해보세요.)

107024 #3 풋죽.(팥죽.)

107024 @ 풋죽.(팥죽.)

107024 #3 콩죽.(콩죽.)

107024 @ 콩죽, 전복죽.(콩죽, 전복죽.)

107024 #3 전복죽.(전복죽.)

107024 @ 그다음.(그다음.)

107024 #3 모물쏠.(메밀쌀.)

107024 #2 아무, 아무거예나 놔근엥 죽 쑤민 먹을 거지.(아무, 아무것에나 넣어서 죽 쑤면 먹을 거지.)

107024 @ 모물죽.(메밀죽.)

107024 #3 모물쏠죽.(메밀쌀죽.)

107024 @ 예, 모물죽.(예. 메밀죽.)

107024 #3 곤쏠만 놩도.(흰쌀만 넣어서도.)

107025 @ 쏠죽예, 곤죽예, 곤죽. 음, 그믄 곤죽에 대해선, 곤죽은 어떵 쑵니까? 참.(쌀죽이요, 흰죽이요, 흰죽. 음, 그러면 흰죽에 대해선, 흰죽은 어떻게 쑵니까? 참.)

107025 #3 어떵 ᄒᆞ여, 물 하영 놓민 죽이 뒈고, 족영 놓면 밥이 뒈고.(어떻게

해, 물 많이 넣으면 죽이 되고, 조금 넣으면 밥이 되고.)

107025 #2, 3, @ 하하하하.<동시에 큰 웃음.>(하하하하.<동시에 큰 웃음.>)

107026 @ 조축에 대헹 ᄀᆞᆯ아줍써, 조축.(조죽에 대핸 말해주세요, 조죽.)

107026 #3 조축도 마찬가지주게.(조죽도 마찬가지지.)

107026 @ 조축은, 어, 곤죽하고는 좀 다르게 쑤지 안 헤마씨?(조죽은, 어, 흰죽하고는 좀 다르게 쑤지 안 해요?)

107026 #3 무신, 쑤는 거사 달라?(무슨, 쑤는 거야 달라?)

107026 #2 그거 물 하영 놓민 죽 아이라? 그거 원 무신.(그거 물 많이 넣으면 죽 아니야? 그거 원 무슨.)

107026 #3 물 하영 놓민 죽이 뒈고, 족영 놓민은 범벅뒈고, 더 족영 놓민 밥이 뒈고.(물 많이 넣으면 죽이 되고, 조금 넣으면 범벅되고, 더 조금 넣으면 밥이 되고.)

107027 @ 음, 그 팥죽은 픗 놘 허는 픗죽하고예.(음, 그 팥죽은 팥 넣어서 하는 팥죽하고요.)

107027 #3 음.(음.)

107027 @ 픗죽은 그냥 동지 웨에도 픗죽 끌려 먹을 때 이서마씨?(팥죽은 그냥 동지 외에도 팥죽 끓여 먹을 때 있나요?)

107027 #3 미깡 탈 때는 간식.(밀감 딸 때는 간식.)

107027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07027 #3 아아, 솖앙. 압력밥솟에 솖앗다근에 간식으로다가.(아아, 삶아서. 압력밥솥에 삶았다가 간식으로다가.)

107028 @ 콩죽은, 콩죽은 어떵 끌립니까?(콩죽은, 콩죽은 어떻게 끓입니까?)

107028 #3 콩죽도게, 쏠 놓곡, 그냥 죽 쑤듯 쑤는디, 대게 픗죽을 잘 쒀.(콩죽도, 쌀 넣고, 그냥 죽 쑤듯 쑤는데, 대게 팥죽을 잘 쒀.)

107028 @ 픗죽. 아 콩죽도 그 픗처럼 콩 알 그걸로 그냥 죽을 끌립니까?(팥죽. 아 콩죽도 그 팥처럼 콩 알 그걸로 그냥 죽을 끓입니까?)

107028 #3 아니 ᄀᆞ루 ᄀᆞᆯ아당.(아니 가루 갈아다가.)

107028 @ 아, 그믄.(아, 그러면.)

107028 #3 ᄀᆞ루 콩국 ᄒᆞ듯 ᄀᆞ루 ᄀᆞᆯ아당 ᄒᆞᆫ 걸로, 쏠 놓곡 죽 쑤는 거.(가루 콩국 하듯 가루 갈아다가한 걸로, 쌀 놓고 죽 쑤는 거.)

107028 @ 게민 콩은 국 끌리젠 하면 확 부꺼[164]불잖아마씨.(그러면 콩은 국 끓이려고 하면 확 '부꺼'버리잖아요.)

107028 #3 그거는.(그거는.)

107028 @ 콩죽.(콩죽.)

107028 #3 불 솔 때 부끌 걸로 싹 알앙 헨디, 저 오깍[165] 부끄지 아년 때 멩심

164) '부꺼'는 기본형이 '부끄다'이다. '부끄다'는 '끓어 넘치다'의 그 상태를 말한다.

165) '오깍'은 콩국 등 무엇을 끓일 때 끓음과 동시에 거품이 순식간에 솥에서 넘치려는 순간을 말하는데, '금새', '순식간에', 혹은 '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헤사. 겨난, 그 국이 어떵 헤서 맛잇는공 ᄒᆞ민.(불 땔 때 '부끌' 걸로 싹 알아서 했는데, 저 '오깍' '부끄지' 않은 때 명심해야. 그러니, 그 국이 어떻게 해서 맛있는지 하면.)

107028 @ 아니, 죽 끌릴 때도, 콩 죽을 끌릴 땐?(아니, 죽 끓일 때도, 콩 죽을 끓일 땐?)

107028 #3 죽 끌릴 때?(죽 끓일 때?)

107028 @ 예.(예.)

107028 #3 죽 끌릴 땐 어떵사헤여신디, 대게는 우린 폿죽ᄒᆞ곡 콩국은 잘 끌리는디, 콩국ᄒᆞᆯ 때 잘못ᄒᆞ민 확 부꺼.(죽 끓일 땐 어떻게야했는지, 대게는 우린 팥죽하고 콩국은 잘 끓이는데, 콩국할 때 잘못하면 확 '부꺼'.)

107028 @ 게난예.(그러게요.)

107028 #3 경허난 그 국을 ᄒᆞᆯ 때에 어떵 ᄒᆞ는고허민, 저 그 ᄀᆞ루영 물 놔근에 죽ᄒᆞᆯ마니, 저 국ᄒᆞᆯ마니 물 놓.(그러니까 그 국을 할 때에 어떻게 하는가하면, 저 그 가루랑 물 넣어서 죽 할 만큼, 저 국 할 만큼 물 넣어.)

107028 @ 예.(예.)

107028 #3 그 물이 뤨 거 아니?(그 물이 끓일 거 아니?)

107028 @ 예.(예.)

107028 #3 싹 궤면은, 저 그 숭키를 놔.(싹 끓으면, 저 그 푸성귀를 넣어.)

107028 @ 예.(예.)

107028 #3 ᄂᆞ물.(나물.)

107028 @ 예.(예.)

107028 #3 ᄂᆞ물을 놓 그 우트레 ᄀᆞ루를 놓는 거라.(나물을 넣어 그 위에 가루를 넣는 거야.)

107028 @ 아.(아.)

107028 #3 놓왕 영 헤근엥에 불 ᄒᆞ쏠 줄영, 영 헤지민 거 폭삭 익으민, ᄀᆞ만이 시며는 그게 저 소곰 놓곡, 소곰 놔야.(넣어서 이렇게 해서 불 조금 줄여서, 이렇게 해지면 그거 폭삭 익으면, 가만히 있으면 그게 저 소금 넣고, 소금 넣어야.)

107028 @ 예.(예.)

107028 #3 으. 소곰 놓곡 헤근엥에 꽉 헹, 영 헹 저스멍 ᄀᆞ만히 톡 더껑 끌리질 만히 헤근엥 끌렁ᄒᆞ멘 부꿈여비 엇이, 그 완전, 부각ᄒᆞ곡. 저 미릇헹 막 저서불곡 어떵헨 ᄒᆞ민, 국이 기자 지르르륵[166] ᄒᆞ게 안 좋고. 그 맞춰완 잘 숭키 놓곡 저 그 ᄀᆞ루 놓곡 헤근엥 오고셍이[167] 끌렁 부각ᄒᆞ게 영 헹 저성 ᄒᆞ쏠 꼰꼰ᄒᆞ게 저섯당 쑤어근에, 푹 두께 더껑 놔두민 터박터박[168] 저 비제기국 닮앙 좋아.(으. 소금 넣고

166) '지르르륵'은 콩국이 무른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167) '오고셍이'는 ㉠물건이 상하거나 수가 줄어지거나 하지 않고 본디 그대로. ㉡ 천연덕스럽게 천천히 몸을 일으키거나 또는 조심스럽게 동작해 나가는 모습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여기서는 ㉠의 의미로 쓰였다.

168) '터박터박'은 콩국이 무르게 굳은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해서 꾹 해서, 이렇게 해서 져으면서 가만히 톡 닫아서 끓여질 만큼 해서 끓이면 '부끌일' 없이, 그 완전, 보각하고. 저 미리해서 마구 저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국이 기저 '지르르륵' 하게 안 좋고. 그 맞춰서 잘 푸성귀 넣고 저 그 가루 넣고 해서 '오고셍이' 끓여서 보각하게 이렇게 해서 저어 조금 깐깐히 저었다가 쑤어서, 푹 뚜껑 닫아서 놔두면 '터박터박' 저 비지국 같아서 좋아.)

107029 @ 음.(음.)

107029 #3 게난 거 미릇 놩ᄒᆞ민 ᄀᆞ루 먼저 놔불민 숨키영 홈치 놓지 아녀민.(그러니까 그거 미리 넣어서하면 가루 먼저 넣어버리면 푸성귀하고 함께 놓지 안 하면.)

107029 @ 그다음엔 그, 모물죽 잇잖아예? 모물죽은 어떵 끌립니까?(그다음엔 그, 메밀죽 있잖아요? 메밀죽은 어떻게 끓입니까?)

107029 #3 모물죽은 무신 모물 ᄒᆞ쏠, 저 쏠 놔두건이 싹 궤민 뒈는 거난 불 과리영헤도, 물 하베여도 얄루민 가르륵[169]헤벼도, 시민 불어정. 모물축사 궤민 쏠 놓앙 ᄒᆞ쏠 시민 뒈주.(메밀죽은 무슨 메밀 조금, 저 쌀 넣거니 싹 끓으면 되는 거니까 불 센 듯해도, 물 많은 듯해도 엷으면 '가르륵'한 듯해도 있으면 불어져서. 모물축사 끓으면 쌀 놓아 조금 있으면 되지.)

107029 @ 그문, 궤면 모물죽은 모물로만 쑤는 거꽈? 아니면 쌀죽 끌리당?(그러면, 끓으면 메밀죽은 메밀로만 쑤는 겁니까? 아니면 쌀죽 끓이다가?)

107029 #3 쌀.(쌀.)

107029 @ 쏠로 죽끌리당 궤민 그거 놔마씨?(쌀로 죽 끓이다가 끓으면 그거 넣어요?)

107029 #3 쏠 춤, 물 놩.(쌀 참, 물 넣어서.)

107029 @ 예.(예.)

107029 #3 솖당 궤민 쏠을 놓아.(삶다가 끓으면 쌀을 넣어.)

107029 @ 무신 쌀? 메밀?(무슨 쌀? 메밀?)

107029 #3 모물쏠.(메밀쌀.)

107029 @ 아, 흰쌀, 곤쏠 놩, 끌리당 허는게 아니고마씨?(아, 흰쌀, 흰쌀 넣어, 끓이다가 하는 게 아니고요?)

107029 #3 아니, 모물쏠은 모물축에 모물 놓는 거주게.(아니, 메밀쌀은 메밀죽에 메밀 넣는 거지.)

107030 @ 혹시 녹디로?(혹시 녹두로?)

107030 #3 아녀봔.(안 해봤어.)

107030 @ 안 헤봣수과? 녹디로는?(안 해봤습니까? 녹두로는?)

107030 #3 응.(응.)

107031 @ 그냥 듹죽은 잘 끌려근에 드시지예? 듹 솖아낭 듹죽.(그냥 닭죽은 잘 끓여서 드시지요? 닭 삶아나서 닭죽.)

169) '가르륵ᄒᆞ다'는 콩국이 무른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

107031 #3 독은 영 ᄒᆞ민 독을 솖을 게 아니라.(닭은 이렇게 하면 닭을 삶을 거 아니라.)

107031 @ 예.(예.)

107031 #3 솖으민 솖앙 그 독궤긴 먹고 그 국물에 쏠 ᄒᆞ쏠 놩 쏢아.(삶으면 삶아서 그 닭고긴 먹고 그 국물에 쌀 조금 넣어 삶아.)

107031 @ 게난예, 독죽은예.(그러게요, 닭죽은요.)

107032 @ 그다음엔 갱죽 갱죽.(그다음엔 갱죽, 갱죽.)

107032 #3 겡이죽?(게죽?)

107032 @ 겡이죽 말고마씨, 갱죽.(게죽 말고요, 갱죽.)

107032 #3 겡이죽이 겡이죽이주.(게죽이 게죽이지.)

107032 @ 국에, 국에 밥 넣어 가지고 끌린 죽이라고 하는데예 갱죽.(국에, 국에 밥 넣어 가지고 끌린 죽이라고 하는데요, 갱죽.)

107032 #3 나 몰라 그건.(나 몰라 그건.)

107032 @ 갱죽, 갱죽.(갱죽, 갱죽.)

107032 #2 갱죽? 그 저저 전에 거시기로 겡이엔 헌 건 국이엔 헌 말이주게.(갱죽? 그 저저 전에 거시기로 겡이라고 한 건 국이라고 한 말이거든.)

107032 @ 예.(예.)

107032 #2 국이엔 허고 갱죽?(국이라고 하고 갱죽?)

107032 @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옛날에 엇일 때난 밥 먹엉, 밥먹젠허면은 막 하영 들어가잖아예, 거면 갱죽은 국이 이제 끌려지는 밥 흔 사발로 여러 사람 먹젠 국에 놔근에 죽처럼 끌려서 먹은 게 아닌가 싶긴 한데.(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옛날에 없을 때여서 밥 먹어, 밥먹으려하면 막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갱죽은 국이 이제 끓여지는 밥 한 사발로 여러 사람 먹으려고 국에 넣어서 죽처럼 끓여서 먹은 게 아닌가 싶긴 한데.)

107032 #3 난, 건 몰라.(난, 그건 몰라.)

107032 @ 예, 갱죽.(예, 갱죽.)

107032 #2 우린 경 헤나지 아녀부난 모르지.(우린 그렇게 했었지 않아서 모르지.)

107032 @ 맞수다. 그런 거 닮수다예.(맞습니다. 그런 거 닮습니다.)

107033 @ 그다음에는 죽 종류 중에서 예 뭐 닭죽이나 뭐 메밀죽 말고 혹시 그 다른 죽 특별한 다른 죽은 어섯수과?(그다음에는 죽 종류 중에서 예 뭐 닭죽이나 뭐 메밀죽 말고 혹시 그 다른 죽 특별한 다른 죽은 없었습니까?)

107033 #3 엇어.(없어.)

107033 @ 엇어난예? 뭐 꿩이라든가 뭐 이런 걸론 죽 안 끌려 먹어봔마씨?(없었어요? 뭐 꿩이라든가 뭐 이런 걸론 죽 안 끓여 먹어보셨어요?)

107033 #2 꿩 잡아보도 안 헤시난.(꿩 잡아보지도 안 했으니까.)

107033 @ 게난 거면 꿩고긴 어떵 헹 먹엇수과?(그러니까 그러면 꿩고긴 어떻게

해서 먹었습니까?)

107033 #3 몰라, 난 먹어보지 안 헤부난.(몰라, 난 먹어보지 안 해서서.)

107033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범벅과 수제비

107034 @ 그다음엔예, 범벅하고 수제비에 대해서 저가 여쭤볼게예.(그다음은요, 범벅하고 수제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107034 #3 어.(어.)

107034 @ 범벅에는 어떤 종류의 범벅들이 잇수과?(범벅에는 어떤 종류의 범벅들이 있습니까?)

107034 #3 범벅은 엿날에게 모물ᄀᆞ루 놓고 저 범벅ᄒᆞ곡.(범벅은 옛날에 메밀가루 넣고 저 범벅하고.)

107034 @ 예.(예.)

107034 #3 지금 밀ᄀᆞ루로 범벅ᄒᆞ고 ᄒᆞ주게.(지금 밀가루로 범벅하고 하지.)

107034 @ 무시거 놩마씨?(뭐 넣어서요?)

107034 #3 감저 ᄒᆞ쏠 놔근에.(고구마 조금 넣어서.)

107034 @ 감저만? 호박 같은 건 놩 안 헷수과?(고구마만? 호박 같은 건 넣어서 안 했습니까?)

107034 #3 감저 ᄒᆞ쏠 놩 헹 먹어도 나고 기자도 뭐 헤먹고.(고구마 조금 넣어서 해서 먹어도 났고 그저도 뭐 해먹고.)

107034 @ 음.(음.)

107034 #2 집집마다 뜰릴 테주.(집집마다 다를 테지.)

107034 #3 호박 ᄀᆞ뜬 건 아녀나고.(호박 같은 건 안했었고.)

107034 #2 호박 신 집인 호박으로 헹헐 것이고, 감저이신 딘 감저 헹헐 것이고.(호박 있는 집은 호박으로 해서할 것이고, 고구마 있는 데는 고구마 해서할 것이고.)

107035 @ 어, 그 여기 수제비는 여기서 뭐렌 ᄀᆞᆯ읍니까?(어, 그 여기 수제비는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107035 #2 저베기.(수제비.)

107035 @ 저베기, 저베기는 만들어서 먹어봣수과?(수제비, 수제비는 만들어서 먹어봤습니까?)

107035 #3 저베기사 멘들아 먹주게.(수제비야 만들어 먹지.)

107035 @ 저베기는 그 밀가루는 사당마씨?(수제비는 그 밀가루는 사다가요?)

107035 #3 사당 먹을 거.(사다가 먹을 거.)

107035 @ 아니, 옛날엔.(아니, 옛날엔.)

107035 #3 엿날에도 저 무시거 저 엿날 완전 엿날에 밀 갈 때는 밀 ᄀᆞᆯ앙게.(옛날에도 저 뭐 저 옛날 완전 옛날에 밀 갈 때는 밀 갈아서.)

107035 @ 음.(음.)

107035 #3 저베기 밀ᄀᆞ루 이디 저 무시거 토종 밀 ᄀᆞᆯ앙, 이제 나는 건 헤영헌 게고.(수제비 밀가루 여기 저 뭐 토종 밀 갈아서, 이제 나는 건 하얀 것이고.)

107035 @ 음.(음.)

107035 #3 그땐 벌경헌 밀이랏주게. 경헌 거 ᄀᆞᆯ앙.(그땐 벌건 밀이었지. 그렇게 한 거 갈아서.)

107035 #2 엿날엔.(옛날에는.)

107035 @ 보릿가루로는 저베기 안 헹먹어봔마씨?(보릿가루로는 수제비 안 해서 먹어봤나요?)

107035 #3 아, 저 어디 그때 ᄒᆞ쏠 ᄒᆞ는 디 서나실 거라만은, 난 밀ᄀᆞ루로는 아녀보고.(아, 저 어디 그때 조금 하는 데 있었을 거지만, 난 밀가루로는 안 해보고.)

107035 @ 밀로만예? 밀ᄀᆞᆯ아당예.(밀로 만요? 밀 갈아다가요.)

107035 #3 어려운 때 그 보리쏠, 말제 가가난 것들 헨 뭐 그런 거 동저베기 헤멍덜 헷젠 헤구나만은 건 아녜보고.(어려운 때 그 보리쌀, 나중 가가니까 그것들 해서 뭐 그런 거 동수제비 하면서들 했다고 하구나만 그건 안 해보고.)

107036 @ 안 헤보고예? 겐 칼국수는 헹 먹어봐수과? 칼국수. 칼국수도 밀가루 사당 헤수과? 혹시 밀 갈아당?(안 해보고요? 그럼 칼국수는 해서 먹어봤습니까? 칼국수. 칼국수도 밀가루 사다가 했습니까? 혹시 밀 갈아다가?)

107036 #3 사당.(사다가.)

107036 @ 사당? 옛날엔 사지 못 할 때는 안 헤봔마씨? 칼국수?(사다가? 옛날엔 사지 못 할 때는 안 해봤어요? 칼국수?)

107036 #3 그 칼국순 아녀고 그 사당 어떨 땐 영 헤영 ᄒᆞ쏠 ᄐᆞᆫ아 논 거.(그 칼국순 안 하고 그 사다가 어떨 땐 이렇게 해서 조금 뜯어 넣은 거.)

107036 @ ᄐᆞᆫ아 논 거 헷구나예.(뜯어 놓은 거 했군요.)

김치

107037 @ 그다음 김치에 대해서 여쭤볼게예. 어, 김치종류는 지금 냉장고에 무신 김치 무신 김치 잇수과?(그다음 김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어, 김치종류는 지금 냉장고에 무슨 김치 무슨 김치 있습니까?)

107037 #3 아이구, 무신김치 출리국. 저 이체껏 시난, 막 시금전, 배치짐치 ᄒᆞ쏠 싯주, 그거 막이.(아이고, 무슨 김치 차리고. 저 이제껏 있으니까, 매우 시금해서, 배추김치 조금 있지, 그거 마지막이야.)

107037 @ 음, 배치 배치짐치예?(음, 배추 배추김치요?)

107037 #3 응.(응.)

107038 @ 그럼 그 배추짐치 담글 때.(그럼 그 배추김치 담글 때.)

107038 #3 음.(음.)

107038 @ 어, 처음부터 이제 배추를 밭에서 갈아서 캐 오잖아예?(어, 처음부터

이제 배추를 밭에서 갈아서 캐 오잖아요?)
107038 #3 음.(음.)
107038 @ 그다음부터 ᄀᆞᆯ아줍서, 어떵 담그는지.(그다음부터 말해주세요, 어떻게 담그는지.)
107038 #3 케여 오민.(캐서 오면.)
107038 @ 예.(예.)
107038 #3 소금에 죽엿당.(소금에 죽였다가.)
107038 @ 예.(예.)
107038 #3 죽으민 건정.(죽으면 건져서.)
107038 @ 예.(예.)
107038 #3 그때 아이고, 마눙 놓곡, 무신 젓갈이나 ᄒᆞ쏠 놓곡.(그때 아이고, 마늘 넣고, 무슨 젓갈이나 조금 넣고.)
107038 @ 음.(음.)
107038 #3 무시거 그냥 고칫ᄀᆞ루나 ᄒᆞ쏠 놓고 헹 그거 먹엇주 무시거.(뭐 그냥 고춧가루나 조금 놓고 해서 그거 먹었지 뭐.)
107038 #2 양념은 제대로 놔서.(양념은 제대로 넣어서.)
107038 #3 그거 겡 헹 먹엇주.(그거 그렇게 해서 먹었지.)
107038 @ 옛날에 고춧가루는 집에 신근 고치 말렷당 헷수과?(옛날에 고춧가루는 집에 심은 고추 말렸다가 했습니까?)
107038 #3 응, 엿날엔 그거.(응, 옛날에 그거.)
107038 @ 음.(음.)
107038 #3 이제는 문딱 사당.(이제는 모두 사다가.)
107038 @ 게난.(그러니까.)
107039 @ 열무김치는?(열무김치는?)
107039 #3 그런 거 저런 거 아녀고.(그런 거 저런 거 안 하고.)
107039 @ 열무김치 안 헤먹어봣수과?(열무김치 안 해먹어봤습니까?)
107039 #3 나 아녕. 먹고정 ᄒᆞ민 ᄒᆞ쏠 사당.(나는 안 해. 먹고 싶으면 조금 사다가.)
107039 @ 사다가.(사다가.)
107039 #3 먹구정 ᄒᆞ민 사당 먹주.(먹고 싶으면 사다가 먹지.)
107040 @ 물김치 같은 건 안 담강먹언마씨?(물김치 같은 건 안 담가서먹었나요?)
107040 #3 먹구정 ᄒᆞ민 사당.(먹고 싶으면 사다가.)
107040 @ 사당, 근데 ᄑᆞ는 건 막 조미료맛 낭 뭐 안헤마씨?(사다가, 그런데 파는 건 막 조미료 맛나서 뭐 안하나요?)
107040 #3 그냥, 그거 맞앙 헤영 궂어불민 아이상 먹고 기자 짐치.(그냥, 그거 맞아서 해서 궂어버리면 아니 사서먹고 그저 짐치.)

107040 @ 아시에, 만들어진 김치를 사다 먹엇수과?(아예, 만들어진 김치를 사다 먹었습니까?)

107040 #3 응.(응.)

107040 @ 그럼 옛날에 옛날에, 옛날엔 어떵 헷수과? 예를 들면 아까 촐 빌 때도 점심만들젠.(그럼 옛날에 옛날에, 옛날엔 어떻게 했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 꼴 빌 때도 점심 만들려면.)

107040 #3 경헌 땐 기냥 짐치헤근엥예 ᄒᆞ쏠헷주. 경 하간 짐치 여러 가지헤서?(그런 땐 그냥 김치해서 조금했지. 그렇게 온갖 김치 여러 가지했나?)

107040 @ 음.(음.)

107040 #3 온갖 저 ᄂᆞ물이나 솖곡 경헹 그런 식으로 뒌장이나 ᄒᆞ곡 하간 저 그냥 푸습새들이나 헤영 솖곡 경헷주 무신.(온갖 저 나물이나 삶고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된장이나 하고 온갖 저 그냥 푸새들이나 해서 삶고 그렇게 했지 무슨.)

107040 @ 푸습새가 뭐꽈?(푸새가 뭡니까?)

107040 #3 이거 저거.

107040 @ 음.(음.)

107040 #3 저 무시거, 이제 ᄀᆞ트민 고기쎔ᄒᆞ민, 상추 ᄂᆞ물 솖은 거 그런저런 식으로 ᄒᆞ쏠썩 헷주.(저 무엇, 이제 같으면 고기쌈하면, 상추, 나물 삶은 거, 그런저런 식으로 조금씩 했지.)

107040 @ 아 예.(아, 예.)

107040 #3 고기.(고기.)

107040 @ 예.(예.)

107040 #2 그전에 그추룩 헹 정심 먹을 때는 게 뭔가 그때는 못 살 때난 무시거 배고프지나 않으면 원 그거 ᄀᆞᆯ릴 수도 엇고.(그전에 그처럼 해서 정심 먹을 때는 게 뭔가 그때는 못 살 때니까 뭐 배고프지나 않으면 원 그거 가릴 수도 없고.)

107040 #3 깔치 ᄀᆞ튼 거 헹 보끄나, 구나 ,그런 거 밥만 하영 아정가민 뒛주.(갈치 같은 거해서 볶으나, 구나, 그런 거 밥만 많이 가져가면 됐지.)

107041 @ 동지김치[170]는 안 헤봣수과?('동지김치'는 안 해봤습니까?)

107041 #3 아 그런 거 저런 거 아녀. 아녕 기자 사당 먹주.(아 그런 거 저런 거 안 해. 안 해 그저 사다가 먹지.)

107041 @ 옛날에도 사당 먹엇수과?(옛날에도 사다가 먹었습니까?)

107041 #3 엿날엔 헹 먹엇주만은 이젠 몰라 이젠 사당, ᄒᆞ쏠 네불민 시그르와불고.(옛날엔 해서 먹었지만 이젠 몰라 이젠 사다가, 조금 내버리면 시금해버리고.)

107041 @ 게난, 저가 지금 물어보는 건예, 옛날에 헤난 거 물어보는 거라예.(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건요, 옛날에 했었던 거 물어보는 거예요.)

107041 #3 게난, 엿날에 엿날에 무시거 동짐치?(그러니까, 옛날에 옛날에 뭐 '동

170) '동지김치'는 '배추 따위에서 돋아난 연한 장다리로 담근 김치'를 말하며, '동지짐치', 동김치라고도 한다.

김치'?)

107041 @ 예.(예.)

107041 #3 아, 동짐친 잘헹 먹고.(아, 동김친 잘해서 먹고.)

107041 @ 예.(예.)

107041 #3 동짐치를 헹 먹어도 동짐치ᄒᆞ곡, ᄂᆞ물배치짐치ᄒᆞ곡 ᄒᆞᆫ디 물짐치 그런 저런 건 사다근엥 먹어도, 아녀.(동김치를 해서 먹어도 동김치하고, 나물배추김치하고 했는데 물김치 그런 저런 건 사다가 먹어도, 안 해.)

107041 @ 여기서는 동짐치렌 헷수과 동지짐치렌 헷수과?(여기서는 동김치라고 했습니까 동지김치라고 했습니까?)

107041 #3 동짐치. 동 거꺼당 ᄒᆞᆫ 만든 거.(동김치. 동 꺾어다가 한 만든 거.)

107041 @ 거, 동이렌 헷수과? 동지렌 헷수과? 마을마다 달랑 물어보는 거마씸.(그거, 동이라고 했습니까? 동지라고 했습니까? 마을마다 달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107041 #2 동지짐치는 동지에 허는 거 동지짐치고.('동지김치'는 동지에 하는 것이 '동지김치'고.)

107041 #3 아니, 동.(아니, 동.)

107041 @ 아니, ᄂᆞ물 동을 동지렌도 하거든예.(아니, 나물 동을 동지라고도 하거든요.)

107041 #3 동짐치 동짐치 ᄒᆞ주. ᄂᆞ물동 ᄃᆞᆷ근거.(동짐치 동짐치 ᄒᆞ주. ᄂᆞ물동 ᄃᆞᆷ근거.)

107041 #2 여기서 여기선 동짐치지, 동지에 ᄒᆞ는 건 동지짐치엔 헌 건 동김치지 동김치.(여기서 여기선 '동짐치'지, 동지에 하는 건 '동지김치'라고 한 건 '동김치'지 '동김치'.)

107041 #3 동짐치, 저 ᄂᆞ물동 헤당 그거는 우선 ᄒᆞ여 ᄂᆞ물동짐치.(동김치, 저 나물장다리 해다가 그거는 우선 해 나물'동김치'.)

107041 @ ᄂᆞ물동짐치예?(나물동김치요?)

107041 #3 동짐치지.('동김치'지.)

107042 @ 그다음엔예 어, 무로는 ᄂᆞᆷ삐로는 어떤 어떤 김치 헹 먹엇수과?(그다음에는 어, 무로는 무로는 어떤 어떤 김치 해서 먹었습니까?)

107042 #3 그 무는게 홁게 썰엉 홁은 나보기김치[171]도 헨 먹고.(그 무는 굵게 썰어서 굵은 나박김치도 해서 먹고.)

107042 @ 무신 짐치마씸?(무슨 김치요?)

107042 #3 나보기짐치.(나박김치.)

107042 @ 나보기짐치?(나박김치?)

107042 #3 응.(응.)

107042 @ 나보기짐치.(나박김치.)

107042 #3 응, 그런 것도 헹 먹고, 또 좀질게[172] 나풀나풀 썰엉도 먹고.(응, 그

171) '나보기김치'는 '나박김치'를 말하며 '나베기짐치' 라고도 한다.

런 것도 해서 먹고, 또 '즘질게' 납작납작 썰어도 먹고.)

107042 @ 그 나풀나풀 즘질이 썬 걸 무신 짐치렌 헷수과?(그 납작납작 '즘질이' 썬 걸 무슨 김치라고 했습니까?)

107042 #3 무시거 즘질이 복짝 썬[173] 거, 그거 ᄒᆞ쏠 물짐치로.(뭐 '즘질이' '복짝 썬' 거, 그거 조금 물김치로.)

107042 @ 아, 혹시 깍두기라는 말은 안 썻수과?(아, 혹시 깍두기라는 말은 안 썼습니까?)

107042 #3 깍두기짐치도 ᄒᆞ쏠 헹 먹어나고.(깍두기김치도 조금 해서 먹었었고.)

107042 @ 깍두기 여기도 깍두기렌 헷수과?(깍두기 여기도 깍두기라고 했습니까?)

107042 #3 응, 엿날에 경 헷주. 요세 나 원 아녀저.(응, 옛날에 그렇게 했지. 요사이 나는 원 안 해져.)

107042 @ 깍제기 이런 말은 안 써봣수과?('깍제기' 이런 말은 안 써보셨습니까?)

107042 #3 깍두기.(깍두기.)

107042 @ 깍두기로예.(깍두기로요.)

107042 #2 깍제기 깍제기.(깍제기 깍제기.)

107042 #3 깍두기.(깍두기.)

107042 @ 다른 데는 깍제기라고도 헤 가지고예?(다른 데는 깍제기라고도 해 가지고요?)

107042 #3 깍제기?(깍제기?)

107042 @ 예.(예.)

107042 #3 아, 깍두기, 깍두기 ᄒᆞ는디?(아, 깍두기, 깍두기 하는데?)

107042 @ 아, 아니 아니, 그건 다른 마을.(아, 아니 아니, 그건 다른 마을.)

107043 @ 혹시 그럼 파김치는 안 헤봣수과? 파김치는 어떵 헷수과? 파김치 파짐치.(혹시 그럼 파김치는 안 해보셨습니까? 파김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파김치 파김치.)

107043 #3 파로 만든 거?(파로 만든 거?)

107043 @ 존존헌 파로 만든 거.(자잘한 파로 만든 거.)

107043 #3 응, 그건 건 안 헤진 거 닮아. 안 헹먹어난 거 닮아.(응, 그건 그건 안 했던 것 같아. 안 해먹었던 것 같아.)

107043 @ 그 존존헌 파를 무시거렌 ᄀᆞᆯ앗수과?(그 자잘한 파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107043 #3 패마눙.(쪽파.)

107043 @ 패마눙이꽈? 그게?(쪽파요? 그게?)

---

172) '즘질다'는 '물건이 잘고 가늘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무채'를 말한다.

173) '복짝썰다'는 '잘고 가느다랗게 짓이겨 썰다.'는 뜻이다.

107043 #3 응, 패마눙.(응, 쪽파.)
107043 @ 패마눙짐치 안 헹먹어봔예?(쪽파김치 안 해먹어봤어요?)
107043 #3 응.(응.)
107043 @ 그다음엔예 패마눙 잇고, 그다음엔.(그 다음에는요 쪽파 있고, 그다음엔.)
107043 #2 홁은 건 콥대산이고.(굵은 건 마늘이고.)
107043 @ 예.(예.)
107043 #2 콥대산이라고 다른 데도 곧는가?('콥대산'이라고 다른 데도 말하는가?)
107043 @ 예, 콥대산이가 그 저 뿌리 안 날 때를 패마눙이렌 허는 거꽈?(예, 마늘이 그 저 뿌리 안 날 때를 '패마눙'이라고 하는 겁니까?)
107043 #3 아니 아니, 그거 말앙 장에 서끄는.(아니 아니, 그거 말고 장에 섞는.)
107043 #2 패마눙이엔 헌 거 저.(쪽파라고 한 거 저.)
107043 @ 쪽파, 쪽파를 패마눙이엔 헷수과?(쪽파, 쪽파를 '패마눙'이라고 했습니까?)
107043 #3 응, 쪽파 그것ᄀᆞ라 패마눙.(응, 쪽파 그것보고 '패마눙'.)
107043 #2 응.(응.)
107043 @ 그럼 큰 대파는 뭐렌 골앗수과?(그럼 큰 대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107043 #3 그 무시거 그거.(그 뭐 그거.)
107043 #2 아까 거 콥대산이, 콥대산이여 뭐여 곧는 거주.(아까 그거 마늘, 마늘이야 뭐야 말하는 거지.)
107043 #3 콥대산이엔 헌 건 대산이 저.(마늘이라고 한 건 마늘 저.)
107043 @ 아니, 대산이가 마눙이고 대파마씸, 대파 대파.(아니, '대산이'가 마늘이고 대파요, 대파 대파.)
107043 #3 대파는 대파주 무신.(대파는 대파지 무슨.)
107043 @ 대파렌 헷수과?(대파라고 했습니까?)
107043 #3 응.(응.)
107043 @ 패마눙은?(쪽파는?)
107043 #3 패마눙은 쪽파.('패마눙'은 쪽파.)
107044 @ 그다음은예 꿩마눙은 아시잖아예?(그다음은요 달래는 아시잖아요?)
107044 #3 꿩마눙은 드르에 나는 마눙.(달래는 들에 나는 마늘.)
107044 #2 드르에.(들에.)
107044 @ 꿩마눙은 케당 안 드셔봣수과?(달래는 캐다가 안 드셔봤습니까?)
107044 #3 아, 엿날 두릴 때엔 먹어낫주만은 이제 이져비언.(아, 옛날 어릴 때엔 먹었었지만 이제 잊어버렸어.)
107044 @ 음.(음.)

107044 #3 먹어낫주. 건 데우천 먹언.(먹어났지. 그건 데쳐 먹었어.)

107044 @ 김치는 안 헹먹어보고예?(김치는 안 해먹어보고요?)

107044 #3 응, 지시 듬앙도 먹어나고 엿날엔 그거 쫀쫀ᄒᆞ게[174].(응, 장아찌 담가서도 먹었었고 옛날엔 그거 '짭짜래하게'.)

107044 #2 지치롬 그건 막 심엉 ᄑᆞ는 디 이시는디, 심는 모냥이라.(장아찌처럼 그건 막 심어서 파는 데 있는데, 심는 모양이야.)

107044 @ 맞수다게. 비싸예.(맞습니다. 비싸요.)

107044 #3 꿩마눙이영 패마눙이영.(달래하고 쪽파하고.)

107046 @ 그 담엔 세우리는마씸?(그 담음엔 부추는요?)

107046 #3 세우린 지금도 이디 서.(부추는 지금도 여기 있어.)

107046 @ 여기도 세우리렌 하지예?(여기도 '세우리'라고 하지요?)

107046 #2 응, 세우리 이디 서.(응, 부추 여기 있어.)

107046 @ 게, 이십디다 보난. 세우리짐친 안 헨먹어봣수과?(그래, 있더라고요 보니까. 부추김친 안 해먹어보셨습니까?)

107046 #3 것도 헹먹고.(것도 해먹고.)

107046 @ 헤낫잖아예? 세우리짐치. 세우리짐치는 어떵 만듭니까?(했었잖아요? 부추김치. 부추김치는 어떻게 만듭니까?)

107046 #3 세우리짐치는 무시거 조꼼 무시거 헤저신가. 소금 ᄒᆞ꼼 버무렸단에 무신 젓갈 ᄒᆞ쏠 버무령 먹어진 거 닮아.(부추김치는 뭐 조금 뭐 해졌는가. 소금 조금 버무렸다가 무슨 젓갈 조금 버무려서 먹었던 것 같아.)

107047 @ 기지예. 어, 배추김치하고 무 놈삐김치 담갓다가 배추김치는 담글 때 쭉 말씀해 주셧고예.(그렇지요. 어, 배추김치하고 무 무김치 담갔다가, 배추김치는 담글 때 쭉 말씀해 주셨고요.)

107047 #3 응.(응.)

107047 @ 무김치 담글 땐 어떵합니까?(무김치 담글 땐 어떻게 합니까?)

107047 #3 무짐치도게 소금 ᄒᆞ쏠 버무렷다네.(무김치도 소금 조금 버무렸다가.)

107047 @ 음.(음.)

107047 #3 양념헨 고추장 버무리난에.(양념해서 고추장 버무리니까.)

107047 @ 아, 고추장을 버무렷수과?(아, 고추장을 버무렸습니까?)

107047 #3 고추.(고추.)

107047 @ 고춧가루로예.(고춧가루로요.)

107047 #3 고칫가루.(고춧가루.)

젓갈

107048 @ 그다음엔 젓갈종류에 대해 가지고 저가 여쭤볼게예. 어, 젓갈에는 어

174) '쫀쫀하게'는 '맛이 짜고 짠 상태'를 의미하나, 제주어 '쫍지롱ᄒᆞ다'의 의미인 '짭짜래하다'의 뜻이 더 가까울 것 같아 '짭짜래하게'로 표준어 대역했음을 밝혀둔다.

떤 어떤 종류가 잇수과?(그다음엔 젓갈종류에 대해 가지고 제가 여쭤볼게요. 어, 젓갈에는 어떤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107048 #3 젓갈은 무시거 그거 젓, 자리젓도 헨 먹어나고.(젓갈은 뭐 그거 젓, 자리젓도 해서 먹었었고.)

107048 @ 예.(예.)

107048 #3 멜첫도 헨 먹어나고.(멸치젓도 해서 먹었었고.)

107048 @ 음.(음.)

107048 #3 그거벳긘.(그것밖에.)

107049 @ 자리젓.(자리젓.)

107049 #2 이딘 그런 거벳게 다른 건 뭐.(여긴 그런 거밖에 다른 건 뭐.)

107049 @ 자리젓은 어떵 담금니까?(자리젓은 어떻게 담급니까?)

107049 #3 다, 자리젓은 소금에 맞촤근에 소금에 자리에 맞촹 간바지면은 맛이 막 좋고.(전부, 자리젓은 소금에 맞춰서 소금에 자리에 맞춰 간보면 맛이 매우 좋고.)

107049 @ 음.(음.)

107049 #3 짜나 ᄒᆞ쏠 싱거우나 헤나민 궂어.(짜나 조금 싱거우나 했었다면 궂어.)

107049 @ 건, 간을 어떵 맞춰마씸?(그건, 간을 어떻게 맞추나요?)

107049 #3 게난, 소금에 경 맞인 거는 기가 멕히게 자리젓을 잘 먹어신디. 거 싱가와도 안 뒈곡 짜도 안 뒈난에 그 싱가와 ᄒᆞ쏠 헤빈 거는 맛은 좋아도 저 거시기 무시거 맛은 좋아도 ᄒᆞ쏠 푼득ᄒᆞᆫ 기[175] 이신 건 먹고정 아녀고 경ᄒᆞ난에.(그러니까, 소금에 그렇게 맞는 것은 기가 막히게 자리젓을 잘 먹었는데. 그게 싱거워도 안 되고 짜도 안 되니까 그 싱거워 조금 해보인 거는 맛은 좋아도 저 거시기 뭐 맛은 좋아도 조금 '푼득한 기' 있는 건 먹고 싶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107049 @ 자리 ᄒᆞᆫ 뒈에 소금 얼만큼 놘마씨?(자리 한 되에 소금 얼마만큼 넣었나요?)

107049 #3 엿날에 ᄒᆞᆯ 때 자리 ᄒᆞᆫ 말에 이져비언에. 자리 ᄒᆞᆫ 말에 소곰 뒈성[176] 이여 ᄒᆞᆫ 거, 관뒈엔 ᄒᆞᆫ 거 잇주.(옛날에 할 때 자리 한 말에 잊어버렸네. 자리돔 한 말에 소금 '되승'이야 한 거, 되라고 한 거 있지.)

107049 @ 예, 예.(예, 예.)

107049 #3 그걸로 ᄒᆞ나 놓민 맞넨 ᄀᆞᆯ앙, 그 생각ᄒᆞ멍 헤여도 어떤 때는 먹엉 막 좋을 때가 잇곡, 하영 아녕 ᄒᆞ쏠 헐 때는 어떤 땐 맛엇언 버려불곡 헤연.(그걸로 하나 놓으면 맞는다고 말해, 그 생각하며 해도 어떤 때는 먹어서 막 좋을 때가 있고, 많이 안 해서 조금 할 때는 어떤 땐 맛없어 버려버리고 했지.)

---

175) '푼득ᄒᆞᆫ 기'자리젓이 덜 익은 상태를 말한다.

176) '뒈성'은 '되승'에 대응하는 말인데 '되'와 '승'이 혼합된 낱말이다. '되'는 부피 1.8ℓ가 들어가는 곡식, 가루, 액체 따위를 담아 분량을 헤아리는 데 쓰는 그릇이다. 주로 사각형 모양의 나무로 되어 있다. '승'은 의존명사로 무엇을 재는 단위이다.

107050 @ 음, 멸치젓도 담가낫수과?(음, 멸치젓도 담갔었습니까?)

107050 #3 멜첫은 당글 때 엿날에 ᄒᆞ쏠 당근디, 그것에 고추 버서놓고[177] 헹막 당그난, 우리 하르방[178]도 아니 먹을 거 나도 아니 먹으난 아녕 먹은디, 우리 시아주방 ᄒᆞ나는 그렇게 좋아혜영, 잘 먹으멍 헨 사름은 좋아ᄒᆞᆫ 사름은 멜첫도 잘 먹고 헌 사람은 제기 확 죽어불고.(멸치젓은 담글 때 옛날에 조금 담갔는데, 그것에 고추 '버서놓고' 해서 막 담그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안 먹을 거 나도 안 먹으니까 안 해먹었는데, 우리 시아주버니 하나는 그렇게 좋아해서, 잘 먹으며 한 사람은 좋아한 사람은 멸치젓도 잘 먹고 한 사람은 빨리 확 죽어버리고.)

107050 @ 음.(음.)

107050 #3 아무것도 아이 먹은 사름은 ᄀᆞ자 우리 살아점서.(아무것도 안 먹은 사람은 여태까지 우리 살아지네.)

107050 #2 가의[179]는 먹는 걸 보믄 참 잘 먹어.('가의'는 먹는 것을 보면 참 잘 먹었어.)

107050 @ 그 군대 가서 돌아가신 분마씸?(그 군대 가서 돌아가신 분이요?)

107050 #3 아니 아니, 그냥 차사고 낭 죽어비언.(아니 아니, 그냥 차사고 나서 죽어버렸어.)

107050 #2 차사고로 우리 막내.(차사고로 우리 막내.)

107050 #3 차사고로 죽어비연.(차사고로 죽어버렸어.)

107050 @ 멧 살쯤 뒈 가지고마씸?(몇 살쯤 돼 가지고요?)

107050 #3 애기 다섯 개 나동 죽엇주.(애기 다섯 개 놔두고 죽었지.)

107050 @ 아, 결혼혜 가지고 애기 다섯이나.(아, 결혼해 가지고 애기 다섯이나.)

107050 #3 애기 다섯 나도 ᄒᆞ나토 아이 풀아동[180] 죽어빗주.(애기 다섯 낳아도 하나도 안 '팔아두고' 죽어버렸지.)

107050 #2 아, 지금 가의 자식들은 전부 결혼헷주.(아, 지금 '가의' 자식들은 전부 결혼했지.)

107050 #3 다 결혼혜서.(모두 결혼했어.)

107050 @ 음.(음.)

107050 #3 견디 손지가 지금.(그런데 손주가 지금.)

107050 #2 우리 집 중에 손지가 젤 하.(우리 집 중에 손주가 제일 많아.)

107050 #3 열네 갠가, 뒈서. 손지가 열네 개 뒈서, 손지가.(열네 명인가, 됐어. 손주가 열네 명 됐어, 손주가.)

107050 @ 잘도 잘도 힘들어시쿠다예, 혼자 다섯 키우젠 허민예?(잘도 잘도 힘들었겠네요, 혼자 다섯 키우려고 하면요?)

107050 #2 아, 게난에 우리 아주망이 고셍헷주.(아, 그러니까 우리 아주머니가

177) '버서놓다'는 확실한 뜻은 모르겠으나 '부셔놓다'의 의미로 쓰인 듯하다.
178) '하르방'은 '할아버지'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남편을 이른다.
179) '가의'는 표준어 '그 아이'에 대응하는 말이며, 그아의, 글미, 금미라고도 한다
180) '풀다'는 '팔다'를 뜻하는데, 표준어 '결혼을 시키다, 시집보내다, 장가보내다.'에 대응하는 말이다.

고생했지.)

107050 @ 게난 아주망이.(그러니까 아주머니가.)

107050 #3 게난 지금 큰똘 시아방은 죽엉 낼 일포난 이제 우리 그디 갈 거.(그러니까 지금 큰딸 시아버지가 죽어서 낼 일포제여서 이제 우리 거기 갈 거야.)

107050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07051 @ 혹시 아감젓이 뭔지 알아지쿠과?(혹시 아감젓이 뭔지 알겠습니까?)

107051 #3 응?(응?)

107051 @ 아가미젓.(아감젓.)

107051 #3 몰라, 난 그거이상 한번도.(몰라, 난 그거이상 한번도.)

107051 #2 아가미젓이엔 저 테레비선 자꾸 곧지만은 그거 우린 헤보지 아녀서.(아감젓이라고 저 텔레비전 자꾸 말하지만 그거 우린 해보지 않아서.)

107052 @ 그담엔 겡이젓은 알아짓쿠과?(그 담음엔 게젓은 알겠습니까?)

107052 #3 겡이젓은 엿날에 먹언봣주, 태흥리서.(게젓은 옛날에 먹어는 봤지, 태흥리[181]서.)

107052 @ 음.(음.)

107052 #3 먹어나믄 헤서. 곧든 아녀도.(먹어나기는 했어. 말하지는 않아도.)

107052 @ 음, 아까 자리젓하고 멸치젓 만드는 거는 그믄 자리젓은 관뒈로 네 뒈, 소금 한 뒈 헌거치고, 멸치젓은마씨, 멜젓은?(음, 아까 자리젓하고 멸치젓 만드는 거는 그러면 자리젓은 되로 네 되, 소금 한 되 한다고 하고, 멸치젓은요, 멸치젓은?)

107052 #3 아, 멜젓은 그보다 족영 들 거 닮아.(아, 멸치젓은 그보다 조금 들 거 같아.)

107052 @ 아, 멜젓은 소금 조금예.(아, 멸치젓은 소금 조금이요.)

107052 #3 겨난, 경 하영 아녕, 엿날에 하영 홀 때 경 골안. 그 말 들언 그것에 비규현 소곰을 내가 ᄒᆞ는디.(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안 해서, 옛날에 많이 할 때 그렇게 말했어. 그 말 들어서 그것에 비교해서 소금을 내가 하는데.)

107052 @ 예.(예.)

107052 #3 멜첫은, 멜첫이나 자리젓이나 이제는 쪼곰만 하는 따문에 그것에 비교혜영 그 멜, 물건 논 것에 소곰을 놩, 어느 정도 영 버무리민 기자 내불민 맞을 때가 잇곡 안 맞을 때가 이서.(멸치젓은, 멸치젓이나 자리젓이나 이제는 조금만 하는 때문에 그것에 비교해서 그 멸치, 물건 놓은 것에 소금을 넣어, 어느 정도 이렇게 버무리면 그저 내버리면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가 있어.)

107054 @ 그다음에는예, 어 출레[182], 우리가 그 제주에 보면 출레, 출레 하잖아예?(그다음은요, 어 '출레', 우리가 그 제주에 보면 '출레', '출레' 하잖아요?)

107054 #3 응.(응.)

---

181) '태흥리'는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를 말하는데 발화자의 외가가 있는 곳이다.
182) '출레'는 '밥과 곁들여 먹는 장, 젓 따위의 반찬'을 통틀어 말하는 제주어이다.

107054 @ 출레가 뭐고예? 출레 종류는 뭐가 잇수과?(‘출레’가 뭐고요? ‘출레’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107054 #3 출레 무시거 영 헤곡, 밥 먹젠 ᄒᆞ민 무신 출레나 시냐, 그런 말이 쓰는 거.(‘출레’ 뭐 이렇게 하고, 밥 먹으려고 하면 무슨 ‘출레’나 있나, 그런 말을 쓰는 거야.)

107054 @ 예.(예.)

107054 #3 그런 말 썬, 엿날엔.(그런 말 썼어, 옛날엔.)

107054 @ 음.(음.)

107054 #3 밥먹젠 ᄒᆞ민 무슨 출레나 시냐, 헌 게 원, 거.(밥 먹으려고 하면 무슨 ‘출레’나 있니, 한 것이 원, 거.)

107054 #2 출레렌 직접 말하면 양념 무슨 양념은 무시걸 놓고.(‘출레’라고 직접 말하면 양념 무슨 양념은 무엇을 넣고.)

107054 #3 밥에 먹을 양념 신 거를 듣는 거시기라.(밥에 먹을 양념 있는 것을 묻는 거시기야.)

107054 @ 반찬이 무신거 이시냐?(반찬이 뭐 있니?)

107054 #3 응.(응.)

107054 @ 출레가 게민 반찬이꽈?(‘출레’가 반찬이꽈?)

107054 #3 응, 경 ᄒᆞᆫ 생각으로 저 출레 시냐 ᄒᆞᆫ 것가 그거라.(응, 그렇게 한 생각으로 저 ‘출레’ 있니 한 것이 그거야.)

장아찌와 회

107055 @ 그다음에는예, 어 장아찌 하고 훼에 대해 가지고 제가 여쭤볼게예? 장아찌에는 어떤 종류가 이수과?(그다음에는요, 어, 장아찌 하고 회에 대해 가지고 제가 여쭤볼게요? 장아찌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107055 #3 짱아치는 우린 안 헹 먹는디, 뚤 헤오면은 그건 좋아헤여.(장아찌는 우린 안 해서 먹는데, 딸이 해오면 그건 좋아해.)

107055 @ 우선 마눙지가 잇고예.(우선 마늘장아찌가 있고요.)

107055 #3 엿날엔 그 소용엇어나고.(옛날엔 그 소용없었고.)

107055 @ 게난.(그러니까.)

107055 #3 마눙지사 무신 ****.(마늘장아찌야 무슨 ****.)

107055 @ 거난 마눙지가 잇고 또 뭐가 이섯수과?(그러니까 마늘장아찌가 있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107055 #3 무시거 몰라. 이제 마눙지 엿날에 그것에 마눙지 왕길이[183] ᄒᆞ쏠 서껑 ᄆᆞᆫ짝 헤결헷지만은, 이젠 벨것도 먹구정 ᄒᆞᆫ게 어시난.(뭐 몰라. 이제 마늘장아찌 옛날 그것에 마늘장아찌 ‘왕길이’ 조금 섞어 몽땅 해결했지만, 이젠 별것도 먹고 싶은 것 없으니까.)

183) ‘왕길이’는 ‘무말랭이 일종으로 무채를 굵게 썰어 말린 것’을 말한다.

107055 @ 아니, 옛날에 게난 마눙지 종류 ᄀᆞᆯ아줍서.(아니, 옛날에 그러니까 마늘장아찌 종류 말해주세요.)

107055 #3 엿날엔 게 저 대사니지나 ᄒᆞ곡.(옛날엔 저 마늘장아찌나 하고.)

107055 @ 예.(예.)

107055 #3 대사니지, 그거나 ᄒᆞ곡 감저나 청먹곡.(마늘장아찌, 그거나 하고 고구마나 쪄먹고.)

107055 @ 그 지 종류 중에 아까 대사니 꼭지를 뭐렌 ᄀᆞᆯ앗수과? 아까.(그 지 종류 중에 방금 마늘 꼭지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까.)

107055 #3 뭐엔사 ᄀᆞᆯ아신디 몰라.(뭐라고 말했는지 몰라.)

107055 @ 아까 그 쭉 뽑으면 나오는 거. 그 대사니 꽃피기 전에 영 뽑아 가지고 그거로 담그는 그거.(아까 그 쭉 뽑으면 나오는 그거. 그 마늘 꽃피기 전에 이렇게 뽑아 가지고 그거로 담그는 그거.)

107055 #3 대사니뿌레기?(마늘종?)

107055 @ 뿌레기?(마늘종?)

107055 #3 응.(응.)

107055 @ 예, 뿌레기, 그거론 지 안 담갓수과?(예, 마늘종, 그걸로 장아찌 안 담깄습니까?)

107055 #3 그거는 대우천에 무처먹으민 혜도.

107055 @ 아, 아.(아, 아.)

107055 #3 대사닌, 그 제라흔 대사니 홀 때 지 듬그민 그거 지 담앗단 이제, 다 아이먹어지민 무시거 저 고기 보끌 때, 바닷궤기 보끌 때나 ᄒᆞ쏠썩 줍아놩 먹고.(마늘은, 그 온전하게 된 마늘 할 때 장아찌 담그면 그거 장아찌 담갔다가 이제, 다 안 먹어지면 무엇 저 고기 볶을 때, 바닷고기 볶을 때나 조금씩 집어넣어 먹고.)

107055 #2 요센 그 대산이뿔레기.(요사인 그 마늘종.)

107055 @ 반치는 지 안 담가 먹어봣수과?(파초는 장아찌 안 담가 먹어봤습니까?)

107055 #3 엿날엔 그 장 듬으멍.(옛날엔 그 장 담그며.)

107055 @ 예.(예.)

107055 #3 그 반치 놔근에도 장 듬앙 반치만 건지멍 그 짠짠흔 거 먹어낫어.(그 파초 넣어서도 장 담가서 파초만 건지며 그 짜디짠 거 먹었었어.)

107055 #2 반치 이디 서낫주. 지금도 신가?(파초 여기 있었지. 지금도 있는가?)

107055 #3 메빗주.(매버렸지.)

107055 #2 메비서.(매버렸어.)

107055 @ 어저께 그 어디 가보난 그 반치 이선게마는예?(어저께 그 어디 가보니까 그 파초 있던데요?)

107055 #3 응, 막 하서. 수망리 한 디 서. 겨난 엿날에 흔 ᄒᆞ쏠썩 그 장 듬을 때 거 컷당 경 짠거 먹어낫주만은 이제 그거 누구 먹카부덴, 아니 먹어.(응, 매우 많아.

‘수망리’ 많은 데 있어. 그러니까 옛날에 한 조금씩 그 장 담글 때 그거 담갔다가 그렇게 짠 거 먹었었지만 이제 그거 누구 먹을까봐, 안 먹어.)

107055 @ 양에[184]로는 지 안 담강먹엇수과?(‘양엣간’으로 장아찌 안 담가먹었습니까?)

107055 #3 양에는 솖앙 무처먹고 그냥 헷주 지 안됨아.(‘양엣간’은 삶아서 무쳐먹고 그냥 했지 장아찌 안 담가.)

107055 @ 그 마눙지, 반치지. 양에지는 안 헤먹어보고예? 모자반 그 바다에 잇는 모자반 물망으로는 안 헤봣지예?(그 마늘장아찌, 파초장아찌. 양하장아찌는 안 해먹어보고요? 모자반 그 바다에 있는 모자반 모자반으로는 안 해봤지요?)

107055 #2 아, 그런 거 우리는 안 헤보고.(아, 그런 거 우리는 안 해보고.)

107055 #3 물망게 물망국.(모자반 모자반국.)

107055 @ 그 유썹으로는 유썹지 안 담강먹어 봣수과?(그 깻잎으로는 깻잎장아찌 안 담가먹어 봤습니까?)

107055 #3 아, 아이고. 것사 첨 무시거게 헹먹주.(아, 아이고. 거야 참 무엇 해서 먹지.)

107055 @ 게난예, 종류들예. 그다음에 그 아까 그 마눙지 담그는 대사니지 담그는 방법에 대헹 말헤줍서.(그러게요, 종류들요. 그다음에 그 아까 그 마늘장아찌 담그는, 마늘장아찌 담그는 방법에 대해 말해주세요.)

107055 #3 엿날에사 저 무시거겐 그 대사니지에 그 장물 놓곡 소곰 조끔 놓곡 헷는디.(옛날에야 저 뭐야 그 마늘장아찌에 그 장물 놓고 소금 조끔 놓고 했는데.)

107055 @ 음.(음.)

107055 #3 이젠 그거 저거 엇이, 무시거사 헴신디. 엿날엔 원 소곰 놓곡 소곰 ᄒᆞ쏠 버무리고 장물 놩 그거 헤서. 경헷당 꿰아근에 장물들만 ᄒᆞ민 꿰앙 먹는디. 이제사 별거 다 놤주게 무신.(이젠 그것 저것 없이, 뭐야 하는지. 옛날엔 원 소금 놓고 소금 조금 버무리고 간장 넣어 그거 했어. 그랬다가 끓여서 간장들만 하면 끓여서 먹는데. 이제야 별거 다 넣지 무슨.)

107055 @ 엿날엔 장물하고 소금예?(옛날에는 간장하고 소금이요?)

107057 @ 그다음에는 그 아까 자리훼 이서낫잖아예?(그다음에는 그 아까 자리회 있었었지요?)

107057 #3 응.(응.)

107057 @ 자리물훼도 잇지만 자리훼도 이섯잖아예?(자리물회도 있지만 자리회도 있었잖아요?)

107057 #3 음.(음.)

107057 @ 그 훼 종류는 자리훼 말고 다른 거 또 뭐이서낫수과?(그 회 종류는 자리회 말고 다른 거 또 뭐있었습니까?)

---

184) ‘양에’는 ‘양하’를 말하는데 여기서 ‘양에’는 ‘양엣간’, ‘양엣근’을 의미한다. ‘양엣간’은 양하의 땅속 줄기에서 솟아나는 죽순 비슷한 꽃이삭을 말한다.

107057 #1 몰라.(몰라.)

107057 @ 훼, 훼 떠근에 먹는 거 뭐.(회, 회 떠서 먹는 거 뭐.)

107057 #2 아, 우리 여기는.(아, 우리 여기는.)

107057 @ 수망리.('수망리'.)

107057 #2 응, 수망리는 거 훼 그런 거 먹어보지도 아녀서.(응, '수망리'는 거 회 그런 거 먹어보지도 안 했어.)

107057 #3 훼, 헤논 거 먹은만 헤낫는디 자리훼.(회, 해놓은 거 먹기만 했었는데 자리회.)

107057 #2 어디가근에 놀레 강 식당에나 강 먹어지지 여기선 벨로.(어디 가서 놀러 가서 식당에나 가서 먹어지지 여기선 별로.)

107057 @ 음.(음.)

107057 #3 먹고정은 헤도. 그런 디 강 먹음만 ᄒᆞ난, 몰라.(먹고 싶기는 해도. 그런 데 가서 먹기만 하니까, 몰라.)

107058 @ 그다음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반찬 즉 반찬들 종류가 다를 건디 예, 어, 주로 바찬들은 뭐헤근에 먹어낫수과?(그다음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반찬 즉, 반찬들 종류가 다를 건데, 어, 주로 반찬들은 뭐해서 먹었었습니까?)

107058 #3 에, 반찬 출리곡 하간 거, 쩌<혀 따는 소리> 그냥 국에 밥만 먹엉 살앗주.(에, 반찬 차리고 여러 가지 것, 쩌(혀 따는 소리> 그냥 국에 밥만 먹어서 살았지.)

107058 @ 게도 여긴 산이난 고사리 같은 건 하영 보까먹지 안헨마씨?(그래도 여긴 산이어서 고사리 같은 건 많이 볶아먹지 안 했나요?)

107058 #3 고사리 ᄀᆞ튼 거사 하영 먹엇주게 고사리 ᄀᆞ튼 거사.(고사리 같은 거야 많이 먹었지 고사리 같은 거야.)

107058 @ 고사리 반찬.(고사리 반찬.)

107058 #3 고사리반찬, 기자 양에반찬, 그런 저런 그런 거는 헹 먹주만은 바당에 것덜은.(고사리반찬, 그저 양하반찬, 그런 저런 그런 거는 해서 먹지만 바다에 것들은.)

107058 @ 바당엣 건 안 먹어도 고사리도 잇고 또 양에도 잇고 또 뭐 잇수과? 저기 보난 호박 아, 호박으론 뭐 안 헤먹어수과?(바다 건 안 먹어도 고사리도 있고 또 양하도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저기 보니까 호박 아, 호박으론 뭐 안 해먹었습니까?)

107058 #3 호박도게 보깡도 먹곡 국도 끌령 먹고.(호박도 볶아서도 먹고 국도 끓여서 먹고.)

107058 #2 갈 때랑 호박이나 ᄒᆞ나 줘.(갈 때랑 호박이나 하나 줘.)

107058 #3 어, 튀김도 헹 먹고, 호박이나 ᄒᆞ나 주크라.(어, 튀김도 해서 먹고, 호박이나 하나 줄게.)

107058 #2 ᄒᆞ나 빌령가.(하나 빌려서가.)

107058 @ 아, 저는 안줘도 뒈마씨.(아, 저는 안줘도 돼요.)

107058 #2 아, ᄒᆞ나 주크메 아정가.(아, 하나 줄게 가져가.)

107058 #3 ᄒᆞ꼼 요만ᄒᆞᆫ 거. 아니, 다른 호박은 이제사 여난 맛 엇고, ᄃᆞᆫ호박이엔 ᄒᆞᆫ 건 요만인 헤여. 크지 아녀는 거. 이제 저 ᄒᆞ나 이신게.(조금 요만한 거. 아니, 다른 호박은 이제야 여러 맛없고, 단호박이라고 한 건 요만큼 해. 크지 안하는 거. 이제 저 하나 있어.)

107058 @ 게난, 그런 호박 같은 거헤먹고예. 그다음엔 호박무침 같은 거헤 드셨지예? 호박, 호박 그 제사 때 한 거 뭐라고 헷지? 그 호박 뭐렌합니까? 제사 멩질인가.(그러니까, 그런 호박 같은 거해먹고요. 그다음엔 호박무침 같은 거해 드셨지요? 호박, 호박 그 제사 때 한 거 뭐라고 했지? 그 호박 뭐라고 합니까? 제사 명절인가.)

107058 #3 호박, 호박메ᄆᆞᆯ[185]?(호박, '호박메ᄆᆞᆯ'?)

107058 @ 호박메ᄆᆞᆯ이렌 합니까? 그거는 그런 제사 웨로는 안 헤먹어봔마씨?('호박메ᄆᆞᆯ'이라고 합니까? 그거는 그런 제사 외로는 안 해먹어봤나요?)

107058 #3 무사 안 헤먹어게? 호박 ᄀᆞ튼 거사 집이 ᄒᆞ난 자꾸 헹 먹주.(왜 안 해먹어? 호박 같은 거야 집에 하니까 자꾸 해서 먹지.)

107058 @ 게믄예, 지금 현재 반찬에예, 여기서 나는 그 저 나는 걸로 하는 반찬 뭐 잇수과?(그러면요, 지금 현재 반찬에요, 여기서 나는 그 저 나는 걸로 하는 반찬 뭐 있습니까?)

107058 #3 무시거 ᄒᆞ여. 꿧닙도 잇고.(뭐 해. 깻잎도 있고.)

107058 @ 예.(예.)

107058 #3 오웨도 잇고.(오이도 있고.)

107058 @ 예.(예.)

107058 #3 호박도 잇고.(호박도 있고.)

107058 @ 예.(예.)

107058 #3 호박썹도 잇고.(호박잎도 있고.)

107058 @ 예.(예.)

107058 #3 이젠 얼만 엇엉 양엣근도 양엣근.(이제 얼마 없어 양엣근도 양엣근.)

107058 @ 예.(예.)

107058 #3 양엣근이옌 ᄒᆞᆫ 거 양에도.('양엣간'이라고 한 것 양하도.)

107058 @ 양엣근도 잇고.('양엣간'도 있고.)

107058 #3 그것도 잇고, 저 콩닙도 잇고.(그것도 있고, 저 콩잎도 있고.)

107058 @ 맞아 콩닙도 잇지예?(맞아 콩잎도 있지요?)

107058 #3 이제 저 무시거 상추는 이제 세여불국 풋고치도 잇고 하주게.(이제

185) '호박메ᄆᆞᆯ'은 '호박메물'을 다르게 발음한 것으로 보인다. '메물'은 '탕쉬, 탕수, 메밀, ᄎᆞ무새, 채소' 등으로 불리는데 '제사에 쓰기 위하여 삶은 고사리나 콩나물 따위에 기름, 깨 등을 쳐서 만든 음식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저 뭐 상추는 이제 쇠어버리고 풋고추도 있고 많지.)

107058 @ 그거 다 심엇수과? ᄒᆞ끔씩은?(그거 다 심었습니까? 조금씩은?)

107058 #3 ᄒᆞᆫ 방울썩 다 싱건.(한 방울씩 다 심었어.)

107058 @ 아이, 진짜 잘헴수다게.(아이, 진짜 잘하십니다.)

장 담근기

107059 @ 그다음은 장담그긴데예?(그다음은 장 담그긴데요?)

107059 #3 음.(음.)

107059 @ 어, 뭰장 담글 때 어 뭰장은 언제 담금니까?(어, 된장 담글 때 어 된장은 언제 담급니까?)

107059 #3 된장은.(된장은.)

107059 @ 아까, 일월 아까, 언제 담근덴 ᄀᆞᆯ앗수과?(아까, 일월 아까, 언제 담근다고 말했습니까?)

107062 #3 그 저 어느 때 ᄃᆞᆼ가저시니? 동짓ᄃᆞᆯ 채 아이난 때 메주를 솖아.(그 저 어느 때 담가졌나? 동짓달 채 안된 때 메주를 삶아.)

107062 @ 예.(예)

107062 #3 메주는 동짓ᄃᆞᆯ 채 아이난 때 동짓ᄃᆞᆯ 낭 솖아도 뒈주만은.(메주는 동짓달 채 안된 때 동짓달 나서 삶아도 되지만.)

107062 @ 예.(예.)

107062 #3 미릇 헤사 더 좋는 거. 그거 믄 솖앙, 메주 솖앙, 콩 솖아근에 만들앙.(미리 해야 더 좋은 거. 그거 모두 삶아서, 메주 삶아서, 콩 삶아서 만들어.)

107062 @ 예.(예.)

107062 #3 틔왕.(틔워서.)

107062 @ 예.(예.)

107062 #3 틔와근에 트멍 몰르멍 ᄒᆞ게시리 ᄃᆞᆯ아멧당.(틔워서 트며 마르며 하게끔 달아맸다가.)

107062 @ 음.(음.)

107062 #3 저 섣ᄃᆞᆯ, 음력 섣ᄃᆞᆯ.(저 섣달, 음력 섣ᄃᆞᆯ.)

107062 @ 음.(음.)

107062 #3 지금 동짓ᄃᆞᆯ이렌 ᄒᆞᆫ 것도 음력으로 ᄀᆞᆫ는 거.(지금 동짓달이라고 한 것도 음력으로 말하는 거야.)

107062 @ 예, 맞수다.(예, 맞습니다.)

107062 #3 섣ᄃᆞᆯ 구뭄날은 장 ᄃᆞᆷ아.(섣달 그믐날은 장 담가.)

107061 @ 섣ᄃᆞᆯ 그믐날예?(섣달 그믐날이요?)

107061 #3 음. 장을 ᄃᆞᆷ는디, 소곰 소곰물을 헤영. 하영 헤놓민 짜난에 이 소곰, 이 항에 소곰을 생각에 마련이 ᄒᆞᆫ 말 놀 듸면은 두뒈왁, ᄒᆞᆫ 말이 넉 뒈주.(음. 장을 담는데, 소금 소금물을 해서. 많이 해 넣으면 짜니까 이 소금, 이 항아리에 소금을

생각에 마련이 한 말 넣을 데면 두 되, 한 말이 넉 되지.)

107061 @ 예.(예.)

107061 #3 두 뒈만 그 소곰물을 골랏당 이레 똘라 놩, 그 메주를 들이첫당.(두 되만 그 소금물을 가라앉혔다가 이리로 따라 넣어, 그 메주를 들이뜨렸다가.)

107061 @ 예.(예.)

107061 #3 그 넘엉, 그 소곰이 그 메주 ᄒᆞ쏠 ᄌᆞ눌앙[186], 그 무시거옝 뽀그락[187] 헤가건 우트레 저 무시것에 싸 놩.(그 넘어서, 그 소금이 그 메주 조금 'ᄌᆞ눌앙', 그 뭐지 '뽀그락' 해가면 위에 저 무엇에 싸 놓아.)

107061 @ 예.(예.)

107061 #3 그 겨민 그디 둘미엔 ᄒᆞᆫ 소곰은 두 번째 ᄒᆞ민 다 들어가는 거 아니?(그 그러면 거기 달아맸다고 한 소금은 두 번째 하면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107061 @ 예.(예.)

107061 #3 경헹 싸 놔근엥에 그 잘리에 영 봥 소곰이 재기 건저 확 ᄒᆞ게 재기 건저 ᄒᆞᆫ 사흘 서봥, 그 뜨사 갈 때난 재기 풀어지지 아녀주게. 언 때라부난. 영 건저봥 소곰이 ᄒᆞ쏠 잇건 ᄒᆞ쏠 잇건, 건저불고.(그렇게 해서 싸 놓아서 그 자루에 이렇게 봐서 소금이 빨리 건져 확 하게 빨리 건져 한 사흘 있어봐서, 그 따스해 갈 때니까 빨리 풀어지지 안 하지. 언 때여서. 이렇게 건져봐서 소금이 조금 있건 조금 있건, 건져버리고.)

107061 @ 음.(음.)

107061 #3 하영, 하영 뽓다비엉 엇건, 쪼꼼 소곰 넣곡 ᄒᆞ민 간 제라게 맞아.(많이, 많이 밭아버려 없으면, 쪼금 소금 넣고 하면 간 제대로 맞지.)

107061 @ 간장하고 뒌장 분리는 어떵 헙니까?(간장하고 된장 분리는 어떻게 합니까?)

107061 #3 경ᄒᆞ난 이제 어느 때 뒌궁 ᄒᆞ민 음력 삼월.(그렇게 하니까 이제 어느 때 됐는지 하면 음력 삼월.)

107061 @ 음력 삼월.(음력 삼월.)

107061 #3 삼월ᄃᆞᆯ 뒈면은 갈라.(삼월 되면 가르지.)

107061 @ 아.(아.)

107061 #3 경헹 갈랏다근엥에 뒌장 뜨루 물장 뜨루.(그렇게 해서 갈랐다가 된장 따로 간장 따로.)

107061 @ 음.(음.)

107061 #3 뒌장은 물 훈두질렁[188] 놔두고 그 물장은 펭에다 문딱 질엉 항 소ᄀᆞᆸ

186) 'ᄌᆞ눌앙'은 기본형이 'ᄌᆞ늘다'이다. 의미로는 땅 속에 빗물이 스며들어서 흙이 딴딴하지 않고 땅을 갈기에 알맞을 정도로 무르다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소금물이 메주 속으로 스미며 메주가 물러가는 상태를 말한다.

187) '뽀그락'은 소금물에 담근 메주가 가라앉기 전에 '물 위로 올라온 상태'를 말한다.

188) '훈두질렁'은 '훈들다'에서 온 표현으로 '좀 무거운 물건을 손에 잡고 이리저리 흔들다.'의 의미로 이해된다. 간장을 분리한 된장에 어느 정도 물기가 남았을 때 된장이 든 항아리를 통째로 흔들어 된장이 고루 자리 잡게 하는 행위를 표현한 듯하다.

에나 어디 놧다근에 먹곡 경헤.(된장은 물 '훈두질렁' 놔두고 그 간장은 병에다 모두 길어 항아리 속에나 어디 놓았다가 먹고 그랬어.)

107062 @ 아까 메주는 동짓달에 쓴덴 했지예?(아까 메주는 동짓달에 쓴다고 했지요?)

107062 #3 어. 동짓둘 채 못흔 때.(어. 동짓달 채 못한 때.)

107059 @ 채 못헌 때.(채 못한 때.)

107059 #3 응. 못헌 때 쒀근에 틔와.(응. 못한 때 삶아서 틔워.)

107063 @ 그담엔 장 담글 때 뭐 특별하게시리 영 허믄 안 된다 해 가지고 막는 건 엇수과?(그다음엔 장 담글 때 뭐 특별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 가지고 막는 건 없습니까?)

107063 #3 아이고, 저 테레비 나오라ᄀᆞ라마는 나 경 안 헤영 기냥 경 헤도 꾸준히 소곰만 잘 그것에 맞추앙 흔 말 차불민 디깍 맞아.(아이고, 저 텔레비전 나오던데 나는 그렇게 안 해서 그냥 그렇게 해도 꾸준히 소금만 잘 그것에 맞춰서 한 말 채워버리면 꼭 맞아.)

107063 @ 응, 한말에 두 뒈예? 소금예.(응, 한 말에 두 되요? 소금이요.)

107063 #3 흔 말에 두 뒈 안 뒈지.(한 말에 두 되 안 되지.)

107063 @ 아니, 콩 흔 말 ᄉᆞᆲ은 거예.(아니, 콩 한 말 삶은 거에.)

107063 #3 콩 흔 말 ᄉᆞᆲ은 것에 거자 흔 말 들어가.(콩 한 말 삶은 거에 거의 한 말 들어가.)

107063 @ 소금이마씨?(소금이요?)

107063 #3 응.(응.)

107063 @ 아까 두 뒈렌 안헷수과?(아까 두 되라고 안했습니까?)

107063 #2 아, 쳇 번 두 뒈 놓고.(아, 첫 번 두 되 넣고.)

107063 @ 아, 첫 번 두 뒈.(아, 첫 번 두 되.)

107063 #2 나중에 싸근엥에 두 뒈 놓는, 경헹 빨리 녹으믄 싱거운 거고, 빨리 안 녹으믄 덜 싱거운 거, 짠 거다, 헌 거주게.(나중에 싸서 두 되 놓는, 그래서 빨리 녹으면 싱거운 거고, 빨리 안 녹으면 덜 싱거운 거, 짠 거다, 한 거지.)

107063 #3 소곰을 낭중에 놔.(소금을 나중에 넣어.)

107063 @ 아.(아.)

107063 #3 소곰 녹는 거 봐서.(서금 녹는 거 봐서.)

107063 @ 아.(아.)

107063 #3 겨난 그 소곰 체암 놀 때는 겨을의 듬으기 따문에.(그러니 그 소금 처음 넣을 때는 겨울에 담기 때문에.)

106063 @ 예.(예.)

106063 #3 항 벌러지카 항 고스카부덴.(항아리 깨질까 항아리 곱을까봐.)

106063 @ 아, 아.(아, 아.)

106063 #3 소곰을 쪼금 놓는 거라.(소금을 쪼금 놓는 거야.)

106063 @ 아, 아.(아, 아.)
106063 #3 경해야, 소곰을 ᄀᆞᆯ아낫당.(그래야, 소금을 갈아봤다가.)
106063 @ 음.(음.)
106063 #3 ᄒᆞᆫ 번에 다 놓면은 소곰, 장이 맛읏어.(한 번에 다 넣으면 소금, 장이 맛없어.)
106063 @ 아, 아.(아, 아.)
107063 #3 경ᄒᆞ는 거.(그러는 거.)
107063 @ 음.(음.)
107063 #3 겨난, 겨을의 듬으기 따문에, 항이 ᄆᆞ숩주. 항 벌러지카부덴.(그러니까, 겨울에 담기 때문에, 항아리가 무섭지. 항아리 깨질까봐.)
107063 @ 아, 항이 벌러지기도 합니까?(아, 항아리가 깨지기도 합니까?)
107063 #3 고스면 고사.(곱으면 곱아.)
107063 @ 음.(음.)
107063 #3 게난 그 말에, 이 항에 소곰 ᄒᆞᆫ 말 들거라 ᄒᆞ민, 반만 먼저 소곰을 ᄀᆞᆯ앗다근에 다음은 잘 이져빈 거 싸놓아 또.(그러니까 그 말이, 이 항아리에 소금 한 말 들 거야 하면, 반만 먼저 소금을 갈았다가 다음은 잘 잊어버린 거 싸놓아 또.)
107063 @ 아, 그 말이구나예? 장담을 때 특별하게 금하는 건 엇고예?(아, 그 말이군요? 장담을 때 특별하게 금하는 건 없고요?)
107063 #3 엇고.(없고.)
107063 #2 아, 도시에서는 잇는 모냥이란게.(아, 도시에서는 있는 모양이야.)
107063 @ 게난.(그러게.)

떡류

107064 @ 그다음엔예, 떡, 떡에 저 떡들을 헤서 저기 제사명절에도 쓰고 헤야 되잖아예?(그다음은요, 떡, 떡에 저 떡들을 해서 저기 제사명절에도 쓰고 해야 되잖아요?)
107064 #3 응.(응.)
107064 @ 떡에 종류에 대해 가지고 어떤 떡들이 잇는지 생각나는 대로 ᄀᆞᆯ아줍서.(떡의 종류에 대해 가지고 어떤 떡들이 있는지 생각나는 대로 말해주세요.)
107064 #3 아, 시리떡ᄒᆞ고.(아, 시루떡하고.)
107064 @ 예.(예.)
107064 #3 솔펜[189], 절벤.('솔펜', 절편.)
107064 @ 예.(예.)
107064 #3 인절미.(인절미.)

189) '솔펜'은 '쌀가루나 메밀가루를 반죽하여 얇게 민 다음 반달모양의 떡살로 떠서 끓는 물에 삶거나 겅그레 위에서 찐 떡을 말하며, '솔변, 솔벤, 수랑곤떡'이라고도 한다.

107064 @ 예.(예.)

107064 #3 또 무시거 저 무시거엔 ᄒᆞ는고 우찍.(또 뭐 저 뭐라고 웃기떡.)

107064 @ 예.(예.)

107064 #3 그거민 뒈는 거, 상에 올리는 거는.(그거면 되는 거, 상에 올리는 거는.)

107065 @ 그러면 시루떡은 뭘로 만듭니까? 재료는 뭘로 하고예?(그러면 시루떡은 뭐로 만듭니까? 재료는 뭐로 하고요?)

107065 #3 아, 시리떡은 곤쏠.(아, 시루떡은 흰쌀.)

107065 @ 곤쏠로.(흰쌀로.)

107065 #3 응, 곤쏠로 영 ᄒᆞ는디 저 거시기 상에 올리는 거는 풋 안 놩.(응, 흰쌀로 이렇게 하는데 저 거시기 상에 올리는 거는 팥 안 넣어서.)

107065 @ 음.(음.)

107065 #3 안 놓면은 ᄒᆞ쏠 저 희뜩 ᄒᆞ는디 흰떡으로 ᄒᆞ곡 풋 보무렁 ᄒᆞ는 사름은 ᄒᆞ곡.(안 놓으면 조금 저 희뜩 하는데 흰떡으로 하고 팥 버무려 하는 사람은 하고.)

107065 #2 풋떡 놓는 건 제펜[190]이렌 헤근에 거 상에 올리주게.(팥떡 놓는 건 '시루떡'이라고 해서 그거 상에 올리지.)

107065 @ 게난 그 시루떡 만드는 과정을 쭉 ᄀᆞᆯ아줍서.(그러니까 그 시루떡 만드는 과정을 쭉 말해주세요.)

107065 #3 시리떡은 뭐 저 어디가민 헤오는 따문에.(시루떡은 뭐 저 어디가면 해오는 때문에.)

107065 @ 아니, 집에서 할 때.(아니, 집에서 할 때.)

107065 #3 집이서 홀 때는.(집이서 할 때는.)

107065 @ 옛날에.(옛날에.)

107065 #3 엿날에 집이서 시리에 홀 때는, 그 ᄀᆞ루에 물, ᄀᆞ루 ᄀᆞᆯ아다근에 물 버무렁 예영 줴여보면은 알아정 기자. ᄇᆞ짝 줴어진 거영 삭 불어불민 징게징게 놔근엥예 중간에 풋 놓곡, 풋 아이 놩 ᄒᆞ는 떡은 영 헌벅 놓곡 헤근엥에 치면 떡 뒈는 거주, 무신.(옛날에 집에서 시루에 할 때는, 그 가루에 물, 가루 갈아다가 물 버무려서 이렇게 쥐어보면 알 수 있어 그저. 바짝 쥐어진 것 이렇게 싹 불어버리면 층층이 놓아서 중간에 팥 넣고, 팥 안 넣어 하는 떡은 이렇게 천 놓고 해서 찌면 떡 되는 거지, 무슨.)

107065 #2 풋은 풋은 서로 부트지 못허게 하젠 놓는 거라.(팥은 팥은 서로 붙지 못하게 하려고 놓는 거야.)

107065 @ 아, 그렇구나.(아. 그렇구나.)

107065 #3 응, 거는 부뜨지 못ᄒᆞ게.(응, 그거는 붙지 못하게.)

107065 @ 시리는 지금도 잇수과?(시루는 지금도 있습니까?)

---

190) '제펜'은 흰 쌀가루에 팥소 따위로 켜를 앉혀 찐 시루떡을 말한다.

107065 #3 우리 우리 시리는 잇어도 무슨 쯔꼴락 흔 거, ᄒᆞ쏠은흔 거 ᄒᆞ는 거.(우리 우리 시루는 있어도 무슨 조그만 한 거, 조금하는 거 하는 거.)

107065 @ 음, 그치예.(음, 그렇지요.)

107065 #3 엿날엔 막 큰 시리에 헷주게.(옛날엔 막 큰 시루에 했지.)

107065 @ 음.(음.)

107065 #3 겨난 그거 어디 벌러정 설러빗주. 데껴비주, 무신 서.(그러니 그거 어디 깨져서 그만뒀지. 던져버렸지, 무슨 있어.)

107065 #2 시리 없지 아녀? 우린.(시루 없지 않아? 우린.)

107065 #3 엿날에 헤난 건 엇어.(옛날에 했던 건 없어.)

107066 @ 음. 그담엔 송편은 뭘로 어떵 만듭니까?(음. 그다음엔 송편은 뭐로 어떻게 만듭니까?)

107066 #3 솔펜 절벤 경 흔 거 잇주게 본.('솔펜' 절편 그렇게 하는 거 있지 본.)

107066 #2 뽄 이섯주게.(본 있었지.)

107066 @ 아.(아.)

107066 #2 절변 뽄 솔변 뽄 이섯주.(절편 본 '솔변' 본 있었지.)

107066 #3 솔벤 절벤 인절미는 그냥 냉기 나게시리 ᄆᆞᆯ고.('솔벤' 절편 인절미는 그냥 냉기 나게끔 말고.)

107066 @ 송편하고 솔변하고는 다른 거 아니꽈?(송편하고 솔변'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107066 #3 아니 아니, 솔펜이나 솔벤이나 ᄀᆞ튼 거.(아니 아니, '솔펜'이나 '솔벤'이나 같은 거.)

107066 @ 송편, 송편.(송편, 송편.)

107066 #3 송편은 기계로 빠낭 동글동글 흔 거.(송편은 기계로 뽑아놓고 동글동글 한 거.)

107066 @ 아, 기계로 빳수과?(아, 기계로 뽑았습니까?)

107066 #3 어.(어.)

107066 @ 집에서 안 만들어봔마씨? 옛날에.(집에서 안 만들어봤나요? 옛날에.)

107066 #3 송편이엔 흔 게 그 지금 기계로 뽀는 거낫주. 그 엿날 떡은 솔편, 절편, 인절미 으, 아녓주게.(송편이라고 한 게 그 지금 기계로 뽑는 거였지. 그 옛날 떡은 '솔편', 절편, 인절미 으, 안 했지.)

107066 #2 솔벤은 거 달모양 헌 거.('솔벤'은 거 달 모양 한 거.)

107066 @ 거난, 솔변은 게난 우리 어릴 땐 그거 이렇게 하면은 막 영 헤 가지고 막 하게엔 같이 헤나신디 송편 만들 때.(그러니까, '솔변'은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땐 그거 이렇게 하면은 막 이렇게 해 가지고 막 하자고 같이 했었는데 송편 만들 때.)

107066 #3 어, 만드는 거 도아 ᄒᆞ젠 헤나실 거주게. 게난, 그 그건 작구떡[191]이

라고 헤서 의미가 신 떡이라 부난.(어, 만드는 거 도와서 하려고 했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 그건 '작구떡'이라고 해서 의미가 있는 떡이라 버려서.)

107066 @ 음.(음.)

107066 #3 솔편, 절벤, 인절미 저 무시거 ᄒᆞ곡 이 초상난 딘 저 중궤[192], 약궤[193] 그런 거 잇주. 초상난 딘.('솔편', 절편, 인절미 저 무엇 하고 이 초상난 데는 저 '중궤', '약궤' 그런 거 있지. 초상난 데는.)

107066 @ 으음.(으음.)

107066 #3 겨난, 성복에 못 올린 건 올리도 안헌덴 허주. 중궤 약궤는, 그 중궤는 영 기창 소롬ᄒᆞ게 요영 기차근에 영 헌 건 중궤고, 대판은 영 네귀난 거 난거 우의 더끄는 거.(그러니, 성복에 못 올린 건 올리지도 안 한다고 하지. '중계' '약과'는, 그 '중계'는 이렇게 끊어서 갸름하게 요렇게 끊어서 이렇게 한 건 '중계'고, 대판은 이렇게 네모난 거 난거 위에 덮는 거.)

107066 @ 음.(음.)

107066 #3 것ᄀᆞ라 중궤, 약궤. 중궤여 약궤여 경 헹 ᄒᆞᆫ 거 잇고.(그것보고 '중계', '약과'. '중계'야 '약과'야 그렇게 해서 한 거 있고.)

107067 @ 빙떡은 안 만들어 봣수과?(빙떡은 안 만들어 봤습니까?)

107067 #3 무사 안 만들아?(왜 안 만들어?)

107067 @ 여기선 빙떡을 뭐렌 ᄀᆞᆯ읍니까?(여기선 빙떡을 뭐라고 말합니까?)

107067 #3 저, 전기.(저, 전기.)

107067 @ 전기떡예?('전기떡'이요?)

107067 #2 어.(어.)

107067 @ 전기떡은 어떵 만듭니까? 재료는 뭘로 해 가지고.(빙떡은 어떻게 만듭니까? 재료는 뭐로 해 가지고.)

107067 #3 저, 모물ᄀᆞ루게.(저, 메밀가루.)

107067 @ 모물가루로 어떵 헹?(메밀가루로 어떻게 해서?)

107067 #3 모물ᄀᆞ루 헤근엥에 카근엥에 저 무시것에.(메밀가루 해서 타서 저 무엇에.)

107067 #2 솟뚜껑에.(솥뚜껑에.)

107067 #3 저, 엿날엔 솟뚜껑에 지젓주.(저, 옛날엔 솥뚜껑에 지졌지.)

107067 @ 음.(음.)

107067 #3 솟뚜껭에 지름 ᄇᆞᆯ랑.(솥뚜껑에 기름 발라서.)

107067 @ 게난 빙떡에 속에는 뭐 준비헷당?(그러니까 빙떡에 속에는 뭐 준비했다가?)

107067 #3 무 놓앙, 무채 속.(무 넣어서, 무채 속.)

---

191) '작구떡'은 온갖 떡을 말한다.

192) '중궤'는 '좁쌀가루나 메밀가루로 기름하게 만들어 기름에 튀긴 떡'을 말하며 '중게'라고도 한다.

193) '약궤'는 '약과'를 말하는데, '좁쌀가루나 밀가루 따위로 네모지게 만들어서 구멍 다섯을 내고 기름에 지지거나 삶아낸 떡'을 말하며, '악궤', 또는 '얍게'라고도 한다.

107067 @ 놈삐예?(무요?)

107067 #2 어.(어.)

107067 @ 놈삐 채 썰어근에예?(무 채 썰어서요?)

107067 #2 어.(어.)

107062 @ 채 썬 거는 간 안 헷수과?(채 썬 거는 간 안 했습니까?)

107067 #3 무사 아녀. 께도 놓곡 지름도 조꼼 놓곡 소곰 놓곡.(왜 안 해. 참깨도 넣고 기름도 조금 넣고 소금 넣고.)

107067 @ 음.(음.)

107067 #3 파싹[194] 더운 때 건정, 소금 놓곡.('파싹' 더운 때 건져서, 소금 넣고.)

107067 @ 그다음에 상웨떡[195]은 안 헤봣수과?(그다음에 '상웨떡'은 안 해봤습니까?)

107067 #3 무사 아녀, 것도 ᄉᆞ뭇.(왜 안 해, 그것도 사뭇.)

107067 @ 여기도 상웨떡이렌 허지예?(여기도 '상웨떡'이라고 하지요?)

107067 #2 응.(응.)

107067 #3 응. 상웨떡.(응. '상웨떡'.)

107068 @ 상웨떡은 어떵 만듭니까?('상웨떡'은 어떻게 만듭니까?)

107068 #3 엿날에 이젯거사 ᄀᆞᆯ앙 무시거 ᄒᆞ여, 엿날에 꺼 저 무시거 누룩 알주? 누룩.(옛날에 이제거야 말해 뭐 해, 옛날에 그거 저 뭐 누룩 알지? 누룩.)

107068 @ 예, 예.(예, 예.)

107068 #3 거 밥헤영.(그거 밥해서.)

107068 @ 예.(예.)

107068 #3 누룩 헤근엥예 밥 버무령 놔두민, 거 부각허게 올라와.(누룩 해서 밥 버무려 놔두면, 그게 보각하게 올라와.)

107068 @ 아, 밥으로마씨?(아, 밥으로요?)

107068 #3 응. 밥헤여.(응, 밥해서.)

107068 @ 곤밥?(흰쌀밥?)

107068 #3 아, 엿날에 곤밥이 어디 서, 보리쏠.(아, 옛날에 흰쌀밥이 어디 있어, 보리쌀.)

107068 @ 아.(아.)

107068 #3 보리밥.

107068 @ 음.(음.)

107068 #3 맛이 더 좋고 부각ᄒᆞ민, 그거 누룩에 거 밥에 헤여근에 버무려 나두민, 그게 부각ᄒᆞ게 올라오민은, 저 누룩 건저도근에, 그 걸렁.(맛이 더 좋고 보각하면, 그거 누룩에 그거 밥에 해서 버무려 놔두면, 그거에 보각하게 올라오면, 저 누

194) '파싹'은 '더할 나위 없이'에 대응하는 말이다.

195) '상웨떡'은 '밀가루 따위에 더운물과 기주를 조금 넣어 조금 반죽하고서 만두모양으로 만들고는 더운 방에 두어서 부풀어 오르게 하여 찐 떡'을 말하며, '삼메떡'이라고도 한다.

룩 건져두고, 그 걸러.)

107068 @ 음.(음.)

107068 #3 걸렁, 그 물에 그 순다릴[196] ᄒᆞᆫ 거라.(걸러서, 그 물에 그 '순다릴' 한 거야.)

107068 @ 예.(예.)

107068 #3 순다리물에 저 ᄀᆞ루를 버무령 나두민, 무시거 버무려근에 영 ᄆᆞᆯ앙 북싹하게 ᄆᆞᆯ앙, 무시거 덕껑 나두민, 이 상웨떡은 여름에 ᄒᆞ는 거난.('순다리물'에 저 가루를 버무려서 놔두면, 뭐 버무려서 이렇게 반죽해서 보각하게 반죽해서, 무엇 덮어놔두면, 이 '상웨떡'은 여름에 하는 거니까.)

107068 @ 음.(음.)

107068 #3 이만이 올라오민, 치면은 이추룩 빵떡 뒈주.(이만큼 올라오면, 찌면 이처럼 빵떡 되지.)

107068 @ 게난에예. 아, 그거를 보리 보리쌀로 헷구나예.(그러게요. 아, 그거를 보리 보리쌀로 했군요.)

107068 #3 보리쏠로 헷주게. 이제는 곤쏠이 널어젓주마는, 그디 순다리헐 꺼ᄁᆞ장 곤쏠ᄒᆞᆯ 말이라.(보리쌀로 했지. 이제는 흰쌀이 흔하지만, 거기 '순다리'할 것까지 흰쌀할 말이야.)

107068 @ 음.(음.)

107068 #3 그땐 보리쏠 흔전ᄒᆞ고[197] 곤쏠이 어려와[198].(그땐 보리쏠 '흔하고' 흰쌀이 '어려워'.)

107069 @ 그담에 제사 헐 때는 어떤 어떤 떡들 헷수과?(그다음에 제사 할 때는 어떤 어떤 떡들 했습니까?)

107069 #3 제사ᄒᆞᆯ 때, ᄀᆞ싸 ᄀᆞᆯ은 거 솔벤, 절벤.(제사할 때, 금방 말한 거 '솔벤', 절편.)

107069 #2 솔벤, 절벤 ᄆᆞᆫ딱. 그 작구떡이엔 ᄒᆞ는 게 그거주게.('솔벤', 절편 모두. 그 '작구떡'이라고 하는 게 그거지.)

107069 #3 초상난딘 중궤, 약궤, 그거 작구떡은 ᄀᆞ싸 꺼, 멧 가지라. 제펜[199], 솔펜[200], 인절미, 절벤, 중궤, 약궤.(초상난 데는 '중계', '약과', 그거 '작구떡'은 방금 것, 몇 가지야. 제펜, 솔펜, 인절미, 절편, '중계', '약과'.)

107069 @ 아, 상 날 때 초상날 때는 아까.(아, 상 날 때 초상날 때는 아까.)

107069 #3 중궤, 약궤.('중계', '약과'.)

107069 @ 중궤, 약궤예.('중계', '약과'요.)

---

196) '순다리'는 '쉰 듯한 밥에 누룩을 넣고 발효시켜 만든 음료'를 말한다. 여름철에 많이 해 먹었다.

197) '흔전ᄒᆞ다'는 '생활이 넉넉하여 아쉬움이 없다'는 표준어 '흔전하다'에 대응하는 말이나 여기서는 '흔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198) '어렵다'는 여기서는 귀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199) '제펜'은 제에 쓰는 '시루떡'을 말한다.

200) '솔펜'은 '쌀가루나 메밀가루를 반죽하여 얇게 민 다음 반달모양의 떡살로 떠서 끓는 물에 삶거나 겅그레 위에서 찐 떡을 말하며, '솔변, 솔벤, 수랑곤떡'이라고도 한다.

107069 #3 응.(응.)

107070 @ 상 날 때는 중궤, 약궤예.(상 날 때는 '중계', '약과'요.)

107071 @ 그다음엔 설기떡에 대헤근에 ᄀᆞᆯ아줍서.(그다음엔 백설기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107071 #3 무시거?(뭐?)

107071 @ 설기떡.(백설기.)

107071 #3 설기떡은 나 몰라. 나 헤난 거 벳긔.(백설기는 난 몰라. 내가 했던 거 밖에.)

107071 #2 설기떡이엔 여기는 설기떡이엔 헌게 없는데.(백설기라고 여기는 백설기라고 하는 게 없는데.)

107071 @ 설기떡, 그다음에는 설기떡 없고예, 인절미는 어떵 인절미는 이섯지예?(설기떡, 그다음에는 설기떡 없고요, 인절미는 어떻게 인절미는 있었지요?)

107071 #3 저 중궤, 약궤에 인절미는 그거 다 들어간 거.(저 '중계', '약과'에 인절미는 그거 다 들어간 거야.)

107071 @ 아, 중궤, 약궤 안에.(아, '중계', '약과' 안에.)

107071 #3 응. 제펜, 솔펜, 인절미 또 무시거 약 아이 중궤, 약궤, 우찍. ᄋᆞ슷 가지이 딱 ᄋᆞ슷 가지.(응. '제펜', '솔벤', 인절미 또 무엇 약 아니, '중계', '약과', 웃기떡. 여섯 가지 딱 여섯 가지.)

107071 @ 음, ᄋᆞ슷가지.(음, 여섯 가지.)

107071 #3 ᄋᆞ슷 가지는 그.(여섯 가지는 그.)

107071 #2 절벤?(절편?)

107071 #3 초상난 때만.(초상난 때만.)

107071 @ 허는 거고예?(하는 거고요?)

107071 #3 으. ᄋᆞ슷 가지고.(으. 여섯 가지고.)

107071 @ 예.(예.)

107071 #3 다른 땐 무시거 닮다, 다슷 가지 닮다. 제펜, 솔벤, 저 절벤, 은절미, 우찍 다슷 가지 닮다.(다른 땐 뭐 같다, 다섯 가지 같다. '제펜', '솔벤', 저 절편, 인절미, 웃기떡 다섯 가지 닮다.)

102072 @ 인절민 어떵 만듭니까?(인절민 어떻게 만듭니까?)

102072 #3 네귀난 거, 다른 건 영 솔펜은 돌반착이고 또 절벤은 두 개 포부청 누르당 가운데 조짝헌 거고 인절미는 영 네귀난 거.(네모난 거, 다른 건 이렇게 '솔펜'은 달 반쪽이고 또 절편은 두 개 맞붙여 누르다가 가운데 뾰족한 거고 인절미는 영 네모난 그거.)

102072 @ 예, 네귀난 거예.(예, 네모난 거요.)

102075 #3 기고. 저 무시거 우찍은 쪼꼴락헌 거 우트레 올리는 거고.(그렇고. 저 뭐 웃기떡은 조그마한 것 위로 올리는 거고.)

102075 @ 게, 우에 얹히는 거고예?(그래, 위에 얹는 거고요?)

102073 @ 그다음엔 아까 절벤은?(그다음엔 아까 절편은?)
102073 #3 똥끌랑헌 거.(동그란 거.)
102073 @ 아, 동글랑하게 헌 거.(아, 동그랗게 한 거.)
102073 #2 두 개 포놩 누르는 거.(두 개 포개어 누르는 거.)
102073 #3 두 개.(두 개.)
102073 @ 아, 그게 절벤이구나예.(아, 그게 절편이군요)
102074 @ 그 다음에 솔펜은?(그 다음에 '솔펜'은?)
102074 #3 솔펜은 돌반착.('솔펜'은 달반쪽.)
102074 @ 돌 반착이고예.(달 반쪽이고요.)
102075 @ 저 아까 우찌떡 우찍떡은?(저 아까 웃기떡 웃기떡은?)
102075 #3 우찌떡은 쪼꼴락헌 종제기로 어픈 거 닮은 거.(웃기떡은 조그마한 종지로 엎은 거 닮은 거.)
102075 @ 어프고예, 그다음엔.(엎고요, 그다음엔.)
102072 #3 인절미.(인절미.)
107076 @ 고사지낼 때나 당에 가져갈 때 하는 떡은 뭐꽈?(고사지낼 때나 당에 가져갈 때 하는 떡은 뭡니까?)
107076 #3 돌레떡[201].('도래떡'.)
107076 @ 돌레떡예.('도래떡'이요.)
107076 #3 응.(응.)
107077 @ 그다음에 굿헐 때 허는 떡은마씨?(그다음에 굿할 때 하는 떡은요?)
107077 #3 굿홀 때 떡 나 뭐 무시거 골을 줄 몰라. 저 굿홀 때는 돌레떡이여 손내성[202]이여 발내성[203]이여 그런 거 잇는디 나 그런 거 몰라.(굿할 때 떡 나 뭐 무엇 말할 줄 몰라. 저 굿할 때는 '도래떡'이야 '손내성'이야 '발내성'이야 그런 것 있는데 나는 그런 거 몰라.)
107077 @ 손내성, 발내성마씨?('손내성', '발내성'이요?)
107077 #3 응. 그런 거 이실 거라.(응. 그런 거 있을 거야.)
107077 @ 손내성, 발내성.(손내성, 발내성.)
107077 #3 더겡이 쓰는 거ᄀᆞ라 무시거렌 허는디, 그런 거 이실 거라. 나 이져비언. 대게 돌레떡이주. 돌레떡에 손내성, 발내성.(머리에 쓰는 것보고 뭐라고 하는데, 그런 거 있을 거야. 나 잊어버렸어. 대게 '돌레떡'이지. '돌레떡'에 '손내성', '발내성'.)
107077 #2 알기도 잘 아네.(알기도 잘 아네.)
107077 #3 그.(그.)
107077 #2 난 몰라.(난 몰라.)
107077 #3 몰랑 좋주.(몰라서 좋지.)

201) '돌레떡'은 '메밀이나 좁쌀가루 따위로 쟁반 마큼 크고 둥그렇게 만든 떡'을 말한다.
202) '손내성'은 굿떡의 하나로 기름하게 만든 떡에 골을 낸 '골무떡'을 무가에서 이르는 말이다.
203) '발내성'은 무가에서 '손내성'에 짝을 이루기 위해 나온 말인 듯하다.

107077 @ 거난 꼭 같이 해야 뒈는 거마씨. 그다음엔.(그러니 꼭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엔.)

107077 #2 문딱 할망 찍세주, 나 찍세는 어시난 뭐.(모두 '내자' 몫이지, 나 몫은 없으니까 뭐.)

107078 @ 어, 이웨에 다른 어떤 떡들이 잇수과? 감저떡도 이섯수과?(어, 이외에 다른 어떤 떡들이 있습니까? 고구마떡도 있었습니까?)

107078 #3 감저떡은 엿날에 저 거시기 절간감저.(고구마떡은 옛날에 저 거시기 절간고구마.)

107078 @ 예.(예.)

107078 #3 허영, 그걸 ᄀᆞ루 ᄀᆞᆯ아근엥에, ᄀᆞ루 보수왕 감제떡 시커멍ᄒᆞ게 헹먹어 낫주게.(해서, 그걸 가루 갈아서, 가루 부숴서 고구마떡 시커멓게 해먹었었지.)

107078 #2 감저떡 여긴 이녁 배고플 때 혜영 이녁 먹젠 혜난 거.(고구마떡 여긴 이녁 배고플 때 해서 이녁 먹으려고 했던 거야.)

107078 #3 거 먹어낫주. 그것에 무신 쓰젠이나 그런 건 아년 거 먹어난 거.(그거 먹었었지. 그것에 무슨 쓰려고 그런 건 안한 거 먹었던 거야.)

107078 @ 무신 ᄆᆞᆯ똥떡이니 ᄆᆞᆯ똥조베기니 이런 건 안 혜낫수과?(무슨 말똥떡이니 말똥수제비니 이런 건 안 했었습니까?)

107078 #3 ᄆᆞᆯ똥떡은 저 쑥떡.(말똥떡은 저 쑥떡.)

107078 @ 예.(예.)

107078 #3 속떡, 이디 하는디 영 접아논 것도 ᄆᆞᆯ똥 닮으메, 쑥덕.(숙떡, 여기 많은데 이렇게 집어넣은 것도 말똥 닮아, 쑥덕.)

107078 @ 아, ᄆᆞᆯ똥떡은 쑥덕, 손으로 접아난 거구나예.(아, 말똥떡은 쑥덕, 손으로 집어넣은 거군요.)

107078 #3 어. 지금도 기계로 ᄀᆞᆯ아당 ᄒᆞ민 영 아저오랑 집이 ᄒᆞ는 사름은 영 인절미 떠 오고, 집이 오랑 만드는 사름은 위영위영 정 ᄆᆞᆯ똥떡으로도 헤여 쑥떡.(어. 지금도 기계로 갈아다가 하면 이렇게 가져와서 집에서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인절미 떠 오고, 집에 와서 만드는 사람은 요렇게 요렇게 집어 말똥떡으로도 해, 쑥떡.)

107078 @ 음. 쑥떡을 쑥을 아까 뭐렌 ᄀᆞᆯ앗수과?(음. 쑥떡을 쑥을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107078 #2 속.(쑥.)

107078 @ 아, 속떡.(아, 쑥떡.)

107078 #3 속떡, 저 기계 가근에 그 떡, 쑥 놓고 그거 저 재료만.(쑥떡, 저 기계 가서 그 떡, 쑥 놓고 그거 저 재료만.)

107078 #2 이제 거의 쑥이엔 ᄀᆞᆫ지 속이엔 거의 안 ᄀᆞᆫ는디.(이제 거의 쑥이라고 말하지 '속'이라고 거의 안 말하는데.)

107078 @ 게난, 옛날 말 할 때 속떡예.(그러니까, 옛날 말 할 때 '속떡'이요.)

107078 #3 속떡, ᄀᆞ루 ᄀᆞᆯ앙 ᄀᆞ루에 무청 온 거. 집에 아저오랑도 경 ᄑᆞ도 버무

리고 콩도 버무리고 경 ᄒᆞ주.(쑥떡, 가루 갈아서 가루에 무쳐 온 거. 집에 가져와서도 그렇게 팥도 버무리고 콩도 버무리고 그렇게 하지.)

107078 @ 아, 그럼 저 그걸로 저베기도 헹 먹어난마씨? 저기 저 저베기도 헹 먹은 거마씨? 그걸로?(아, 그럼 저 그걸로 수제비도 해서 먹었었나요? 저기 저 수제비도 해먹은 건가요? 그걸로?)

107078 #3 아니.(아니.)

107078 @ 그 속떡.(그 쑥떡.)

107078 #3 속떡으론 저베기는 아녀고 속떡은 그추룩 혀근에 ᄒᆞ곡 속은 놩 엿날에 범벅은 헹 먹엇주게, 범벅은.(쑥떡으론 수제비는 안하고 쑥떡은 그처럼 해서 하고 쑥은 넣어 옛날에 범벅은 해 먹었지, 범벅은.)

107078 @ 범벅은예.(범벅은요.)

107078 #3 속 놩 범벅은 헹 먹어나서. 엿날엔 어려우난[204] 그거 저거 가정.(쑥 넣어 범벅은 해 먹었었어. 옛날엔 어려우니까 그것 저것 가져서.)

소와 고물

107079 @ 그다음엔 떡에, 떡 속에 집어놓는, 겉에 묻히는 거라든가 속에 집어넣는 소나 고물에 대해 여쭤볼게예?(그다음엔 떡에, 떡 속에 집어넣는, 겉에 묻히는 거라든가 속에 집어넣는 소나 고물에 대해 여쭤볼게요?)

107079 #3 어.(어.)

107079 @ 어, 그 떡 그 저기 뭐야 속, 겉에 묻히는 걸로는 뭐가 이서낫수과?(어, 그 떡 그 저기 뭐야 속, 겉에 묻히는 걸로는 뭐가 있었습니까?)

107079 #3 묻히는 건겐 속떡에는 속떡에는 콩ᄀᆞ루도 묻히고.(묻히는 건 쑥떡에는 쑥떡에는 콩가루도 묻히고.)

107079 @ 예.(예.)

107079 #3 빵ᄀᆞ루도 묻히고.(빵가루도 묻히고.)

107079 @ 예.(예.)

107079 #3 또 저 만뒤는 떡도 섯주. 모물ᄀᆞ루로 만뒤 좁은 거 영 좁앙. 만뒤엔 흔 건 픗도 묻히고.(또 저 만두는 떡도 있었지. 메밀가루로 만뒤 집은 거 이렇게 집어. 만두라고 한 건 팥도 묻히고.)

107079 @ 음.(음.)

107079 #3 ᄋᆞ라 가지 다 ᄯᅳ나주.(여러 가지 다 다르지.)

107079 @ 그 묻히는 걸 뭐렌 ᄀᆞᆯ아낫수과? 떡 그런 걸 떡 부뜨지 안허게시리 묻히는 가루를 떡 고물이엔 헷수과?(그 묻히는 걸 뭐라고 말했었나요? 떡 그런 걸 떡 붙지 않게 바르는 가루를 떡 고물이라고 했습니까?)

107079 #3 아니, 부뜨지 아녀는 게 빵ᄀᆞ루.(아니, 붙지 안하는 게 빵가루.)

107079 @ 게, 그걸 뭐렌 ᄀᆞᆯ앗수과?(게, 그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

204) '어렵다' 여기서 '어렵다'는 가난하고 힘들다는 의미로 쓰였다.

107079 #3 속 저 거시기 속떡에 빵ᄀᆞ루도 ᄒᆞ고 콩ᄀᆞ루로도 ᄒᆞ곡.(쑥 저 거시기 쑥떡에 빵가루도 하고 콩가루로도 하고.)

107079 @ 그걸 뭐렌 ᄀᆞᆯ앗수과? 콩ᄀᆞ루니 빵ᄀᆞ루니.(그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콩가루니 빵가루니.)

107079 #2 게난 거 부뜨지 아녀게 거.(그러니까 거 붙지 않게 그거.)

107079 #3 분ᄀᆞ루?(분가루?)

107079 @ 아니, 빵가루니 그 콩ᄀᆞ루를 뭐렌 ᄀᆞᆯ앗수과?(아니, 빵가루니 그 콩가루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107079 #3 그 부트지 말렌? 그 인절미레.(그 붙지 말라고 그 인절미에.)

107079 @ 고물 떡고물이레 헷수과?(고물 떡고물이라고 했습니까?)

107079 #2 아, 게난.(아, 그거니까.)

107079 @ 떡 고물? 걸 뭐렌 ᄀᆞᆯ앗수과? 뭐 떡에 뭐 묻히렌 ᄀᆞᆯ앗수과?(떡 고물? 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 떡에 뭐 묻히라고 말했습니까?)

107079 #3 콩ᄀᆞ루.(콩가루.)

107079 #2 아니, 콩ᄀᆞ루가 아니고 무신 무시거엔 뚜루 ᄀᆞᆯ으는 이름을 듣는 거 아이라?(아니, 콩가루가 아니고 무슨 무엇이라고 따로 말하는 이름을 묻는 거 아니야?)

107079 @ 그 ᄀᆞ루를 전체적으로 뭐렌 ᄀᆞᆯ앗수과? 떡에 묻히는 ᄀᆞ루는 뭐렌 ᄀᆞᆯ앗수과?(그 가루를 전체적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떡에 묻히는 가루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107079 #3 콩고루.(콩가루.)

107079 @ 거난 이름 콩이라고 허지 말고 어 그 떡에다가 그.(그러니까 이름 콩이라고 하지 말고 어 그 떡에다가 그.)

107079 #3 분ᄀᆞ루.(분가루.)

107079 @ 저기 뭐.(저기 뭐.)

107079 #3 부치는 거ᄀᆞ라 그거 분ᄀᆞ루엔도 ᄀᆞᆫ고 콩ᄀᆞ룬디 분ᄀᆞ루엔도 ᄀᆞᆫ고 부뜨지 말렌 묻히는 거는.(붙이는 그거보고 그거 분가루라고도 말하고 콩가룬데 분가루라고도 말하고 붙지 말라고 묻히는 거는.)

107079 #2 지금 ᄀᆞ루는 분ᄀᆞ루.(지금 가루는 분가루.)

107079 @ 그니깐 고물 고물이라고 하거든마씨. 콩고물 묻히라, 뭐 떡고물 묻히라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뭐렌 ᄀᆞᆯ아신지 떡 뭐 묻히라 헷수과? 떡에 콩ᄀᆞ루 묻히라라 경 ᄀᆞᆯ앗수과?(그니깐 고물 고물이라고 하거든요. 콩고물 묻히라, 뭐 떡고물 묻히라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말했는지 떡 뭐 바르라 했습니까? 떡에 콩가루 묻히라 그렇게 말했습니까?)

107079 #3 응.(응.)

107079 @ 다른 말이 엇고예?(다른 말이 없고요?)

107079 #3 응.(응.)

107080 @ 그다음에 떡 속에 집어넣는 건 뭐렌 걸앗수과?(그다음에 떡 속에 집어넣는 건 뭐라고 말했습니까?))

107080 #2 아, 거난 아까 분ᄀᆞ루엔 한 거 닮은게.(아, 그러니까 아까 분가루라고 한 거 닮아.)

107080 #3 앙꼬[205].('팥소'.)

107080 @ 분ᄀᆞ루?(분가루?)

107080 #3 쏘곱에 담는 건 앙꼬.(속에 담는 건 '팥소'.)

107080 @ 앙꼬?(팥소?)

107080 #2 앙꼬는 일본말이지. 앙꼬 그걸 지금.('앙꼬'는 일본말이지. '앙꼬' 그걸 지금.)

107080 #3 아, 엿날에 부터 속에 놓는 거 게민.(아, 옛날에 부터 속에 넣는 거 그러면.)

107080 @ 그니까 속에는 폿만 놓는 게 아니라 앙꼬만 놓는 게 아니라 뭐 설탕도 놓기도 하고 참깨도 놓기도 하잖아예?(그니까 속에는 팥만 넣는 게 아니라 '팥소'만 넣는 게 아니라 뭐 설탕도 넣기도 하고 참깨도 넣기도 하잖아요?)

107080 #3 응, 거 안에 경 ᄒᆞ난.(응, 그 안에 그렇게 하니까.)

107080 @ 그 안에는 전부다 뭐렌 걸앗수과? 안에 놓는 걸.(그 안에는 전부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안에 넣는 걸.)

107080 #3 안에 놓는 거. 참, 그거 설탕도 놓고 폿도 놓곡, 거뿐인게.(안에 넣는 것. 참, 그거 설탕도 넣고 팥도 넣고, 그거뿐이야.)

107080 @ 그, 그 떡 속에 떡 속에 넣는 전부 그걸 합쳐서 뭐렌 걸앗수과?(그, 그 떡 속에 떡 속에 넣는 전부 그걸 합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107080 #2 아, 게난 아까 앙꼬엔 헌게 뭔 말인디 우리말로.(아, 그러니까 아까 '팥소'라고 한 게 뭔 말인데 우리말로.)

107080 @ 아니, 앙꼬는 팟인데.(아니, '팥소'는 팥인데.)

107080 어.(어.)

107080 @ 팥 팥이영 콩 그 속에 넣는 녹두니 뭐니 그 가루를, 떡 떡 속에 떡 속에 넣는 거를 우리는 뭐렌 걸앗수과?(팥 팥이랑 콩 그 속에 넣는 녹두니 뭐니 그 가루를, 떡 떡 속에 떡 속에 넣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107080 #3 겨난에 난 앙꼬 놓는 거벳긘 몰라.(그러니까 난 '팥소' 넣는 것밖에 몰라.)

107080 #2 아, 앙꼬엔 헨 게.(아, '팥소'라고 한 것이.)

107080 @ 앙꼬는 팥이잖아예? 팥.('팥소'는 팥이잖아요? 팥.)

107080 #3 아니, 앙꼬는 쏘곱에 놓는 거 아니라?(아니, '팥소'는 속에 넣는 거 아니야?)

107080 #2 쏘곱에 놓는 거. 앙꼬렌 허는디 거 일본말이렌 허니까.(속에 넣는 거.

205) '앙꼬'는 떡이나 빵의 안에 든 팥. '팥소'를 일본어 'あんこ'를 그대로 발음한 것이다

‘앙꼬’라고 하는데 거 일본말이라고 하니까.)

107080 #3 앙꼬는 쏘곱에 놓는 담는다는 말이라.(‘팥소’는 속에 넣는 담는다는 말이라.)

107080 #2 앙꼬가 일본말이라.(‘앙꼬’가 일본말이라.)

107080 @ 팥 말고 콩이나 이런 걸 다 앙꼬렌 골앗수과?(팥 말고 콩이나 이런 걸 다 ‘앙꼬’렌 말했습니까?)

107080 #3 응. 앙꼬엔 안에다 놓는 건 앙꼬라.(응. ‘팥소’라고 안에다 넣는 건 ‘팥소’야.)

107080 #2 앙꼬엔 헌 건 일본말이라.(‘앙꼬’라고 한 건 일본말이라.)

107080 #3 건 말은 일본말 닮고.(그 말은 일본말 같고.)

107080 #2 일본말이라부난 여기 말.(일본말이어서 여기 말.)

107080 @ 그 일본말 나오기 전엔 뭐렌 골앗수과?(그 일본말 나오기 전엔 뭐라고 말했습니까?)

107080 #3 기자 우의 볼르는 건 분ᄀᆞ루.(그저 위에 바르는 건 분가루.)

107080 #2 겨난 건 몰라.(그러니 그건 몰라.)

107080 @ 아, 위에 놓는 건 분ᄀᆞ루, 안에 놓는 건 그냥 앙꼬예?(아, 위에 바르는 건 분가루, 안에 넣는 건 그냥 ‘팥소’요?)

107080 #3 앙꼬.(팥소.)

107080 #2 겨난, 거 여깃말로 뭔지 몰르는 거.(그러니까, 거 여기말로 뭔지 모르는 거야.)

107080 #3 겨난, 나 본디는 일본말이라, 제줏말은 몰라서 아는 거는 앙꼬라. 속에 담은 거 다 앙꼬, 일본말 맞아.(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일본말이라, 제줏말은 몰라서 아는 거는 ‘앙꼬’야. 속에 담은 거 다 ‘앙꼬’, 일본말 맞아.)

107080 #2 앙꼬 앙꼬 헌 건 다 일본말.(‘앙꼬’ ‘앙꼬’ 한 건 다 일본말.)

107080 @ 맞수다예. 혹시 소라는 말 안 들어봣수과?(맞습니다. 혹시 소라는 말 안 들어봤습니까?)

107080 #3 응?(응.)

107080 @ 소, 소. 떡 소는 뭘로 할 거니? 헤 가지고 이런 말은 안 들어봣수과?(소, 소. 떡 소는 뭐로 할 거니? 해 가지고 이런 말은 안 들어봤습니까?)

107080 #3 떡 속에 무시거 놀거닌 ᄒᆞ는 거나벳긘 떡 속은?(떡 속에 뭐 넣을 거냐고 하는 거밖에 떡 속은?)

107080 @ 소라는 말 안 들어봔마씨?(소라는 말 안 들어봤어요?)

107080 #3 응.(응.)

107081 @ 그다음엔 그 어, 떡을 만들 때 속담이라든가 아니면 떡이, 떡 저기 심방떡이라든가 상례떡 만들 때 뭐 영허믄 안 뒌다 이런 건 엇엇수과?(그다음엔 그 어, 떡을 만들 때 속담이라든가 아니면 떡이, 떡 저기 심방떡이라든가 상례떡 만들 때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없었습니까?)

107081 #3 난 몰라.(난 몰라.)

107081 @ 굿 같은 건 안 헤봔마씨?(굿 같은 건 안 해봤습니까?)

107081 #3 아, 굿도 헤낫어.(아, 굿도 했었어.)

107081 @ 굿헐 때 허믄 떡 같은 거만들 때 뭔가 부정안타게 뭐 엇언마씨?(굿할 때 하면 떡 같은 거만들 때 뭔가 부정 안타게 뭐 없었나요?)

107081 #3 그런 건 안 ᄀᆞᆯ안 몰라.(그런 건 안 말해 몰라.)

107081 @ 안 헤봔예?(안 해봤어요?)

107081 #3 난 그런 거 부정 타는 거는 벼랑 안 골령 살안.(난 그런 거 부정 타는 거는 벼랑 안 고르고 살았어.)

107081 @ 그렇구나예.(그렇군요.)

별식

107082 @ 그다음엔 그 저 밥이든 국이든 떡이든 빼고 뭐 순대라든가 뭐 특별한 뭐 묵이라든가에 대해서 저가 여쭤볼게예? 순대도 담앙 먹어봣수과?(그다음엔 그 저 밥이든 국이든 떡이든 빼고 뭐 순대라든가 뭐 특별한 뭐 묵이라든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순대도 담아서 먹어봤습니까?)

107082 #3 먹은 거, 헤 논거 먹음벳긘 안 헤봔.(먹은 거, 해 놓은 거 먹음밖에 안 해봤어.)

107082 @ 순대 담은 적 엇수과? 삼춘도 엇엇수과?(순대 담은 적 없습니까? 삼촌도 없었습니까?)

107082 #3 아녀. 이 형제간 하난 아시덜 믄 헤불고 난 어루.(안 해. 이 형제간 많으니까 아우들 모두 해버리고 난 어려워.)

107082 @ 순대는 주로 어떤 때 헤먹엇수과?(순대는 주로 어떤 때 해먹었습니까?)

107082 #2 거 순대렌 헌거 여기 그때는 돗추렴[206]을 이제 멧 사름 저 모여 가지고.(거 순대라고 한 거 여기 그때는 '돗추렴'을 이제 몇 사람 저 모여 가지고.)

107082 #3 아니, 아니. 저 걸릴 때 잔치 때에 어떵헤사 순대를 담앗주.(아니, 아니. 저 걸릴 때 잔치 때에 어떻게 해야 순대를 담았지.)

107082 #2 겨난 잔치 때 ᄀᆞ튼 때 거 헤근에ᄒᆞ고, 요센 전부 사단 먹는 따문에.(그러니까 잔치 때 같은 때 거 해서하고, 요사인 전부 사다가 먹는 때문에.)

107082 @ 게난 요새 말고 옛날에.(그러니까 요새 말고 옛날에.)

107082 #2 엿날에 그 순대는 수웨엔 ᄒᆞ주게 여기.(옛날에 그 순대는 '수웨'라고 하지 여기.)

107082 @ 아, 수웨예?(아, 순대요?)

107082 #2 수웨, 수웨 담으라 수웨 담으라하는데, 저 뭐 올케 맛존 거여 헤근에 이것저것 섵어 가지고 속에 막 담아근에 헤사 먹는데 저 저 이상헌 그런 것들을 하

206) '돗추렴'은 '각기 돈을 얼마씩 내어 돼지를 잡아먹는 일'을 말한다.

영들 헤먹엇주.(순대, 순대 담아라, 순대 담아라하는데, 저 뭐 옳이 맛좋은 거야 해서 이것저것 섞어 가지고 속에 막 담아서 해야 먹는데 저 저 이상한 그런 것들을 많이들 해먹었지.)

107082 @ 수웨 담았던 거 어떵 담아낫는지.(순대 담았던 거 어떻게 담았었는지.)

107082 #2 우린 이녁이 직접 안담아 나부난 몰라.(우린 이녁이 직접 안담아 나버려서 몰라.)

107082 #3 먹음만.(먹기만.)

107083 @ 혹시 두부는 만들어 먹어봣수과?(혹시 두부는 만들어 먹었었습니까?)

107083 #3 그런 것도 아녀고.(그런 것도 안하고.)

107083 @ 음.(음.)

107038 #3 엿날에 ᄀᆞ레에 골앙 멘들암젠 헤도 우린 그거 아녀고.(옛날에 맷돌에 갈아서 만든다고 해도 우린 그거 안하고.)

107084 @ 음, 메밀묵은 헤봣지예?(음, 메밀묵은 해봤지요?)

107084 #3 어.(어.)

107084 @ 모물묵 쑬 땐 어떵 쑵니까?(메밀묵 쑬 땐 어떻게 쑵니까?)

107084 #3 모물묵 쑬 땐 어떵 쒀게, ᄀᆞ루 쑬 땐 기냥 ᄀᆞ루로 놩ᄒᆞ곡, 저 무시거 청묵 헐 때는.(메밀묵 쑬 땐 어떻 쒀, 가루 쑬 땐 그냥 가루로 놔서하고, 저 뭐 청묵 할 때는.)

107084 @ 예.(예.)

107084 #3 쏠 물에 컷당 잘리 잡앙, 잘리 잡앙 담아근엥에 뿔아놔근에 쑤민 청묵[207] 뒈고.(쌀 물에 담갔다가 자루 잡아서, 자루 잡아서 담아서 빨아놓아서 쑤면 '청묵' 되고.)

107084 @ 아, 메밀로 저기 잘리 담앙 한 거는 청묵.(아, 메밀로 저기 자루에 담아 한 거는 '청묵'.)

107084 #3 쒀, 청묵ᄒᆞ는 거 쏠.(쒀, '청묵'하는 거 쌀.)

107084 @ 쏠로 멘 쏠로예.(쌀로 맨 쌀로요.)

107084 #3 응.(응.)

107084 @ 메밀묵 헐 때는 매밀ᄀᆞ루로 허고예?(메밀묵 할 때는 메밀가루로 하고요?)

107084 #3 응.(응.)

107085 @ 아, 모물쏠로 허믄 청묵하는 거구나.(아, 메밀쌀로 하면 '청묵'하는 거구나.)

107086 @ 그담엔 미숫가루 개역 헤, 개역 헹 드셔낫잖아예?(그다음엔 미숫가루, 미숫가루 해 미숫가루 해서 드셨었잖아요?)

107086 #2 에.(예.)

---

207) '청묵'은 '메밀쌀을 물과 함께 자루에 담아 놀려서 나온 묽은 물로 만든 묵'을 말한다.

107086 @ 개역은 어떵 만들엇수과? 만들 때.(개역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만들 때.)

107086 #3 개역은 보깡.(개역은 볶아서.)

107086 @ 예.(예.)

107086 #3 보리 보까근엥에 ᄀᆞ레에 ᄀᆞᆯ아.(보리 볶아서 맷돌에 갈아.)

107086 @ ᄀᆞ레에 ᄀᆞᆯ앙예?

107086 #3 응.(응.)

107086 @ 개역에는 다른 거 뭐 안 서꺼낫수과? 콩 보끈 거라든가.(개역에는 다른 거 뭐 안 섞었었습니까? 콩 볶은 거라든가.)

107086 #3 그런 건 안 서끄고, 기자 개역만 헤여근에 소금헹 버무령 기자 먹고, 이젠 별거 든거 다 놔도 엿날에사 그거 기냥 먹엇주 무신.(그런 건 안 섞고, 그저 개역만 해서 소금해서 버무려 그저 먹고, 이젠 별것 단것 다 넣어도 옛날에야 그거 그냥 먹었지 무슨.)

107087 @ 그다음엔 지짐이도 지정 먹어봣수과? 지지미는 어떤 재료를 사용헹 어떵헹 지저먹엇수과?(그다음엔 지짐이도 지져서 먹어봤습니까? 지짐이는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어떻게 지져먹었습니까?)

107087 #3 지짐이는 기자 무시거 속도 속도 ᄒᆞ쏠 놓곡.(지짐이는 그저 뭐 쑥도 쑥도 조금 넣고.)

107087 @ 예.(예.)

107087 #3 무시거, 잇당 그 다마네기[208]도 쪼끔 썰어놓곡, 짐치도 쪼끔 썰어놓곡, 경헹.(무엇, 있다가 그 양파도 쪼끔 썰어넣고, 김치도 쪼끔 썰어넣고, 그렇게 해.)

107087 @ 음.(음.)

107087 #3 그 식으로 ᄒᆞ쏠 그거.(그 식으로 조금 그거.)

107088 @ 그다음엔예 그 오메기술[209]은 아까 안 담강먹어낫덴 헷잖아예?(그다음에는요 그 '오메기술'은 아까 안 담가먹었었다고 했잖아요?)

107088 #3 안 담강먹어. 엿날에 엿날 어른들은.(안 담가먹어. 옛날에 옛날 어른들은.)

107088 @ 혹시 담그는 거 본적은 엇수과?(혹시 담그는 걸 본적은 없습니까?)

107088 #3 어?(어?)

107088 @ 담그는 거 본적은 엇수과?(담그는걸거 본적은 없습니까?)

107088 #3 보도 아녀고, 떡 오메기[210]영 다 멘들앙주언에 먹는 건 봔. 엿날 어른들 ᄒᆞ는 거 기자 먼디서 베림만 헷주, 몰라.(보지도 않고, 떡 '오메기'랑 다 만들

208) '다마네기'는 '양파'를 일본어 'たまねぎ'로 말한 것이다.

209) '오메기주'는 '차좁쌀가루를 익반죽해 만든 오메기떡에 누룩을 섞어 반죽한 후 적당량의 물을 넣어 발효시킨 제주 전통 민속주'를 말한다.

210) '오메기'는 차좁쌀가루에 더운물을 넣어 되게 반죽해서 둥그렇게 만든 후 가운데 큰 구멍을 뚫어 만들거나, 둥글납작하게 만들어서 삶아낸 떡'을 말한다. 팥고물을 묻히거나 소를 넣어 만들기도 하고, 술감으로 쓰이기도 하며 '오메기떡'이라고도 한다.

어줘서 먹는 건 봤어. 옛날 어른들 하는 거 그저 먼데서 보기만 했지, 몰라.)

107089 @ 쉰다리[211]는 만들어 먹어봣수과?('쉰다리'는 만들어 먹어봤습니까?)

107089 #3 순다리사 췌고주.('순다리'야 최고주.)

107089 @ (순다린, 아.)

107089 #3 좋아.(좋아.)

107089 @ 지금도 헹 드셤수과?(지금도 해 드시나요?)

107089 #3 응. 나는 먹어도 이 하르방은 안 먹고, 나는 막 좋아헤여.(응. 나는 먹어도 이 '할아버지'는 안 먹고, 나는 막 좋아해.)

107089 #3 음.(음.)

107089 @ 순다리는 누룩헤근엥에 저 물 물 멘도롱[212],ᄒᆞ게시리 ᄒᆞ꼼만 멘도롱 헤영 안뒈여. 물 바싹 데불게 헤영, 재류 밥이나 아무나 영 놓아근엥예 그 물 드듯 홀 때예 누룩 놩 나두민 부곽ᄒᆞ게게 궤민 나두민, 기자 가르륵허게[213] 시리 그 뒌 것에서 막 문데비어.('순다리'는 누룩해서 저 물 물 '멘도롱'하게끔, 조금만 '멘도롱' 해서는 안 돼. 물 바싹 뜨겁게 해서, 재료 밥이나 아무거나 이렇게 놓아서 그 물 따뜻할 때 누룩 넣어서 놔두면 보각하게 끓으면 놔두면, 그저 가르륵하게 그 된 것에서 막 문대어.)

107089 @ 음.(음.)

107089 #2 거, 지금은 밥통 시난허지, 거 엿날 밥통 엇인 땐 밥 쪼꼼 잘못허민 쉬어불주게.(그거, 지금은 밥통 있으니까하지, 그 옛날 밥통 없을 땐 밥 쪼끔 잘못하면 쉬어버리지.)

107089 #3 견디.(그런데.)

107089 #2 거 문딱 쉰다리주.(그거 모두 '쉰다리'지.)

107089 #3 어, 난 엿날에 우리 어멍은 나영 ᄀᆞ찌도 말제 우리 어멍이 말제 배우고, 나 헐 건 기자 확 궤도 싹 허게 헤도 그자 홀딱홀딱 순다리 먹으민 나 최고로 흔, 둘게 ᄒᆞ곡 재기 먹어져.(어, 난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 나하고 같이도, 나중 우리 어머니가 나중 배우고, 내가 할 건 그저 확 끓어도 싹 하게 해도 그저 홀딱홀딱 '순다리' 먹으면 내가 최고로 한, 달게 하고 빨리 먹어져.)

107090 @ 누룩은 게민 누룩은 어떵 만들엄수과?(누룩은 그러면 누룩은 어떻게 만드나요?)

107090 #1 누룩은 엿날에 보리 헐 때예.(누룩은 옛날에 보리 할 때.)

107090 @ 예.(예.)

107090 #3 보리 영 헤근에 좀진체[214]로 친 건 ᄉᆞ레기주.(보리 이렇게 해서 '좀진체'로 친 건 싸라기지.)

---

211) '쉰다리'는 '쉰 듯한 밥에 누룩을 넣고 발효시켜 만든 음료'를 말한다. 여름철에 많이 해 먹었으며, '순다리'라고도 한다.

212) '멘ᄃᆞ롱'은 '물이나 방바닥 따위가 조금 따뜻한 느낌을 말한다.

213) '가르륵ᄒᆞ게'는 '쉰다리'가 묽은 상태를 말한다.

214) '좀진체'는 '체의 한 종류'로 가루나 액체를 거를 때 사용되며 구멍이 아주 작은 체를 말한다.

107090 @ 예.(예.)

107090 #3 소레기 흔 거 물 버무령 줴영 줴영 꽉ᄒᆞ게 돋게 나두민 그거에 푹싹허게 터근에 노릿 노릿 ᄒᆞ주. 노릿노릿 흔 꼿이 시면은 그건 잘된 거.(싸라기 한 거 물 버무려서 쥐어서 쥐어서 꽉 하게 따뜻하게 놔두면 그것에 보각하게 떠서 노릇노릇 하지. 노릇노릇 한 꽃이 있으면 그건 잘된 거.)

107090 @ 게, 걸 말렷지예?(게, 걸 말렸지요?)

107090 #3 응. 그거 ᄆᆞᆯ리와근에.(응. 그거 말려서.)

107090 @ 햇빗에 말렷수과?(햇빛에 말렸습니까?)

107090 #3 아니, 기자 트멍 ᄆᆞᆯ르멍 기냥 햇빗에 아녀도 ᄆᆞᆯ라.(아니, 그저 뜨며 마르며 그냥 햇빛에 안 해도 말라.)

107090 @ 아, 게난 요즘 누룩 안 만들아근에 사당 헴수과?(아, 그러니까 요즘 누룩 안 만들어서 사다가 합니까?)

107090 #3 요센 사당.(요사인 사다가.)

107090 @ 만듭서게.(만드세요.)

107090 #3 에이, 그거 그것 홀 ᄉᆞ이 엇어.(에이, 그거 그것 할 사이 없어.)

107091 @ 그다음에 혹시 엿 같은 거 만들어근에 드셔봣수과?(그다음에 혹시 엿 같은 거 만들어서 드셔봤습니까?)

107091 #3 엿은게 엿은 인칙에도 고라라 무시거 희린좁쏠에 밥 헤여 놩.(엿은 엿은 일찍도 말하던데 무시거 차진좁쌀에 밥 해놔.)

107091 @ 예.(예.)

107091 #3 그저 거시기 골 골사당은에게 버무령 나두민 궤면은 뒈게헤영 놔두민 오래 딸리민 엿이뒈곡 얄류민 감지가 뒈고.(그저 거시기 엿기름 엿기름사다가 버무려서 놔두면 괴면 되게 해서 놔두면 오래 달이면 엿이 되고 엷으면 감주가 되고.)

107091 @ 아, 기? 경허는 거구나예. 아, 얇으민 감지가 뒈는 거구나.(아, 그래? 그러는 거군요. 아, 엷으면 감주가 되는 거구나.)

107091 #3 응, 두루 딸리민 감지가 뒈고, 그거 뿟짝ᄒᆞ게 막 풀풀 ᄒᆞ게 디꺽[215] 딸령 놔두민 엿이 뒈곡.(응, 덜 달이면 감주가 되고, 그거 바싹하게 매우 풀풀하게 디꺽 달여서 놔두면 엿이 되고.)

107091 @ 아.(아.)

107091 #3 거 대신 난 그런 거 아녓는디 엿날엔 잘헤낫는디, 아녓는디 그 대신 우리 뚤은 식혜를, 식혜를 잘 만들아.(그 대신 난 그런 거 않았는데 옛날엔 잘했었는데, 않았는데 그 대신 우리 딸은 식혜를, 식혜를 잘 만들어.)

107091 @ 아, 기꽈.(아, 그래요?)

107091 #3 응, 우리 뚤은 저 어디 저 식당에 뎅기는디 식혜를 잘 멘들아.(응, 우리 딸은 저 어디 저 식당에 다니는데 식혜를 잘 만들어.)

---

215) '디꺽'은 '지깍' 혹은 '디깍'을 달리 발음한 것이다. 그 의미로는 '일정한 공간에 물건이 가득 박혀 빽빽한 모양'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물기가 없이 끈적끈적한 엿기름 상태를 말한다.

107091 @ 겡 가정옵니까?(그래서 가져옵니까?)

107091 #3 무시거?(뭐?)

107091 @ 뚤은 식혜 만들어지민 가저와마씨?(딸은 식혜 만들어지면 가져오나요?)

107091 #3 아니, 만들아. 경 만드는 사람 시난, 일단 거 멘들암주. 딱 줄디도 잇고 안줄디도 잇고.(아니, 만들어. 그렇게 만드는 사람 있으니까, 일단 거 만들지. 턱 줄 데도 있고 안줄 데도 있고.)

107091 #2 식당에 꺼 함부로 가저와저?(식당에 것 함부로 가져와지나?)

107091 #3 아냐자와.(안 가져와.)

107091 @ 왜, 요즘 식당들은 식혜도 식혜 가루 이서근에 물만 서끄민 식혜 뒈게.(왜, 요즘 식당들은 식혜도 식혜 가루 있어서 물만 섞으면 식혜 되게.)

107091 #3 어떵사 ᄒᆞ는디. 전이 이디 살 때 헨게, 식당에 뎅긴 후젠 일절 안녜여. 기냥 식당에 아이 뎅길 때 헤줘 먹어나난.(어떻게야 하는지. 전에 여기 살 때 하더니, 식당에 다닌 후에는 일절 안 해. 그냥 식당에 아니 다닐 때 해줘서 먹었었어.)

기타

107092 @ 그다음에는 식혜도 감주도 말고 뭔가 특별하게시리 어 수망리에서 헤 먹는 그 특별한 음식 엇수과?(그다음에는 식혜도 감주도 말고 뭔가 특별하게 어, 수망리에서 해 먹는 그 특별한 음식 없습니까?)

107092 #3 아이고, 난 몰라. 난 이제는 아무것도 이제는 몰르는 사름.(아이고, 난 몰라. 난 이제는 아무것도 이제는 모르는 사람.)

107092 @ 아니, 옛날에.(아니, 옛날에.)

107092 #3 몰라. 뭐 해먹은 거 그거 밖에는 없어.(몰라. 무시거 헹 먹은 거 그거 벳긔는 엇어.)

107092 @ 옛날에 막 방학 때나 장마 때 비올 때, 일도 안 나가면 집에서 뭐 헤근에 먹영 아이들에게.(옛날에 막 방학 때나 장마 때 비올 때, 일도 안 나가면 집에서 뭐 해서 먹여 아이들에게.)

107092 #3 개역이나 벳긔. 그 엿날에 아이덜 배고팡 ᄒᆞ민 저 거시기 개역이나 벳긔 무시거 헤먹어.(미숫가루나 밖에. 그 옛날에 아이들 배고파서 하면 저 거시기 미숫가루나 밖에 뭐 해먹어.)

107092 @ 개역이나.(미숫가루나.)

107092 #3 보릿ᄀᆞ루.(보릿가루.)

107092 @ 보릿ᄀᆞ루헤근에.(보릿가루해서)

107092 #3 거 벳긘.(거 밖에.)

107092 @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께예.(아이고, 고생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7. 주생활

구조

108001 @ 자, 시작헤보게예. 이거 가까이다 놓크라예. 그 집을 지엇던 경험에 대헤서 말씀헤주십시오. 집 지엇던 경험.(자, 시작해보게요. 이거 가까이에 놀게요. 그 집을 지었던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집 지었던 경험.)

108001 #1 예. 시작헤요?(예. 시작해요?)

108001 @ 예.(예.)

108001 #1 그 그, 엿날에 그 우리 초가집을 지엇던 그 제 제 바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은.(그 그, 옛날에 그 우리 초가집을 지었던 그 제 제 바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108001 @ 예.(예.)

108001 #1 엿날에는 그 초집 짓젠 ᄒᆞ면은 나무가 아주 힘이 들어 저 없어 가지고, 나무 구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지금은 이 밧 주위에 전부 쌓여 잇는 게 나무지 만은, 그때는 초가집을 지으면 나무가 그렇게 귀ᄒᆞ여.(옛날에는 그 초가집 짓자고 하면 나무가 아주 힘이 들어 저 없어 가지고, 나무 구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지금은 이 밧 주위에 전부 쌓여 잇는 게 나무지 만, 그때는 초가집을 지으면 나무가 그렇게 귀해.)

108001 @ 예.(예.)

108001 #1 나무가 없으면 어디를 가냐면, 나무를 귀하느냐. 하다 못헤민 저 산에 들어가는 거라예.(나무가 없으면 어디를 가냐면, 나무를 구하느냐. 하다 못하면 저 산에 들어가는 거에요.)

108001 @ 아, 예.(아, 예.)

108001 #1 밀림 속에.

108001 @ 예.(예.)

108001 #1 밀림 속에 들어 가 가지고 산은 그 저것이 정부에 거니까.(밀림 속에 들어 가 가지고, 산은 그 저것이 정부의 것이니까.)

108001 @ 예.(예.)

108001 #1 법을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낭을 거기서 ᄒᆞ나 ᄒᆞ면은 그때는 요새는 톱이로라도 잇나, 그때는 도치엔 헤영 도끼.(법을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를 거기서 하나 하면 그때는 요새는 톱으로라도 있나, 그때는 도치엔 해서 도끼.)

108001 @ 예.(예.)

108001 #1 도치 이 요만헌 거 뿔 돋은 거.(도끼 이 요만한 거 뿔 돋은 거.)

108001 @ 예.(예.)

108001 #1 그걸 가지나, 또 나대[216] 나대는 조금 나주. 그때는 엿날에는 그걸

216) '나대'는 '찍어서 나무 따위를 자르는 데 쓰는 연장'이며, '메호미, 미호미'로도 불린다.

보고 메호미[217]엔 헷수다. 메호미.(그걸 가지나, 또 '나대' '나대'는 조금 나지. 그때는 옛날에는 그걸 보고 '메호미'라고 했습니다. '메호미'.)

108001 @ 아.(아.)

108001 #1 메호미, 메호미, ᄒᆞ면 게 여기 잇는 거 사투리로 육지부에선 낫이엔 ᄒᆞᆫ 게 여기선 호미엔 ᄒᆞ고.('메호미', '메호미', 하면 그 여기 있는 거 사투리로 육지부에선 낫이라고 한 게 여기선 호미라 하고.)

108001 @ 예.(예.)

108001 #1 또 육지에선 호미엔 ᄒᆞᆫ 게 여기선 골갱이엔 ᄒᆞ는 식으로 경 걸 보고 도끼엔 안 ᄒᆞ고 도치라고 여긴 말론 도치ᄒᆞ곡. 메호미 아정강 그 낭을 기치는 거라양.(또 육지에선 호미엔 헌 게 여기선 '골갱이'라고 하는 식으로 경 걸 보고 도끼엔 안 하고 '도치'라고 여기 말론 도치하고. '메호미' 가져가 그 나무를 끊는 거에요.)

108001 @ 예.(예.)

108001 #1 우에 짤른덴 ᄒᆞᆫ 말이 기친덴, 기차아전에 그걸 그디서 껍데기를 베껴 가지고 ᄍᆞ꼼이라도 거볍게 ᄒᆞᆯ랴고.(위에 자른다고 한 말이 '기친다'고, 잘라가져서 그걸 거기서 껍데기를 벗겨 가지고 쪼금이라도 가볍게 하려고.)

108001 @ 예.(예.)

108001 #1 껍데기 베껴 가지고 그걸 하나씩 하나씩 그냥 어깨로 지여다가, 그걸 뭐 ᄒᆞᆫ꺼번에 두 개썩 못 지는 거고 딱 ᄒᆞ나헹 지엉 내려왕 내비동. 또 그 집 ᄒᆞᆫ 거리 짓젠ᄒᆞ민 낭이 숫자가 하영 듭니다게.(껍데기 베껴 가지고 그걸 하나씩 하나씩 그냥 어깨로 져다가, 그걸 뭐 한꺼번에 두 개씩 못 지는 것이고 딱 하나해서 져서 내려와서 내버리고. 또 그 집 한 거리 짓자고 하면 나무가 숫자가 많이 듭니다.)

108001 @ 음.(음.)

108001 #1 이거 무슨 뭐 상ᄆᆞ루ᄁᆡ슴이여. 뭐 뭐 기둥ᄁᆡ슴여, 포ᄁᆡ슴이여, 뭐 서리여 뭐 귀클여 뭐ᄒᆞ당보니, 뭐게 뭐 거 빈지여, 빈지엔 ᄒᆞᆫ 건 뭐 무신 뭔 말인지 알런진 몰라도, 그거여 문 ᄒᆞᆯ 거여 ᄒᆞ당 보민 나무가 숫자로는 아주 셀 수없이 듭니다.(이거 무슨 뭐 용마루감이야. 뭐 뭐 기둥감이야, 보감이야, 뭐 서까래여 뭐 귀틀이야 뭐하다보니, 뭐지 뭐 거 빈지여, 빈지라고 한 건 뭐 무슨 뭔 말인지 아는지 몰라도 그거여, 문 할 거야 하다가 보면 나무가 숫자로는 아주 샐 수없이 듭니다.)

108001 @ 예.(예.)

108001 #1 그거 그걸 헤 가지고 집을 지으면은 그 집지을 자리는 요즘 세대에는 그자 아무 데라도 그자 편편ᄒᆞ고 그자 길옆에 주로 집을 짓는디. 엿날에는, 거 풍수지리 시대라나 가지고 집을 아무 데나 못 지엇수다게.(그거 그걸 해 가지고 집을 지으면 그 집지을 자리는 요즘 세대에는 그저 아무 데라도 그저 편편하고 그저 길옆에 주로 집을 짓는데. 옛날에는, 거 풍수지리 시대라 가지고 집을 아무 데나 못 지었습니다.)

108001 @ 음.(음.)

---

217) '메호미'는 찍어서 나무 따위를 자르는 낫 비슷한 연장을 말하며 '나대, 미호미'로도 불린다.

108001 #1 게, 거 풍수지리 지관.(그래, 그거 풍수지리 지관.)

108001 @ 예.(예.)

108001 #1 지관이영 돌아다근엥에 이녁 밧듸 다 돌아당 배우멍 아 어느 밧듸 집을 짓으민 우리가 잘 살고, ᄌᆞ손도 이리후제 잘 뒈영 좋암직허쿠과 헤영, 그 지관 안티 들으민 지관이 뎅이멍 봉. 밧 ᄀᆞ리치렌 헹 경 밧듸 강, 이만ᄒᆞ민 여기 집짓음직 ᄒᆞ다 ᄒᆞ여근에, 집은 또 방향을 아무렇게나 짓는 것이 아니랑 양.(지관이랑 데려다가 이녁 밭에 다 데려다가 배우면서 아, 어느 밭에 집을 지으면 우리가 잘 살고, 자손도 이후에 잘 돼서 좋겠습니까 해서, 그 지관한테 들으면 지관이 다니면서 봐. 밭 가리켜라 해서 그렇게 밭에 가서, 이만하면 여기 집지음직 하다 해서, 집은 또 방향을 아무렇게나 짓는 것이 아니라요.)

108001 @ 예.(예.)

108001 #1 그 집에 세대주 그 집에 세대주엔 ᄒᆞ민 젤 우엣어른, 뭐 아버지나 아버지 우엣 또 하르버지가 계시면 하르버지가 세대주 뒈는 거고,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돌아강 아버지가 세대주지만 아버지가 세대주렌 그 멩운이라 헤 가지고 그 사름 일름에 그 터 보는 사람이 그자 택일도 헤근엥에 영 봐. 아, 이 사름 멩운에 맞아야 집을 짓나, 영.(그 집에 세대주 그 집에 세대주라고 하면 제일 웃어른, 뭐 아버지나 아버지 위에 또 할아버지가 계시면 할아버지가 세대주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서 아버지가 세대주지만 아버지가 세대주라고 그 명운이라 해 가지고 그 사람 이름에 그 터보는 사람이 그저 택일도 해서 이렇게 봐. 아, 이 사람 명운에 맞아야 집을 짓나, 이렇게.)

108001 @ 예.(예.)

108001 #1 또 그 식구 안에 또 ᄒᆞ다가 그 엿날 그 풍수지리 법에 그 세대주가 또 그 그해에 집을 짓을 운이 못뒈면은 그 식구들 중에 아무라도 아무라도 일일이 식구헤봉, 또 그 멩운이엔 아예 맞지 아녀민 이사람 운에 금년 집을 짓으면은 뭐 집이 망하거나 뭐 ᄌᆞ손이 뭐 죽거나 뭐 여런덴 헹 집을 못짓겐 짓지말렌 헹 안짓어 낫다고.(또 그 식구 안에 또 하다가 그 옛날 그 풍수지리 법에 그 세대주가 또 그 그해에 집을 지을 운이 못되면 그 식수들 중에 아무라도, 아무라도 일일이 식구 해 봐서, 또 그 명운이 아예 맞지 않으면 이사람 운에 금년 집을 지으면 뭐 집이 망하거나 뭐 자손이 뭐 죽거나 뭐 요런다고 해서 집을 못 짓게 짓지 말라고 해서 안 지었었다고.)

108001 @ 음.(음.)

108001 #1 게아민 집은 꼭 짓어야 뭴 거고 허니까, 경ᄒᆞ면은 이 집에 맞는 사람이 딴 사름 운을, 운을 빌어여 헹 딴 사름을 빌어단도 집을 짓어나낫수다.(그렇잖으면 집은 꼭 지어야 될 거고 하니까, 그러면 이 집에 맞는 사람이 딴 사람 운을, 운을 빌어야 해서 딴 사람을 빌어다가도 집을 지었었습니다.)

108001 @ 예.(예.)

108001 #1 에, 게민 옆에 사름은 아무개 이씨가, 난 김씬디 이서방이 보니깐 금

년 집짓을 운인데 그 사름 일름 빌러 가지고 집을 짓으라. 경헹 집을 짓어놓면은 내중에 이사홀 때는 그 사름이 이사ᄒᆞ는 그 사름 일름에 이사ᄒᆞ는 식으로 이사헹은 엥에 그 사름이 또 ᄑᆞ는 식으로 저 매매 그 집문세를 헤주는 거라마씀.(에, 그러면 옆에 사람은 아무개 이씨가, 난 김 씨인데 이서방이 보니깐 금년 집지을 운인데 그 사람 이름 빌어 가지고 집을 지으라. 그렇게 해서 집을 지어놓으면 나중에 이사할 때는 그 사람이 이사하는 그 사람 이름에 이사하는 식으로 이사해서 그 사람이 또 파는 식으로 저 매매 그 집문서를 해주는 거야.)

108001 @ 음.(음.)

108001 #1 원래 그 집주인헌틔. 경허민 이녁 집이 뒌다, 그런 식으로 엿날엔 그 무신 식산지 그런 식으로 집을 짓어낫수다게. 우리 알거니도.(원래 그 집주인한테. 그러면 이녁 집이 된다, 그런 식으로 옛날엔 그 무슨 식인지 그런 식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우리 알기에도.)

108001 @ 음.(음.)

108001 #1 게헹 집짓을 때 그추룩 터 봐근엥예 집을 짓으는디, 동네에 목시 엇이민 어디 저 이웃 부락에 강 목시 헤당 빌어근엥에 집짓젠 ᄒᆞ민. 집짓젠 ᄒᆞ민 거 다 준비가 잇수다. 저 그 주춧돌을 준비헤야지양.(그렇게 해서 집지을 때 그처럼 터 봐서 집을 짓는데, 동네에 목수 없으면 어디 저 이웃 부락에 가서 목수 해다가 빌어서 집짓자고 하면. 집짓자고 하면 거 다 준비가 있습니다. 저 그 주춧돌을 준비해야지요.)

108001 @ 예.(예.)

108001 #1 주춧돌이엔 ᄒᆞᆫ건 이녁냥으로 못혀면 동네에 석공 빌엉 그때에.(주춧돌이라고 한건 이녁대로 못하면 동네에 석공 빌어서 그때에.)

108001 @ 주춧돌이니 이런 건 다시 하나씩 하나씩 질문할 겁니다 뭐. 질문할 거난 그런 식으로 헤 가지고 지관 빌어근에 집도하고 낭도 날라오고예? 그거까지 그 경험으로 저가 정리하고예?(주춧돌이니 이런 건 다시 하나씩 하나씩 질문할 겁니다 뭐. 질문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관 빌어서 집도 짓고 나무도 날라 오고요? 그거까지 그 경험으로 제가 정리하고요?)

108002 @ 그 집에 종류들을 말헤줍서. 삼춘이 지엇던 건 초가집이엇지에?(그 집의 종류들을 말해주세요. 삼촌이 지었던 건 초가집이었지요?)

108002 #1 예. 종류는 저 이칸집엔 이칸집 이칸집 허고 삼칸집 허고 ᄉᆞ칸집까지 이서낫수다.(예. 종류는 저 이간집이라고 이간집, 이간집하고 삼간집하고 사간집까지 있었습니다.)

108002 @ 예. 겨난 무슨 집 짓어낫수과?(예. 그러니 무슨 집 지었었습니까?)

108002 #1 겨난 이 이칸집이엔 ᄒᆞᆫ 건 어떤 식으로 이칸집엔, 포 영 헤근엥예 제일 아주 제일 중요한 포 가운디 딱 ᄒᆞ나 세워근엥예 가운딜로 중심헹 갈랑, 이쭉 이쭉 헤근에 이칸. 또 삼칸집은 그 포 영 헌 거, 포를 두개 메와근엥예 세우민 양쪽에 칸 ᄒᆞ나 양쪽에 칸 두개 삼칸집.(그러니 이 이간집이라고 한 건 어떤 식으로 이

간집이라고, 보 이렇게 해서 제일 아주 제일 중요한 보 가운데 딱 하나 세워서 가운데로 중심해서 갈라, 이쪽 이쪽 해서 두 칸. 또 삼간집은 그 보 이렇게 한 거, 보를 두개 메워서 세우면 양쪽에 칸 하나 양쪽에 칸 두개 삼간집.)

108002 @ 예. 삼춘 지어난 집은 무슨 집이꽈?(예. 삼촌 지어난 집은 무슨 집인가요?)

108002 #1 에, 우리 짓어난 집은 보통 삼칸집.(에, 우리 지어난 집은 보통 삼간집.)

108002 @ 삼칸집예?(삼간집이요?)

108002 #1 삼칸집. 또 쉐막이엔 헹 쉐막은 이칸집.(삼간집. 또 외양간이라고 해서 외양간은 이간집.)

108002 @ 예.(예.)

108002 #1 경 짓어근엥예 거 또 짓으면은 이녁만 그것이 집을 완공을 못시킵니다계.(그렇게 지어서 거 또 지으면 이녁만 그것이 집을 완공을 못시킵니다.)

108002 @ 음.(음.)

108002 #1 어떤 식으로 완공을 시켯냐면, 목시 빌엉 일단은 나무를 까까 가지고 집을 짓는디, 또 문딱 그 헤놩은엥예, 그 목시 빌어근엥예 아래에서 집을 짜 놩은엥예, 메칠 날 상향ᄒᆞ라, 영 상향택일을 홀 택일을 또 봅니다. 거 지관안티 강.(어떤 식으로 완공을 시켰냐면, 목수 빌어서 일단은 나무를 깎아 가지고 집을 짓는데, 또 모두 그 해놓아서, 그 목수 빌어서 아래에서 집을 짜 놔서, 몇 날 상향하라, 이렇게 상향택일을 할 택일을 또 봅니다. 거 지관한테 가서.)

108002 @ 예.(예.)

108002 #1 지관이나 거 택일하는 사름안티 강. 아, 메칠 날 상향ᄒᆞ라 ᄒᆞ여. 또 그날ᄁᆞ지 집은 완전이 밑에서 문 모양을 만들어 놔야 뒈야양.(지관이나 그거 택일하는 사람한테 가서. 아, 몇 날 상향하라 해. 또 그날까지 집은 완전히 밑에서 모두 모양을 만들어 놔야 돼요.)

108002 @ 음.(음.)

108002 #1 만들어놩, 상향ᄒᆞ는 날은 거 동네사름들 문딱 그 초청ᄒᆞᆸ니다. 메틀날 우리 집 세왐시메 ᄀᆞ찌 오랑은엥예 저 지둥도 영 심어주곡, 집 세와도렝 헤근에. 거 이녁 혼자만은 집을 못 세우니까양?(만들어놔서, 상향하는 날은 그 동네사람들 모두 그 초청합니다. 몇 날 우리 집 세우니 같이 와서 저 기둥도 이렇게 잡아주고, 집 세워달라고 해서. 거 이녁 혼자만은 집을 못 세우니까요?)

108002 @ 예.(예.)

108002 #1 집 세우젠ᄒᆞ민 거 기둥을 ᄒᆞ낙씩 ᄒᆞ낙씩 두 군대 꼽아근에 그냥 양쪽에 사름 두 사름씩 두 사름 너의가 가근엥예 집을 네 사름이 장정들 네 사름이 이서야.(집 세우려하면 거 기둥을 하나씩 하나씩 두 군대 꼽아서 그냥 양쪽에 사람 두 사람씩 두 사람 넷이 가서 집을 네 사람이 장정들 네 사람이 있어야.)

108002 @ 삼춘이 지어난 집은 삼칸집예?(삼촌이 지어난 집은 삼간집요?)

108002 #1 예. 삼칸집.(예. 삼간집.)

108003 @ 삼칸집이고 그다음엔 어 그 삼칸집인데 그 집들도 저기 안거린지 밖거린지 아니면 모커린지 헤낫잖아예? 삼춘지은 집은 뭐엿수과?(삼간집이고 그다음엔 어 그 삼간집인데 그 집들도 저기 안챈지 바깥챈지 아니면 곁챈지 했었잖아요? 삼촌지은 집은 뭐였습니까?)

108003 #1 안커리.(안채.)

108003 @ 안커리 지어낫구나예.(안채 지었었군요.)

108003 #1 응. 안커리ᄒᆞ고 쉐막.(응. 안채하고 외양간.)

108004 @ 쉐막 지어낫구나예? 그럼 삼칸집 지을 때 어, 아까 얘기헷잖아예? 그 기둥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삼칸집 지을 때는 어떤 식으로 저기 주춧돌하고 한 거를 골아줍서.(외양간 지었었군요? 그럼 삼간집 지을 때 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기둥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삼간집 지을 때는 어떤 식으로, 저기 주춧돌하고 한 거를 말해주세요.)

108004 #1 주춧돌은 멘들라면 자기대로 멘들지 못ᄒᆞ면 동네에 거 석공이라고 그때엔 석씨엔. 석씨 엿날 말로.(주춧돌은 만들려면 자기대로 만들지 못하면 동네에 그 석공이라고 그때엔 석씨라고 석씨, 옛날 말로.)

108004 @ 게난 삼칸집 지을 때 시작부터 골아줍서. 시작부터.(그러니까 삼간집 지을 때 시작부터 말해주세요. 시작부터.)

108004 #1 시작은 거 시작부터 멘 처음 준비하는 게 주춧돌을 준비헤야주.(시작은 거 시작부터 맨 처음 준비하는 게 주춧돌을 준비해야지.)

108004 @ 예, 주춧돌 준비하고 그다음?(예, 주춧돌 준비하고 그다음?)

108004 #1 주춧돌 멘들젠 ᄒᆞ민, 동네에 석씨 빌어다근에 그 엿날엔 요즘은 그 시대가 바까전, 그 뭐 요즘 석수들은 이렇게 그 방멩이추룩 사 만든 거, 뭐 겐노[218]라고 뭐 걸로 헌디, 엿날에는 돌차귀[219]렌 헤영, 우리 어릴 때 보면은 그 돌차귀렌 헤근엥에, 도끼 식으로 뒈근에 그걸 헤근엥예 돌 다듬아근엥예 주춧돌 멘들아놔근엥예, 그 미르에 목시 빌어다근엥예 집을 짜 놩, 집을 세우는 날은 딱 그 목시가 맞춰, 여기에 주춧돌 심그라ᄒᆞ민 놔근엥예 경행 식을 그냥 또 세우는 거라 마씀.(주춧돌 만들려고 하면, 동네에 석수 빌어다가 그 옛날엔 요즘은 그 시대가 바뀌어져서, 그 뭐 요즘 석수들은 이렇게 그 방망이처럼 사 만든 거, 뭐 '쇠메'라고 뭐 그걸로 했는데, 옛날에는 '돌차귀'라고 해서, 우리 어릴 때 보면 그 '돌차귀'라고 해서 도끼 식으로 돼서 그걸 해서 돌 다듬어서 주춧돌 마들어 놔서, 그 미리 목수 빌어다가 집을 짜 놓아서, 집을 세우는 날은 딱 그 목수가 맞춰서, 여기에 주춧돌 심어라하면 놓아서 그렇게 해서 식을 그냥 또 세우는 겁니다.)

108004 @ 예.(예.)

108004 #1 예, 주춧돌러레, 세와근엥예 전부 세와근엥에, 내중에 제일 내중에 ᄒᆞ

218) '겐노'는 일본어 けんのう를 말하는데 우리말 표준어 '쇠메'를 뜻한다.
219) '돌차귀'는 '돌을 다듬을 때 사용하는 도구'를 말하며, '도절귀, 돌철귀, 돌쩌귀'라고도 한다.

는 일은 상향식이라고 헤 가지고 상ᄆᆞ롤 올립니다.(예, 주춧돌들에, 세워서 전부 세워서, 나중에 제일 나중에 하는 일은 상향식이라고 해 가지고 용마루를 올립니다.)

108004 @ 상ᄆᆞ로예.(용마루요.)

108004 #1 응, 상ᄆᆞ로. 목수, 경헤놩, 목수는 그 기둥 문딱 세와난 우에 목수가 올라가근엥예, 아래서 상ᄆᆞ로 올리라, 헤근엥아 상ᄆᆞ로 올리면은 목시 그 목시가 그디서 받아 가지고 상ᄆᆞ로 주곡. 상ᄆᆞ로 그 밑에예 내중에 그 기념ᄒᆞ기 위헤서 그 상ᄆᆞ로 밑에다가 글귀를 씁니다.(응, 용마루. 목수, 그렇게 해놓고, 목수는 그 기둥 모두 세워난 위에 목수가 올라가서, 아래서 용마루 올려라, 해서 용마루를 올리면 목수 그 목수가 거기서 받아 가지고 용마루 주고. 용마루 그 밑에 나중에 그 기념하기 위해서 그 용마루 밑에다가 글귀를 씁니다.)

108004 @ 음.(음.)

108004 #1 메칠날 그때 구식으로 뭐 갑자년이민 갑자년 멧 월 메칠 입교, 상향헤 가지고 글귀를 딱 씁니다. 그거.(몇 날 그때 구식으로 뭐 갑자년이면 갑자년 몇 월 며칠 입교, 상향해 가지고 글귀를 딱 씁니다. 그거.)

108004 @ 예.(예.)

108004 #1 글 쓰는 사람, 자기가 글을, 그 집주인이 글을 쓸 줄 모르면 동네에 글 쓰는 사람 빌어다가.(글 쓰는 사람, 자기가 글을, 그 집주인이 글을 쓸 줄 모르면 동네에 글 쓰는 사람 빌어다가.)

108004 @ 음.(음.)

108004 #1 그렇게 써 가지고.(그렇게 써 가지고.)

108004 @ 예.(예.)

108004 #1 게, 글 그 글 양쪽 끗덴 나무 끗덴 ᄒᆞᆫ짝엔 저 용용자 쓰고 ᄒᆞᆫ짝에는 범 호자 쓰곡, 호랑이 허고 범이라고 헤 가지고, 건 그 집을 액을 막아준다는 그런 글자 쓰고. 그 사이에 뭐 갑자년이민 갑자년 멧 월 멧 일 멧 시 입주 상향.(그래, 글 그 글 양쪽 끝엔 나무 끝엔 한쪽엔 저 용 용자 쓰고 한쪽에는 범 호자 쓰고, 호랑이하고 범이라고 해 가지고, 그건 그 집을 액을 막아준다는 그런 글자 쓰고. 그 사이에 뭐 갑자년이민 갑자년 몇 월 며칠 몇 시 입주 상향.)

108004 음.(음.)

108004 #1 거 이렇게 문구를 써 가지고 거 목수가 상ᄆᆞ루 아래서 올리렌 ᄒᆞ민 우에 목수가 받아 가지고 딱 걸치고, 거기다가 ᄍᆞ꼼 그 부유ᄒᆞ게 사는 사름은 그 미녕이나.(그거 이렇게 문구를 써 가지고 그걸 목수가 용마루 아래서 올리라고 하면 위에 목수가 받아 가지고 딱 걸치고, 거기다가 쪼끔 그 부유하게 사는 사람은 그 무명이나.)

108004 @ 예.(예.)

108004 #1 광목이나 ᄒᆞᆫ필 사당 상ᄆᆞ루에 딱 그 상ᄆᆞ루에 올린다음에 걸칩니다.(광목이나 한필 사다가 용마루에 딱 그 용마루에 올린다음에 걸칩니다.)

108004 @ 예.(예.)

108004 #1 걸청은엥예 아래선 그디다가 그 장ᄃᆞᆨ.(걸쳐서 아래선 거기다가 그 수탉.)

108004 @ 예.(예.)

108004 #1 장ᄃᆞᆨ을 ᄒᆞ나 미리 그 집세우젠 ᄒᆞ민, 엿날은 장ᄃᆞᆨ을 ᄒᆞ나 미리 준비헷수다, 수탉.(수탉을 하나 미리 그 집세우려고 하면, 옛날은 수탉을 하나 미리 준비했습니다, 수탉.)

108004 @ 음.(음.)

108004 #1 장ᄃᆞᆨ을 ᄒᆞ나 큼지막ᄒᆞᆫ 거, 것도 장ᄃᆞᆨ도, 어린 건 안 뒈고, 그 새벽에 우는 ᄃᆞᆨ이라야.(수탉을 하나 큼지막한 거, 그것도 수탉도, 어린 건 안 되고, 그 새벽에 우는 닭이라야.)

108004 @ 음.(음.)

108004 #1 장성ᄒᆞᆫ. 그걸 헤근엥에 코에다가 꿰엉 줄 헤영 그 광목에다 영 태와 가지고, 목수안터레 줄 넹기면은 줄을 땡겨가지고 상모루 ᄁᆞ지 딱 올려 가지고, 거 목수는 허리에 그 자귀를 차 잇다가, ᄃᆞᆨ을 상ᄆᆞ로 우에 딱 걸처 가지고, 목수가 거기서 메칠, 멧 월, 메칠 날 상냥헴습니다, 헤 가지고, 그냥 그 자기가 찻던 자귀를 꺼내가지고 ᄃᆞᆨ 모가지를 탁 쫄르는 거라양.(장성한. 그걸 해서 코에다가 꿰어 줄 해 가지고 그 광목에다 이렇게 태워 가지고, 목수한테 줄넘기면 줄을 당겨 가지고 '상ᄆᆞ로' 까지 딱 올려 가지고, 거 목수는 허리에 그 자귀를 차 있다가, 닭을 상ᄆᆞ로 위에 딱 걸쳐 가지고, 목수가 거기서 며칠, 몇 월, 며칠 상향합니다, 해 가지고, 그냥 그 자기가 찼던 자귀를 꺼내 가지고 닭 모가지를 탁 자르는 겁니다.)

108004 @ 음.(음.)

108004 #1 탁 쫄르민 ᄃᆞᆨ은 밑에 딱 떨어지면은, 그 머리가 완전 동강나니깐.(탁 자르면 닭은 밑에 딱 떨어지면, 그 머리가 완전 동강나니깐.)

108004 @ 예.(예.)

108004 #1 짤라지니깐 탁 떨어지면은, 그 떨어진 자리에 그 뭐 깊으게 자그만한 구뎅이에 깊으게 뚤라 가지고 그 ᄃᆞᆨ대가리는 그디 묻고.(잘라지니깐 툭 떨어지면, 그 떨어진 자리에 그 뭐 깊게 자그만 한 구덩이에 깊게 뚫어 가지고 그 닭대가리는 거기 묻고.)

108004 @ 아.(아.)

108004 #1 묻곡, 또 그 ᄃᆞᆨ을 목가지 잘랑 퍼따퍼딱 뛰는 걸 가지고 그게 아무라도 뭐 그기 잇는 사름, 사름 뭐 안 ᄀᆞᆯ려 가지고 심어다가, 삼칸집은 보통 기둥이 네 겐디양.(묻고. 또 그 닭을 목가지 잘라서 파닥파닥 뛰는 걸 가지고 그게 아무라도 뭐 거기 있는 사람, 사람 뭐 안 골라 가지고 잡아다가, 삼간집은 보통 기둥이 네 갠데요.)

108004 @ 음.(음.)

108004 #1 네 개에다가 똑똑똑 거기 가근엥예 뭐 도장 찍는 식으로 찍는 거라양.(네 개에다가 똑똑똑 거기 가서 뭐 도장 찍는 식으로 찍는 겁니다.)

108004 @ 피로?

108004 #1 응, 피 무처지게.(응, 피 묻어지게.)

108004 @ 음.(음.)

108004 #1 그걸 그렇게 헤야 액을 막아진다고.(그걸 그렇게 해야 액을 막아진다고)

108004 @ 음.(음.)

108004 #1 게헤난 다음에, 그걸로 거기서 이젠 집 주인이 그걸 받아 가지고, 거기다 전부 그걸 헤 가지고 그건 이젠 뭐 옛날에는 어려운 때니깐양? 집 세우렌 오렌 헹, 온 사람들 그걸 헤 가지고, 젤 나눠먹기 쉬운 방법은 그걸 전부헤 가지고 그 칼로 잘게 짤라가지고 국을 끓입니다.(그러한 다음에, 그걸로 거기서 이젠 집 주인이 그걸 받아 가지고, 거기다 전부 그걸 해 가지고 그건 이젠 뭐 옛날에는 어려운 때니까요? 집 세우러 오라고 해서, 온 사람들 그걸 해 가지고, 제일 나눠먹기 쉬운 방법은 그걸 전부해 가지고 그 칼로 잘게 잘라가지고 국을 끓입니다.)

108004 @ 음.(음.)

108004 #1 국을 끌려 가지고 그렇게 따문 보통 상향시간은 보통 열흔 시로 열 시.(국을 끓여 가지고 그렇기 때문 보통 상향시간은 보통 열한 시로 열 시.)

108004 @ 음.(음.)

108004 #1 원, 그렇게 경ᄒᆞ민 그 동네에 놀레 온 사름ᄒᆞ곡, 여기 다 옵센헹 그걸 그자 국을 만들아 가지고 쪼곰씩 쪼곰씩, 만히는 못 드립니다. 엿날에 어려운 때니깐양. 그 사름들은 아 그 아무네 집이 집 세운덴 헨에 우리 가근엥예 강 구경ᄒᆞ곡 놀레 가자 헹 가며는 그 사람들 온 사름은 조금씩이라도 다 주어야 뒙니다게. 뭐 누구는 안 주곡 누구는 안 주면은 뭐 상당히, 그 엿날은 그 먹질 못허곡 귀한 때니깐 아무네 집이 집 세우는디 가니깐 그거 그 앞이 간 사름은 얻어먹고 내중에 간 사름은 기냥 얻어먹지 못헷젠 허멍, 그런 소문내우지 말젠 오는 사람 영 보면서 좀 그 듹 흔 마리가 얼마나 흡니까. 그거 칼로 졸게 썰어가지고 물을 쪼곰 사람이 많이 올 거 같으면 물을 쪼끔 많이 놓곡, 거기다가 뭐 뭐 놈삐도 썰어 놓곡, 뭐 무슨 뭐 엿날도 메역 이시난 메역 놓콕 헹, 그걸 영 조곰씩 다 나눠줍니다. 게민 그걸 먹곡 경 헹 끗나. 겡, 경 헹 상향 그날ᄒᆞ루 끗납니다.(원, 그렇게 그러하면 그 동네에 놀러 온 사람하고, 여기 다 오십시오해서 그걸 그저 국을 만들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많이는 못 드립니다. 옛날에 어려운 때니까요. 그 사람들은 아 그 아무 네 집이 집 세운다고 해서 우리 가서 가 구경하고 놀러가자 해서 가면 그 사람들 온 사람은 조금씩이라도 다 주어야 됩니다. 뭐 누구는 안 주고 누구는 안 주면 뭐 상당히, 그 옛날은 그 먹질 못하고 귀한 때니까 아무 네 집에 집 세우는데 가니깐 그거 그 앞에 간 사람은 얻어먹고 나중에 간 사람은 그냥 얻어먹지 못했다고 하면, 그런 소문내지 않으려고 오는 사람 이렇게 보면서 좀 그 닭 한 마리가 얼마나 합니까. 그거 칼로 잘게 썰어 가지고 물을 조금 사람이 많이 올 거 같으면 물을 조금 많이 넣고, 거기다가 뭐 뭐 무도 썰어 넣고, 뭐 무슨 뭐 옛날도 미역 있으니까 미역

넣고 해서, 그걸 이렇게 조금씩 다 나눠줍니다. 그러면 그걸 먹고 그렇게 해서 끝나. 그렇게, 그렇게 해서 상향 그날하루 끝납니다.)

108004 #1 끗나민 이젠 또 흑질이렌 헌게 잇습니다. 흑질. 흑질이엔 흔 건 뭐냐면 흑을 물에다가 버무려 가지고 그 집의 옆이 옆이 영 불르는 거라양. 요즘식으로 요렇게 세멘헤지만은, 그때는 그 삼칸집을 짓으면은 그 안에다가 칸을 막습니다. 지금 요추룩. 요거는 구들, 요거는 삼방, 요거는 정제, 요거는 고팡이엥. 그 사이사이에 뭘 막아야 뒐건디.(끝나면 이제는 또 흙질이라고 한 게 있습니다. 흙질. 흙질이라고 한 건 뭐냐면 흙을 물에다가 버무려 가지고 그 집의 옆에 옆에 이렇게 바르는 겁니다. 요즘 식으로 요렇게 시멘트를 하지만, 그때는 그 삼간집을 지으면 그 안에다가 칸을 막습니다. 지금 요처럼. 요거는 구들, 요거는 대청, 요거는 부엌, 요거는 광이라고. 그 사이사이에 뭘 막아야 될 건데.)

108004 #1요즘은 뭐 기술도 좋고 재료도 좋은 때니깐 뭐 아무 걸로라도 합판이라든가 무슨 저런디 부룩꿀 쌓든가 벡돌 쌓든가 헤근엥 세멘 헤주만은, 그때는 흑을 불릅니다. 불라야 뒙니다. 그 흑질이엔 흑질 날은 그것도 택일헤야 뒙니다. 아무 날에나 ᄒᆞ질 않고, 택일하는 사람신디 강, 아 우리 집 이젠 흑질헤야 뒐 건디 메칠 날 흑질허젠 헴신디 어는 날 헤시민 좋구과, 강 들으면은 에, 아무 날 흑질ᄒᆞ라, 게민 흑질ᄒᆞ는디, 그 흑을 어느 방향에서 파옵니까, 것도 방향도 이섯수다. 어 아무방향에나 ᄒᆞ질 아여고. 게, 거 옛날 구식말로 뭐 무신 뭐 갑을방이니 병진방이니 뭐 경신방이니 헤 가지고 ᄒᆞ면은, 게 그때 보면은 보통 뭐 시계 시계방향으로 영 파나 아무방향에서 흑을 파 가지고 그걸 사용ᄒᆞ라ᄒᆞ민. 게민 그걸 흑질ᄒᆞ젠 ᄒᆞ민 또 동네 사람을 전부 다 빌어야 됩니다게.(요즘은 뭐 기술도 좋고 재료도 좋은 때니깐 뭐 아무 걸로라도 합판이라든가 무슨 저런데 블록을 쌓든가 벽돌 쌓든가 해서 시멘트하지만, 그때는 흙을 바릅니다. 발라야 됩니다. 그 흙질이라고 흙질 날은 그것도 택일해야 됩니다. 아무 날에나 하지를 않고, 택일하는 사람에게 가서, 아 우리 집 이젠 흙질해야 될 건데 몇 날 흙질하려고 하는데 어는 날 했으면 좋겠습니까, 가서 들으면. 에, 아무 날 흙질하라, 그러면 흙질하는데, 그 흙을 어느 방향에서 파옵니까, 그것도 방향도 있었습니다. 어, 아무방향에나 하지 않고. 그래, 그거 옛날 구식말로 뭐 무슨 뭐 갑을방이니 병진방이니 뭐 경신방이니 해 가지고 하면, 그래 그때 보면 보통 뭐 시계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파나 아무방향에서 흙을 파 가지고 그걸 사용하라하면. 그러면 그걸 흙질하려고 하면 또 동네 사람을 전부 다 빌어야 됩니다.)

108004 #1메칠 날 우리 집이 흑질헴시니깐 오랑은에 흑질 헤줍서 헤야. 또 남자들언틴 영ᄒᆞ고. 그때 흑질 ᄒᆞ젠 ᄒᆞ면 흑을 버무르젠 ᄒᆞ민 물이 이서야 뒐 거 아니꽈? 물을 ᄀᆞ므나 조곰 ᄀᆞ물아가민 또 물을 먼디 강 질어오젠 ᄒᆞ민, 그때 물 어떤 방식으로, 물을 동네 여자들 또 별도로 빕니다. 낼 우리 흑질헴시메, 물 오랑 져 줍서 허영. 겡허민 거 그자 의무적으로 그 땐 갈 걸로 알앗수다, 엿날엔. 다 돌아가멍경 ᄒᆞ니까. 게민 그 여자들은 그 허벅져 오랑 물로 져 날랑 남자들은 흑을 파민 그

래 그냥 물을 비와놓는 거라양.(몇 날 우리 집에 흙질하니깐 와서 흙질해주세요 해야. 또 남자들 한데는 이렇게 하고. 그때 흙질 하려고 하면 흙을 버무리려고 하면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을 가물거나 조금 가물어가면 또 물을 먼데 가서 길어오려고 하면, 그때 물 어떤 방식으로, 물을 동네 여자들 또 별도로 빕니다. 낼 우리 흙질하니까, 물 와서 져 주세요 해서. 그러면 거 그저 의무적으로 그 땐 갈 걸로 알았습니다, 옛날엔. 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그 여자들은 그 허벅 지고 와서 물로 지고 날라서 남자들은 흙을 파면 그리로 그냥 물을 부어놓는 겁니다.)

108004 #1 경허민 그 흑을, 거 물만 비아놓민 뒈는 게 아이라 그걸 그냥 막 영 버무려야 뒙니께. 저 아무 걸로 헤도 헤영. 게도 그 흑을 버무리는 방법은 그 쉐가 이서야 뒙니다. 쉐. 쉐도 아무쉐나 안 뒙니다. 아주 그냥 막 일 잘허는 소, 밧갈쉐[220], 밧가는 쉐 양. 큰놈, 그걸 아무 집이 강, 미리 것도 빌어야 뒙니다. 낼 우리 흑질 ᄒᆞ젠 ᄒᆞ니깐 쉐좀 빌려줘. 저 흑 불릴, 흑 불릴 쉐, 흑을 그자 버무린단 말을 흑 불릴 쉐 빌려줍서, 헤근엥에. 것도 아무나 안 빌려줍니다. 그 쉐가 상당히 못전딥니다. 그거 흑을 불리젠 ᄒᆞ면은. 흑을 파 놔 가지고 거기에 물을 담아놔 가지고 그 생각을 헤봅서. 그디 들어가근엥에, 그걸 발로 그걸 붋아야 뒐 거 아니꽈. 아무 힘약한 쉔 뒈지도 않고 또 아무나 쉐를 빌려주질 아늡니다. 동네 쉐 이서도. 좀 인정이 좀 가깝고 친척이나 뒌 사름신딘 저 마지못헤근엥예 쉐 빌려. 거, 품삯이나 뭐 주는 것도 아니우다. 기냥 기자 공짜로 기자 그 ᄒᆞ는 식으로.(그러면 그 흙을, 그거 물만 부어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그냥 막 이렇게 버무려야 되니까요. 저 아무 걸로 해도해서. 그래도 그 흙을 버무리는 방법은 그 소가 있어야 됩니다. 소. 소도 아무소나 안 됩니다. 아주 그냥 막 일 잘하는 소, 밭갈소, 밭가는 소요. 큰놈, 그걸 아무 집에 가서, 미리 것도 빌어야 됩니다. 낼 우리 흙질 하려고 하니깐 소 좀 빌려줘. 저 흙 밟을, 흙 밟을 소, 흙을 그저 버무린단 말을 흙 밟을 소 빌려주세요, 해서. 그것도 아무나 안 빌려줍니다. 그 소가 상당히 못 견딥니다. 그거 흙을 밟으려고 하면. 흙을 파놓아 가지고 거기에 물을 담아 넣어 가지고 그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들어가서, 그걸 발로 그걸 밟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 힘 약한 소는 되지도 않고 또 아무나 소를 빌려주질 안합니다. 동네 소 있어도. 좀 인정이 좀 가깝고 친척이나 된 사람에게는 저 마지못해서 소 빌려요. 그거, 품삯이나 뭐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저 공짜로 그저 그 하는 식으로.)

108004 #1 헤영, 그 물 질어 오는 여저들도 허벅으로 물 질어당 그레 비우는 것도 다 품삯 받는 것이 아니우다. 그냥 도움, 서로서로 그자 그자 일면 말하면 수눌어. 수눌므로 우리 제주도 방어가 그 옛날엔 그 수눌음이렌 헤여근에, 아주 그냥 젤 첨, 역사적인 말인디. 게 수눌엉, 그걸 쉐로 그냥 막 그걸 불봐근엥예, 막 그 서터노민 그 ᄒᆞᆫ 번 또 쉐스렁으로 그거 또 뒤집어야 뒙니다. 그 골고루 뒈게시리. 그 뒤집을 때 쉐는 불리당 바깟듸 끄서네근엥에 조곰 물도 멕이고, 촐도 주곡 헤근엥예 먹

220) '밧갈쉐'는 밭을 가는데 부리는 소를 말한다.

여 놩.(해서, 그 물 길어 오는 여자들도 허벅으로 물 길어다가 그리로 비우는 것도 다 품삯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도움, 서로서로 그저 일면 말하면 품앗이 해. 품앗이 하므로 우리 제주도 방언이 그 옛날엔 '수눌음'이라고 해서 아주 그냥 제일 참, 역사적인 말인데. 그래 품앗이 해, 그걸 소로 그냥 막 그걸 밟아서, 막 그 섞어 놓으면 그 한 번 또 쇠스랑으로 그거 또 뒤집어야 됩니다. 그 골고루 되게끔. 그 뒤집을 때 소는 밟다가 밖에 끌어내서 조금 물도 먹이고, 꼴도 주고 해서 먹여 놓아.)

108004 #1 그 사이에 장정들은 들어가근에 것도 아무나 안헙니다. 것도 사람을 택헤야 뒙니다. 것도 쉐시렁질도 홀줄도 알곡, 좀 힘도 쓰곡 흔 사람은 흑굿[221]이엥 헤근에 게 흑질ᄒᆞ젠 ᄒᆞ민 흑굿 헤줄 사름을 뚜루 빌어야 됩니다.(그 사이에 장정들은 들어가서 그것도 아무나 안합니다. 그것도 사람을 택해야 됩니다. 그것도 쇠스랑질도 할 줄 알고, 좀 힘도 쓰고 한 사람은 '흙굿'이라고 해서, 그게 흙질하려고 하면 '흙굿'해줄 사람을 따로 빌어야 됩니다.)

108004 #1 건 무슨 말인ᄀᆞ ᄒᆞ면은, 흑굿, 아무네 집이 강 그 좀 일 잘 헴시민 넬랑 우리 흑꿑데 들어줘, 흑꿑데 들어줘, 그 사름 특별히 빕니다게. 흑꿑데 들어들영. 흑굿이엔 흔 건, 그 사름들이 헤영 보민 그 땅을 파곡 또 쉐가 들어가근엥예 볼릴 때 그 쉐를 그냥 다 방향 붸양 쉐를 아무데나 가면 뒈는 게 아니고. 쉐도 그 잘 들어가젠을 안헙니다게. 것도 말, 짐승이라 말은 모르지만은 그것도 자기가 힘들 데라고 헤 가지고.(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흙굿' 아무 네 집에 가서 그 좀 일 잘하고 있으면 내일랑 우리 '흙굿'에 들어 가줘, '흙굿'에 들어 가줘, 그 사람 특별히 빕니다. '흙굿'에 들어 드려서. '흙굿'이라고 한 건, 그 사람들이 해서 보면 그 땅을 파고 또 소가 들어가서 밟을 때 그 소를 그냥 다 방향 보여줘서 소를 마무데나 가면 되는 게 아니고. 소도 그 잘 들어가려고 안합니다. 그것도 말, 짐승이라 말은 모르지만 그것도 자기가 힘들 데라고 해 가지고.)

108004 #1 게난 그 흑꿑데 들사람들이 그 지맹헹 빈 사름덜이 그 사람들이 쉐 녹대를 잡아근엥예 그냥 이껑 들어갑니다. 거 두에서 저 몰아주곡 헹양. 경영 뭐 그냥 멘손으로 허는 거 빼고, 작업ᄒᆞ는 막뎅이 심엉 툭툭 때리멍 기자 들어가렌 헹, 겡형 골고루 뎅입니다. 골고루 뎅이멍 거기서 또 기냥 뎅이는 게 아니라 소리를 헤야 뒈어양. 노래를 불러야 뒈양. 밧 볼리는 소리[222]렌 헤 가지고 엿날 거거 것도 밧볼리는 소리도 것도 아무나 허는 것도 아니고, 거.(그러니 그 '흙굿'에 들사람들이 그 지명해서 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소 굴레를 잡아서 그냥 이끌어서 들어갑니다. 그 뒤에서 저 몰아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그냥 맨손으로 하는 거 빼고, 작업하는 막대기 잡아 툭툭 때리며 그저 들어가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골고루 다닙니다. 골고루 다니며 거기서 또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소리를 해야 돼요. 노래를 불러야 돼요. 밭 밟는 소리라 해 가지고 옛날 그거 그것도 밭 밟는 소리도 그것도

221) '흑굿'은 초가집을 지을 때 개벽질할 흙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에 쟁기를 메워 마당을 갈아엎고 보릿짚과 물을 섞어서 밟아 이기기 위해 마련된 그 현장을 말한다.

222) '밧 볼리는 소리'는 조를 파종할 때 마소 떼를 앞세우고 밭을 단단히 밟으면서 부르는 노동요를 말한다. 여기서는 '흑굿'을 할 때도 '밧 볼리는 소리'를 했다는 이야기다.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108004 @ 기억남수과?(기억납니까?)

108004 #1 에. 요즘.(예. 요즘.)

108004 @ 한번 이때 그걸 밧 불리는 소리 한 번 헤보쿠과?(한번 이때 그걸 밭 밟는 소리 한 번 해보겠습니까?)

108004 #1 건 난 할 줄 몰르는데, 나도 엿날에 그 우리 집에 쉐도 잇고 물도 헤가지고 엿날은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렷지만은, 그 조를 갈젠 헤민 밧 불릴 거, 밧 불릴 때는, 우리 집인 조금 우리 집인 그 당시에 동네 쪼꼼 그래도 쪼꼼 살림을 좀 산다는 평을 받앗수다게. 남이 밥을 안 빌어먹고 게난 건 엿날에도 거 쉐, 물은 집집마다 잇서나질 안앗수다. 그 그런 그 길를 힘이 없어 가지고, 우리는 그래도 쪼끔 동네에서 부유하게 산다 헤가지고, 쉐도 잇고 물도 잇서 가지고, 우리 집잇 물로 우리 집이 밧을 불려수다게.(그건 난 할 줄 모르는데, 나도 옛날에 그 우리 집에 소도 있고 말도 길 러가지고 옛날은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그 조를 갈려고 하면 밭 밟을 거, 밭 밟을 때는, 우리 집인 조금 우리 집인 그 당시에 동네 조금 그래도 조금 살림을 좀 산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남의 밥을 안 빌어먹고 그러니 그건 옛날에도 그거 소, 말은 집집마다 있어나질 않았습니다. 그 그런 그 기를 힘이 없어 가지고, 우리는 그래도 조금 동네에서 부유하게 산다 해서, 소도 있고 말도 있어 가지고, 우리 집의 말로 우리 집의 밭을 밟았습니다.)

108004 #1 겡헹 그자, 또 동네에서 어신 사름신디 메칠 날 밧 불려ᄃᆞ렌 헹. 겡헨디. 그 흑 불릴 때도 그런 소리를 그 동네서 영 봉, 그자 영 목청 목소리 좋거든, 야, 그 저 밧 불리는 소리 허멍 흑 불리라. 게영, 거 섭섭허게 하지 말앙 게민, 그 사름덜이 헤영 소리허멍, 거 밧을, 밧 불리는 식으로. 게난, 흑 불린다는 것이 밧 불리는 식이우다게. 빨리, 그 흑 통에 쉐가 들어가니까 빨리 걷지 못하는 거지. 쉐는 게 뜨벅뜨벅 밧갈쉐가 동작이 허는 것이 불릅니까게. 물은 뿔르지만은, 헹으네 게 그걸 영 첨, 그냥 불리는 걸 밧 불리는 소리 허멍, 흑을 불랑으네게 그 흑굿에 든 사람들이 전부 그걸 다 책임정, 흑을 전부 그냥 거기서 버무려 놉니다.(그러니 그저, 또 동네에서 없는 사람에게 며칠에 밭 밟아달라고 해서, 그런데 그 흙 밟을 때도 그런 소리를 그 동네에서 이렇게 봐서, 그저 이렇게 목청 목소리 좋거든, 야,그저 밭 밟으는 소리 하면서 흙 밟으라. 해서, 거 섭섭하게 하지 말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서 소리하면서, 그 밭을, 밭 밟는 식으로. 그러니까, 흙 밟는다는 것이 밭 밟는 식입니다. 빨리, 그 흙 통에 소가 들어가니까 빨리 걷지 못하는 거지. 소는 그게 뚜벅뚜벅 '밭갈소'가 동작이 하는 것이 빠릅니까. 말은 빠르지만, 해서 그래 그걸 이렇게 참, 그냥 밟는 걸 밭 밟는 소리하면서, 흙을 밟아서 그 '흙굿'에 든 사람들이 전부 그걸 다 책임져서, 흙을 전부 그냥 거기서 버무려 놉니다.)

108004 #1 버무려 놓민은 이젠 흑을 흑을 걸 날라 가야 옆이 흑을 불를 거 아니꽈? 저만치 어디 먼 디 강 헤 놓면은, 거 산태[223]엔 헌 게 이서 산태. 산태엔 헌

223) '산태'는 긴 채 두 개 사이에 가운데만 가로장을 띄엄띄엄 박아 들것처럼 앞뒤로 들게 된 도구를

거 이신디 앞에 흔 사름 뒤에 흔 사름 이렇게 헹 들르는 건디, 그것을 그 산태도 거 다 미리 준비헤놥니다게. 이녁신디 엇이민 동네 집이 가근엥예 거 산태도 경 집집마다 엇어낫수다. 것도 건 낭으로 만든 건디양, 것도 만들어 놔근엥예, ᄒᆞ나만 이성 뒈는 거 아니라 산태 흔 두 개 세 개는 이서야 뒙니다게.(버무려 놓으면 이젠 흙을 흙을 그걸 날라 가야 옆에 흙을 바를 거 아닙니까? 저만치 어디 먼 데 가서 해 놓으면, 그거 '산태'라고 한 게 있어 '산태'. '산태'라고 한 게 있는데 앞에 한 사람 뒤에 한 사람 이렇게 해서 드는 건데, 그것을 그 산태도 미리 준비해놓습니다. 이녁에게 없으면 동네 집에 가서요, 거 '산태'도 그렇게 집집마다 없었습니다. 그것도 나무로 만든 건데요, 그것도 만들어 놔서, 하나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산태' 한 두 개 세 개는 있어야 됩니다.)

108004 #1 저 겨 계속 흑을 날라야 뒈게, 산태 들르는 사름도 아무나 힘 약한 사름 못 들릅니다, 헤예. 누구누구 산태 영 들러다 돌아. 흑을 들라근엥예 안에다 들러 내민, 안에도 흑을 불르는 사람이 또루 이십니다게. 손으로 뭉쳐 가지고, 그 축 이 벽에다가 불르는 사름이 신디, 불르는 사름이 자기대로 흑을 떠서 불르는게 아니라 옆에 또 흑을 뭉처 주는 사름이 이서야 됩니다.(저 겨 계속 흙을 날라야 되게, 산태 드는 사람도 아무나 힘 약한 사람 못 듭니다, 합니다. 누구누구 '산태' 이렇게 들어다 달라. 흙을 들어서 안에다 들어 내밀면, 안에도 흙을 바르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손으로 뭉쳐 가지고, 그 축 이 벽에다가 바르는 사람이 있는데, 바르는 사람이 자기대로 흑을 떠서 바르는 게 아니라 옆에 또 흙을 뭉쳐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108004 #1 흑을 요만큼석 덩어리 만썩 뭉쳐 가지고 이 옆에 벽 불르는 사름헌티 거 주면은, 그 사름이 받아 가지고 거 벽을 불르고, 것도 흑을 날라 가는 사름은 산태 헷던 사름은 거기서, 또 게, 소주 그때도 어려와도 소주는 이서서양. 술양, 술 그 먹는 사름은 ᄒᆞᆫ잔씩 저 먹으민 또 술ᄇᆞ름에 또 서로 힘자랑 한다고양, 힘자랑 한다고 산태 들를락 헷주게.(흙을 요만큼씩 덩어리 만씩 뭉쳐 가지고 이 옆에 벽 바르는 사람한데 그거 주면, 그 사람이 받아 가지고 그거 벽을 바르고, 그것도 흙을 날라 가는 사람은 '산태' 했던 사람은 거기서, 또 그, 소주 그때도 어려워도 소주는 있었습니다. 술이요, 술 그 먹는 사람은 한잔씩 저 먹으면 또 술김에 또 서로 힘자랑 한다고요, 힘자랑 한다고 '산태' 들기를 했지.)

108004 #1 산태 들를락 헤당은 산태가 막 뿌러지는 수도 이십니다. 거 힘 좋은 사름들 엿날에는 그렇게 먹지 못ᄒᆞ고, 요즘처럼 뭐 고기를 자주 먹엇이카 무슨 고급으로 무슨 뭐 쌀밥을 먹엇이카, 엿날에는 보리밥, 조밥 뭐 모물펌벅, 이런 걸로 먹엉 살안 그래도 힘 잇는 사람은 힘 이섯수다 게. 산태 들를락 헤다근엥예 들러다가 산태들 기자 꺼껑 데껴불곡양. 흑을 경헤영 겅하는 것도 잇는디.('산태' 들기 하다가 '산태'가 막 부러지는 수도 이십니다. 힘 좋은 사름들 옛날에는 그렇게 먹지 못하고, 요즘처럼 뭐 고기를 자주 먹었을까 무슨 고급으로 무슨 쌀밥을 먹었을까,

말하며 '삼태'라고도 한다.

옛날에는 보리밥, 조밥 뭐 메밀범벅, 이런 걸로 먹어 살아 그래도 힘 있는 사람은 힘 있었습니다. '산태' 들기 하다가 '산태' 들어다가 기저 꺾어 던져버리고요. 흙을 그렇게 그리하는 것도 있는데.)

108004 #1 이, 주민 안에서 흑을 불르고, 또 지붕우에서 흑을 불라야 됩니다. 지붕엔 서설엔 헤연에, 그날 다 흑질 날에 서설엔 헤근엥예, 서설헨 헌 건 무신말이냐면은 초가집은 이렇게 헤 가지고 서리렌 헤영, 서리 쭉쭉 들면 그 우에다 또 서설엔 헤여 가지고, 망사추룩 그 대든, 그 나무 깬 거든, 나무 깬 건 서설목이엔 헤여근에 것도 흑질허는 날 거 멧멧 사름이 거 좀 거, 것도 별도로 빕니다.(이걸, 주면 안에서 흙을 바르고, 또 지붕위에서 흙을 발라야 됩니다. 지붕엔 산자라고 해서, 그날 모두 흙질 날에 산자라 해서, 산자라고 한 건 무슨 말이냐면 초가집은 이렇게 해 가지고 서까래해서, 서까래 쭉쭉 들면 그 위에다 또 산자라고 해 가지고, 망사처럼 그 대든, 그 나무 깬 거든, 나무 깬 건 발비라고 해서 그것도 흙질하는 날 그거 몇몇 사람이 그거 좀 그거, 그것도 별도로 빕니다.)

108004 #1 넬랑 오랑 우리 집에 오랑 서설목 깨어줘 게 서설목 깰건 어디 저 하천에 내창에 가근엥예 즌즌헌 낭을 헤당은엥예 둥글둥글 헌 거엔 허면 그걸 깨야 됩니다게. 쭉 허게 그것도 아무나 못합니다.(낼은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발비 깨어줘, 그게 발비 깰 건 어디 저 하천에 내에 가서 자잘한 나무를 해다가 둥글둥글 한 거라고 하면 그걸 깨야 됩니다. 쭉 하게 그것도 아무나 못합니다.)

108004 #1 것도 자귀질을 툭툭 찍을 줄 아는 사름이 그 사름 깨여근엥에 주면은 지붕우에 올리민 지붕에 또 서설 하는 소름이 따로 이수다게. 서설을 기냥 그 망사추룩 헹 그대로 놓는 것이 아이라 그 새끼를 꼬앙 놔도양. 새끼를 여기선 뭐 여기서 제줏말론 노영 헤근엥예, 게, 우에서 서로 야 거 아래서 노 올리라 노 올리라 하민, 요즘 사람들은 노올리라 하민 무슨 말인지 몰라. 거 새끼줄 올리라는 뜻인데 노 올리라 노 올리라 올려주민 거 서설허는 사름들은 그 제각기 자기 만씩 자기 쓸 만큼 헤여근에 이 그 허리에 찹니다.(그것도 자귀질을 툭툭 찍을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 깨서 주면 지붕위에 올리면 지붕에 또 산자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산자를 그냥 그 망사처럼 해서 그대로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새끼를 꼬아 놔둡니다. 새끼를 여기선 뭐 여기서 제주말로 '노'라고 해서, 그게 위에서 서로 야, 그거 아래서 새끼 올려라, 새끼 올려라, 하면, 요즘 사람들은 새끼 올려라, 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 그거 새끼줄 올리라는 뜻인데 새끼 올리라, 새끼 올리라, 올려주면 거 산자하는 사람들은 그 제각기 자기 만씩 자기 쓸 만큼 해서 이 그 허리에 찹니다.)

108004 #1 게영 요만씩 짤라가지고 거 길면은 거 못하니까양. 요만씩 보통 요만씩 헌 길이 일 메타 멧씩 짤라가지고 자기 허리에 찻다가 거 일일이 쭉 삼칸집이민 우에 양 쪽에, 양 쪽에 흔쪽에 흔 대략 흔 십 명, 열 명 정도 아자야 그 서설을 헙니다. 게 게난 우에서 그 나무 깬 거나 대나무나 헤영 주면은 그 딱딱 그 그 새끼줄로 얽어가지고 거 얽으면, 그 우에다 또 고데[224]라고 헤 가지고양. 고데 고데라

224) '고데'는 산자 위에 바르는 흙을 말한다. 표준어 '새우'에 해당하는 말하며, '고디, 고뎃흑, 고톳흑'

고 헹은, 흑을 버무린 걸 또 아래서 밑으로 또 기냥 덩어리차 올립니다.(그래서 요만씩 잘라가지고 그거 길면 그거 못하니까요. 요만씩 보통 요만씩 한 길이 일 미터 몇씩 잘라가지고 자기 허리에 찼다가 그거 일일이 쭉 삼간집이면 위에 양 쪽에, 양 쪽에 한쪽에 한 대략 한 십 명, 열 명 정도 앉아야 그 산자를 합니다. 그게 그러니 위에서 그 나무 깬 거나 대나무나 해서 주면 그 딱딱 그, 그 새끼줄로 얽어가지고 그거 얽으면, 그 위에다 또 '새우'라고 해가지고요. '새우' '새우'라고 해서는, 흙을 버무린 걸 또 아래서 밑으로 또 그냥 덩어리째 올립니다.)

108004 #1 그것도 것도 아무나 안 뭽니다. 것도 힘이 잇어야양. 이 집은 이만큼 안 높으지만은 엿날 초가집은 얕으니깐 거 밑에서 흑을 둥글둥글허게 몰아가지고 이렇게 사가지고 지붕 우트레 올려 줘야 뭽니다예. 거 저 배구하는 식으로양. 요즘 배구하는 식으로 올려지민 거 우에서도 그걸 받아가지고 그 서설 헌 후에 짝 하게 낍니다. 꼴아가지고 거 잘 꼴아근엥예 거 꼴앙만 내부는 게 아니고.(그것도 것도 아무나 안 됩니다. 그것도 힘이 있어야합니다. 이 집은 이만큼 안 높지만 옛날 초가집은 얕으니깐 그 밑에서 흙을 둥글둥글하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서가지고 지붕 위로 올려줘야 됩니다. 그 저 배구하는 식으로요. 요즘 배구하는 식으로 올려 지면 그 위에서도 그걸 받아가지고 그 산자 한 후에 짝 하게 깝니다. 깔아가지고 거 잘 깔아서 거 깔아만 내버리는 게 아니고.)

108004 #1 꼴으민 거 저 펜펜ᄒᆞ게 우에서 알레서 갈레죽 올리라 갈레죽 올리라 요즘 삽양, 그걸 올리민, 그 삽 등얼로 이렇게 착착 나라지십니다[225]. 이렇게 그걸 기냥 흑 거 서설한 후에 흑 터벅터벅[226] 논 걸 걸, 멘짝[227]ᄒᆞ게 우에 선 거, 삽 좀 올리면 삽 등어리를 그자 이렇게 이렇게 문지민 거기서 그 사름들은 경 헤지민 내려와빈, 그거 또 거 또 다 헹 내리민.(깔면 거 저 평평하게 위에서 아래서 가래 올려라, 가래 올려라, 요즘 삽이요, 그걸 올리면, 그 삽 등으로 이렇게 착착 '다집니다'. 이렇게 그걸 그냥 흙 그 산자한 후에 흙 '터벅터벅' 놓은 걸 그걸, '멘짝'하게 위에 선 그거, 삽 좀 올리면 삽 등을 그저 이렇게 이렇게 문지르면 거기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지면 내려와 버리면, 그거 또 거 또 모두 해서 내리면.)

108004 #1 또 거 집 이를 사름이엔 헹 거 집 일 사름이엔 ᄒᆞ민 무슨 말인고, 그 띠 새, 새로 집 덮으는 사름, 것도 아무나 못헤 가지고 밑에서 선정을 헹 보냅니다.(또 그 집 일 사람이라고 해서 그 집 이을 사람이라고 하면 무슨 말인가, 그 띠 새, 새로 집 덮는 사람, 그것도 아무나 못해 가지고 밑에서 선정을 해서 보냅니다.)

108004 @ 음.(음.)

108004 #1 나왕에 홀 만한 사름 아, 거 집 가근에 집 일어줘 집 일어줘 허민 거고데 끗나민, 그 사름은 또 올라가근에 집을 다 덮으고 게헹, 그 띠로 헤근엥에 새

이라고도 한다.

225) '나라짓다'는 ㉠누르거나 밟거나 쳐서 단단하게 하다. ㉡ 기초나 터전 따위를 굳고 튼튼하게 하다의 의미인 표준어 '다지다'의 의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226) '터벅터벅'은 흙이 적당히 물러 굳은 상태를 말한다.

227) '멘짝'은 평평하고 반드러운 모양을 말한다.

로 집을 싹 덮으면, 또 그 아래서 줄 올리라, 헤근에 다 덮으민 줄 올리민, 그 줄로 그냥 줄 멜 때도 양쪽에 그 흑질허는 날은 사는 날은 사람 숫자가 많으니깐 흔쪽 끝에 네 사람씩 네 사람씩 사양.(나와서 할 만한 사람 아, 그 집 가서 집 이어줘, 집 이어줘 하면 거 '새우' 끝나면, 그 사람은 또 올라가서 집을 다 덮고 그렇게 해서, 그 띠로 해서 새로 집을 싹 덮으면, 또 그 아래서 줄 올리라, 해서 다 덮으면 줄 올리면, 그 줄로 그냥 줄 맬 때도 양쪽에 그 흙질하는 날은 서는 날은 사람 숫자가 많으니깐 한쪽 끝에 네 사람씩 네 사람씩 서요.)

108004 @ 아.(아.)

108004 #1 줄이 건 줄 잇고 쫄른 줄 이시니깐 쫄른 줄이렌 헌 건 키, 집 그 동선. 그 집이 기니깐 쫄른 모퉁이에 앞뒤 흔 사름씩 사고 또 건 줄이엔 헤근에 양짝 모서리에 흔 사름씩 사고 네 사름 이상. 거 없일 때는 두 사름도 뒙니다. 두 사름 허젠 허민 일로 갓다, 절로 갓다, 막 돌아가젠 허민 불편헤여양, 게민 네사름이 세우면은 쉬워. 게난 거 서설 헐 때는 사람인원이 많으니깐 네 사름 세워근엥예.(줄이 긴 줄 있고 짧은 줄 있으니까 짧은 줄이라고 한 건 키, 집 그 동선. 그 집이 기니깐 짧은 모퉁이에 앞 뒤 한 사람씩 서고 또 긴 줄이라고 해서 양쪽 모서리에 한 사람씩 서고 네 사람 이상. 거 없을 때는 두 사람도 됩니다. 두 사람 하려고 하면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막 돌아가려고 하면 불편해요, 그러면 네 사람이 세우면 쉬워. 그러니 그 산자 할 때는 사람인원이 많으니깐 네 사람 세워서.)

108004 @ 음.(음.)

108004 #1 줄 멜 사름. 그 그 또 집을 좀 높은 사람은 것도 또 키 작은 사름은 아래서 팡[228]에나 안 아지민 것도 줄 메지도 못흡니다. 줄 메는 건 그 밑에다가 거왕[229]이라고 헤 가지고 이렇게 만들아가지고 거기다 줄을 멩 집을 짓는디에, 그 집 경 헹 거 집을 그렇게 해 가지고, 일면은 그것이 허다보면은 해가 다 깝박 저뭅니다.(줄 맬 사람. 그, 그 또 집을 좀 높은 사람은 그것도 또 키 작은 사람은 아래서 '팡'에나 안 앉으면 그것도 줄 매지도 못합니다. 줄 매는 건 그 밑에다가 '거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줄을 매어 집을 짓는데요, 그 집 그렇게 해서 그 집을 그렇게 해 가지고, 이면 그것이 하다보면 해가 다 깜빡 저뭅니다.)

108004 @ 음.(음.)

108004 #1 그렇게 하다보면 거 머물 때 경헹 그 흑질 날이나 해가 지고, 경헹 그 끗을 맺음에 그다음은 뭐 또 그걸 아무 때나 강 살지도 못허곡 또 거 집이 들어가는 날도 것도 택일헤야 들어강, 거기 살곡. 집을 짓어근엥예 처음 들어갈 때 아무렇게나 거 살림살이를 들어가야 뒈는데 살림살이를 아무나커나 들어가는 것이 것도 순서가 이서양.(그렇게 하다보면 그 머물 때 그렇게 해서 그 흙질 날이나 해가 지고, 그렇게 해서 그 끝을 맺음에 그다음은 뭐 또 그걸 아무 때나 가서 살지도 못하고 또 그 집에 들어가는 날도 그것도 택일해야 들어가, 거기 살고. 집을 지어서 처

228) '팡'은 말을 타고 내리거나 짐을 지고 부리거나 할 적에 대(臺)가 되게끔 놓인 넓적한 큰 돌 따위를 말한다. 여기서는 올라서 설 수 있는 좀 높은 편편하게 자른 통나무정도를 말하는 듯하다.

229) '거왕'은 처마 끝 서까래 아래에 이엉을 누르는 줄을 묶기 위한 장대를 말한다. 멩두암, 벵두암.

음 들어갈 때 아무렇게나 거 살림살이를 들어가야 되는데 살림살이를 아무렇게나 들어가는 것이 그것도 순서가 있어요.)

108004 @ 음.(음.)

108004 #1 제일 먼처 무엇이 들어가냐면 밥헤먹는 솟이 들어가야 데양.(제일 먼저 무엇이 들어가는가 하면 밥해먹는 솥이 들어가야 돼요.)

108004 @ 음.(음.)

108004 #1 솟허곡, 그다음은 뭐 그 곡식을 장만허민 저 저런 정ᄀᆞ레[230] 시민 정ᄀᆞ레. 또 푸는체, 체, 그거 따라가곡, 그다음엔 살림살이 들어가는 거라양. 경헹ᄒᆞ곡. 게, 흑질 허는 날은 그 동네에 상뒤엔 ᄀᆞᆯ읍니다. 상뒤. 그 흑질 상뒤. 뭐 초상나민 영장 상뒤, 동네 그 인부들을 빌엉 허는 거 보고 상뒤라고 허는디, 게, 품삭 주는 대신 음식을 헤영 대접헤여양. 그 흑질허는 날은.(솥하고, 그다음은 뭐 그 곡식을 장만하면 저 저런 '풀맷돌' 있으면 '풀맷돌'. 또 키, 체, 그거 따라가고, 그다음엔 살림살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하고. 그래, 흑질 하는 날은 그 동네에 향도라고 말합니다. 향도. 그 흙질 향도. 뭐 초상나면 영장 향도, 동네 그 인부들을 빌어서 하는 거 보고 향도라고 하는데, 그래, 품삯 주는 대신 음식을 해서 대접해요. 그 흙질하는 날은.)

108004 @ 음.(음.)

108004 #1 뭐 거 여저들은 물을 저동 오라근엥에 물만 체와지민 그 일찍 끗납니다게. ᄒᆞᆫ 오전 중으로 여저들은 끗납니다. 끗나면은 그 여저들은 대접헤영 보내야 뭴 건디 대접을 점심을 헤근엥에 밥을 주면 뭴 거고 보통은 보면은 그때 떡을 헙니다게.(뭐 그 여자들은 물을 져두고 와서 물만 채워지면 그 일찍 끝납니다. 한 오전 중으로 여자들은 끝납니다. 끝나면 그 여자들은 대접해서 보내야 될 건데 대접을 점심을 해서 밥을 주면 될 거고 보통은 보면 그때 떡을 합니다.)

108004 @ 음.(음.)

108004 #1 흑질 헐 거 떡 헐 거엔 헨, 그 집주인이 멧 멩이엔 헹 떡을 허는데, 대게보면 모물로 만든 거라양.(흙질 할 거 떡 할 거라고 해서, 그 집주인이 몇 명이라고 해서 떡을 하는데, 대게 보면 메밀로 만든 겁니다.)

108004 @ 음.(음.)

108004 #1 모물떡을 하는데 모물만디라고 헤 가지고 요즘 만두 식으로 삼각형으로 이렇게 헤동 만들고, 또 그렇지 않으면 조꼼 부유허게 사는 집은 또 시루떡을 만들엉 헤양. 친떡이엔 헹.(메밀떡을 하는데 메밀만두라고 해 가지고 요즘 만두 식으로 삼각형으로 이렇게 해 놓고 만들고, 또 그렇지 않으면 조금 부유하게 사는 집은 또 시루떡을 만들어서 해요. 시루떡이라고 해서.)

108004 @ 음.(음.)

108004 #1 그걸 만들엉 쪼끔씩 주어근엥에 그 여저들은 속앗젠 헹 그냥 그걸로

230) '정ᄀᆞ레'는 조금 얄팍하고 가벼운 돌로 만든 '풀맷돌'을 말하며, '정ᄀᆞ래, 젱ᄀᆞ래, 쟁ᄀᆞ레'로 불리기도 한다.

주어근엥에 돌려보내고.(그걸 만들어 쪼끔씩 주어서 그 여자들은 고생했다고 해서 그냥 그걸로 주어서 돌려보내고.)

108004 #1 또 흑질 헌 사람은 또 별도로 밥을 헙니다게. 밥헤근에 점심멕이고 제일 끗난 다음에 또 흑질 피력이라고 헤여양.(또 흙질 한 사람은 또 별도로 밥을 합니다. 밥해서 점심먹이고 제일 끝난 다음에 또 흙질피력이라고 해요.)

108004 @ 예.(예.)

108004 #1 그 피력[231]이란 말이 그 사람이 돌아가민 영장 때도 피력이엔 헌 말이 이십니다. 피력이렌 헌 건 제일 막그때 돌아갈 때에 그 상주들헌티 대접하는 거라양. 밥이든 뭐 술이든 떡이든양. 보통 헤영 보민 기자 떡 헤근엥예 ᄒᆞ나씩 드리고 저 술 술이엔 헤영 엿날에, 요즘은 뭐 그 마트에 가민 술사지만 엿날엔 술허젠 허민 집이서 술 만들엇수다게. 집이서 술을 만들어근엥예 그 고소리로 그 소주를 만들엉양.(그 피력이란 말이 그 사람이 돌아가면 영장 때도 피력이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피력이라고 한 건 제일 마지막 돌아갈 때에 그 상주들한테 대접하는 겁니다. 밥이든 뭐 술이든 떡이든. 보통 해서 보면 그저 떡 해서 하나씩 드리고 저 술 술이라고 해서 옛날에, 요즘은 뭐 그 마트에 가면 술사지만 옛날엔 술 하려고 하면 집에서 술 만들었습니다. 집에서 술을 만들어서 그 소줏고리로 그 소주를 만들어요.)

108004 @ 예.(예.)

108004 #1 것 ᄀᆞ랑 술 다끄는 거렌 헤. 술 고소리로 술 다깡, 그거 건디 엿날엔 집짓젠허민 미리 거 다 준비를 헙니다 그것도.(그것 보고 술 닦는 거라고 해. 술 소줏고리로 술 닦아, 그거 그런데 옛날엔 집지으려하면 미리 그거 다 준비를 합니다, 그것도.)

108004 @ 예.(예.)

108004 #1 흑질 날 뭐 헤영 먹일 거, 또 거 쪼끔, 거 일 능력 이서근엥예 뭐 ᄒᆞ느넨허민 흑질ᄒᆞ곡, 서설ᄒᆞ곡, 대부분 ᄒᆞᆫ꺼번에 헙니다게, 홈치. 서설 게 어떤 때는 그걸 다 ᄒᆞᆫ뻔에 못헤근엥예 서설 ᄒᆞ는 날 ᄯᅮ루 흑질 ᄒᆞ는 날 ᄯᅮ루 헙니다게.(흙질 날 뭐 해서 먹일 그거, 또 거 조금, 그 일 능력 있어서 뭐 하느냐하면 흙질하고, 산자하고, 대부분 한꺼번에 합니다, 한꺼번에. 산자 그 어떤 때는 그걸 다 한꺼번에 못해서 산자 하는 날 따로 흙질 하는 날 따로 합니다.)

108005 @ 주춧돌은 어, 거민 집을 지을 때 주춧돌은 어떤 거고 언제 그 돌을 놉니까?(주춧돌은 어, 그러면 집을 지을 때 주춧돌은 어떤 것이고 언제 그 돌을 놉니까?)

108005 #1 그 집 세우는 날.(그 집 세우는 날.)

108005 @ 세우는 날예?(그 집 세우는 날이요?.)

108005 #1 예.(예.)

108005 @ 몇 개쯤마씸?(몇 개쯤이요?)

---

231) '피력'은 피력떡을 의미한다. 피력떡은 장지에서 상두꾼들에게 고마움의 뜻으로 나눠주는 떡을 말한다.

108005 #1 예?(예?)

108005 @ 몇 개쯤?(몇 개쯤?)

108005 #1 거 숫자는 셀 수가 없는데 숫자는 하튼 기본적인 주춧돌은 네 개.(거 숫자는 셀 수가 없는데 숫자는 하여튼 기본적인 주춧돌은 네 개.)

108005 @ 네 개예.(네 개요.)

108005 #1 기본적인건 제일 기본적인 건 네 개. 그 다음 뭐 그 다 부위별로 이름이 잇는데 뭐, 뭐 개윗돌[232]이여 뭐 무슨 개위[233]도 뒷 개위, 앞 개위, 허젠하민 것도 주춧돌이 네 개 들어가는 거. 옆이 뭐 양편이 부세엔 한 말인디, 양편이 부셋돌 영, 것도 네 개허민 것도 네 개 들어가는 거, 허다보면은 뭐 한, 주춧돌이 한 스무 개정도 들어갈까, 대략?(기본적인건 제일 기본적인 건 네 개. 그 다음 뭐 그 다 부위별로 이름이 잇는데 뭐 뭐 '개윗돌' 이여 뭐 무슨 '개위'도 뒷개위, 앞개위, 하려고하면 그것도 주춧돌이 네 개 들어가는 것. 옆에 뭐 양편에 봉덕이라고 한 말인데, 양편에 봉덕 돌 이렇게, 그것도 네 개하면 그것도 네 개 들어가는 거, 하다보면 뭐 한, 주춧돌이 한 스무 개정도 들어갈까, 대략?)

108005 @ 기둥은 몇 개 들어감수과?(기둥은 몇 개 들어갑니까?)

108005 #1 에?(예?)

108005 @ 기둥, 기둥은.(기둥, 기둥은.)

108005 #1 기둥두 그.(기둥도 그.)

108005 @ 삼칸집에.(삼간집에.)

108005 #1 에, 기둥두 삼칸집에 기둥은 기본적인 기둥은 네 개.(에, 기둥도 삼간집에 기둥은 기본적인 기둥은 네 개.)

108005 @ 네 개?(네 개?)

108005 #1 네 개.(네 개.)

108005 @ 보는마씨? 보.(보는요? 보.)

108005 #1 포는 두 개, 포라고 하지 포.(보는 두 개, 보라고 하지 보.)

108005 @ 포예, 두 개예?(보예, 두 개요?)

108005 #1 상ᄆᆞ루 ᄒᆞ나.(용마루 하나.)

108005 @ 도리는 도리는마씨?(도리는, 도리는요?)

108005 #1 도리는 앞 도리 뒷 도리 헤 가지고 네 개 도리.(도리는 앞 도리 뒷 도리 해 가지고 네 개 도리.)

108005 @ 서까래가가 서리지예?(서까래가가 서리지요?)

108005 #1 응, 서리 건 서까래.(응, 서리 그건 서까래.)

108005 @ 서리는 아까.(서리는 아까.)

108005 #1 서리는 건, 흔정이 엇수다 그거는.(서리는 그건, 한정이 없습니다. 그거는.)

---

232) '개윗돌'은 툇마루의 안쪽 기둥과 바깥쪽 기둥이 지탱할 수 있게 기초로 받쳐놓는 돌을 말한다.

233) '개위'는 툇마루의 안쪽 기둥과 바깥쪽 기둥과의 사이에 가로 건너지르는 나무를 말하며 '개우'라고도 한다.

108005 @ 흔정이 엇어예?(한정이 없어요?)

108005 #1 그거는 쪼꼼 그 사이를 즛게 흐는 딘 쪼꼼 만히 들고.

108005 @ 예.(예.)

108005 #1 쪼꼼 사이를 넓게 흐는 딘 넓게도. 게난 그 나무를 그 낭을 충분히 준비가 뒈면은.(조금 사이를 넓게 하는 덴 넓게도. 그러니 그 나무를 그 나무를 충분히 준비가 되면.)

108005 @ 음.(음.)

108005 #1 그 즛게 허는 것이 집이 더 돈돈 헙주게예. 그 드물게 허는 것 보단 낭을 많이 준비뒈면 즛게허곡 낭이 좀 넉넉허지 못허게 허면 쪼꼼 사이를 띄엉 좀 드물게양.(그 잦게 하는 것이 집이 더 돈돈 합지요. 그 드물게 히는 것 보단 나무를 많이 준비되면 잦게 하고 나무가 좀 넉넉하지 못하게 하면 조금 사이를 띄어 좀 드물게요.)

108005 @ 예.(예.)

108005 #1 드물게 허면은 좀 그 좀 불안합니다게. 그 서설헐 때고 그레 가근엥예 거 팡팡 흑을 놓고 뭐허멍 보면 더러 그 발도 빠지는 사람 이십니다게. 그거 서리 드물게 헤불민 그사이에 그 그 젊은 사름덜은 술이나 흔 잔 먹고 우에 가근엥예 고데 헤도라, 고데 헤도라, 그 나이든 사름은 지붕우에 올라가면 돌아뎅기지 못헙니다.(드물게 하면 좀 그 좀 불안합니다. 그 '발비'할 때고 그리 가서 그거 팡팡 흙을 놓고 뭐하면서 보면 더러 그 발도 빠지는 사람 있습니다. 그거 서까래 드물게 해버리면 그사이에 그 그 젊은 사람들은 술이나 한 잔 먹고 위에 가서 '새우'해 달라, '새우'해 달라, 그 나이든 사람은 지붕위에 올라가면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108005 #1 젊은 사람들 헹 겅헹 술이나 흔 잔 먹고 헤근엥에 그냥 팡팡 뎅기다 보민 발도 그냥 빠저근엥에 서리 드물게 헌 디양 발도 빠지고 뭐헙니다게. 거 서설헌 거 꺼꺼저근엥에. 허당 보민 멩심허라 멩심허라 헤봐도 그 사름덜은 멩심을 헙니까? 술 흔 잔 먹은 ᄇᆞ름에양 장난 비슷허게 막 허당보민 그 헤영 발도 빠지곡 뭐헌디. 그거 허카부덴 뒐 수 이시민 서리 즛게 만들젠 헙주게.(젊은 사람들 해서 그렇게 해서 술이나 한 잔 먹고 해서 그냥 팡팡 다니다보면 발도 그냥 빠져 서까래 드물게 한 데요 발도 빠지고 뭐합니다. 그 '발비' 그거 꺾어져서. 하다 보민 명심하라, 명심하라 해봐도 그 사람들은 명심을 합니까? 술 한 잔 먹은 바람에요 장난 비슷하게 막 하다보면 그 해서 발도 빠지고 뭐한데. 그거 할까봐 될 수 있으면 서까래 잦게 만들려고 합지요.)

108005 @ 음,(음.)

108005 #1 즛게 허젠 허민 낭이 이서야 뒐 건디 낭이 하다 하다 버치민 그냥 그 서까래, 그 서리는 숫자는 건 흔 못합니다.(잦게 하려고 하면 나무가 있어야 될 건데 나무를 하다, 하다 버치면 그냥 그 서까래, 그 서까래는 숫자는 건 한정 못합니다.)

108006 @ 그다음에는 그 저 흑 발를 때 예 흑 발를 때 뭐 외나 산자 인방이나

반자틀, 이런 것들 사용됴지예? 흑 발를 때 어떤 것들이 사용 뒛수가?(그다음에는 그 저 흙 바를 때에 흙 바를 때 뭐 외나 산자 인방이나 반자틀, 이런 것들 사용되지요? 흙 바를 때 어떤 것들이 사용 됐습니까?

108006 #1 손으로 순전히 손으로 에, 손으로.(손으로 순전히 손으로 에, 손으로.)

108006 @ 그 흑 발를 때 손으로 하는데 그 다른 것들 사용하는 거 엇수과?(그 흙 바를 때 손으로 하는데 그 다른 것들 사용하는 거 없습니까?)

108006 #1 손으로.(손으로.)

108006 @ 반자틀은 뭐꽈?(반자틀은 뭡니까?)

108006 #1 응?(응?)

108006 @ 반자틀, 반자틀.(반자틀, 반자틀.)

108006 #1 반자틀이엔 헌 거 나는 잘 모르겠는데.(반자틀이라고 한 거 나는 잘 모르겠는데.)

108006 @ 인방이엔 헌 말도 안 들어봣수과?(인방이라고 한 말도 안 들어봤습니까?)

108006 #1 응?(응?)

108006 @ 인방.(인방.)

108006 #1 인방, 건 뭐 방향을 말하는 거 같은데.(인방, 건 뭐 방향을 말하는 거 같은데.)

108006 @ 아니, 흑 발를 때.(아니, 흙 바를 때.)

108006 #1 거, 게난 그 집짓는 풍속도 이 요기 허곡, 제주도 산 네 동서남북 다 틀린다니깐 허는 방식들이 이름도 틀리고.(그, 그니까 그 집짓는 풍속도 이 요기 하고, 제주도 산 네 동서남북 다 다르다니깐 하는 방식들이 이름도 다르고.)

108007 @ 맞수다예. 거민 방이, 방을 만들 때 삼칸집 방 만들 때 뭐 방이 두개고 이제 삼방까지 하는 거잖아예? 근데 방에서 큰방, 작은방, 뭐 시렁, 벽장, 궤, 이불상, 아랫목, 윗목, 같은 거 쭉 할 때 그 방을 만들 때 큰방은 어 어디를 정헹 큰방이라고 하고, 그 방에는 시렁은 어떻게 만들고 그걸 좀 골아줍서.(맞습니다. 그러면 방이, 방을 만들 때 삼간집 방 만들 때 뭐 방이 두 개고 이제 대청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에서 큰방, 작은방, 뭐 시렁, 벽장, 궤, 이불상, 아랫목, 윗목, 같은 거 쭉 할 때 그 방을 만들 때 큰방은 어 어디를 정해서 큰방이라고 하고, 그 방에는 벽장은 어떻게 만들고 그걸 좀 말해주세요.)

108007 #1 거, 여깃말로 큰 구들 족은 구들.(그, 여기말로 큰 구들방 작은 구들방.)

108007 @ 맛수다게.(맞습니다.)

108007 #1 큰 구들. 보편은 집이 알레레 돌아아진 집이민 큰 구들은 오른짝을 합니다 보통.(큰 구들방. 보편은 집이 아래로 돌아앉은 집이면 큰 구들방은 오른쪽을 합니다, 보통.)

108007 @ 예.(예.)

108007 #1 족은구들은 웬짝허고.(작은방구들은 왼쪽하고.)

108007 @ 예.(예.)

108007 #1 게, 거 등어리엔 뭐 서쪽이든 동쪽이든 건 집 방향 보멍 정제허곡 정제 맞은편인 고팡허곡 곡간, 고팡.(그, 그거 등엔 뭐 서쪽이든 동쪽이든 그건 집 방향 보며 부엌하고 부엌 맞은편엔 고방하고 곡간, 고방.)

108007 @ 고팡예.(고방이요.)

108007 #1 응. 뭐 경헤근엥예 삼칸집은 게 가운데는 마리, 이렇게 포 두 개 이렇게 세우민 이렇게 갈라 가지고 큰 구들, 족은 구들, 정제, 고팡. 우린 경헤낫수다게, 대부분 보민.(응. 뭐 그렇게 해서 삼간집은 그 가운데는 마루, 이렇게 보 두 개 이렇게 세우면 이렇게 갈라 가지고 큰 구들방, 작은 구들방, 부엌, 고방. 우린 그렇게 했었습니다, 대부분 보면.)

108007 @ 시렁은 어디다 만들엇수과?(벽장은 어디다 만들었습니까?)

108007 #1 응?(응?)

108007 @ 시렁.(벽장.)

108007 #1 시렁은 그 구들 안네.(벽장은 그 구들방 안에.)

108007 @ 구들 안에.(구들방 안에.)

108007 #1 응.(응.)

108007 @ 걸 뭐렌 골앗수과?(그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108007 #1 구들 안네 뚜루. 그 그 나물 이렇게 만들아 가지고 그 그걸 보고 시렁, 아 **, 그 시렁 귀클이엔 허는데, 그 일름이 시렁귀클 헤 가지고 그 돌귀클[234] 이엔 헤가지고 그 맞인 그 돌귀클이엔 헌 건 거 공간이기 때문에 나무 약간 곱으트릉 헌걸 헤야뒈양.(구들방 안에 따로. 그 그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그걸 보고 벽장, 아 **, 그 벽장 귀틀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이 벽장귀틀 해 가지고 그 '돌귀틀'이라고 해가지고 그 맞은 그 '돌귀틀'이라고 한 건 그거 공간이기 때문에 나무 약간 휘어지듯 한 걸해야 됩니다.)

108007 @ 아.(아.)

108007 #1 직선진 걸 허민 우에다가 무게를 젼디지 못헹 알르레 처져 불칸부덴 그 돌귀클이엔 헌건 영 약간 구부르틋 헌 것이 존넨 헹 그거 헹 놔도도 난중에 보민 페와지는 수가 이서양. 우에 그 우에 흑을 막 불라놓곡 그 우에도 그냥 막 지붕무게로 견디는, 딴 거는 거, 이 저 포나 뭐 무신 딴거 부세에 헌 거 ᄀᆞ튼 디는 아래 백선이엔 헤근에양 잘잘한 기둥. 백선 백선이엔 헤근엥에 바투면은 그건 알레레 그처질 염려가 엇는디.(직선진 걸 하면 위에다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아래로 처져 버릴까봐 그 '돌귀틀'이라고 한 건 이렇게 약간 휘어지듯 한 것이 좋다고 해서 그거 해서 놔둬도 나중에 보면 펴지는 수가 있어요. 위에 그 위에 흙을 마구 발라놓고

234) '돌귀클'은 벽장을 만들기 위해서 곧은 나무가 아닌 휘어진 나무로 된 귀틀을 말한다. 이불 등 무거운 짐을 오래 쌓아두면 벽장 바닥의 형태가 아래로 쳐질 걸 염려해서 벽장바닥 위로 휘어지게 귀틀을 만든 듯하다.

그 위에도 그냥 막 지붕 무게로 견디는, 다른 거는 그, 이 저 보나 뭐 무슨 다른 거 '부세'라고 한 거 같은 데는 아래 벽선이라고 해서요 자잘한 기둥. 벽선, 벽선이라고 해서 받치면 그건 아래로 그 처질 염려가 없는데.)

108007 @ 음.(음.)

108007 #1 돌귀클은 아래 바투는 게 도리. 도리도 안네 아래 받는 것이 것도 젤 나중에 젤 단단한 나무로 텍ᄒᆞ고.('돌귀틀'은 아래 받치는 게 도리. 도리도 안에 아래 받는 것이 것도 젤 나중에 젤 단단한 나무로 택하고.)

108007 @ 음.(음.)

108007 #1 게난 그 집짓는 낭 중에 젤 텍허는 나무가 상ᄆᆞ루, 포, 도리우다게.(그러니 그 집짓는 나무 중에 젤 택하는 나무가 용마루, 보, 도리입니다.)

108007 @ 음.(음.)

108007 #1 건 전혀 아래. 것도 사름도 보기가 들으멍 이렇게 보면은 도리는 앞에 잇는 거니깐 보기도 좋곡 허게시리 저 동네 사람들은 영 어디 처음 온 사름들, 그 도리헌 낭만 잘 사각으로 반듯허게 만들앙 헤시민. 아, 집 잘 지섯져.(그건 전혀 아래. 그것도 사람도 보기가, 들으면서 이렇게 보면 도리는 앞에 있는 거니깐 보기도 좋고 하게끔 저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어디 처음 온 사람들, 그 도리 한 나무만 잘 사각으로 반듯하게 만들어서 했으면. 아, 집 잘 지었네.)

108007 @ 아.(아.)

108007 #1 이렇게 평합니다게. 게난 낭이 귀헌 때라놓난양 그추룩 헹 낭을 헤다 사각으로 짝짝 뽑는 낭이 엇엇낫수다게.(이렇게 평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귀한 때라놓으니까요 그처럼 해서 나무를 해다 사각으로 짝짝 뽑는 나무가 없었습니다.)

108007 @ 맞수다예.(맞습니다.)

108007 #1 낭이 귀헤놓닌깐 그자 통나무에다 껍질만 베껴 가지고 그레 기자 걸처근엥에 집짓는디 그 집을 그렇게 낭을 좀 큰 거에다가 딱 사각으로 만들젠 허민 좀 그이 좀 부젯칩이 엿날 말로. 부젯칩이 사람들은 어디 낭을 어디 저 먼 디 강 사다근엥에양 그 예.(나무가 귀해놓으니 그저 통나무에다 껍질만 벗겨 가지고 그리로 그자 집짓는데 그 집을 그렇게 나무를 좀 큰 거에다가 딱 사각으로 만들려고 하면 좀 그이 좀 부잣집이 옛날 말로. 부잣집의 사람들은 어디 나무를 어디 저 먼 데 가서 사다가 그 예.)

108008 @ 널, 마리, 마리 놀 때 그 널이 라든가 부섭은 어디다 설치하고 마리는 어떤 걸 어떵 헷수과?(널, 마루, 마루 놀 때 그 널이라든가 화로 어디다 설치하고 마루는 어떤 걸 어떻게 했습니까?)

108008 #1 마리는 우리 집 경우는 엿날인데 그 사삼사건 전이엔 지금은 사삼사건 전에 거 얘기하는 거우다.(마루는 우리 집 경우는 옛날인데 그 사삼사건 전이라고 지금은 사삼사건 전엣 거 얘기하는 겁니다.)

108008 @ 예.(예.)

108008 #1 허는데 마리는 홈마리엔 헤 가지고양, 마리 널이 요만씩 바끠 아옙니

다. 엿날에 나무가 어려와 가지고.(하는데 마루는 홈마루라고 해 가지고요, 마루 널이 요만씩 밖에 안합니다. 옛날에 나무가 어려워 가지고.)

108008 @ 예.(예.)

108008 #1 그 요즘은 보민 뭐 기자 마루라고 헤 가지고 길쭉길쭉헌 거 놓는 거 헤 가지고, 기자 허는디. 엿날에는 낭이 흑쏠 요만씩 그 마루팡[235] 요만씩 그 홈마루렌 헤근엥예 마리 귀클을 여러 개 놉니다게 그냥. 허젠 허민양, 경헹 혼 마리에 요만씩 헤 가지고 그 사이에다 그 그 목수도양 아주 기술자라 뒈야 뒈양. 그 마리 놓는 것도양.(그 요즘은 보면 뭐 그저 마루라고 해 가지고 길쭉길쭉한 거 놓는 것 해 가지고, 그저 하는데. 옛날에는 나무가 조금 요만씩 그 '마루팡' 요만씩 그 홈마루라고 해서 마루 귀틀을 여러 개 놉니다, 그냥. 하자고 하면요, 그렇게 해서 한 마루에 요만씩 해 가지고 그 사이에다 그, 그 목수도요 아주 기술자라 돼야 돼요. 그 마루 놓는 것도요.)

108008 @ 음.(음.)

108008 #1 거 못질허는 것도 엿날엔 못이 엇엇으니까양.(그 못질하는 것도 옛날엔 못이 없었으니까요.)

108008 @ 음.(음.)

108008 #1 엿날은 서까래엔헌 건 서리가 껴도 못이 엇엇낫수다게. 못 엇이민 서리 헐 때도 올리민, 그 줄로 그냥 그 세로 줄놔근엥 그 줄로 그냥 막 얼거메는 거라양. 거 움직거리지 못하게.(옛날은 서까래라고한 건 서까래가 껴도 못이 없었습니다. 못 없으면 서까래 때도 올리면, 그 줄로 그냥 그 띠로 줄 놓아서 그 줄로 그냥 막 얽어매는 겁니다. 거 움직이지 못하게.)

108008 @ 마리 놀 때도.(마루 놀 때도.)

108008 #1 마리 놀 때도. 거 홈마리엔 헹 그걸 헤 가지고 거 목수가 빌민 거 전부 그 에 그 홈을 눼아 가지고 그 홈에 딱 딱딱 끼게시리 만들 아가지고 그렇게 헤 가지고 마릴 놔낫수다 우리 경우는.(마루 놀 때도. 거 홈마루라고 해서 그걸 해 가지고 그 목수가 빌면 그거 전부 그 에, 그 홈을 내어 가지고 그 홈에 딱 딱딱 끼게끔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룰 놓았었습니다, 우리 경우는.)

108008 @ 부섭[236]은마씨?('화로'는요?)

108008 #1 홈마리라고 헤 가지고 그 목수도 좀 잘하는 사람이라야 뒈고 또 마리뿐 아니라 그 문두 문은 그 문은 쉬웁니다. 문두 낭만 이시면은 만들기는.(홈마루라고 해 가지고 그 목수도 좀 잘하는 사람이라야 되고 또 마루뿐 아니라 그 문도 문은 그 문은 쉽습니다. 문도 나무만 있으면 만들기는.)

108008 @ 부섭, 부섭 마리에 부섭.('화로', '화로' 마루에 '화로'.)

108008 #1 부섭은 것도 돌로 뭰 거우다. 돌로 뒈근엥에 마리 한가운데 부섭을 놓는 것이 아니라양.('화로'은 그것도 돌로 된 겁니다. 돌로 돼서 마루 한가운데 '화

235) '마루팡'은 마루귀틀을 받치는 짧은 기둥을 뜻한다.

236) '부섭'은 '상방'이라는 초가마루 뒤편에 마룻장 밑으로 묻어 고정시키거나 부엌 바닥에 묻어 고정시켜놓고 삭정이나 장작 또는 콩깍지 등으로 불을 때는 '화로'를 말한다.

로’을 놓는 것이 아닙니다.)

108008 @ 예.(예.)

108008 #1 마리, 대게 보면은 알르레 돌아진 집은 그 부섭은 쪼끔 그 북쪽으로 땡겨가지고.(마루, 대게 보면 아래로 돌아앉은 집은 그 ‘화로’는 쪼끔 그 북쪽으로 당겨가지고.)

108008 @ 음.(음.)

108008 #1 그 문이 앞인 문 이신 건 대문이엔 허곡, 뒤로 문이 이서낫수다. 삼방 삼방에 뒤에 이신 건 뒷문이엔 허는디 대게 보면은 우리 집이 건 나도 그때 보니까 그 동네집이엔 보면 부섭은 대게 뒷문쪽으로양.(그 문이 앞에 문 있는 건 대문이라고 하고, 뒤로 문이 있었습니다. 대청 대청에 뒤에 있는 건 뒷문이라고 하는데 대게 보면 우리 집에 건 나도 그때 보니까 그 동네집이엔 보면 ‘화로’는 대게 뒷문쪽으로요.)

108008 @ 음.(음.)

108008 #1 뒷문 가깝게 헤근엥에 거기서 그 돌로 만들엉 그 부섭을 봔엔 것도 목수가 다 헤줍니다. 마리 놓면서.(뒷문 가깝게 해서 거기서 그 돌로 만들어 그 ‘화로’을 봐서 그것도 목수가 다 해줍니다. 마리 놓으면서.)

108008 @ 음.(음.)

108008 #1 헹, 거 겨울철엔 거기서 낭 헤당 놧당, 거기서 그자 불살라근엥예 겨울에 불 쮀고.(해서, 거 겨울철엔 거기서 나무 해다 놓았다가, 거기서 그저 불살라서 겨울에 불 쬐고.)

108008 @ 살라근에 불 쮀고.(살라서 불 쬐고.)

108008 #1 또 그걸 그 부섭에 불을 살르민 그것이 엿날에 그 이용 하는 것이 만아낫수다게.(또 그걸 그 ‘화로’에 불을 사르면 그것이 옛날에 그 이용 하는 것이 많았었습니다.)

108008 @ 음.(음.)

108008 #1 엿날에는 그 겨을에는 햇빗이 잘 안 나근에양 곡식을 헤다가 햇빗에다가 몰리지 못헤면은 골이엔헤근엥에 대나무로 큰 바구니추룩 만들앙 그걸 부섭우에 둘아메는 거라양.(옛날에는 그 겨울에는 햇빛이 잘 안 나서요 곡식을 해다가 햇빛에다 말리지 못하면 엿기름해서 대나무로 큰 바구니처럼 만들어 그걸 ‘화로’ 위에 달아매는 겁니다.)

108008 @ 아.(아.)

108008 #1 게 거기서 조코구리도 놩 몰리우곡, 그 불김으로 그 피 홀 땐 피도 그레 담아놩 몰리고, 거기서 몰랴근엥에 그걸 발로 보병 그걸로 집이서 방에로 쩧가지고 밥을 헹 먹어낫수다게.(그 거기서 조이삭도 넣어 말리고, 그 불김으로 그 피 할 땐 피도 그리 담아 넣어 말리고, 거기서 말려서 그걸 발로 비벼 그걸로 집에서 방아로 찧어가지고 밥을 해서 먹었었습니다.)

108008 @ 음.(음.)

108008 #1 경헹 햇빗데 겨울철 햇빗디 모자라민 게난 그 부섭이엔 헌 건 그런 디서 쓰곡.(그렇게 해서 햇빛에 겨울철 햇빛이 모자라면 그러니 그 '화로'라고 한 건 그런 데서 쓰고.)

108009 @ 고팡은 어디다 지어낫수과?(고방은 어디다 지었었습니까?)

108009 #1 고팡은 큰 구들 뒤에.(고방은 큰 구들 뒤에.)

108009 @ 그 뒤에 정제 맞은 편마씨?(그 뒤에 부엌 맞은 편요?)

108009 #1 에.(예.)

108009 @ 그 고팡에 혹시 어, 안칠성[237]이라든가 뭐.(그 고방에 혹시 어, '안칠성'이라든가 뭐.)

108009 #1 어, 우리 집인 그거 엇엇수다. 에, 그거 잇는 데는 이섯수다. 에, 난 이거 우리 집 경우를 말하는 거우다.(어, 우리 집엔 그거 없었습니다. 에, 그거 있는 데는 있었습니다. 에, 난 이거 우리 집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108009 @ 예, 맞수다. 게난.(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108009 #1 우리 집이 그런 건 엇엇수다.(우리 집에 그런 건 없었습니다.)

108009 @ 다른 데는 이서낫지예?(다른 데는 있었지요?)

108009 #1 예. 다른 데는 나도 그 칠성을 헤 가지고 모신다 헤 가지고 어디 저 밑에 것도 수망리는 멧 집이 안 뒈난 걸로 알고 잇는데양. 것도 이서난 디가 잇수다. 혼 멧 집이.(예. 다른 데는 나도 그 '칠성'을 해 가지고 모신다 해 가지고 어디 저 밑에 그것도 수망리[238]는 몇 집이 안 되니까 그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있었던 데가 있습니다. 한 몇 집이.)

108009 @ 음, 안칠성예?('안칠성'이요?)

108009 #1 예. 그것을.(예. 그것을.)

108009 @ 항이나 창곰[239]은 무슨 말이꽈?(항이나 창곰은 무슨 말입니까?)

108009 #1 응?(응?)

108009 @ 항.'항.'

108009 #1 항.(항.)

108009 @ 항아리?(항아리?)

108009 #1 항아리 항게, 이런 고팡에 곡식을 놓민 항.(항아리 항, 이런 고방에 곡식을 놓으면 항.)

108009 @ 창곰은마씨?('창곰'은요?)

108009 #1 응?(응?)

108009 @ 창곰.('창곰'.)

108009 #1 창고?(창고?)

108009 @ 창곰('창곰'.)

108009 #1 창공?(창공?)

---

237) '안칠성'은 부(富)를 관장하는 신(神)으로 뱀을 말하는데, 고방에 모시는 뱀을 이른다.
238) '수망리'는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를 말한다.
239) '창곰'은 밝게 하려고 바람벽에 뚫어낸 구멍을 말한다.

108009 @ 창곰.(‘창곰’)

108009 #1 창공은 무슨 말인고?(창공은 무슨 말인가?)

108009 @ 창곰.(창곰.)

108009 #1 창곰? 거 뭐 나야 모르는 말이고 항ᄒᆞ곡 망데기[240]. 작은항아리 보고 망데기.(‘창곰’? 거 뭐 나야 모르는 말이고 항하고 ‘망데기’. 작은 항아리 보고 ‘망데기’.)

108009 @ 그지예(그지요?)

108009 #1 그것에 곡식 놓곡 쏠, 쏠 쏠도 조금 희귀ᄒᆞᆫ 쏠은 망데기에 놓곡.(그것에 곡식 놓고 쌀, 쌀 쌀도 조금 희귀한 쌀은 ‘망데기’에 놓곡.)

108009 @ 예.(예.)

108009 #1 뭐 보리쌀 좁쌀 좀 양이 많은 쏠은 항에 놓고.(뭐 보리쌀 좁쌀 좀 양이 많은 쌀은 항에 놓고.)

108009 @ 예.(예.)

108009 #1 그렇게.

108009 @ 음.(음.)

108009 #1 우리 집이 경우. 창곰이 아니고 창꿈[241]을 말허는 거 아인가?(우리 집의 경우. ‘창곰’이 아니고 ‘창꿈’을 말하는 거 아닌가?)

108009 #1 창꿈이엔 헌 건 여기서 무슨 말이엔 허면 그 고팡 그 옆이 공기 통허렌 문 뚤버 논 거. 구멍 뚤러 논 거. 그거 창꿈이엔 허는데.(‘창꿈’이라고 한 건 여기서 무슨 말이냐 하면 그 ‘고방’ 그 옆에 공기 통하라고 문 뚫어 논 거. 구멍 뚫어 논 거. 그거 ‘창꿈’이라고 하는데.)

108009 @ 창꿈이엔 헷수과?(‘창꿈’이엔 했습니까?)

108009 #1 에. 창꿈.(예, 창곰.)

108009 @ 아, 고팡에 문 뚤려 논 거 예?(아, ‘고방’에 문 뚫어 놓은 거요?)

108009 #1 응, 공기 통허라고.(응, 공기 통하라고.)

108009 @ 음.(음.)

108009 #1 여기선 창꿈이엔 허주게. 게 그 거기도 그 자그만하게 문 멘들아근에 더껏당올앗당 허는디 글로 이져불지 안헤그넹에 밤에 쯤 안 더끄민 글로 고넹이가 들어오라근엥에 믄 곡식을 먹어부러양. 쥐 ᄀᆞ뜬 것도.(여기선 ‘창꿈’이엔 하지. 게 그 거기도 그 자그만하게 문 만들어 닫았다열었다 하는데 거기로 잊어버리지 안 해서 밤에 쯤 안 닫으면 거기로 고양이가 들어와서 모두 곡식을 먹어버려요. 쥐 같은 것도.)

108010 @ 그다음에 부엌은 여긴 뭐렌 ᄀᆞᆯ앗수과? 정제렌 헷지예?(그다음에 부엌은 여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정제’라고 했지요?)

108010 #1 정제, 정지 정지.(부엌, 부엌 부엌.)

---

240) ‘망데기’는 중두리 정도 크기의 중배가 부르지 않은 옹기를 말하는데 ‘망다기’라고도 한다.

241) ‘창꿈’은 ‘창곰’의 달리 발음한 듯하다.

108010 @ 정지예?(부엌이요?)

108010 #1 응.(응.)

108010 @ 정지에는 어떤 것들이 이섯수과?(부엌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108010 #1 솟.(솥.)

108010 @ 솟 잇고.(솥 있고.)

108010 #1 물항.(물 항아리.)

108010 @ 물항 잇고.(물 항아리 있고.)

108010 #1 정ᄀᆞ레[242].('맷돌')

108010 @ 정ᄀᆞ레, 아, 정ᄀᆞ레를 정지에.('맷돌', 아, '맷돌'를 부엌에.)

108010 #1 응. 정ᄀᆞ레도 정제에 놧다근엥에 그레 간단 저거니깐 그냥 그 저끗듸.(응. '맷돌'도 부엌에 놓았다가 그리 간단 저거니깐 그냥 그 곁에.)

108010 @ 정ᄀᆞ레, 그다음 살레[243] 같은 건.('맷돌', 그다음 '살레' 같은 건.)

108010 #1 살레.('살레'.)

108010 @ 살레 잇지예?('살레' 있지요?)

108010 #1 응. 살레엔 헹 뭐 그릇 잇는 거고.(응. '살레'라고 해서 뭐 그릇 있는 것이고.)

108010 @ 그다음엔 그 부엌에 간단하게시리 차라든가 뭐 마실 수 잇게 또 다른 뭐 작은 방 같은 거라든가 뭐 엇엇낫수과?(그다음엔 그 부엌에 간단하게 차라든가 뭐 마실 수 있게 또 다른 뭐 작은 방 같은 거라든가 뭐 없었습니까?)

108010 #1 에, 그건 엇고 우리 집 경우는 그 물 물항, 그거 뭐 정ᄀᆞ레, 살레, 그거 놓고 뭐 그 정도로주.(예, 그건 없고 우리 집 경우는 그 물 물 항아리, 그거 뭐 '맷돌', '살레', 그거 놓고 뭐 그 정도지.)

108010 @ 그 정제에서 보면 약간 높게 헤 가지고 이렇게 평상처럼 마루가 영뒈낫인디 그런 건 엇엇낫수과?(그 부엌에서 보면 약간 높게 해 가지고 이렇게 평상처럼 마루가 이렇게 됐었는데 그런 건 없었습니까?)

108010 #1 어, 그건 우린. 그런 집이도 잇고.(어, 그건 우린. 그런 집도 있고.)

108010 @ 아니, 어릴 때 기억이 나근에.(아니, 어릴 때 기억이 나서.)

108010 #1 에, 동네에도 그런 집이 그 정제 안네 이렇게 반짝 갈라근엥에 마리에 놔근엥에 그런 집이도 이서낫수다 좀.(예, 동네에도 그런 집이 그 부엌 안에 이렇게 반쪽 갈라서 마루에 놔서 그런 집도 있었습니다, 좀.)

108010 @ 저가 어릴 때 그 기억이 나 가지고예.(제가 어릴 때 그 기억이 나 가지고요.)

108010 @ 그러면 그다음에는예 문설주 잇잖아예? 문설주.(그러면 그다음에요 문설주 있잖아요? 문설주.)

108011 #1 문설주?(문설주?)

---

242) '정ᄀᆞ레'는 조금 얄팍하고 가벼운 돌로 만든 풀맷돌을 말하는데, '정ᄀᆞ래, 젱ᄀᆞ래, 쟁ᄀᆞ레'라고도 한다.

243) '살레'는 찬장 모양으로 간략히 짜서 부엌 안에 세워 놓고 식기 따위를 넣는 물건.

108011 @ 예. 그니까 어 문지방 잇잖아예 지방.(예. 그러니까 어 문지방 있잖아요, 지방.)

108011 #1 응, 문지팡.(응, 문지방.)

108011 @ 지방, 지팡.(지방, 지방.)

108011 #1 여기는 지팡이엔 허는데.(여기는 지방이라고 하는데.)

108011 @ 지팡이엔 하잖아예? 그 문 지팡에 대헤 가지고 문지팡은 뭘로 만들고.(지팡이라고 하잖아요? 그 문지방에 대해 가지고 문지방은 무엇으로 만들고.)

108011 #1 문지팡이야 나무지 뭐.(문지방이야 나무지 뭐.)

108011 @ 나무로 만들엇지예?(나무로 만들었지요?)

108011 # 에, 낭.(예, 나무.)

108011 @ 그 문지팡과 지팡 사이에는 뭐가 이서낫수과? 문지팡 밑에 들어가는 거기엔 또 뭐렌 골아낫수과?(그 문지방과 지방 사이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문지방 밑에 들어가는 거기엔 또 뭐라고 말했었습니까?)

108011 #1 문지팡 안네는 마루.(문지방 안에는 마루.)

108011 @ 예.(예.)

108011 #1 그 마루 벳긔뒨 거 거 퉷난간.(그 마루 밖에는 그거 그 툇마루.)

108011 @ 예.(예.)

108011 #1 앞에, 지팡 앞에는.(앞에, 지방 앞에는.)

108011 @ 예, 예예.(예, 예예.)

108011 #1 퉷난간 퉷마루.(툇마루, 툇마루.)

108011 @ 퉷마루예.(툇마루요?)

108011 #1 응, 게게 여긴 난간이오. 난간.(응, 그래 그 여긴 난간이오. 난간 여기는.)

108011 @ 혹시 막 돌쩌귀라든가, 돌쩌귀라든가 문얼굴이라든가 이런 말 안 들어낫수과?(혹시 막 돌쩌귀라든가, 돌쩌귀라든가 문얼굴이라든가 이런 말 안 들었었습니까?)

108011 #1 거 난간 앞에는 잇돌.(거 난간 앞에는 디딤돌.)

108011 @ 잇돌예?(디딤돌이요?)

108011 #1 응, 잇돌 여기서 잇돌.(응, 디딤돌 여기서 '잇돌'.)

108011 @ 잇돌이엔 헷구나예?('잇돌'이라고 했군요?)

108011 #1 돌 헤다 쭉 ᄁᆞ는 거 잇돌.(돌 가져다 쭉 까는 거 디딤돌.)

108011 @ 잇돌예.(디딤돌이요.)

108011 #1 그 우에 마당에 앗당 올라가지민 잇돌 붋앙 그다음엔 그 난간 붋아 근엥에 문지팡 넘어에 마루에 들어가는 거.(그 위에 마당에 가져다가 올라가지면 디딤돌 밟아서 그다음엔 그 난간 밟아서 문지방 넘어 마루에 들어가는 거.)

108011 @ 기지에? 그다음에는 그 문도 이제 그 옛날에는 나무로 이렇게 싹 영 으랑 영 닫아지는 문 이섯잖아예? 들어갈 때 무시거렌 골앗수과?(그렇지요? 그다음

에는 그 문도 이제 그 옛날에는 나무로 이렇게 싹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닫는 문 있었잖아요? 들어갈 때 무뭐라고 말했습니까?)

108011 #1 것도 그걸 보고 대문이엔.(그것도 그걸 보고 대문이라고.)

108011 @ 대문이렌 골앗지예?(대문이라고 말했지요?)

108011 #1 응. 엿날에 보통 보민 대문 대문 허면은 그 마루 앞에 ᄃᆞ는 게 대문이엔 허고.(응. 옛날에 보통 보면 대문, 대문하면 그 마루 앞에 다는 게 대문이라고 하고.)

108011 @ 그 문 안에 잇는 문은 뭐렌 골앗수과?(그 문 안에 있는 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108011 #1 안네는 문이 무슨 문이 이서. 안네 놓는 방문. 방문은 지게문엔 허고.(안에는 문이 무슨 문이 있어. 안에 놓는 방문. 방문은 지게문이라고 하고.)

108011 @ 예, 지게문예.(예, 지게문.)

108011 #1 예. 지게문. 지게문도 방이 마루쪽으로 문이 잇곡 바깥쪽으로 문 잇는디 안지게문 밧지게문[244].(예. 지게문. 지게문도 방이 마루 쪽으로 문이 있고 바깥쪽으로 문 있는데 안지게문 '밧지게문'.)

108011 @ 밧지게문예?('밧지게문'이요?)

108011 #1 응. 이 바깥쪽으로는 밧지게문 안쪽 마루쪽으로 잇는건 마루쪽으로도 방이 들어가야 뒈니까 게난 방은 요즘식으로 기자 마루쪽으로 문 바깥쪽으로 지게문, 안지게문 밧지게문 헤서.(응. 이 바깥쪽으로는 '밧지게문' 안쪽 마루쪽으로 있는 건 마루 쪽으로도 방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 방은 요즘 식으로 그저 마루 쪽으로 문 바깥쪽으로 지게문, 안지게문 '밧지게문' 해서.)

108011 @ 상기둥은 뭐꽈? 상기둥.(상기둥은 뭡니까? 상기둥.)

108011 #1 응?(응?)

108011 @ 상기둥.(상기둥.)

108011 #1 상기둥?(상기둥?)

108011 @ 예.(예.)

108011 #1 상기둥은 뭐 무슨 말인고? 거 나 모르는 말인디.(상기둥은 뭐 무슨 말이지? 그거 내가 모르는 말인데.)

108011 @ 기둥 중에서 그 마루 안에 잇는 마루에 놓는 기둥들 이섯잖아예?(기둥 중에서 그 마루 안에 있는 마루에 놓는 기둥들 있었잖아요?)

108011 #1 마리에 무슨 기둥이 서?(마루에 무슨 기둥이 있어?)

108011 #1 이렇게 가로 뒌 건 도리고, 기둥이엔 헌 건 거 폿귀, 거 상기둥에 폿귀둥을 말하는 거 가뜬데.(이렇게 가로 된 건 도리고, 기둥이라고 한 건 거 폿귀, 그 상기둥이 보 귀둥을 말하는 거 같은데.)

108011 @ 폿 기둥마씨?(보 기둥이요?)

108011 #1 예.(예.)

---

244) '밧지게문'은 툇마루에서 방으로 들어가는 문을 말한다.

108011 @ 폿 기둥은 뭐꽈?(보기둥은 뭡니까?)
108011 #1 포게, 포 받쳐주는 거 기둥게.(보, 보 받쳐주는 거 기둥.)
108011 @ 포, 아, 포 받쳐주는 거마씨?(보, 아, 보 받쳐주는 거요?)
108011 #1 응.(응.)
108011 @ 건 폿 기둥예?(그건 보 기둥이요.)
108011 #1 폿 기둥.(보 기둥.)
108012 @ 그다음엔예 어, 창문 중에도 이런 요런 문은 뭐렌 골앗수과? 이 문 이거 창, 창으로 뒌 문, 창오지 발른 문.(그다음은요 어, 창문 중에도 이런 요런 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문 이거 창, 창으로 된 문, 창호지 바른 문.)
108012 #1 아, 건 그대로 창문.(아, 그건 그대로 창문.)
108012 @ 그냥 창문이엔 골앗수과?(그냥 창문이라고 말했습니까?)
108012 #1 창문.(창문.)
108012 @ 그 뙤창문은 그럼 뭐꽈?(그 뙤창문은 그럼 뭡니까?)
108012 #1 그건 모르겟는데.(그건 모르겠는데.)
108012 @ 모루쿠과? 창문예? 옛날엔 창문 바를 땐 뭘로 발랏수과?(모르겠습니까? 창문이요? 옛날엔 창문 바를 땐 뭐로 발랐습니까?)
108012 #1 거, 가시리풀 창오지.(거, 풀가사리 풀 창호지.)
108012 @ 창오지?(창호지?)
108012 #1 응.(응.)
108012 @ 창오지 엇일 때, 창오지 엇일 땐마씨?(창호지 없을 때, 창호지 없을 때는요?)
108012 #1 창오지 엇일 때는 그 문은, 기역은 우린 창오지로만 발라난 거 닮은디.(창호지 없을 때는 그 문은, 기역은 우린 창호지로만 발라난 거 같은데.)
108012 @ 초집 살 때도 창오지만 발라낫수과?(초가집 살 때도 창호지만 발랐었습니까?)
108012 #1 어. 창오지는 어떻게 구허냐면 엿날엔 거 어디 강 사오는 수도 잇곡, 엿날 보민 거 도비상이라고 헤 가지고 도부상, 요즘 말로. 그 사람들이 그때는 갖고 다니더라고. 그 사람 언제 메칠 날 온다허민 그 사람안티 그거 사근엥에 그 가시리 풀로 헤근엥에 물 블라낭 거.(어. 창호지는 어떻게 구하냐면 옛날엔 거 어디 강 사오는 수도 있고, 옛날 보면 그 도붓장수라고 해 가지고 도붓장수, 요즘 말로. 그 사람들이 그때는 갖고 다니더라고. 그 사람 언제 며칠에 온다하면 그 사람 한데 그거 사서 그 풀가사리 풀로 해서 물 발랐던 거.)
108013 @ 그다음에 사람들이 뭐 이숫과, 할 때, 누게라 하멍 문 열기도 하지만, 그냥 저 쪼그마한 창문 만들어 가지고, 영 저 사람 볼 때 하는 작은 창을 뭐렌 골앗수과?(그다음에 사람들이 뭐 있습니까, 할 때, 누구야 하면서 문 열기도 하지만, 그냥 저 쪼그마한 창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저 사람 볼 때 하는 작은 창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108013 #1 그것이 뭐엔 헤난고? 우린 우리 집인 그런 거 엇엇으니깐.(그것이 뭐라고 했었는고? 우린 우리 집엔 그런 거 없었으니까.)

108013 @ 엇엇지예?(없었지요?)

108013 #1 응. 근데 우리 집인 보통 손님 오민, 기자 저 바깟딜로 오랑 이숫꽈, 허민 그자 보통 마리에 아잣당 대문, 대문이엔 헹 문 올앙 영 보고, 저 구들에 앉아실 땐 구들에 저 반문 올아근엥에 보통은 구들 문 연 거, 반문 반문 허는디 밧지게문 그거 올앙.(응. 근데 우리 집엔 보통 손님 오면, 저 밖으로 와서 있습니까, 하면 그저 보통 마루에 앉았다가 대문, 대문이라고 해서 문 열어 이렇게 보고, 저 구들방에 앉았을 땐 구들방에 저 밧문 열어서 보통은 구들방 문 연 거, 밧문, 밧문 하는데 '밧지게문' 그거 열어서.)

108013 @ 마루에서 여는 문을 반문이렌 헙니까?(툇마루에서 여는 문을 밧문이라고 합니까?)

108013 #1 응.(응.)

108013 @ 요런데 방에 잇다가 요만큼 쪼고만 하게시리.(요런데 방에 있다가 요만큼 쪼고만 하게끔.)

108013 #1 어, 어. 우린 그런 거 엇어.(어, 어. 우린 그런 거 없어.)

108013 @ 엇엇수과?(없었습니까?)

108013 #1 응.(응.)

108013 @ 호령창이라고 엇엇수과?(호령창이라고 없었습니까?)

108013 #1 예. 건 모른 거지. 저 아마 서쪽뜰에야 아마 이섯일 거야.(예. 건 모른 거지. 저 아마 서쪽들에야 아마 있었을 거야.)

108013 @ 그게 서귀포 지역에 이섯다고 헤예.(그게 서귀포 지역에 있었다고 해요.)

108013 #1 에, 거 집짓는 엿날도 집짓는 방식이 다 지방마다 틀리니까.(예, 그 집짓는 옛날도 집짓는 방식이 다 지방마다 다르니까.)

108014 @ 굴묵[245]은?(굴묵은?)

108014 #1 굴묵은 이섯주.(굴묵은 있었지.)

108014 @ 굴묵은 어느 방에다 헤낫수과?('굴묵'은 어느 방에다 했었습니까?)

108014 #1 굴묵은 큰 구들 족은 구들 다.('굴묵'은 큰 방구들 작은 방구들 다.)

108014 @ 다 헤낫수과?(다 했었습니까?)

108014 #1 다.(다.)

108014 @ 게, 정제에서 불 솜을 때는 그 불은 어디로 들어간마씨?(그러니, 부엌에서 불 땔 때는 그 불은 어디로 들어갔나요?)

108014 #1 앞으루. 이 정제에서 그 밥 헤먹을 때?

108014 @ 예.(예.)

108014 #1 밥 헤먹을 때, 요 이.(밥 헤먹을 때, 요 이.)

245) '굴묵'은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 및 그 아궁이 바깥 부분을 말한다.

108014 @ 방안으로 불이 따듯하게 안 들어왓수과?(방안으로 불이 따듯하게 안 들어왔습니까?)

108014 #1 벽 쪽, 아무 벽 쪽 아무 쪽이나 벽 쪽으로 솟을 영 아찌면[246]은 거기서 그냥 거기서.(벽 쪽, 아무 벽 쪽 아무 쪽이나 벽 쪽으로 솥을 이렇게 걸어놓으면 거기서 그냥 거기서.)

108014 @ 게난 그 솟 앉히면.(그러니까 그 솥 걸어놓으면.)

108014 #1 솟 알로 기자.(솥 아래로 그저.)

108014 @ 그 불들이 이렇게 방안에 들어가서 방 따듯하게 헤주는 거 엇어마씨?(그 불들이 이렇게 방안에 들어가서 방 따듯하게 해주는 거 없었나요?)

108014 #1 아니, 그런 게 아니라.(아니, 그런 게 아니라.)

108014 @ 아, 방은 다 굴묵으로.(아, 방은 다 '굴묵'으로.)

108014 #1 응. 방은 다 굴묵으로 떼고, 정제엔 밥 ᄒᆞ는 거 ᄯᅮ루, 솟을 솟굽으로 솟 아찐덴 허는디.(응. 방은 다 '굴묵'으로 때고, 부엌엔 밥 하는 거 따로, 솥을 솥바닥으로 솥 걸어놓는다고 하는데.)

108014 @ 예.(예.)

108014 #1 솟강알[247]에, 거기서 기냥 검질로 검질로도 허고 나무로도 떼고 굴묵은 방 따듯하게 굴묵 별도로.(솥 아래에, 거기서 그냥 잡풀로 잡풀로도 하고 나무로도 때고 '굴묵'은 방 따듯하게 '굴묵' 별도로.)

108015 @ 풍채?(풍채?)

108015 #1 풍채.(풍채.)

108015 @ 풍채꽈 품채꽈?(풍챕니까 품챕니까?)

108015 #1 풍채, 여기서는.(풍채, 여기서는.)

108015 @ 풍채예?(풍채요?)

108015 #1 응. 풍채는.(응. 풍채는.)

108015 @ 예.(예.)

108015 #1 그 초가집 앞이.(그 초가집 앞에.)

108015 @ 예.(예.)

108015 #1 이렇게 걸게시리 헤근에.(이렇게 걸게끔 해서.)

108015 @ 예.(예.)

108015 #1 이거 ᄯᅮ루 만들아.(이걸 따로 만들어.)

108015 @ 예.(예.)

108015 #1 ᄯᅮ루 만들아근엥에 그 비올 때는.(따로 만들어서 그 비올 때는.)

108015 @ 예.(예.)

108015 #1 그 양쪽에 저 기둥 닮은 거, 여긴 작데기엔 허는디양.(그 양쪽에 저 기둥 닮은 거, 여긴 작대기라고 하는데요.)

---

246) '아찌다'는 표준어 '앉히다'를 뜻하지만, 여기서는 '걸어놓다'에 대응하는 말이다.
247) '솟강알'은 걸어놓은 솥의 아래를 말한다.

108015 @ 예.(예.)

108015 #1 요롱게 뭰 거 작데길 받앗다근엥에 비올 때는, 그걸 작데기를 땡여부는거라양. 비바람 불 때는 거 그냥 거 옛날은 거 이렇게 밧지게문헌티, 거 품 무는 거 그 종이로 창오지로 불라난양. 비 들어불민 문 젖으카부덴. 또 마리들에 비 들이카부덴, 비오라가면 그 풍채 받았던 작데기가 싹 내려 와붑니다. 내리면 그것이 이렇게 헤 가지고 집 앞 그 구들 앞이영 상방 앞이영 막아지는 거라양. 막아지민 걸로 저 비 비가림도 뒈고 또 보름도 막아지고, 경 허다근엥에 날 존날은 그걸 또 싹 ᄒᆞ게 양쪽으로 풍채 짝데기에 헤근엥에 받아주곡.(요렇게 된 거 작대길 받쳤다가 비올 때는, 그걸 작대기를 당겨버리는 겁니다. 비바람 불 때는 그거 그냥 그 옛날은 그거 이렇게 '밧지게문'한테, 그거 품 무는 그거, 그 종이로 창호지로 발라났어요. 비 들어버리면 문 젖을까봐. 또 마루에 비 들이그을까봐, 비와가면 그 풍채 받았던 작대기가 싹 내려 와버립니다. 내리면 그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집 앞 그 구들방 앞이랑 상방 앞이랑 막아지는 겁니다. 막아지면 그걸로 저 비 비 가림도 되고 또 바람도 막아지고, 그렇게 하다가 날 좋은날은 그걸 또 싹 하게 양쪽으로 풍채 작대기에 해서 받쳐주고.)

108016 @ 음, 물팡[248]은 무시거꽈?(음, '물팡'은 뭡니까?)

108016 #1 물팡은 옛날엔 거 허벅 헤다근엥에 물 질어 오며는 그 부엌 바깥에 부엌드레 출입허는 앞에 거 물 져당 영 허게 거기 놓는 거.('물팡'은 옛날엔 그거 허벅 해다가 물 길어 오면 그 부엌 바깥에 부엌으로 출입하는 앞에 그 물 져다가 이렇게 하게 거기 놓는 거.)

108016 @ 예.(예.)

108016 #1 거게 놓고 거기 또 그것이 지금 말하며는 물팡이 물 그자 물허벅[249] 놓는 디.(거기 놓고 거기 또 그것이 지금 말하면 '물팡'이 물 그저 물허벅 놓는 데.)

108016 @ 건 뭘로 만드는 거마씨? 물팡은.(그건 뭐로 만드는 건가요? '물팡'은.)

108016 #1 돌로, 돌로.(돌로, 돌로.)

108016 @ 돌로?(돌로?)

108016 #1 돌로, 돌로. 것도 순전히 돌로 이렇게 밑에 받곡, 우에다 돌 또 큰거 헤다근엥에 거 물허벅, 게난 물팡이엔 헌 건 물허벅 놓는 디.(돌로, 돌로. 것도 순전히 돌로 이렇게 밑에 받치고, 위에다 돌 또 큰 거 해다가 그 물허벅, 그러니까 '물팡'이라고 한 건 물허벅 놓는 데.)

108016 @ 예, 물구덕[250]이나 물허벅 놓는디예?(예, '물구덕'이나 물허벅 놓는데요?)

108016 #1 응, 물구덕 거 물허벅은 항상 물구덕에 그냥 놓앙 이시난에. 놓아근엥에 베도 아예 딱 그냥 물구덕에 헹 걸려놓고 헤영 기자 물 지레뎅기다근엥, 물지엉 오랑 안네 강 물항에 이렇게 물허벅 진 채로양. 지금 그 모양이 점, 제주시 그

248) '물팡'은 물을 길어 나르는 동이를 올려놓아 두는 대(臺)를 말한다.
249) '물허벅'물을 긷는데 쓰는 허벅을 말하는데, 늘 '물구덕' 안에 놓여 있다.
250) '물구덕'은 물동이를 넣고 지어 다니게 된 대로 만든 조금 큰 바구니를 나타내는 제주어이다.

박물관에 들어간 때문 그 물항에 비아동 바깟띄레 나오라근엥에 그 물팡에 강, 그냥 구덕 차 그냥 놓앙 내부는 거라양. 놓아 내빗당 물 질러 갈 때 또 그냥 거기서 정 나가고.(응, '물구덕' 그거 물허벅은 항상 '물구덕'에 그냥 넣어져 있으니까. 넣어서 참바도 아예 딱 그냥 '물구덕'에 해서 걸려놓고 해서 그저 물 길러 다니다가, 물져 와서 안에 가서 물독에 이렇게 물허벅 진 채로요. 지금 그 모양이 참, 제주시 그 박물관에 들어간 때문 그 물독에 부어두고 바깥으로 나와서 그 '물팡'에 가서, 그냥 '구덕' 채 그냥 놓아 내버리는 겁니다. 놓아 내버렸다가 물 길러 갈 때 또 그냥 거기서 져 나가고.)

108016 @ 여기는, 집이 여기잖아예?(여기는, 집이 여기잖아요?)

108016 #1 예. 바로여기.(예. 바로여기.)

108017 @ 여기가 길인데 어 그 바로 여기서 헤버리면 길에서 바로 들어오기 좋은데 이렇게 좀 길게 올레를 만들엇잖아예?(여기가 길인데 어 그 바로 여기서 해버리면 길에서 바로 들어오기 좋은데 이렇게 좀 길게 올레를 만들었잖아요?)

108017 #1 것도 아무렇게나 안 뒈여. 방향이 이서야 뒈.(것도 아무렇게나 안 돼. 방향이 있어야 돼..)

108017 @ 거난, 무사 경헷수과? 방향은 웨 어떵헹 잡안마씨?(그러니, 무사 그렇게 했습니까? 방향은 왜 어떻게 해 잡았나요?)

108017 #1 응?(응?)

108017 @ 올레, 올레 잡을 때 아무렇게나 안헹, 방향은 웨 방향은 잡앗고, 웨 올레를 만들엇수과? 바로 길가 집인데도.(올레, 올레 잡을 때 아무렇게나 안 해, 방향은 왜 방향은 잡았고, 왜 올레를 만들었습니까? 바로 길가 집인데도.)

108017 #1 거 엿날 풍수지리에선 그 집이 무슨 짝이냐면, 그 집 방향에 따라근엥에 그 올레 방향도 틀린답니다. 게난, 올레를 아무 방향에나 네질 못헤양.(그게 옛날 풍수지리에선 그 집이 무슨 쪽이냐면, 그 집 방향에 따라서 그 올레 방향도 틀린답니다. 그러니, 올레를 아무 방향에나 내질 못해요.)

108017 @ 예.(예.)

108017 #1 에, 그 우리는 여기 이 방향으로 집으로, 바로 올레를 정헷는데, 게, 가깝게 일로라도 홀 수 잇고, 조금 방향이 그렇게 뒈 가지고 그레.(에, 그 우리는 여기 이 방향으로 집으로, 바로 올레를 정했는데, 그, 가깝게 이리로라도 할 수 있고, 조금 방향이 그렇게 돼 가지고 그리.)

108017 @ 그 이유가마씨? 골목을 만든 이유가 올레를 만든 이유가.(그 이유가요? 골목을 만든 이유가, 올레를 만든 이유가.)

108017 #1 올레를 만든 이유가 거 출입구니깐, 사람을 다니기 위헤서 만든 이유는.(올레를 만든 이유가 그게 출입구니깐, 사람을 다니기 위해서 만든 이유는.)

108017 @ 게난, 사람 다니는데 무사 이렇게 길 가까운데 안헤근엥 이렇게 돌게 헷수과?(그러니까, 사람 다니는데 왜 이렇게 길 가까운데 안 해서 이렇게 돌게 했습니까?)

108017 #1 아, 거니까 그 방향 때문에, 그 사람 명운에 따랑 집 방향 때문에, 이 사람은 어느 이 집은 어느 아무 일로 올레 헤야 뭰다.(아, 그러니까 그 방향 때문에, 그 사람 명운에 따라 집 방향 때문에, 이 사람은 어느 이 집은 어느 아무 이리로 올레 해야 된다.)

108017 @ 아.(아.)

108017 #1 경헌 따문에 길이 올레가 좀 밀 비틀아질 수도 잇고 저 멀 수도 잇고.(그랬기 때문에 길이 올레가 좀 밀 비틀어질 수도 있고 저 멀 수도 있고.)

108017 @ 아.(아.)

108017 #1 올레도 거 마음대로 뒈는 거, 엿날에는 거 그 집 방향하고 그 사람 운에 따라 가지고 올레 방향을 메기는 거. 이 집은 아무 편으로 올레를 허라, 헤그넹에.(올레도 거 마음대로 되는 거, 옛날에는 그거 그 집 방향하고 그 사람 운에 따라 가지고 올레 방향을 매기는 거. 이 집은 아무 편으로 올레를 하라, 해서.)

108018 @ 게, 그 출입구 문, 문을 만들 때 출입구 만들 때도 문간채, 옛날엔 이 문간 같은 거.(그, 그 출입구 문, 문을 만들 때 출입구 만들 때도 문간채, 옛날엔 문간채 같은 거.)

108018 #1 어, 우리 집 이문간은 엇엇수다.(어, 우리 집 문간채는 없었습니다.)

108018 @ 어떤 데가 그 문간채를 만들엇수과?(어떤 데가 그 문간채를 만들었습니까)

108018 #1 이문간은 쪼꼼 대게 보면은 좀 잘사는 디양.

108018 @ 음.(음.)

108018 #1 부젯칩이 이문간 뚜루 헤근엥에 그 이문간 ᄒᆞ는 집에는 보며는, 안꺼레, 또 손청거리, 목커리, 그런 거. 집이 뭐 집이 세 채, 네 채 잇는 집 보며는. 그런디 보며는 대게 옛날에는 그 아들 살곡.(부잣집이 문간채 따로 해서 그 문간채 하는 집에는 보면, 안채, 또 사랑채, 곁채, 그런 거. 집이 뭐 집이 세 채, 네 채 있는 집 보면. 그런 데 보면 대게 옛날에는 그 아들 살고.)

108018 @ 예.(예.)

108018 #1 또 손자 장수헹 오래 산 집도, 또 손자살고, 또 그 엿날에는 그 머슴, 그 엿날에는 ᄃᆞ사리[251]엔 헨에 여기선. 거 머슴 사는 방 뚜루 허곡 헤근엥에, 경헹 그런 잘사는 집에는 이문간 뚜루 짓고. 내가 알기로는 우리 동네 요쪽에 이문간 이신 디가 딱 ᄒᆞᆫ 집벳게 엇엇낫수다.(또 손자 장수해서 오래 산 집도, 또 손자살고, 또 그 옛날에는 그 머슴, 그 옛날에는 'ᄃᆞ사리'라고 해서 여기선. 거 머슴 사는 방 따로 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 잘사는 집에는 문간채 따로 짓고. 내가 알기로는 우리 동네 요쪽에 문간채 있는 데가 딱 한 집밖에 없었습니다.)

108018 @ 아.(아.)

108018 #1 그건 좀 잘사는 집. 게 이문간 헤영.(그건 좀 잘사는 집. 그 문간채 해서.)

---

251) 'ᄃᆞ사리'는 남의 집에 살면서 일을 해주는 사람을 말하녀, '도사리'라고도 한다.

108018 @ 겐디 문간채 그 이문간에는 또 문간채다 헤 가지고 뭔가 방 같은 거나 쉐왕.(그런데 문간채 그 문간채에는 또 문간채다 해 가지고 뭔가 방 같은 거나 외양간.)

108018 #1 에, 이문 것도 집을 이렇게 길게 지어야, 가운데는 이문간 지은 거 마당허고 출입하는 이문간이고, 옆에는 뭐 방도 잇는 디 잇고, 거기에 또 저 방앗간 양. 거 방에.(예, 문간 것도 집을 이렇게 길게 지어야, 가운데는 문간채 지은 그 마당하고 출입하는 문간채고, 옆에는 뭐 방도 있는 데 있고, 거기에 또 저 방앗간이요. 그 방아.)

108018 @ 예.(예.)

108018 #1 방에 놓는, 대부분 방에 놉니다 방에.(방아 놓는, 대부분 방아 놉니다, 방에.)

108018 @ 아, 방에를 놧구나예.(아, 방아를 놓았군요.)

108018 #1 에, 방에 놓곡, 거 이짝 흔짝 방에 방 만들아근에 거기에 거기 춤, 거기 엿날 말은 놈의 집 사는 사람 머슴양, 그런 사람들 살고 헷수다게.(예. 방아 놓고, 거 이쪽 한쪽 방에 방 만들어서 거기에 거기 참, 거기 옛날 말은 남의 집 사는 사람 머슴이요, 그런 사람들 살고 했습니다.)

108019 @ 예. 그다음엔 혹시 어, 가리 터라는 말 들어봣수과?(예. 그다음엔 혹시 어, 가리 터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108019 #1 가리 터 거는 나 모르고.(가리 터 거는 나는 모르고.)

108019 @ 가리 터에서 숨바꼭질도 하고.(가리 터에서 숨바꼭질도 하고.)

108019 #1 숨바꼭질은 거 애들 애들 허는 것이 숨바꼭질 아닌가?(숨바꼭질은 거 애들 애들 하는 것이 숨바꼭질 아닌가?)

108019 @ 가리 터 가리 틈.(가리 터 가리 틈.)

108019 #1 가리 틈.(가리 틈.)

108019 @ 낟가리 같은 거. 그 눌 눌으면 눌 같은 거 눌어봣수과?(낟가리 같은 거. 그 가리 가리면 가리 같은 그거 가려봤습니까?)

108019 #1 응. 눌이엔 헌 건 여기 촐 여기는 그 뭐 제주도 농촌에는 다 공통적이난 촐 눈 디 잇고, 겨을에는 곡석눌도 잇곡.(응. 가리라고 한 건 여기 꼴 여기는 그 뭐 제주도 농촌에는 다 공통적이라서 꼴 가린 데 있고, 겨울에는 낟가리도 있고.)

108019 @ 거면 그 눌 그 눌 눌을 때 눌 맨 우에 걸친 걸 뭐렌 골앗수과?(그러면 그 가리 그 가리 가릴 때 가리 맨 위에 걸친 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108019 #1 눌 어디 우에?(가리 어디 위에?)

108019 @ 예, 예. 눌을 이렇게.(예, 예. 가리를 이렇게.)

108019 #1 아, 우에 ᄂᆞ람지.(아, 위에 이엉.)

108019 @ ᄂᆞ람지?(이엉?)

108019 #1 에, ᄂᆞ람지, ᄂᆞ람지. 눌 우에 더프는 거.(예, 이엉, 이엉. 가리 위에

덮는 거.)

108019 @ 그 ᄂᆞ람지 사이로 아이들이 막 그 곱을락할 때 ,그 안으로 들어가지기도 헨마씨? 틈을 만들엉.(그 이엉 사이로 아이들이 막 그 숨바꼭질할 때 ,그 안으로 들어가지기도 했나요? 틈을 만들어서.)

108019 #1 거기 그 거기 눌이 놋아와사 그 ᄂᆞ람지 소곱에 아이들 들어가고 허주. 그 ᄂᆞ람지 어디 저 밑에 내려 놀 때?(거기 그 거기 가리가 낮아야 그 이엉 속에 아이들 들어가고 하지. 그 이엉 어디 저 밑에 내려 놀 때?)

108019 @ 예.(예.)

108019 #1 그거 가을에 곡식이나 뭐 허젠허민 미리 ᄂᆞ람지를 준비혜 놉니다게.(거 가을에 곡식이나 뭐 하려하면 미리 이엉을 준비해 놉니다.)

108019 @ 예.(예.)

108019 #1 준비혜 놔도야 뒈여. 거 새, ᄂᆞ람지 홀 새영, 새도 좀 긴 걸로.(준비해 놔둬야 되어. 그거 띠, 이엉 할 띠랑, 띠도 좀 긴 걸로.)

108019 @ 예.(예.)

108019 #1 것도 좀 쫄븐 건 안 뒈곡.(그것도 좀 짧은 건 안 되고.)

108019 @ 음.(음.)

108019 #1 쫄븐 거는 헤다근엥에 놧다근엥에 봄 나민 집이나 일고 뭐 헌디, ᄂᆞ람지 샌 좀 특별헌 새, 좀 긴 거 헤다근엥에 ᄂᆞ람지로 그 가을에 그 곡식눌 더플 거 준비 헤다근엥에 딱 헹 짜르민 거 아이들은 거.(짧은 거는 해다가 놓았다가 봄어면 집이나 일고 뭐 한데, 이엉 띤 좀 특별한 띠, 좀 긴 거 해다가 이엉으로 그 가을에 그 낟가리 덮을 거 준비 해다가 딱 해서 자르면 그거 아이들은 그거.)

108019 @ ᄂᆞ람지 사이로 이렇게 곱을락 안 헨마씨?(이얼 사이로 이렇게 숨바꼭질 안 했나요?)

108019 #1 헹 놔두민 ᄂᆞ람지 영 헹 세워놓민 그사이에 아이들 거 장난하는 아이들 거기서 곱을락도 허고 거 무신.(해서 놓아두면 이엉 이렇게 해서 세워놓으면 그사이에 아이들 거 장난하는 아이들 거기서 숨바꼭질도 하고 거 무슨.)

108019 @ 삼춘은 안 헤봇수과?(삼촌은 안 해봤습니까?)

108019 #1 아, 우린 그런 거 아네.(아, 우린 그런 거 안 해.)

108019 @ 애기 때 안 헤봔마씨?(애기 때 안 해봤어요?)

108019 #1 에.(예.)

108020 @ 그다음에예 그 돗통 잇잖아예?(그다음에요 그 돼지우리 있잖아요?)

108020 #1 에.(예.)

108020 @ 어, 돗통에 대헤서 그 여쭙겟는데예? 그 돗통에 보면 뭐 그 돗도고리[252]도 잇고.(어, 돼지우리에 대해서 그 여쭙겠는데요? 그 돼지우리에 보면 뭐 그 '돗도고리'도 있고.)

108020 #1 돗도고리 잇고.('돗도고리' 있고.)

252) '돗도고리'는 돼지에게 먹이를 넣어 주기 위해서 돌을 둥글넓적하게 파서 만든 돌그릇을 말한다.

108020 @ 이런 것들 잇잖아예?(이런 것들 있잖아요?)

108020 #1 에.(예.)

108020 @ 그 돗통에 대헤서 전반적으로 ᄀᆞᆯ아줍서.(그 돼지우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해주세요.)

108020 #1 돗통도 거 엿날에는 거 엿날에는 뭐시든지 다 ᄎᆞ례가 잇덴 헤양. 돗통도 아무데나 못헤여. 방향이 이서 가지고예. 우리는 여기서 살 때, 돗통을 저 서북쪽.(돼지우리도 거 옛날에는 거 옛날에는 뭐든지 다 차례가 있다고 합니다. 돼지우리도 아무데나 못해. 방향이 있어 가지고요. 우리는 여기서 살 때, 돼지우리를 저 서북쪽.)

108020 @ 아, 서북쪽.(아, 서북쪽.)

108020 #1 서쪽 모퉁이에다 돗통을 헤낫수다. 돗통을 허면은 그 돗도고리엔 헌 거 돌로 만든 거양.

108020 @ 예.(예.)

108020 #1 대게 보면 돌로. 것도 그 동네 아무나 것도 만들지 못헤민 거 기구, 거 석씨 빌어근에 만들엉 돌로 만들엉 영 우리는 서북쪽에 요게 돗통이 이서낫고 도새긴 보통 ᄒᆞ나.(대게 보면 돌로. 것도 그 동네 아무나 것도 만들지 못하면 그거 기구, 그 석공 빌어서 만들어 돌로 만들어 이렇게 우리는 서북쪽에 요기 돼지우리 있었었고 돼지는 보통 하나.)

108020 @ 하나씩예.(하나씩이요.)

108020 #1 ᄒᆞ나 길르고, 그 또 가끔 저기민 또 그 그 뒈지, 그 암토새기 길러근엥에 거 좀 새끼도 처 가지고.(하나 기르고, 그 또 가끔 저기하면 또 그 그 돼지, 그 암퇘지 길러서 거 좀 새끼도 쳐 가지고.)

108020 @ 예.(예.)

108020 #1 것도 우리도 풀아도 나고 헷수다.(그것도 우리도 팔아도 나고 했습니다.)

108020 @ 그믄 그 도새기들이 그 것 먹어난 그릇은 뭐렌 ᄀᆞᆯ앗수과?(그러면 그 돼지들이 그 것 먹어난 그릇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108020 #1 먹어난 그릇?(먹어난 그릇?)

108020 @ 예.(예.)

108020 #1 먹어난 그릇이 돗도고리주.(먹어난 그릇이 '돗도고리'지.)

108020 @ 돗도고리지예?('돗도고리'지요?)

108020 #1 에.(예.)

108020 @ 그다음엔 그 것은 어떵 헹 줘낫수과?(그다음엔 그 것은 어떻게 해서 줬었습니까?)

108020 #1 것은.(것은.)

108020 @ 무시거 주고?(무엇을 주고?)

108020 #1 거 여름에는 보릿체.(그 여름에는 보릿겨.)

108020 @ 예.(예.)

108020 #1 보릿체엔 헌 건 뭐냐면 보리헤근엥에 물ᄀᆞ레에 골아근엥에 그 껍질.(보릿겨라고 한 건 뭐냐면 보리해서 연자매에 갈아서 그 껍질.)

108020 @ 예.(예.)

108020 #1 그거를 보릿체엔 헌덴. 그거 ᄒᆞ곡 또 그기 또 무신 궂인물이엔 헹양 밥 홀 때 쏠씻은 물이나.(그거를 보릿겨라고 하는데. 그거 하고 또 거기 또 무슨 구정물이라고 해서요 밥 할 때 쌀 씻은 물이나.)

108020 @ 예.(예.)

108020 #1 무신 먹단 국 끌렁 먹단 남은 거나 그거 모다다근에 그거 서꺼근엥에 여름엔 대게 주곡.(무슨 먹던, 국 끓여서 먹던 남은 거나 그거 모아다가 그거 섞어서 여름엔 대게 주고.)

108020 @ 음.(음.)

108020 #1 겨을엔 조체엔 헤영양. 그 조로 그 졸 헤여근엥에 물ᄀᆞ레에 골으민 것도 거기서 헤영헹 껍데기가 나옵니다.(겨울엔 조겨라고 해서요. 그 조로 그 졸 해서 연자매 갈면 그것도 거기서 해서하면 껍데기가 나옵니다.)

108020 @ 예.(예.)

108020 #1 그거 헤영 ᄇᆞ름에 것도 쎈 ᄇᆞ름에 불려불민 멀리 놀아가 분엥에 거멘 그것도 아침새벡이 아주 약헌 ᄇᆞ름에 불렁 그거 메와근엥에 것도 기냥 걸로 점, 밥 헤먹을 때 거 좁쏠 씻은 물이나 뭐, 뭐 무신 뭐 쏠씻은 물, 거허곡 뭐 먹다 남은 국 ᄀᆞ뜬 거, 거 망데기[253]에 영 ᄃᆞ루 메왓다근에 것에 그자 거 조체에 헤근엥에 도새기 줄 거엔 또루 버무렁 주고.(그거 해서 바람에 그것도 센 바람에 드려버리면 멀리 날아가 버려서 그러면 그것도 아침새벽에 아주 약한 바람에 드려 그거 모아서 그것도 그냥 그걸로 참, 밥 해먹을 때 거 좁쌀 씻은 물이나 뭐, 뭐 무슨 뭐 쌀 씻은 물, 그거하고 뭐 먹다 남은 국 같은 거, 그거 '망데기'에 이렇게 디시 모아놓았다가 그것에 그저 그 조겨에 해서 돼지 줄 거에는 따로 버무려서 주고.)

108020 #1 게, 거 여름에는 엿날도 뒈야지 길를 때도 좀 사람이 잘 먹는 집에는 도새기도 좀 술진덴 허곡양. 기름기 게 좀 살림이 곤란헤근엥예 못사는 디 사람들은 도새기가 준덴 헤낫수다. 먹지 못헹, 사름에 따라근엥에예.(그래, 그 여름에는 옛날도 돼지 기를 때도 좀 사람이 잘 먹는 집에는 돼지도 좀 살찐다고 하고요. 기름기 그 좀 살림이 곤란해서 못사는 데 사람들은 돼지가 홀쭉하다고 했었습니다. 먹지 못해서, 사람에 따라서요.)

108020 @ 돗통 뛰어넘는, 뛰어넘기라는 뭐가 이섯수과? 무신 일 이시민 돗통.(돼지우리 뛰어넘는, 뛰어넘기라는 뭐가 있었습니까? 무슨 일 있으면 돼지우리.)

108020 #1 에.(예.)

108020 @ 그 돼지들이, 도새기들이 그 돗통을 뛰처근에 도망가나지 않앗수과?(그 돼지들이, 돼지들이 그 돼지우리를 뛰쳐나가서 도망갔었지 않았습니까?)

253) '망데기'는 중두리 정도의 크기에 중배가 부르지 않은 옹기를 말하며, '망다기'라고도 한다.

108020 #1 예, 예.(예, 예.)

108020 @ 게난 그 도망가지 못하게 뭐 뭐 헤난 거 엇엇마씨?(그러니까 그 도망가지 못하게 뭐 뭐 했었던 거 없었나요?)

108020 #1 거, 담 싸는 거?(거, 담 쌓는 거?)

108020 @ 담 싸는 거?(담 쌓는 거?)

108020 #1 응, 담만 노프게 싸면은.(응, 담만 높게 쌓으면.)

108020 @ 혹시 그.(혹시 그.)

108020 #1 담 야트게 싸면은 도새기가 기어나[254]근엥에 배고프민양 배고프민 기어나근엥에 집 두에 기냥 막 뎅이멍 그자 그 주둥이로 막 땅을 갈아 놉니다.(담 얕게 쌓으면 돼지가 '기어나서' 배고프면요 배고프면 '기어나가서' 집 뒤에 그냥 막 다니며 그저 그 주둥이로 막 땅을 갈아 놉니다.)

108020 @ 음.(음.)

108020 #1 거 뭐 땅을 파당 보민 뭐 뭇디 땅에서 뭐 나오지 안 합니까게, 뭐 게 우리 ᄀᆞ뜬 것도 나오고 게민 또 뭐 채소 ᄀᆞ튼 거 싱근 디 강 채소 막 먹어불곡양.(그 뭐 땅을 파다가 보면 뭐 육지 땅에서 뭐 나오지 안 합니까, 뭐 지렁이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러면 또 뭐 채소 같은 것 심은 데 가서 채소 막 먹어버리고.)

108020 @ 게민 그 어떤 마을 같은데 보면 그 저 돗통 지을 때 옆에 담 쌓은 옆에 다가 가시낭도 심곡혜난 건.(그러면 그 어떤 마을 같은데 보면 그 저 돼지우리 지을 때 옆에 담 쌓은 옆에다가 가시나무도 심고했던 건.)

108020 #1 아, 그 그 도새기 기어나오지 못허게 방지허는 거.(아, 그 그 돼지 '기어나오지' 못하게 방지하는 거지.)

108020 @ 그 무신 심엇던 낭이 무신 낭?(그 무슨 심었던 나무가 무슨 나무?)

108020 #1 통지낭.(탱자나무.)

108020 @ 통지낭?(탱자나무?)

108020 #1 응, 가시낭 통지낭.(응, 가시나무 탱자나무.)

108020 @ 통지낭?(탱자나무?)

108020 #1 통지낭. 여기는 탱자나무보고 통지낭 통지낭 허는디.(탱자나무. 여기는 탱자나무보고 통지낭 통지낭 하는데.)

108020 @ 아, 여기는 귓가시낭 같은 거 하는 게 아니라.(아, 여기는 꾸지뽕나무 같은 게 아니라.)

108020 #1 아니, 귓가시낭.(아니, 꾸지뽕나무.)

108020 @ 통지, 통지예?(탱자, 탱자요?)

108020 #1 거 탱자나무 여기선 통지낭 통지낭.

108020 @ 음.(음.)

108020 #1 거 돗통 옆에 거 심그면은 도새기 기어나오지 못허게.(그거 돼지우리 옆에 그거 심으면 돼지 '기어나오지' 못하게.)

254) '기어나다'는 '좋지 않은 일로 집을 나가다.'는 말이나, 여기서는 '뛰쳐나가다.'의 의미로 쓰였다.

108020 @ 아, 탱자를 통지를 심엇구나예.(아, 탱자를 탱자를 심었군요.)

108020 #1 에, 게민 담을 못 넘잖아.(예, 그러면 담을 못 넘잖아.)

108020 @ 그 다음엔 그 돗통에서 이제 그 소변이나 대변 볼려면 이 놓는 돌을 뭐렌 골앗수과?(그 다음엔 그 돼지우리에서 이제 그 소변이나 대변보려면 이 놓는 돌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108020 #1 두들팡 디들팡 디들팡.(부춛돌. 부춛돌, 부춛돌.)

108020 @ 두들팡, 디들팡예?(부춛돌, 부춛돌이요?)

108020 #1 응. 그 대변보는.(응. 그 대변보는.)

108020 @ 예, 디들팡예?(예, 부춛돌이요?)

108020 #1 응.(응.)

108020 @ 디들팡. 그다음엔 거기에 휴지대신에 뭐 놔낫수과? 옛날에.(부춛돌. 그다음엔 거기에 휴지대신에 뭐 놨었습니까? 옛날에.)

108020 #1 어디?(어디?)

108020 @ 그 돗통 가젠 하믄 대변을 보젠 하면 뭘로, 다끄젠하면 거기다 뭔가 이서야 뭴 거 아니꽈? 지금이야 화장지 잇주만은.(그 돼지우리 가려고 하면 대변을 보려고 하면 뭐로, 닦으려하면 거기다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이야 화장지 있지만.)

108020 #1 옛날에는 검질로.(옛날에는 잡풀로.)

108020 @ 검질로, 거 검질을 모아놧수과?(잡풀로, 거 잡풀을 모아놓았습니까?)

108020 #1 검질은 옛날에 마당에는 마당에 ᄒᆞ면은 마당에 검질을 낍니다게.(잡풀은 옛날에 마당에는 마당에 하면 마당에 잡풀을 깝니다.)

108020 @ 예.(예.)

108020 #1 검질 아이 꼴면 마당 막 파저 불고.(잡풀 아니 깔면 마당 막 파여 버리고)

108020 @ 음.(음.)

108020 #1 그 게 마당에 검질 덮으는 이유는 마당을 잘 멩글앗당은에 그 곡식 때 뒈면은 그 마당을 검질 거든 거 싹 엪이다, 마당 깨끗허게.(그 게 마당에 잠풀 덮는 이유는 마당을 잘 만들었다가 그 곡식 때 되면 그 마당을 검질 거든 거 싹 엪에다, 마당 깨끗하게.)

108020 @ 아, 곡식 털젠 허민.(아, 곡식 털려고 하면.)

108020 #1 마당에 거기서 곡식을 놔근엥에 기냥 도께로 두드립니다게. 보리든 조든.(마당에 거기서 곡식을 놔서 그냥 도리께로 두드립니다. 보리든 조든.)

108020 @ 게민, 그 마당에 이신 검질 가져당 따깟수과?(그러면, 그 마당에 있는 잡풀 가져다가 닦았습니까?)

108020 #1 에. 돗통에 똥 싸레 가구정 허민 기자 그 이상한 말 ᄀᆞ트지만은 그거 다끄젠 헤민 검질 쪼곰 접앙가근엥에 걸로 기냥.(예. 돼지우리에 똥 싸러 가고 싶으면 그저 그 이상한 말 같지만 그거 닦으려고 하면 잡풀 조금 집어가서 그걸로 그

냥.)

108020 @ 게민 설사 같은 거 나민 어떵 헷수과?(그러면 설사 같은 거 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108020 #1 응?(응?)

108020 @ 설사 같은 거 나면.(설사 같은 거 나면.)

108020 #1 설사?(설사?)

108020 @ 예.(예.)

108020 #1 설사 낫일 땐 보통 여기서 우리 어릴 때 보민 여름철에 설사가 많이 나는데.(설사 났을 땐 보통 여기서 우리 어릴 때 보면 여름철에 설사가 많이 나는데.)

108020 @ 예.(예.)

108020 #1 여름철엔 보면은, 음식두 고르지 못 허고, 게난 엿날은 먹을 것이 조금 품허지 못헌 때난 게 사람 먹단 남겨둔 거도 지금은 냉장고나 잇다, 엿날엔 기냥 어디 내불민 약간씩은 조금 뭐헙니다게 그걸 뭐하민.(여름철엔 보면, 음식도 고르지 못 하고, 그러니 옛날은 먹을 것이 조금 풍부하지 못한 때니까 그 사람 먹다가 남겨둔 것도 지금은 냉장고나 있다, 옛날엔 그냥 어디 내버리면 약간씩은 조금 뭐합니다. 그걸 뭐하면.)

108020 @ 거 설사 나민 뭘로 다깐마씨?(그 설사 나면 뭐로 닦았어요?)

108020 #1 설사를 고치는 디?(설사를 고치는 데?)

108020 @ 아, 설사 나면 뭘로 다깟수과?(아, 설사 나면 뭐로 닦았습니까?)

108020 #1 아, 마찬가지.(아, 마찬가지.)

108020 @ 아, 검질로마씨?(아, 잡풀로요?)

108020 #1 응.(응.)

108022 @ 어, 그리고 그다음에는 그 저기 이것저것 호미랑 무시거랑 막 거 놓는데 창고를예 옛날엔 뭐렌 골앗수과? 뭐 궹이 같은 거랑.(어, 그리고 그다음에는 그 저기 이것저것 호미랑 무엇이랑 막 그거 놓는데 창고를요 옛날엔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 괭이 같은 거랑.)

108022 #1 에, 건 우리 보통 쉐막에 놔놧는데 쉐막에.(예, 그건 우리 보통 외양간에 놨었는데 외양간에.)

108022 @ 아, 쉐막에 같이 놧수가?(아, 외양간에 같이 놓았습니까?)

108022 #1 응. 혼짝 옆에다가 그 줄헤근엥에 거 낭 돌아메여.(응. 한쪽 옆에다가 그 줄 해서 그거 나무 달아매.)

108022 @ 예.(예.)

108022 #1 거 낭 돌아메영 거기다가 호미도 걸치곡 쉐스랑도 걸치곡 거 다 걸칠 수 잇는 거 아니꽈게.(그 나무 달아매어 거기다가 낫도 걸고 쇠스랑도 걸고 그거 다 걸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08022 @ 예.(예.)

108022 #1 거 다 꼬부라진 거니깐양. 호미든 골갱이든 쉐스렝이든 뭐.(거 다 꼬부라진 거니요. 낫든 호미든 쇠스랑이든 뭐.)

108022 @ 옛날에 게믄 쉐막을 쉐막이렌 헷수과 쉐왕이렌 헷수과?(옛날에 그러면 외양간을 '쉐막'이라고 했습니까 '쉐왕'이라고 했습니까?)

108022 #1 쉐왕. 쉐왕 쉐왕이엔 헷주. 쉐왕.('쉐왕'. '쉐왕' '쉐왕'이라고 했지. 외양간.)

108022 @ 쉐왕예?(쉐왕'이요?)

108022 #1 응, 여기 우리.(응, 여기 우리.)

108023 @ 그다음에 장 같은 거 뒌장 같은 거 항아리 같은 거 놓는 거를 뭐렌 골앗수과?(그다음에 장 같은 거 된장 같은 거 항아리 같은 거 놓는 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108024 #1 그거 놓는 디 뭐엔사 헨디. 건 그자 엿날에 보민은 그자 우리 거 영허민 그 저 마루 뒤에.(그거 놓는 데 뭐라고 했는지. 그건 그저 옛날에 보면 그저 우리 그 이렇게 하면 그 저 마루 뒤에.)

108024 @ 예.(예.)

108024 #1 거 안튀[255]엔 헤근에 안튀 안튀엔 헤근에 거기 저 옆에다가 놔근엥에 겨을에는 보민 그 저 그 ᄂᆞ람지, 말했지만 ᄂᆞ람지 우에 또 덮으는 거 이서낫수다. 거 주젱이엔 헤근엥에.(거 '안튀'라고 래서 '안튀' '안튀'라고 해서 거기 저 옆에다가 놓고 겨울에는 보면 그 저 그 이엉, 말했지만 이엉 위에 또 덮는 거 있었습니다. 그거 주저리라고 해서.)

108024 @ 예.(예.)

108024 #1 주지 그거 만들앙 덮엉 헤낫수다.(주저리 그거 만들어서 덮어서 했었습니다.)

108024 @ 그 그거를 뭘 그 뒌장 간장 막 놓는 데를 뭐렌 따로.(그 그거를 뭘 그 된장 간장 막 놓는 데를 뭐라고 따로.)

108024 #1 아이, 따로 아녓수다.(아니, 따로 안했습니다.)

108024 @ 예를 든다면 표준어론 장독대렌 허잖아예? 옛날엔 뭐렌 안튀 안튀에 뭐.(예를 든다면 표준어론 장독대라고 하잖아요? 옛날엔 뭐라고 '안튀' '안튀'에 뭐.)

108024 #1 안튀.('안튀'.)

108024 @ 그냥 안튀엔 헤근에 뒌장 퍼오라 경 헷수과?(그냥 '안튀'라고 해서 된장 퍼 와라, 그렇게 했습니까?)

108024 #1 응. 안튀에 뒌장.(응. 안튀에 된장.)

108024 @ 음.(음.)

108024 #1 안튀엔헌 건 집 두에를 말하는 거.('안튀'라고 한 건 집 뒤를 말하는 거.)

108024 @ 게난예, 집 뒤에예.(그러게요, 집 뒤에요.)

---

255) '안튀'는 안채가 앉은 자리에서 뒤쪽에 있는 작은 터밭을 말하며 '안뒤'라고도 한다.

108024 #1 게, 요즘은 장독대니 뭐니 뚜루.(그래, 요즘은 장독대니 뭐니 따루.)

108024 @ 기지예.(그렇지요.)

108025 @ 그다음에는 예 어, 혹시 춤[256]이라는 말 들어봣수과? 춤.(그다음에요 어, 혹시 '춤'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춤'.)

108025 #1 춤. 에. 춤이엔 헌 건 무슨 말인고 허니.(춤. 예. 춤이엔 헌 건 무슨 말인고 허니.)

108025 @ 예.(예.)

108025 #1 집 옆에 큰 나무가 잇으면은 그 엿날엔 물이 어려운 때니까, 그 새 헤근엥에 요렇게 요만큼 길게 짜근엥에 나무에 기냥 나무 크기에 따라 나무 큰 건 좀 길게 만들고, 족은 건 족게 만들고, 나무에 강 이렇게 무꺼 나두는 거라양. 바로 거 밑에는 또 확 허게 졸여근에 좁아근엥에 뭐 줄로 무껑. 게 비오면은 거 낭에서 ᄂᆞ리는 물이 그 춤으로 헤영 내리는 것이 춤.(집 옆에 큰 나무가 있으면 그 옛날엔 물이 어려운 때니까, 그 새 해서 요렇게 요만큼 길게 짜서 나무에 그냥 나무 크기에 따라 나무 큰 건 좀 길게 만들고, 작은 건 작게 만들고, 나무에 가서 이렇게 묶어 놔두는 겁니다. 바로 그거 밑에는 또 확 하게 좁혀서 집어 가지고 뭐 줄로 묶어. 그 비오면 그 나무에서 내리는 물이 그 '춤'으로 해서 내리는 것이 '춤'.)

108025 @ 그 춤에 물 받으는 건 뭐렌 ᄀᆞᆯ앗수과.(그 '춤'에 물 받는 건 뭐라고 말했습니까.)

108025 #1 허벅 허벅으로 받안.(허벅 허벅으로 받았어.)

108025 @ 허벅.(허벅.)

108025 #1 허벅으로도 받고 망데기로도 받고.(허벅으로도 받고 '망데기'로도 받고.)

108025 @ 망데기로도 받은 거예.('망데기'로도 받은 거요.)

108025 #1 응.(응.)

108025 @ 그걸 그면 춤허벅? 춤망대기? 아니면 춤항?(그걸 그면 '춤허벅'? '춤망대기'? 아니면 '춤항'?)

108025 #1 춤허벅.('춤'허벅.)

108025 @ 춤허벅이렌 헷수과?('춤'허벅이렌 헷수과?)

108025 #1 응. 춤허벅.(응. '춤'허벅.)

108025 @ 음, 춤허벅예?(음, '춤'허벅이요?)

108025 #1 게, 춤물 춤물 허주게.(그래, '춤'물 '춤'물 하지.)

108025 @ 춤물예?('춤'물이요?)

108025 #1 응.(응.)

108025 @ 그 춤물허는 낭은 보통 어떤 낭에다가 헷수과?(그 '춤'물하는 나무는 보통 어떤 나무에다가 했습니까?)

256) '춤'은 새를 머리 땋듯이 땋아 나무에 거꾸로 매달아 이슬이나 빗물 따위를 받아 그 밑에 둔 항아리에 받아 넣는 물건을 말하는데, '물메누리'라고도 한다.

108025 #1 누룩낭.(느릅나무.)

108025 @ 누룩낭? 아, 여긴 누룩낭이구나예.(느릅나무? 아, 여긴 느릅나무군요.)

108025 #1 응, 누룩낭.(응. 느릅나무.)

108025 @ 아니, 바닷가 같은 데는예 돔박낭에도 헤서예.(아니, 바닷가 같은 데는요 동백나무에도 해서요.)

108025 #1 응, 우리는 누룩낭. 여 누룩낭, 옆에 큰 거 이섯는데, 우리는 누룩낭 거 대부분 딴 집이도 보면 누룩낭 ᄒᆞ곡. 게, 낭이 거 츰 받기 좋게 크는 낭이 누룩낭 벳긔. 누룩낭이 그냥 메질[257]로 곧게 쭉 크니깐. 거 또 비도 오면은 그 누룩낭 이파리가 좋니까 그 물도 많이 내리곡.(응, 우리는 느릅나무. 여기 느릅나무, 옆에 큰 거 있었는데, 우리는 느릅나무 그거 대부분 딴 집에도 보면 느릅나무 하고. 그래, 나무가 거 '츰' 받기 좋게 크는 나무가 느릅나무 벳긔. 느릅나무가 그냥 '메질'로 곧게 쭉 크니깐. 거 또 비도 오면 그 느릅나무 이파리가 좋으니까 그 물도 많이 내리고.)

108025 @ 에.(예.)

108025 #1 게니까 대게 보민 누룩낭으로 츰 낭을 ᄒᆞ곡.(그러니까 대게 보면 느릅나무로 '츰' 나무를 하고.)

초가지붕 이기

108026 @ 그다음에 그 초가지붕 이는 거에 대헤 가지고 저가 여쭤볼게예? 그 초가집을, 초집을 지으면 이제 틈틈이 다시 또 그.(그다음에 그 초가지붕 이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제가 여쭤볼게요? 그 초가집을, 초집을 지으면 이제 틈틈이 다시 또 그.)

108026 #1 일 년에 ᄒᆞᆫ 번씩 일어야주게.(일 년에 한 번씩 이러야지.)

108026 @ 예, 일어야 뒈잖아예?(예, 이러야 되잖아요?)

108026 #1 예.(예)

108027 @ 그 이르는 거에 대헤 가지고 저가 여쭤볼게예? 어, 그 초가집을 이젠 하면 새나 각단[258]은 어떵 준비합니까?(그 이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제가 여쭤볼게요? 어, 그 초가집을 이려하면 띠나 '각단'은 어떻게 준비합니까?)

108027 #1 에, 것도 거 쪼곰 잇는 집에는 거 밧을 ᄯᅳ루 만들아 뒈야뒈. 거 새왓엔 헤근엥에 각단이나 새왓이나 ᄀᆞ튼 디서 나는 거.(에, 그것도 그 조금 있는 집에는 그거 밭을 따로 만들어 둬야 돼. 거 띠밭이라고 해서 '각단'이나 띠밭이나 같은 데서 나는 거.)

108027 @ 예.(예.)

108027 #1 게난, 긴 것은 새고 좀 ᄍᆞᆲ은 건 각단, 각단이엔 헌 건 거 세 빌 때는 가을에 동지 전에.(그러니, 긴 것은 띠고 좀 짧은 건 '각단', '각단'이라고 한 건 그

257) '메질다'는 ㉠ 모종의 성장이 좋아 기름하다. ㉡ 토양이 비옥하여 초목의 성장이 좋다는 뜻이다. 여기서는 ㉡을 말한다.

258) '각단'은 굵은 줄을 드리는 데 쓰는 짧은 띠를 말하는 제주어이다.

거 띠 벨 때는 가을에 동지 전에.)

108027 @ 예.(예.)

108027 #1 동지 넘으민 안 뭰덴 헤.(동지 넘으면 안 된다고 해.)

108027 @ 예.(예.)

108027 #1 동지 전에 촐 헤난 곡식도 다 헤나곡. 그다음 새왓디 왕 새 허는디. 긴 건 뚜루 헷당 새엔 ᄒᆞ곡.(동지 전에 꼴 했던 곡식도 다 했었고. 그다음 띠밭에 와서 띠 하는데. 긴 건 따로 했다가 띠라고 하고.)

108027 @ 예.(예.)

108027 #1 ᄶᆞᆲ은 건 각단할거엔 헹 각단할 건, 거 호미로 호미로 비는 것이 아니고, 엿날은 낫[259]으로 촐은 낫으로양 긴 거. ᄌᆞ록 길게 돋은 거 잇지 아녀꽝게.(짧은 건 '각단'할 거라고 해서 각단할 건, 그거 호미로 호미로 베는 것이 아니고, 옛날은 '낫'으로 촐은 '낫'으로요 긴 거. 자루 길게 돋은 거 있지 않습니까.)

108027 @ 예.(예.)

108027 #1 게난 그것으로 비는 원인은 거 각단을 헤다근엥에 줄 놀 때, 그걸로 베면은 지그자그로 막 서터저근엥 줄 놓기가 좀니다게.(그러니 그것으로 베는 원인은 거 각단을 해다가 줄 놀 때, 그걸로 베면 지그재그로 막 섞어져서 줄 놓기가 좋습니다.)

108027 @아.(아.)

108027 #1 나도 헤봣는데. 게난 호미로 비는 건 ᄎᆞ근ᄎᆞ근 잇게 뒈면 건 줄 놀 때 상당히 불편헤여양.(나도 해봤는데. 그러니 호미로 베는 건 차근차근 있게 되면 그건 줄 놀 때 상당히 불편해요.)

108027 @ 아.(아.)

108027 #1 그것이 줄 놓다보면 줄도 고르게 놔지지 아여고, 게 낫으로 기냥 후려 청 헤논 건, 건 줄 놀 때 상당히 편합니다게.(그것이 줄 놓다보면 줄도 고르게 놓아지지 않고, 그 낫으로 그냥 후려 쳐서 해놓은 건, 그건 줄 놀 때 상당히 편합니다.)

108027 @ 음.(음.)

108027 #1 줄도 골르게 놔지곡.(줄도 고르게 놔지고.)

108027 @ 음.(음.)

108027 #1 게 각단이엔 헌 건 뚜루 놧다근엥에 낫으로 비어근엥에 거 ᄀᆞ찌 헷다근엥에 집 일젠헤민 젤 먼저 새해 봄 나면은 한가언 시기니깐 거도 줄을 그냥 거 식구가 잇는 딘 식구 동원헤근엥, 메칠 날 줄 놓게 줄 놔근엥 거 각단으로 헤영, 거 각단은 그런 식으로 베야 줄 놓기 좋주, 호미로 비민 호미로 영 심엉 영영 허민 ᄎᆞ근ᄎᆞ근 뒈지 안읍니께. 그건 줄 놓기가 상당히 궂입니다. 궂이면은 거 낫으로 빈 거라야만 줄 놓기도 좋곡 줄도 골르게 나오고 경헹 줄 놓곡.(그 '각단'이라고 한 건 따로 놓았다가 '낫'으로 베서 거 같이 했다가 집 이려하면 제일 먼저 새해 봄 오면

259) '낫'은 꼴 같은 것을 베는 자루가 긴 연장을 말하는 제주어이다.

한가한 시기니까 그것도 줄을 그냥 그 식구가 있는 데는 식구 동원해서, 며칠에 줄 놓게 줄 놔서 거 '각단'으로 해서, 거 '각단'은 그런 식으로 베야 줄 놓기 좋지, 낫으로 베면 낫으로 잡고 이렇게 이렇게이렇게 하면 차근차근 되지 않잖아요. 그건 줄 놓기가 상당히 궂습니다. 궂으면 거 '낫'으로 빈 거라야만 줄 놓기도 좋고 줄도 고르게 나오고 그렇게 해서 줄 놓고.)

108028 @ 혹시 집줄 할 때는 쫄른 줄도 잇고 진 줄도 잇긴 이신디 진 줄은 어떤 거고 쫄른 줄은 어떤 거꽈?(혹시 집줄 할 때는 짧은 줄도 있고 긴 줄도 있긴 있는데 긴 줄은 어떤 거고 짧은 줄은 어떤 겁니까?)

108028 #1 쫄른 줄은 거 집, 집이 직사각형으로 뭰거난양 직사각형으로, 직사각형으로 뒈난 쫄븐 줄은 짧은 모서리에 영 메는게 쫄븐 줄이고 긴 줄은 길게 직사각형으로 길게 나가는 거 어어 그게 긴 줄이고.(짧은 줄은 그 집, 집이 직사각형으로 된 거니까요 직사각형으로, 직사각형으로 되니까 짧은 줄은 짧은 모서리에 이렇게 매는 게 짧은 줄이고 긴 줄은 길게 직사각형으로 길게 나가는 거 어, 어 그게 긴 줄이고.)

108029 @ 집줄 만들 때 사용뒈는 연장들은 뭐가 잇수과?(집줄 만들 때 사용되는 연장들은 뭐가 있습니까?)

108029 #1 어, 호렝이[260] 여깃 말로 호렝인디 줄 이렇게.(어, '호렝이' 여깃 말로 '호렝인'데 줄 이렇게.)

108029 @ 감는 거예?(감는 거요?)

108029 #1 응. 감는 거 하면서 나가는 거 호렝이.(응. 감는 거 하면서 나가는 거 '호렝이'.)

108029 @ 그다음은마씨?(그다음은요?)

108029 #1 그다음에 또 그 줄을 그렇게 뽑아 가지고 또 그 이렇게 꽈야 뒈지 않으꽈? 꽈면 그거 허는 거 보고 뒤치기[261].(그다음에 또 그 줄을 그렇게 뽑아 가지고 또 그 이렇게 꽈야 되지 않습니까? 꼬면 그거 하는 거 보고 '뒤치기'.)

108029 @ 예, 뒤치기.(예, 뒤치기.)

108029 #1 응, 뒤치기는 거 뒤에 앉아서 게난, 그 줄을 헤여근엥에 그렇게 허젠 허민 거 줄을 뽑을 때는 줄 놀 때는 두 사람이민 뭽니다게. 줄 비는 사름 혼 사름 줄 비는 사름.(응, '뒤치기'는 거 뒤에 앉아서 그러니까, 그 줄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하면 그 줄을 뽑을 때는, 줄 놀 때는, 두 사람이면 됩니다. 줄 베는 사람 한 사람 줄 베는 사람.)

108029 @ 음.(음.)

108029 #1 아무나도 뒈양. 여자도 뒈고 남자도 뒈고. 줄 노는 사람은 보통 나이든 노인들 남자들.(아무나도 됩니다. 여자도 되고 남자도 되고. 줄 노는 사람은 보통 나이든 노인들 남자들.)

---

260) '호렝이'는 갈고리 모양의 나무를 왕대 마디 속에 집어넣어 잘 돌게 만드는 기구 집줄을 만들 때 이용되며, '호롱이, 훼롱이, 훼롱'이라고도 한다.

261) '뒤치기'는두 가닥의 집줄을 하나로 만들 때 뒤에서 돌리는 기구를 말한다.

108029 @ 음.(음.)

108029 #1 여자들도 가끔 놓긴 헙니다. 그민 대부분 남자가 줄을 놓아주곡 줄 비는 사람은, 비는 사람은 호렝이 심엉 영영 허멍 나가는 사름 ᄀᆞ라.(여자들도 가끔 놓긴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남자가 줄을 놓아주고 줄 베는 사람은, 베는 사람은 '호렝이' 잡고 이렇게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사름 보고.)

108029 @ 호렝이하고 뒤치기만 이시민 뒛수과?('호렝이'하고 '뒤치기'만 있으면 됐습니까?)

108029 #1 예, 뒤치기. 게난 줄을 잇당 네여 놓민은, 그자 내중엔 줄로 올리젠 허민 세 사름 네 사름이 들어야 뒙니다게. 네 사람.(예, '뒤치기'. 그러니 줄을 잇다가 내어 놓으면, 그자 나중엔 줄로 올리려고 하면 세 사람 네 사람이 들어야 됩니다. 네 사람.)

108029 @ 예, 건 나중에 질문 할게예?(예, 그건 나중에 질문 할게요?)

108029 #1 에.(예.)

108030 @ 그다음엔 평고대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꽈?(그다음엔 평고대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108030 #1 평고대? 아 건 집을 지을 때.(평고대? 아 건 집을 지을 때.)

108030 @ 에.(예.)

108030 #1 집을 지을 때 서설혜근엥에 서설 우에 집 갓으로 쭉 돌아 가지고 더프는 거. 건 뚜루 만들아야 뒈.(집을 지을 때 산자해서 산자 위에 집 가장자리로 쭉 돌아 가지고 덮는 거. 그건 따로 만들어야 돼.)

108030 @ 따로 만들어마씨?(따로 만들어요?)

108030 #1 건 대나무.(그건 대나무.)

108030 @ 대나무로예?(대나무로요?)

108030 #1 예. 대무로도 만들곡 낭으로도 만들고.(예. 대무로도 만들고 나무로도 만들고.)

108031 @ 집줄 무끌 때예 집줄, 집줄은 게민 이제 초집, 초, 새 비어다근에 지붕 이을 거잖아예?(집줄 묶을 때 집줄, 집줄은 그러면 이제 초가집, 초, 띠 베다가 지붕 이을 거잖아요?)

108031 #1 응.(응.)

108031 @ 줄을 무끌 때 어디다 무껏수과?(줄을 묶을 때 어디다 묶었습니까?)

108031 #1 거, 서리 밑에다. 이렇게 여긴말로 거왕이라고 헤 가지고.(그, 서까래 밑에다. 이렇게 여기말로 평고대라고 해 가지고.)

108031 @ 예.(예.)

108031 #1 거왕을 멥니다게. 거왕을 메여근엥에 거기다가 줄 메는 거라양. 줄을 이렇게 땡겨다가.(평고대 맵니다. 평고대 매서 거기다가 줄 매는 겁니다. 줄을 이렇게 당겨다가.)

108031 @ 거왕에?(평고대에.)

108031 #1 응. 거왕에다 거왕을 뚜루 만들어 거 같이, 거왕은 거 옛날에는 못 어실 때는 거왕은 것떼 놔근엥에 그 새끼줄로 무끄든가 게아민 거 좀 오래가는 거, 어디 거 산에 가면은 거 넌출이렌 헹양 그 저 드렛골.(응. 평고대에다 평고대를 따로 만들어 그거 같이, 평고대는 그거 옛날에는 못 없을 때는 평고대는 겉에 놓아서 그 새끼줄로 묶든가 그렇잖으면 그거 좀 오래가는 거, 어디 그 산에 가면 그거 '넌출'이라고 해요 그 저 다래덩굴줄기.)

108031 @ 예, 예.(예. 예.)

108031 #1 그걸로 허민 좀 오래가곡헹 걸로 무끕니다. 게난.(그걸로 하면 좀 오래가고해서 그걸로 묶습니다. 그러니.)

108031 @ 거 무끌 때 어디다 무끄는 거꽈?(거 묶을 때 어디다 묶는 겁니까?)

108031 #1 서리에.(서까래에.)

108031 @ 서리에다가예.(서까래다가요?)

108031 #1 응. 서리에다 무꺼.(응. 서까래에다 묶어.)

108031 @ 서리에다가.(서까래에다가.)

108031 #1 서까래.(서까래.)

108031 @ 서리에다 묶는 거구나예.(서리에다 묶는 거군요.)

108031 #1 서리에다 무껑 줄은 그 거왕에다 무끄는 거.(서리에다 묶어 줄은 그 '거왕'에다 묶는 거.)

108031 @ 무끄는 거고예?(묶는 거고요?)

108032 @ 그다음에는 그 집줄 쓰다가 막 남잖아예?

108032 #1 에.(예.)

108032 @ 줄 쓰당 남으믄 걸 어디다 사용헷수과?(줄 쓰다가 남으면 그걸 어디다 사용했습니까?)

108032 #1 보통은 남질 안헙니다 줄은. 우리 집 경우는.(보통은 남지 안합니다, 줄은. 우리 집 경우는.)

108032 @ 음.(음.)

108032 #1 게난 거 갯수가 다 이서양. 미리 줄을 만들젠 허면은 미리 그 갯수를 딱 셉니다.(그러니 거 개수가 다 있어요. 미리 줄을 만들려 하면 미리 그 개수를 딱 셉니다.)

108032 @ 예.(예.)

108032 #1 아, 요 집은 줄이 멧 개, 짤른 줄이 멧 개, 긴 줄이 멧 개헤근엥에 예를 들어 백 개민, 백 개다 헤근엥 딱 기억헤놧당 줄 놀 때는 그 숫자에 맞게 대게 대부분.(아, 요 집은 줄이 몇 개, 짧은 줄이 몇 개, 긴 줄이 몇 개해서 예를 들어 백 개민, 백 개다 해서 딱 기억해놓았다가 줄 놀 때는 그 숫자에 맞게 대게 대부분.)

108032 @ 게, 게난 하당 영 하당 길게 남으면 그걸 짤를 거잖아예. 그 남은 것들.(그래, 그러니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길게 남으면 그걸 자를 거잖아요. 그 남은 것들.)

108032 #1 아, 남은 거는 불, 저 밥헤먹을 때.(아, 남은 거는 불, 저 밥해먹을 때.)

108032 @ 불 지더부러마씨?(불 때버려요?)

108032 #1 응. 밥헤먹을 때 검질로.(응. 밥해먹을 때 검불로.)

108032 @ 혹시 저기 불솜을 때 끄라 앉는 방석 같은 건 안 만들엇수과?(혹시 저기 불 땔 때 깔아서 앉는 방석 같은 건 안 만들었습니까?)

108032 #1 방석 ᄀᆞ튼 건 그거 엿날 그 아까처럼 그 집 일어근엥에 줄, 걸 남은 거 그 짤른 거 그걸로 만들아 그걸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방석 같은 건 그거 옛날 그 아까처럼 그 집 이러서 줄, 걸 남은 거 그 자른 거 그걸로 만들아 그걸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

108032 @ 그 방석.(그 방석.)

108032 #1 대부분은 그걸로 만들아.(대부분은 그걸로 만들어.)

108032 @ 그 방석을 뭐렌 ᄀᆞᆯ앗수과?(그 방석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108032 #1 거, 정젯방석.(그거, 부엌방석.)

108032 @ 정젯방석예?(부엌방석이요?)

108032 #1 응. 정젯방석 것ᄀᆞ라.(응. 부엌방석 그것보고.)

연장

108033 @ 그다음에는예 그 집지슬 때 연장에 대헤서 저가 질문헤 볼게예. 연장들예.(그다음에요 그 집지을 때 연장에 대해서 제가 질문해 볼 게요. 연장들이요.)

108033 #1 집지슬 때?(집지을 때?)

108033 @ 예. 집 짓는 연장에는 어떤어떤 종류들이 잇수과?(예. 집 짓는 연장에는 어떤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108033 #1 그건 목수가 가져 잇는 거고, 그거 집지을 때 보통 연장은 톱.(그건 목수가 가져 있는 거고, 그거 집지을 때 보통 연장은 톱.)

108033 @ 예.(예.)

108033 #1 자귀.(자귀.)

108033 @ 예.(예.)

108033 #1 끌.(끌.)

108033 @ 예.(예.)

108033 #1 데패.(대패.)

108033 @ 예.(예.)

108033 #1 곱은자.(곱자.)

108033 @ 예.(예.)

108033 #1 먹통.(먹통.)

108033 @ 예.(예.)

108033 #1 그거주 뭐.(그거지 뭐.)

108033 @ 게믄예 그거 하나씩 다시 물어 볼게예? 어 톱은 어 어떤어떤 톱이 이섯수과?(그러면요 그거 하나씩 다시 물어 볼게요? 어 톱은 어 어떤어떤 톱이 있었습니까?)

108033 #1 톱은 이렇게 자기 혼자만 앞뒤로 땡기는 거, 양쪽에 놀 돋은 거.(톱은 이렇게 자기 혼자만 앞뒤로 당기는 거, 양쪽에 날 돋은 거.)

108034 @ 예, 그거를 뭐렌 무슨 톱이렌 헷수과?(예, 그거를 뭐라고 무슨 톱이라고 했습니까?)

108034 #1 양놀톱? 양놀벡이톱?(양날톱? 양날톱?)

108034 @ 양놀벡이톱예.(양날톱이요.)

108034 #1 응.(응.)

108034 @ 그.(그.)

108034 #1 양놀바기톱, 게 양놀베기톱. 에, 거난 그 목시들 그 혼짝 펜이 놀 돋은 톱도 잇고, 양짝으로 저 놀 돋은 톱이 이서낫수다게, 거난 목수들은 대게 보면은 혼짝은 나무를 가로 짜를 때 쓰는 거.(양날톱, 그 양날톱. 에, 그러니 그 목수들 그 한쪽 편이 날 돋은 톱도 있고, 양쪽으로 저 날 돋은 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목수들은 대게 보면 한쪽은 나무를 가로 자를 때 쓰는 거.)

108034 @ 건 뭐렌 건 무슨 톱이렌 헷수과?(그건 뭐라고 그건 무슨 톱이라고 했습니까?)

108034 #1 것도 양놀, 양놀베기톱.(그것도 양날, 양날톱.)

108034 @ 양놀베기톱예?(양날톱이요?)

108034 #1 거 양놀베기톱이엔 헹 양짝엔 톱놀이 잇다근에 혼짝은 나무를 가로 자를 때 쓰는 거 혼짝은 나무를 길게 쫄를 때 쓰는 톱 거 양놀베기톱.(거 양날톱이라고 해서 양쪽에 톱날이이 있다가 한쪽은 나무를 가로 자를 때 쓰는 거 한쪽은 나무를 길게 자를 때 쓰는 톱 그거 양날톱.)

108034 @ 양놀베기 안 헤근엥 한쪽만 놀 잇는 건 뭐렌 헷수과? 그냥 톱?(양날톱 안 해서 한쪽만 날 있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톱?)

108034 #1 그냥 톱.(그냥 톱.)

108034 @ 톱?(톱?)

108034 #1 거 한쪽 만 잇는 거 무조건 가로로만 쫄르는 거.(그거 한쪽 만 있는 거 무조건 가로로만 자르는 거.)

108035 @ 못을 뽑을 때 사용하는 그건 뭐렌 골앗수과?(못을 뽑을 때 사용하는 그건 뭐라고 말했습니까?)

108035 #1 응?(응?)

108035 @ 못 뽑을 때 사용하는 건.(못 뽑을 때 사용하는 건.)

108035 #1 못빼기.(못뽑이.)

108035 @ 못빼기렌 헷수과?(못뽑이라고 했습니까?)

108035 #1 응. 여긴 보통 못빼기.(응. 여긴 보통 못뽑이.)

108036 @ 그다음엔 데페는 어떤 종류들이 이섯수과?(그다음엔 대패는 어떤 종류들이 있었습니까?)

108036 #1 데페는 여기 보통 거 두 종류.(대패는 여기 보통 그거 두 종류.)

108036 @ 예.(예.)

108036 #1 뿔데페[262].(

108036 @ 예.(예.)

108036 #1 뿔데페라고 헤 가지고 양작에 첨 글자 그대로 뿔 도저 가지고 건 두 사름이 앉아사 땡겻다 놧다 하는 거.('뿔대패'라고 해 가지고 양쪽에 참, 글자 그대로 뿔 돋아 가지고 그건 두 사람이 앉아서 당겼다 놓았다 하는 거.)

108036 @ 그다음은 다른 데페는?(그다음은 다른 대패는?)

108036 #1 다른 데페는 거 그 기냥 그 그때는 뿔데페엔 허고 그때는 그자 뿔데페 말아 기자 뭐 목수 쓰는 거 기자 웨데페? 웨데페엔 헌 건 거 단데페라고 허는가 그저 목수 혼자만 쓰는 거.(다른 대패는 거 그 그냥 그 그때는 '뿔대패'라 하고 그때는 그저 뿔대패 말고 그저 뭐 목수 쓰는 거 그저 외대패? 외대패라고 한 건 그거 '단대패'라고 하는가, 그저 목수 혼자만 쓰는 거.)

108037 @ 그다음엔 자 아까.(그다음엔 자 아까.)

108037 #1 곱은자.(곱자.)

108037 @ 곱은자예? 자는 곱은자만 이섯수과?(곱자요? 자는 곱자만 있었습니까?)

108037 #1 곱은자.(곱자.)

108037 @ 곱은자고예.(곱자고요.)

108038 @ 그다음엔 먹통하고 먹줄은 뭐꽈?(그다음엔 먹통하고 먹줄은 뭡니까?)

108038 #1 먹통하고 먹줄은 틀려. 먹줄은 먹 안에, 거 씰로 만들아 가지고 엿날은, 그 그 씰을 만들젠 허민, 것도 미녕씰로 미녕씰로 헤근에 그자 길게 만들엉, 거 나무를, 요 나무는 꼬부라 져시니깐, 나무를 곧게 만들기 위헤서, 저 쪽에서 양쪽으로 땡겨 가지고 술을 탱기민 그 먹술 벳긔띠 잇는 건 짤라 대껴부든가 헤영.(먹통하고 먹줄은 달라. 먹줄은 먹 안에, 그 실로 만들어 가지고 옛날은, 그 그 실을 만들려고 하면, 그것도 무명실로, 무명실로 해서 그저 길게 만들어, 거 나무를, 요 나무는 구부러졌으니까, 나무를 곧게 만들기 위해서, 저 쪽에서 양쪽으로 당겨 가지고 술을 튕기면 그 먹줄 밖에 있는 건 잘라 던져버리든가 해서.)

108038 @ 예.(예.)

108028 #1 나무를 곧게 사용헐 때 쓰는 거.(나무를 곧게 사용할 때 쓰는 거.)

108039 @ 기지예? 그다음엔 흑손이라는 게 잇고 흑받이라는 게 이섯잖아예? 흑받기, 흑손이 뭐과? 흑손.(그렇지요? 그다음엔 흙손이라는 게 있고 흙받기라는 게 있었잖아요? 흙받기, 흙손이 뭐꽈? 흙손.)

108039 #1 흑손이엔 헌 건 거 요즘 요세 ᄀᆞ뜨민, 뭐야 미장공덜 쓰는 건데, 그

262) '뿔데페'는 대패의 한 종류이다.

흑손이엔 헌 건 그 저 나무로 만들아 가지고.(흙손이라고 한 건 거 요즘 요새 같으면, 뭐야 미장공들 쓰는 건데, 그 흙손이라고 한 건 그 저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108039 @ 예.(예.)

108039 #1 나무로 만들아 가지고 그 벽에다가 뭐 흑줄허는 날 그 손으로만 불르믄 그 울퉁불퉁헌 거 그 흑손으로 다가 그 그 다음날, 걸로 짝짝 밀어근엥에.(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그 벽에다가 뭐 흙줄하는 날 그 손으로만 바르면 그 울퉁불퉁한 거 그 흙손으로 다가 그 그 다음날, 걸로 짝짝 밀어서.)

108039 @ 그 흑손은 나무로 뭰 것도 잇고 쒜로 뭰 것도 잇수과?(그 흙손은 나무로 된 것도 있고 쇠로 된 것도 있습니까?)

108039 #1 응. 쒜로 뭰 것도 잇고 나무로 뭰 것도 잇고.(응. 쇠로 된 것도 있고 나무로 된 것도 있고.)

108039 @ 아, 경헷구나에.(아, 그랬군요.)

108039 #1 보통 그때 나무로 뭰 게 많안. 쒜가 그렇게 그때는 그렇게 뭐 흔한 시절이 아니니까 엿날엔. 사삼사건 이전에는.(보통 그때 나무로 된 게 많았어. 쇠가 그렇게 그때는 그렇게 뭐 흔한 시절이 아니니까 옛날엔. 사삼사건 이전에는.)

108039 @ 알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헤서 집을 짓는 걸헤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겟습니다예.(알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헤서 집을 짓는 걸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8039 #1 예.(예.)

8. 신앙

109001 @ 어, 오늘은예 그 신앙에 대해서 여쭤볼게예? 어, 먼저예 그 가신에 대해 가지고 말헤줍서. 혹시 집안에 모시는 신은 잇수과?(어, 오늘은요 그 신앙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어, 먼저요 그 가신에 대해 가지고 말해주십시오. 혹시 집안에 모시는 신은 있습니까?)

109001 #3 엇어.(없어.)

109001 @ 엇어예? 혹시 그런 집안에 신을 모시는 사람들은 혹시 수망리에 어디 잇수과?(없어요? 혹시 그런 집안에 신을 모시는 사람들은 혹시 수망리에 어디 있습니까?)

109001 #3 집이, 집안에서 모시는 딘 엇어.(집에, 집안에서 모시는 덴 없어.)

109001 @ 그 집 그.(그 집 그.)

109001 #3 어디는 가주. 저 거시기, 동짓둘 초일레나 동짓둘에 ᄒᆞ곡, 유월에 ᄒᆞ곡, 이 저 본향[263]이엔 헌 딘. 일뤠에 강 일뤠에.(어디는 가주. 저 거시기, 동짓달

263) '본향(本鄕)'은 마을의 여러 가지 일을 관장하는 신(神)을 말한다.

초일레나 동짓달에 하고, 유월에 하고, 이 저 '본향'이라고 한 데. 이레에 강 이레에.)

109001 #2 강, 강.(가서, 가서.)

109001 @ 여기도 본향당[264] 잇수과?(여기도 '본향당' 있습니까?)

109001 #3 어, 당 이시난 그디들은 다 가.(어, 당 있으니까 거기들은 다 가.)

109001 @ 다예? 삼춘네도 가고예?(다요? 삼촌네도 가고요?)

109001 #3 응. 젊을 때 가낫는디 이젠 안 가.(응. 젊을 때 갔었는데 이젠 안 가.)

109001 @ 안 감수과?(안 가십니까?)

109001 #3 응.(응.)

109002 @ 그다음엔예 그 성주 즉 집안에서 모시는 그런 신은 잇수과?(그다음은요 그 성주 즉 집안에서 모시는 그런 신은 있습니까?)

109002 #3 모시는 거 거시기 거는 엇는디 집짓으면은 성주는 집마다 내기 따문에 우리도 성주는 내여서, 우리는 모시는 거시기는 엇는디 누게가 집짓으민 성주 내여.(모시는 그 거시기 그거는 없는데 집지으면 성주는 집마다 내기 때문에 우리도 성주는 내였어, 우리는 모시는 거시기는 없는데 누가 집지으면 성주 내지.)

109002 @ 성주 내는 방법을 좀 ᄀᆞᆯ아봅써, 게믄.(성주 내는 방법을 좀 말해보세요, 그러면.)

109002 #1 그 심방을 그 헤당 빌어당ᄒᆞ면은, 저 무시거, 저 도끼로.(그 무당을 그 해다가 빌어다가하면, 저 무엇, 저 도끼로.)

109002 @ 예.(예.)

109002 #1 도끼로 그 아정 뎅이멍 상ᄆᆞ르민 영 헌 디 상ᄆᆞ르 베자 중ᄆᆞ르 베자 무시거 베자 ᄒᆞ는 이거 다 일르멍 그 도치루 영영 거치는 거라.(도끼로 가지고 다니며 용마루면 이렇게 한 데 용마루 베자 '중도리' 베자 무엇 베자하는 이거 다 이르며 그 도끼로 이렇게 이렇게 치는 거야.)

109002 @ 아, 그게 성주내기.(아, 그게 성주내기.)

109002 #2 그 재목을 베는 형식이주.(그 재목을 베는 형식이지.)

109002 #3 이디 문장 베자, 어디 지둥 베자, 무시거 마리 베자, 그런 식으로 헤여, 문 건드령.(여기 문장 베자, 어디 기둥 베자, 무슨 마루 베자, 그런 식으로 헤여, 모두 건드려서.)

109002 @ 아.(아.)

109002 #3 그거 허주.(그거 하지.)

109002 @ 아, 그게 그 성주구나예.(아, 그게 그 성주군요.)

109002 #3 응. 그게 성주.(응. 그게 성주.)

109002 @ 아, 예 알았습니다.(아, 예 알았습니다.)

109003 @ 그다음엔 문전제사[265]는 어떵 지냄숫과?(그다음엔 문전제사는 어떻게

264) '본향당(本鄕堂)'은 본향을 모시는 당(堂)을 말한다.

지내십니까?)

109003 #3 문제예?(‘문제’에?)

109003 @ 예.(예.)

109003 #3 제사홀 때에 문제는 무시거게 메 거려 놓곡, 무시거 영 흔 거 출려놓곡 헹 문전에서 헤영 제사를 ᄒᆞ는 거.(제사할 때에 ‘문제’는 뭐야 메 떠 놓고, 뭐 이렇게 한 거 차려놓고 해서 마루문 앞에서 해서 제사를 하는 거.)

109003 #2 거 문제도 ᄒᆞ는데 아녀는데 이서.(그거 ‘문제’도 하는데 안 하는데 있어.)

109003 @ 삼춘은 헴지예?(삼촌은 하지요?)

109003 #2 응. 우린ᄒᆞ고.(응. 우린 하고.)

109003 #3 문제 아녀는 디가 어디 서? 문제를 모르는 공사가 어디 서. 문제 아녀는 디 엇어.(‘문제’ 안하는 데가 어디 있어? ‘문제’를 모르는 공사가 어디 있어. ‘문제’ 안하는 데 없어.)

109003 #2 지네집이 아녀는 거 닮안게?(자기네집이 안하는 거 닮은데?)

109003 #3 아니, 아니. 문제 아녀는 딘 엇곡 문제에 음식에 겡을 안올리주.(아니, 아니. ‘문제’ 안하는 데는 없고 ‘문제’에 음식에 갱을 안올리지.)

109003 #2 아, 경하는 거구나.(아, 그러는 거구나.)

109003 #3 문제.(‘문제’.)

109003 @ 아, 문제에 겡을 안올령 저기.(아, ‘문제’에 갱을 안올려 저기.)

109003 #3 응. 밥만 올리우곡, 그 하간[266] 거 떡 헤논 거여, 저 거시기 무시거 제숙[267]인디 무시거 적갈[268]인디 헌 거 다 올리고 술도 올리는디, 문제 허는 디. 우리 친정에는 겡을 안올리는디. 이딘 희여. 이딘 다 올려. 겨고 나 밥 올리면은 겡을 올리게 뒌 거주. 무사 아념신 ᄀᆞᆫ국 잇당 경허주.(응. 밥만 올리고, 그 ‘하간’ 거 떡 해놓은 거야, 저 거시기 뭐 ‘제숙’이니 뭐 ‘적갈’이니 한 건 다 올리고 술도 올리는데, 문제 하는 데. 우리 친정에는 갱을 안올리는데. 여긴 해. 여긴 다 올려. 그리고 내가 밥 올리면 갱을 올리게 된 거지. 왜 안하냐고 말하고는 가끔 그렇게 하지.)

109004 @ 기지예.(그렇지요.)

109004 #3 응.(응.)

109004 @ 조왕에 대해 ᄀᆞᆯ아줍서, 조왕.(조왕에 대해 말해주세요, 조왕)

109004 #3 조왕에는 그 저 그 집이 일 년의 흔 번 정월이나 나면 원 흔 번은 저 무시거허는 거주. 저 문전코시라고.(조왕에는 그 저 그 집이 일 년에 한 번 정월이나 나면 원 한 번은 저 뭐하는 거지. 저 문전고사라고.)

109004 @ 정제?(부엌?)

---

265) ‘문전제사(門前祭祀)’는 마루문 앞에서 지내는 제를 말하며, ‘문전제, ‘문제’‘라고도 한다.

266) ‘하간’은 ‘여러 가지’, ‘모든’을 뜻한다.

267) ‘제숙’은 제상(祭床)에 올리는 생선류를 말한다.

268) ‘적갈’은 생선이나 고기 따위를 대꼬챙이에 꿰어 불에 굽거나 지진 음식인 ‘적’을 통틀어 일컬어 하는 말이다.

109004 #3 문전코시라고ᄒᆞ민, 문전코시엔ᄒᆞ면 문전에 빌어당 심방허게 뒈민 조왕에도 거려 논 무시거 멜 거려놔낫주.(문전고사라고하면, 문전고사라고하면 문전에 빌어다가 굿하게 되면 조왕에도 떠 논 뭐 메를 떠놓았었지.)

109004 @ 조왕이 뭐꽈?(조왕이 뭡니까?)

109004 #3 조왕이 부억에.(조왕이 부엌에.)

109004 #2 부억에.(부엌에.)

109004 #3 밥ᄒᆞ는.(밥하는.)

109004 @ 정제에예?(부엌에요?)

109004 #3 정제, 솟덕에 무시거 영.(정제, 붓돌에 뭐 이렇게.)

109004 @ 아, 솟덕에.(아, 붓돌에.)

109004 #3 응, 정제 솟 우이 무시거 놔낫주. 그런 거 홀 땐, 그 조왕을 거느려[269].(응, 부엌 솥 위에 뭐 놓았었지. 그런 거 할 땐, 그 조왕을 '거느려'.)

109004 #2 조왕*** **뭐.(조왕*** **뭐.)

109004 @ 그것도 헴수과?(그것도 합니까?)

109004 #3 그것도 홀 땐 헤여낫주. 나는 이제 늙어부난 아무것도 아녀지. 엿날에 헤낫어.(그것도 할 땐 했었지. 나는 이제 늙어버려서 아무것도 안하지. 옛날에 했었어.)

109005 @ 그다음엔예 칠성에 대해 ᄀᆞᆯ아줍서.(그다음은요 칠성에 대해 말해주세요.)

109005 #3 칠성은 엇어.(칠성은 없어.)

109005 @ 그, 그런.(그, 그런.)

109005 #3 놈의 집이. 우린 엇이난.(남의 집에. 우린 없으니까.)

109005 @ 아, 게난 놈의 집에.(아, 그러니까 남의 집에.)

109005 #1 놈의 집이 영 ᄒᆞ는 거 보민, 엿날에.(남의 집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옛날에.)

109005 @ 예.(예.)

109005 #3 이젠 이디 어신디 엿날에 보민 저 영 뒤예 이 뒤ᄀᆞ라 안튀[270]엔 ᄒᆞ주.(이젠 여기 없는데 옛날에 보면 저 이렇세 뒤에 이 뒤보고 '안튀'라고 하지.)

109005 @ 예, 예.(예, 예.)

109005 #3 안튀에 저 무시거 저 새 새 무껑.('안튀'에 저 뭐 저 띠, 띠 묶어서.)

109005 @ 예.(예.)

109005 #3 영 ᄂᆞ람지 닮은 거 영 세운 디가 이서서.(이렇게 이엉 닮은 거 이렇게 세운 데가 있었어.)

109005 @ 예.(예.)

109005 #3 거 집마다 엇어.(그거 집마다 없어.)

---

269) '거느리다'는 ㉠ 누가 남을 두고 없는 데서 이야기하다. ㉡잊었던 일을 다시 상기시켜 끄집어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여기서는 '이름을 짚고 넘어가다'로 풀이하면 좋을 듯하다.

270) '안튀'는 안채가 앉은 자리에서 뒤쪽에 있는 뜰이나 작은 터알을 말하며, '안뒤'라고도 한다.

109005 @ 예.(예.)

109005 #2 건디, 그것이 안칠성[271] 밧칠성[272] 허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는 지금 안칠성이라는 제사헐 때 안네 놔근엥에 저 그자 메나 메밥 ᄀᆞ튼 거 올리는데.(그런데, 그것이 '안칠성' '밧칠성' 하는데. 우리는 지금 '안칠성'이라는 제사할 때 안에 놓아서 저 그저 메나 메밥 같은 거 올리는데.)

109005 @ 예.(예.)

109005 #2 밧칠성이엔 헌 건 밧긔데.('밧칠성'이라고 한 건 밖에.)

109005 @ 예.(예.)

109005 #2 밧긔데, 올케 저 비 안맞게 저 영헹 뭘 만들엉.(밖에, 옳이 저 비 안 맞게 저 이렇게 해서 뭘 만들어.)

109005 @ 예.(예.)

109005 #2 제 헐 땐 거기 가근엥예.(제 할 땐 거기 가서.)

109005 #3 아니우다게.(아니에요.)

109005 #2 거 다 올린덴 나도 다 들엇어. 게난 밧칠성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거기 신을 위하는 거라 밧칠성.(거 다 올린다고 나도 다 들었어. 그러니 '밧칠성'하는 사름덜은 그만큼 거기 신을 위하는 거야 '밧칠성'.)

109005 @ 음.(으.)

109005 #2 수망리에도 저 여운에 새집이여 어디는 거 다 이서낫주.('수망리'에도 저 여운에 새집이여 어디는 거 다 있었었지.)

109005 #3 이서나긴 헷주.(있었긴 했지.)

109005 @ 아, 네 알았습니다예.(아, 네 알았습니다.)

9. 세시풍속

정월

110001 @ 어, 세시풍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먼저 정월이 이서예.(어, 세시풍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먼저 정월이 있어요.)

110001 #3 음.(음.)

110001 @ 정월에, 어 정월 일월 일일 날 정월 명절에 대헤 가지고 ᄀᆞᆯ아줍서. 어떤 식으로 멩질 헷인지.(정월에, 어 정월 일월 일일 날 정월 명절에 대해 가지고 말해주세요. 어떤 식으로 명절 했는지.)

110001 #3 멩질에는 무시거게 제사ᄒᆞ듯, 그 저 영운 나시 뭔 메 다 헤놔근엥에 저 상에 다 출려놩 제허곡 문제는 문전 ᄆᆞᆫ저 헤도근엥 제라허게 제ᄒᆞ고.(명절에는 무엇 제사하듯, 그 저 영혼 몫으로 뭔 메 다 해놓고 저 상에 다 차려놓고 제하고

271) '안칠성'은 고방에 모신 뱀신을 일컫는 말이다.

272) '밧칠성'은 집 뒤에 모시는 뱀신을 일컫는 말이며, '뒤칠성, 뒷할망'으로 불리기도 한다.

‘문제’는 ‘문전’ 먼저 한 다음에 온전하게 제하고.)

110001 #2 제ᄒᆞ는 건 제ᄒᆞ는 거 똑 ᄀᆞ뜨주.(제하는 건 제하는 거 똑 같지.)

110001 #3 제허는 거 밥헤놓고 떡이멍 적갈이멍 그런 거 다 헤놩, 거주 정월 초ᄒᆞ루 날은.(제하는 거 밥해놓고 떡이며 ‘적갈’이며 그런 거 다 해놓아, 거지 정월 초하루 날은.)

110001 @ 그 정월 초ᄒᆞ룻날 상에 올리는 거 생각나는 거 ᄒᆞᆫ 번 ᄀᆞᆯ아줘 봅서.(그 정월 초하룻날 상에 올리는 거 생각나는 거 한 번 말해줘 보세요.)

110001 #1 신건 다 올리지.(있는 건 다 올리지.)

110001 @ 예.(예.)

110001 #3 과일, 과일들 다 올리곡.(과일, 과일들 다 올리고.)

110001 @ 예.(예.)

110001 #3 적갈 뭐, 저 바닷궤기멍.(‘적갈’ 뭐, 저 바닷고기며.)

110001 @ 예.(예.)

110001 #3 소고기멍.(쇠고기며.)

110001 @ 예.(예.)

110001 #3 뒈야지지고기멍.(돼지고기며.)

110001 @ 예.(예.)

110001 #3 또, 저 술도 술이멍.(또, 저 술도 술이며.)

110001 @ 예.(예.)

110001 #3 감주멍.(감주며.)

110001 @ 예.(예.)

110001 #3 그런 거 다 올려. 떡도 다 지와, 작구떡[273] 다.(그런 거 다 올려. 떡도 다 지어, ‘작구떡’ 다.)

110001 @ 그 떡 떡들은 어떤 종류 헤낫수과?(그 떡 떡들은 어떤 종류 했었습니까?)

110001 #3 저, 어제 ᄀᆞᆯ은 식으로 솔펜[274], 절벤, 친떡 그런거게 헤근에 다 올리고 신 거는 다 출령 올려.(저, 어제 말한 식으로 ‘솔펜’, 절편, 시루떡 그런 거 해서 올리고 있는 거는 다 차려서 올려.)

110001 @ 아, 떡 종류를 그렇게 막 여러 개 헷구나예?(아, 떡 종류를 그렇게 막 여러 개 했군요?)

110001 #3 응.(응.)

110001 #2 아, 게 엿날에 오곡 떡이엔 허주게. 다섯 가지 떡.(아, 그래 옛날에 오곡 떡이라고 하지. 다섯 가지 떡.)

110001 @ 아.(아.)

110001 #3 다 의미가 잇단 거라. ᄃᆞᆯ반착이나, ᄃᆞᆯ이나.(다 의미가 있다는 거야.

273) ‘작구떡’은 흰떡을 통틀어서 ‘작구떡’이라고 한다.

274) ‘솔펜’은 ‘쌀가루나 메밀가루를 반죽하여 얇게 민 다음 반달모양의 떡살로 떠서 끓는 물에 삶거나 겅그레 위에서 찐 떡을 말하며, ’솔변, 솔벤, 수랑곤떡‘이라고도 한다.

달 반쪽이나, 달이나.)

110001 @ 음.(음.)

110001 #3 인절미, 네 귀난 인절미나. 우터레 우찍이나.(인절미, 네 귀난 인절미나. 위로 웃기떡이나.)

110001 #2 게, 오곡이 게난 다섯 가지 곡식이란 뜻이주게.(그래, 오곡이 그러니까 다섯 가지 곡식이란 뜻이지.)

110001 @ 예.(예)

110001 #3 경헌 거 다헤근에 정월에 과일도 신 거는 과일은 흔덴 ᄒᆞ는 것도 다 희영.(그렇게 한 거 다 해서 정월에 과일도 있는 거는 과일은 한다고 하는 것도 다 해서.)

110002 @ 그다음 정월 대보름날은 뭘 헤낫수과?(그다음 정월 대보름날은 뭘 했었습니까?)

110002 #3 아, 우린 알지 못허는디, 소문 들으메 대보름에 무신 어 저 무시거 보름에 무시거 헌덴 ᄀᆞᆯ아도 본 베도 엇고.(아, 나, 우린 알지 못하는데, 소문 들면 대보름에 무슨 어, 저 뭐 보름에 무엇 한다고 말해도 본 바도 없고.)

110002 @ 예.(예.)

110002 #3 소문만 들언.(소문만 들었어.)

110002 #2 아녀난.(안하니까.)

110002 #3 이렌 이젠 아녀. 어디 육진 막 흔덴 헤구나 만은.(이리는 이젠 안 해. 어디 육진 막 한다고 하구나 만.)

110002 #2 아, 육진 크게 허주.(아, 육진 크게 하지.)

110002 #3 아녀, 그런 건 소문만 들엇주. 원 나 ᄒᆞ는 거 본 듸 엇어.(안 해, 그런 건 소문만 들었지. 원 나는 하는 거 본 데 없어.)

110003 @ 그, 그다음에는 어, 그 방사와 액막이란 말이 잇는데예.(그, 그다음에는 어, 그 방사와 액막이란 말이 있는데요.)

110003 #3 응.(응.)

110003 @ 어, 정월에.(어, 정월에.)

110003 #3 응. 그런 때 경 정월 보름에 엑 막넨.(응. 그런 때 그렇게 정월 보름에 액 막는다고.)

110003 @ 엑 막넨 헤 가지고.(액 막는다고 해 가지고.)

110003 #3 응. 그런 막 그런 소문만 들언. 우린 안 헤. ᄒᆞ는 거 본 베도 엇곡 그런 소문은 서도 수망린[275] 그런 거 아녜여.(응. 그런 막 그런 소문만 들었어. 우린 안 해. 하는 거 본 바도 없고 그런 소문은 있어도 '수망린' 그런 거 안 해.)

110003 @ 안 헤예?(안 해요?)

110003 #3 응. 수망린 아녀난.(응. '수망린' 안 하니까.)

110003 @ 게도 뭐 헤먹기도 안 헤봣수과?(그래도 뭐 해먹기도 안 해봤습니까?)

---

275) '수망리'는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를 말한다.

110003 #3 무신 오곡밥 헤먹나 어떵헌다 헤도, 우리 그런 거는 아녀고.(무슨 오곡밥 해먹나 어떻게 한다 해도, 우리 그런 거는 안 하고.)

110003 @ 예.(예.)

110003 #3 저, 동지죽은 쒕 먹주.(저, 동지죽은 쒀 먹지.)

110003 @ 아, 동짓날 거는.(아, 동짓날 거는.)

110003 #3 응. 그런 건헤도.(응. 그런 건해도.)

110004 @ 어, 여기는 포제[276] 옛날에 헤낫지예?(어, 여기는 포제 옛날에 했었지요?)

110004 #3 응. 엿날에 포제 허단 이젠 설러비언.(응. 옛날에 포제 하다가 이젠 끝내버렸어.)

110004 #2 포제 헤낫주. 엿날 나도 제관 헤난.(포제 했었지. 옛날 나도 제관 했었어.)

110004 #3 엿날에.(옛날에.)

110004 @ 아, 그럼 제관 헤낫이난예? 포제 헐 때 그 어떤 식으로 시작을 헤 가지고 어떻게 쭉, 하다근에 그 포제 헷던 이야기를 좀 헤줍서.(아, 그럼 제관 했었으니까요? 포제 할 때 그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어떻게 쭉, 하다가 그 포제 했던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110004 #2 거 이져부렁 뭐 나이 이제는 뭐.(거 잊어버려서 뭐 나이 이제는 뭐.)

110004 #3 포제는 ᄒᆞ게 뒈며는 삼일정성이라고.('포제'는 하게 되면 삼일정성이라고.)

110004 @ 예.(예.)

110004 #3 이 저, 집이 아니, 집이 안 눵[277].(이 저, 집에 아니, 집에 안 누워.)

110004 @ 예.(예.)

110004 #3 제사 ᄒᆞ는 사람이 집이 안 눵.(제사 하는 사람이 집에 안 누워.)

110004 @ 예.(예.)

110004 #3 그 제서 제서당에 강 제서ᄒᆞ는디 자. 포제ᄒᆞ는 디 모이는 집을 멘들아.(그 제사 제사당에 가서 제사하는 데 자. 포제 하는 데 모이는 집을 만들어.)

110004 @ 예(예.)

110004 #3 포젤 멘들면 사일동안, 저 삼일동안 집이 오도 아녀곡, 그 밥을 그디 헤당 멕여.(포젤 만들면 삼일동안, 저 삼일동안 집이 오지도 안 하고, 그 밥을 거기 해다가 먹여.)

110004 @ 예.(예)

110004 #3 제관들을.(제관들을.)

110004 @ 예.(예.)

110004 #3 게난 물도 그런 디 강 질어오곡 물이 잇곡.(그러니 물도 그런 데 가

276) '포제(酺祭)'는 마을을 지킨다는 신에게 온 마을이 정성을 다하여 소원을 비는 의식을 말한다.
277) '안 눵'은 '안 누워'의 뜻이지만 여기서는 집에서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의미로 쓰였다.

서 길어오고 물이 있고.)

110004 @ 예.(예.)

110004 #3 이 도야지 잡안ᄒᆞ지 아넷수과? 도야지 잡앙 ᄒᆞ민 그 놓는 그릇도 그대로 새로 멘들앙 헤난 거 닮아.(이 돼지 잡아서하지 않았습니까? 돼지 잡아서하면 그 놓는 그릇도 그 대<竹>로 새로 만들어서 했던 거 같아.)

110004 @ 예.(예.)

110004 #3 거난 하르방[278]도 포제헐 때 그 반찬헤영 그디 그 포젯당에 그 포제ᄒᆞ는 디, 모인 디 아자강 그디서 모여. 올레, 올레 밧긔딘디 그 모인집 밧긔딜 나오질 아녀나서.(그러니 '할아버지'도 '포제' 할 때 그 반찬해서 거기 그 '포젯당'에 그 '포제'하는 데, 모인 데 가져가서 거기서 모여. 올레, 올레 밖인데 그 모인 집 밖에를 나오질 안 했었어.)

110004 @ 그 모이는 집에는 혹시 이렇게 뭐 그 줄 처낫수과?(그 모이는 집에는 혹시 이렇게 뭐 그 줄 쳤었습니까?)

110004 #3 응.(응.)

110004 @ 그 줄을 뭐렌 ᄀᆞᆯ앗수과?(그 줄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110004 #3 ᄉᆞᆺ.(새끼.)

110004 @ 삿?(삿?)

110004 #3 ᄉᆞᆺ메여 ᄉᆞᆺ.(새끼 매지 새끼.)

110004 @ ᄉᆞᆺ?(새끼?)

110004 #3 ᄉᆞᆺ메여. ᄉᆞᆺ메영 노끗으로 새로 꼬왕.(새끼 매. 새끼매어서 노끈으로 띠로 꼬아.)

110004 #2 ** 여기 보면 저 저 애기나믄 여 딱 줄처근엥에 그디 막 뭐가 그런 식이주게.(** 여기 보면 저 저 애기나면 여 딱 금줄처서 거기 막 뭐가 그런 식이지.)

110004 @ 그걸 ᄉᆞᆺ 멘덴 허는 거꽈?(그걸 새끼 맨다고 하는 겁니까?)

110004 #3 응. ᄉᆞᆺ ᄉᆞᆺ ᄉᆞᆺ 멘덴, ᄉᆞᆺ. ᄉᆞᆺ메며는 그거 어떵 부정한 사름이라도 들어가당 그런 거 시민 안 들어가는 거주게.(응. 새끼 새끼 새끼 맨다고, 새끼. 새끼 매면 그거 어떤 부정한 사람이라도 들어가다가 그런 거 있으면 안 들어가는 거지.)

110004 #2 건디 웨 수망리가 포젤 치와부랏느냐.(그런데 왜 수망리가 포젤 치워버렸느냐.)

110004 @ 아, 그건 잠깐만예. 건 나중에 말씀 듣고예. 그 ᄉᆞᆺ을 메잖아예?(아, 그건 잠깐만요. 건 나중에 말씀 듣고요. 그 새끼를 매잖아요?)

110004 #3 응.(응.)

110004 @ 그 ᄉᆞᆺ 메고 그다음엔 그 붉은 흑을 뿌리는 것도 잇수과? 흑 뿌리는 거?(그 새끼매고 그다음엔 그 붉은 흙을 뿌리는 것도 있습니까? 흙 뿌리는 거?)

110004 #2 요샌 안 뿌려 봣는데?(요샌 안 뿌려봤는데.)

278) '하르방'은 할아버지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남편을 의미한다.

110004 @ 기꽈? 그다음에 제관은 어떤 조건을 가정 제관을 정헷수과?(기꽈? 그다음에 제관은 어떤 조건을 가져서 제관을 정했습니까?)

110004 #2 거, 가문. 그니까 여기 여기 김씨, 한씨 영 허믄 씨가 한 사람씩.(그거, 가문. 그러니까 여기 여기 김씨, 한씨 이렇게 하면 씨가 한 사람씩.)

110004 @ 한사람씩. 보통 제관은 몇 명 정도 정헤낫수과?(한사람씩. 보통 제관은 몇 명 정도 정했었습니까?)

110004 #2 초한관에 어 저 삼한이고.(초헌관에 어 저 삼헌이고.)

110004 @ 예.(예.)

110004 #2 축, 짐예.('축', '짐예'.)

110004 @ 예.(예.)

110004 #2 축.('축'.)

110004 @ 예.(예.)

110004 #3 안네엔 흔 건, 지금은 저 그난에 그게 젤 문젠데 안네가, 그건 조꼼 놋은 사름 ᄒᆞ는 따문에.(안내라고 한 건, 지금은 저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문젠데 안내가, 그건 조금 낮은 사람 하는 때문에.)

110004 @ 음.(음.)

110004 #2 그거 메우민 막 기분 영 그건 심부름감이주게 지금 안네는.(그거 모으면 막 기분 영 그건 심부름감이지 지금 안내는.)

110004 #3 심부름꾼이난.(심부름꾼이어서.)

110004 @ 음.(음.)

110004 #2 심부름꾼인데 그거를 허믄 막 기분, 아녀젠 허주게 그건.(심부름꾼인데 그거를 하면 매우 기분, 안 하려고 하지 그건.)

110004 @ 거며는 아까 멘 처음에 뭐지?(그러면 아까 맨 처음에 뭐지?)

110004 #2 삼한.(삼헌.)

110004 @ 삼한.(삼헌.)

110004 #2 삼한이엔 헌 건 초한, 아한, 종한.(삼헌이라고 한 건 초헌 아헌 종헌.)

110004 @ 예.(예.)

110004 #2 그게 삼한이고 대축.(그게 삼헌이고 대축.)

110004 @ 예.(예.)

110004 #2 짐예.(짐예.)

110004 #3 짐예가 제일 좋은 거주.(짐예가 제일 좋은 거지.)

110004 #2 그 저 안네허는 건 또 뭐엔 헤낫지만은, 건 두 사름씩, 거난 그 사름은 그 사름 그 삼한을 영 모셔가곡, 영 모셔오곡 허야주게. 게난 비치럽다하는 거주게.(그 저 안내하는 건 또 뭐라 했었지만, 그건 두 사람씩, 그러니 그 사람은 그 사람 그 삼한을 이렇게 모셔가고, 이렇게 모셔오고 해야 되지. 그러니 부끄럽다하는 거지.)

110004 @ 예.(예.)

110004 #3 경ᄒᆞᆫ 사름은 아녀젠ᄒᆞ는 거주. 엿날은 말로 하옛주, 탈***.(그런 사람은 안 하려고하는 거지. 옛날은 말도 많았지, 탈***.)

110004 @ 그며는 제관의 조건은 뭐엿수과? 제관이 뒈젠하면.(그러면 제관의 조건은 뭐였습니까? 제관이 되려고 하면.)

110004 #2 아, 겐 총훼에서 선출이 뒈야지.(아, 그건 총회에서 선출이 돼야지.)

110004 @ 총훼에서 선출할 때, 게니깐 뭐 예를 든다면 다른 마을에 보니깐 포제를 하는데 제관을 뒈젠 하면 결혼헤야 뒈고 자식도 낳아야 뒈고 이혼헤서도 안뒈고.(총회에서 선출할 때, 그러니깐 뭐 예를 든다면 다른 마을에 보니깐 '포제'를 하는데 제관을 되려고 하면 결혼해야 되고 자식도 낳아야 되고 이혼해서도 안 되고.)

110004 #2 아하, 그런 조건부 잇주.(아하, 그런 조건부 있지.)

110004 @ 대신 뭐 부정탄 행동을 하거나 뭐 그런 것들 여기도 그런 조건들 이서낫수과?(대신 뭐 부정 탄 행동을 하거나 뭐 그런 것들 여기도 그런 조건들 있었습니까?)

110004 #2 어, 어.(어, 어.)

110004 #3 그런 조건 잇주게 건 ᄏᆞ뜽ᄒᆞᆫ[279] 거.(그런 조건 있지 그건 '대등한' 거.)

110004 @ ᄏᆞ뜽ᄒᆞᆫ 거예.('대등한' 거요.)

110004 #2 거 건 집안에 과거에 쭉 내려완에 그 집안에 자식이 많이 죽으나 뭐 좀 제웨 뒈여.(그 그건 집안에 과거에 쭉 내려와서 그 집안에 자식이 많이 죽으나 뭐 좀 제외 되어.)

110004 @ 그거를 누가 정헷수과?(그거를 누가 정했습니까?)

110004 #2 아, 총훼에서 허믄.(아, 총회에서 하면.)

110004 @ 그 총훼라는 건 마을 총훼마씨?(그 총회라는 건 마을 총회요?)

110004 #2 그렇지.(그렇지.)

110004 @ 아, 마을총훼에서예? 이게 언제, 저기 언제부터 안헷수과? 여기는.(아, 마을총회에서요? 이게 언제, 저기 언제부터 안했습니까? 여기는.)

110004 #2 멧 년뒈얏는지, 안헷는디는 몰라, 학실히 모르겠어.(몇 년 됐는지, 안했는지는 몰라, 확실히 모르겠어.)

110004 @ 오래뒛수과?(오래됐습니까?)

110004 #2 오래뒛주.(오래됐지.)

110004 @ 그 이유가 뭔고예?(그 이유가 뭔가요?)

110004 #2 이유가 뭐냐?(이유가 뭐냐?)

110004 @ 예.(예.)

110004 #2 그건 나가 아는데, 어떠냐면 제관엔 허민 잡인이 못 들어가게 뒛거

279) 'ᄏᆞ뜽ᄒᆞ다'는 길이나 크기 따위가 가지런하고 고르다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신분이 '대등한'의 의미로 쓰였다.

든, 일절.(그건 내가 아는데, 어떠냐면 제관이라고 하면 잡인이 못 들어가게 됐거든, 일절.)

110004 @ 예.(예.)

110004 #2 근데 그디 제관 보면 삼일동안 허민 심심허민 화투들 치거든.(그런데 거기 제관을 보면 삼일동안 하면 심심하면 화투들 치거든.)

110004 @ 예.(예.)

110004 #2 화투치는 젊은이들이 와락가락헷는데, 무조건 초한 뒈얏는 그 집은 타버렸다고, 이거 부정이 잇다 이거지.(화투치는 젊은이들이 오락가락했는데, 무조건 '초한' 되었던 그 집은 타버렸다고, 이거 부정이 있다 이거지.)

110004 @ 아.(아.)

111004 #2 그렇게 헤서 총훼서.(그렇게 해서 총회서.)

110004 #3 아, 모여난 집을 타비언, 누게네 집? ᄀᆞ싸.(아, 모였던 집을 타버렸어, 누구네 집? 아까.)

110004 #2 이디, 이디 순배네 아방네도, ***데도 타불고, 그때 저 누게 네도 타고.(여기, 여기 순배네 아버지 네도, ***데도 타버리고, 그때 저 누구 네도 타고.)

110004 #3 아, 맞아.(아, 맞아.)

110004 @ 무사 경 여러 집이 탑니까?(왜 그렇게 여러 집이 탑니까?)

110004 #2 아, 게난 초원 헤난 집 게니깐.(아, 그러니 '초원' 했던 집 그러니까.)

110004 #3 흔 디에.(한 데서.)

110004 #2 그 흔꺼번에 탄게 아니고 그 헤난, 금년 헤난 초원 헤난 집이, 금년 불타고 또 내년 헤난, 내년 헤난 초한 집이 불타고, 이렇게 허니까 갑자기 불이 나 가지고.(그 한꺼번에 탄 게 아니고 그 했던, 금년 했던 '초한' 했던 집이, 금년 불타고 또 내년 했던, 내년 했던 초한 집이 불타고,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불이 나 가지고.)

110004 @ 거 이상하다예.(그거 이상하네요.)

110004 #2 경헤가지고.(그렇게 해가지고.)

110004 #3 난, 거 몰라.(난, 그거 몰라.)

110004 #2 거난 웨냐, 그 저 올케 금허는데 그 자기가 부정헌 사람이 가찌 참석헤낫다 이거지.(그러니 왜냐, 그 저 옳이 금하는데 그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 같이 참석했었다 이거지.)

110004 @ 예.(예.)

110004 #2 이야기가 이렇게 뭰 거지.(이야기가 이렇게 된 거지.)

110004 #3 경헤가면 아무나 그런 ᄒᆞ젠도 아네주.(그렇게 해가면 아무나 그런 하려고도 안하지.)

110004 @ 집을 내줄 수가 없잖아예?(집을 내줄 수가 없잖아요?)

110004 #2 아, 게난 초헌을 안 하켄 딱 자빠지니깐 다.(아, 그러니 초헌을 안 하겠다고 딱 자빠지니깐 다.)

110004 #3 아, 그거 보멍.(아, 그거 보면서.)

110004 #2 그거 보멍 초헌을 아무집안에도 초헌을 안 하켄 자빠져가니깐 어떻켓어?(그거 보며 초헌을 아무집안에도 초헌을 안 하겠다고 자빠져가니깐 어떻겠어?)

110004 #3 나, 수망리 살아도 몰라.(내가, '수망리' 살아도 몰라.)

110004 #2 아, 내가 마트주.(아, 내가 맡지.)

110004 #3 아, 경헹 설러진건게.(아, 그렇게 해서 끝내진 거네.)

110004 #2 경헹 설러전. 건디 이디 수미아방네 저 거시기 허남준가 누게 살던 데도 불낫주만은 초원헤난에 아녜부난에.(그렇게 해서 끝냈지. 그런데 여기 수미아버지네 저 거시기 허남준가 누구 살던 데도 불났지만 '초원' 했는데 안 해버려서.)

110005 @ 안택이라는 말은 들어 봣수과?(안택이라는 말은 들어 봤습니까?)

110005 #2 응?(응?)

110005 @ 안택.(안택.)

110005 #3 안택?(안택?)

110005 @ 정월 그 정월에 뭐 보름 지난 다음에 그 안택하는 거.(정월 그 정월에 뭐 보름 지난 다음에 그 안택하는 거.)

110005 #2 우린 그거 아녀난 몰라.(우린 그거 안 하니까 몰라.)

110005 #3 들어보지 아녓이난.(들어보지 않아서.)

110005 @ 그 어, 정월달 들어가지고 어, 그 집을 자기네 집을 잘 뒈게 헤주렌 헤가지고 저 모시는 제사마씨, 안택.(그 어, 정월달 들어가지고 어, 그 집을 자기네 집을 잘 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저 모시는 제사요, 안택.)

110005 #3 토신제?(토신제?)

110005 @ 예.(예.)

110005 #3 아, 그런 거 ᄒᆞ는 딘 희여.(아, 그런 거 하는 덴 해.)

110005 #2 아, 그거는 지금도 헤여.(아, 그거는 지금도 해.)

110005 #3 토신제 ᄒᆞ는 디 희여.(토신제 하는 데는 해.)

110005 @ 아, 지금 수망리 허는 사람도 잇수과?(아, 지금 '수망리'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110005 #2 응.(응.)

110005 @ 건, 어떤 식으로 제사를 지내마씨? 것도 심방 빌려당마씨?(건, 어떤 식으로 제사를 지내나요? 것도 무당 빌려다가요?)

110005 #3 아니, 그거는 저 무시거 제관.(아니, 그거는 저 뭐 제관.)

110005 @ 예.(예.)

110005 #3 제관 빌어당 토신제 ᄒᆞ곡.(제관 빌어다가 토신제 하고.)

110005 @ 예.(예.)

110005 #3 또 그 아녀는 딘 저 문전코시라고.(또 그 안하는 데는 저 문전고사라고.)

110005 @ 예.(예.)

110005 #3 올레, 올레코시렌 헤근에 나그네 빌어다근에 그 이제 정월 날 거아니라?(올레, 올레고사라고 해서 나그네 빌어다가 그 이제 정월 올 거 아니야?)

110005 @ 예, 예예.(예, 예예.)

110005 #3 그 해를 저 헤난 하간 거 잘 뒈고.(그 해를 저 했던 모든 거 잘 되고.)

110005 @ 예.(예.)

110005 #3 건강하게 헤줍센 경헹 ᄒᆞ는 거.(건강하게 해주십사 그렇게 해서 하는 거.)

110005 @ 맞수다, 맞수다.(맞습니다, 맞습니다.)

110005 #3 그런 거 혀. 올레코시.(그런 거 해. 올레고사.)

110005 @ 올레코시를예.(올레고사를요.)

110005 #3 올레코시엔도 ᄒᆞ곡 문전코신엔도 ᄒᆞ고.(올레고사라고도 하고 문전고사라고도 하고.)

110005 @ 아, 이 안택을예?(아, 이 안택을요?)

110005 #3 이 ᄎᆞ례로 올레코시엔도 ᄒᆞ곡 문전코신엔도 ᄒᆞ고 경ᄒᆞ는 거라.(이 차례로 올레고사라고도 하고 문전고사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110005 @ 거난, 그 해에 뭐 농사를 잘 뒈게 헤달라고 한다든가 그런 거?(그러니, 그 해에 뭐 농사를 잘 되게 해달라고 한다든가 그런 거?)

110005 #3 응. 그거 헤여. 그런 거ᄒᆞ곡 사람 다 편안ᄒᆞ게 ᄒᆞ곡.(응. 그거 해. 그런 거하고 사람 다 편안하게 하고.)

110005 @ 거난 맞수다.(그러니 맞습니다.)

110005 #3 응, 그거 헹 비는 거. ᄒᆞᆫ 거 다 바쩡.(응, 그거 해서 비는 거. 한 것 다 바쳐서.)

110006 @ 그다음에는 보리밧 밟기, 정월 뒈면 그때 보리밧을 잘 안밟은덴 헷잖아예? 여기는예? 근데 그 어렸을 때 학교 갔을 때 일제 때 저 아이들안티 보리 밟으렌 헷덴 허멍예?(그다음에는 보리밭 밟기, 정월 되면 그때 보리밭을 잘 안 밟는다고 했잖아요? 여기는요? 그런데 그 어렸을 때 학교 갔을 때 일제 때 저 아이들한테 보리 밟으라고 했다고 하면서요?)

110006 #2 응.(응.)

110006 @ 어떤 식으로 밟아낫수과?(어떤 식으로 밟았었습니까?)

110006 #2 거, 아이들은 영 줄짓어근엥에 앞이 사름 그 영 등따리에 손 지퍼근엥에, 저 그자 아이덜 허믄 앞에 놈 뛰어가민 기자 조름에 메영 엿사 엿사 허멍 뛰멍 ᄇᆞᆯ봇지 무신 그거.(그, 아이들은 이렇게 줄지어서 앞에 사람 그 이렇게 등때기에 손 짚어서, 저 그저 아이들 하면 앞에 놈 뛰어가면 그저 꽁무니에 매어서 엿사 엿사 하면서 뛰면서 밟았지 뭐 그거.)

110006 @ 경헷구나예.(그랬군요.)

110007 @ 그다음엔 그 걸궁이 여기 마을엔 걸궁이 이서낫덴 헤신디예?(그다음엔 그 걸립이 여기 마을엔 걸립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110007 #3 응.(응.)

110007 @ 걸궁헷던 거 기억나는 대로 골아줍서.(걸립했던 거 기억나는 대로 말해주세요.)

110007 #3 걸궁은 엿날에 그거는 웨정 때라?(걸립은 옛날에 그거는 일제강점기 때야?)

110007 #2 해방 후엔데 그것이 어떻게 뒛냐하믄.(해방 후인데 그것이 어떻게 됐나하면.)

110007 @ 예.(예.)

110007 #2 수망리엔 우리 백부님이.('수망리'에는 우리 백부님이.)

110007 @ 예.(예.)

110007 #2 일본 웨정 때 일본 강 살앗는데.(일제강점기 때 일본 가서 살았는데.)

110007 @ 예.(예.)

110007 #2 거기서 돈을 모금헌 거라.(거기서 돈을 모금한 거야.)

110007 @ 예.(예.)

110007 #2 모금희언에 이자 그 나팔, 북 이거 저거 하튼 그디 필요한 거 전부 산에, 여기 기증을 헷거든.(모금해서 이제 그 나팔, 북 이거 저거 하여튼 거기 필요한 거 전부사서 여기 기증을 했거든.)

110007 @ 예.(예.)

110007 #2 기증을 헷는디, 딱 해방을 뒈니깐 들어왔어. 공로가 잇다고 헤서 이젠 그대로 그 해에 당장 오니까.(기증을 했는데, 딱 해방을 되니까 들어왔어. 공로가 있다고 해서 이젠 그대로 그 해에 당장 오니까.)

110007 @ 예.(예.)

110007 #2 이장 씌우고, 그대로 그해에 걸궁허곡, 막 헨에 걸궁허민 이 집안 우리 집, 거난 집집마다 다 돌앗주.(이장 씌우고, 그대로 그해에 걸립하고, 막 해서 걸립하면 이 집안 우리 집, 그러니 집집마다 다 돌았지.)

110007 @ 예.(예.)

110007 #2 이집에 오믄, 우선 여기 주연이.(이집에 오면, 우선 여기 주인이.)

110007 @ 예.(예.)

110007 #2 막 뭐 갖다 바찌고, 그 사람신디 막 헤낫주.(막 뭐 갖다 바치고, 그 사람에게 마구 했었지.)

110007 @ 음.(음.)

110007 #2 거면 막 돌아근에 올케 저 막 헤영 춤추고.(그러면 막 돌아서 옳이 저 마구 해서 춤추고.)

110007 #3 막 춤추고 경ᄒᆞ여.(막 춤추고 경ᄒᆞ여.)

110007 #2 춤추고 벨 디 왕 이 방안 다 돌아다니주게.(춤추고 별 데 와서 이 방

안 다 돌아다니지.)

110007 @ 음.(음.)

110007 #3 둥둥둥둥 둥둥둥둥 두둘기멍 막 춤추멍 하르방 통대, 하르방 촐령 ᄒᆞ는 사름, 궤기 나끄는 것에 꿩 ᄒᆞ는 사름, 무시거 막 출령 이거 저거 헹 출령, 걸궁이라고 들락히멍 헹 집마다 빙빙 돌아낫주게.(둥둥둥둥 둥둥둥둥 두들기며 마구 춤추며 할아버지 담배설대, 할아버지 차려서 하는 사람, 고기 낚는 것에 꿰어 하는 사람, 뭐 막 차려서 이거 저거 해서 차려서, 걸립이라고 날뛰며 해서 집마다 빙빙 돌았었지.)

110007 @ 그걸 언제까지 헷수과?(그걸 언제까지 했습니까?)

110007 #2 아, ᄒᆞᆫ 번.(아, 한 번.)

110007 #3 ᄒᆞᆫ 번.(한 번.)

110007 @ 아, ᄒᆞᆫ 번.(아, 한 번.)

110007 #2 ᄒᆞᆫ 번 혀, 거난 웨 언제 꺼지 못헷냐, 그추룩 헨에 ᄉᆞ십오 년도 해방뒈엇는디 ᄉᆞ십육년대 경 헤시니까.(한 번 해, 그러니 왜 언제 까지 못했나, 그처럼 해서 사십오 년도 해방되었는데 사십육 년도 그렇게 했으니까.)

110007 @ 예.(예.)

110007 #2 ᄉᆞ십오 년 그해 아 듯헤에 헷구나 헷는데.(사십오 년 그해 아 다음해에 햇구나 했는데.)

110007 #3 ᄉᆞ삼사건 난 ******.(사삼사건 난 ******.)

110007 #2 저, ᄉᆞ십칠 년도 여기가 제주도가 어지렁헷거든.(저, 사십칠 년도 여기가 제주도가 어지러워했거든.)

110007 @ 예, 예예.(예, 예예.)

110007 #2 경헨에 그게 그 헐 정신이 어디서.(그렇게 해서 그게 그 할 정신이 어디 있어.)

110007 @ 음.(음.)

110007 #2 젊은 사름은 피하기가 바빳는디.(젊은 사람은 피하기가 바빴는데.)

110007 @음.(음.)

110007 #2 헐 수가 없엇지. 건디 ᄉᆞ십팔 년에는 뭐 이디 뭐디 싹 다, 불부쩌불고.(할 수가 없었지. 그런데 사십팔 년에는 뭐 여기 뭐지 싹 다, 불붙여버리고.)

110007 #3 이디 ᄒᆞ여근에 기냥 테레비도 나오는 거 보민, 걸궁추룩 출령 막 출령 북 뚜드리멍 무시거 거 퀘지 두둘리고 막 헤난.(여기 해서 그냥 텔레비전도 나오는 거 보면, 걸립처럼 차려서 막 차려서 북 뚜드리며 무엇 그거 꽹과리 두드리고 마구 했었어.)

110007 #2 거난에 원 그때 그 사용헤난 용구를 누가 어떻게 처리헤버렸는지도 몰라.(그러니까 원 그때 그 사용했던 용구를 누가 어떻게 처리해버렸는지도 몰라.)

110007 #3 지국에 믄 간사부럿주 무신.(지국에 모두 간수해버렸지 뭐.)

110007 #2 밤에 그때 저 이 부락 그 사무 봐난 것도 어디 간 믄 묻어부럿젠 ᄒᆞᆫ

말이 이서.(밤에 그때 저 이 부락 그 사무 봤던 것도 어디 가서 모두 묻어버렸다는 한 말이 있어.)

110007 @ 아.(아.)

110007 #2 그믄 거 누가 발 누가 그걸 헤가지고 뭐 헤근엥에에.(그러면 그거 누가 발, 누가 그걸 해가지고 뭐 해서.)

110007 #3 그 사름 혼듸 카빗수다게. 에, 하영 곧지맙서. 불ᄉᆞ라비엉 헹 칸 거라.(그 사람 함께 타버렸습니다. 에, 많이 말하지 마세요. 불태워버려 해서 탄 거야.)

110007 #2 아, 불ᄉᆞ라비엉 카분 것도 잇고, 그데론 그때 헨에. 그 저.(아, 불태워버려 타버린 것도 있고, 그대로는 그때 했어. 그 저.)

110007 #3 시국[280]난에 집이멍 무시거 ᄆᆞ딱 부떠부난 그런 거 농 움직이멍 어디 아무것도 어시난 ᄆᆞ딱 칸거우다. 다 카비수다. 쓸사람도 엇어불고.('시국'나서 집이며 무엇 모두 불붙어버려서 그런 거 농 움직이며 어디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두 탄 겁니다. 다 타버렸습니다. 쓸 사람도 없어버리고.)

110007 @ 음.(음.)

110007 #3 사람 막 하영 죽어비언. 수망리.(사람 매우 많이 죽어버렸어. '수망리'.)

110008 @ 그다음에는예, 어, 그 정월에는 그 입춘하고 우수가 이신디예 입춘에는 어떵 헷수과?(그다음에요, 어, 그 정월에는 그 입춘하고 우수가 있는데 입춘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110008 #3 입춘에는.(입춘에는.)

110008 @ 예.(예.)

110008 #3 남자들은 가고 여저덜은 올레벳긧디 안 나가.(남자들은 가고 여자들은 올레밖에 안 나가.)

110008 @ 맞수다예.(맞습니다.)

110008 #3 응. 경헨, 첨.(응. 그랬어, 참.)

110008 @ 지금도 경헴수과?(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110008 #3 지금덜은 대게 경 아녜여. 그때추룩 아녀민. 시간 얼마니 든다, 무신 시간 보젠ᄒᆞ곡 엿날은.(지금들은 대게 그렇게 안 해. 그때처럼 안 해. 시간 얼마나 든다, 무슨 시간 보려하고 옛날은.)

110008 #2 요센 경로당 이시난 경로당에 막 모여.(요사인 경로당 있으니까 경로당에 막 모여.)

110008 @ 게믄 그때 뭐 입춘대길이니 헤가지고 저기 대문에 부치고도 헤낫수과?(그러면 그때 뭐 입춘대길이니 해서 저기 대문에 붙이고도 했었습니까?)

110008 #3 아니, 그런 거 엇고.(아니, 그런 거 없고.)

110008 #2 아니, 부찌는 사름도 잇주. 지금도 부찌는데 이서.(아니, 붙이는 사람

280) 여기서 '시국'은 제주 4·3을 말한다.

도 있지. 지금도 붙이는데 있어.)

110008 @ 지금도 부찌는데.(지금도 붙이는데.)

110008 #3 몰라, 난 아직거정 부찌지지 아년 살아부난.(몰라, 난 아직까지 붙이지 않고 살아버려서.)

110008 #2 지금도 부쩌. 저 그 엿날에 그 한문서당에 뎅여난 사름덜은 거의 부쩌.(지금도 붙여. 저 그 옛날에 그 한문서당에 다녀난 사람들은 거의 붙여.)

110008 @ 예.(예.)

110008 #2 그 저 허는 건디, 거 아녀는 사람들은.(그 저 하는 건데, 거 안 하는 사람들은.)

110008 @ 음, 우수에는 뭐 안헷수과?(음, 우수에는 뭐 안했습니까?)

110008 #3 우수가 무시거라? 나 것도 몰라.(우수가 뭐라? 나 그것도 몰라.)

110008 @ 절기.(절기.)

110008 #2 우수, 나무 절기 닮은 거, 우수 저 우수가 정월 중.(우수, 나무 절기 같은 거, 우수 저 우수가 정월 중.)

110008 #3 그런 거 엇엇어. 우수여 무시거여.(그런 거 없었어. 우수야 뭐야.)

110008 #2 우수, 경칩 다 잇주게.(우수, 경칩 다 있지.)

110008 #3 엇어. 새철에만 여저덜 어디 못나가게 ᄒᆞ고.(없어. 입춘에만 여자들 어디 못나가게 하고.)

110008 #2 요즘.(요즘.)

110008 #3 동지엔 죽썽 먹을 거 그런 거.(동지엔 죽 쒀 먹을 거 그런 거.)

110008 @ 우수는예 양력으로 이월 십구일 인데예 어 눈이 녹아가지고 어 비나 물이 뒈어가지고 곧 날씨가 풀린다 라는 그런 의미의 날이거든마씨.(우수는요 양력으로 이월 십구 일인데요, 어, 눈이 녹아가지고 어, 비나 물이 되어가지고 곧 날씨가 풀린다라는 그런 의미의 날이거든요.)

110008 #3 아, 그런 것 헤영, 절기루 그런 말은 헤도 무시거 ᄒᆞ는 양은 엇어.(아, 그런 것 해서, 절기로 그런 말은 해도 뭐 하는 양은 없어.)

2월

110009 @ 거난예. 어 그다음엔 이월에 넘어갈게예. 어 이월예, 이월에는 그 연등제 여긴 안헤낫수과?(그러니까요. 어 그다음엔 이월에 넘어갈게요. 어, 이월이요, 이월에는 그 연등제 여긴 안했었습니까?)

110009 #3 아녀, 아녀연.(안 해, 안 했어.)

110009 @ 안헤낫덴 헷잖아예? 바다가 아니난예?(안했었다고 했잖아요? 바다가 아니어서요?)

110009 #3 바다가 아니난 엇주.(바다가 아니어서 없지.)

110010 @ 그다음 그 경칩이나 춘분이 오는데 그때 뭐헤낫수과? 경칩.(그다음 그 경칩이나 춘분이 오는데 그때 뭐했었습니까? 경칩.)

110010 #3 그런 것도.(그런 것도.)

110010 #2 에, 그런 거 별로 아녀.(에, 그런 거 별로 안 해.)

110010 #3 그런 거, 우리 둘이 몰라.(그런 거, 우리 둘이 몰라.)

110010 @ 혹시 경칩에 어, 경칩에 무슨 일을 한다, 라던가 이런 말은 안 들어봣수과?(혹시 경칩에 어, 경칩에 무슨 일을 한다, 라던가 이런 말은 안 들어 봤습니까?)

110010 #3 난 못 들언.(난 못 들었어.)

110010 #2 그런 거 엇엇나서.(그런 거 없었어.)

110010 #3 절기들은 어떵어떵 곧는 것들도 어떵헌 건지 나 몰라.(절기들은 어떻게 어떻게 말하는 것들도 어떻게 한 건지 나는 몰라.)

110010 @ 그 개구리가 경칩엔 개구리가 깨어난덴 허잖아예?(그 개구리가 경칩엔 개구리가 깨어난다고 하잖아요?)

110010 #3 게메, 그런 말은 들어도 몰라. 무시거 뒈민 십년이 뒈민 강산도 변흔다, 어떤 말도 들어도 어떵사 ᄒᆞ는디 몰라.(글쎄, 그런 말은 들어도 몰라. 뭐 되면 십년이 되면 강산도 변한다, 어떤 말도 들어도 어떻게야 하는지 몰라.)

3월

110011 @ 삼월엔 이젠, 삼월에 넘어가 볼게예. 한식이 잇잖아예, 한식.(삼월엔 이젠, 삼월에 넘어가 볼게요. 한식이 있잖아요, 한식.)

110011 #3 한식 엿날엔 헤낫주 웨정 때.(한식 옛날엔 했었지 일제강점기 때.)

110011 @ 겨난 한식 어, 웨정 땐 헤낫수과?(그러니까 한식 어, 일제강점기 땐 했었습니까?)

110011 #3 웨정 땐 엿날이난에, 그때 웨정 때 아니라? 한식. 웨정 때 뒐 때 설러비언[281] 못ᄒᆞ게 헤신가?(일제강점기 땐 옛날이어서, 그때 일제강점기 때 아니라? 한식. 일제강점기 때 될 때 '끝내버려서' 못하게 했나?)

110011 #2 어디?(어디?)

110011 #3 아니, 저 한식이 웨정 때 못 ᄒᆞ게 헤나서. 못 ᄒᆞ게, 안 헷주. 그때 ᄒᆞ당 웨정 때부터 설른 거 닮아.(아니, 저 한식이 일제강점기 때 못 하게 했었어. 못하게, 안 했지. 그때 하다가 일제강점기 때부터 '끝내버린' 거 같아.)

110011 #2 웨정 때 저 정월명질도 양력으로 답달헨에 양력으로 헤낫어. 음력으로 못허게 허난.(일제강점기 때 저 정월명절도 양력으로 닦달해서 양력으로 했었어. 음력으로 못하게 하니까.)

110011 @ 예, 원래 한식은 사월 육일날 음력이다예? 음력이라예.(예, 원래 한식은 사월 육일 음력이네요? 음력이에요.)

110011 #2 어, 어.(어, 어.)

---

281) '설러비언'의 기본형은 '설르다'이다. 그 의미로는 ㉠'끝내다.', '마치다.', '그만두다.'와 ㉡ '설거지하다.' ㉢ '벌여 놓은 것을 치우다.'가 있다. 여기서 '설러비언.'은 ㉠에 해당한다.

110011 @ 그때는 이제 그.(그때는 이제 그.)

110011 #3 엿날엔 ᄒᆞ쏠 헤낫어.(옛날엔 조금 했었어.)

110011 #2 한식은 저 음력으론 이월 달이주.(한식은 저 음력으론 이월 달이주지)

110011 #3 웨정 때는 헤난 거 닮다.(일제강점기 때는 했었던 거 같다.)

110011 @ 예, 경 뭴 거우다.(예, 그렇게 될 겁니다.)

110011 #3 못ᄒᆞ게 헤난헷어, 웨정 때 한식.(못하게 했었어, 일제강점기 때 한식.)

110011 @ 게민 그 한식날 저기 어 조상 무덤에 가근에 제 지내거나 절도 안헷수과?(그러면 그 한식날 저기 어 조상 무덤에 가서 제 지내거나 절도 안했습니까?)

110011 #3 그런 거 아녀.(그런 거 안 해.)

110011 #2 한식이 ᄉᆞ월 오 일이냐? 사 일? 오 일?(한식이 사월 오 일이니? 사 일? 오 일?)

110011 @ 예. 사월 오 일예.((예. 사월 오 일이요.)

110011 #3 오월 오 일날 멩질 헷주.(오월 오 일 명절 했지.)

110011 #2 아니, 오월 멩질은 단오고, 단오 말고 한식이 그 양력으로.(아니, 오월 명절은 단오고, 단오 말고 한식이 그 양력으로.)

110011 @ 사월 오 일이나 사월 육 일쯤마씨.(사월 오 일이나 사월 육 일쯤이요.)

110011 #2 아, 거난 입추 입춘이 ᄉᆞ월 오 일 뒈곡, 한식은 ᄉᆞ월 육 일 될 때가 잇주.(아, 그러니까 입추 입춘이 사월 오 일 되고, 한식은 사월 육 일 될 때가 있지.)

110011 @ 아니, 입춘은 이월 사 일이나 이월 오 일 뒈고예.(아니, 입춘은 이월 사 일이나 이월 오 일 되고요)

110011 #3 입춘은 저 새철 아니꽈?(입춘은 저 '새철' 아닙니까?)

110011 #2 입춘이 아니고 식목일.(입춘이 아니고 식목일.)

110011 @ 예, 식목일이 사월 오 일이난 거의 그때 한식하고 겹쳐예.(예, 식목일이 사월 오 일이니까 거의 그때 한식하고 겹쳐요.)

110011 #3 헤난 건 알아지는디.(했었던 건 알아지는데.)

110011 #2 식목일 허고 한식 허고 겹쳐지는구나.(식목일 하고 한식 하고 겹쳐지는구나.)

110012 @ 예, 맞수다. 예, 그다음 청명이나 곡우에 대헤 들어봣수과?(예, 맞습니다. 예, 그다음 청명이나 곡우에 대해 들어봤습니까?)

110012 #3 아, 청맹이엔 흔 건 청맹 날은 뭐 어디 산에 강 그 산에 무신 테가 잘못뒈엉 혹, 테 안 입은 디 이시민 그런 것도 입지고, 그런 날이 청맹이엔 좋은 날이엔 헤근에.(아, 청명이이라고 한 건 청명 날은 뭐 어디 산에 가서 그 산에 무슨 떼가 잘못되어 흙, 떼 안 입은 데 있으면 그런 것도 입히고, 그런 날이 청명이라고

좋은 날이라고 해서.)

110012 @ 맞수다.(맞습니다.)

110012 #3 응, 그런 거 헤.(응, 그런 거 해.)

110012 @ 경 헤낫지예?(그렇게 했었지요?)

110012 #3 응.(응.)

4월

110013 @ 그다음엔 어, 사월에 들어가지고 이건 사월 초파일은 무신 날이꽈?(그다음엔 어, 사월에 들어가지고 이건 사월 초파일은 무슨 날입니까?)

110013 #3 초파일은 무시거게.(초파일은 뭐야.)

110013 #2 저, 저기 아니?(저, 저거 아냐?)

110013 @ 예. 이건 지금 음력으로 물어보는 거라예. 사월 초파일날 절에 감수과?(예. 이건 지금 음력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사월 초파일날 절에 가십니까?)

110013 #3 아니, 난 절에 안 뎅겨. 뎅기는 사름은 다 가.(아니, 난 절에 안 다녀. 다니는 사람은 다 가.)

110013 @ 아, 어디?(아, 어디?)

110013 #2 ᄉᆞ월 초파일날은 다들 절간에 가는 사람은 다 가서.(사월 초파일날은 다들 절간에 가는 사람은 다 갔어.)

110013 #3 다 가.(모두 가.)

110013 @ 아, 아무데도 안다념수과?(아, 아무데도 안다니십니까?)

110013 #3 난 안 가.(난 안 가.)

110013 @ 교회도 안다니고예?(교회도 안다니고요?)

110013 #3 응. 교회도 아니 믿고, 아무 디도 안다녀.(응. 교회도 아니 믿고, 아무데도 안다녀.)

110013 #2 ᄉᆞ월 초파일 뒈면 서귀포 그 저 일호광장 쯤은 거기 인파 형편엇이 하주.(사월 초파일 되면 서귀포 그 저 일호광장 쯤은 거기 인파 형편없이 많지.)

110013 #2 다니는 사름은 다니는디.(다니는 사람은 다니는데.)

110013 @ 예, 막 전날 많아예.(예, 매우 전날 많아요.)

110013 #3 절 믿는 사름은 믿는디 ᄀᆞ싸 ᄀᆞᆯ아 맞다. 젊을 때는 그 저 무시거 거 다 헤논 거 앗단 저 밀감이멍 무시거 멍 잘 뒈줍센 바찌는 거, 거 올레코시.(절 믿는 사람은 믿는데 아까 말해 맞다. 젊을 때는 그 저 뭐 그거 다 해놓은 거 가져다가 저 밀감이며 무엇이며 잘 돼달라고 바치는 거, 그거 올레고사.)

110013 @ 예.(예.)

110013 #3 그거뿐이자락, 안 가멘.(그거뿐이지, 안 가.)

110014 @ 음, 경헷구나예. 어, 그 사월에는 절기로는 입하하고 소만이라고 잇는데 혹시 그건 들어 봣수과? 입하, 소만.(음, 그랬군요. 어, 그 사월에는 절기로는 입하하고 소만이라고 잇는데 혹시 그건 들어 봤습니까? 입하, 소만.)

110014 #3 몰라.(몰라.)
110014 @ 몰라예?(몰라요?)

5월

110015 @ 그다음엔 오월에 대헤서는 또 이거는 옛날에는 이제 명절 중에서 사대명절 중에 하나라예. 오월 단오가예.(그다음엔 오월에 대해서는 또 이거는 옛날에는 이제 명절 중에서 사대명절 중에 하나지요. 오월 단오가요.)
110015 #3 헤낫주게, 엿날에.(했었지, 옛날에.)
110015 @ 오월 단오는 옛날에 어떵 헤낫수과? 생각나는 대로 ᄀᆞᆯ아줍서.(오월 단오는 옛날에 어떻게 했었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말해주세요.)
110015 #3 그것도게 정월멩질 허듯 헤영.(그것도 정월명절 하듯 해.)
110015 @ 예.(예.)
110015 #3 저 떡 헤놓곡 메 헤놓곡 다 헤영.(저 떡 해놓고 메 해놓고 다 해.)
110015 @ 음.(음.)
110015 #3 그런 거 꼭ᄀᆞ뜻.(그런 거 똑같아.)
110015 @ 음.(음.)
110015 #3 정월멩질이랑 똑ᄀᆞ트게 헤낫주.(정월명절이랑 똑같게 했었지.)
110015 @ 음.(음.)
110015 #3 이젠 팔월멩질 ᄒᆞ곡 정월 멩질만 헤는디.(이젠 팔월명절 하고 정월명만 하는데.)
110015 @ 이제 안하는데예?(이제 안하는데요?)
110015 #3 응, 떨어둠에 멩질ᄒᆞ는 건 꼭ᄀᆞ타.(응, 떨어둠에 명절 하는 건 똑같아.)
110015 @ 음.(음.)
110015 #3 꼭ᄀᆞ트는디 아네여.(똑같은데 안 해.)
110015 @ 음.(음.)
110015 #3 첨, 오월멩질 아녀고 한식 아녀고 팔월멩질 ᄒᆞ곡 정월멩질만 헴주.(참, 오월명절 안 하고 한식 안 하고 팔월명절 하고 정월명절만 하지.)
110016 @ 그 오월 단오명절도 잇엇지만 또 오월에는 망종하고 하지라는 절기가 또 이서예.(그 오월 단오명절도 있었지만 또 오월에는 망종하고 하지라는 절기가 또 있어요.)
110016 #3 아, 그런 것에도 절기여 헤여근엥 절기 ᄯᅳ랑 하간 거 절기가 어떵 돌아가는 거 안 뿐이주, 그런 것에 무시거 ᄒᆞ던 아녀고.(아, 그런 것에도 절기야 해서 절기 따라서 여러 가지 것 절기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 아는 뿐이지, 그런 것에 무엇 하지는 않고.)
110016 @ 음.(음.)
110016 #3 겨민 그 절기 ᄯᅳ라근에 농사 ᄒᆞ는 거.(그러면 그 절기 따라서 농사

하는 거.)

110016 @ 예.(예.)

110016 #3 거 어느 때 뒈믄 아무 거 헤살로구나, 아무 절기엔 아무거로구나 ᄒᆞ쏠 경 뒛구나, 그런 계산만 ᄒᆞ는 거.(그 어느 때 되면 아무 거 해야겠구나, 아무 절기엔 아무 거로구나, 조금 그리 됐구나, 그런 계산만 하는 거.)

110016 @ 그때 농사지을 때 뭐 이때 뒈면 뭐 이제 콩을 간다든가 이런 건 엇엇수과?(그때 농사지을 때 뭐 이때 되면 뭐 이제 콩을 간다든가 이런 건 없었습니까?)

110016 #3 게난 그런 절기를 생각헌 거.(그러니 그런 절기를 생각한 거.)

110016 @ 거 생각하멍예.(그거 생각하면서요.)

110016 #3 응. 절기 생각형 어느 때가 저 무시거 하지여 초복여 말복이여 헤가민 그 농세 ᄒᆞ는 거.(응. 절기 생각해서 어느 때가 저 뭐 하지여 초복이야 말복이야 해가면 그 농사하는 거.)

110016 #2 그때는 게 조곰 생각이 낫는데.(그때는 그 조금 생각이 났는데.)

110016 @ 예.(예.)

110016 #2 요세는 우리 그런 거아녀 놓니까.(요새는 우리 그런 거안해 놓으니까.)

110016 @ 예.(예.)

110016 #2 아, 어느 때 넘어가는지를 몰르는 거주.(아, 어느 때 넘어가는지를 모르는 거지.)

110016 @ 맞아예.(맞아요.)

110016 #3 농시 홀 때 그 절기를 때 쓰는 거라.(농사 할 때 그 절기를 때 쓰는 거야.)

110016 #2 이제 절기도 몰라 이젠 이져부런. 헤낫자 그거 어디 강 그거에 따라근에 뭘 헤야 생각이 나곡 허주. 요새 그런 걸 아네놓니까.(이제 절기도 몰라 이젠 잊어버렸어. 했어도 그거 어디 가서 그거에 따라서 뭘 해야 생각이 나고 하지. 요새 그런 걸 안 하니까.)

110016 #3 초복이여 중복이여 말복이여 ᄒᆞᆫ 거는 어느 때 뒈민 ᄆᆞᄁᆞ곡 시작ᄒᆞ곡 그런 거 생각만 헹 살앗주.(초복이야 중복이야 말복이야 한 거는 어느 때 되면 마치고 시작하고 그런 거 생각만 해서 살았지.)

110016 @ 게난 보리씨 뿌릴 때 보리씨를 언제 뿌렷수과? 보리씨.(그러니 보리씨 뿌릴 때 보리씨를 언제 뿌렸습니까? 보리씨.)

110016 #3 보리씨가?(보리씨가?)

110016 @ 예.(예.)

110016 #3 음력 구월.(음력 구월.)

110016 @ 음력 구월예?(음력 구월이요?)

110016 #3 음력 동짓ᄃᆞᆯ.(음력 동짓달.)

110016 #2 구월.(구월.)

110016 @ 산듸는마씨?(밭벼는요?)

110016 #3 응?(응?)

110016 @ 산듸, 산듸.(밭벼, 밭벼.)

110016 #3 산듸는 음력 ᄉᆞ월 ᄃᆞᆯ이라실 게라.(밭벼는 음력 사월 달이었을 거야.)

110016 @ 혹시 음력 사월 그때가 혹시 망종이나 하지나 그때 아니엿수과?(혹시 음력 사월 그때가 혹시 망종이나 하지나 그때 아니었습니까?)

110016 #3 아니, 하지는 일르고.(아니, 하지는 이르고.)

110016 @ 예.(예.)

110016 #3 망종은 보리 ᄀᆞ슬[282] 망종 넘은.(망종은 보리 '철' 망종 넘은.)

110016 #2 하지가 저, 유월 절 보름 전엔데 하지 저, 하지 넘어야 아, 겐디 산듸는.(하지가 저, 유월 절 보름 전인데 하지 저, 하지 넘어야 아, 그런데 밭벼는.)

110016 #3 망종.(망종.)

110016 #2 하지 전이 헷일 거라.(하지 전에 했을 거야.)

110016 #3 ᄉᆞ월 날 뻐꾹새 울어 가민 ᄒᆞ는 거 뻐꾹새 울어 가민 ᄒᆞ는 건디.(사월 날 뻐꾹새 울어 가면 하는 거 뻐꾹새 울어 가면 하는 건데.)

110016 @ 그 뻐꾹새 우는 게 망종일 거 닮을꽈? 하지일 거 닮을꽈? 하지 전?(그 뻐꾹새 우는 게 망종일 거 같은가요? 하지일 거 같은가요? 하지 전?)

110016 #3 아, 망종이 넘엉.(아, 망종이 넘어서.)

110016 @ 넘엉.(넘어서.)

110016 #3 그 저 산딧그르 저 보릿그르에 간 늬을[283] 지난에 산듸.(그 저 밭벼 그루 저 보리그루에 간 '늬을' 지난에 밭벼.)

110016 #2 산딧그르 산듸 지금 산딧그르를 ᄇᆞᆯ르는 게 아니라 산듸 ᄇᆞᆯ릴 때를 말하는 거 아니라.(밭벼그루 밭벼 지금 밭벼그루를 밟는 게 아니라 밭벼 파종할 때를 말하는 거 아니야.)

110016 #3 망종 전이 산듸 ᄒᆞ는 거 닮아.(망종 전에 밭벼 하는 거 같아.)

110016 @ 망종 전에?(망종 전에?)

110016 #3 응.(응.)

110016 #2 산듸는 이 저 조 ᄀᆞ튼 거 보다 헐신 빨리 허주게.(밭벼는 이 저 조 같은 거 보다 훨씬 빨리 하지.)

110016 @ 음.(음.)

110016 #3 제기ᄒᆞ는 거. 게난 그 뻐꾹새 나민 때 뒛젠 ᄀᆞᆫ는 건디.(빨리하는 거. 그러니 그 뻐꾹새 오면 때 됐다고 말하는 건데.)

110016 #2 헐씬 빨리허주.(훨씬 빨리하지.)

110016 #3 엿날에 좋은 밧디는 그 보리 비어동 그 거디에도 산듸 헐 수가 잇는

282) 'ᄀᆞ슬'은 표준어 '가을' 또는 '곡식'을 뜻하지만 여기서는 '계절'혹은 '철'을 말한다.
283) '늬을'은 정확한 의미를 찾지 못함.

디.(옛날에 좋은 밭에는 그 보리 베어두고 그 거기에도 밭벼 할 수가 있는데.)

110016 #2 저 조 ᄀᆞ튼 건 저 유월절 가까워야 하는데, 하지 넘엉 하는데 산듸는 하지 전에 하주.(저 조 같은 건 저 유월절 가까워야 하는데, 하지 넘어서 하는데 밭벼는 하지 전에 하지.)

110016 #3 망종 뒈면은 보리를.(망종 되면 보리를.)

110016 @ 음. 하지 전에?(음, 하지 전에.)

110016 #3 응. 하지 전에 ᄒᆞ곡 산듸는 망종 전이 불려.(응. 하지 전에 하고 밭벼는 망종 전에 파종해.)

110016 @ 망종 전에.(망종 전에.)

110016 #3 망종 전이 불르곡, 망종이 뒈민 못 먹을 곡석이 엇다는 못 빌 보리가 엇다 ᄒᆞ메.(망종 전에 파종하고, 망종이 되면 못 먹을 곡식이 없다는 못 벨 보리가 없다고 해.)

110016 @ 음.(음.)

110016 #3 망종 뒈며는 못 빌 보리가 엇다. 보리 다 비게 뒌다ᄒᆞ는 거.(망종 되면 못 벨 보리가 없다. 보리 다 베게 된다하는 거.)

110016 @ 음.(음.)

110016 #3 거난 응, 조곰 망종 전이 산듸 불린 거 닮아.(그러니 응, 조금 망종 전에 밭벼 밟은 거 같아.)

110016 @ 음.(음.)

110016 #3 뻐꾹새 그 조 불리는 건 유월절이 거 그자 보뎌 강ᄒᆞ고.(뻐꾹새 그 조 밟는 건 유월절에 그거 그저 가까워 가서하고.)

110016 @ 뻐꾹새.(뻐꾹새.)

110016 #3 하지 넘으민은 산듸 ᄀᆞ튼 건 불려 가는 거라.(하지 넘으면 밭벼 같은 건 파종해 가는 거야.)

110016 @ 뻑꾹새 울면 씨 뿌린덴예? 저 산듸 씨 뿌린다.(뻐꾹새 울면 씨 뿌린다고요? 저 밭벼 씨 뿌린다.)

110016 #3 응. 뻐꾹새 울며는.(응. 뻐꾹새 울며는.)

110016 @ 게, 그때도 뻐꾸기렌 헷수과?(그래, 그때도 뻐꾸기라고 했습니까?)

110016 #3 뻐꾸기엔 ᄀᆞᆯ앗주게. 뻐꾹 뻐꾹 헤여.(뻐꾸기라고 말했지. 뻐꾹 뻐꾹 해.)

110016 #2 거 아, 거 뻐꾹 뻐꾹 허난 뻐꾸기렌 그 이름은.(거 아, 거 뻐꾹 뻐꾹 하니까 뻐꾸기라고 그 이름은.)

110016 #3 뻐꾸기엔 떡국새엔사 ᄀᆞᆯ아신디. 떡국 떡국 ᄒᆞ난 떡국새엔 ᄀᆞᆯ아실 거 닮아. 몰라, 어떵사 헤신디. 떡꾹새여 뻐꾹새여 ᄒᆞ난 떡꾹새 닮아. 떡꾹 떡꾹 떡꾹새 떡꾹새 닮다. 뻐꾹기가 아니고 떡꾹새.(뻐꾸기엔 떡국새라고 말했는지. 떡국 떡국 하니까 떡국새라고 말했을 거 같아. 몰라, 어떻게야 했는지. 떡꾹새야 뻐꾹새야 하니까 떡꾹새 같아. 떡꾹 떡꾹 떡꾹새 떡꾹새 같다. 뻐꾹기가 아니고 떡꾹새.)

110016 @ 떡꾹새예?(뻐꾸기요?)
110016 #3 응.(응.)

6월

110017 @ 그다음엔 그 유월이 뒈면 저 독 잡아먹는 날 잇잖아예?(그다음엔 그 유월이 되면 저 닭 잡아먹는 날 있잖아요?)
110017 #3 응. 유월 쓰무날.(응. 유월 스무날.)
110017 @ 유월 쓰무날예?(유월 스무날이요?)
110017 #3 응.(응.)
110017 @ 그날을 뭐렌 골앗수과?(그날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110017 #3 유월 쓰무날 뒈민 독 잡아먹넨 경 골앗주게 무신 거엔 골아.(유월 스무날 되면 닭 잡아먹는다고 그렇게 말했지 무슨 거라고 말해.)
110017 @ 그날을 복날이라든가 이런 날이렌 곧지 안헷수과?(그날을 복날이라든가 이런 날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110017 #3 무신, 곧든 아녀고 유월 쓰무날 독 잡아먹넨. 기자 경 골안.(무슨, 말하진 않고 유월 스무날 닭 잡아먹는다고. 그저 그렇게 말했어.)
110017 @ 겐 독 잡안에 먹엇수과?(그래서 닭 잡아서 먹었습니까?)
110017 #3 먹엇주게. 이젠 요센 그런 거 저런 거 아년디, 엿날은 독 질룰 때난 똑 그때는 잡앙 먹엇는디.(먹었지. 이젠 요샌 그런 거 저런 거 않는데, 옛날은 닭 키울 때니까 꼭 그때는 잡아서 먹었는데.)
110017 @ 음.(음.)
110017 #3 이제는 사멍도 먹는 사름은 먹는디, 우리 이젠 그거저거 아녕 살아. 먹는 것도 설러불고 기자, 당ᄒᆞ민 먹곡, 주민 먹곡, 안 주민 말곡, 경헹 살암주게.(이제는 사멍도 먹는 사름은 먹는디, 우리 이젠 그거저거 아녕 살아. 먹는 것도 설러불고 기자, 당ᄒᆞ민 먹곡, 주민 먹곡, 안 주민 말곡, 경헹 살암주게.)
110017 @ 그민 저기 그 뚤이나 아들들, 독 잡앙먹는 날이렌 헤가지고 저기 독 상 안 와마씨?(그러면 저기 그 딸이나 아들들, 닭 잡아먹는 날이라고 해가지고 저기 닭 사서 안 오나요?)
110017 #3 아니, 뚤이나 아덜덜은 어느 날 오는고 ᄒᆞ민, 어머니생일, 아버지생일, 어머니날 그런 거벳긴.(아니, 딸이나 아들들은 어느 날 오는가 하면, 어머니생일, 아버지생일, 어머니날 그런 거밖엔.)
110017 #2 거, 독 잡아먹는 날 가네들은 생각도 안 헴서. 요세사.(거, 닭 잡아먹는 날 애들은 생각도 안 해. 요새야.)
110017 #3 우리사 그 생각헹 헴주만은.(우리야 그 생각해서 하지만.)
110017 #2 요세 가네들은 생각도 안혜.(요새 애들은 생각도 안 해.)
110017 #3 독들은 아무 때나 그냥 먹으난게.(닭들은 아무 때나 그냥 먹으니까.)
110017 @ 맞수다.(맞습니다.)

110017 #3 응, 먹으난 그거 중허게 생각 아녕.(응, 먹으니까 그거 중요하게 생각 않아서.)

110017 #2 아, 그런 생각도 아녜.(아, 그런 생각도 안 해.)

110017 #3 어멍 아방 생일에나.(어머니 아버지 생일에나.)

110017 @ 예.(예.)

110017 #3 어머니날에나, 그런 거 생각ᄒᆞ주. 독 잡아먹는 것에 생각 원 아녜여.(어머니날에나, 그런 거 생각하지. 닭 잡아먹는 것에 생각 절대 안 해.)

110018 @ 그믄예 그 초복, 중복, 말복이라는 말은 들어 봣잖아예?(그러면요 그 초복, 중복, 말복이라는 말은 들어 봤지요?)

110018 #3 응. 그런 절기사 알주게.(응. 그런 절기야 알지.)

110018 @ 그 초복, 중복, 말복엔 뭐 헷수과? 삼복에.(그 초복, 중복, 말복엔 뭐 했습니까? 삼복에.)

110018 #3 ᄒᆞ믄 무시거ᄒᆞ여. 그자 초복 뒈민은 무시거헤 누구나 말복 뒈민 무시거 끗낫구나, 그런 거 생각만 헹 살앗주.(하면 뭐해. 그저 초복 되면 무엇해 누구나 말복 되면 무엇 끝났구나, 그런 거 생각만 해서 살았지.)

110018 @ 음.(음.)

110018 #3 그런 거 엇어.(그런 거 없어.)

110019 @ 기구나. 그다음에 혹시 소서나 대서에는 뭐 헤낫수과?(그렇구나. 그다음에 혹시 소서나 대서에는 뭐 했었습니까?)

110019 #3 그 소설이여 대설이여 그런 말만 들엇주.(그 소설이여 대설이여 그런 말만 들었지.)

110019 #2 소설허곡 소서하고 뜰려.(소설하고 소서하고 달라.)

110019 @ 소서, 대서.(소서, 대서.)

110019 #3 말만 들엇주. 우린 ᄒᆞ는 거 엇어.(말만 들었지. 우린 하는 거 없어.)

110019 @ 소서나 대서 그거는 겐 무슨 날이렌 헨 만들엇수과?(소서나 대서 그거는 그래서 무슨 날이라고 해서 만들었습니까?)

110019 #3 그것도 절기 아니?(그것도 절기 아닌가?)

110019 @ 예. 절긴데.(예. 절긴데.)

110019 #2 아, 절긴디 지금 우리가 나가 소서가.(아, 절긴데 지금 우리가 내가 소서가.)

110019 #3 우리 절기가 얼마니 돌아감구나 그런 것만 알안.(우리 절기가 얼마나 돌아가는 구나 그런 것만 알아.)

110019 @ 음.(음.)

110019 #2 그 소서가 그 저 머냐면 중이냐 저 거시기냐주 저게.(그 소서가 그 저 뭐냐면 중인지 저 거시긴지 저게.)

110019 @ 얼마나 더운지 소서면 덥기 시작할 때고 뭐 이제.(얼마나 더운지 소서면 덥기 시작할 때고 뭐 이제.)

110019 #3 그런 계산만 헤서 살아.(그런 계산만 해서 살아.)

110019 @ 예.(예.)

110019 #2 게난 저것이 소서민, 저 오월 중순 거먼 두 유월절 대서믄 유월절 일일 식이주.(그러니 저것이 소서면, 저 오월 중순, 그러면 두 유월절 대서면 유월절 일일 식이지.)

110019 @ 예.(예.)

110019 #2 것도 보름에 한 번씩이 거든 그게.(것도 보름에 한 번씩이 거든 그게.)

110019 @ 예 맞수다.(예 맞습니다.)

110019 #2 딱 보민 그런 절기주게.(딱 보면 그런 절기지.)

110019 #3 그런 절기사, 그런 생각만 헹 살아.(그런 절기야, 그런 생각만 해서 살아.)

110019 #2 딱 보름에 한 번씩이난.(딱 보름에 한 번씩이니까.)

110019 @ 음.(음.)

110019 #2 건디 그걸 영헹 관심에 뒁 헤지민은, 난 원 그런 거에 관심이 안 둬지기 따문 원, 어느 때가 소선지 어느 때가 대선지 하낫토 못 웨와.(그런데 그걸 이렇게 해서 관심에 둬서 해지면, 난 원 그런 거에 관심이 안 두기 때문 원, 어느 때가 소선지 어느 때가 대선지 하나도 못 외워.)

110019 @ 예.(예.)

110019 #3 농서ᄒᆞ곡 끗나곡 그런 거 홀 때 재엇주 이젠 원.(농사하고 끝나고 그런 거 할 때 재었지 이젠 원.)

7월

110020 @ 그럼 칠월에 들어가지고예 어, 칠월 칠석엔 뭐 헤낫수과?(그럼 칠월에 들어가지고요 어, 칠월 칠석엔 뭐 했었습니까?)

110019 #3 칠월 칠석에도 절간가는 사름 막 하곡.(칠월 칠석에도 절간가는 사람 막 많고.)

110019 @ 예.(예.)

110019 #3 엿날에 저 칠월 칠석에는 임금님 걸어 간 날이엔 헹 꼭 그날에 비 ᄒᆞᆫ방울이라도 ᄒᆞ덴 엿날에 곧는 거 들언.(옛날에 저 칠월 칠석에는 임금님 걸어 간 날이라고 해서 꼭 그날에 비 한 방울이라도 온다고 옛날에 말하는 거들었어.)

110019 @ 혹시 견우와 직녀라는 말은 안 들어봣수과?(혹시 견우와 직녀라는 말은 안 들어봤습니까?)

110019 #3 난 몰라.(난 몰라.)

110019 #2 게메, 우리 듣긴 허는디 거 내용을 자세힌 몰라. 듣긴 듣주.(글쎄, 우리 듣긴 하는데 그거 내용을 자세히는 몰라. 듣긴 듣지.)

110021 @ 백중 땐 뭐 헤낫수과?(백중 땐 뭐 했었습니까?)

110021 #3 백중 때야 이제난 ᄒᆞ주, 저기 쉐 질를 때는 막 출령 백중상 차려먹어.(백중 때야 이제니까 하지, 저기 소 기를 때는 막 차려서 백중상 차려먹었어.)

110021 #2 백중 때는 백중 때는 그 전엔 헤낫주. 지금도 허는 사름 이서.(백중 때는 백중 때는 그 전엔 했었지. 지금도 하는 사람 있어.)

110021 #3 ᄃᆞᆨ 잡고.(닭 잡고.)

110021 @ 어떵 헤낫수과?(어떻게 했었습니까?)

110021 #3 ᄃᆞᆨ 잡아 놓고, 떡 헤놓고 밥헤 놓고 헤근엥에 영 무시거 ᄒᆞ는 디가 잇주. 백중동산이라고.(닭 잡아 놓고, 떡 해놓고 밥 해놓고 해서 이렇게 무엇 하는 데가 있지. 백중동산이라고.)

110021 @ 예.(예.)

110021 #3 백중동산에 좋은 동산에 강.(백중동산에 좋은 동산에 가서.)

110021 @ 예.(예.)

110021 #3 저 영 무시거 케우려도근에 먹엉덜 오라낫주.(저 이렇게 무엇 고수레 해서 먹어서들 왔었지.)

110021 #2 겨난 엿날 그전에 백중 헤나민 거 아시날 전날에 듯날 새벽 뒝 영 헷는데, 이제는 다들 목장에 강 쉐를 위한 거난 거난 목장에 강 허는 모냥이라.(그러니 옛날 그전에 백중 하고나면 그 전날 전날에 뒷날새벽 되어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다들 목장에 가서 소를 위한 거여서 그러니 목장에 가서 하는 모양이야.)

110021 #3 그 쉐 질를 때.(그 소 키울 때.)

110021 @ 음.(음.)

110021 #3 쉐 질를 때 막 간 집마다 헤낫주.(소 키울 때 막 가서 집마다 했었지.)

110021 #2 것이 칠월 열나흘 날 헤낫나?(그것이 칠월 열나흘 날 했었나?)

110021 #3 예, 칠월 열나흘 날.(예, 칠월 열나흘 날.)

110021 #2 견데 이제는 그 새벽당일에 허는 때문 듯날 헹, 칠월 보름날들 목장에 강 다헤.(그런데 이제는 그 새벽당일에 하는 때문 뒷날 해서, 칠월 보름날들 목장에 가서 다 해.)

110021 @ 백중동산은 어딧수과?(백중동산은 어디 있습니까?)

110021 #3 수망리[284]는 수망리 게난 그디 아무나 아녕 이녁 가는 디 만썩 다 ᄯᅳ나. 우린 난 친정이 현칩인디, 저 쉐기오름[285]이엔 헌디, 저 오름 잇주.('수망리'는 '수망리' 그러니까 거기 아무나 안 해 이녁 가는 데 만씩 다 달라. 우린 난 친정이 현씨 집인데, 저 '쉐기오름'이라고 한 데, 저 오름 있지.)

110021 @ 예.(예.)

110021 #3 오름으로 ᄒᆞ쏠 영 채 못간 디 오름 못간 디, 오름 못간 디 웨영 ᄒᆞ놓난 ᄒᆞ쏠, ᄒᆞ쏠 모도록한 동산이 이서 그디 가낫주.(오름으로 조금 이렇게 채 못간

284) '수망이'는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를 말한다.
285) '쉐기오름'은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에 있는 오름을 말한다.

데 오름 못간 데, 오름 못간 데 요렇게 해놓으니까 조금, 조금 모도록한 동산이 있어 거기 갔었지.)

110021 #2 집안 만썩, 집안 만썩 정헤근엥 거난에.(집안 만씩, 집안 만씩 정해서 그러니까.)

110021 #3 이녁 집안 만썩.(이녁 집안 만씩.)

110021 #2 ᄒᆞᆫ군데가 딱 정헤진 게 아니고.(한군데가 딱 정해진 게 아니고.)

110021 #3 집안 만썩 헹 가면, ᄃᆞᆨ 잡은 거멍 떡 ᄒᆞᆫ 디멍 가민, 엿날에 다 큰 거 페와 놩. 이래 ᄆᆞᆫ 페와 놩, ᄃᆞᆨ이멍 궤기멍 ᄆᆞ딱 착착 지지멍 ᄆᆞᆫ 갈라 먹고, 갈랑 집들에 ᄆᆞᆫ 그릇에 놘 보내고 경헨, 이젠 소 안 질른 딘 아념주게.(집안 만씩 해서 가면, 닭 잡은 거며 떡 한 데며 가면, 옛날에 다 큰 거 펴서 놓아. 이리로 모두 펴서 놓아, 닭이며 고기며 모두 착착 지지며 모두 나눠 먹고, 나눠 집들에 모두 그릇에 넣어 보내고 그렇게 했지, 이젠 소 안 기른 데는 안 하지.)

110021 @ 음.(음.)

110021 #2 지금 저 마을지 만들젠 허난에, 수망 포젯 단 포젯 단만 ᄀᆞᆯ아도 포젯 단 저 아레가믄 서사주, 아무것도 엇어. ᄆᆞᆫ딱 치아부난.(지금 저 마을지 만들려고 하니까, '수망' 포제 단 포제 단만 말해도 포제 단 저 아래가면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어. 모두 치워버려서.)

110021 @ 치아부난예, 게난예, 맞다.(치워버려서요, 그러게요, 맞다.)

110021 #2 게난 이 포젯단 이거 이제 완전히 제 헤난 단이 잇주게.(그러니 이 포젯단 이거 이제 완전히 제 했던 단이 있지.)

110021 #3 그 밧, 이제 누게 알암수과?(그 밭, 이제 누게 알고 있습니까?)

110021 #2 아, 거 부락 거주게. 부락 건디, 거 지금 그디 그전에 그 저 돌 작업허는 사름덜 사무실 짓으멍 싹 치와부러서.(아, 거 부락 거지. 부락 건데, 거 지금 거기 그전에 그 저 돌 작업하는 사람들 사무실 지으며 싹 치워버려서.)

110021 @ 아.(아.)

110021 #2 거 뭔디 몰랑. 기자 언제 치와분 거주게.(그거 뭔지 몰라서. 그저 언제 치워버린 거지.)

110021 @ 음.(음.)

110021 #2 거난 강보난 아무것도 엇이난, 뭐.(그러니 가서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뭐.)

110021 #3 포제 허는 디.(포제 하는 데.)

110021 #2 누게사 치와비신디.(누가 치워버렸는지.)

110022 @ 그디, 옛날에는 백중에 제사 드리고, 그다음에 낮에는 그 음식들 싸근에 혹시 모래찜질 허레가고 안헤낫수과? 바당에.(거기, 옛날에는 백중에 제사 드리고, 그다음에 낮에는 그 음식들 싸서 혹시 모래찜질 하러가고 안했었습니까? 바다에.)

110022 #3 아, 백중날 물 맞으레 가는 거 희여난.(아, 백중날 물 맞으러 가는 거

했었어.)

110022 @ 헤낫지예?(했었지요?)

110022 #3 음.(음.)

110022 @ 여기서 수망리선 어디 가낫수과?(여기서 '수망리'선 어디 갔었습니까?)

110022 #3 어디 저 소문 들은 소리주만은, 난 갈 때 서귀포 가낫구나만은, 어디 선흘[286]이엔 헌 디 잇젠 허멍 가나서, 엿날은.(어디 저 소문 들은 소리지만, 난 갈 때 서귀포 갔었지만, 어디 '선흘'이라고 한 데 있다고 하면서 갔었어, 옛날은.)

110022 @ 선흘에예?('선흘'에요?)

110022 #3 응. 엿날 어른들 우리 보다 웃대 어른들은 선흘 가나고 우린 서귀포 정방 폭폰디 어디.(응. 옛날 어른들 우리 보다 윗대 어른들은 '선흘' 갔었고 우린 서귀포 정방폭폰데 어디.)

110023 @ 음.(음.)

110023 #3 그디 강 맞아나고 겐디 이젠 그런 거 저런 거 아녀.(거기 가서 맞았었고 그런데 이젠 그런 거 저런 거 안 해.)

110023 @ 그디 강보면 막 사람들 정방폭포 옆에 아니면 소정방 가실 건디 엄청 사람들 많아실 건디 물 맞아저마씨?(거기 가보면 막 사람들 정방폭포 옆에 아니면 소정방 갔을 건데 엄청 사람들 많았을 건데 물 맞아져요?)

110023 #3 경헤도 맞아저, 다 혀. 경들 가낫주.(그래도 맞아져, 다 해. 그렇게들 갔었지.)

110023 @ 건데 진짜 물맞으믄 하간디 아픈 거 낫아낫수과?(그런데 진짜 물 맞으면 여기저기 아픈 거 나았었습니까?)

110023 #3 어떵사 ᄒᆞ는디 경ᄒᆞ덴 ᄒᆞ난. 그때뿐이고 용ᄒᆞ덴 허난 가낫주. 이젠 물도 아이,맞고, 하간 거 헤난산디 아픔만 무사와난, 물 맞인 사람도 아픔도 ᄒᆞ곡 죽음도 ᄒᆞ곡.(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한다고 하니. 그때뿐이고 용하다고 하니 갔었지. 이젠 물도 아니 맞고, 여러 가지 거 했었는지 아픔만 무서워서, 물 맞은 사람도 아픔도 하고 죽음도 하고.)

110023 #2 용헌덴 허난.(용하다고 하니까.)

110024 @ 그면 이제 칠월에 가면 아까 유월에 보니 막 삼복 이서근에 뭐 소서니 대서니 어 소복, 중복, 말복 막 이렇게 헷는데, 칠월에 가면 바로 입추가 이서예? 입추. 가을에 들어서는예?(그러면 이제 칠월에 가면 아까 유월에 보니 막 삼복 있어서 뭐 소서니 대서니 어 소복, 중복, 말복 막 이렇게 했는데, 칠월에 가면 바로 입추가 있죠? 입추. 가을에 들어서면요?)

110024 #3 음.(음.)

110024 @ 입추나 소서에는 뭐헷수과?(입추나 소서에는 뭐했습니까?)

110024 #3 그 곧기로는 처서를 넘으면 이 검질을 엿날엔 막 멧주게.(그 말하기

286) '선흘'은 제주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로는 처서를 넘으면 이 김을 옛날엔 막 맸지.)

110024 @ 아, 예.(아, 예.)

110024 #3 처서 넘으면 검질도 울멍 돌아간덴 그 두루 난덴 헤도.(처서 넘으면 김도 울면서 돌아간다고 그 덜 난다고 해도.)

110024 @ 무사?(왜?)

110024 #3 그 두루 난덴 철이 영 넘어갓다 이 말이주게.(그 덜 난다고 철이 이렇게 넘어갔다 이 말이지.)

110024 @ 아, 아아.(아, 아아.)

110024 #3 울멍 돌아가미랑마랑 경헤도 나, 경헤도 나, 경 골아.(울면서 돌아가기는커녕 그래도 난다, 그래도 난다, 그렇게 말해.)

110024 #2 @ 웃음.(웃음.)

8월

110025 @ 거면 팔월로, 팔월로 넘어가게예. 지금 팔월이잖아예? 어, 팔월 하면 바로 벌초하는 날이 잇수과?(그러면 팔월로, 팔월로 넘어가게요. 지금 팔월이잖아요? 어, 팔월 하면 바로 벌초하는 날이 있습니까?)

110025 #3 벌초 날 지정흔 날 팔월 음력으로 팔월 초ᄒᆞ루.(벌초 날 지정한 날 팔월 음력으로 팔월 초하루.)

110025 #2 아, 건 집안 마다 뜰려.(아, 그건 집안 마다 달라.)

110025 @ 아, 건 음력으로?(아, 그건 음력으로?)

110025 #2 건, 집안 마다 달라.(그건, 집안 마다 달라.)

110025 #3 응, 초ᄒᆞ룬디 이젠 바꽈정 공휴일 날만ᄒᆞ난 초ᄒᆞ루가 에.(응, 초하룬데 이젠 바꿔져서 공휴일 날만하니까 초하루가 에.)

110025 #2 이젠 초ᄒᆞ루렌 헨 무조건 거의 공일날 뒈야 ᄒᆞ주. 거난 자식들 자손들 오기엔.(이젠 초하루라고 해서 무조건 거의 공일날 돼야 하지. 그러니 자식들 자손들 오기엔.)

110025 #3 공휴일 날만 헤야.(공휴일 날만 해야.)

110025 @ 음.(음.)

110025 #3 문중벌초렌 흔 거, ᄒᆞ쏠썩 흔 건 벌춘 지네만썩 헤엿는디, 문중 벌초는 똑 초ᄒᆞ루 뒈민 헷는디.(문중벌초라고 한 거, 조금씩 한 건 벌초는 자기네 만씩 했는데, 문중 벌초는 똑 초하루 되면 했는데.)

110025 @ 예.(예.)

110025 #3 이젠 다 직장이라 놓난 그 저 팔월 절은 들어라ᄒᆞ면 공일날 아무 시 때라도.(이젠 다 직장이라 놓으니 그 저 팔월 절은 들어라하면 공일날 아무 시 때라도.)

110025 #2 건디 우리도 지금도 문중벌초 다니는데.(그런데 우리도 지금도 문중벌초 다니는데.)

110025 @ 예.(예.)

110025 #2 지금 저 이 젊은 사위덜, 문 흔밧듸 치와다근에게 저 거시기에 놓아 불켄들.(지금 저 이 젊은 사위들, 모두 한곳에 치워다가 저 거시기에 놓아버리겠다고.)

110025 @ 이 저기 삼춘넨 벌초 몇 군데 헴수과?(이 저기 삼촌넨 벌초 몇 군데 하십니까?)

110025 #2 우린 가족 공동묘지가 이시니깐.(우린 가족 공동묘지가 있으니깐.)

110025 @ 예.(예.)

110025 #3 아, 싹 다 모여오랑 다 흔밧듸 모영.(아, 싹 다 모여와서 다 한군데 모여서.)

110025 @ 아, ᄀᆞ치들예.(아, 같이요.)

110025 #1 다 ᄀᆞ찌.(다 같이.)

110025 #2 거난 우린 가족 공동묘지가 잇으니까 그.(그러니 우린 가족 공동묘지가 있으니까 그.)

110025 @ 예.(예.)

110025 #3 다 이묘헤 왕.(다 면례해 와서.)

110025 #2 그디는 문제가 벌초 그 거시기 문중벌초 허는 날.(거기는 문제가 벌초 그 거시기 문중벌초 하는 날.)

110025 @ 예.(예.)

110025 #2 문중 벌초허민 오전에 끗나니까.(문중 벌초하면 오전에 끝나니까.)

110025 @ 예.(예.)

110025 #2 가족 공동묘지 이녁 집에 이녁 밧듸 와근엥에 허믄, 요세 이제 기계 헤근엥에 확, 헤근엥에.(가족 공동묘지 이녁 집에 이녁 밭에 와서 하면, 요새 이제 기계 해서 확, 해서.)

110025 @ 음.(음.)

110025 #2 그날 후손 아이들 전부 오렌 헤근엥에 정심 왕 먹곡.(그날 후손 아이들 전부 오라고 해서 점심 와서 먹고.)

110025 @ 예.(예.)

110025 #3 문시딱 집이 이신 아이들 ᄀᆞ장 문딱 정심 강 먹어.(모두 집에 있는 아이들 까지 모두 점심 가서 먹어.)

110025 #2 거난에.(그러니까.)

110025 @ 여자들도 가근에예?(여자들도 가서요?)

110025 #3 응. 나도 집이시민 벌초 다 헨 오란 저기가겐 헨 오랑 시끄레 오민 가는 거 먹으레.(응. 나도 집에 있으면 벌초 다 해서 와서 저기가자고 해서 와서 실으러 오면 가는 거 먹으러.)

110025 #2 그 우리 자식들이 그게 내 아까워비엉양, 무조건 정월 초ᄒᆞ루 뒈면 돈 십만 원씩 내놓고.(그 우리 자식들이 그게 내 아까워 보여요, 무조건 정월 초하

루 되면 돈 십만 원씩 내놓고.)

110025 @ 음.(음.)

110025 #2 그걸 운영헹 나가는 거라.(그걸 운영해서 나가는 거야.)

110025 @ 음.(음.)

110025 #2 그니까 아 야야 요것덜 잘헴다 하는 짓이주게.(그니까 아 야야 요것들 잘한다 하는 짓이지.)

110025 #3 그 돈으로 다 사먹어.(그 돈으로 다 사먹었어.)

110025 #2 거난 놈의 집안이 허는 그런 말 골으민, 놈의 집안은 당초 그런 사름이 엇주.(그러니 남의 집안이 하는 그런 말 말하면, 남의 집안은 당초 그런 사람이 없지.)

110025 #3 오월 오월에 오월 무신 단오에도 그 벌초 오월멩, 오월 때도 저 무시거허주 봄 벌초.(오월 오월에 오월 무슨 단오에도 그 벌초 오월명, 오월 때도 저 뭐 하지 봄 벌초.)

110025 @ 음.(음.)

110025 #3 두 번을 ᄒᆞ는디, 두 번 다 먹으레 돌앙가. 나도 집이 ᄀᆞ만 이시민 시끄레오니깐 가는 거. 우린 경헤여. 벌초 ᄒᆞ는데 ᄋᆞ라밧듸 아녀난 ᄒᆞᆫ 밧듸 싹 ᄒᆞ난 제기헤지주게.(두 번을 하는데, 두 번 다 먹으러 데려가. 나도 집에 가만히 있으면 실으러오니까 가는 거. 우린 그렇게 해. 벌초 하는데 여러 군데 안 하니까 한 군데 싹 하니까 빨리하지.)

110025 #2 아, 난 게 쳇 번에 걸 안 내놧주게. 안내 영 헤보니까 안 냇더라고. 게 멘날 먹으렌 쫓아뎅기고 가이는 나도 진짜 나이 들언.(아, 난 그 첫 번에 걸 안 내놨지. 안내서 이렇게 해보니까 안 냈더라고. 그래 맨날 먹으려고 쫓아다니고 그 아이는 나도 진짜 나이 들었어.)

110025 #3 견디 이 애기들 아이 오란.(그런데 이 아기들 안 와서.)

110025 #2 내렌, 내렌 말 안헤주게.(내라고, 내라고 말 안했지.)

110025 #3 이 애기들 아이오라난 때는 어떵 헤신궁 ᄒᆞ민, 정심을 나가 늬랑 다 헤가.(이 애기들 아니 왔었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점심을 내가 늘 다 해 갔어.)

110025 @ 아하.(아하.)

110025 #3 나 혼자만 다 헤가난, 나가 못헤가난, 그 정심ᄒᆞ는 거를 아덜안티레 위임ᄒᆞ게 뒈난, 우리 씨아즈방덜은 정심 ᄒᆞᆫ 때를 아녜봉 넘어가게 뒈난.(나 혼자만 다 해가니, 내가 못해가니, 그 점심하는 거를 아들한테 위임하게 되니, 우리 시아주버니들은 점심 한 때를 안 해봐서 넘어가게 되니까.)

110025 @ 음.(음.)

110025 #3 우리 아들만 또 ᄒᆞ렌도 아녜곡. 그런 이제 모야 놩, 모다 강 먹는 식을 ᄒᆞ는 거라.(우리 아들만 또 하라고도 안 하고. 그런 이제 모여 놔서, 모여 가서 먹는 식을 하는 거야.)

110025 @ 음.(음.)

110025 #3 그추룩 ᄒᆞ난 이젠 잘 먹고 잘 ᄒᆞᆫ 건, 이 종애가 ᄆᆞᆫ ᄆᆞᆼ그라지민, 난 다른 사름들은 잘 살 거주. 나만 다 힘들언, 정심헤영 짊어저 가는 건, 벌초ᄒᆞ는 디 먼디. 엿날인 무신 차가 이시카. 하르방[287]네 거대기[288] 강 애기들도 강 ᄒᆞ곡 ᄒᆞ민, 이제는 난 벌초는 안 헤봣주.(그처럼 하니까 이젠 잘 먹고 잘한 건, 이 종아리가 모두 망그지르면, 난 다른 사름들은 잘 거지. 나만 다 힘들어, 점심해서 짊어져 가는 건, 벌초하는 데 먼데. 옛날엔 무슨 차가 있을까. '할아버지'네 '거대기' 가서 애기들도 가서 하고 하면, 이제는 난 벌초는 안 해봤지.)

110025 #3 여자들도 ᄒᆞ는 디 이서도. 정심출령 가고 ᄒᆞ당보민 아녓는디, 나 못ᄒᆞ게 뒈가난 이제 돈 모야놘에 모다가근엥 먹는 거 불렁 먹는 거 ᄒᆞ난 이젠 강 먹음만 헨에 이젠 사는디. ᄒᆞᆫ밧듸 가부난 벌초ᄒᆞ민 힘들긴 헴주. 모다들엉 다 오랑 헤불민.(여자들도 하는 데 있어도. 점심차려서 가고 하다보면 안 했는데, 나 못하게 돼가니까 이제 돈 모아놓아서 모아가서 먹는 거 불러서 먹는 거 하니까, 이젠 가서 먹기만 해서 이젠 사는데. 한군데 가버리니까 벌초하면 힘들긴 하지. 모여들어 다 와서 해버리면.)

110025 #2 가족공동묘지 바로 요기난.(가족공동묘지 바로 여기니까.)

110025 @ 삼춘, 그믄 벌초허레 갈 때 그거 음식 찰령 갈 때 몇 사람 분을 헹 갓수과?(삼촌, 그러면 벌초하러 갈 때 그거 음식 차려서 갈 때 몇 사람 분을 해서 갔습니까?)

110025 #3 멧 사름 분 알아 지크라.(몇 사람 분 알아지나.)

110025 @ 그믄.(그러면.)

110025 #3 집이 싯기만 ᄒᆞ난. 문중 벌초 출려갈 땐 그때 멧 눕이 헤고 삼십 명에네치 헹 강 족안에 오십 명도 더 들엇신가.(집에 있기만 하니까. 문중 벌초 차려 갈 땐 그때 몇 놉이 하고 삼십 명 분 해서 가서 적어서 오십 명도 더 들었는가.)

110025 #2 몰라.(몰라.)

110025 #3 경 출련.(그렇게 차렸어.)

110025 @ 밥을 게, 어떵 헤마씨? 그 오십 명분 밥을 밥 솟.(밥을 그래, 어떻게 해요? 그 오십 명분 밥을 밥 솥.)

110025 #3 솟 석 ᄒᆞᆫ 밥은 느랑 나가 헷는디, 그 일가지[289]에서 ᄒᆞ는 건 경 느랑 나가 헤나난 ᄀᆞᆫ는디. 문중벌초엔 ᄒᆞᆫ 건, 제주시레 가나서, 출려.(솥 석 한 밥은 늘 내가 했는데, 그 '일가지'에서 하는 건 그렇게 늘 내가 했었기에 말하는데. 문중벌초엔 한 건, 제주시로 갔었어, 차려.)

110025 @ 예.(예.)

110025 #3 경헹 간 때 그 사름이 몰란 다른 디서 출려 가난 왕창 가부난, 그 가지가 문중벌초 김씨.(그렇게 해서 간 때 그 사람이 몰라서 다른 데서 차려 가니 왕

287) '하르방'은 할아버지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남편을 말한다.
288) '거대기'는 '거들락'의 다른 표현인 듯하다. '거들락'은 표준어 '우뚝'에 대응하는 말이다.
289) '일가지'는 일가(一家) 인 문중에서 갈라진 친인척을 말한다.

창 가버려서, 그 가지가 문중벌초 김씨.)

110025 #2 문중벌초 허는 디가 어디냐 허면 덕천[290]이주게.(문중벌초 하는 데가 어딘가 하면 덕천이지.)

110025 @ 예.(예.)

110025 #2 우리가 글로 넘어오니까 넘어오난 덕천 그 목장 안엔데.(우리가 그리로 넘어오니까 넘어오니 '덕천' 그 목장 안인데.)

110025 #3 경ᄒᆞ난 그 안에서 출린 게 그 시철에 뭐인궁 ᄒᆞ민 그때 이제 이추룩 출리지도 아옛주게. 도야지고기여 헤사 전 솖안에, 어떵사 헤저신디 ᄒᆞ곡. 문어 ᄀᆞ튼 거 ᄒᆞ쏠 흐여사 신디 ᄒᆞ곡, 원 짐치 ᄀᆞ튼 건 물론이고 ᄒᆞ쏠썩 헌 건 이것저것 희였는디.(그렇게 하니까 그 안에서 차린 게 그 시절에 뭐인가 하면 그때 이제 이처럼 차리지도 않았지. 돼지고기야 해야 전 삶아서, 어떻게 했었는지 하고. 문어 같은 거 조금 해야 했는지 하고, 원 김치 같은 건 물론이고 조금씩 한 건 이것저것 하였는데.)

110025 #3 제일 문제가 수제.(제일 문제가 수저.)

110025 @ 음.(음.)

110025 #3 수제를 족영 헨 간 거라.(수저를 부족하게 해서 간 거라.)

110025 @ 경 헤시쿠다게.(그렇게 하셨겠습니다.)

110025 #3 밥도 하영 담아 간 건디 ᄒᆞ난, 이거는 저 어디서 남군에서 출려 오람젠 허난 왈칵 그자 올 사름이고 안 올 사름이고, 벌초 안 뎅기던 사름도 다 간 거 아니라.(밥도 많이 담아 간 건데 하니까, 이거는 저 어디서 남군에서 차려 온다고 하니까 왈칵 그저 올 사람이고 안 올 사람이고, 벌초 안 다니던 사람도 다 간 거 아니야.)

110025 @ 음.(음.)

110025 #3 경ᄒᆞ난 그때도 나 출리다 보난 ᄒᆞ고, 이제 그땐 가불면 안 뒈난, 그 출령가는 메누리덜, 며누리는 ᄒᆞ나고, 동세가 ᄒᆞ나고, 여자는 둘리고 매기. 뚤들은 또 가는 뚤이 엇엇고, 둘리 여저는, 둘리 보네고 ᄒᆞ난, 숫구락이 젤 문제난, 멧 개사 보네전디 ᄒᆞ난, 우리 동세가, ᄒᆞ나 신 거, 막 착헌 부지런한 동세가 이서, 게난.(그렇게 하니까 그때도 내가 차리다 보니까 하고, 이제 그땐 가버리면 안 되니까, 그 차려가는 며느리들, 며느리는 하나고, 동서가 하나고, 여자는 둘이고 없어. 딸들은 또 가는 딸이 없었고, 둘 여자는, 둘 보내고 하니까, 숟가락이 제일 문제니까, 몇 개야 보냈었나 하니까, 우리 동서가, 하나 있는 거, 막 착한 부지런한 동서가 있어, 그러니.)

110025 #3 그 간 쏠이멍 무시거 더 산, 밥도 더 ᄒᆞ고, 수제가 문제란에. 수제 빌언간, 그릇도 하영 놓고 헷는디. 건디 ᄒᆞᆫ, 수제가 서른 사름 시서 놔신디, 어떠난 숫구락 알력 집이 간 문 빌고 헤단 밥ᄒᆞ고 헤언에 보내구렌. 경헨 그날 멕엿ᄀᆞ렌 ᄒᆞ난, ᄒᆞᆫ 번 그때만 헤봔 다신 그런 것도 아녀고.(그 가서 쌀이며 무엇 더 사서, 밥도

290) '덕천'은 제주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마을이름이다.

더 하고, 수저가 문제라서. 수저 빌려가서, 그릇도 많이 놓고 했는데. 그런데 한, 수저가 서른 사람 있어서 놓았는데, 어떠니까 숟가락 아랫집에 가서 모두 빌고 해다가 밥하고 해서 보냈다고. 그렇게 해서 그날 먹였다고 하니까, 한 번 그때만 해보고 다신 그런 것도 안하고.)

110025 #3 그거 출려가기 전인 어떵 ᄒᆞ는 거궁 ᄒᆞ민, 안전 엿날엔 어떵ᄒᆞ는 거고ᄒᆞ민, 그 벌초 때에 이디서 가는 사름 정이[291], 그땐 정이 정이 헤연, 정이서 가는 사름은 또 모물돌레떡을 헤여 오라는 거라.(그거 차려가기 전엔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완전 옛날엔 어떻게 하는 건가하면, 그 벌초 때에 여기서 가는 사람 '정의', 그땐 '정의' '정의'해서, '정의'에서 가는 사람은 또 메밀도래떡을 해서 오라는 거야.)

110025 @ 음.(음.)

110025 #3 모물돌레떡 ᄒᆞ민 모물을 앗따근엥에 이제 지금ᄁᆞ장도 낫당, 이 팔월 나민 그거 문 ᄀᆞᆯ아근에 아이고, 그거 문 ᄀᆞ루로 정ᄀᆞ레에 ᄀᆞᆯ앙, 넬은 벌초 갓다 ᄒᆞ민, 차가 엇이민 세벡이덜 걸엉 가곡 ᄒᆞ민, 그 돌레떡은 어느 누게가 서시카, 나 혼자라.(메밀도래떡하면 메밀을 가져다가 이제 지금까지도 놓았다가, 이 팔월 오면 그거 모두 갈아서 아이고, 그거 모두 가루로 맷돌에 갈아서, 내일은 벌초 간다고 하면, 차가 없으면 새벽에 걸어서 가고하면, 그 도래떡은 어느 누가 있을까, 나 혼자야.)

110025 @ 음.(음.)

110025 #3 그거 다 멘들앙 시껑가민 정이서 모물돌레떡 온덴 베리는 거라. 메헤여 당번이 경뒈여.(그거 다 만들어서 실어가면 '정의'서 메밀도래떡 온다고 바라는 거라. 매해에 당번이 그렇게 돼.)

110025 @ 아, 하하하(아, 하하하.)

110025 #3 경 ᄒᆞ멍 나 이 이 하르방[292]광 살안. ᄒᆞᆫ세상 살안.(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 이 '할아버지'와 살았어. 한세상 살았어.)

110025 @ 하하하.(하하하.)

110025 #2 겨난 이 우리가 어디서 정심을 먹냐면, 덕천 2리 사무실이라.(그러니 이 우리가 어디서 정심을 먹느냐면, 덕천 2리 사무실이야.)

110025 @ 아.(아.)

110025 #2 건데 거 음력 음력으로 무조건 그전엔 팔월 초ᄒᆞ루날 헤낫거든. 건디 이젠 이 젊은이들 공일날로 허자 공일날로 허니까, 공일날엔 이건 뭐 탁 종강 열어 주질 안 헤. 거 사무실이난 경 누게 아무도 엇일 거 아니라게.(그런데 그 음력 음력으로 무조건 그전엔 팔월 초하룻날 했었거든. 그런데 이젠 이 젊은이들 공일로 하자 공일로 하니까, 공일엔 이건 뭐 탁 잠가서 열어 주질 안 해. 거 사무실이니 그렇게 누구 아무도 없을 거 아니야.)

---

291) '정이'는 '정의'를 말하는데, '정의'는 제주 서귀포시 표선읍 성읍마을의 옛 이름이다.
292) '하르방'은 '할아버지'를 뜻하나 여기서는 '남편'을 말한다.

110025 @ 맞수다.(맞습니다.)

110025 #2 토요일 아 겨 막 요번에도 막 금년에 나 금년 이 작년이 근데 요 중간엔 이 팔십 넘언 후엔 배짱부령 안 갓주게.(토요일 아 그 막 요번에도 막 금년에 나는 금년 이 작년에 그런데 요 중간엔 이 팔십 넘은 후에는 배짱부려서 안 갔지.)

110025 @ 예.(예.)

110025 #2 나야 뭐 우리 가도, 나 나이는 없거든.(나야 뭐 우리 가도, 내 나이는 없거든.)

110025 @ 음.(음.)

110025 #3 하르방 이젠 안뎅기고 아덜이.('할아버지' 이젠 안다니고 아들이.)

110025 #2 아, 겐디 게나제나 올해만 헹 작년이 가봣는데.(아, 그런데 그나저나 올해만 해서 작년에 가봤는데.)

110025 #3 츰, 지금 정심 어떵 헴수과?(참, 지금 점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10025 #2 정심은.(점심은.)

110025 #3 아니, 이제는, 이제는 츰 무시거 헤빔구나. 이녁만 썩 돌아 얼마 아녕 돌아와분 거 아닌가.(아니, 이제는, 이제는 참 뭐 해버리는구나. 이녁만 씩 돌아 얼마 안 해 돌아와 버리는 거 아닌가.)

110025 #2 거난 그 공공 비용 이니까 지금은 공공으로 공공으로 우리가 회비를 내니깐.(그러니 그 공공 비용 이니까 지금은 공공으로 공공으로 우리가 회비를 내니깐.)

110025 @ 예.(예.)

110025 #3 공공 비용이엔 헹 작년에도 그 참 ᄉᆞ정ᄉᆞ정헨에 보네난에 여저 혼사람이 오랑 문 열아주더라고. 열아주는디 그것 이제는 공일날 헤놓니깐, 공일날 그저 좀 엥간이 열아주지 아녀주게 ᄉᆞ무실 그거.(공공 비용이라고 해서 작년에도 그 참 사정사정해서 보내니까 여자 한 사람이 와서 문 열어주더라고. 열어주는데 그것 이제는 공일 해놓으니깐, 공일 그 저 좀 웬만하면 열어주지 안하지, 사무실 그거.)

110025 #3 벳긔듸서라도 먹주게 무신.(밖에서라도 먹지 무슨.)

110025 #2 아니 건디 사무실이 보믄 그 리 사무실이엔 말뿐이지 그서 ᄉᆞ무를 아이 보는 거 닮아.(아니 그런데 사무실이 보면 그 리 사무실이라고 말뿐이지 거기서 사무를 아니 보는 거 같아.)

110025 @ 아.(아.)

110025 #2 그 저.(그 저.)

110025 @ 덕천마을[293]이 막 족은 데꽈?('덕천마을'이 막 작은 뎁니까?)

110025 #2 아, 덕천 덕천도 2리니깐, 2리 거긴 사는 멧 호 엇어 거긴. 아 저저 산간부락이주게. 덕천2리는.(아, 덕천 덕천도 2리니깐, 2리 거긴 사는 몇 호 없어 거긴. 아 저저 산간부락이지. 덕천 2리는.)

110026 @ 그다음엔 이젠 팔월로 뒈면 바로 아까 우리 얘기한 추석명절이 잇잖

293) '덕천마을'은 제주 구좌읍에 있는 마을이름이다.

아예?(그다음엔 이젠 팔월로 되면 바로 아까 우리 얘기한 추석명절이 있잖아요?)

110026 #3 음.(음.)

110026 @ 추석명절은 어떤 식으로 준비헤가지고 지금은, 옛날엔 어떵 허고 지금은 어떵 헴수과?(추석명절은 어떤 식으로 준비해가지고 지금은, 옛날엔 어떻게 하고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110026 #3 지금도 엿날 ᄒᆞ던 거.(지금도 옛날 하던 거.)

110026 @ 엿날 허듯예? 거믄 명질은 어디서 찰리멘마씨?(옛날 하듯요? 그러면 명절은 어디서 차리나요?)

110026 #3 우린 아들집이.(우린 아들집에.)

110026 @ 아들집이서예. 아들집이서며는 저기 삼춘네 가족들만 모이는 거마씨?(아들집에서요. 아들집에서면 저기 삼촌네 가족들만 모이는 건가요?)

110026 #3 아.(아.)

110026 @ 멩질은 몇 곤데 먹엄수과?(명절은 몇 군데 먹나요?)

110026 #3 멩질, 세 밧디.(명절 세 군데.)

110026 @ 세 밧듸.(세 군데.)

110026 #3 응. 이디 아시 말젯아시가 잇고, 족은 아시가 잇고 경ᄒᆞ난에 세 밧디.(응. 여기 동생 둘째동생이 있고, 작은 동생이 있고 그러니까 세 군데.)

110026 @ 세밧디예.(세 군데요.)

110026 #3 겨난 그디 우리 시아즈방들은 우리 동생네가 ᄒᆞ고, 우린 이젠 늙어부난 우리 아들이 맡아 가부난 큰 제가 뒈어서.(그러니 거기 우리 시아주버니들은 우리 동생네가 하고, 우린 이젠 늙어버려서 우리 아들이 맡아 가버리니까 큰 제사가 됐어.)

110026 #2 건디 금년 헐 때는 네 밧듸는 헤야, ᄒᆞᆫ 밧디는, ᄒᆞᆫ 밧듸는 제주시라 놓니 먹을 수가 엇어, 우리는.(그런데 금년 할 때는 네 군데는 헤야, 한 군데는, 한 군데는 제주시라서 먹을 수가 없어, 우리는.)

110026 #3 겨난 아직ᄁᆞ장 기자 세 밧디만 갓덴 ᄀᆞᆯ앗주.(그러니 아직까지 그저 세 군데만 갔다고 말했지.)

110026 #2 가네는 멩질 허젠 허난 이디 먹으레 못 올 거라게.(그 아이 네는 명절 하려고하니 여기 먹으러 못 올 거야.)

110026 #3 걸랑 말제라도 ᄀᆞᆫ주만은.(그걸랑 나중이라도 말하지만.)

110027 @ 그 다음 팔월에는 추석명절이 잇고예. 그 절기로는 백로하고 추분이 이서예. 백로하고 추분 그때는 뭐헤낫수과?(그 다음 팔월에는 추석명절이 있고요. 그 절기로는 백로하고 추분이 있어요. 백로하고 추분 그때는 뭐했었습니까?)

110027 #2 백로하고 추분 헷낫주. 무시거 엇어.(백로하고 추분 했었지. 뭐 없어.)

9월

110028 @ 뭐 안 헤난예. 그다음 구월 들어가지고, 구월에 들어설 때 백로가 잇잖아예?(뭐 안 했어요. 그다음 구월 들어가지고, 구월에 들어설 때 백로가 있잖아요?)

110028 #3 백로는 절기라?(백로는 절기야?)

110028 @ 예. 절기마씨.(예. 절기요.)

110028 #2 절기지.(절기지.)

110028 @ 상강이라는 절기 들어봣수과? 상강.(상강이라는 절기 들어보셨습니까? 상강.)

110028 #3 상강은 그 겨을 틀어근엥에 상강일 넘으면은.(상강은 그 겨울 들어서 상강일 넘으면.)

110028 @ 예.(예.)

110028 #3 못 먹을 곡석이 없언.(못 먹을 곡식이 없어서.)

110028 @ 예.(예.)

110028 #3 엿날엔 모물 젤 먼저 비는디.(옛날엔 메밀 젤 먼저 베는데.)

110028 @ 예.(예.)

110028 #3 상강일 뒈면 모물도 비게 뒈어.(상강일 되면 메밀도 베게 돼.)

110028 @ 아.(아.)

110028 #3 다 곡석을 헤들이게 뒈어.(다 곡식을 거둬들이게 돼.)

110028 @ 음.(음.)

110028 #3 상강 넘으면 그 저 감저끈도 상강 넘으민 소돌소돌 헤가져.(상강 넘으면 그 저 고구마줄기도 상강 넘으면 시들시들 해져가.)

110028 @ 아.(아.)

110028 #3 절기 그 전이 다 헤. 상강일 넘어가민 다 헤서.(절기 그 전에 다 해. 상강일 넘어가면 다 했어.)

110028 #2 엿날사 거 절기 믄딱 썻주만은.(옛날에야 그 절기 모두 썼지만.)

110028 @ 음.(음.)

110028 #3 절기를 만날 그.(절기를 매일 그.)

110028 @ 아, 상강 뒈면 서리가 내리기 시작 헐 거라부난.(아, 상강 되면 서리가 내리기 시작 할 거여서.)

110028 #3 어, 어.(어, 어.)

110028 @ 이제 그 곡식들 다 걷엇구나예.(이제 그 곡식들 다 걷었군요.)

110028 #3 응.(응.)

10월

110029 @ 그다음엔 시월에 들어가지고는예? 어, 입동 즉 본격적으로 겨울에 들어 섯잖아예?(그다음엔 시월에 들어가지고는요? 어, 입동 즉 본격적으로 겨울에 들어섰잖아요?)

110029 #2 응.(응.)

110029 @ 입동하고 소설이 이서예. 그때는 뭐 혜낫수과?(입동하고 소설이 있어요. 그때는 뭐 했었습니까?)

110029 #3 지금 미깡들은 나 타레 뎅기는 거 아니? 미깡 탐실 거라.(지금 밀감들은 내가 따러 다니는 거 아냐? 밀감 따고 있을 거야.)

110029 @ 미깡예?(밀감이요?)

110029 #3 응.(응.)

110029 @ 옛날엔마씨?(옛날엔요?)

110029 #3 엿날에사 경현 흔 때 저 무시거 돗걸름 밧 헷주게.(옛날에야 그렇게 한 한 때 저 뭐 돼지거름 밭 했지.)

110029 @ 음, 소설 때.(음, 소설 때.)

110029 #3 보리 갈곡.(보리 갈고.)

110029 @ 소설 때?(소설 때?)

110029 #3 응.(응.)

110029 @ 아, 그때도 헷구나.(아, 그때도 했구나.)

110029 #3 이젠 돗걸름 밧 그런 것 아년에 미깡을 타젠 ᄒᆞ난 *** 거여.(이젠 돼지거름 밭 그런 것 않아서 밀감을 따려고 하니까 *** 거야.)

110029 @ 그 제주도라 부난 수망리도 어떵할지 모르쿠다만은 소설에 뭐 무신 눈이 오거나 그런 건 엇엇수과?(그 제주도라 버려서 '수망리'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설에 뭐 무슨 눈이 오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110029 #3 몰라, 그거는.(몰라, 그거는.)

110029 #2 저 눈 엿날에는 소설이면 그 작은 눈인데 작은 눈인데 엿날은 왓일꺼라. 요세는 엿날하고 완전이.(저 눈 옛날에는 소설이면 그 작은 눈인데 작은 눈인데 옛날은 왔을 거야. 요새는 옛날하고 완전히.)

110029 #3 음력 시월, 시월 나민 흔 스무날 뒈 가민 잇당 제기 오민 눈도 오라서.(음력 시월, 시월 오면 한 스무날 돼 가면 있다 빨리 오면 눈도 왔어.)

110029 #2 거난 그 지금 온도가 엿날하고 차이가 커.(그러니 그 지금 온도가 옛날하고 차이가 커.)

110029 @ 커예?(커요?)

110029 #2 지금 엿날사 이딘 눈 이디 꽉 차낫주. 이젠 경 오던도 아녀.(지금 옛날에야 여긴 눈 여기 꽉 찼었지. 이젠 그렇게 오지도 않아.)

11월

110030 @ 십일월 들어서는 이제 그 동지가 잇잖아예?(십일월 들어서는 이제 그 동지가 있잖아요?)

110030 #2 어.(어.)

110030 @ 동지, 양력으로 하면 뭐 십이월이겠지만예? 동지 때는 어떵 헷수과?

(동지, 양력으로 하면 뭐 십이월이겠지만요? 동지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110030 #3 동지 뒈어가민 눈이 막 하영 오랏주.(동지 되어 가면 눈이 막 많이 왔지.)

110030 @ 음식 같은 혹시 뭐 안 헤먹어낫수과? 동짓날.(음식 같은 혹시 뭐 안 해먹었었습니까? 동짓날.)

110030 #3 동짓날 죽 쒀먹어, 풋죽.(동짓날 죽 쒀먹어, 팥죽.)

110030 @ 지금도 쒀먹엄수과?(지금도 쒀먹습니까?)

110030 #3 응.(응.)

110030 @ 근데 무사 풋죽을 쒀먹엇신고예?(그런데 왜 팥죽을 쒀먹었을까요?)

110030 #3 풋죽 쒕먹으민 감기 안온덴.(팥죽 쒀먹으면 감기 안온다고.)

110030 @ 아, 경헤근에 풋죽 쒀먹은 것과?(아, 그렇게 해서 팥죽 쒀먹은 겁니까?)

110030 #3 겨난 그 풋죽 그 첨, 애기동짓날은 아이 쒀먹고.(겨난 그 팥죽 그 참, 아기동지는 아니 쒀먹고)

110030 @ 예.(예.)

110030 #3 소동지 때 아이 쒀먹엇덴, 애기동지엔 흔 때는 아이 쒀먹넨 ᄒᆞ주.(아기동지 때 아니 쒀먹었다고, 아기동지엔 한 때는 아니 쒀먹는다고 하지.)

110030 @ 어떨 땐 애기동지렌 골앗수과?(어떨 땐 아기동지라고 말했습니까?)

110030 #3 몰라. 겨난에 올린 애기동지엔 영 골으민게 안 쑤고.(몰라. 그러니까 올핸 아기동지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쑤고.)

110030 @ 음.(음.)

110030 #3 경 안ᄒᆞᆯ 땐 기자 동지엔 헌 건 쒀먹고. 애기동지엔 골은 건 안 쒀 먹어서.(그렇게 안할 땐 그저 동지라고 한 건 쒀먹고. 아기동지라고 말한 건 안 쒀 먹었어.)

110030 @ 안 쒀먹고예.(안 쒀먹고요.)

110031 @ 납평 날이라는 말이 잇는데예, 혹시 납평날이 무슨 말인지 알아지쿠과?(납평 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혹시 납평 날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110031 #2 납평 날이엔 헌 건 듣기 처음인데.(납평 날이라고 한 건 듣기 처음인데.)

110031 @ 그 동지 지나가지고예?(그 동지 지나가지고요?)

110031 #3 몰라, 난.(몰라, 난.)

110031 @ 음력으로는 이제 가장 마지막 달이 섣달인디예?(음력으로는 이제 가장 마지막 달이 섣달인데요?)

110031 #3 섣ᄃᆞᆯ.(섣ᄃᆞᆯ.)

110031 @ 섣ᄃᆞᆯ.(섣ᄃᆞᆯ.)

110031 #2 아, 겐디 그 펜안이 아자게. 거 우리 보기에 어디 미안헨.(아, 그런데 그 편안히 앉아. 그거 우리 보기에 어디 미안해서.)

110031 #3 아이 못 전딘덴 헴수게. 본인 못 전딘 못 전딘 대로 못 전딘 우리 페난이 앉진 거 아니꽈. 나도 아는 디로 경 헌디.(아니 못 견딘다고 하잖아요. 본인 못 견딘 못 견딘 대로 못 견딘 우리 편안히 앉진 거 아닙니까. 나도 아는 데로 그렇게 했는데.)

110031 #2 아, 저기 뒈왕 못 전딜 건디.(아, 저기 틀어져서 못 견딜 건데.)

110031 #3 하르방[294] 방석 주렌, 방석 주카?('할아버지'가 방석 주라고, 방석 줄까?)

110031 @ 방석 이수과? 예. 게민 줍서.(방석 있습니까? 예. 그러면 주십시오.)

110031 #3 어디레 방석 아지레 감수과?(어디에 방석 가지러 가십니까?)

110031 #2 이쪽 방들에.(이쪽 방들에.)

110031 #3 아이고, 그거 그 방석 말고 아이고 머시께라[295].(아이고, 그거 그 방석 말고 아이고 '머시께라'.)

110031 #2 어느 방석 이거?(어느 방석 이거?)

110031 #3 그게 그겐디이.(그게 그건데.)

110031 #2 이거 말고 어느 거? 우린 그자 여름엔 시원허게 그자 막 내놓지 아녕.(이거 말고 어느 거? 우린 그저 여름엔 시원하게 그저 막 내놓지 안 해서.)

110031 #2 자, 요거.(자, 요거.)

110031 @ 혹시 납평날에 그 연날리기 같은 거 안 헤낫수과?(혹시 납평날에 그 연날리기 같은 거 안 했었습니까?)

110031 #2 엿날에 연날리기 헤나도 그건 무신 무시거 우리 꼭 무신 날이엔 헹 헤나지 안 헤난, 뭐.(옛날에 연날리기 했어도 그건 무슨 뭐 우리 꼭 무슨 날이라고 해서 했었지 안 했었어, 뭐.)

110031 #3 웨정 때?(일제강점기 때?)

110031 @ 아니, 그냥 웨정 때 든 웨정 전이 어느 때든.(아니, 그냥 일제강점기 때 든 일제강점기 전에 어느 때든.)

110031 #3 아이고, 아녓주. 경ᄒᆞ멍 정ᄒᆞ멍 살앗주.(아이고, 않았지. 그러면서 저러면서 살았지.)

110031 @ 이 마을에선 연날리기 안 헤봣수과?(이 마을에선 연날리기 안 해봤습니까?)

110031 #3 아이고, 아니 엿날에 아이들 ᄒᆞ쏠썩 헹 뎅경게 만은.(아이고, 아니 옛날에 아이들 조금씩 해서 다니더니 만.)

110031 @ 아, 기? 아, 그렇구나예. 막 그 집안에 그때쯤 뒈면 막 마루에다 막 창오지니 뭐니 헤가지고 막 심각하게 연 만들고 경 안헷수과?(아, 그래? 아, 그렇군요. 막 그 집안에 그때쯤 되면 막 마루에다 막 창호지니 뭐니 해가지고 막 심각하게 연 만들고 그렇게 안했습니까?)

---

294) '하르방'은 할아버지를 뜻하나 여기서는 '남편'을 말한다.

295) '머시께라'는 남이 하는 짓이나 말이 너무도 기가 막힐 적에 내는 소리를 말하며, '메께. 메께라'라고도 한다.

110031 #2 아이고, ***.(아이고, ***.)

110031 @ 그랫구나예. 음.(그랬군요. 음.)

110031 #2 거고 잇지, 우리는 여기는 우리 헨에. 네 우리 두릴 때 웨정 땐 그만큼 압박 받아불고, 헤방 뒈엉 언마 어시난 사삼일어나불고 허난 우린, 어릴 때에 펜안히 살아보질 못헷주게.(그리고 있지, 우리는 여기는 우리 해서. 네 우리 어릴 때 일제강점기 땐 그만큼 압박 받아버리고, 해방 되어 얼마 없어서 사삼 일어나버리고 하니까 우린, 어릴 때에 편안히 살아보질 못했지.)

110031 @ 음.(음.)

110031 #3 고셍.(고생.)

110031 #2 고셍, 겐디 올케 저 돈이나 한 디 집안들은 허지만은.(고생, 그런데 옳이 저 돈이나 많은 데 집안들은 하지만.)

110031 @ 음.(음.)

110031 #2 거고 여자들은.(그리고 여자들은.)

110031 @ 예.(예.)

110031 #2 웨정 때 여자들은 학교 이신디, 학교 시킬 생각도 안 헤나서게 여긴.(일제강점기 때 여자들은 학교 있는데, 학교 시킬 생각도 안 했었어, 여긴.)

110031 @ 음, 맞수다.(음, 맞습니다.)

110031 #2 이쪽도 여기 올케 저 부젯칩 뚤이나.(이쪽도 여기 옳이 저 부잣집 딸이나.)

110031 @ 음 (음,)

110031 #2 학교 갓지. 학교 갈 꿈도 안 꿧는데.(학교 갔지. 학교 갈 꿈도 안 꿨는데.)

110031 @ 음.(음.)

110031 #2 지금 우리 집이 이디도, 이디도 그전엔 살 만큼 살앗주게.(지금 우리 집의 여기도, 여기도 그전엔 살 만큼 살았지.)

110031 @ 예.(예.)

110031 #2 친정이. 경헤도 학교를 안 보넷는디 뭐.(친정이. 그렇게 해도 학교를 안 보냈는데 뭐.)

110031 @ 대설이나 동지는 아까 풋죽을 쒀먹엇덴 하고예?(대설이나 동지는 아까 팥죽을 쒀먹었다고 하고요?)

110031 #2 어.(어.)

110031 @ 대설뒈민 여기도 눈 막 하영 왓수과?(대설되면 여기도 눈 막 많이 왔습니까?)

110031 #2 대설뒈민 눈 하영 온덴 ᄒᆞ주.(대설되면 눈 많이 온다고 하지.)

110031 @ 예.(예.)

110031 #2 요전에 그 전에는 잘 왓주.(요전에 그 전에는 잘 왔지.)

110031 @ 게난. 그땐 게민 수망리서 그때쯤 뒈믄은 밖에 어떵 다녓수과? 눈이

하영 와불면. 어차피 차는 엇엉 걸어 다녓주 만은.(그러니까. 그땐 그러면 수망리서 그때쯤 되면 밖에 어떻게 다녔습니까? 눈이 많이 와버리면. 어차피 차는 없어서 걸어 다녔지만.)

110031 #3 눈에 빠지멍 뎅겻주. 막 빠정.(눈에 빠지면서 다녔지. 막 빠져서.)

110031 @ 기억 남수과?(기억납니까?)

110031 #3 겨을엔 나 이 쉔 이디 메고 겨을에.(겨울엔 내가 이 소는 여기 매고 겨울에.)

110031 @ 예.(예.)

110031 #2 삶은 저기 살앗는디, 여기오기 전에 저기 살앗는디.(살기는 저기 살았는데, 여기오기 전에 저기 살았는데.)

110031 @ 예.(예.)

110031 #2 이디 오랑 쉐 촐 주어동 가단에, 요디 간 원간 눈이 크게 오니깐 ᄇᆞ름 획 부니까.(여기 와서는 소 꼴 주어두고 가다가, 요기 가서 원채 눈이 크게 오니깐 바람 획 부니까.)

110031 @ 예.(예.)

110031 #2 그 담은 몰르니까 획 헨에 영 넘어젓는디, 그 담 앞에는 막 짚은 디라이.(그 담은 모르니까 획 해서 이렇게 넘어졌는데, 그 담 앞에는 막 깊은 데야.)

110031 @ 음.(음.)

110031 #2 짚은 딘디, 그디 막 눈이 확 메와버리니까 몰른 거라.(깊은 덴데 거기 막 눈이 확 매워버리니까 모른 거야.)

110031 @ 예.(예.)

110031 #2 그레 빠지난, 풍덩 빠저나서. 그만큼 눈이, 겐디 이젠 그렇겐 눈 오질 아녀.(그리로 빠지니까, 풍덩 빠졌었어. 그만큼 눈이, 그런데 이젠 그렇겐 눈 오질 않아.)

12월

110033 @ 그다음엔 십이월에 들면예, 어, 음력 12월에 들면 우선 맨 먼저 신구간[296]이 들잖아예. 신구간에 들면, 물론 신구간이 어떤 땐 보면 명질 정월에 그때도 잇주만은예, 혹시 이사할 때 신구간 보멍 이사헷수과? 여기 이사는 어떵 여기 이사 올 때도 경헷수과? 여긴 이건 언제 오십년 텟덴 헷수과?(그다음엔 십이월에 들면요, 어, 음력 십이월에 들면 우선 맨 먼저 '신구간'이 들잖아요. '신구간'에 들면, 물론 '신구간'이 어떤 땐 보면 명절 정월에 그때도 있지만요, 혹시 이사할 때 '신구간' 보면서 이사했습니까? 여기 이사는 어떻게 여기 이사 올 때도 그랬습니까? 여긴 이건 언제 오십년 됐다고 했습니까?)

296) '신구간'은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3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대게 1월 25일부터 2월 1일 사이가 된다. '신구간(新舊間)'이란 모든 신들이 옥황상제가 거처하는 하늘에 모여 새로운 임무를 받으려고 대기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는 신이 없어서 아무 일이나 해도 탈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제주에서는 그 기간을 이용해 집을 고치고, 변소를 수리하고, 이사를 한다.

110033 #2 오십년 훨씬 넘엇주.(오십년 훨씬 넘었지.)
110033 #3 이거?(이거?)
110033 @ 육십삼 년, 아.(육십삼 년, 아.)
110033 #2 육삼주택이니까아.(육삼주택이니까아.)
110033 @ 아.(아.)
110033 #2 이거, 이것이 육삼주택이고.(이거, 이것이 육삼주택이고.)
110033 @ 예.(예.)
110033 #2 저기 잇는 우리 세면댄 그 채 전에부터 잇엇던 거. 그 전에 부터 내가 오십팔 년도에 결혼헨에 살긴 저짝에 살앗는데 이지 집지을 걸로 헤가지고 여기 쉐는 여기 멧이니까.(저기 있는 우리 세면댄 그 채 전에부터 있었던 거. 그 전에 부터 내가 오십팔 년도에 결혼해서 살긴 저쪽에 살았는데 이지 집지을 걸로 해가지고 여기 소는 여기 맸으니까.)
110033 @ 아, 경헷구나예.(아, 그랬군요.)
110033 #2 소기를 때.(소기를 때.)
110033 @ 여기 이사 올 때도 신구간에 옵디가?(여기 이사 올 때도 '신구간'에 오셨습니까?)
110033 #2 우리가 어떵헹 이디완 살안?(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 와서 살았어?)
110033 #3 어떵사 헤져신지.(어떻게야 했었는지.)
110033 @ 경헤도 놈의 집도 살아봣수과?(그래도 남의 집도 살아봤습니까?)
110033 #2 놈의 집은.(남의 집은.)
110033 @ 안 살아 부난 막 신구간 그런 거 멩심허고 안헤봐시켜예?(안살아 버려서 막 '신구간' 그런 거 명심하고 안 해보셨겠네요?)
110033 #2 견디 촌에는 놈의 집이 사는 사름 하질 아녀주게.(그런데 촌에는 남의 집에 사는 사람 많지 않지.)
110034 @ 그믄 여기 이사 올 때 이집을 집터로 헹 집 지서가지고 생각한 이유는 뭐꽈?(그러면 여기 이사 올 때 이집을 집터로 해서 집 지어가지고 생각한 이유는 뭡니까?)
110034 #2 아니, 이건 나 원래 나 난 터니까.(아니 이건 내가 원래 내가 난 터니까.)
110034 @ 아, 여기서.(아, 여기서.)
110034 #3 엿날.(옛날.)
110034 #2 이건 나 난 터고 지금.(이건 내가 난 터고 지금.)
110034 @ 그 불 부터버린 집이 여기 이듸엿수과?(그 불 붙어버린 집이 여기 여기였습니까?)
110034 #2 응.(응.)
110034 @ 사삼 때 불 부튼 집?(사삼 때 불붙은 집?)
110034 #3 응.(응.)

110034 #2 거난 웨냐. 지금 우리 형님이 이섯는데.(그러니 왜냐. 지금 우리 형님이 있었는데.)

110034 @ 예.(예.)

110034 #2 형님이 저 육이오 때 군인을 갓는데 저 영상공으로 군인 갓는데.(형님이 저 육이오 때 군인을 갔는데 저 영상공으로 군인 갔는데.)

110034 @ 예.(예.)

110034 #2 근데 그 가기 전에 좀 아팟어. 아파도 병원에도 못 뎅기고 허난,그것을 저 군대서 군대생활이 그때는 육이오 때 그때 겅허난, 고치지 못헤가지고 의병제대를 헷는데.(근데 그 가기 전에 좀 아팠어. 아파도 병원에도 못 다니고 하니까, 그것을 저 군대서 군대생활이, 그때는 육이오 때 그때 그렇게 하니까, 고치지 못해가지고 의가사제대를 했는데.)

110034 @ 예.(예.)

110034 #2 결국은 이디 왕 병원에도 못 가곡 돌아가셨거든.(결국은 여기 와서 병원에도 못 가고 돌아가셨거든.)

119934 @ 예.(예.)

110034 #2 그러고, 게니까, 그 밑에 우리 저 형이 헤도, 내가 큰아들이나 다름없어.(그러고, 그러니까, 그 밑에 우리 저 형이 해도, 내가 큰아들이나 다름없어.)

110034 @ 예.(예.)

110034 #2 이 우리집안에선. 모든 게 나 위주라.(이 우리집안에선. 모든 게 나 위주야.)

110034 #3 에이, 나 이디 왓당 나 얼먹언.(에이, 내가 여기 왔다가 내가 얼먹었어.)

110034 #2 하하하. 게난 이디 우리 할망[297]이 젤 고셍헌게 그거주게, 젤 고생허연.(하하하. 그러니 여기 우리 '내자'가 제일 고생한 게 그거지, 젤 고생했어.)

110034 #3 좀좀흡서. 밉성발루우다. 하영 곧지 맙서. 그만 굴아.(조용하세요. 미워요. 많이 말하지 마세요. 그만 말해.)

110034 #2 하튼 무조건 종손 노릇 헷주게.(하여튼 무조건 종손 노릇 했지.)

110034 @ 맞수다예.(맞습니다.)

110034 #2 경헤놓난게 이 집터나 뭐나 이거 전부 옛날 재산이라.(그래놓으니까 이 집터나 뭐나 이거 전부 옛날 재산이야.)

110034 @ 게, 그때 이미 집터로 집이라 나부난 뒤트레 나중엔 집지서사지, 그거는 계속 이서낫구나예? 겡 거 결혼헤가지고 언제 쯤이 여기 이사왓수과? 아이들 다 난 다음에마씨?(그래, 그때 이미 집터로, 집이라 버려서 뒤로 나중엔 집지어야지, 그거는 계속 있었었군요? 그렇게 그 결혼해가지고 언제쯤 이 여기 이사 오셨습니까? 아이들 다 난 다음에요?)

110034 #3 아이, 우로 두개 난 때, 우로 두개 난 때.(아니야, 위로 두 개 난 때,

297) '할망'은 '할머니를 뜻하나, 여기서는 '내자'를 이른다.

위로 두 개 난 때.)

110035 @ 여기 집지서가지고 맨 처음에 뭐 부터 갖다 놧수과? 이사 오젠 허난.(여기 집지어가지고 맨 처음에 뭐 부터 갖다 놓았습니까? 이사 오려고 하니까.)

110035 #3 무시거 갖다 놀 게 이서?(무엇 갖다 놓을 것 있어?)

110035 @ 옛날에 이사할 때 맨 먼저 뭐 갖다 놓고 막 갖다 놓고 하는 거 이서낫잖아예?(옛날에 이사할 때 맨 먼저 뭐 갖다 놓고 막 갖다 놓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110035 #3 무시거 체암게 올 때 체암 올 때 솟 솟 흔 아저온 거주.(뭐 처음에 올 때 처음 올 때 솥 솥 한 가져온 거지.)

110035 @ 솟 가져 완예. 그때는 정제에 그냥 솟떡 헤근에 밥헷수과? 그때부예?(솥 가져 와서요. 그때는 부엌에 그냥 봇돌 해서 밥했습니까? 그때부터요?)

110035 #3 솟떡 혜영 검질 불 솜고.(봇돌 해서 잡풀 불 때고.)

110036 @ 그 다음에는 그 솟 갖다놓고, 집알이라는 게 잇는데 집알이 같은 거 헷수과?(그 다음에는 그 솥 갖다놓고, 집알이라는 게 있는데 집알이 같은 거 했습니까?)

110036 #3 경흔 거 무신거? 아녓주.(그런 거 뭐? 안 했지.)

110036 @ 그런 거 안헤봔마씨?(그런 거 안 해봤나요?)

110036 #3 응. 체암 저디 박그리엔 ᄒᆞ주게. 박그레 오랑 ᄒᆞ꼼 살단에.(응. 처음 저기 바깥채라고 하지. 바깥채 와서 조금 살다가.)

110036 @ 예.(예.)

110036 #3 이디 문 이디 멘들아놘, 이디 들어완 밥헤먹고.(여기 모두 여기 만들어놓아, 여기 들어와서 밥해먹고.)

110036 @ 밥헤먹고, 거 이집이 어떤 집인가 헤가지고 그 집에 적응하기 위해가지고 옛날엔 형식적으로 한 ᄒᆞ룻밤 먼저 자고 경헤난 거 닮아예.(밥해먹고, 그 이집이 어떤 집인가 해가지고, 그 집에 적응하기 위해가지고, 옛날엔 형식적으로 한 하룻밤 먼저 자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110036 #3 그거 안헤언.(그거 안 했어.)

110036 @ 게, 바로 그냥 완 살앗수과?(그래, 바로 그냥 와서 살았습니까?)

110036 #3 저디 살당게 바로 이디.(저기 살다가 바로 여기.)

110037 @ 그 다음엔 그 우리가 그 신구간 때 어 집들이를 하잖아예. 집들이, 예 집들이 집안에 할 때 어떤 식으로 선물을 헷수과? 놈의 집 갈 때라든가.(그 다음엔 그 우리가 그 '신구간' 때 어, 집들이를 하잖아요. 집들이요. 집들이 집안에 할 때 어떤 식으로 선물을 했습니까? 남의 집 갈 때라든가.)

110037 #3 아, 집들이 홀 때 기냥 헤민 춤 무시거게 영 부지 ᄒᆞ쏠 헤 ᄒᆞ는 거주 부지. 그릇도 희어주고.(아, 집들이 할 때 그냥 하면 참 뭐지 이렇게 부조 조금 해 하는 거지, 부지. 그릇도 해주고.)

110037 @ 그릇도 헤주고?(그릇도 해주고?)

110037 #3 응.(응.)

110037 @ 옛날엔마씨?(옛날에는?)

110037 #3 그냥 그릇 무신 그릇도 ᄒᆞ쏠 헤여주고, 쏠 부지도 경ᄒᆞ곡 경헷주.(그냥 그릇 무슨 그릇도 조금 해주고, 쌀 부조도 그렇게 하고 그랬지.)

110037 @ 그렇구나예.(그렇군요.)

110037 #3 쏠 부지도 ᄒᆞ쏠 헤 가고 그릇으로 ᄒᆞ쏠 헤주는디 잇고.(쌀 부주도 조금 해 가고 그릇으로 조금 해주는 데 있고.)

110037 @ 그 집들이 할 때는 막 게도 막 밥 헤먹으멍 나눠 먹고 헤낫지예?(그 집들이 할 때는 막 그래도 막 밥 해먹으며 나눠 먹고 했었지요?)

110037 #3 응. 이섯밥 헤먹주.(응. 이삿밥 해먹지.)

110038 @ 그다음에 그 십이월에는, 음력 십이월에는 보면, 그 아까 일월에도 그게 들어가긴 하는데, 정월, 일월에 그 소한, 대한 잇는데.(그다음에 그 십이월에는, 음력 십이월에는 보면, 그 아까 일월에도 그게 들어가긴 하는데, 정월, 일월에 그 소한, 대한 있는데.)

110038 #3 응.(응.)

110038 @ 음력으로는 십이월에 잇기도 하잖아예? 그 소한 대한에 대헤서는 어떤 식으로 지넷수과?(음력으로는 십이월에 있기도 하잖아요? 그 소한 대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냈습니까?)

110038 #3 아무것도 아녀고 그때 뒈민 그 말이 엿날 말이, 대한에는 나간 사람 춪아보도 말라.(아무것도 안 하고 그때 되면 그 말이 옛날 말이, 대한에는 나간 사람 찾아보지도 마라.)

110038 @ 맞아. 그 말을 합디다예? 다른 마을에도 조사할 때 보난.(맞아. 그 말을 하던데요? 다른 마을에도 조사할 때 보니까.)

110036 #3 그런 말 헤서.(그런 말 했어.)

110036 @ 무사 그 말을 헤신고?(왜 그 말을 했을까?)

110036 #3 젤 춥다는 거라.(제일 춥다는 거야.)

110036 #2 아, 그니까 눈이 젤 많이 오니까.(아, 그러니까 눈이 제일 많이 오니까.)

110036 #3 그때 나간 사름은.(그때 나간 사람은?)

110036 #2 어디 가근엥에 올케 저 묻혀버리는 사름이 이시는 거라.(어디 가서 옳이 저 묻혀버리는 사람이 있는 거라.)

110036 @ 아.(아.)

110036 #3 경헤신ᄀᆞ라. 대한 나간사름 춪아보지 말라.(그렇게 했는지. 대한 나간 사람 찾아보지 마라.)

110036 #2 이제는 경 헤. 그전엔 대한에 나간 사름사, 이젠 소한에 나간사름 춪아보지 말렌 헌 사름도 이서. 소한에가 더 온다.(이제는 그렇게 해. 그전엔 대한에 나간 사람이야, 이젠 소한에 나간사람 찾아보지 말라 한 사람도 있어. 소한에가 더

온다.)

110036 @ 더 추웡예. 예, 알앗습니다. 이거 세시풍속은 어 이걸로 정리 끗나겟습니다예.(더 추워서요. 예, 알았습니다. 이거 세시풍속은 어 이걸로 정리 끝나겠습니다.)

10. 놀이

연(鳶)

111001 @ 예전에 놀이는 주로 어떤 거 헤낫수과?(예전에 놀이는 주로 어떤 거 했었습니까?)

111001 #4 놀이는 그자 자치기엥 고망 자치기엔 헤근에 그거 허곡.(놀이는 그자 자치기라고 고망 자치기라고 해서 그거 하고.)

111001 @ 예.(예.)

111001 #4 또 그 주로 그 두린 땐 머니까, 그 학교 가기 전에는 그 흑 헤어근에 떡 만들면 무신 저 밥허면 밥허민 그 무신 저 그 구젱기딱살 봉가나근에 그디 흑 질어놩 그 쏠 헤근에 기자 그것에 헤근에 물 놩 밥허멍 그자 그추룩들 허멍, 그 여자들이엉은 신 때는 경허멍 놀곡양. 겐 느는 어멍허라, 날랑 아방허켜 허멍 둘이 경허멍게.(또 그 주로 그 어린 땐 뭐하니까, 그 학교 가기 전에는 그 흙 해서 떡 만들면 무슨 저 밥하면, 밥하면 그 무슨 저 그 소라딱지 주어서 거기 흙 부어넣어 그 쌀 해서 그저 그것에 해서 물 넣어 밥하면서 그저 그처럼 하면서, 그 여자들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하며 놀고요. 그러니 너는 어머니 하라, 나는 아버지 할게, 하면서 둘이 그렇게 하면서요.)

111001 #5 부서, 그레다. 새각시 만들곡, 공기허곡.(부어, 거기다. 새색시 만들고, 공기하고.)

111001 @ 공기하고.(공기하고.)

111001 #5 응, 뼁이치기허곡.(응, 삘기치기하고.)

111001 @ 뼁이치기 하고, 이제 그런 걸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물어 보쿠다예? 어 연 날릴 때 연의 종류에는 뭐가 이섯수과?(삘기치기 하고, 이제 그런 걸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물어 보겠습니다? 어, 연 날릴 때 연의 종류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111002 #4 거 뭐 막 연 종류는 하낫는디 무신 가오리연이여, 뭐 둘연이여 무신 뭐 이젠 연ᄀᆞ라 무신, 이제 문 이져부런 무신.(거 뭐 막 연 종류는 많았는데 무슨 가오리연이야, 뭐 달연이야, 무슨 뭐 이젠 연보고 무슨, 이제 모두 잊어버려 무슨.)

111002 @ 방패연이여.(방패연이여.)

111002 #4 예, 막.(예, 막.)

111002 @ 이져버련예?(잊어버려서요?)

111002 #4 이져버련에 원.(잊어버려서 원.)

111003 @ 연 날릴 때 연을 날리기 위헤서 필요한 것들이 뭐뭐가 이섯수과?(연 날릴 때 연을 날리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뭐뭐가 있었습니까?)

111003 #4 그때양, 그 연 줄이 씰이 겐 씰이 귀헤놓난양, 씰이 엇엇어마씀.(그때요, 그 연 줄이 실이 그렇게 실이 귀해놓으니까요, 실이 없었어요.)

111004 @ 씰은 뭘로 헷수과?(실은 뭐로 했습니까?)

111004 #4 아이, 저 미녕씰 그 헤근에 쓰는 거에 놔근에 그거 헤근에 두 곱헤근에 영 허민 끊어져 부리곡 또 어멍안티 매 맞고 할망안티 매 맞곡 허멍 헤낫신디.(아이, 저 무명실 그 해서 쓰는 거에 놓아서 그거 해서 두 곱해서 이렇게 끊어져버리고 또 어머니한테 매 맞고 할머니한테 매 맞고 하면서 했었는데.)

111004 @ 거난 저기 미녕씰 헷고 그 다음엔마씨?(그러니 저기 무명실 했고 그 다음에는?)

111004 #4 원, 미녕씰은 원, 딴 씰이 엇어낫수다.(원, 무명실은 원, 다른 실이 없었습니다.)

111004 @ 얼레 같은 건 어섯수과? 얼레 안 만들엇수과?(얼레 같은 건 없었습니까? 얼레 안 만들었습니까?)

111004 #5 무시거?(뭐?)

111004 @ 감는 거.(감는 거.)

111004 #5 감는 거?(감는 거?)

111004 #4 감는 거? 그거 저 이 경 막 구루 후제 저 흔 ᄉ삼사건 난 후에 나가 난에양. 그때는 흔 원, 우리 일고ᄋᆞ답 술 땐 막 감는 거 만들멍 못 헤서마씀.(감는 거? 그거 저 이 그렇게 막 그 후에 저 한 사삼사건 난 후에 내가 태어나서요. 그때는 한 원, 우리 일고여덟 살 땐 막 감는 거 만들면서 못 했어요.)

111005 @ 못 헷수과? 그 다음 혹시 그 연 날리멍 혹시 연싸움헤난 기억 잇수과?(못 했습니까? 그 다음 혹시 그 연 날리며 혹시 연싸움했던 기억 있습니까?)

111005 #4 연 싸움 뭐 헤난 거 잇수다만은, 헌디양 그거 거난 첨 그땐 그 ᄋᆞ둡 살 전에라노나니까양. 이 주로 그 우리 연 헤근에 벗들을 허젱 헤도 그 자꾸 영 만나근에 그때는 막 이추룩 집단으로 살지를 못헤영. 기자 이디저디 막 뭐헤놓니까양, 경 만낭 뭘 허질 못헤서마씀. 거 동네 혼 서너네 집 이시믄 그때 다 아이들 기자 영 ᄀᆞ찌.(연 싸움 뭐 했던 거 있습니다만, 그런데요 그거 그러니 참 그땐 그 여덟 살 전이어서요. 이 주로 그 우리 연 해서 벗들을 하려고 해도 그 자꾸 이렇게 만나서 그때는 막 이처럼 집단으로 살지를 못해요. 그저 여기저기 막 뭐해놓으니까요, 그렇게 만나서 뭘 하지를 못했어요. 거 동네 혼 서너네 집 있으면 그때 다 아이들 그저 이렇게 같이.)

111005 @ ᄀᆞ치 연 만들고 경 안헤난마씨?(같이 연 만들고 그렇게 안했었나요?)

111005 #4 연은 연은 기자 저 우리가 만들지 못헤근에 첨, 그 선배 뒈는 어른들이 영 헤근에 좀 만들아주곡 영 헹 만들아도렌 허곡.(연은 연은 그저 저 우리가 만

들지 못해서 참, 그 선배 되는 어른들이 이렇게 해서 좀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달라고 하고.)

111005 @ 경헤낫지예?(그랬지요?)

111005 #4 예.(예.)

111006 @ 연 날리면서 뭔가 그 혹시 연 날렷던 추억 있잖아예? 연 이져먹은 거 봉그레 간 추억이라든가 혹시 엇엇수과?(연 날리면서 뭔가 그 혹시 연 날렸던 추억 있잖아요? 연 잊어먹은 거 주우러 간 추억이라든가 혹시 없었습니까?)

111006 #4 그런 거는 엇고예.(그런 거는 없고요.)

111006 @ 엇엇수과?(없었습니까?)

제기차기

111007 @ 그다음은 제기 차기로 들어가겟습니다예. 그 제기차기 옛날엔 뭐렌 골앗수과?(그다음은 제기 차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제기차기 옛날엔 뭐라고 말했습니까?)

111007 #4 제기는 저 그땐 제기차긴 그자 쪽기차기엔 헹 그 말헷수다.(제기는 저 그땐 제기차긴 그저 '쪽기차기' 해서 그 말했습니다.)

111007 @ 맞수다. 맞수다, 쪽기차기엔 헷지예?(맞수다. 맞수다, '쪽기차기'라고 했지요?)

111007 #4 예. 헤낫주게. 거.(예. 했었지요. 그거.)

111008 @ 쪽기차기에는 어떤 종류들이 어떤 종류가 이섯수과?(제기차기에는 어떤 종류들이 어떤 종류가 있었습니까?)

111008 #4 그때 무신 단추가 이섯수과 뭐에 놔, 그자 돌 돌려 주웡[298] 거 헤근에 만들어근에 험벅 영 찢어근에 훅훅. 또 경허난 야튼.(그때 무슨 단추가 있습니까, 뭐에 놓아, 그저 돌 돌려 '묶어' 그거 해서 만들어서 헝겊 이렇게 찢어서 훅훅. 또 그렇게 하니까 하여튼.)

111008 #5 쪽기?(제기?)

111008 #4 이 시기 신이 이서근에 뭘 이시까, 영 헤민 경 그거 영 헤근에 허민 기자 헨 기자 동글랑 헌 거 뭐헤근에 가쁜 거 기자 아프지 안허게.(이 시기 신발이 있어서 뭘 있을까, 이렇게 하면 그렇게 그거 이렇게 해서 하면 그저 해서 그저 동그란 한 거 뭐해서 가뿐한 거 그저 아프지 안하게.)

111009 @ 제기 찰 때는 한발차기 두발차기 헤가지고 그런 거 이섯지예?(제기 찰 때는 한발차기 두발차기 해가지고 그런 거 있었지요?)

111009 #4 아이, 그런 거는 엇어.(아니, 그런 거는 없어.)

111009 @ 엇엇수과?(없었습니까?)

111009 #4 그때는 생각을 잘 안 헨 때양.(그때는 생각을 잘 안 했을 때입니다.)

---

298) '주웡'은 기본형 '줍다'이다. 표준어 '깁다'에 대응하는 말이나 여기서는 '묶다'의 뜻이므로 '묶어'로 대역했음을 밝힌다.

111009 @ 몇 개 차기, 몇 개 차기만?(몇 개 차기, 몇 개 차기만?)

111009 #4 예, 예. 거 막중에 변헌 거는.(예, 예. 거 나중에 변한 거는.)

111010 @ 거 제기 찰 때 어 뭐 특별한 기억이 엇수과? 막 발이 돌멩이 집어놔시난 아파실 거 아니꽈예?(그 제기 찰 때 어 뭐 특별한 기억이 없습니까? 막 발이 돌멩이 집어넣었으니까 아팠을 거 아닙니까?)

111010 #4 아니, 그 겨난 양말도 안 신곡 허민 게 발게 멘발 그 영 허믄 게 이 이런데 헤근에 허곡 영 혼 멧 번 헤나믄 거 아파근에.(아니, 그 그러니 양말도 안 신고하면 그 발이 맨발 그 이렇게 하면 그 이 이런데 해서 하고 이렇게 한 몇 번 했어나면 그 아파서.)

111010 @ 못 헤난 기억예?(못 했던 기억이요?)

자치기

111011 @ 그다음에 자치기는 하지예?(그다음에 자치기는 하지요?)

111011 #4 자치기? 예, 예.(자치기? 예, 예.)

111011 @ 자치기는 어떤 종류가 이섯수과? 자치기에는.(자치기는 어떤 종류가 있었습니까? 자치기에는.)

111011 #4 거 여러 개 이선. 이져부런 뭐허고 기자 고망 자치기엔 헤근에.(그거 여러 개 있어서. 잊어버려서 뭐하고 그저 구멍 자치기라고 해서.)

111011 #5 우린 고망자파리 경 안헤나난 원.(우린 구멍장난 그렇게 안 했었기에 원.)

111011 #4 이, 그 흑 이거 땅이민 흑 기자 ᄒᆞ쏠 영 파근에 그레 저 돌 쪼꼴락허게 영 놔근에 기자 영 우트레 걸처근에 영 헤근에 허곡.(이, 그 흙 이거 땅이면 흙 그저 조금 이렇게 파서 그리로 저 돌 아주 작게 하게 이렇게 놓아서 그저 이렇게 위에 걸쳐서 이렇게 해서 하고.)

111011 @ 멀리?(멀리?)

111011 #4 예. 또 이제 영 케우려근에[299] 허는 거 허곡, 또 영 헤근에 그 저 헹 뭐헹 나가는 거는 허곡 그거.(예. 또 이제 이렇게 '케우려근에' 하는 거 하고, 또 이렇게 해서 그 저 해서 뭐해서 나가는 거는 하고 그거.)

111011 @ 그 두 가지예?(그 두 가지요?)

111011 #4 예.(예.)

111012 @ 그 자치기헐 때 그 자, 그 막뎅이 막 그건 어떵 준비헷수과? 자 막뎅이.(그 자치기할 때 그 자, 그 막대 막 그건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자 막대.)

111012 #4 자, 막뎅이 그거 여긴 낭들 하난에양, 그대로 요만ᄒᆞᆫ 기자 ᄒᆞᆫ 삼십센치 ᄉᆞ십센치 끈어근에.(자, 막대 그거 여긴 나무들 많으니까요, 그대로 요만한 그저 한 삼십 센티 사십 센티 끊어서.)

111013 @ 기? 그믄 승부는 어떵 가렷수과? 그 이기고 진거는.(기? 그러면 승부

299) '케우려근에'는 뭉치거나 모아 있는 물체를 헤집어 이리저리 흩어지게 하는 것을 말한다.

는 어떻게 가렸습니까? 그 이기고 진 거는.)

111013 #5 멀리 놀아가는 걸로.(멀리 날아가는 걸로.)

111013 #4 아, 이기고 진건 멀리 놀아가민양 그 그걸로 재는 거라마씀. 저 자치기 그.(아, 이기고 진 건 멀리 날아가면요 그 그걸로 재는 겁니다. 저 자치기 그.)

111013 @ 자로.(자로.)

111013 #2 자로, 자로.(자로, 자로.)

111013 #4 저 자엔 헤근에 술진 거 잇고 요 채주. 겨민 거 쌀 요만한 ᄀᆞ는 거 쫄른 거 영허민 건 놀아가근에 ᄌᆞ만 쯤 강 떨어지면은 그걸로 자 영 채 그걸로 영헹 재여 가근에.(저 자라고 해서 굵은 거 있고 요 채지. 그러면 거 쌀 요만한 가는 거 짧은 거 이렇게 하면 그건 날아가서 저만 쯤 가서 떨어지면, 그걸로 자 이렇게 채 그걸로 이렇게 해서 재지. 가서.)

111014 @ 그때 막 특별히 자치기 잘헤난 아이는 엇엇수과?(그때 막 특별히 자치기 잘했던 아이는 없었습니까?)

111014 #4 것도, 그 저 우리보다 밑엣 아이영 허민 우리가 이기고, 우리보다 우엣사름이영 허민 우잇 사름이 이기고.(그것도, 그 저 우리보다 밑의 아이하고 하면 우리가 이기고, 우리보다 윗사람하고 하면 윗사람이 이기고.)

말타기

111015 @ 그다음엔 ᄆᆞᆯ타기 이서낫잖아예? ᄆᆞᆯ타기예?(그다음엔 말 타기 있었잖아요? 말타기요?)

111015 #4 ᄆᆞᆯ타기도 헤낫어.(말타기도 했었어.)

111015 @ 게 ᄆᆞᆯ타기 보면 어떤 종류가 이섯수과? ᄆᆞᆯ타기 뭐 죽은 ᄆᆞᆯ타기, 생ᄆᆞᆯ타기 그런 거 기억남수과?(그 말타기 보면 어떤 종류가 있었습니까? 말타기 뭐 죽은 말타기, 생말타기 그런 거 기억납니까?)

111015 #4 죽은ᄆᆞᆯ, 생ᄆᆞᆯ이엔 안허곡, 기자 ᄆᆞᆯ타기 허며는 그대로 영 헤근에 좀 사름 영 상, 그디 영 저 뭐 업더저근에 허며는 그 우트레 강 기자 영 탁 허며는 그것도 ᄒᆞ쏠 역은 사람 이시민 이슨 사름 기자 영 허며는 기자 아장 탁 헤버리며는 그.(죽은말, 생말이라고 안하고, 그저 말타기 하면 그대로 이렇게 해서 좀 사람 이렇게 서서, 거기 이렇게 저 뭐 엎더져서 하면 그 위로 가서 그저 이렇게 탁, 하면 그것도 조금 약은 사람 있으면 있는 사람 그저 이렇게 하면 그저 앉아서 탁 해버리면 그.)

111015 @ 그 말타기 헐 때는 주로 동네 아이들이 모영 허는데 남자 아이들만 헷수과? 여자 아이들은 ᄀᆞ치 안헷수과?(그 말타기 할 때는 주로 동네 아이들이 모여 하는데 남자 아이들만 했습니까? 여자 아이들은 같이 안했습니까?)

111015 #4 여자아이들은 안 허고예.(여자아이들은 안 하고요.)

111015 @ 말타기 헐 때 막 뭐 가위바위보 헤가지고 헷던 기억 하나만 ᄀᆞᆯ아줍서.(말타기할 때 막 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했던 기억 하나만 말해주세요.)

111015 #4 아이고, 기억이 너무 터 뭐헤부난에 기억이 잘 안 남서.(아이고, 기억이 너무 터 뭐해버려서 기억이 잘 안 나네.)

구술치기

111020 @ 안 남수과? 그다음에 구슬치기 잇잖아예? 구슬치기예? 옛날엔 뭐 다마치기엔 허고 다마치기 전에, 그전에는 어 그 일제 때든 아니면 그 후든 구슬은 어떻게 준비헷수과?(안 나십니까? 그다음에 구슬치기 있잖아요? 구슬치기요? 옛날엔 뭐 구술치기라고 하고 구술치기 전에, 그전에는 어, 그 일제강점기 때든 아니면 그 후든 구슬은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111020 #4 그 저 공기엔 돌, 다마는 우린 그 공기놀이를양 다슷.(그 저 공기엔 돌, 다마는 우린 그 공기놀이를요 다섯.)

111020 @ 구술치기요. 공기놀이는 나중에 다시 여쭤보고예.(구술치기요. 공기놀이는 나중에 다시 여쭤보고요.)

111020 #4 예. 다마치기 허는 거는 그거는 그 무신 저 나무열매양, 그런 거.(예. 구술치기 하는 거는 그거는 그 무슨 저 나무열매요, 그런 거.)

111020 @ 나무 열매 뭐마씨?(나무 열매 뭐요?)

111020 #5 무신 낭사신디 그때 무신.(무슨 나무였는지 그때 무슨.)

111020 #4 그 놀 거는 ᄆᆞᆼ쿠슬로 기자 그런 것도 무신 뭐 그런 게 구슬이 엇어십주게. 엇어. 이 촌에 뭐.(그 날 거는 멀구슬나무 열매로 그저 그런 것도 무슨 뭐 그런 게 구슬이 없었습지요. 없어. 이 촌에 뭐.)

111020 #5 엇엇주게. 지금처럼 낭 무신.(없었지. 지금처럼 나무 무슨.)

111020 @ 아까 뭐렌 헷수과? 몰구슬마씨?(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멀구슬이요?)

111020 #4 ᄆᆞᆼ쿠슬낭이엔 저 멀구슬낭엔가 지금 저양.(멀구슬나무라고 저 멀구슬나무라고 하는가 지금 저.)

111022 @ 그 아까 그 저 구술치기 헐 때 구멍치기가 어떤 거과?(그 아까 그 저 구슬치기 할 때 구멍치기가 어떤 겁니까?)

111022 #5 구멍치기?(구멍치기?)

111022 @ 예. 구멍치기. 혹시 이렇게 구멍 뚤라가지고 거기 같은데 들이치는 거 안 헤낫수과?(예. 구멍치기. 혹시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거기 같은데 집어넣는 거는 안 했었습니까?)

111022 #4 아, 그 구멍치기가 그것이 에, 기역이 조금 말뭇이[300] 나긴 허는디, 그.(아, 그 구멍치기가 그것이 에, 기역이 조금 '어렴풋이' 나긴 하는데, 그.)

111022 @ 고망치기렌 헤나실 거라예?('고망치기'라고 했었을 거겠죠?)

111022 #4 예. 영 뭐엔 헨에 첨 그 저망쭈기 성 이성허민, 그걸 마처근에 욜로 영 헤근에, 이디 땅에서양.(예. 이렇게 뭐라고 해서, 참, 그 저만치 서서 있어서하면, 그걸 맞춰서 요리로 이렇게 해서, 여기 땅에서요.)

300) '말뭇이'는 문맥상 '어렴풋이'로 이해가 되어 '어렴풋이'로 대역하였음을 밝혀둔다.

111022 @ 예.(예.)

111022 #4 거난에 그 지금처럼 뭐 세면도 엇고 땅 영 먼 디 허니깐 편편헌데 엇엇놓난, 그걸 별로 안 헤마씸양. 그런 거는양.(그러니까 그 지금처럼 뭐 시멘트도 없고 땅 이렇게 먼 데 하니깐 편편한데 없어놓으니까, 그걸 별로 안 했어요. 그런 거는요.)

111023 @ 그럼 혹시 원치긴 헷수과?(그럼 혹시 원치긴 했습니까?)

111023 #4 원치기는 모르고.(원치기는 모르고.)

111023 @ 원, 똥글랑허게 그려 놔가지고 그 안에 무시거 놓고.(원, 동그랗게 그려 놔가지고 그 안에 무엇 놓고.)

111023 #4 건, 원치기엔 헌 거 거 잘.(그건, 원치기라고 한 건 그건 잘.)

111024 @ 안헷수과? 벽치긴마씨? 벽 벽에다가 탁 처근에.(안했습니까? 벽치긴요? 벽, 벽에다가 탁 쳐서)

111024 #4 그 벽치기 허젠헤도 벽이 그때양 담으로 영 헨에 벡이 엇엇수다. 엇엇어.(그 벽치기 하려해도 벽이 그때요 돌담으로 이렇게 해서 벽이 없었습니다. 없었어.)

111025 @ 그다음에 눈치기 내지는 눈알치기라는 거 잇잖아예? 건 헷수과?(그럼 눈치기 내지는 눈알치기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건 했습니까?)

111025 #4 그건 영 헤근에양 저 아레 영 놔근에 영 헤근엔 영 사근에 기자 영 거 맞추는 거.(그건 이렇게 해서요 저 아래 이렇게 놓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서 그저 이렇게 그거 맞추는 거.)

111025 @ 건 헤낫수과?(그건 했었습니까?)

111025 #4 예. 건 그거는 춤.(예. 그건 그거는 참.)

111026 @ 헤낫수과? 그 다음에는 삼각치기라는 거 이서신디예, 삼각치기.(했었습니까? 그 다음에는 삼각치기라는 거 있었는데요, 삼각치기.)

111026 #4 삼각치기엔 그건 잘 기억이 안나고예.(삼각치기라고 그건 잘 기억이 안 나고요.)

111027 @예, 거민 구슬치기에 구슬치기헐 때 기억나는 거 이시민 혼 가지만 골아줍서.(예, 그러면 구슬치기에 구슬치기할 때 기억나는 거 있으면 한 가지만 말해주세요.)

111027 #4 아이고 엇주게. 지금 거 원 허허허 기억이 안남수다, 안 남서.(아이고 없지. 지금 거 원 허허허 기억이 안 납니다, 안 나요.)

111027 @ 하나도마씨?(하나도요?)

111027 #5 헤난 사름사 홀쏠 기억이 나주만은 우리 ᄀᆞ튼 멍청이는 아무것도.(했던 사람이야 조금 기억이 나지만 우리 같은 멍청이는 아무것도.)

111027 #4 겨난 그거 뭐 어디 무신 벗들이라도 막 하근에 기자 영 뭐 햄시믄 허주만은 저 이 길이양 길이 ᄒᆞ쏠 멘짝이라도 허영 헤시민 허주만은 경도 안허고 영 헨에 기자 뭐.(그러니 그거 뭐 어디 무슨 벗들이라도 막 많아서 그저 이렇게 뭐

하고 있으면 하지만 저 이 길이요, 길이 조금 평평하기라도 해서 했으면 하지만 경도 안하고 이렇게 해서 그저 뭐.)

111027 @ 마당은 멘짝헤나지 안헷수과?(마당은 평평했었지 않았습니까?)

111027 #4 마당 마당은 저 헤도양, 마당에 검질을 문 꼴아부러서마씀게.(마당 마당은 저 해도요, 마당에 잡풀을 모두 깔아버려서요.)

111027 @ 아, 맞아 예.(아, 맞아 예.)

111027 #4 예. 검질 꼴아부난 문 지금 그런 저런 거예, 허질 못헷주.(예. 잡풀 깔아버려서 모두 지금 그런 저런 거요, 하질 못했지.)

딱지치기

111028 @ 빳장치기는 헤낫잖아예?(딱지치기는 했었잖아요?)

111028 #4 빳장치기도 그 후에 벳긔는.(딱지치기도 그 후에 밖에는.)

111028 @ 후에라도 빳장치기 빳장은 어떵 준비헷수과?(후에라도 딱지치기 딱지는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111028 #4 빳장은 그 기자 무신 그 뭣도 몰란 ,뭐나 첨 그 기자 책 기자 그 아방 보던 책 그 어디 그 우의 놧시면은, 배게여 무시거 어디 가버리며는 헤어근에 거 헤여근에 보려근에 빳장 만들앗다근에 뚜리젠ᄒᆞ며는 둘아난, 우리 웨갓집에 할남리[301]주게.(딱지는 그 그저 무슨 그 뭣도 몰라서, 뭐냐 참 그 그저 책 그저 그 아버지 보던 책 그 어디 그 위에 놓였으면, 배게여 뭐, 어디 가버리면 해서 그거해서 찢어서 딱지 만들었다가 때리려하면 달아난, 우리 외갓집이 한남리지.)

111029 #4 경허면 뚜리젠허민 기자 똑 쫓아오는디 나 할남리 갈 또록 경 기자 원, 저만치 떨어저근에 자기 왕 심도 안허곡, 경 그추룩 웨갓집일 가낫수다. 그 멘발에 또 질도 촐밧듸 이런 딜로 영 뎅기는디 거 샛질초룩 헤근에양, 헤근에 질로 뎅기젠 허믄 막 멀민 그추룩 헌 딜로.(그러면 때리려하면 그저 꼭 쫓아오는데 나 '한남리' 갈 때까지 그렇게 그저 원, 저만치 떨어져서 빨리 와서 붙잡지도 안하고, 그렇게 그처럼 외갓집에 갔었습니다. 그 맨발에 또 길도 꼴밭에 이런 데로 이렇게 다니는데 거 샛길처럼 해서요, 해서 길로 다니려하면 매우 멀면 그처럼 한 데로.)

111029 @ 도망쳐난예? 빳장치기는 어떤 어떤 종류가 이섯수과? 빳장치기 종류.(도망쳤었어요? 딱지치기는 어떤, 어떤 종류가 있었습니까? 딱지치기 종류.)

111029 #5 것사 막 ᄋᆞ라 가지주게.(그거야 매우 여러 가지지.)

111029 #4 빳장치기도 ᄋᆞ라 가지 잇주만, 헌디, 그 저 네개방정허게 만들엉헌 거허곡, 또 그 무신 솔펜모냥으로 만든 거 원 그추룩 그거 헤근에.(딱지치기도 여러 가지 있지만, 한데, 그 저 네모반듯하게 만들어서한 거하고, 또 그 무슨 솔편모양으로 만든 거 원, 그처럼 그거 해서.)

111029 @ 앞뒤로 만든 거 엇엇수과? 빳장을 앞뒤로 만들어 가지고.(앞뒤로 만

301) '할남리'는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를 말하는데 제주어 채록중인 마을인 '수망리'바로 아랫마을이다.

든 거 없었습니까? 딱지를 앞뒤로 만들어 가지고.)

111029 #4 그 앞뒤로 저 게 네 개방장헤근에헤영 헌 거는 그것이 앞뒤고 ᄀᆞ따야.(그 앞뒤로 저 그게 네모반듯해서한 거는 그것이 앞뒤고 같아야.)

111029 @ 음.(음.)

111029 #4 예, 그추룩 영 찔렁 허민 경허민 그걸 영 허며는 뒈싸저야 먹는 거양.(예, 그처럼 이렇게 찔러서 하면 그렇게 하면 그걸 이렇게 하면 뒤집어져야 먹는 겁니다.)

111029 @ 먹는 거예?(먹는 거요?)

111029 #4 예.(예.)

111029 @ 거면 딱지치기 종류에는 뒈싸저야 먹는 거허고 또 뭐가 이섯수과?(그러면 딱지치기 종류에는 뒤집어져야 먹는 거하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111029 #4 종류는 몰르크라양.(종류는 모르겠습니다.)

111030 @ 거면 딱지 칠 때는 어떤 식으로 그 딱지를 처근에 뒈싸수과?(그러면 딱지 칠 때는 어떤 식으로 그 딱지를 쳐서 뒤집었습니까?)

111030 #4 게난, 땅에 영 놔근에 그대로 아상 영 탁! 헹 불려근에 허며는.(그러니, 땅에 이렇게 놓아서 그대로 가져서 이렇게 탁! 해서 불려서 하면.)

111030 #2 마당으로 불려.(마당으로 불려.)

111030 #3 엎어지며는 먹는 겁주게.(엎어지면 먹는 겁지요.)

111030 @ 먹는 거 또 다른 건 엇수과?(먹는 거 또 다른 건 없습니까?)

111030 #4 또 발 영 그레 또 이 또 영 이 저 빳장 이시민 그 저끗디레 놔근에 영 뭐헤근에 이레 헤여근에 발로 영 헤근에 넘어사나신디 원 헨 그추룩도 허곡.(또 발 이렇게 그리로 또 이 또 이렇게 이 저 딱지 있으면 그 곁에 놓아서 이렇게 뭐해서 이리로 해서 발로 이렇게 해서 넘었었는지 원, 해서 그처럼도 하고.)

111031 @ 딱지치기헐 때 아까 그 아방안티 막 저 쫓겨 가멍 헷던 이야기 한번만 더 헤주쿠과?(딱지치기할 때 아까 그 아버지한테 막 저 쫓겨 가면서 했던 이야기 한 번만 더 해주시겠습니까?)

111031 #4 하하하.(하하하.)

111031 #5 하하하.(하하하.)

111031 #4 그때 그 이 그때는 학교도 안 간 때고 영 허고 허니깐, 이 흔 저가 일곱 술즘 건즘 뭰 거 닮아양.(그때 그 이 그때는 학교도 안 간 때고 이렇게 하고 하니깐, 이 한 제가 일곱 살쯤 거의 된 거 같아요.)

111031 @ 예.(예.)

111031 #4 게난 그 우리 아버지가 그 일본간에 살단 온 해라마씸게. 겐 머헨하니깐 거난 그 궤 영 이시면은 그 우이 영 허민 올르지 못헹 허며는 그 시릉이 거 초가집 옆에 영 시릉이 궤 놩 영 허며는 그걸 부스지 못헹 허며는 그 책은 그 위에 놔양.(그러니 그 우리 아버지가 그 일본 가서 살단 온 해였어요. 그래서 뭐해서하니까 그러니 그 궤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이렇게 하면 오르지 못해서 하면 그 벽장

이 거 초가집 옆에 이렇게 벽장에 궤 놓아서 이렇게 하면 그걸 부수지 못해서 하면 그 책은 그 위에 놓아요.)

111031 #4 경 그걸 허면은 베게.(그렇게 그걸 하면 베게.)

111031 @ 예.(예.)

111031 #4 그 베게 세우곡 영 헤근에 그 우이 영 헹 무신 막뎅이라도 영 이시믄 헹 책을 어떵 어떵 내루와근에, 게헤근에 그걸 또 만들어근에양. 그 아이들 신디 가근에 빳장치기허젠 허면 그걸 헹 만들엉 책을 보려근에 만들앙 가버리니깐.(그 베개 세우고 이렇게 해서 그 위에 이렇게 해서 무슨 막대라도 이렇게 있으면 해서 책을 어떻게 어떻게 내려놓아서, 그렇게 해서 그걸 또 만들어서요. 그 아이들 있는데 가서 딱지치기하려고 하면 그걸 해서 만들어서 책을 찢어서 만들어서 가버리니깐.)

111031 #4 겨난 이젠 흔 번은 어디 갓다 오난 그추룩 헤시난에, ᄄᆞ리젠 헹 막뎅이 요만헌 거 아지고 똑 ᄄᆞ리젠 안 허곡 기자 원 좇아오멍, 기자 ᄒᆞ쏠 영 ᄃᆞᆯ으면은 ᄒᆞ쏠 제기 오곡, 또 경안헹 나 천천히 가면 저만히 떨어정 천천히 오멍, 저 그 할남리[302]ᄀᆞ라 부두기엔 헤나서 그때. 그 우리 그 그디ᄁᆞ지 블넷가루[303]엔헌 디 그레.(그러니 이젠 한 번은 어디 갔다 오니까 그처럼 했으니까, 때리려고 해서 막대 요만한 거 가지고 꼭 때리려고 안 하고 그저 원 좇아오면서, 그저 조금 이렇게 달이면 조금 빨리 오고, 또 그렇게 안 해서 내가 천천히 가면 저만치 떨어져서 천천히 오면서, 저 그 '한남리'보고 '부두기'라고 했었어, 그때. 그 우리 그 거기까지 '블넷가루'라고 한 데 그리로.)

111031 #2 엿날엔 아이들도 막 ᄄᆞ리젠 거 헤낫서게.(옛날엔 아이들도 막 때리려고 거 했었어.)

111031 #4 그추룩 헨에양, 그레 기자 허난 무신 신도양, 신도 엇엇어마씀. 또 조리 조리엔 헹도 그 저 찍으로 헤근엥.(그처럼 해서요, 그리로 그저 하니까 무슨 신발도요, 신발도 없었어요. 또 조리 조리라고 해도 그 저 짚으로 해서.)

111031 #5 찍으로 만들앙.(짚으로 만들어.)

111031 #4 만들어근에 그것도 신엉 뭐허곡 거.(만들어근에 그것도 신엉 뭐허곡 거.)

숨바꼭질

111032 @ 알았습니다. 그다음엔 숨바꼭질, 곱을락 헤낫잖아예? 곱을락.(알았습니다. 그다음엔 숨바꼭질, 숨바꼭질 했었잖아요? 숨바꼭질.)

111032 #4 예. 곱을락.(예. 숨바꼭질.)

111032 @ 곱을락은 어떵 헤낫수과? 같이 막 여자영 남자영 ᄀᆞ치들?(숨바꼭질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같이 막 여자랑 남자랑 같이?)

111032 #4 예. ᄀᆞ찌들.(예. 같이.)

---

302) '할남리'는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를 말한다.
303) '블넷가루'는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에 있는 지명이다.

111032 @ 헤낫지예?(했었지요?)

111032 #2 곱으민 춪으레 뎅기고.(숨으면 찾으러 다니고.)

111033 @ 맞수다. 곱으민 춪으레 뎅기고 그때 그 오니 여기서도 오니렌 헷수과? 오니는 어떵 정헷수과?(맞습니다. 숨으면 찾으러 다니고 그때 그 술래 여기서도 술래라고 했습니까? 술래는 어떻게 정했습니까?)

111033 #4 저 무신 가위바위보나 무시거 헤근에 진 사름양.(저 무슨 가위바위보나 뭐 해서 진 사람이요.)

111033 # 불켜야 주카?(불 켜줄까?)

111033 #4, 5 아니, 아니.(아니, 아니.)

111033 @ 불 켜야 이 화면이 나와마씨.(불 켜야 이 화면이 나와요.)

111033 #4 어. 불 켜불라.(어. 불 켜버려라.)

111033 @ 오닌 어떵 정헤낫수과?(술래는 어떻게 정했습니까?)

111033 #5 거를 어떵사 우린 잘 안 시켜이. 헤난 사름이 기억이 나주이.(그거를 어떻게야 우린 잘 안 시켰어. 했던 사람이 기억이 나지.)

111033 @ 그 오니 정헐 때, 옛날엔 가위바위보라고 허지 않고 혹시 다른 거 엇엇수과?(그 술래 정할 때, 옛날엔 가위바위보라고 하지 않고 혹시 다른 거 없었습니까?)

111033 #4 장껨뽀[304].('가위바위보'.)

111033 @ 장껨뽀엔 헷잖아예? 장껨뽀헤서 진 사람이 오니 헷잖아예?('가위바위보' 했잖아요?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술래 했잖아요?)

111032 #4 예.(예.)

111034 @ 그 오니가 뒈면 그때 그 곱으는 아이들은 어디 강 곱앗수과?(그 '술래'가 되면 그때 그 숨는 아이들은 어디 가서 숨었습니까?)

111034 #4 아, 게난 그 가까운디 영 헤근에양, 눈 감앙 영 밑에 열 개민 열개 센에, 또 그 센 사에 뭐헤근에 어디 강 곱아버리믄.(아, 그러니 그 가까운데 이렇게 해서요, 눈 감아서 이렇게 밑에 열 개면 열 개 세서, 또 그 센 사이에 뭐해서 어디 가서 숨어버리면.)

111034 @ 그때 그 눌누렁 이시믄 눌 그 저 위에 덮은 걸 뭐렌헙니까?(그때 그 가리 가려있으면 가리 그 저 위에 덮은 걸 뭐라고 합니까?)

111034 #4 ᄂᆞ람지엔.(이엉이라고.)

111034 @ ᄂᆞ람지 덮으면 그 ᄂᆞ람지 어, 부모님들이 아이들 곱을락이라도 헐 때 하게 눌 안에서, 눌 하나를 좀 떼가지고 눌사이에 가리길 만들엉 숨고 경 안헤봣수과?(이엉 덮으면 그 이엉 어, 부모님들이 아이들 숨바꼭질이라도 할 때 하게 가리 안에서, 가리 하나를 좀 빼가지고 가리사이에 가리길 만들어서 숨고 그렇게 안 해보셨습니까?)

111034 #4 경은 안 헤낫고양. 눌 허젠 헤도 그 새 ᄀᆞ뜬 거 영 헤근에 놓곡, 무

304) '장껜뽀'는 일본어 'じゃんけん'에서 온 말로, '가위바위보'를 말한다.

시거 헤근에 경 놈도 경 많이 놀질 못헤시고, 저 짜근아 그런 거 허면 저 ᄂᆞ람지 줄 영 둘르다 젤 우이양, 영 위험헤근에. 그것이 주젱이엔 헤근에, 그걸로 영 헤근에 그 츰 속들에 물 안 들게시리 헤근에 찍, 끅 헤다근에 얼거근에 경 뭐 헨낫주게.(그렇게는 안 했었고요. 가리 하려고 해도 그 띠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놓고, 뭐 해서 그렇게 놀기도 그렇게 많이 놀질 못했었고, 저 짜든가 그런 거 하면 저 이엉 줄 이렇게 두르다 제일 위요, 이렇게 위험해서. 그것이 주저리라고 해서, 그걸로 이렇게 해서 그 참 속에 물 안 들게끔 해서 칡, 칡 해다가 얽어서 그렇게 뭐 했었지.)

111034 @ 거민 경 헤버리면 그 곱을 때가 그때 그 한계가 잇잖아예?(그러면 그렇게 해버리면 그 숨을 때가 그때 그 한계가 있잖아요?)

111034 #4 겨난 그걸 영 헤근에 허며는 츰 그 그런 디다 경 안허면 집 모퉁이나 그런 디로.(그러니 그걸 이렇게 해서 하면 참 그 그런 데다 그렇게 안하면 집 모퉁이나 그런 데로.)

111034 @ 그런 디로 숨어서예.(그런 데로 숨어서요.)

111034 #4 예.(예.)

111034 #5 그런 트멍으로 곱을 거.(그런 틈으로 곱을 거.)

111035 @ 곱을락 하멍 혹시 기억나는 거 엇수과?(숨바꼭질 하면서 혹시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111035 #4 기억나는 것도 별로 엇고게.(기억나는 것도 별로 없고.)

111035 @ 어, 그 오니가 이제 그 눈감아가지고 숫자 세잖아예. 참 숫자 셀 때가 어떵헤수과? 그때.(어, 그 '술래'가 이제 그 눈감아가지고 숫자 세잖아요. 참 숫자 셀 때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111035 #4 무시거 ᄒᆞ나 둘 영 헤근에 기자.(뭐 하나 둘 이렇게 해서 그저.)

111035 @ ᄒᆞ나 둘 헷수과?(하나 둘 했습니까?)

111035 #4 또 경도 허곡.(또 그렇게도 하고.)

111035 @ 해방 후엔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헷거든마씨.(해방 후엔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했거든요.)

111035 #4 예, 예 예.(예, 예 예.)

111035 @ 겨난 그 해방 후에 주로 놀앗일 거 아니꽈예?(그러니 그 해방 후에 주로 놀았을 거 아닙니까?)

111035 #4 해방 후에가양 우리가 거난 그 얼마 안난 그 저 이 ᄉᆞ삼사건이 나버리니깐 무궁화에 뭐여 것도양 그 전에는.(해방 후가요 우리가 그러니 그 얼마 안 돼 그 저 이 사삼사건이 나버리니깐 무궁화에 뭐야 것도요 그 전에는.)

111035 @ 안 헷지예?(안 했지요?)

111035 #4 예. 안헷수다.(예, 안했습니다.)

111035 @ 그 사삼 이전에 주로 그 놀앗던 것들은 곱을락헐 때도 ᄒᆞ나, 둘 숫자로 센마씨?(그 사삼 이전에 주로 그 놀았던 것들은 숨바꼭질할 때도 하나, 둘 숫자로 셌나요?)

111035 #4 예. 겨난 그 저 대게 경 기자 그런 거로 헤십주.(예. 그러니 그 저 대게 그렇게 그저 그런 거로 했습지요.)

실뜨기

111036 @ 그다음엔 씰뜨기에 대해가지고 여쭤보쿠다예? 씰뜨기 헤가지고 영 헤가지고 영영 씰 뜨는 거 잇잖아예?(그다음엔 실뜨기에 대해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실뜨기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이렇게 실 뜨는 거 있잖아요?)

111036 #5 응응.(응응.)

111036 @ 그거 헤낫지예?(그거 했었지요?)

111036 #5 헤나긴 헷주만은 그거 무신.(했었긴 했지만은 그거 무슨.)

111036 @ 거 헐 때 씰은 어떵 준비 헷수과? 무슨 씰로.(그거 할 때 실은 어떻게 준비 했습니까? 무슨 실로.)

111036 #5 오디 강사 헤신디, 그때는 이것도 헤서. 이 손에 영 무시거 네멍.(어디 가서야 했는지, 그때는 이것도 했어. 이 손에 이렇게 뭐 내면서.)

111036 #4 아니, 그도 저 그거 미녕씰예. 그 경헤근에 첨.(아니, 그도 저 그거 무명실이요. 그 그렇게 해서 참.)

111036 #5 거 걸레 그레 네붑서 거 커살거난.<다른 사람에게 하는 소리>(그거 걸레 그리 내버리세요. 거 담가야할 거니까.<다른 사람에게 하는 소리>)

111037 @ 그 씰뜨기 헐 때는 어느 어느 손가락에 헷수과?(그 실뜨기 할 때는 어느 어느 손가락에 했습니까?)

111037 #4 막 것도 막 잘 헤난. 막 여러 개 막 이추룩 영 헌 모양이라난. 뭐 이자부런 별로 골아도 못허큰게.(막 것도 막 잘 했어. 막 여러 개 막 이처럼 이렇게 한 모양이었어. 뭐 잊어버려 별로 말해도 못하겠어.)

111037 #5 것도 몰르크라. 영 허멍 무슨 애기구덕이여 무시거영 허멍 씰로 허멍.(그것도 모르겠어. 이렇게 하며 무슨 아기요람이야 무엇이야 하면서 실로 하면서.)

111037 @ 맞수다예. 경 헤낫지예 맞아 애기구덕 만들기 허멍예.(맞습니다. 그렇게 했었지요. 맞아 아기요람 만들기 하면서요.)

111037 #5 경 헤나신디 몰르크라, 이젠.(그렇게 했었는지 모르겠어, 이젠.)

111037 #4 문 헹 여기 데쓰기여 영.(모두 해서 여기 뒤집기랑 이렇게.)

111037 @ 거 주로 씰뜨기 헐 때는 이 두 손가락 하고?(거 주로 실뜨기 할 때는 이 두 손가락 하고?)

111037 #5 응.(응.)

111037 #4 예. 이 두 개.(예. 이 두 개.)

111037 @ 요거 손가락 헷지예?(요거 손가락 했지요?)

111037 #5 응.(응.)

111038 @ 또 혹시 요거 두개 손가락은 씰뜨기 헐 때는 뭐라고 애기헷는지 기억

안남수가? 요 두 개는? 뭐 들이손가락이라든가 이런 말 안 헤낫수과?(또 혹시 요거 두개 손가락은 실뜨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 안 나십니까? 요 두 개는? 뭐 들이손가락이라든가 이런 말 안 했었습니까?)

111038 #4 그런 거 기억이 안 남서.(그런 거 기억이 안 나네.)

111039 @ 그 씰뜨기 헐 때 두 손가락이 그렇게 하면 새끼손가락은 어떤 기능을 헷수과?(그 실뜨기 할 때 두 손가락이 그렇게 하면 새끼손가락은 어떤 기능을 했습니까?)

111039 #4 아, 그거 무시거 영 그런 걸 영 허며는 씰을 영 데싸지게 영 뭐허난 양. 이추룩, 이축 헐 때에.(아, 그거 뭐 이렇게 그런 걸 이렇게 하면 실을 이렇게 뒤집어지게 이렇게 뭐하니까요. 이처럼, 이처럼 할 때에.)

111040 @ 그다음 씰뜨기 헐 땐 주로 그 친구들끼리 헷수과 형제들끼리 헷수과?(그다음 실뜨기 할 땐 주로 그 친구들끼리 했습니까 형제들끼리 했습니까?)

111040 #4 건 저 형제들끼리도 허고 저 친구들.(그건 저 형제들끼리도 하고 저 친구들.)

111040 #5 형제들끼리도 허고 친구들 이시민 저 서로 아장들 뭐 자파리허는 거난.(형제들끼리도 하고 친구들 있으면 저 서로 앉아서들 뭐 장난하는 거니까.)

111040 @ 그 씰뜨기헐 때 씰뜨기했던 기억 있걸랑 하나만 골아줍서.(그 실뜨기 할 때 실뜨기했던 기억 있걸랑 하나만 말해주세요.)

111040 #5 무시거 엇어.(뭐 없어.)

공기놀이

111041 @ 그다음엔 그 저기 공기놀이 이섯잖아예? 옛날엔 그 공기를 뭐렌 골앗수과?(그다음엔 그 저기 공기놀이 있었잖아요? 옛날엔 그 공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111041 #5 공기ᄀᆞ라 무시거엔 골아? 공기엔 허주.(공기보고 뭐라고 말해? 공기엔 하지.)

111041 @ 기꽈? 그 공기는 어떵 준비헷수과? 어디서 구헷수과?(그래요? 그 공기는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어디서 구했습니까?)

111041 #5 거, 저기가 돌 채 봉가와.(거, 저기가 돌 째 주어와.)

111041 #4 돌 체 봉가.(돌 째 주워.)

111041 #5 돌멩이 뎅기멍 기자 봉가와. 하하하.(돌멩이 다니며 그저 주어와. 하하하.)

111041 @ 아, 이 밧듸나 이런 마당에서마씨?(아, 이 밭이나 이런 마당에서요?)

111041 #5 응. 하하하.(응. 하하하.)

111041 @ 웨냐면 내창 같은데 가면 매끈매끈한 돌멩이들 잇잖아예?(왜냐면 냇가 같은데 가면 매끈매끈한 돌멩이들 있잖아?)

111041 #5 어.(어.)

111041 @ 그럼 어디서 주로 매끈한 거 구헷수과?(그럼 어디서 주로 매끈한 거 구했습니까?)

111041 #4 아, 겨난 그 공기 영 헤근에양. 속돌이렌 헤근에.(아, 그러니 그 공기 이렇게 해서요. 속돌이라고 해서.)

111041 @ 예.(예.)

111041 #4 거 즛는 그거 영 헤근에 좀 튀어난 거 이시민 기자 돌로 영 허민 그거 영 헤근에 잘 헤영 똥글랑허게 만들어근에양.(거 찍는 그거 이렇게 해서 좀 튀어난 거 있으면 그저 돌로 이렇게 하면 그거 이렇게 해서 잘 해서 동글게 만들어서요.)

111041 @ 아, 경헤근에 헷수과?(아, 그렇게 해서 했습니까?)

111041 #4 예.(예.)

111042 @ 공기는 어떤 순서로 헷수과? 공기놀이 헐 때.(공기는 어떤 순서로 했습니까? 공기놀이 할 때.)

111042 #5 거 ** 무신.(거 ** 무슨.)

111042 #4 거 저 뭐 이 영 다슷 개 기자 뭐에놩 영 ᄒᆞ나썩 영 기자 영 뭐헤근에 허고 경헤근에 나중에 손으로 영 올려놩 영 헤근에 심엉.(그거 저 뭐 이 이렇게 다섯 개 그저 뭐에 놓아서 이렇게 하나씩 그자 이렇게 뭐해서 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손으로 이렇게 올려놓아 이렇게 해서 잡아서.)

111042 @ 그런 공기놀이도 잇주만은 막 하영 놩 헐 때도 이섯잖아예?(그런 공기놀이도 있지만 매우 많이 놓아서 할 때도 있었잖아요?)

111042 #4 하영 놔근에 허는 거 두 개썩 허는 거.(많이 놓아서 하는 거 두 개씩 하는 거.)

111042 @ 아니, 그니까 막 열개 스무 개 막 놔가지고 하는 거 그런 건 어떵 헷수과?(아니, 그니까 막 열개 스무 개 막 놓아가지고 하는 거 그런 건 어떻게 했습니까?)

111042 #4 게, 그거는 이 영 뭐 허민 세 개 영, ᄒᆞ나 영 들에 데껴근에 세 개를 집으젠 허며는 이걸 거찌지 안 허게 허젠 허며는, 거 ᄇᆞ든 디 걸로 영 헤근에 그 두 개나 세 개, 두 개 줍기도 허곡 세 개도 허곡, 허면은 ᄒᆞ나 우트레 뎃경 그 주위에 걸로 세 개 심어오곡 그추룩 허멍 그.(그래, 그거는 이 이렇게 뭐 하면 세 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들어 던져서 세 개를 잡으려고 하면 이걸 건드리지 안 하게 하려고 하면, 그 바툰 데 걸로 이렇게 해서 그 두 개나 세 개, 두 개 줍기도 하고 세 개도 하고, 하면 하나 위에 던져서 그 주위에 걸로 세 개 집어오고 그처럼 하면 그.)

111043 @ 경 헷구나예. 공기놀이 헷던 추억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거 한 가지만 골아줍서.(그렇게 했군요. 공기놀이 했던 추억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거 한 가지만 말해주세요.)

111043 #4 무시거 거 기억에 남고 무시거 건 엇어.(뭐 그거 기억에 남고 뭐 그

건 없어.)

111043 #2 공기ᄒᆞ기 잘 헤나긴 헤신게.(공기놀이 잘 했었긴 했었네.)

111043 #4 거고 원 헐 게 원 그때는.(그리고 원 할 게 원 그때는.)

111043 #5 하하하.(하하하.)

111043 @ 헐 게 엇어놓난예.(할 게 없어놓으니까요.)

고누

111044 @ 그 당시 고누라는 거 알아 지쿠과? 고누, 고누. 고누는 이렇게 선들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그어가지고예. 이제 탁 던진 다음에 요 하나씩 하나씩 먹어가는 거마씨. 사금파리 조각으로 헤난 거 기억 안남수과?(그 당시 고누라는 거 알아 지겠습니까? 고누, 고누. 고누는 이렇게 선들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그어가지고요. 이제 탁 던진 다음에 요 하나씩 하나씩 먹어가는 거요. 사금파리 조각으로 했었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

111044 #4 기억 안 나고.(기억 안 나고.)

땅빳기

111049 @ 그 다음엔 혹시 어, 땅, 땅빳기 놀이 헤낫수과?(그 다음엔 혹시 어, 땅, 땅빳기 놀이 했었습니까?)

111049 #4 방치기엔 헌 건 헤낫어.(사방치기라고 한 건 했었어.)

111049 #5 방치기주, 방치기.(사방치기지, 사방치기.)

111049 @ 방치기 말고 방치기 말고, 예를 든다면 그 이렇게 땅빳기 이서가지고 이렇게 땅빳기하며 여기서 탁 치잖아예? 거 요기까지 가잖아예? 가면 이렇게 선 그어가지고 이거 나 땅 한 거. 그런 거 엇어낫수과?(사방치기 말고 사방치기 말고, 예를 든다면 그 이렇게 땅빳기 있어가지고 이렇게 땅빳기하며 여기서 탁 치잖아요? 거 요기까지 가잖아요? 가면 이렇게 선 그어가지고 이거 나 땅 하고 그런 거 없었습니까?)

111049 #4 아니 그런 것도 헤낫주만은 그 잘 기억이 안 남서. 헤나근에 헤낫긴 헤낫는디.(아니 그런 것도 했었지만 그 잘 기억이 안 나. 했었기에 했었긴 했었는데.)

111049 @ 헤낫지예?(했었지요?)

111049 #4 예.(예.)

111049 @ 그 땅빳기나 이런 거 헐 때 유리조각 사금파리 같은 게 이서야 하는데, 도자기 조각이라든가 여기서는 어떵 구헤낫신고예?(그 땅빳기나 이런 거 할 때 유리조각 사금파리 같은 게 있어야 하는데, 도자기 조각이라든가 여기서는 어떻게 구했었나요?)

111049 #4 그릇 사발 ᄀᆞ뜬 거 벌러진 거양. 그런 거 벌러저부나 허민 그런 거 ᄆᆞ사근에.(그릇 사발 같은 거 깨진 거요. 그런 거 깨져버리나 하면 그런 거 깨서.)

111049 @ ᄆᆞ사가지고예?(깨가지고요?)

111049 #4 ᄆᆞ상허면은 그.(깨서하면 그.)

111052 @ 땅 뺏기는 기억 안 나니깐 어떵 헤낫인지 모르고예?(땅 뺏기는 기억 안 나니깐 어떻게 했었는지 모르고요?)

111052 #4 응.(응.)

윷놀이

111053 @ 윳놀이는 확실히 기억나지예?(윷놀이는 확실히 기억나지요?)

111053 #5 응.(응.)

111053 @ 윳놀이는예?(윷놀이는요?)

111053 #4 윳놀이는 어린 때는 안 헤나고양.(윷놀이는 어린 때는 안 했고요.)

111053 @ 예. 큰 다음에는 뭐 잔칫집이나 이런 데서 안헤봔마씨?(예. 큰 다음에는 뭐 잔칫집이나 이런 데서 안 해봤나요?)

111053 #4 건, 큰 다음에.(그건 큰 다음에.)

111053 @ 가족끼리 안 헤낫수과? 명절 때라든가.(가족끼리 안 했었습니까? 명절 때라든가.)

111053 #4 아, 가족끼리 모여아장 경 윳놀이? 서울이지 이 촌에서는 경 허믄.(아, 가족끼리 모여앉아 그렇게 윷놀이? 서울이지 이 촌에서는 그렇게 하면.)

111053 #2 경 놀이허는 디가 틀리주게 웨진 디난.(그렇게 놀이하는 데가 다르지 외따로 떨어진 데여서.)

111054 @ 그 좋수다. 게믄 일단 한 어른 뒝 총각쯤 뒛을 때는 막 헤낫일 거 아니꽈예? 잔칫집이나 이런데 가가지고예? 윳가락은 어디 강 준비헷수과?(그 좋습니다다. 그러면 일단 한 어른 돼서 총각쯤 됐을 때는 막 해났을 거 아닙니까? 잔칫집이나 이런데 가가지고요? 윷가락은 어디 가서 준비했습니까?)

111054 #4 아, 이 동박낭헤근에양, 요마니 만들앙 종제기에 헤근에 이추룩 멍석헤근에양.(아, 이 동백나무해서요, 요만큼 만들어서 종지에 해서 이처럼 멍석해서.)

111054 @ 헤가지고예. 주로 동박, 동박낭으로예.(해가지고요. 주로 동백, 동백나무로요.)

111054 #4 동박낭, 예. 젤 좋아마씨 윳이.(동백나무, 예. 제일 좋아요 윷이.)

111054 @ 동박낭이예.(동백나무요.)

111054 #4 예. 동박낭이.(에. 동백나무가.)

111055 @ 그다음엔 종지하고 윳판 멍석이나, 그다음엔 종지는 어떻게 준비헷수과?(그다음엔 종지하고 윷판 멍석이나, 그다음엔 종지는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111055 #4 거 장종지엔헨에양. 옛날에 그 이 다 집집마다 이서낫수다, 거.(그거 장종지라고해서요. 옛날에 그 이 다 집집마다 있었습니다.)

111055 @ 간장종지마씨?(간장종지요?)

111055 #4 예. 장종지.(예. 장종지.)

111055 #2 허연거.(하얀 거.)

111055 #4 그런 거헤어근에 기자.(그런 거해서 그저.)

111055 @ 윳판은마씨? 판, 판은?(윷판은요? 판, 판은?)

111055 #4 판은 그디 양 그 저 멍석허며는 숫 숫검뎅이 잇잖우꽈.(판은 거기요 그 저 멍석하면 숯 숯검정이 있잖습니까.)

111055 @ 예.(예.)

111055 #4 숫 숫헤근에 물에 저 적저근에 영 허면양, 그.(숯 숯 해서 물에 저 적셔서 이렇게 하면요, 그.)

111055 @ 멍석우에다 아예 그려근에?(멍석위에다 아예 그려서?)

111055 #4 예. 영 허멍 거멍허게 그믓 그서저양.(예. 이렇게 하면서 검게 금 그어져요.)

111056 @ 그다음에 그 윳놀이에는 어 도·개·걸·윳·모 하는 것도 잇고예, 또 다른 윳 다른 놀인 엇엇수과? 뭐 돈 따먹을락 한다든가.(그다음에 그 윷놀이에는 어 도·개·걸·윷·모하는 것도 있고요, 또 다른 윷 다른 놀인 없었습니까? 뭐 돈 따먹기 한다든가.)

111056 #4 아니, 주로 돈 따먹을락이라양. 거 헐 때.(아니, 주로 돈 따먹기에요. 거 할 때.)

111056 @ 거, 돈 따먹을락 헐 때도 도·개·걸·윳·모 헹 다 절차 밟아근에 딱 윳이 나올 때를 하는 거꽈, 아니면 뭐 어 한쪽에서 토 나오고 다른 쪽에서 개 나오면 개가 이겨가지고 토 꺼 가져가불고 막 그런 거마씸?(그거, 돈 따먹기 할 때도 도·개·걸·윷·모 헹 다 절차 밟아서 딱 윷이 나올 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 한쪽에서 토 나오고 다른 쪽에서 개 나오면 개가 이겨가지고 토 거 가져가버리고 막 그런 거요?)

111056 #4 아니, 그게 아니고양. 그 영 헤근에 그 선이 멧 개니, 영 이추룩 열 십자헹 이른 식으로 영.(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이렇게 해서 그 선이 몇 개니, 이처럼 열 십자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111056 @ 긋잖아예.(긋잖아요.)

111056 #4 경 헌, 다슷 개쓱 허면, 스무 개까지 허면 될 건디. 거기 영 돌아와근에 그 나근에 허는 것이, 이제 그 이 그추룩 헤여근에 나야.(그렇게 한, 다섯 개씩 하면, 스무 개까지 하면 될 건데. 거기 이렇게 돌아와서 그 나서 하는 것이, 이제 그 이 그처럼 해서 나야.)

111056 @ 윳이 다 나올 때 까지예.(윷이 다 나올 때 까지요.)

111056 #4 예, 예. 나야, 다 나와야.(예, 예. 나야, 다 나와야.)

111057 @ 다 나오면 주로 어 그 승자가 뒈면 어떤 것들 내기에 걸엇수과?(다 나오면 주로 어 그 승자가 되면 어떤 것들 내기에 걸었습니까?)

111057 #4 아, 돈 미리 실러놔근에.(아, 돈 미리 걸어놓아서.)

111057 @ 돈? 돈으로.(돈? 돈으로.)

111057 #4 예.(예.)

111058 @ 윳놀이헐 때 막 경헹 따본 적 잇수과? 윳놀이 하멍 특별히 기억나는 거 엇수과?(윷놀이할 때 막 그렇게 해서 따본 적 있습니까? 윷놀이하면서 특별히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111058 #4 아, 이 윳놀이 헤근에 돈만 자꾸 일름만 허연.(아, 이 윷놀이 해서 돈만 자꾸 잃기만 했어.)

111058 @ 일름만 헷수과? 윳놀이하면서 막 일러근에 막 섭섭혜본 적은 엇수과? 뭐 부짓돈 날린다든가.(잃기만 했습니까? 윷놀이하면서 막 잃어서 막 섭섭해본 적은 없습니까? 뭐 부조금 날린다든가.)

111058 #5 섭섭허지. 하하하.(섭섭하지. 하하하.)

111058 #4 섭섭헤도 뭐.(섭섭해도 뭐.)

111058 #5 하영 일르면 섭섭헐 테주 머 무신. 하하하.(많이 잃으면 섭섭할 테지 뭐 무슨. 하하하.)

111058 @ 그거 기억 하나만 골아줍서.(그거 기억 하나만 말해주세요.)

111058 #4 혼 번, 혼 번 따난 건 알아저마씀. 저 잔칫집이 간에, 둘이가 펜갈란 헷는데 그때 기자.(한 번, 한 번 땄던 건 알아요. 저 잔칫집에 가서, 둘이가 편 가르고 했는데 그때 그저.)

111058 @ 누게 잔치 때마씨?(누구 잔치 때요?)

111058 #4 그 그때가 이디 용안상회 잔치라신가. 그디 그 겐에 돈 좀 둘리 요디 공진이엔 헌 사람허고 헨에 둘리 좀 헨 혼 번 따봣수다. 혼 번.(그 그때가 여기 용안상회 잔치였나. 거기 그 그래서 돈 좀 둘이 요기 공진이라고 한 사람하고 해서 둘이 좀 해서 한 번 따봤습니다. 한 번.)

111058 @ 그 딴 걸로 뭐헷수과?(그 딴 걸로 뭐했습니까?)

111058 #5 술 먹주. 하하하.(술 먹지. 하하하.)

111058 #4 뭐긴 뭣이라, 따민 강 술이나 먹고 거 기자 헹 뭐 헤불주.(뭐긴 뭣이야, 따면 가서 술이나 먹고 거 그저 해서 뭐 해버리지.)

111058 #5 하하하.(하하하.)

111058 #4 또 저 저끄띠 구경허는 사람 이시민 오렝헤근에 기자 ᄀᆞ찌들 가근에 술들 먹어버리고.(또 저 곁에 구경하는 사람 있으면 오라고해서 그저 같이 가서 술들 먹어버리고.)

팽이치기

111059 @ 그다음 펭이치기를 하셔낫잖아예?(그다음 팽이치기를 하셨잖아요?)

111059 #4 펭이치기도 헤낫십주게.(팽이치기도 했습지요.)

111059 @ 펭인 어떵 준비헤낫수과?(팽인 어떻게 준비했었습니까?)

111059 #5 폭낭헤근에.(팽나무해서.)

111059 #4 여기 그 저 퐁낭헤근에양. 퐁낭헤근에 싸근에 그 깍강 만들어.(여기

그 저 팽나무해서요. 팽나무해서 켜서 그 깎아서 만들어.)

111059 @ 음, 만들어 퐁낭으로예?(음, 만들어 팽나무로요?)

111059 #4 예.(예.)

111060 @ 그 퐁낭으로 만들면 펭이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이섯수과? 펭이 종류는.(그 팽나무로 만들면 팽이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팽이 종류는.)

111060 #4 종류는 우린 그 저 퐁낭으로 헤근에 허민 저 혼가지로 주로양. 그때는 뭐 헤낫수다게. 종류가 뭐 나중에는 보니까 막 으라 가지 그 멘짝허게 만들앙도 영 허곡 허는 것도 잇주마는 우린 기자 그대로예.(종류는 우린 그 저 팽나무로 해서 하면 저 한가지로 주로요. 그때는 뭐 했었습니다. 종류가 뭐 나중에는 보니까 막 여러 가지 그 매끈하게 만들어서도 이렇게 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린 그저 그대로요.)

111061 @ 아까 펭이는 퐁낭으로 만들었덴 헷지예?(아까 팽이는 팽나무로 만들었다고 했지요?)

111061 #4 예.(예.)

111062 @ 그다음 그 펭이를 잘 돌게 하기 위헤가지고는 어떤 방법이 이섯수과?(그다음 그 팽이를 잘 돌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었습니까?)

111062 #5 잘 돌젠 허민 그디에 무시거 낭에 끈 돌라메근엥에.(잘 돌려고 하면 거기에 뭐 나무에 끈 달아매어서.)

111062 #4 저 펭이채엔 헤근에 저 펭이 영 헤근에양. 죽지 안허게시리 자꾸 그 나무 으만이 그 즈룩헌 듸 끈을.(저 팽이채라고 해서 저 팽이 이렇게 해서요. 죽지 안하게끔 자꾸 그 나무 요만큼 그 손잡이한 데 끈을.)

111062 @ 건 펭이채고예?(그건 팽이채고요?)

111062 #4 그 채로 헤근에 그걸 죽지 안허게시리 기자 그 흐쏠 영 죽어불직 덜 돌아가며는 아상 치며는 막 또 돌곡, 돌곡 그추룩 허멍 기자.(그 채로 해서 그걸 죽지 않게끔 그저 그 조금 이렇게 죽어버림직 덜 돌아가면 가져서 치면 막 또 돌고, 돌고 그처럼 하며 그저.)

111063 @ 펭이채는 그면 어떵 준비헷수과?(팽이채는 그러면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111063 #4 펭이채야 무신 이디 낭 꽂앙은에 이디 저 요요요거추룩 ᄀ는 거 헤근에 끄타리에 이 끈 무끄며는.(팽이채야 무슨 여기 나무 꽂아서 여기 저 요요요거처럼 가는 거해서 끝에 이 끈 묶으면.)

111063 @ 이 끈은 무신 끈으로마씨?(이 끈은 무슨 끈으로요?)

111063 #4 험벅 그때는 험벅이어낫수다.(헝겊 그때는 헝겊이었습니다.)

111063 @ 험벅도 귀헤실 건디 그 험벅은 어떵 구헷수과?(헝겊도 귀했을 건데 그 헝겊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111063 #4 게 어떵사 구헤낫신디.(그러게 어떻게야 구했었는지.)

111063 #5 거 어떵사 구헤나신디.(그거 어떻게야 구했었는지.)

111064 @ 험벅으로예. 거 펭이 싸움은 거 어떻게 하는 거꽈?(헝겊으로요. 그 팽이 싸움은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111064 #4 거 맞으며는양 그 두개가 영 청 허당 맞으며는 ᄒᆞ나가 영 헤근에 그저 죽어불어 그.(거 맞으면요 그 두 개가 이렇게 쳐서 하다가 맞으면 하나가 이렇게 해서 그 저 죽어버려 그.)

111064 @ 씨러저부러예?(쓰러져버려요?)

111064 #4 예. 그 저 도는 것이 힘이 약헌 거는 센 거안티 허며는 거 그것에 이 영 쳐근에 저게 금방 쳐근에 힘이 그 막 돌아가는 거 허곡 미르세 덜 거 돌다근에 ᄎᆞ처 영 죽어가는 거 허며는 그것이 이 영 헤근에 맞으면은 죽어버리는 거라.(예. 그 저 도는 것이 힘이 약한 거는 센 거한테 하면 거 그것에 이 이렇게 쳐서 저게 금방 쳐서 힘이 그 막 돌아가는 거 하고 미리 덜 그거 돌다가 차차 이렇게 죽어가는 거 하면 그것이 이 이렇게 해서 맞으면 죽어버리는 거라.)

111065 @ 죽어부는 거예. 어, 그 펭이치기헐 때 기억나는 거 이시면 한 말씀만 ᄀᆞᆯ아줍서.(죽어버리는 거요. 어, 그 팽이치기할 때 기억나는 거 있으면 한 말씀만 말해주세요.)

111065 #4 것도 엇고, 기억나는 거 엇어.(것도 없고, 기억나는 거 없어.)

굴렁쇠

111066 @ 그러면 이제 그 굴렁쉐라고 헤가지고 그 도레기 돌리는 거 헤낫지예?(그러면 이제 그 굴렁쇠라고 해가지고 그 바퀴 돌리는 거 했었지요?)

111066 #4 예.(예.)

111066 @ 그거는 그 굴렁쒜 도레기는 어떵 헹 준비헷수과?(그거는 그 굴렁쇠 바퀴는 어떻게 해서 준비했습니까?)

111066 #4 그 도레기양?(그 바퀴요?)

111066 @ 예.(예.)

111066 #4 그 옛날에 자전거 건 저 막 후에 영 뭔디 자전거 빠꾸 기자 영 이성 허며는 그 낭에 헤근에 쒜 철사 오그렁 영 헤근에 이추룩 헤근에 게 영 허영 뭐엔 헤낫는디.(그 옛날에 자전거 건 저 막 후에 이렇게 뭔데 자전거 바퀴 그저 이렇게 있어서 하면 그 나무에 해서 쇠 철사 오그려서 이렇게 해서 이처럼 해서 그 이렇게 해서 뭐라고 헤 했었는데.)

111066 @ 예.(예.)

111066 #4 건 거 우리 그추룩 계속 헤나진 안허고 기자 ᄂᆞᆷ덜 허는 거 봐도 그추룩 헤근에 뭐 허곡 그냥.(건 거 우리 그처럼 계속 하진 안하고 그저 남들 하는 거 봐도 그처럼 해서 뭐 하고 그냥.)

111067 @ 그 굴렁쉐 저 쒜에는 자전거 다리 저 뭐 뒌 거 헌덴 허고 그럼 굴렁대 영 굴령 굴리는 쒜는 어떵 헹 준비헷수과?(그 굴렁쇠 저 쇠에는 자전거 다리 저 뭐 된 거한다고 하고 그럼 굴렁대 영 굴려서 굴리는 쇠는 어떻게 해서 준비했습니

까?)

111067 #4 그 저.(그 저.)

111067 @ 어떤 모양으로 만들언마씨?(어떤 모양으로 만들었나요?)

111067 #4 아, 모양은양, 그 에, 나무가 이어진 나무라며는 요롱게 철사 영 허영 이레 영 꿔근에 요런식으로 영 헤근에 요걸 또 이레 영 헤근에 그 저 오그려근에양, 이 그 벗어나지 안허게양, 한쪽으로 타게시리.(아, 모양은요, 그 에, 나무가 이어진 나무라면 요렇게 철사 이렇게 해서 이리로 이렇게 꼬아서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요걸 또 이리로 이렇게 해서 그 저 오그려서요, 이 그 벗어나지 안하게요, 한쪽으로 굴리게끔.)

111068 @ 음, 알앗수다예. 그다음 굴렁쉐를 굴렷던 기억은 나지예?(음, 알았습니다. 그다음 굴렁쇠를 굴렸던 기억은 나지요?)

111068 #4 예. 기억은 나고예.(예. 기억은 나고요.)

111067 @ 기억날 때 어 어디서 굴려나고 그 굴렷던 기억 하나만 골아줍서.(기억날 때 어 어디서 굴려나고 그 굴렸던 기억 하나만 말해주세요.)

111067 #4 그것이 지 도로에선가 운동장에서 나 모르겟는데, 저 그때는양, 그.(그것이 지 도로에선가 운동장에서 나는 모르겠는데, 저 그때는요, 그.)

111067 @ 멀리 빨리 굴리기 대회 같은 건 어서낫수과?(멀리 빨리 굴리기 대회 같은 건 없었습니까?)

111067 #4 아, 그런 건 엇어나고.(아, 그런 건 없었고.)

111067 @ 운동훼 때도 어서난마씨?(운동회 때도 없었나요?)

111067 #4 예. 그 저 운동, 운동허멍말멍, 학교 그 저 저 그 일년인가 이학년 올라오난에 학교가렌 허며는, 기자 첨 내예 가근에 기자 무신 뭐꽈, 그 저 하람 하람 낭이엔 헤근에양.(예. 그 저 운동, 운동하며말며, 학교 그 저 저 그 일 년인가 이 학년 올라오니까 학교가라고 하면, 그저 참 내에 가서 그저 무슨 뭡니까, 그 저 중대가리, 중대가리나무라고 해서요.)

111067 @ 예.(예.)

111067 #4 그거 뺙솽 그걸로 영 헤근에 그 엿날엔 비누가 엇이난에 거품 나게시리 헤근에 비누 대신 쓰멍 그런 거 자파리허곡 미신 기자 뭐허곡, 또 뼁이 나가며는 뼁이 나온 디 강 엽 빵 허당 보니까, 뭐 ᄉᆞ삼사건 나버리난에 무신.(그거 빻아 그걸로 이렇게 해서 그 옛날엔 비누가 없으니까 거품 나게끔 해서 비누 대신 쓰면서 그런 거 갖고 놀고 무슨 그저 뭐하고, 또 삘기 나가면 삘기 나온 데 가서 잎 뽑아서 하다가 보니까, 뭐 사삼사건 나버리니까 무슨.)

111067 @ 음.(음.)

111067 #2 학꾄 가져서게. 하하하.(학교는 가졌나. 하하하.)

(깡)통차기

111069 @ 게민 깡통차기라는 것도 이섯지예? 깡통차기. 깡통에 뭐 집어놩 막

달그랑 달글랑 소리 나는 거.(그러면 깡통차기라는 것도 있었지요? 깡통차기. 깡통에 뭐 집어넣어 막 달그랑 달그랑 소리 나는 거.)

111069 #4 거 그거 잘 기억 안 나고예.(거 그거 잘 기억 안 나고요.)

111069 @ 깡통차기는예?(깡통차기는요?)

삘기치기

111072 @ 그면 아까 저기 그거 저 뼁이, 뼁이렌 헷수과? 뼁이렌 헷수과 여기.(그러면 아까 저기 그거 저 삘기, '뼁이'라고 했습니까? '뼁이'라고 했습니까? 여기.)

111072 #4 뼁이, 뼁이.(삘기, 삘기.)

111072 #5 뼁이.(삘기.)

111072 @ 뼁이치기엔 헤난거예? 뼁이 치기는 어떵 허는 거꽈?(삘기치기라고 했던 거요? 삘기치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111072 #5 어떵 헤게, 새 나는 거 헤다근에 영 굴리는 거 헤놓민 밧두 만들고 무시거허고 겅허지 안헷수과?(어떻게 해, 띠 나는 거 해다가 이렇게 굴리는 거 해놓으면 밭도 만들고 무엇하고 그렇게 하지 안했습니까?)

111073 @ 예. 그 뼁이치기, 그 승 이기고 지고 승부는 어떵 가려마씨?(예. 그 삘기치기, 그 승 이기고 지고 승부는 어떻게 가립니까?)

111073 #4 저 무신 영 밧을 만들어근에양, 영 앗앙 멧 개헤근엥에 싹 뿌리며는, 그 밧이 뭐 됀난 경 허며는 이제 거 뼁이를 멧 개 영 헤근에 모여근에, 첨, 그 밧드레 영 찔렁 이영 찔르는데, 걸 옆에 강 타불면은.(저 무슨 이렇게 밭을 만들어서요, 이렇게 가져 몇 개해서 싹 뿌리면, 그 밭이 뭐 되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거 삘기를 몇 개 이렇게 해서 모여서, 참, 그 밭에 이렇게 찔러서 이렇게 찌르는데, 걸 옆에 가서 닿으면.)

111073 @ 예.(예.)

111073 #4 타불면은 그 밧덴 경도 허는디 땅 타며는 져버리고 안 타근에 허며는.(타버리면 그 밭에는 그렇게도 하는데 땅 닿으면 져버리고 안 닿아서 하면.)

111073 @ 지민 어떵 어떵 헤마씨?(지면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111073 #4 아, 그걸 심은 거양, 하영 심은 사름이 영 이기는 거. 경허며는 그걸 그 족영 심은 사름은 영 세봉 허며는 줘버리는 거.(아, 그걸 잡은 거요, 많이 잡은 사람이 이렇게 이기는 거. 그렇게 하면 그걸 그 조금 잡은 사람은 이렇게 세 봐서 하면 줘버리는 거.)

111073 @ 아, 그니까 아 이제 그 밧이 요렇게 있으면.(아, 그니까 아, 이제 그 밭이 요렇게 있으면.)

111073 #4 예.(예.)

111073 @ 뼁이를 이렇게 찍잖아예?(삘기를 이렇게 찍잖아요?)

111073 #4 예, 예.(예, 예.)

111073 @ 찍으면 이 잘 찍으면 요 뼁이 찍은 사람은 자기 뼁이 가지는 거마씨,

아니믄 자기 뼁이 숫자만큼 이 밧 헌 사람이 주어야 뒈는 거마씨?(찍으면 이 잘 찍으면 요 삘기 찍은 사람은 자기 삘기 가지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 삘기 숫자만큼 이 밭 한 사람이 주어야 되는 건가요?)

111073 #4 아니, 아니. 겨난 저 딴 사름도양? 그걸 영 허며는 뼁이가 영 헤근에 이제 요만의 열 개며는 열 개 센 거주마는, 헌디 심엉 좀 하영 헤여근에 찍어근에 헤여근에 거면 그만큼 그 가저올 거 아니꽈게.(아니, 아니. 그러니 저 딴 사람도요? 그걸 이렇게 하면 삘기가 이렇게 해서 이제 요만큼 열 개면 열 개 센 거지만, 그런데 잡아서 좀 많이 해서 찍어서 해서 그러면 그만큼 그 가져올 거 아닙니까.)

111073 @ 예 예.(예 예.)

111073 #4 겨난.(그러니.)

111073 @ 영 찍어가지고 열 개를 찍엇다 거면 하나도 여기 건 건들지 안 헤근에 찍으믄 성공하믄 요 밧인 사람 이사람 열 개를 셍 줘야 뒈는 거마씨?(이렇게 찍어가지고 열 개를 찍었다 그러면 하나도 여기 이건 건들지 안 해서 찍으면 성공하면 요 밭인 사람, 이사람 열 개를 세서 줘야 되는 건가요?)

111073 #4 줘야.(줘야.)

111074 @ 줘야 뒈는 거마씨예. 그믄 뼁이 치기 헐 때 그 가장 많이 찍은, 많이 땃던 거 기억나는 거 엇수과? 멧 개쯤 찍어낫수과?(줘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 삘기 치기 할 때 그 가장 많이 찍은, 많이 땄던 거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몇 개쯤 찍었었습니까?)

111074 #5 멧 개사신지 그거를 들어보레 와시민 하하하 잘 헹 나돗주마는, 그걸 알아지크라? 하하하.(몇 개였는지 그거를 들어보러 왔으면 하하하하 잘 해서 놓아두었지만, 그걸 알아지겠나? 하하하.)

111074 @ 뼁이철에는 그거 허긴 헷지예?(삘기 철에는 그거 하긴 했지요?)

111074 #2 뎅기다근엥에 경 자파리허당 자파리헐 거 엇이믄 거 뼁이 뽑앙 넷기는 거주 무신 어디가근엥에.(다니다가 그렇게 가지고 놀다가 가지고 놀 거 없으면 그 삘기 뽑아서 던지는 거지 무슨 어디 가서.)

111074 @ 게난, 게난. 게난마씨게.(그러니, 그러니. 그러니까요.)

111074 #5 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

고무줄놀이

111075 @ 그다음은 고무줄놀이라예. 고무줄놀이. 어, 고무줄놀이 헐 때 고무줄은 어떵 준비헷수과?(그다음은 고무줄놀이입니다. 고무줄놀이. 어, 고무줄놀이 할 때 고무줄은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111075 #5 그때 고무줄 어떵 준비헤? 가게 엇어신가? 가게에 강 사오주 그거.(그때 고무줄 어떻게 준비해? 가게 없었는가? 가게에 가서 사오지 그거.)

111075 @ 가게에서 사온 거 닮으꽈?(가게에서 사온 거 같은가요?)

111075 #5 응. 어디 강 준비헤?(응. 어디 가서 준비해?)

111076 @ 고무줄 헷엇던 동작 기억나는 거 잇수과? 뭔가 노래 불르고 헤낫잖아예?(고무줄 했었던 동작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뭔가 노래 부르고 했었잖아요?)

111076 #5 그 고무줄에 고무줄 허멍 무신.(그 고무줄에 고무줄 하면서 무슨.)

111076 @ 혹시 그런 거 어, 순이 아버지 담배꽁초에 불이 붙어서 으아차차 으아차차 이런 노래 안 들어낫수과?(혹시 그런 거 어, 순이 아버지 담배꽁초에 불이 붙어서 으아 차차 으아 차차 이런 노래 안 들었었습니까?)

111076 #5 경 아년.(그러지 않았어.)

111076 @ 어떤 노래, 한 번 하나라도 기억헤봅써.(어떤 노래, 한 번 하나라도 기억해보세요.)

111076 #5 아이고, 고무줄 헐 때 무시거렌 불러낫저만은 몰르켜. 불르지 못허크라.(아이고, 고무줄 할 때 뭐라고 불렀었지만 모르겠어. 부르지 못하겠어.)

111076 @ 혹시 거 기억헐 사람 어실건가마씨?(혹시 거 기억할 사람 없을 건요?)

111076 #5 기억 안 남저.(기억 안 나네.)

111076 @ 기억 안 남수과? 잇긴 이서낫지예?(기억 안 나십니까? 있기는 있었지요?)

111076 #2 응.(응.)

111077 @ 그면 그 고무줄놀이 하면서 혹시 특별나게 기억나는 거 엇수과? 노래는 기억 못헤도 좋으니까. 뭐 막 소나이아이들 고무줄 짤랑 가불고 이런 건 엇어난마씨?(그러면 그 고무줄놀이 하면서 혹시 특별나게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노래는 기억 못해도 좋으니까. 뭐 막 사내아이들 고무줄 잘라 가버리고 이런 건 없었었나요?)

111077 #5 하하하.(하하하.)

111077 @ 고무줄 짤라난 기억은 엇수과?(고무줄 잘랐던 기억은 없습니까?)

111077 #4 아이고, 나 거 헴시믄 그디 강 방에 방에 헤부런. 방에.(아이고, 내가 그거 하고 있으면 거기 가서 방해 방해 해버렸어. 방해.)

111077 @ 방해 헤부럿지예? 그때 혹시 여자아이들 고무줄 하면서 놀아난 거 기억 안남수과?(방해 해버렸지요? 그때 혹시 여자아이들 고무줄 하면서 놀아난 거 기억 안 나십니까?)

111077 #4 아, 이 놀아난 건 허주만은 영 헌데 기자 강 좀 그 방에 헤버리며는 막 이 여자들이 뭐허며는 무시거 허며는 막 기자 아자근엥 영 헤근에 막 울어부러.(아, 이 놀아난 건 하지만 이렇게 한데 그저 가서 좀 그 방해 해버리면 막 이 여자들이 뭐하면 뭐 하면 막 그저 앉아서 이렇게 해서 막 울어버려.)

111077 #5 하하하하.(하하하하.)

111077 @ 아, 울면 게민 내부럿수과?(아, 울면 그러면 내버렸습니까?)

111077 #4 내불주 어떵 가?(내버리지 어떻게 가?)

111077 @ 미안헹도 안헤근에.(미안하지도 않아서.)

111077 #4 미안헹 거.(미안해서 그거.)

줄넘기

111078 @ 그다음 줄넘기가 이서예. 베뛸락예. 베뛸락도 헤낫지예?(그다음 줄넘기가 있어요. 줄넘기요. 줄넘기도 했었지요?)

111078 #4 베뛸락.(줄넘기.)

111078 @ 베뛸락 헐 때 그 베뛸락은 어떵 헤낫수과?(줄넘기 할 때 그 줄넘기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111078 #5 베뛸락, 혼자만도 허곡.(줄넘기, 혼자만도 하고.)

111078 @ 예.(예.)

111078 #5 여라이도 허곡 둘렁.(여럿이도 하고 휘둘러서.)

111078 @ 여라이도 허고예. 그때도 혹시 여라이 헐 때는 뭔가 불러난 노래 엇수과?(여럿이도 하고요. 그때도 혹시 여럿이 할 때는 뭔가 불러난 노래 없습니까?)

111078 #5 베뛸락헐 때 무시거 헤낫이니. 잘 기억이 안나는디. 베뛸락은 헤낫인디.(줄넘기할 때 뭐 했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줄넘기는 했었는데.)

111078 #4 고무줄 헐 때는 산 토끼 토끼들 불르멍 헌 헷일 거라.(고무줄 할 때는 산 토끼 토끼들 부르면서 한 했을 거야.)

111078 #5 아니.(아니.)

111078 @ 아, 고무줄 헐 땐 산 토끼 토끼 헤낫수과?(아, 고무줄 할 땐 산 토끼 토끼 했었습니까?)

111078 #4 산토끼 토끼야 불르멍덜.(산토끼 토끼야 부르면서들.)

111078 #2 고무줄 헐 때가 산토낀가.(고무줄 할 때가 산토낀가.)

111078 #4 불르멍덜 헤낫일 거라. 그 산토끼 헐 때는 그 ᄉᆞ삼사건 후에, 우리가 학교 뎅기멍덜 그때 막 그 고무줄놀이를. 그전에는 이 여기는 촌에 학교다년 ᄉᆞ삼사건 난 그때 영 흔 아홉 술 열 술 열흔 술ᄁᆞ지는 완전 그 흔 열술 열흔 술 ᄁᆞ지는 지금 다 경우도.(부르면서들 했었을 거야. 그 산토끼 할 때는 그 사삼사건 후에,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들 그때 막 그 고무줄놀이를. 그전에는 이 여기는 촌에 학교다년 사삼사건 나서 그때 이렇게 한 아홉 살, 열 살, 열한 살까지는 완전 그 한 열 살 열한 살까지는 지금 다 경우도.)

111078 #2 무시거 베와서? 벱줄 못헷주.(무엇 배웠나? 배우질 못했지.)

111078 #4 경헹 모디 가근에 그 뭐 고무줄이여 무신 뭐 그런 거 허질 못헤.(그렇게 해서 모여 가서 그 뭐 고무줄이야 무슨 뭐 그런 거 하질 못해.)

111078 @ 음.(음.)

111078 #4 겐 뭐 저 그날은 뭐 이 막 아주 그 무신 먹을 걸 없언 밥일 못 먹을 정도 영 뭐허니까.(그래서 뭐 저 그날은 뭐 이 막 아주 그 무슨 먹을 걸 없어서 밥을 못 먹을 정도 이렇게 뭐하니까.)

111078 #5 이거저거가 생각이 엇일 때주.(이거저거가 생각이 없을 때지.)

111078 @ 그면 줄넘기 했을 때 방헤헤난 거 기억 말고는 특별한 거 없다는 거잖아예.(그러면 줄넘기 했을 때 방해했던 거 기억 말고는 특별한 거 없다는 거잖아요.)

그네뛰기

110080 @ 그다음 그네 메달앙 그네뛰긴 헤낫수과?(그다음 그네 매달아서 그네 뛰긴 했었습니까?)

111080 #4 응. 그네뛰기들은 헤.(응. 그네뛰기들은 해.)

111080 @ 아, 그네는 어디 어디 메달앗수과?(아, 그네는 어디 어디 매달았습니까?)

111080 #4 그 올레 영 뭐허며는, 그 저 무신 그 이 낭 두 앗디 영 헤근에 아래는 그자 준 널짝 영 헤영 딱 무꺼근에.(그 올레 이렇게 뭐하면, 그 저 무슨 그 이 나무 두 군데 이렇게 해서 아래는 그저 얇은 널짝 이렇게 해서 딱 묶어서.)

111080 # 올레에 몰구술낭 싱엉 무꺼낫주.(올레에 멀구술나무 심어서 묶었었지.)

111080 @ 그네 뛸 때는 그네뛰기 할 때는 누가 이기고 지고는 어섯수과? 멀리 가기 같은 거.(그네 뛸 때는 그네뛰기 할 때는 누가 이기고 지고는 없었습니까? 멀리가기 같은 거.)

111080 #4 그런 건 안허곡 기자, 영 뭐허민 두에서 영 누게 벗 ᄒᆞ나허민 ᄀᆞ찌허민 영 밀러주면 허민 멀리가며는 것도 영 행 멀리 영 허영 높으게 가가며는 모수아근에 거 끈어지카바 뭐 미영도 허곡, 겅허민 막 게 밀지 말렌 막 이추룩 허멍.(그런 건 안 하고 그저, 이렇게 뭐하면 뒤에서 이렇게 누가 벗 하나하면 같이하면 이렇게 밀어주면 하면 멀리가면 것도 이렇게 해서 멀리 이렇게 해서 높게 가가면 무서워서 그거 끊어질까봐 뭐 미워도 하고, 그렇게 하면 막 그 밀지 말라고 막 이처럼 하며.)

111081 @ 그네 뛰멍 특별하게 다첫던 그런 건 엇고예?(그네 뛰면서 특별하게 다쳤던 그런 건 없고요?)

111081 #4 그런 건 다친 거는 엇고.(그런 건 다친 거는 없고.)

한다리인다리

111082 @ 거면예, 이제예, 마지막으로 한다리인다리 하는 거 헤낫지예? 한다리인다리 하는 거.(그러면요, 이제요, 마지막으로 한다리인다리하는 거 했었지요? 한다리인다리하는 거.)

-녹화가 끊겨서 '놀이 2'에서 다시 녹화하였음.-

10. 놀이(2)

고무줄놀이

111075 @ 옛날에, 놀이헷던 거에 대헤서 질문 하겟습니다예? 고무줄놀이 막 헤

낫잖아예?(옛날에, 놀이했던 거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고무줄놀이 막 했었잖아요?)

111075 #3 음.(음.)

111075 @ 그때, 어, 고무줄은 어디서 난 헷수과?(그때, 어, 고무줄은 어디서 난 했습니까?)

111075 #3 베, 끈으로.(바, 끈으로.)

111075 @ 예.(예.)

111075 #3 무시거 그 노끈으로 헌가헷주.(무엇 그 노끈으로 했던가했지.)

111075 @ 예.(예.)

111075 #3 이디 다음에야 고무줄이주 우리 헐 때는 고무줄이 엇어.(여기 다음에야 고무줄이지 우리 할 때는 고무줄이 없어.)

111075 @ 어섯지예? 맞수다.(없었지요? 맞습니다.)

111075 #3 우리가 헐 때에는 끈으로 저 무시거 사끼, 사끼.(우리가 할 때에는 끈으로 저 뭐 새끼, 새끼.)

111075 @ 꼬은 걸로예?(꼰 걸로요?)

111075 #3 꼬운 걸로.(꼰 걸로.)

111075 @ 예, 맞수다.(예, 맞습니다.)

111075 #3 그런 걸로. 거 무신경구 허민, 저 즐넘기옌.(그런 걸로. 그거 뭔가 하면, 저 줄넘기라고.)

111075 @ 아, 예.(아, 예.)

111075 #3 베뛸락.(줄넘기.)

111075 @ 베뛸락 말고, 거 베뛸락은 나중에 질문할게예.(줄넘기 말고, 그거 줄넘기는 나중에 질문할게요.)

111075 #3 아니, 아니. 그거나 거나 영 ᄀᆞ뜨게 헤서.(아니, 아니. 그거나 거나 이렇게 같게 했어.)

111075 @ 게난 ᄀᆞ뜨게 헷잖아예? 고무줄놀이예. 게믄은 그때, 그, 그, 새끼 꼬운 걸로 고무줄놀이 할 때, 뭐 우리가 우리 시대에는 뭐 순이 아버지 담배꽁초에 불이 붙어서, 이런 거 헷엇거든마씨? 이렇게 들락키멍. 그땐 뭐 헤낫수과? 노래가.(그러니 같게 했잖아요? 고무줄놀이요. 그러면 그때, 그, 그, 새끼 꼰 걸로 고무줄놀이 할 때, 뭐 우리가 우리 시대에는 뭐 순이 아버지 담배꽁초에 불이 붙어서, 이런 거 했었거든요? 이렇게 날뛰면서. 그땐 뭐 했었습니까? 노래가.)

111075 #3 아아, 그 우리 헐 때는 웨정 때주.(아아, 그 우리 할 때는 일제강점기 때지.)

111075 @ 게난 웨정 때.(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111075 #3 웨정 때 일본말로 유빈상 가시라이데[305]. 허멍 영영 뛰멍 그런 거 헤연.(일제강점기 때 일본말로 유빈상 가시라이데. 하면서 이렇게이렇게 뛰면서 그

305) '유빈상 가시라이데'는 '일제강점기 때 고무줄놀이 하면서 부르던 노래'이다.

런 거 했어.)

111075 @ 그 노래 끝까지 기억남수과?(그 노래 끝까지 기억나십니까?)

111075 #3 거벳긘 몰라.(그거밖에 몰라.)

111075 @ 아, 기꽈?(아, 그래요?)

111075 #3 유빈상 가시라이데 ᄒᆞ멍 영영 형 뜀주. 사까다치[306]엔 ᄒᆞᆫ 건 탁, 영 헤단 발로 놉뎡 영영 올라강, 사까다치 영 굽엇단 그 영영 다리로 걸렁 넘어가. 건 사까다치.(유빈상 가시라이데 하면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뛰지. '물구나무서기'라고 한 건 탁, 이렇게 하다가 발로 날뛰어서 이렇게이렇게 올라가서, '물구나무서기' 이렇게 굽었다가 그 이렇게이렇게 다리로 걸려서 넘어가. 그건 '물구나무서기'.)

111075 @ 사가다찌예.('물구나무서기'.)

111075 #2 일본말을 잘 알아지믄 허주만은 정확히 공식적인 걸로는 몰라.(일본말을 잘 알아지면 하지만 정확히 공식적인 걸로는 몰라.)

111075 #3 그 유빈상 가시라이데랑 거 지금 그 거 경ᄒᆞᆫ 걸로만 베와부난 몰라. 유빈상 가시라이데ᄒᆞ곡 사가다치허면은 탁 청 영 헨 베 헤연 넘어가는거.(그 유빈상 가시라이데랑 거 지금 그 거 그렇게 한 걸로만 배워버려서 몰라. 유빈상 가시라이데하고 물구나무서기하면 탁 쳐서 이렇게 한 바 해서 넘어가는 거.)

111075 @ 예, 예.(예, 예.)

111075 #3 다리 꼬연 넘어가는 거.(다리 꽈서 넘어가는 거.)

111075 @ 맞수다게.(맞습니다.)

111075 #3 경헌디 헤낫어. 겨난 이디 말로는 몰라.(그렇게 했는데 했었어. 그러니 여기 말로는 몰라.)

111077 @ 그때 그 고무줄놀이 하면서 막, 막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예. 막 재밋엇던 기억 엇수과?(그때 그 고무줄놀이 하면서 막, 막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요. 막 재미있었던 기억 없습니까?)

111077 #3 그거는 무시거 기자 그런 것만 헤나고 오제미 ᄒᆞ고 공기만 그런 것만 헤난.(그거는 무엇 그저 그런 것만 했었고 오자미 하고 공기놀이만 그런 것만 했었어.)

111077 @ 경헤낫구나예. 게믄 좋수다예.(그랬었군요. 그러면 좋습니다.)

줄넘기

111078 @ 그다음에는 줄넘기로 넘어갈게예?(그다음에는 줄넘기로 넘어 갈게요?)

111078 #3 음.(음.)

111078 @ 아까예. 베뛸락예.(아까요. 줄넘기요.)

111078 #3 음.(음.)

306) '사까다치'는 일본어 'さかだち'를 말하는데 우리말 표준어 '물구나무서기'를 말한다.

111078 @ 베뛸락할 때, 베뛸락할 때는 어떤 어떤 종류가 이서낫수과?(줄넘기할 때, 줄넘기할 때는 어떤 어떤 종류가 있었습니까?)

111078 #3 게난 ᄀᆞ싸 ᄀᆞᆫ듯 저 무시거 영영 헹도 뛰곡.(그러니 아까 말하듯 저 무엇 이렇게 이렇게 해서도 뛰고.)

111078 @ 예.(예.)

111078 #3 영 헤근엥 이레 갓다 저레 갓다 넘어 갓다 넘어 왓다 ᄒᆞ고.(이렇게 해서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넘어갔다 넘어왔다 하고.)

111078 @ 예.(예.)

111078 #3 사가다치옌 ᄒᆞᆫ 거 ᄀᆞ싸 ᄒᆞ는 거.('물구나무서기'라고 한 거 아까 하는 거.)

111078 @ 그것도 허기도 하고예.(그것도 하기도 하고요.)

111078 #3 그거허고.(그거하고.)

111078 @ 그 다음에는 뭐 양쪽에 사람이 베잡앙 영영 흔들면 가운데 사람이.(그 다음에는 뭐 양쪽에 사람이 바잡아서 이렇게이렇게 흔들면 가운데 사람이.)

111078 #3 어. 것도 뛰는 거 하고.(어. 것도 뛰는 거 하고.)

111078 @ 그거는 뭐렌 ᄀᆞᆯ앗수과? 그거는.(그거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거는.)

111078 #3 뭐엔사 ᄀᆞᆯ앗인지, 것도 헤나믄 헷는디 몰라.(뭐라고 말했는지, 것도 했었기는 했는데 몰라.)

111078 @ 헤나긴 헷지예?(했었긴 했지요?)

111078 #3 영영 뛰민 그냥 영영 딱 뛰고, 혼자도 뛰고 ᄋᆞ라이 멧 사람도 들어강 영 들게 뛰게 ᄒᆞ여. 들어강 ᄒᆞ여.(이렇게이렇게 뛰면 그냥 이렇게이렇게 탁 뛰고, 혼자도 뛰고 여럿이 몇 사람도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뛰게 해. 들어가서 해.)

111078 @ 게 헐 때, 그때도 뭔가 막 말, 노래 같은 거 하면서 계속 헷지 안 헷수과?(그 할 때, 그때도 뭔가 막 말, 노래 같은 거 하면서 계속 했지 안 했습니까?)

111078 #3 게메, 헤실 건디.(글세, 했을 건데.)

111079 @ 기억이 안 남수과? 혹시 그런 것들 기억할 수 이신 사람 엇인가마씨?(기억이 안 나십니까? 혹시 그런 것들 기억할 수 있는 사람 없을까요?)

111079 #3 아이고 엇어. 다 죽고, 당추 엇어.(아이고 없어. 다 죽고, 당최 없어.)

111079 #2 그때 지금 수망리가.(그때 지금 수망리가.)

111079 #3 그때 그것도 아무나 안 헷어.(그때 그것도 아무나 안 했어.)

111079 @ 응, 게난 어떤 사람이 헷수과?(응,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했습니까?)

111079 #3 아니 그, 대게 저 무시거 학교 뎅기고 영 흔 사람이 헸는디.(아니 그, 대게 저 뭐 학교 다니고 이렇게 한 사람이 했는데.)

111079 @ 음.(음.)

111079 #3 그 시철에 여저들은 학교를 잘 아녀곡, 뛸락은 그거는 여저덜만 헨게.(그 시절에 여자들은 학교를 잘 안하고, 뛰기는 그거는 여자들만 했어.)

그네뛰기

111080 @ 맞수다, 여자들만예. 그믄 그다음엔 그네뛰기가 잇잖아예, 그네뛰기예. 그네. 영 벳줄 걸어정 널짝 헤가지고 헷던 거.(맞수다, 여자들만요. 그러면 그다음엔 그네뛰기가 있잖아요, 그네뛰기요. 그네. 영 밧줄 걸어져서 널짝 해가지고 했던 거.)

111080 #3 응.(응.)

111080 @ 그네뛰기 헷엇던 기억 예기 헤줍서.(그네뛰기 했었던 기억 얘기 해주세요.)

111080 #3 그것ᄀᆞ라 무시거옌 헤신고. 그네뛰기 홀 때. 몰르크라. 헤난 게민 알아지는디 건 몰라.(그것보고 뭐라고 했지. 그네뛰기 할 때. 모르겠어. 했던 거면 그러면 알아지는데 그건 몰라.)

111080 @ 그때도 그건 그네렌은 헷수과?(그때도 그건 그네라고는 했습니까?)

111080 #3 응, 영 뛰는 건 영 저 탄에 영영 ᄒᆞ는 거. 헤놧주만은 못홈에.(응, 이렇게 뛰는 건 이렇게 저 타서 이렇게이렇게 하는 거. 했었지만 못하지.)

111080 @ 음. 건 누가 어디에 메달아 놔신지는 기억 안 남수과?(음. 건 누가 어디에 메달아 놓았는지는 기억 안 나십니까?)

111080 #3 건 나무에 메달안 경헤지 않아신가? 영 무시 것에 헤나는 건 알아져.(건 나무에 매달아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무슨 것에 했었던 건 알아.)

111080 #2 거 학교에 그것이 학교에 다 잇주. 거의 하나씩 이섯주.(거 학교에 그것이 학교에 다 있지. 거의 하나씩 있었지.)

111080 #3 학교에 저, 아무 디나 엇어.(학교에 저, 아무 데나 없어.)

111080 @ 학교에 이서낫구나예.(학교에 있었었군요.)

111080 #3 어. 학교에. 아무디나 엇어.(어. 학교에. 아무데나 없어.)

한다리인다리

111082 @ 그다음에는예, 어, 한다리인다리 헷던 거 기억나지예?(그다음에요, 어, 한다리인다리 했던 거 기억나지요?)

111082 #3 응.(응.)

111082 @ 한다리인다리는 어떻게 합니까?(한다리인다리는 어떻게 합니까?)

111082 #3 다리 영 번엉 꼬아장.(다리 이렇게 뻗어서 꼬아 앉아서.)

111082 @ 영 한 번 영 헤보십서. 삼춘이영 ᄀᆞ찌.(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삼촌이랑 같이.)

111082 #2 영 영 다리를 게 한다리 인다리 건들 만들 영 헴시리 헤 나가주게.(이렇게 이렇게 다리를 그 한다리 인다리 건들 만들 이렇게 하면서 해 나가지.)

111082 #3 영 다리를 멧 번 영영 영.(이렇게 다리를 몇 번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111083 @ 그걸 한번 헤봅서. 한다리 인다리 건들 만들을.(그걸 한번 해보세요.

한다리 인다리 건들 만들을.)

111083 #3 나 ᄒᆞ는 거 허카? 하르방[307] 헙서.(내가 하는 거? '할아버지'가 하세요.)

111083 #2 난 몰라. 이자부런.(난 몰라. 잊어버렸어.)

111083 #3 ᄒᆞᆫ다리 인다리 개충 대충 영님 수예 부지떼기 떡 헤신가? 부지떼기 땡헤신가? 몰라.(ᄒᆞᆫ다리 인다리 개충 대충 영님 수예 부지떼기 떡 했는가? 부지떼기 땡 했는가? 몰라.)

111083 @ 부지떼기 떡, 부지떼기 땡.(부지떼기 떡? 부지떼기 땡?)

111083 #3 부지떼기 땡! 경 헌것도 닮아.(부지떼기 땡! 그렇게 한 것도 같아.)

111083 #2 부지뗑인 뭔지 알아?(부지깽인 뭔지 알아?)

111083 @ 예게. 불숨을 때 쓰는 거마씸.(예. 불을 땔 때 쓰는 거요.)

111083 #3 경도 ᄀᆞᆫ고.(그렇게도 말하고.)

111083 @ 다시 예?(다시 예?)

111083 #3 개충 대충.(개충 대충.)

111083 @ 예.(예.)

111083 #3 그거 ᄋᆞ랏 질이라. ᄋᆞ라가지.(그거 여러 종류야. 여러 가지.)

111083 #2 여라가지.(여러가지.)

111083 @ 다시 한 번 다른 걸로 헤봅서. 한다리 인다리.(다시 한 번 다른 걸로 해보세요. 한다리 인다리.)

111083 #3 그거는 ᄒᆞ는디 개충 대충, ᄀᆞᆫ싸 영 ** ᄀᆞᆯ앗신가?(그거는 하는데 개충 대충, 아까 이렇게 ** 말했는가?)

111083 @ 예, 예.(예, 예.)

111083 #3 응, 개충 대충 어떵헌 거 몰르크라. 경헌 ᄋᆞ라 가지라 것도.(응, 개충 대충 어떻게 한 거 모르겠어. 그렇게 한 여러 가지라 것도.)

111083 @ 거난 ᄋᆞ라 가지 중에서 개충 대충 그거 말고 다른 거 하나 기억혜 줍서.(그러니 여러 가지 중에서 개충 대충 그거 말고 다른 거 하나 기억해주세요.)

111083 #3 개충 대충, ᄒᆞᆫ다리 인다리, 개충 대충, 부지뗑이 땡. 헤저신가.(개충 대충, ᄒᆞᆫ다리 인다리, 개충 대충, 부지뗑이 땡. 했었나.)

111083 @ 예, 그다음 삼춘 기억하는 거 뭐 이수과? 한다리 인다리.(예, 그다음 삼춘 기억하는 거 뭐 잇수과? 한다리 인다리.)

111083 #2 그거 나 이, 거 한다리 인다리 보통 여자들 하지 남자들 벨루 안 헤놓니까.(그거 내가 이, 거 한다리 인다리 보통 여자들 하지, 남자들 별로 안 해놓으니까.)

111083 @ 예.(예.)

111083 #3 다리 벋엉 아장 그런 거 ᄒᆞ고. 막 헤난 게 소용엇어. 이제 막 이져비언.(다리 뻗어 앉아서 그런 거 하고. 막 했던 게 소용없어. 이제 막 잊어버렸어.)

307) '하르방'은 할아버지를 말한다. 여기서는 '남편'을 뜻한다.

111083 @ 예.(예.)

111083 #2 남자들은 벨로 아년.(남자들은 별로 안 했어.)

111084 @ 이져부런예? 그다음 우리 한다리 인다리 그거 하면서 어, 이기고 진 건 뭘로 결정합니까?(잊어버렸어요? 그다음 우리 한다리 인다리 그거 하면서 어, 이기고 진건 뭘로 결정합니까?)

111084 #3 몰라.(몰라.)

111084 #2 게니까, 요거 허면 예, 허믄.(게니까, 요거 하면 예, 하면.)

111084 @ 예.(예.)

111084 #2 이, 하면 땡, 한 건 이거 빼어불어?(이, 하면 땡, 한 건 이거 빼버려?)

111084 @ 아, 예.(아, 예.)

111084 #2 게민 내중ᄁᆞ지 이신 게 이긴거라.(그러면 나중까지 있는 게 이긴 거야.)

111084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11084 #3 어떵 헤진 거 몰르크라.(어떻게 했던 거 모르겠어.)

111084 @ 이기면, 이기믄 그거에 대한 뭘 주거나 받거나 헷수과? 너 이겨시난에 뭐.(이기면, 이기면 그것에 대한 뭘 주거나 받거나 했습니까? 네가 이겼으니까 뭐.)

111084 #3 대게 엿날에는 무시거 허다근에 지면은 딱 매나 맞추고, 몰라.(대게 옛날에는 뭐 하다가 지면 딱 매나 맞고, 몰라.)

111084 @ 아, 게난 매 맞을 땐 어디다 때렷수과?(아, 그러니 매 맞을 땐 어디다 때렸습니까?)

111084 #3 이거홀 때는 이 다리를 때리게 뒈고.(이거할 때는 이 다리를 때리게 되고.)

111084 @ 예.(예.)

111084 #3 혼 거 어떵산디 막 알룩달룩 뭔 몰르크라. 거 두린 때 헤난 게 게난 이자비언.(한 거 어떻게 했었는지 막 알록달록 된 모르겠어. 그거 어린 때 했었던 게 그러니 잊어버렸어.)

111084 #2 게난 마지막ᄁᆞ지 남은 게 제일 일등이주 뭐.(그러니 마지막까지 남은 게 제일 일등이지 뭐.)

111084 @ 맞수다예.(맞습니다.)

111084 #3 알지 못ᄒᆞ크라.(알지 못하겠어.)

111084 @ 그 한다리 인다리는 몃 나 날 때까지 헷수과?(그 한다리 인다리는 몇 살 날 때까지 했습니까?)

111084 #3 푹, 헤난 것만 얼믓ᄒᆞ주.(푹, 했던 것만 어렴프시하지.)

111085 @ 막 나중에 처녀 총각 때도 헐 때도, 안 헨마씸?(막 나중에 처녀 총각 때도 할 때도, 안 했나요?)

111085 #3 아, 그런 땐 아녀고.(아, 그런 땐 안하고.)

111085 #2 처녀 총각, 우리 처녀 총각은 먹기가 바빠시난. 먹을 거 이 구하기가 힘들엇주.(처녀 총각, 우리 처녀 총각은 먹기가 바빴으니까. 먹을 거 이 구하기가 힘들었지.)

111085 #3 그 시철에 삶이 얼마나 어려와. 어려와, 삶이.(그 시절에 삶이 얼마나 어려워. 여려워, 삶이.)

111085 #2 우리가 ᄉᆞ삼사건 때 열여슷인디, 어려왕. 첨 굶지 아녀믄.(우리가 사삼사건 때 열여섯인데, 어려워. 저 굶지 않으면.)

111085 @ 예.(예.)

11. 통과의례

출생

112001 @ 자 그러면예, 거 질문헤 볼게예. 어 통과의례 중에서예 맨 먼저 태교는 어떵 헷수과? 애기, 벳속에 있을 때는 어떤 생각 하면서 살앗수과?(자 그러면요, 그거 질문해볼게요. 어, 통과의례 중에서요 맨 먼저 태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기, 뱃속에 있을 때는 어떤 생각 하면서 살았습니까?)

112001 #3 아무 생각도 아녀고 기자 살당 보민 베 불면은 애기 베저신가 혜영 기자 그날 저 날 날 때 어떵허코, 어떵한 애기 가저저신구 것도 아녀고, 살당보민 날 때 뒈민, 베 아프민 나오민 기자 나고 경헷주. 어디 검사 뎅기곡 어떵 헤점신궁 경정 세지 아녕 살안. 어이고, 삶이 바빠 놓난.(아무 생각도 안하고 그저 살다가 보면 배 불면 아기 배졌을까 해서 그저 그날 저 날 날 때 어떻게 할까, 어떤 아기 가졌을까 것도 안하고, 살다보면 날 때 되면, 배 아프면 나오면 그저 나고 그렇게 했지. 어디 검사 다니고 어떻게 해졌는지 그렇게 저렇게 세지 않고 살았어. 아이고, 삶이 바빠 놓으니까.)

112001 #2 그때는 태교, 생각 ᄒᆞ도 아녓주.(그때는 태교, 생각 하지도 않았지.)

112001 @ 우리 애기나면 막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야지 생각 안헷수과?(우리 아기나면 막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야지 생각 안했습니까?)

112001 #3 어이고, 그 생각이 어디 실 말이라. 그 셍각 홀 셍각 기자 나당 살당 보민 베어지민 베어져신가 혜영, 나민 난 대로 기자 꾹꾹 밀려불멍 젓줄 때도 앙앙 울어가가민 젓 ᄒᆞ쏠 줘동 저레 밀영 네불곡 헷주. 질머져아정 밧디두 뎅기고, 애기 구덕 안치고 경 헷주. 우리 애기키울 땐, 애기자 마자 아장강 담 엠드레 네비동, 기자 일 ᄒᆞ곡.(아이고, 그 생각이 어디 있을 말이야. 그 생각 할 생각 그저 낳다가 살다가보면 배어지면 배어졌을까 해서, 낳으면 난 대로 그저 꾹꾹 밀려버리며 젖줄 때도 앙앙 울어 가면 젖 조금 주고는 저리로 밀어서 내버리고 했지. 짊어져가지고 밭에도 다니고, 아기요람 앉히고 그렇게 했지. 우리 아기기 키울 땐, 아기지 마지

가져가서 돌담 옆에 내버리고, 그저 일 하고.)

112001 @ 예.(예.)

112001 #3 애기 것이 무시거라.(아기 것이 뭐야.)

112001 @ 거민, 아.(그러면, 아.)

112001 #3 애기 죽도 아이쒀 줭.(아기 죽도 아니 쒀 줬어.)

112001 @ 아.(아.)

112001 #3 기냥 경헤도 거 다 살안.(그냥 그렇게 해도 다 살았어.)

112002 @ 출산, 게민 애기 날 준비는 어떵 헷수과?(출산, 그러면 아기 날 준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112002 #3 준비는 무시거, 낫땅 나며는 기냥 난 데로 헷주.(준비는 뭐, 놔뒀다가 낳으면 그냥 낳은 대로 했지.)

112002 @ 경헤도 애기 옷이라든가 그 봇데저고리 같은 거.(그래도 아기 옷이라든가 그 배냇저고리 같은 거.)

112002 #3 애기 옷은 응, 봇데저고린 게 ᄒᆞ며는 ᄒᆞ나 날 때 뒈민 그 준비 헷단 헤서? 그땐 시어머니가 체암 헤주민, ᄒᆞ나 그거 키와나민 그거 놧당 따시 난 거 허곡 경헷주.(아기 옷은 응, 배냇저고리는 그 하면 하나 날 때 되면 그 준비 했다가 했어? 그땐 시어머니가 처음 해주면, 하나 그거 키워나면 그거 놓아두었다가 다시 난 거 하고 그렇게 했지.)

110220 @ 예.(예.)

110220 #3 무시거 험벅 뭐 ᄒᆞ리루 둑지에 쓸 거 ᄒᆞ쏠 기자 이녁냥 멘들앙 입지곡, 지성귀도 기자 헌 주럭[308] ᄒᆞ쏠 영 감앙 키우곡 경헷주. 아이고, 애기 죽 써 주곡 우유주곡 하간 거. 울민 우는 대로 그냥 네빈 큰 거 다슷 개.(뭐 헝겊 뭐 하리로 죽지에 쓸 거 조금 그저 이녁대로 만들어서 입히고, 기저귀도 그저 헌 '주럭' 조금 이렇게 감아서 키우고 그랬지. 아이고, 아기 죽 써 주고 우유주고 여러 가지 거. 울면 우는 대로 그냥 내버려 큰 거 다섯 명.)

112002 @ 그믄 애기 어디서 낫수과?(그러면 아기 어디서 났습니까?)

112002 #3 집이서게.(집에서.)

112002 @ 집에서예?(집에서요?)

112002 #3 응.(응.)

112002 @ 누게가 받안마씨? 애기 받은 건 누게가 받앗수과?(누가 받았나요? 아기 받은 건 누가 받았습니까?)

112002 #3 누게 받아게. 애기 난후제사 동네 사름ᄀᆞ라 ᄀᆞᆯ으민 오랑 영 세 갈라주곡[309] 헷주.(누가 받아. 아기 난후에야 동네 사람보고 말하면 와서 이렇게 '탯줄을 잘라주고' 했지.)

112003 @ 그 세 갈르는게 텟줄 끊어준다는 말이꽈?(그 '세 갈르는'게 탯줄 끊어

308) '주럭'은 ㉠ 헐떨어져서 찢어진 헝겊 조각 따위와 ㉡ 닳아서 헐떨어진 옷 따위를 낮추어 이르는 말을 뜻한다.

309) '세 가르다'는 '탯줄을 자르다'는 말이다.

준다는 말입니까?)

112003 #3 응.(응.)

112003 @ 아, 그면 그 텟줄은 동네사람 누게가 왕 끊어줫수과?(아, 그러면 그 탯줄은 동네사람 누가 와서 끊어줬습니까?)

112003 #3 우리 동네 저 친촉사름 오란에 끊어주고 그 테는 영 헷다근에 삼일 뒈민 머리 몸 곰고 테는 ᄉᆞ라불고.(우리 동네 저 친족사람 와서 끊어주고 그 태는 이렇게 했다가 삼일 되면 머리 몸 감고 태는 태워버리고.)

112003 @ 테는 ᄉᆞ라불엇수과?(태는 태워버렸습니까?)

112003 #3 응.(응.)

112004 @ 그며는 이제 그 날 둘 뒈가면 애기 난 다음에 뭔가 끓여 먹어야지 헤가지고 그 준비한 음식은 뭘 준비헤낫수과?(그러면 이제 그 날 달 돼 가면 아기 난 다음에 뭔가 끓여 먹어야지 해가지고 그 준비한 음식은 뭘 준비했었습니까?)

112004 #3 에이고, 그 애기 나면은 기자 끌려먹는 거는 거. 허허 모물ᄀᆞ루, 모물ᄀᆞ루 카 먹는 거.(아이고, 그 아기기 낳으면 그저 끓여먹는 거는 그거. 메밀가루 허허, 메밀가루 타서 먹는 거.)

112004 @ 예.(예.)

112004 #3 캉게 국수 만들앙 그거 먹는 거뿐이구.(타서 국수 만들어서 그거 먹는 거뿐이고.)

112004 @ 예.(예.)

112004 #3 츰, 애기 어멍 애기 낳젠 허민 무시거 늘레난 거 먹어산덴 허멍 바닷궤기 ᄒᆞ꼼 사당.(참, 아기기 어머니 아기기 낳았다고 하면 무엇 비린내 나는 거 먹어야한다고 하면서 바닷고기 조금 사다가.)

112004 @ 예.(예.)

112004 #3 국이나 흔 직 끌려주민 메역국.(국이나 한 숟갈 끓여주면 미역국.)

112004 @ 시어머니가 끓여줍디가?(시어머니가 끓여줬습니까?)

112004 #3 응. 경헨 먹언.(응. 그렇게 해서 먹었어.)

112004 @ 친정에 강 안 낳수과? 애기를?(친정에 가서 안 낳았습니까? 아기를?)

112004 #3 아니, 친정에 아니.(아니, 친정에 아니.)

112004 @ 아예 사는 집에서 낫수과?(아예 사는 집에서 낳았습니까?)

112004 #3 응. 사는 집에서 나고, 누게 엇인 디서도 나곡, 기자 이녁만 이녁대로 나곡게.(응. 사는 집에서 낳고, 누구 없는 데서도 낳고, 그저 이녁만 이녁대로 낳고.)

112004 @ 몸조리는마씨?(몸조리는요?)

112004 #3 몸조리ᄒᆞ곡, 하간 거 무시거 몰라 그냥 살아.(몸조리하고, 여러 가지 것 무엇 몰라 그냥 살아.)

112004 @ 일어낭 밥, 밥도 혼자 헹 먹엇수과?(일어나서 밥, 밥도 혼자 해서 먹었습니까?)

112004 #3 응.(응.)

112004 @ 혼자 스스로?(혼자 스스로?)

112004 #3 혼자 헤먹고 먼먼 흔 물도 기자 질고, 기자 경헹 살앗주.(혼자 해먹고 먼먼 한 물도 그저 길고, 그저 그렇게 해서 살았지.)

112004 @ 아.(아.)

112004 #3 몸조리도 어디 실말이라. 몸 조리 하는 거는 그 머리 몸 사흘 뒈민 머리 몸 곰주.(몸조리도 어디 있어. 몸 조리 하는 거는 그 머리 몸 사흘 되면 머리 몸 감지.)

112004 @ 예.(예.)

112004 #3 그거 ᄒᆞ민 그때부턴 기자 밥도 이녁대로, 물도 이녁대로, 애기멍 버문 옷이멍 다 이녁대로.(그거 하면 그때부턴 그저 밥도 이녁대로, 물도 이녁대로, 애기며 더러운 옷이며 다 이녁대로.)

112004 @ 아이고, 거믄 잘도 삼춘한테 섭섭헤시켜예.(아이고, 그러면 잘도 삼촌한테 섭섭했겠어요.)

112004 #3 응. 이 삼춘은 맘이 큰큰 걱정을 안 헤주난. 아이고, 저런 아방이 만나난엔 결곡 헐 걸로 알도 아녀고 섭섭도 아녀고 원 그런.(응. 이 삼촌은 맘이 크디커서 걱정을 안 해주니까. 아이고, 저런 '아방'을 만나니까 결국 할 걸로 알지도 않고 섭섭하지도 않고 원, 그런.)

112004 #2 난 애기 날 어떵 난치레 알도 못헤여.(난 아기 날 어떻게 낳는지 알도 못해.)

112004 #3 아방[310]이 어디 엿날엔 차 엇이난 일 간에 애기 난에, 흔 메틀 뒈도 오도 아년 거라.('아버지'가 어디 옛날엔 차 없으니까 일하러 가서 아기 낳아서, 한 며칠 돼도 오지도 않은 거야.)

112004 @ 진짜 어떵 걸 견뎌넷수과게?(진짜 어떻게 그걸 견뎌냈습니까?)

112004 #3 경ᄒᆞ멍 산 사름이난에 이제는.(그렇게 하면서 산 사람이니까 이제는.)

112005 @ 애기 목욕은 게난 삼일 잇당 목욕 시켠마씨?(아기 목욕은 그러니 삼일 있다가 목욕 시켰나요?)

112005 #3 애기 그 삼일 시면은 애기 그 곰곡 이녁 쑥 헤근엥에 솖아근엥에 몸 곰곡. 또, ᄒᆞ나 저 나가 네 개차 난 때는, 속 헤영 애기 나돈에 속 헤단에 솖안에 머리 몸 곰고 경 헤서. 나냥으로 헤단. 게도 아방ᄀᆞ라 곧도 아녀고, 아방ᄀᆞ라 영 헤 저신 걸헨 곧도 아녀 헨 우리 ᄒᆞᆫ세상 살안.(아기 그 삼일 있으면 아기 그 감기고 이녁 쑥 해서 삶아서 몸 감고. 또, 하나 저 내가 네 개째 낳은 때는, 쑥 해서 아기 낳아두고 쑥 해다가 삶아서 머리 몸 감기고 그렇게 했어. 나대로 해다가. 그래도 '아버지'보고 말하지도 않고, '아버지'보고 이렇게 한 걸해서 말하지도 안 해서 우리 한 세상 살았어.)

112005 @ 아이고, 진짜.(아이고, 진짜.)

---

310) '아방'은 아버지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남편'을 뜻한다.

112005 #3 다 겅ᄒᆞ여.(다 그렇게 해.)

112005 @ 막 꼬집아 붑서, 옆에서. 이제라도 하하하하.(막 꼬집어 버리십시오, 옆에서. 이제라도 하하하하.)

112005 #2 하하하하.(하하하하.)

112005 #3 아방이 마음이 큰큰헤 놓난 당추 즘상ᄒᆞ게 아녀는 따문에 곧ᄀᆞ정 아녀.('아버지'의 마음이 크디커 놓으니까 당최 자상하게 않는 때문에 말하고 싶지 않아.)

112006 @ 어, 그면 그 애기 그 봇뎃창옷이렌 하잖아예? 봇데 그런 건 어떵 준비헷수과?(어, 그러면 그 아기 그 배내옷 하잖아요? 배내 그런 건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112006 #3 그 것 애기 난 때. 애기 나며는 그 무시거 베나 멩지나 헤근엥에 만들안 경헤난.(그 것 아기기 낳은 때. 애기 나며는 그 무엇 베나 명주나 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했었어.)

112006 @ 것도 직접 만듭디가?(것도 직접 만듭디까?)

112006 #3 응.(응.)

112006 @ 게 큰아이 입어난 거 족은아이 물려주멍예?(그 큰아이 입었던 거, 작은아이 물려주면서요?)

112006 #3 응. 말제도록 거 입어난 거 입주고.(응. 말째도록 거 입었던 거 입히고.)

112006 @ 게 이제 그거 엇수과? 애기 꺼.(그래 이제 그거 없습니까? 아기 거.)

112006 #3 문 앗아 데껴빗주게 애기 다 나비신디 무신**.(모두 가져 던져버렸지 애기 다 낳아버렸는데 무슨**.)

112006 @ 아, 경헷구나예.(아, 그랬군요.)

112006 #3 응.(응.)

112007 @ 그다음에는 그 할망상이렌 헤가지고.(그다음에는 그 '할망상'이라고 해가지고.)

112007 #3 응,(응.)

112007 @ 그 애기들 위헤 가지고 하는 그 할망상은 안 헤봣수과?(그 아기들 위해 가지고 하는 그 '할망상'은 안 해봤습니까?)

112007 #3 아넌.(안 했어.)

112008 @ 그다음엔 그 베넷머리렌 알아지쿠과? 베넷머리? 그 애기 금방 낫을 때 뭐 영 헤주는 거.(그다음엔 그 배냇머리 알겠습니까? 배냇머리? 그 아기 금방 났을 때 뭐 이렇게 해주는 거.)

112008 #3 무시거 애기 그 첨, 저 애기난 때 봇텟옷벳긘 헤준 거 아무것도 엇어.(무엇 아기 그 참, 저 애기 낳았을 때 배내옷밖에 해준 거 아무것도 없어.)

112008 @ 아무것도 엇언예. 게도 아이들이 잘 커주고예.(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래도 아이들이 잘 커주고요.)

112008 #3 응.(응.)

112008 #2 건디 우리 집이 아이들은.(그런데 우리 집의 아이들은.)

112008 @ 예.(예.)

112008 #2 세상모르게 컨. 아프질 아년에 커놓난. 우리 부모는 낳주. 아이들 아픈 건 ᄀᆞ자 구경 못헤시난.(세상모르게 컸어. 아프질 않아서 커놓으니까. 우리 부모는 낳았지. 아이들 아픈 건 여태 구경 못했으니까.)

112008 @ 기지예.(그렇지요.)

112008 #3 경헤나난 난 이젠 막 버릇상경 나가 막 아팡. 밤인 완전 환자라 경헤도 낮엔 영 뎅기난 못살진 아녀고.(그렇게 해서서 난 이젠 막 버릇 생겨 내가 막 아파. 밤엔 완전 환자라. 그렇게 해도 낮엔 이렇게 다니니까 못살진 안하고.)

112008 @ 게도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라든가 보며는 베넷메는 베넷머리 밀어사 존덴 헤가지고 왜 대부분 초파일 전 날인가 머리 싹 밀어불잖아예?(그래도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라든가 보면 배냇머리는 배냇머리 밀어야 좋다고 해가지고 왜 대부분 초파일 전 날인가 머리 싹 밀어버리잖아요?)

112008 #3 머리는 저 초파일 뒈면 애기 머리들은 ᄀᆞ앗어.(머리는 저 초파일 되면 애기 머리들은 잘랐어.)

112008 @ 다 ᄀᆞ아. 아, 베넷머리 다 잘랏수과? 그때.(다 잘라. 아, 배냇머리 다 잘랐씁니까? 그때.)

112008 #3 응. 베 안네 머리 ᄀᆞ아부는 거. ᄀᆞ아비야 다시 곤 머리 난덴.(응. 배 안의 머리 잘라버리는 거. 잘라버려야 다시 고운 머리 난다고.)

112008 @ 게난, 게난.(그러니, 그러니.)

112008 #2 그 말이엔 허는 건, 그건 ᄀᆞ주게.(그 말이라고 하는 건, 그건 자르지.)

112008 #3ᄀᆞ아.(잘라.)

112008 @ 그건 초파일 때.(그건 초파일 때.)

112008 #3 초파일 때 ᄀᆞ아.(초파일 때 잘라.)

112008 @ ᄀᆞ읍디가?(자릅디까?)

112008 #3 세 번 ᄀᆞ아주민 막 존넨.(세 번 잘라주면 막 좋다고.)

112008 @ 음.(음.)

112008 #3 세 번이면 삼 년 ᄀᆞ는 거주 그날. 막 경헤도 세 번ᄁᆞ장 아녀도 ᄒᆞᆫ 번은 ᄀᆞ아.(세 번이면 삼 년 자르는 거지 그날. 막 그렇게 해도 세 번까지는 안 해도 한 번은 잘라.)

112009 @ 주로 옛날엔 막 이런 예방 접종 같은 거 엇어근에.(주로 옛날엔 막 이런 예방 접종 같은 거 없어서.)

112009 #3 응.(응.)

112009 @ 그 천연두나 홍역은 어떵 헷수과?(그 천연두나 홍역은 어떻게 했습니까?)

112009 #3 홍역, 헷주게.(홍역, 했지.)

112009 @ 다?(다?)

112009 #3 응. 아이들 다 혜연.(응. 아이들 다 했어.)

112009 @ 게도 별일 없이 다 잘 자라줜예?(그래도 별일 없이 다 잘 자라주었지요?)

112009 #3 응. 아니 쳇 애기에는 막 숭반에 허난, 막 저 나그넨[311]디 심방헤단 막 빌멍 헹 공들연에 살아난. 다음엔 그냥 헤도 알지 못헹 넘어 가불고.(응. 아니 첫 애기에는 막 흉봐서 하니까, 막 저 '무당'인데 무당 해다가 막 빌면서 해서 공들여서 살아난. 다음엔 그냥 해도 알지 못해 넘어 가버리고.)

112009 @ 아.(아.)

112009 #3 체암 쳇 애기엔 막 걸루 숭반에 막 죽을 걸 춤 막 심방 헤단 빌언에 거 정신 출령 살아난.(처음 첫 아기엔 막 걸로 흉봐서 막 죽을 걸 참 막 무당 해다가 빌어서 거 정신 차려서 살아났어.)

112009 @ 음.(음.)

112009 #3 잘못 헤부난. 나무긴 경헌디 손지들은 기거 허는 냥 엇어 이제.(잘못 해버려서. 나머진 그랬는데 손지들은 그거 하는 양 없어, 이제.)

112009 @ 음.(응.)

112009 #3 그런 거 아녀는 거라.(그런 거 안 하는 거야.)

112009 @ 이젠 예방접종 허난.(이젠 예방접종 하니까.)

112009 #2 예방접종 이젠 다 헤부난 뭐.(예방접종 이젠 다 해버리니까 뭐.)

112010 @ 그다음엔 그 애기 나게 뒈면 뭐 숫[312] 메거나 경헤낫수과?(그다음엔 그 애기 낳게 되면 뭐 '새끼' 매거나 그렇게 했었습니까?)

112010 #3 아니, 우린 그런 거 저런 거 아네여. 그냥 네부는 거라.(아니, 우린 그런 거 저런 거 안 해. 그냥 내버리는 거야.)

112010 #2 아, 숫 메는 사람도 이서.(아, '새끼' 매는 사람도 있어.)

112010 #3 경혼 사람 잇주. 난 아무거에도 기냥 네비어.(그렇게 한 사람 있지. 난 아무것에도 그냥 내버려.)

112010 @ 애기들 게믄 숫 메면, 왜 삼칠일날 삼칠일 동안 안 본덴 헷는데도 그냥 애기 또 다른 사람 보레 와도 그냥 보렌헷수과?(아기들 그러면 '새끼' 매면, 왜 삼칠일 날 삼칠일 동안 안 본다고 했는데도 그냥 아기 또 다른 사람 보러 와도 그냥 보라고 했습니까?)

112010 #3 응. 그냥 네비어. 아멩도ᄒᆞ고 그런 뭐 엇이 그냥 네부난 아무것도 안 헤연 살앗주.(응. 그냥 내버려. 아마도 그런 뭐 없이 그냥 내버려서 아무것도 안 해서 살았지.)

112010 @ 음.(음.)

---

311) '나그네'는 '무당'을 말한다.

312) '숫'은 '새끼'를 말하지만 여기서는 부정한 것의 침범이나 접근을 막기 위하여 문이나 길 어귀에 건너질러 매거나 신성한 대상물에 매는 새끼줄인 '금줄'을 의미한다.

혼례

112011 @ 그다음엔 저가 처음에 그 여쭤본 것 중에 하나인 것도 하지만예. 이제는 두 분이 결혼한 혼례에 관헤서 저가 물어볼게예.(그다음엔 저가 처음에 그 여쭤본 것 중에 하나인 것도 하지만요. 이제는 두 분이 결혼한 혼례에 관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112011 #3 응.(응.)

112011 @ 그때 당시에 저 결혼식 잔치 헐 때 어, 수망리서 수망리 왓덴 헷지예?(그때 당시에 저 결혼식 잔치할 때 어, '수망리'서 '수망리' 왔다고 했지요?)

112011 #2 응.(응.)

112011 @ 그면 어떵 헷수과? 그냥 뭔가 뭐 가마라도 탓거나?(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뭔가 뭐 가마라도 탔거나?)

112011 #3 가마 탄.(가마 탄.)

112011 @ 가마 탄 왓지예?(가마타서 왔지요?)

112011 #3 저디 완.(저기 왔어.)

112011 #2 가마타고 신랑은 ᄆᆞᆯ 타고.(가마타고 신랑은 말 타고.)

112011 @ ᄆᆞᆯ타고예.(말타고요.)

112011 #3 응.(응.)

112011 @ 그믄 집이 그 결혼 저 시집까지는 거리가 어느 정도 뒈신디 가마 탕 왓수과?(그러면 집이 그 결혼 저 시집까지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됐는데 가마 타서 왔습니까?)

112011 #3 아, 저디 알암신가? 저 디 그 저기 ᄉᆞ무소.(아, 저기 알아? 저 곳 그 저기 사무소.)

112011 @ 예예, 예.(예, 예.)

112011 #3 알암신가?(알고 있나?)

112011 @ 예.(예.)

112011 #2 ᄉᆞ무소엔? 경로당, 경로당.(사무소라고? 경로당, 경로당.)

112011 #3 경로당으로 들어간 집.(경로당으로 들어간 집.)

112011 #2 경로당 바로 들어간 디 이 집이주.(경로당 바로 들어간 데 이 집이지.)

112011 @ 예.(예.)

112011 #3 우리 집 친정이고 씨집은 어딘공 ᄒᆞ민 이 바른 서녁 편이 저.(우리 집 친정이고 시집은 어딘가 하면 이 바른 서녘 편에 저.)

112011 #2 그 상옥이네 집 ᄍᆞ곰 우녁 편이 그디서.(그 상옥이네 집 조금 위쪽 편에 그곳서.)

112011 #3 우트레.(위에.)

112011 @ 거민 몇 발자국도 안 걸을 건디도 가마는 타는.(그러면 몇 발자국도

안 걸을 건데도 가마는 타는.)
112011 #3 가마 타고.(가마타고.)
112011 @ 예.(예.)
112011 #3 물 타고, 저 다 우시 오는 사름도 물 타고.(말 타고, 저 다 위요 오는 사람도 말 타고.)
112011 @ 예.(예.)
112011 #3 또 그 가마 탄 디 신 저 물 탄 디나 그 엿날 헤인, 늦인 사름, 그런 사름 이 저 물 영.(또 그 가마 탄 데 있는 저 말 탄 데나 그 옛날 하인, 낮은 사람, 그런 사람 이 저 말 이렇게.)
112011 @ 잡고예?(잡고요?)
112011 #3 잡고 겡헤난 거. 또 머리도 이만은 헨 건지, 테레비에 막 나오는게.(잡고 그렇게 했던 거. 또 머리도 이만하게 한 건지, 텔레비전에 막 나오던데.)
112011 @ 예.(예.)
112011 #3 머리 이만 헌 둥지렁 헌 그런 건지 엇지고.(머리 이만 헌 둥그스름한 그런 건지 없고.)
112011 @ 음.(음.)
112011 #3 옷도 거 장옷이엔 헌 거.(옷도 거 장옷이라고 한 거.)
112011 @ 음.(음.)
112011 #3 그런 거 입고.(그런 거 입고.)
112011 @ 음.(음.)
112011 #2 우리 군대선 앞 앞 바로 앞집이 집이서 신랑신부 절헤도.(우리 군대선 앞 앞 바로 앞집의 집에서 신랑신부 절해도.)
112011 @ 가마는 타고.(가마는 타고.)
112011 #2 아, 가만 안 헨에 거긴 군인이난 군대난, 우린 기마 만들언에 우리 군댄 기마 만들앙 신랑 테완에 들어가난.(아, 가마는 안 해서 거긴 군인이니까 군대니까, 우린 기마 만들어서 우리 군대는 기마 만들어서 신랑 태워서 들어갔었어.)
112011 @ 아, 경도 헤나수과?(아, 그렇게도 했었습니까?)
112011 #2 아니, 게난 그 신랑이 이북친데.(아니, 그러니 그 신랑이 이북사람인데.)
112011 #3 육지, 육지.(육지, 육지.)
112011 #2 거난에 그 안거레에선 그 신부네 집이 산 거주게. 신부네 집인데 이 육지는 디귿자집이 서이?(그러니까 그 안채에서는 그 신부네 집에 산 거지. 신부네 집인데 이 육지는 디귿자집이 있어?)
112011 @ 예.(예.)
112011 #2 디귿자집이니깐 앞에 집은 그믄 엿날 여기에밈 이문간이주. 저 거기선 신랑 절허고 안에서는 신부 절허고 이 마당에서 결혼식 허고.(디귿자집이니깐 앞에 집은 그러면 옛날 여기면 문간채지. 저 거기선 신랑 절하고 안에서는 신부 절하

고 이 마당에서 결혼식 하고.)

112011 @ 예.(예.)

112011 #2 경 헨.(그렇게 했어.)

112012 @ 예. 그 서로 이제 중매 헤 가지고 결혼하셧덴 헷잖아예?(예. 그 서로 이제 중매 해 가지고 결혼하셨다고 했잖아요?)

112012 #3 응.(응.)

112012 @ 그 중매할 때 누게가 중신 서고, 어떵헹 사주보고 사주엔 뭐 어떵헹 나오고 헌 거 쭉 한 번 골아줘봅서.(그 중매할 때 누가 중신 서고, 어떻게 해서 사주보고 사주엔 뭐 어떻게 해서 나오고 한 거 쭉 한 번 말해보세요.)

112012 #3 중매는 동넷 어른이 ᄒᆞ는디.(중매는 동네 어른이 하는데.)

112012 @ 예.(예.)

112012 #3 저 ᄉᆞ지보는 거는.(저 사주보는 거는.)

112012 @ 예.(예.)

112012 #3 그 씨집이서 강 씨부모님이 강, 우리 친정에 가근에 거 난 날 난 시를 빌어온 것ᄀᆞ라, ᄉᆞ지 빌어오미엔 ᄒᆞ주.(그 시집에서 가서 시부모님이 가서, 우리 친정에 가서 거 난 날, 난 시를 빌어서 온 것보고, 사주 빌어서 오는 것이라고 하지.)

112012 @ 예.(예.)

112012 #3 경헹 빌어당 어디 강 알아봐근에 잔치, 저 ᄉᆞ지팔자가 좋텐 헨에 잔치 홀 만ᄒᆞ우다 헤근에, 아지가민 어디 베아봅서 ᄒᆞ멍, 친정에 아지가민 신부집이서 아저 신부집이 가민 신부 집이선 베아보젱도 아녀곡, 아랑 좋덴 ᄒᆞ민 홉서 헤불민 기냥 시집이서 택일허곡 믄 헹 아져오는 거.(그렇게 해서 빌어다가 어디 가서 알아봐서 잔치, 저 사주팔자가 좋다고 해서 잔치 할 만합니다. 해서, 가져가면 어디 보여주세요 하며, 친정에 가져가면 신부 집에서 가져 신부 집에 가면 신부 집에선 보아보려도 안 하고, 알아서 좋다고 하면 하세요 해버리면 그냥 시집에서 택일하고 모두해서 가져오는 거.)

112012 @ 기지예. 게 두 분은 그냥 막 서로 궁합이 맞으난 ᄉᆞ주가 맞덴마씨?(그렇지요. 그럼 두 분은 그냥 막 서로 궁합이 맞으니까 사주가 맞대요?)

112012 #3 맞덴.(맞대.)

112012 @ 다헹이다.(다행이다.)

112012 #3 맞덴 헤낫주.(맞았다고 했었지.)

112012 @ 게난 아이고, 우리 여자 삼춘이 완전 잘 츰으멍 잘 헤신게예. 그다음 <전화 벨소리> 전화 받읍서 받읍서.(그러니 아이고, 우리 여자 삼촌이 완전 잘 참으면서 잘 했네요. 그다음 <전화 벨소리> 전화 받으세요. 받으세요.)

112012 #2 에, 거 서울 전환디 전화.(에, 거 서울 전환데 전화.)

112012 @ 아이고, 거면 거 무시거 사기 치는 전화구나예?(아이고, 그러면 그거 뭐 사기 치는 전화군요?)

112012 #2 공이면 사기전화.(02면 사기전화.)

112013 @ 그다음 그 저 막펜지렌 헤 가지고 그 저 택일 받을 때.(그다음 그 저 막핀지라 해 가지고 그 저 택일 받을 때.)

112013 #3 응.(응.)

112013 @ 그 편지 주고 받잖아예?(그 편지 주고받잖아요?)

112013 #3 으.(응.)

112013 @ 그건 어떵 헨 누가 어떵 헤줫수과?(그건 어떻게 해서 누가 어떻게 헤 해줬습니까?)

112013 #3 아, 경헨 택일헤영.(아, 그렇게 해서 택일해서.)

112013 @ 예, 택일 헤영.(예, 택일 해서.)

112013 #3 아저 오며는.(가져 오면.)

112013 @ 예, 뒈수다예. 글로 놓구다예. 편하게 안지십서. 예, 아정오면.(예, 됐습니다. 그리로 놓게습니다. 편하게 앉으십시오. 예, 가져오면.)

112013 #3 아저오랑. 우리 저 집 친정에 아저오민 친정에서 부모님이 받는 거주게.(가져와서. 우리 저 집 친정에 가져오면 친정에서 부모님이 받는 거지.)

112013 @ 예.(예.)

112013 #3 날짜영, 날짜 택일 거 받는 거.(날짜랑, 날짜 택일 그거 받는 거.)

112013 #2 거난 난.(그러니 나는.)

112013 @ 몇 월에 헷수과?(몇 월에 했습니까?)

112013 #3 섣둘 음력 섣둘 초일렛 날.(섣달 음력 섣달 초이레 날.)

112013 #2 겐디 어, 어린 나는 택일사 헤 가신디 뭐신디 몰라.(그런데 어, 어린 나는 택일이야 해갔는지 뭐있는지 몰라.)

112013 #3 여자도 몰르메. 부모덜이 알앙헤여.(여자도 몰라. 부모들이 알아서 해.)

112013 @ 어른들이.(어른들이.)

112013 #2 아니 어느 때냐 하면 나가 군대 신 땐데.(아니 어느 때냐 하면 내가 군대 있는 땐데.)

112013 @ 예.(예.)

112013 #2 마지막 휴가완에 그추룩 헨에 구허겟다고 허더라고.(마지막 휴가왔는데 그처럼 해서 구하겠다고 하더라고.)

112013 @ 예.(예.)

112013 #2 내가 어머니신디 구헙센 허락만 헤돈 가분 거주게.(내가 어머니에게 구하시라고 허락만 해두고 가버린 거지.)

112013 @ 음.(음.)

112013 #2 가놓난 그세 제대헹 와보난 벌써 택일 나부런.(가놓으니까 그새 제대해서 와보니까 벌써 택일 나버렸어.)

112013 #3 이, 군인 가분 때 택일은 헷단 오란 제대헹 오란 결혼은 헨 거.(이,

군인 가버린 때 택일은 했다가 와서 제대해서 와서 결혼은 한 거.)

112013 #2 제대헨 오란.(제대해서 와서.)

112013 @ 그때가 스물 멧 낫 때 헷수과?(그때가 스물 몇 났을 때 했습니까?)

112013 #3 읏 쏠, 쑤물ᄋᆞ숫.(여섯 살, 스물여섯.)

112013 #2 쑤물여섯.(스물여섯.)

112013 @ 그때는 스물여섯이면 막 늦은 나인데 걱정 안뒙디가?(그때는 스물여섯이면 막 늦은 나이인데 걱정 안됐습니까?)

112013 #3 무신 걱정?(무슨 걱정?)

112013 #2 허허허.(허허허.)

112013 @ 혹시 시집 못가카부덴.(혹시 시집 못 갈까봐.)

112013 #3 아, 나이 들언 시집 못 가카부덴?(아, 나이 들어서 시집 못 갈까봐?)

112013 @ 예.(예.)

112013 #3 아니, 시국[313] 따문에 못 간. 막 하.(아니, 시국 때문에 못 갔어. 매우 많아.)

112013 @ 아, 그렇구나.(아, 그렇구나.)

112013 #3 시국 따문에 못 간. 우리보다 우이도 하네.('시국' 때문에 못 갔어. 우리보다 위도 많아.)

112013 #2 아, 거난.(아, 그러니.)

112013 #3 시국만난 시집 못 간 거.(시국만난 시집 못 간 거.)

112013 #2 저 여저들은 막 남아돌고 남저들은 엇고 하니까. 그 우리 우에는 그니까 각시가 두 개, 시 개 헌 사름들토 잇는데.(저 여자들은 막 남아돌고 남자들은 없고 하니까. 그 우리 위에는 그니까 각시가 두 개, 세 개한 사람들도 있는데.)

112013 @ 맞아예.(맞아요.)

112013 #3 그때엔 못 가카부덴 ᄒᆞ질 아녀고.(그때엔 못 갈까봐 하지를 않고.)

112013 #2 각실 멧 개라도 허젠 허민 헷주.(각시를 몇 개라도 하려고 하면 했지.)

112013 #3 시국 따문에 시집 못가고, 군인 가붐땐 ᄒᆞ난.(시국 때문에 시집 못가고, 군인 가버린다고 하니까.)

112013 @ 음.(음.)

112013 #2 요세난 허주.(요새니까 하지.)

112013 #3 그때 우리찌렌 나이 막 항 간, 다.(그때 우리또래는 나이 매우 많아서 갔어, 다.)

112013 @ 음.(음.)

112013 #3 우리보다 우이 뒈영 막 갓주.(우리보다 위 돼서 막 갔지.)

112013 @ 음.(음.)

112013 #3 겨난 그 난 나이 하질 아여고 우리보다 아랫사름도 가기는 가도.(겨

313) '시국'은 4·3에서 한국전쟁까지를 말한다.

난 그 난 나이 많지 않고 우리보다 아랫사람도 가기는 가도.)

112013 @ 음.(음.)

112013 #3 보통으로 생각헤전 당취, 나이 하덴 생각은 안 세연.(보통으로 생각해져서 당최, 나이 많다고 생각은 안 셌어.)

112013 @ 음.(음.)

112013 #3 쑤물ᄋᆞ슷에 간에 애기 쑤물일굽에 낳주만은, 쑤물ᄋᆞ답에 간 사름도 이서난.(스물여섯에 가서 애기 스물일곱에 낳았지만, 스물여덟에 간 사람도 있었어.)

112013 @ 음.(음.)

112013 #3 시국 따문에 시집 못가. 무사 못 가느냐? 저 잔치홀 헹편도 엇엉 못 가고.(시국 때문에 시집 못 가. 무사 못 가느냐? 저 잔치할 형편도 없어서 못 가고.)

112013 @ 아, 맞수다예.(아, 맞습니다.)

112013 #3 응, 잔치할 헹편이 엇어.(응, 잔치할 형편이 없어.)

112013 #2 쑤물여덜 누게라?(스물여덟 누구야?)

112013 #3 응?(응?)

112013 #2 누게 쑤물여덜에 갓어?(누가 스물여덟에 갔어?)

112013 #3 순길이 어멍.(순길이 어머니.)

112013 #2 순길이 부부 우리보다 먼저 갓지.(순길이 부부 우리보다 먼저 갔지.)

112013 #3 순길이 어멍 쑤물ᄋᆞ답에 갓주게.(순길이 어머니 스물여덟에 갔지.)

112013 #2 우리보다.(우리보다.)

112013 #3 ᄋᆞ답이라도 우리보다 세 나 우의 아니꽈게.(여덟이라도 우리보다 세 살 위에 아닙니까.)

112013 #2 아, 세나 우인데.(아, 세 살 위인데.)

112013 @ 예.(예.)

112013 #2 지금 순길이 세 번쳇 아덜이.(지금 순길이 세 번째 아들이.)

112013 #3 아, 갱수 담수다 갱수.(아, 경수 같아요, 경수.)

112013 #2 경수민 모르지.(경수민 모르지.)

112013 #3 겡수.(경수.)

112013 #2 순길이 어멍은 당췌아니라.(순길이 어머닌 당최 아니야.)

112013 #3 순길이 어멍은 아니 담고.(순길이 어멍은 아니 같고.)

112013 #2 아이 아이라.(아니, 아니야.)

112014 @ 그 잔치 끗낭 이제 그 저기 친정에 갈 때 이바지 음식 같은 건 안 헷수과? 친정에 가근에 ᄒᆞ루 밤이라도 자근에 와낫수과?(그 잔치 끝나서 이제 그 저기 친정에 갈 때 이바지 음식 같은 건 안 했습니까? 친정에 가서 하루 밤이라도 자서 왔었습니까?)

112014 #3 장 오주게.(자서 오지.)

112014 @ 거난 시집올 때 이바지음식.(그러니 시집올 때 이바지음식.)

112014 #3 아, 그른 거 우리보단 우에는 이섯는디 우리 헐 땐 아녜연. 너무너무

어려울 때라난.(아, 그런 거 우리보다 위에는 있었는데 우리 할 땐 안 했어. 너무너무 어려울 때여서.)

112014 @ 음, 어려울 때난.(음, 어려울 때여서.)

112014 #3 응, 어려울 때 그보다 우에는 이서서. 헤여 가고.(응, 어려울 때 그보다 위에는 있었어. 해서 가고.)

112014 @ 맞수다. 맞수다. 그 우에 이섯수다예.(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위에 있었습니다.)

112014 #3 응, 우인 이섯주.(응, 위에는 있었지.)

112014 @ 그믄 보통 위에 어른들은 이제 삼춘네 보다 낫살 혼 멧 살 멧 나 위들은 이바지 음식을 헤실 거 아니꽈예?(그러면 보통 위에 어른들은 이제 삼촌네 보다 나잇살 한 몇 살 몇 살 위들은 이바지 음식을 했을 거 아닙니까?)

112014 #3 응. 헤연.(응. 했어.)

112014 @ 무신거 헤신고예?(무엇을 했을까요?)

112014 #3 엿날엔 거스름떡[314]이라고 떡 헤여 가고.(옛날엔 '거스름떡'이라고 떡 해서 가고.)

112014 @ 예.(예.)

112014 #3 그디서 또 받아먹으민 그 그릇을 그냥 아이 보네어. 낫당 데신 헤오고 겅헤.(거기서 또 받아먹으면 그 그릇을 그냥 아니 보내. 놔뒀다가 대신 해오고 그렇게 해.)

112014 @ 거스름떡이렌 하면 어떤 떡들 헷수과?('거스름떡'이라고 하면 어떤 떡들 했습니까?)

112014 #3 거스름떡이엔 헌 거, 무신 떡게. 그 저 시릿떡 친떡에, 그 무시거 영 혼디 부청 헐 거. 엿날 말로 저 무시거 빙떡.(거스름떡이라고 한 거, 무슨 떡. 그 저 시루떡 시루떡에, 그 무엇 이렇게 같이 붙여 할 거. 옛날 말로 저 뭐 빙떡.)

112014 @ 빙떡?(빙떡?)

112014 #3 빙떡이라도 헤놓고 영 ᄒᆞ쏠 ᄒᆞ나허고.(빙떡이라도 해놓고 이렇게 조금 하나하고.)

112014 #2 빙떡, 여기 말론 젱기떡.(빙떡, 여기 말론 '젱기떡'.)

112014 @ 예, 젱기떡.(예, 빙떡.)

112014 #3 영 서껑 ᄒᆞ쏠썩 ᄂᆞ나먹을 거 헤놘게 거스름떡이라.(이렇게 섞어서 조금씩 나눠먹을 거 해놓은 게 거스름떡이야.)

112015 @ 그다음엔 혼수 헐 때 그때 이불 멧 채 헷덴헙디가?(그다음엔 혼수 할 때 그때 이불 몇 채 했다고 했습니까?)

112015 #3 세 채.(세 채.)

112015 @ 게, 어떵허난 이불 세 채 씩이나 헤집디가?(그래, 어떻게 하니까 이불 세 채 씩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

---

314) '거스름떡'은 '사돈집에 처음으로 해 가는 떡'을 말하는 제주어이며, '거시림떡'이라고도 한다.

112015 #3 어떵 어떵 허당보난 경헤전게.(어떻게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해지던데.)

112015 @ 딱 이불 세 채만 헨마씨?(딱 이불 세 채만 했나요?)

112015 #3 응.(응.)

112015 @ 궤나 이런 거 안헷수과?(궤나 이런 거 안 했습니까?)

112015 #3 그런 거 아녀고 우나 가분 후제 허는 사름덜은 궤덜토 허고 무신 츠츠.(그런 거 안 하고 위나 가버린 후에 하는 사람들은 궤들도 하고 무슨 차차.)

112015 #2 지금 우리 집이 나 짠 궤 서.(지금 우리 집에 나 짠 궤 있어.)

112015 @ 그 결혼하기 전에 짠 궤마씨?(그 결혼하기 전에 짠 궤요?)

112015 #3 아니.(아니.)

112015 #2 나 짠 거는 차후에지. 나 목수 질헐 때 짠 거.(내가 짠 거는 차후에지. 내가 목수 질할 때 짠 거.)

112015 #3 결혼 후에야 하르방[315]이 짜주난, 짠 거.(결혼 후에야 '할아버지'가 짜 주니까, 짠 거.)

112015 @ 몇 년쯤 뒛수과? 게난, 궤 짠지가.(몇 년쯤 됐습니까? 그러니, 궤 짠지가.)

112015 #2 저것도 혼 사오십년 뒘지?(저것도 한 사오십년 되고 있지?)

112015 #3 ᄉᆞ오십년이 무시거꽈게? 저 그 저거 이디 온 후예 짜신가? 아니우다게.(사오십 년이 뭡니까? 저 그 저거 여기 온 후에 짰는가? 아닙니다.)

112015 #2 이디 온지도 오십년이 넘엇지게.(여기 온지도 오십년이 넘었지.)

112015 #3 게난, 얼마사 뒈신디. 궤 짜고 그 나 시집 오라븐 후예 궤 짜고, 그다음에 단수 헤갓주. 당추 그런 거 냉장구여 무신.(그러니, 얼마야 됐는지. 궤 짜고 그 내가 시집 와버린 후에 궤 짜고, 그다음에 장롱 해갔지. 당최 그런 거 냉장고야 무슨.)

112015 @ 아, 그다음엔 단수를 친정에서 헤줍디가?(아, 그다음엔 장롱을 친정에서 해줬습니까?)

112015 #3 아니, 경 가는 사름이 잇단 허는 거주. 난 아녀고.(아니,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지. 난 안 하고.)

112015 @ 아, 안헤수과?(아, 안 했습니까?)

112015 #3 응. 난 아녀고.(응. 난 안 하고.)

112015 @ 그 궤 짜주난 막 좋읍디가?(그 궤 짜주니까 막 좋았습니까?)

112015 #3 하하하 건 좋앗주게. 하르방 헤준 거.(하하하 건 좋았지. '하르방' 해준 거.)

112015 @ 아, 그게 첫 선물이꽈? 그게?(아, 그게 첫 선물입니까? 그게?)

112015 #2 선물이라게? 우리 살멍 우리 쓰젠 헌거지.(선물이야? 우리 살면서 우리 쓰려고 한 거지.)

---

315) '하르방'은 할아버지의 제주어인데 여기서는 남편을 말한다.

112015 #3 우리냥으로 헌 거.(우리대로 한 거.)

112015 #2 준거지, 아니주게.(준거지 아니지.)

112015 @ 게도 우리 쓰젠 헤도게, 게도 각시 입장에선 게 이거 얼마다 받은 느낌 들 거 아니꽈게?(그래도 우리 쓰려고 해도, 그래도 각시 입장에선 그 이거 얼마다 받은 느낌 들 거 아닙니까?)

112015 #3 응. 하르방 선물 하르방 그거 짠.(응. '하르방' 선물 '하르방' 그거 짰어.)

112015 @ 반지도 하나도 안 헤줍디가?(반지도 하나도 안 해줬습니까?)

112015 #3 그런 거 당추 엇엇어.(그런 거 당최 없었어.)

112015 @ 후제라도.(후라도.)

112015 #3 아니.(아니.)

112015 @ 이제라도 확 헤줍서.(이제라도 확 해주세요.)

112015 #3 아니, 홈이랑 말앙.(아니, 하기는 무슨.)

112015 #2 반지 이디 조암 이디 이디 반지 이 지 줘비서.(반지 여기 조암 여기 여기 반지 이 자기 줘버렸어.)

112015 #3 애기들 문 헨 반지 목걸이 다 헤주난, 나 이젠 어디 놔진 것도 몰란 죽어불며는 못 춪고 생각날 때 줘불겐, 딱 하르방 반지영 나 거영 나 목걸이.(애기들 모두 해서 반지 목걸이 다 해주니까, 나 이젠 어디 놓아진 것도 몰라서 죽어버리면 못 찾고 생각날 때 줘버리자고, 딱 '하르방'반지랑 내 거랑 내 목걸이.)

112015 #2 나 거, 나꺼 것도 줘빗어?(내 거, 내 거, 것도 줘버렸어?)

112015 #3 예. 목걸이영 큰메누리안티 다줜.(예. 목걸이랑 큰메누리한테 다 줬어.)

112015 #2 거 나한티 허락도 아이받앙?(거 나한테 허락도 아 받고?)

112015 # 에. 큰메누리.(예. 큰며느리.)

112015 @ 언제, 언제 반지 주고 받읍디가? 게난.(언제, 언제 반지 주고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112015 #3 사, 아들에 애기들이.(사서, 아들에 애기들이.)

112015 @ 아, 애기들이 헤준 거.(아, 애기들이 해준 거.)

112015 #3 애기들이 생일에.(애기들이 생일에.)

112015 @ 아.(아.)

112015 #3 애기들이 헤준 거. 하르방 안티 거 받음이랑 말앙, 원. 기자 사는 거.(애기들이 해준 거. '할아버지'한테 거 받기는 무슨, 원. 그저 사는 거야.)

112015 #2 거, 저 나 반지는 구십구 년돈가 그 저 IMF 때 걸 갖당 바찐 거주게.(거, 저 내 반지는 구십구 년돈가 그 저 IMF 때 걸 갖다가 바친 거지.)

112015 @ 음.(음.)

112015 #2 건디 그 다야몬드가 이서예.(그런데 그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112015 @ 예.(예.)

112015 #2 그거를 뺑오렌 허더라고, 나 뻴 줄 모르겟다. 거난, 금만 헤근에 녹여 근엥에 이디 허젠 허난.(그거를 빼오라고 하더라고, 나 뺄 줄 모르겠다, 그러니 금만 해서 녹여서 여기 하려고 하니까.)

112015 #3 게난 그 애기덜.(그러니 그 애기들.)

112015 #2 그때 그세 그걸 안 받안에.(그때 그새 그걸 안 받아서.)

112015 @ 음.(음.)

112015 #2 거 헤부민 그디서 줘부니까 아정왓주.(거 해버리면 거기서 줘버리니까 가져왔지.)

112015 #3 아, 어느 때 혜신궁ᄒᆞ민 한갑에.(아, 어느 때 했는가하면 한갑에.)

112015 @ 아, 환갑에.(아, 환갑에.)

112015 #3 애기들이 한갑에 헤준 거.(애기들이 환갑에 해준 거.)

112015 @ 음.(음.)

112015 #3 우리 헤주난 나 요 ᄒᆞᆫ번은.(우리 해주니까 내가 요 한 번은.)

112015 #2 한갑에 ᄒᆞᆫ 것도 이십년 넘엇네이.(환갑에 한 것도 이십년 넘었네.)

112015 @ 아, 진짜예.(아, 진짜네요.)

112015 #3 한갑에 ᄒᆞᆫ 거. 근데 이젠 메누리 줘뷔서. 메누리 겨난 당추 말덴 헤도.(환갑에 한 거. 그런데 이젠 며느리 줘버렸어. 며느리 그러니 당최 말다고 해도.)

112015 @ 큰메누리마씨?(큰며느리요?)

112015 #3 큰 메누리 줘불주게.(큰며느리 주버리지.)

112015 @ 아이고, 잘헷수다.(아이고, 잘했습니다.)

112015 #2 족은메누린 여기 안살아놓난.(작은며느리는 여기 안사니까.)

112015 @ 게난.(그러니.)

112015 #3 아이 사나마나 원치 큰메누리주게.(아니 사나마나 원칙이 큰며느리지.)

112016 @ 맞수다게예. 그다음에는예 결혼 할 때 그 예장, 예장에 대헤 ᄀᆞᆯ아줍서.(맞습니다. 그다음은요 결혼 할 때 그 예장, 예장에 대해 말해주십시오.)

112016 #3 여장도 받고.(예장도 받고.)

112016 @ 어떤 예장, 예장에는 어떤 게, 뭐 담아지고, 누게가 누구한테 주고 헷수과?(어떤 예장, 예장에는 어떤 게, 뭐 담아지고, 누가 누구한테 주고 했습니까?)

112016 #3 예장사, 써 가민 저 친 친정에서 상불, 상 페와나근에 상불 피우곡 헹, 상불 피우곡 헹, 그걸 받는디 그것 엿날에.(예장이야, 써 가면 저 친 친정에서 상 불, 상 펴서 상 불 피우고 해서, 상 불 피우고 해서, 그걸 받는데 그것 옛날에.)

112016 #2 거 여장이엔 헌 건 집안 내력을 쓰는 거난에.(그 여장이라고 한 건 집안 내력을 쓰는 거니까.)

112016 #3 엿날에는 그 여장 받앙, 잘 ᄒᆞ기 전인 신랑 안 들여놔.(옛날에는 그 여장 받아서, 잘 하기 전에는 신랑 안 들여놨어.)

112016 @ 예.(예.)

112016 #3 문 단장 밧긔데 세왕.(모든 단장 박에 세워서.)

112016 @ 예.(예.)

112016 #3 안 들여봉. 그 여장을 익어봉.(안 들여놔서. 그 여장을 읽어봐서.)

112016 @ 예.(예.)

112016 #3 그 집이 문 맞게 썻이면.(그 집에 모두 맞게 썼으면.)

112016 @ 예.(예.)

112016 #3 집안 내력을 맞게 썻이면 들여놓렌 헤영, 세스방을 들여놓는 거.(집안 내력을 맞게 썼으면 들여놓으라고 해서, 새신랑을 들여놓는 거.)

112016 @ 예.(예.)

112016 #3 경헤서.(그렇게 했어.)

112016 #2 건디 그것이 잘못 엉터리로 쓸 수도 잇주게.(그런데 그것이 잘못 엉터리로 쓸 수도 있지.)

112016 #3 잘못 쓰면은 신랑 못 들어오민 안 들여놓는 거. 겨난에 그 물 우의서 새로 고찌는 사름은 고쩡 들여놓넨 ᄒᆞ고.(잘못 쓰면 신랑 못 들어오면 안 들여놓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 위에서 새로 고치는 사람은 고쳐서 들여놓는다고 하고.)

112016 #2 아, 경도 헤낫주게.(아, 그렇게도 했었지.)

112016 #3 엿날에. 이제는 그거 엇이 헴주?(옛날에. 이제는 그거 없이 하지?)

112016 @ 계난예.(그러게요.)

112017 @ 가문잔치[316] 땐 어떵 헷수과? 그때 가문잔치.('가문잔치' 땐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가문잔치'.)

112017 #3 가문잔치 때는, 엿날에 도새기 ᄒᆞ나 잡아근엥에 가문잔치를 ᄒᆞ면.('가문잔치' 때는, 예날에 돼지 하나 잡아서 '가문잔치'를 하면.)

112017 @ 예.(예.)

112017 #3 이제추룩 쏠밥이 아니고, 가문잔칫날은 보리쏠에 좁쏠에, 보리쏠에 좁쏠에 곤쏠 ᄌᆞ꼼은 서껑 가문잔치허곡.(이제처럼 쌀밥이 아니고, '가문잔칫날'은 보리쌀에 좁쌀에, 보리쌀에 좁쌀에 흰쌀 고금은 섞어서 '가문잔치'하고.)

112017 @ 예.(예.)

112017 #3 잔칫날은 보리쏠에 곤쏠에 서꺼근에 허곡, 경헤연.(잔칫날은 보리쏠에 곤쏠에 섞어서 하고, 그렇게 했어.)

112017 #2 거, 엇은 집이 허는 거난 뭐. 여기 쏠이 그만큼 귀하다는 거주.(그거 없는 집에 하는 거니까 뭐. 여기 쌀이이 그만큼 귀하다는 거지.)

112018 @ 예. 그다음 우시로는 어, 누구를 데려왓수과?(예. 그다음 위요로는 어,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112018 #3 아, 우시는 저 웨갓칩이서 ᄒᆞᆫ 분.(아, 위요는 저 외갓집에서 한 분)

112018 @ 예.(예.)

316) '가문잔치'는 혼례를 치르는 전날에 가까운 친척들 끼리 잔칫집에 모여 치르는 간편한 잔치를 말한다.

112018 #3 신랑집이서 흔 분.(신랑집에서 한 분.)

112018 @ 어떤 사람들마씨?(어떤 사람들인가요?)

112018 #3 게난 어떤 사름이 가는공ᄒᆞ민, 그 그 가문에서.(그러니 어떤 사람이 가는가하면, 그 그 가문에서.)

112018 @ 예.(예.)

112018 #3 ᄎᆞ례가 잇고.(차례가 있고.)

112018 @ 예.(예.)

112018 #3 우시 가사할 ᄎᆞ례로 보네는 거.(위요 가야할 차례로 보네는 거.)

112018 @ 예.(예.)

112018 #3 또 대반은 누게가 앉는 궁ᄒᆞ민, 메누리, 새각시 헤어오는 시집이서는 동세 뒈는 사름이 앗고.(또 대반은 누가 앉는 가하면, 며느리, 새색시 해오는 시집에서는 동서 되는 사람이 앉고.)

112018 @ 예.(예.)

112018 #3 동세 엇인 집인 삼춘 뒈는 사름이 앚고, 또 친정에 강 새스방 우시는 누게, 누게 저 대반은 누게가 앉는 궁ᄒᆞ민, 그 동세 뒈는 사름.(동서 없는 집엔 삼촌 되는 사람이 앉고, 또 친정에 가서 새신랑 위요는 누구, 누구 저 대반은 누가 앉는 가하면, 그 동서 되는 사람.)

112018 @ 음.(음.)

112018 #3 그 신부네 저 아지방 뒈는 사름이 앚곡, 또 우시 보낼 땐 시집 편이서는 그디 갈만흔 그 안네서 보네곡, 웨가칩이서 보네는 사름은 아멩흔 사름이 가도 기자 조름에 강 마는 거난 뒈고.(그 신부네 저 아주버니 되는 사람이 앉고, 또 위요 보낼 땐 시집 편에서는 거기 갈만한 그 안내서 보내고, 외갓집에서 보내는 사람은 아무런 사람이 가도 그저 꽁무니에 가서 마는 거니까 되고.)

112019 @ 그럼 대반은 누가 앉앗수과?(그럼 대반은 누가 앉았습니까?)

112019 #3 게난 대반이 앉는 사름이 새각시 대반은 동세 뒌 사름이.(그러니 대반에 앉는 사람이 새색시 대반은 동세 된 사람이.)

112019 @ 음.(음.)

112019 #3 동세 뒐 사름이 앚곡, 동세 ᄎᆞ례가 엇인 사름은 삼춘 뒌 사름이라도 여자 대반은 경ᄒᆞ고, 남자 뒌딘 또 처가칩이 대반은 누겐 궁허민 그 처아지망 남편이나 누게 뒌 사름 앉는 거.(동서 될 사람이 앉고, 동서 차례가 없는 사람은 삼촌 된 사람이라도 여자 대반은 그렇게 하고, 남자 된 데는. 또 처갓집에 대반은 누군가면 그 처형 남편이나 누구 된 사람 앉는 거.)

112019 #2 대반은 아무나 앚지지 아녀.(대반은 아무나 앉히지 안 해.)

112019 #3 견디, 대반이 좋은 사름이라.(그런데, 대반이 좋은 사름이야.)

112019 @ 음.(음.)

112019 #3 좋은 사름이 어떤 사름인 궁 ᄒᆞ민, 각시 죽어부나 남편 죽어분 사름은 안 아자.(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가하면, 각시 죽어버리나 남편 죽어버린 사람

은 안 앉아.)

112019 @ 음.(음.)

112019 #2 아이, 아이 안처주질 아녀지.(아니, 아니 앉혀주지를 않지.)

112019 @ 음.(음.)

112019 #3 또, 밥도 엿날에 신랑 밥이나 신부 밥이나 밥 거린 때 거려 놓는 건, 밥거리는 사름은 멕이는 거 거리는 건 아무나 ᄒᆞ는디.(또, 밥도 옛날에 신랑 밥이나 신부 밥이나 밥 뜰 때 놓는 건, 밥 뜨는 사람은 먹이는 거 뜨는 건 아무나 하는데.)

112019 @ 음.(음.)

112019 #3 그건 ᄒᆞ쏠 ᄀᆞᆯ려.(그건 조금 가려.)

112019 @ 음.(음.)

112019 #3 엿날에 그런 거 잇고 경헨.(옛날에 그런 거 있고 그렇게 했어.)

112020 @ 그다음에 부조는 그땐 어떵 헷수과? 부주.(그다음에 부조는 그땐 어떻게 했습니까? 부조.)

112020 #3 부지는게 한조금 무시거 아녀근엥에 그 시철엔 이젠 돈이 널어지고 하간 거 헷주마는, 뒈나마나 쏠. 게난 쏠 ᄒᆞᆫ 말에 보리쏠이나 곤쏠이나 ᄒᆞᆫ 말 ᄒᆞ난, 석 뒈 부지말라 헌 건 말ᄀᆞᆫ는디 말ᄀᆞᆫ는디 서끈 것도 석 뒈 부지고, 관 관뒈로 네 개가 ᄒᆞᆫ 말인디.(주조는 조금 무엇 안 해서 그 시절엔 이젠 돈이 널어지고 많은 거 했지만, 되나마나 쌀. 그러니 쌀 한 말에 보리쌀이나 흰쌀이나 한 말 하니까, 석 되 부주마라한 건 말 하는데 말 하는데 끼어드는 것도 석 되 부주고, 관 관되로 네 개가 한 말인데.)

112020 @ 예.(예.)

112020 #3 세 개는 석 뒈 부지는 말라.(세 개는 석 되 부주는 말라.)

112020 @ 무사 석 뒈 부지는 하지 말렌 헤신고예?(왜 석 되 부주는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112020 #2 석 뒈 부지엔 헌 건 지금 우리가 오늘에 거시기 좀.(석 되 부주라고 한 건 지금 우리가 오늘에 거시기 좀.)

112020 #3 석 뒈를 석 뒈 부지는 아녀난에.(석 되를 석 되 부주는 안 하니까.)

112020 #2 남 허는 거 차별, 차등 뭐 허는 거.(남 하는 거 차별, 차등 뭐 하는 거.)

112020 #3 말로 ᄒᆞ며는 석 뒈 부지엔 헌 거는 아녀는 말 ᄒᆞ지 말라. 석 뒈 부지 ᄒᆞ지 말라.(말로 하면 석 되 부주라고 한 거는 안 하는 말 하지 말라. 석 되 부주하지 말라.)

112020 @ 예, 예예.(예,예예.)

112020 #3 말 잘못헨 ᄒᆞᆫ 서꺼 가도 석 뒈 부지허지 말라 ᄒᆞ는게.(말 잘못해서 한 섞어 가도 석 되 부주하지 마라 하는 거.)

112020 @ 거난 그거를 그 쌀로 석 뒈만 하지 말라는 건디, 나중에 석 뒈 부지 하지 말라고 들어갓잖아예? 거 왜 석 뒈는 부지하지 말렌 헤신고예? 거믄 두 뒈는

헤도 뒛수과?(그러니 그거를 그 쌀로 석 되만 하지 마라는 건데, 나중에 석 되 부주하지 마라라고 들어갔잖아요? 거 왜 석 되는 부지하지 마라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두 되는 해도 됐습니까?)

112020 #3 두 뒈는 모르는디, 아멩헤도 홈은 ᄒᆞ고 ᄒᆞᆫ말이라게.(두 되는 모르는데, 아무래도 하면은 하고 한 말이야.)

112020 @ ᄒᆞᆫ 말 헤서 부족헤부난 경한 거 담다예.(한 말 해서 부족해버려서 그렇게 한 거 같네요.)

112020 #3 응. 겨난, 말ᄀᆞᆫ는 디도 무시거 서꺼가민 석 뒈 부지ᄒᆞ지말라 ᄒᆞ지.(응. 그러니, 말하는 데도 무엇 끼어들어가면 석 되 부주하지마라 하지.)

112020 @ 예, 예예.(예, 예예.)

112020 #3 겨난 경헷다고 이 말이주.(그러니 그랬다고 이 말이주.)

112020 @ 예.(예.)

112020 #3 ᄒᆞᆫ 말 안들인 부지ᄒᆞ지말라, ᄒᆞ지. 이제는 보통 그자 돈으로 ᄒᆞ난에. 오만 원이나 삼만 원이나 그걸로 영 넘어 감주.(한 말 안들인 부지하지마라, 하지. 이제는 보통 그저 돈으로 하니까. 오만 원이나 삼만 원이나 그걸로 이렇게 넘어 가고 있지.)

112020 @ 맞수다예, 진짜. 견디 어저께 보난 부지도 다 사름마다 허젠 헤버리면 막 부지 액수가 많아지잖아예?(맞습니다, 진짜. 그런데 어저께 보니까 부주도 다 사람마다 하려고 해버리면 막 부주 액수가 많아지잖아요?)

112020 #3 응. 경ᄒᆞ는 거 이제.(응. 그렇게 하는 거 이제.)

112020 #2 겨난 거 남저덜은 경 아녀는디 여저덜은.(그러니 거 남자들은 그렇 안하는데 여자들은.)

112020 @ 게난.(그러니까.)

112020 #3 상뒤 한 뒨 하주.(향도 많은 데는 많지.)

112020 #2 겨난, 엿날 엿날부터 헤난 방식이 서놓니 여저덜은 ᄒᆞᆯ 수가 엇어. 거 받은 데가 잇으니까 갚아야지.(그러니, 옛날 옛날부터 했던 방식이 있어놓으니 여자들은 할 수가 없어. 그거 받은 데가 있으니까 갚아야지.)

112021 @ 맞수다게. 근데 혹시 암창개[317]라는 말 들어봣수과? 암창개?(맞습니다. 근데 혹시 암창개라는 말 들어봐수과? 암창개?)

112021 #3 아, 그런 거 잇주게. 암창개는 어떵 ᄒᆞ는겅고 ᄒᆞ민.(아, 그런 거 있지. '암창개'는 어떻게 하는 건가하면.)

112021 @ 예.(예.)

112021 #2 잘 아네. 난 몰랏는데.(잘 아네. 난 몰랐는데.)

112021 #3 저 신랑 아이간 여저만 가는 거ᄀᆞ라 암창개.(저 신랑 안 간 여자만 가는 것보고 '암창개'.)

317) '암창개'는 약혼한 다음 혼례를 치르기 전에 신랑의 아버지가 돌아가거나, 혼례 당일 신랑이 먼 곳으로 나갔다가 부득이 돌아오지 못했을 때, 예정된 날에 신랑집에서 상객들만 신부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려오고 보통 혼례처럼 하객을 맞이하면서 치르는 혼례를 말한다.

112021 @ 게난예? 어떤데 암창개를 헤야 뒛수과?(그러니까요? 어떤데 '암창개'를 해야 됐습니까?)

112021 #3 어떵 ᄒᆞ다가 어떵ᄒᆞ는고, ᄒᆞ는궁ᄒᆞ민, 시집을 체암ᄒᆞ는 딘 그른 게 엇는디.(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가하면, 시집을 처음 하는 데는 그런 게 없는데.)

112021 @ 예.(예.)

112021 #3 남편이 장게 간 디 안 살앙, 또 다른 여자 올 거 아니?(남편이 장가간 데 안 살아서, 또 다른 여자 올 거 아니?)

112021 예.(예.)

112021 #3 다른 여저ᄒᆞ면은, 그디 문저 헤난 여저가.(다른 여자하면, 거기 먼저 했던 여자가.)

112021 @ 예.(예.)

112021 #3 못 오게 막을 수가 시민, 술제기 여저만 오는 거라.(못 오게 막을 수가 있으면, 살짝 여자만 오는 거라.)

112021 @ 아.(아.)

112021 #3 경도 헤서.(그렇게도 했어.)

112021 @ 혹시 이런 건 아니꽈? 남자 집에 무신 큰일이 생경, 뭐 초상이라도 나버리면 결혼날짜는 받아 놓고.(혹시 이런 건 아닙니까? 남자 집에 무슨 큰일이 생겨서, 뭐 초상이라도 나버리면 결혼날짜는 받아 놓고.)

112021 #3 아니.(아니.)

112021 @ 경할 때 여자가.(그렇게 할 때 여자가.)

112021 #3 그거.(그거.)

112021 @ 그 집에 강 저 일헤주고 허는 건 아니마씨?(그 집에 가서 저 일해주고 하는 건 아니고요?)

112021 #3 아니, 경은 ᄒᆞ지 아녀고.(아니, 그렇게는 하지 않고.)

112021 #2 게민 암장게엔 허지말고 암시집이엔 헤야겟네.(그러면 암장게라고 하지 말고 암시집이라고 해야겠네.)

112021 #3 암창개, 암창개.('암창개', '암창개'.)

112021 @ 예, 암창개 암창개.(예, 암창개, 암창개.)

112021 #3 암창개 ᄒᆞ는 건디, 시집간 딘 말안, 다른 여저를 알앙 가게 뒈난에, 잔치ᄒᆞ메 잘 못허켜난 경 여저만 가.('암창개' 하는 건데, 시집간 덴 말아서, 다른 여자를 알아서 가게 되니까, 잔치하는데 잘 못할 거 같으니까 그렇게 여자만 가.)

112021 @ 여자만 강예? 그렇구나예.(여자만 가요? 그렇군요.)

112021 #3 응.(응.)

112022 @ 그다음엔 그 사혼 잇잖아예? 사혼. 주변에서 사혼하는 건 본 적 이수과?(그다음엔 그 사혼 있잖아요? 사혼. 주변에서 사혼하는 건 본 적 있습니까?)

112022 #3 사혼하는 건 보든 아녀도 소문을 들엇는디, 죽은 이제덜은 경 ᄒᆞ젠

아녀는디 죽은 사름 죽음 길에.(사혼하는 건 보진 안 해도 소문을 들었는데, 죽은 이제들은 그렇게 하려고 안하는데 죽은 사람 죽음 길에.)

112022 #2 요센 사혼하는 사름 별로 엇는데 엿날엔 다 헷주.(요사인 사혼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옛날엔 다 했지.)

112022 @ 예.(예.)

112022 #3 이제는 아녀는디 그전인 헷는디, 저 장게 아니강 죽고, 시집 아니강 죽고 헤분 사름 이시민 비슷헌 끼레 그런 거 헤서.(이제는 안하는데 그전엔 했는데, 저 장가 안 가서 죽고, 시집 아니 가서 죽고 해버린 사람 있으면 비슷한 끼리 그런 거 했어.)

112022 @ 헷지예?(했지요?)

112022 #3 응. 빌어가고 잔치허는 식ᄒᆞ곡, 구신 빌어감이라고 받앙, 그 집이 흔디 그디 잔치ᄒᆞ는 식으로 헤근엥 흔디 간걸로 헹.(응. 빌어가고 잔치하는 식하고, 귀신 빌어감이라고 받아서, 그 집에 함께 거기 잔치하는 식으로 해서 함께 간걸로 해서.)

112022 @ 그 사혼할 때도 다 부주하고 받고 막 이런 것도 헷수과? 사람들 다 밥헹 멕이고?(그 사혼할 때도 다 부주하고 받고 막 이런 것도 했습니까? 사람들 다 밥해서 먹이고?)

112022 #3 아니, 그자.(아니, 그저.)

112022 #2 양가만 술쩨기 헤야주.(양가만 살짝 해야지.)

112022 #3 일가에만 ᄒᆞ쏠헷주. 그런 거 아녜연. 일가에서만 ᄒᆞ주.(일가에만 조금 했지. 그런 거 안 했어. 일가에서만 하지.)

112022 #2 사혼이엔 허믄 남자도 죽고 여자도 죽고 다헤근엥 헤주. 구신으로 데로오는 건데.(사혼이라고 하면 남자도 죽고 여자도 죽고 다해서 하지. 귀신으로 데려오는 건데.)

상례

112024 @ 아까까지는 저희 혼례 결혼식에 관련뒌 거고, 이제는 죽음에 관련된 것들을 여쭤보겟습니다예. 어, 옛날엔 그 이 사람이 죽엇인지 살앗인지를 어떵 확인헷수과?(아까까지는 저희 혼례 결혼식에 관련된 거고, 이제는 죽음에 관련된 것들을 여쭤보겠습니다. 어, 옛날엔 그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112024 #3 몰라.(몰라.)

112024 @ 이젠, 의사가 와 가지고 죽었다라고 딱 진단을 내려줘야 뒈는 거잖아예?(이젠, 의사가 와 가지고 죽었다라고 딱 진단을 내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112024 #1 응.(응.)

112024 @ 옛날에는.(옛날에는.)

112024 #1 경흔디엔 죽엇젠 죽엇젠 ᄒᆞ민 죽어신가만 생각 헤나난 몰라.(그러한

데에는 죽었다고 죽었다고 하면 죽었는가만 생각 해서서 몰라.)

112024 #2 그냥 엿날 경허난 사름도 잇주. ᄀᆞ찌 누웟당 붉안보난 죽어부러서렌 ᄒᆞᆫ 사름도 잇주게.(그냥 옛날 그랬던 사람도 있지. 같이 누웠다가 밝아서 보니까 죽어버렸다고 한 사람도 있지.)

112024 #3 아, 그건 ***엔 확 죽어븐 사름.(아, 그건 ***라고 확 죽어버린 사람.)

112024 #2 아, 이따근에 밤에 첨 모르게 죽은 체 모르게 죽어븐 사람덜토 잇곡.(아, 이따가 밤에 참 모르게 죽은 채 모르게 죽어버린 사람들도 있고.)

112024 @ 그믄 그거를 이 사람이 정확히 죽엇다 이거를 어떵 확인헤마씨?(그라면 그거를 이 사람이 정확히 죽었다 이거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112024 #2 ***숨도 허곡 사름 체온으로 대락 짐작허주.(***숨도 하고 사람 체온으로 대략 짐작하지.)

112024 @ 짐작하고예. 혹시 직접 죽은 사람, 아 이사람 죽엇구나 라고 하게끔 본 적 이수과? 가까이서.(짐작하고요. 혹시 직접 죽은 사람, 아 이사람 죽었구나, 라고 하게끔 본 적 있습니까? 가까이서.)

112024 #2 아니.(아니.)

112024 @ 아직은 한 번도 안봐봔예?(아직은 한 번도 안보셨어요?)

112024 #2 사삼사건 우리 집 헷지만은 직접 죽은 사름 나 안 봐서.(사삼사건 우리 집 했지만 직접 죽은 사람 나는 안 봐서.)

112024 @ 사삼 때는 그때 가족들 누가 돌아가셧덴 헷수과?(사삼 때는 그때 가족들 누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까?)

112024 #2 아버지.(아버지.)

112024 @ 아버지 돌아가실 때 아버지 그 시신은 가져완마씨?(아버지 돌아가실 때 아버지 그 시신은 가져왔나요?)

112024 #2 아, 시신은 우리가 뭐 어떵헤냐믄, 그때 우리 어머니 그때 허는 거 보민 대담헤여. 게니까 그추룩 헨에 그 죽여브니까.(아, 시신은 우리가 뭐 어떠게 했냐면, 그때 우리 어머니 그때 하는 거 보면 대담해. 그러니까 그처럼 해서 그 죽여 버리니까.)

112024 @ 음.(음.)

112024 #2 그때 같이 잡힌 사름이 그 우리 백부님이 남아 잇엇는데.(그때 같이 잡힌 사람이 그 우리 백부님이 남아 있었는데.)

112024 @ 예.(예.)

112024 #2 백부님신디 웨정 때 일본서 젤 친헌 사름인디, 저 동생 아무딧 죽여벳수다.(백부님에게 일제강점기 때 일본서 젤 친한 사람인데, 제 동생이 아무 데서 죽여버렸습니다.)

112024 @ 음.(음.)

112025 #2 경헤신디, 그 여저가 가나니까, 둣날 우리 백부님이 올라왓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때 헨에 여기 기 첨 오젠 우린 저기 이섯고, 저 그디 먹을 거 봉그레 아버진 온 거라. 우리 먹을 걸 봉그레 돌아뎅기단에 잡혓거든.(그랬는데, 그 여자가 가나니까, 뒷날 우리백부님이 올라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때 해서 여기 기 참 오려고 우린 저기 있었고, 저 거기 먹을 거 주우러 아버진 온 거야. 우리 먹을 걸 주우러 돌아다니다가 잡혔거든.)

112025 @ 음.(음.)

112025 #2 잡혓는데 그추룩 헨, 우리 형님 따문 저 헨에 먼저 그 죽여부렷는데 우리 형님은 죽도 아녀네 살안. 네중에 군인꼬지 갓다 왓는데.(잡혔는데 그처럼 해서, 우리 형님 때문 저 해서 먼저 그 죽여 버렸는데 우리 형님은 죽도 않아서 살았어. 나중에 군인까지 갔다 왔는데.)

112024 #3 거난 곱안세안[318] 나오지 아녀난 죽은 걸로 어디 간 어디 도망갓젠 헤난.(그러니 숨어서 나오지 안하니까 죽은 걸로 어디 간 어디 도망갔다고 했었지.)

112024 #2 아, 게난 우리 형님이 그디 경찰에간 경찰에 나완에, 이딘 그땐 막 위험 그추룩 산간 위험허니깐, 신촌 이모네집 강 살아버리니깐, 우리 이모네 집 강 있는 철엔 알았는데, 네중엔 막 위험허니깐 거기 또 만약에 거서도 또 피할 수가 엇시니깐, 거기 잇단 말을 못헤비동, 그니깐 산에 올랏다는 거라.(아, 그러니 우리 형님이 거기 경찰서에 가서 경찰서에서 나와서, 여긴 그땐 막 위험 그처럼 산간이 위험하니깐, 신촌 이모네 집 가서 살아버리니깐, 우리 이모네 집 가서 있는 줄은 알았지만, 나중엔 막 위험하니깐 거기 또 만약에 거서도 또 피할 수가 없으니깐, 거기 있다는 말을 못해버리고, 그니깐 산에 올랐다는 거야.)

112024 @ 음.(음.)

112024 #2 경헹 우리 가족을 완전 주목 받아분 거주게.(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을 완전 주목 받아버린 거지.)

112024 #2 게난 우리 아버지 봐지니깐 우리 아버지 동네사름들이 막 헨에게.(그러니 우리 아버지 보이니깐 우리 아버지 동네사람들이 막 해서.)

112024 @ 아버지 그 죽음을 그 시신 가져완마씨? 게 장례식.(아버지 그 죽음을 그 시신 가져왔나요? 그 장례식.)

112024 #2 겨난 우리가 묻엇주.(그러니 우리가 묻었지.)

112024 @ 그때 아버지 직접 돌아가신 거 확인헷수과?(그때 아버지 직접 돌아가신 거 확인했습니까?)

112024 #2 아니, 거니깐 그건 말을 나가 이제 곧젠 허는데.(아니, 그러니깐 그건 말을 내가 이제 말하려고 하는데.)

112024 @ 예.(예.)

112024 #2 그제 이젠 헤네. 듯날 바로 듯날 나가 나는 여기 안 오고, 우리 저 그 저 배다른 형님 사는 그 형이 여딜 왓는데.(그제 이젠 해서. 뒷날 바로 뒷날 내가 나는 여기 안 오고, 우리 저 그 저 배다른 형님 사는 그 형이 여기를 왔는데.)

318) '곱안세안'은 숨어서 지샜다는 의미로 표현한 듯하다.

112024 @ 예.(예.)

112024 #2 바로 여기 왓는데.(바로 여기 왔는데.)

112024 @ 예.(예.)

112024 #2 큰아버지가 와근에, 너네 아버지 아무 디에 죽엇덴 허드라.(큰아버지가 와서, 니네 아버지 아무 데에 죽었다고 하더라.)

112024 @ 예, 예예.(예, 예예.)

112024 #2 헤근에 이젠 어머니가 우리보고 너네 이디 시라, 나 아버지 강 춪아보겟다. 그때 우리 어머니 대담하던 건 웨냔.(해서 이젠 어머니가 우리보고 너희들 여기 있어라, 나 아버지 가서 찾아보겠다. 그때 우리 어머니 대담하던 거는 왜냐면.)

112024 @ 예.(예.)

112024 #2 낮에도 아니고 밤에 시신을 춪으레 가시니까.(낮에도 아니고 밤에 시신을 찾으러 갔으니까.)

112024 @ 아.(아.)

112024 #2 지금 생각헤도 대담헤비어. 게네 근디 그기서 한 사름만 죽은 게 아니라 두 사름 죽엇주게.(지금 생각해도 대담해보여. 그래서 그런데 거기서 한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두 사람 죽었지.)

112024 @ 예.(예.)

112024 #2 두 사름 죽엇는디 시신을 간 춪아근에.(두 사람 죽었는데 시신을 가서 찾아서.)

112024 @ 예.(예.)

112024 #2 시신을 춪앙 막 아, 겐디 시신을 춪아난엥 그디 이제 시신 저 어디 누게 저 말헐 사름이 잇나 뭐나 허나, 막 헤네 사람을 춪는 거시기 허누렌 허난 사름 그짝 소리가 나렌.(시신을 찾아서 막 아, 그런데 시신을 찾아놓아서 거기 이제 시신 저 어디 누구 저 말할 사람이 있나 뭐나 하나, 막 하는데 사람을 찾는 거시기 하느라 하니까 사람 그쪽 소리가 나더래.)

112024 @ 아.(아.)

112024 #3 아이구, 오레 곧지 맙서.(아이고, 오래 말하지 마세요.)

112024 @ 아니, 예기하셔도 뒈마씨.(아니, 얘기하셔도 됩니다.)

112024 #2 아, 게네 그 사름신딜 가보라는 거라.(아,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보라는 거야.)

112024 @ 예.(예.)

112024 #2 간 보난, 원래 수망리 사름들인디, 그것이 그 사름들이 아무 디서 죽은 거 잇다는 소식을 벌써 들은 거라.(가서 보니까, 원래 '수망리' 사람들인데, 그것이 그 사람들이 아무 데서 죽은 거 있다는 소식을 벌써 들은 거야.)

112024 @ 들어근에.(들어서.)

112024 #2 게, 그 사름들 삽들 삽 가지고 더 왓더라 이거라.(그래, 그 사람들 삽

들 삽 가지고 더 왔다 이거라.)

112024 @ 음.(음.)

112024 #2 거, 그 사름들 빌엉 둘이 묻은 그 밤이 묻은 그 밤에.(거, 그 사름들 빌어서 둘이 묻은 그 밤이 묻은 그 밤에.)

112024 @ 아이고.(아이고.)

112025 @ 그다음엔 그 사람이 죽으면 복 부르잖아예?(그다음엔 그 사람이 죽으면 복 부르잖아요?)

112025 #2 어.(어.)

112025 @ 복 부를 땐 멧 시에 어떻게 부릅니까?(복 부를 땐 몇 시에 어떻게 부릅니까?)

112025 #3 혼 불르는 거?(혼 부르는 거?)

112025 @ 예. 혼 불르는 거.(예. 혼 부르는 거.)

112025 #3 아, 혼 불르는 건 무시거 헤놓민 옷 멘들앙. 기냥 한걸리 기냥 제라허게 죽은 거는 저 옷 입저놓고, 문 헤여근에 혼 불르는 거.(아, 혼 부르는 건 무엇 해놓으면 옷 만들어서. 그냥 한가하게 그냥 온전하게 죽은 거는 저 옷 입혀놓고, 모두 해서 혼 부르는 거.)

112025 @ 예. 혼 불를 때 어떵 헤마씨? 몇 시에.(예. 혼 부를 때 어떻게 해요? 몇 시에.)

112025 #2 혼 불를 때.(헌 부를 때.)

112025 #3 거사 시가 마련 서?(그거야 때가 마련돼 있어?)

112025 #2 그 겨 허고 이 지붕우이 올라강.(그 겨 하고 이 지붕위에 올라가서.)

112025 @ 예.(예.)

112025 #2 에, 우녁편디 혼 번 돌아상 혼 번 불르고 동더레 돌아상, 서더레 돌아상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불르주게.(에, 오른편에 한 번 돌아서서 한 번 부르고 동쪽으로 돌아서서, 서쪽으로 돌아서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부르지.)

112025 #3 알아지쿠과? 다, 알아져?(알겠어요? 다, 알아요?)

112025 #2 아, 우리 그 그 집이 우리 하르바님 죽은 때.(아, 우리 그 그 집에 우리 할아버님 죽은 때.)

112025 @ 예.(예.)

112025 #2 우리 하르바님 저 ᄉᆞ십팔년도에 소상 허고 대상은 남원 신흥리[319]서 다헤연.(우리 할아버님 저 사십팔 년도에 소상하고 대상은 남원 '신흥리'서 다했어.)

112025 @ 음.(음.)

112015 #2 바로 소상 헤연. 그 하르바님 헌 때 그 혼 부르는 걸 내가 그레 봣는데 세번 불럿을 거야 세 번.(바로 소상했어. 그 할아버님 한 때 그 혼 부르는 걸 내가 그리 봤는데 세 번 불렀을 거야 세 번.)

---

319) '신흥리'는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를 말한다. 당시 발화지 가족은 4·3사건으로 인해 중산간마을인 '수망리'에서 바닷가 마을인 '신흥리'로 소개당한 상태에서 할아버지 대상을 치렀다는 말이다.

112025 #3 아니, 세 번 부르면 한 거.(아니, 세 번 부르면 한 거.)

112025 #2 거난 우트레 돌아서곡 서르레 돌아서곡 동드레사 돌아사신디 이리저레 돌아서면서 세 번 불르주게, 지붕에 강.(그러니 위로 돌아서고 서쪽으로 돌아서고 동쪽으론지 돌아섰는지 이리저리 돌아서면서 세 번 부르지, 지붕에 가서.)

112025 @ 음.(음.)

112025 #2 거 내가 그거 봐낫어.(그거 내가 봤었어.)

112025 @ 거 불를 때 뭐렌 불러신지.(그거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는지.)

112025 #2 보, 보, 보. 할아버지민 할아버지 보, 누구 저 젊은이엔 허믄 이름 불런. 누구누구 보.(보, 보, 보. 할아버지면 할아버지 보, 누구 저 젊은이엔 하면 이름 불러. 누구누구 보.)

112025 @ 복, 이렇게예.(복, 이렇게요.)

112025 #2 보! 복이 아니고.(보! 복이 아니고.)

112025 @ 복이 아니고 보예.(복이 아니고 보요.)

112025 #2 응.(응.)

112025 @ 예를 들어 저를 든다면 최연미, 최연미 보! 이렇게예?(예를 들어 저를 든다면 최연미, 최연미 보! 이렇게요?)

112025 #2 응.(응.)

112025 @ 그 복, 복 부를 땐, 뭐 그 죽은 사람의 옷을 가져가잖아예?(그 복, 복 부를 땐, 뭐 그 죽은 사람의 옷을 가져가잖아요?)

112025 #3 어. 혼적삼[320].(어. 혼적삼.)

112025 @ 혼적삼? 아, 그 혼적삼 죽을 때 입힐 거.('혼적삼'? 아, 그 '혼적삼' 죽을 때 입힐 거.)

112025 #2 응.(응.)

112025 #3 아니, 죽을 때 입진 거. 문 입정 옷 입어놩, 혼적삼이라고, 다 엿날엔 다 옷 거 여민 욜로 영헹 강 받앙 지붕이 올랑 불르민 그 혼 적삼 혼 불러난 적삼을.(아니, 죽을 때 입힌 거. 모두 입혀서 옷 입어놓아, 혼적삼이라고, 다 옛날엔 다 옷 그거 여민 요리로 이렇게 해서 가서 받아서 지붕에 올라서 부르면 그 혼 적삼 혼 불러난 적삼을.)

112025 @ 음.(음.)

112025 #3 받앙 오랑 저 거시기 차롱착에 놩.(받아서 와서 저 거시기 채롱짝에 넣어서.)

112025 @ 음.(음.)

112025 #3 이 상에 놩.(이 상에 놓아.)

112025 @ 음.(음.)

112025 #3 경 놔둠서 저 상에 영 놔둠서 상식 헷주.(그렇게 놓아두면서 저 상에 이렇게 놓아두면서 상식을 했지.)

320) '혼적삼'은 혼을 부를 때 쓰는 적삼을 말한다.

112025 @ 음.(음.)

112025 #3 상에 올령. 그 적삼 혼적삼으로 놔둬뒁덜.(상에 올려서. 그 적삼 '혼적삼'으로 놓아두고들.)

112025 @ 음.(음.)

112025 #3 그디 그 혼을 싸다놘 신 거라.(거기 그 혼을 싸다놓아 있는 거야.)

112025 @ 음.(음.)

112025 #2 혼을 싸다놘, 거 난중엔 묻을 땐 하관허믄 그 관우에 놔.(혼을 싸다놓아, 거 나중엔 묻을 땐 하관하면 그 관위에 놓아.)

112025 @ 다 놔근에예. 베개 앗당 누웁서. 누워도 좋수다.(다 놓아서요. 베개 가져다가 누우세요. 누워도 좋습니다.)

112025 # 나?(나?)

112025 @ 예.(예.)

112025 #3 아니.(아니.)

112025 @ 괜찮으쿠과?(괜찮겠습니까?)

112025 #3 나, 홋쏠 영 직산허젠.(나, 조금 이렇게 기대려고.)

112026 @ 그다음에는 그 장지 가족공동묘지 잇엇덴 헷잖아예?(그다음에는 그 장지 가족공동묘지 있었다고 했잖아요?)

112026 #2 응.(응.)

112026 @ 그 가족공동묘지 가족 공동묘지 있기 전에 장지 마련할 땐 어떵 마련헷수과?(그 가족공동묘지 가족 공동묘지 있기 전에 장지 마련할 땐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112026 #2 그 장지는 웨정 때는.(그 장지, 장지는 일제강점기 때는.)

112026 @ 예.(예.)

112025 #2 아무디나 가질 못허게 헤서.(아무데나 가지를 못하게 했어.)

112025 @ 아.(아.)

112025 #2 저 위기 위기리[321] 목장 이 거기를 딱 허믄, 그전에는 거기. 웨냐, 거기 쳇 번이냐, 엿날 호열자가 이섯주게.(저 '위기' '위기리' 목장 이 거기를 딱 하면, 그전에는 거기. 왜냐면, 거기 첫 번이냐, 옛날 호열자가 있었지.)

112026 @ 아, 예.(아, 예.)

112026 #2 호열자 허믄 거기 딱 헤근엥에 허믄 그디는 못 가게 허믄, 거기 묻엇당 네중에 법이 모르게 살짝 파가는 사름도 잇고.(호열자 하면 거기 딱 해서 하면 거기는 못 가게 하면, 거기 묻었다가 나중에 법에 모르게 살짝 파가는 사람도 있고.)

112026 @ 음.(음.)

112026 #2 거난 이녁 터 있는 사름은.(그러니 이녁 터 있는 사람은.)

112026 @ 예.(예.)

---

321) '위기리'는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위기리를 말하는데 발화자가 사는 '수망리' 이웃마을이다.

112026 #2 이녁 터에 가지만은.(이녁 터에 가지만.)

112026 #3 어느 때 헤난 거? 엿날에?(어느 때 했던 거? 옛날에?)

112026 #2 어, 엿날에.(어, 옛날에.)

112026 @ 예, 엿날에.(예, 엿날에.)

112026 #2 호열자 때문에 우리 저 우리 증조부님은 아시날 듯날 돌아갓젠.(호열자 때문에 우리 저 우리 증조부님은 전날 뒷날 돌아갔대.)

112026 @ 아.(아.)

112026 #2 호열자 아시날 죽언 돌아가니깐 거 그디 묻엇단에 저 뭐레 거린오름[322]으로 ᄀᆞ지 아, 못간 우리 하르방이 거린오름 간 또 모셧단, 이디 모셔오지 아네서.(호열자 전날 죽어서 돌아가니깐 거 거기 묻었다가 저 뭐 하러 '거린오름'으로까지 아, 못간 우리 할아버지가 '거린오름' 가서 또 모셨다가, 여기 모셔오지 않아서.)

112026 @ 아.(아.)

112026 #2 거 ᄀᆞ만히 그디 저 윈오름[323] 나둬시민 우리 모셔오민 한글헐 건디.(거 가만히 거기 저 '윈오름' 놔뒀으면 우리 모셔오면 한가할 건데.)

112026 @ 게난예. 그 장지 정헐 때는 누가 정헤마씨?(그러게요. 그 장지 정할 때는 누가 정하나요?)

112026 #2 정헐, 장지엔 허면 저 그 때는 상제허고 지관이 잇지 지관.(정할, 장지라고 하면 저 그 때는 상제하고 지관이 있지 지관.)

112026 @ 지관예.(지관이요.)

112026 #2 지관 데령 가근엥에.(지관 데리고 가서.)

112026 @ 음, 지관이 정헤주면예?(음, 지관이 정해주면요?)

112026 #2 응.(응.)

112027 @ 그다음엔 그 관하고 횡대는 어떵 마련헷수과? 관하고 횡대.(그다음엔 그 관하고 횡대는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관하고 횡대.)

112027 #2 관, 관 말헨 우리 하르바님이민, 우리 하르바님도 목시랏주게. 우리 하르바님은 관을 하르방 자기 누울 관을 딱 짠 보관헤 놔둬서. 그난 그 관 못 썻주게.(관, 관 말하면 우리 할아버님이면, 우리 할아버님도 목수였었지. 우리 할아버님은 관을 할아버지 자기 누울 관을 딱 짠 보관해 놓아뒀어. 그러나 그 관 못 썼지.)

112027 @ 예.(예.)

112027 #2 웨 못썻냐, 산 때 헨에 이녁 키 재고 모든 거 헷는디, 죽으난에 그대로 막 허고 몸 불어낫지 뭐허니깐. 그 관 쓰지 못헨. 관 짜근에 경헨에 딱 무껀, 문딱 헤놔근엥에 그 목시 시민 그 목시가 전부 재다근에 관을 짯주.(왜 못썼느냐, 산 때 해서 이녁 키 재고 모든 거 했는데, 죽으니까 그대로 막 하고 몸 불어났지 뭐하니깐. 그 관 쓰지 못했어. 관 짜서 그렇게 해서 딱 묶어서, 모두 해놓아서 그 목수

322) '거린오름'은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2-1에 있는 '큰거린오름'을 말한다.
323) '민오름'은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남조로변의 충혼묘지 서쪽에 있는 오름을 말한다.

있으면 그 목수가 전부 재다가 관을 짰지.)

112027 @ 그 저기 횡대는마씨, 횡대. 하관 할 때 하관 할 때 이렇게 걸쳐놓는 낭 잇잖아예?(그 저기 횡대는요, 횡대. 하관 할 때 하관 할 때 이렇게 걸쳐놓는 나무 있잖아요?)

112027 #3 개판?(횡대?)

112027 @ 예.(예.)

112027 #2 개판?(횡대?)

112027 @ 개판마씨, 개판.(횡대요, 횡대.)

112027 #2 개판이랏구나. 횡대 횡대 하난 개판.('개판'었구나. 횡대, 횡대 하니까 '개판'.)

112027 @ 개판은 어, 어떤 걸로 어디 강 구헤낫수과?(횡대는 어, 어떤 걸로 어디 가서 구했었습니까?)

112027 #2 건 나 저 이녁 힘 잇는 대로.(그건 내가 저 이녁 힘 있는 대로.)

112027 @ 예.(예.)

112027 #2 그날도 우리 요 흔 번이, 우리 저 하르바님 모셔올 때 보난.(그날도 우리 요 한 번에, 우리 저 할아버님 모셔올 때 보니까.)

112027 @ 예.(예.)

112027 #2 돌개판[324] 돌개판 헤난에, 거 저 그디 이묘허는 사름들이, 야, 엿날에 잘살아 낫수다 허멍헨.(돌개판 돌개판 하니까, 거 저 거기 이묘하는 사람들이, 야, 옛날에 잘살아 났네요, 하면서 했어.)

112027 @ 음.(음.)

112027 #2 우리안티허는 거라.(우리한테 하는 거야.)

112027 @ 아, 개판을 돌개판으로마씨?(아, 횡대를 '돌개판'으로요?)

112027 #2 아, 게난 어디사 이 하르방이 것이 다 다 준비뤤 논 거라.(아, 그러니 어디에야 이 할아버지가 것이 다 다 준비되어 놓은 거야.)

112027 @ 아, 게 거 돌 우에다가 관을 놧구나예?(아, 그 그거 돌 위에다가 관을 놓았었군요?)

112027 #2 아이, 돌, 관 우에 더픈 거.(아니, 돌, 관 위에 덮은 거.)

112027 @ 관 우에 덮은 거?(관 위에 덮은 거?)

112027 #2 거 우에, 거 개판 관 우에 더프는 거지.(그거 위에, 그 횡대 관 위에 덮는 거지.)

112027 @ 아니, 우에 더프는 거 말고 밑에 밑에 하는 거.(아니, 위에 덮는 거 말고 밑에, 밑에 하는 거.)

112027 #2 밑에는 없어. 밑에는 뭐 관 밑에 놓는 거 없는데.(밑에는 없어. 밑에는 뭐 관 밑에 놓는 거 없는데.)

112027 @ 그 어.(그 어.)

---

324) '돌개판'은 횡대로 쓸 나부죽한 돌을 말한다. 즉 '돌횡대'인 셈이다.

112027 #3 개판은 우이 더꺼.(횡대는 위에 덮어.)

112027 @ 아, 관. 아, 맞다. 개판은 관 위에다 위에다 맞다, 개판 관 위에다.(아, 관. 아, 맞다. 횡대 관 위에다 위에다 맞다, 횡대 관 위에다.)

112027 #2 관 우에다, 관 밑에 더끄는 거 없어.(관 위에다, 관 밑에 덮는 거 없어.)

112027 @ 예.(예.)

112027 #2 돈 하영 주멍도 좋은 개판을 그 저 구허젠만 하는 이유가 거거든. 썩지 아녀난.(돈 많이 주면서도 좋은 개판을 그 저 구하려고만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 썩지 안하니까.)

112027 @ 썩지 안 헤부난. 그래서 그랫구나게.(썩지 안 해버려서. 그래서 그랬구나.)

112027 #2 게난, 엿날에 돈 한 사름은 개판 값이 아무리 가도 좋다, 좋으믄 개판을 사젠 허주게. 겐디 요세 소낭 개판도 다 허난.(그러니, 옛날에 돈 많은 사람은 개판 값이 아무리 가도 좋다, 좋으면 횡대를 사려고 하지. 그런데 요새 소나무 횡대도 다 하니까.)

112027 @ 게난예.(그러게요.)

112028 @ 그다음엔 어, 수의, 죽은 어른들안티 입히는 수의하고 그다음엔 그 상제들 입는 상복은 어떵 마련헷수과?(그다음엔 어, 수의, 죽은 어른들한테 입히는 수의하고 그다음엔 그 상제들 입는 상복은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112028 #3 상복은 요세에게 그 장예사들 아져오렌 ᄒᆞ민 ᄆᆞᆫ 아저오고.(상복은 요새는 그 장의사들 가져오라고 하면 모두 가져오고.)

112028 #2 아, 요센 뭔 말만허민 다 뒈난.(아, 요사인 무슨 말만하면 다 되니까.)

112028 @ 옛날에, 옛날에.(옛날에, 옛날에.)

112028 #3 엿날엔 그 ᄆᆞᆫ 만들앙 ᄉᆞᄆᆞᆺ 죽어놔사 옷들 ᄆᆞᆫ 멘들앙 입엇주. 베 상 ᄆᆞᆫ 멘들앙 입엇주.(옛날엔 그 모두 만들어서 사뭇 죽어놓아야 옷들 모두 만들어서 입었지. 삼베 사서 모두 만들어서 입었지.)

112028 #2 게난 엿날엔 그 허민 미릇 다 뒛주게.(그러니 옛날엔 그 하면 미리 다 됐지.)

112028 @ 만들 때 누게가 만들앗수과? 옛날에.(만들 때 누가 만들었습니까? 옛날에.)

112028 #3 영 ᄆᆞᆫ 아자근엥에 엿날은 원 바눙질 헷주만은 이제사 헴서?(이렇게 모두 앉아서 옛날은 원 바느질 했지만 이제야 하나?)

112028 @ 아, 바로 사람 돌아가시면 와 가지고.(아, 바로 사람 돌아가시면 와 가지고.)

112028 #3 와강 다 헷어.(오가며 다 했어.)

112028 #2 응, 거 협조허는 거.(응, 거 협조하는 거야.)

112028 @ 아, 헤줫구나예.(아, 해주었군요.)

112028 #3 놈도 ᄒᆞ고, 권당들도 ᄒᆞ고 ᄆᆞᆫ 협조헤줘.(남도 하고, 권당들도 하고 모두 협조해줘.)

112028 @ 수의는 수의도 그냥 와 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하고마씨?(수의는 수의도 그냥 와 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하고요?)

112028 #3 응. ᄆᆞᆫ 죽어놔사 헨 확 지난에, 영장 열흘도 ᄒᆞ곡 이젠 삼일에 뒈나 마나헨 설러불어.(응. 모두 죽어놓아야 해서 확 지나서, 영장 열흘도 하고 이젠 삼일에 될동말동해서 끝내버려.)

112028 @ 경헷구나예. 지금은 옷 그믄 뭔 어디서 구헴수과? 상복.(그랬군요. 지금은 옷 그러면 뭐는 어디서 구하십니까? 상복.)

112028 #3 장의사 ᄀᆞᆯ으민 다 헤주.(장의사 말하면 다 하지.)

112028 #2 요즘 장의사안티 딱 위엄허면, 그 사람들이 다 알아근엥에 ᄆᆞᆫ 다 헤줘부난 거 다 크럽이 잇주게.(요즘 장의사한테 딱 위임하면, 그 사람들이 다 알아서 모두 다 해줘버리니까 그거 다 모임이 있지.)

112028 @ 음.(음.)

112028 #3 돈도 안 헤근에 ᄆᆞᆫ 헤줘.(돈도 안 해서 모두 해줘.)

112028 #2 어, 크럽이 다 시난에 얼마에 요청만 허민.(어, 모임이 다 있어서 얼마에 요청만 하면.)

112029 @ 여기 요청만 허민예. 그 다음에는 그 저 상제들 지프는 상장 잇지예? 상장.(여기 요청만 하면요. 그 다음에는 그 저 상제들 짚는 상장 있지요? 상장.)

112029 #2 에.(예.)

112029 @ 거기서 이제 어머니 죽을 땐 뭐.(거기서 이제 어머니 죽을 땐 뭐.)

112029 #3 머귀낭.(머귀나무.)

112029 @ 아, 그건 어머니는 무슨 낭마씨?(아, 그건 어머니는 무슨 나무요?)

112029 #3 머귀낭, 머귀낭 몽뎅이.(머귀나무, 머귀나무 몽둥이.)

112029 @ 아버지는마씨?(아버지는요?)

112029 #2 대, 왕대.(대, 왕대.)

112029 #2 왕대.(왕대.)

112029 #3 아바지 ᄆᆞ옴은 느직느직.(아버지 마음은 느직느직.)

112029 #2 그 아까 무시거엔 헨?(그 아까 뭐라고 했지?)

112029 @ 상장, 상장.(상장, 상장.)

112029 #2 상장?(상장?)

112029 @ 예.(예.)

112029 #2 거 우리하고 뜰리네.(그거 우리하고 다르네.)

112029 @ 상장 아, 여기는 뭐렌 ᄀᆞᆯ앗수과?(상장 아, 여기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112029 #2 방장대.(상장.)

112029 @ 아, 방장대마씨?(아, 상장이요?)

112029 #3 응.(응.)

112029 @ 방장대.(상장.)

112029 #3 방장대.(상장.)

112029 @ 방장대예. 머귀낭은 어떤 낭이꽈? 머귀낭.(상장이요. 머귀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머귀나무.)

112029 #3 머귀낭이엔 ᄒᆞᆫ 거 이서.(머귀나무라고 한 거 있어.)

112029 #2 거난에 그 머귀낭은 이 무시거 들으민 먹먹하덴이.(그러니까 그 머귀나무는 이 무엇 들으면 먹먹하다고.)

112029 #3 ᄆᆞ작[325] 소방소방[326]ᄒᆞ난 어멍은 죽으민 머귀낭 지프고, 아방 죽으민 마음이 느직느직 ᄒᆞ난 왕대몽뎅이.(매듭 '소방소방'하니까 어머니는 죽으면 머귀나무 짚고, 아버지 죽으면 마음이 느직느직하니까 왕대몽둥이.)

112029 @ 아, 경 ᄀᆞᆫ 거꽈?(아, 그렇게 말한 겁니까?)

112029 #3 어. 경 ᄀᆞᆯ아.(어. 그렇게 말해.)

112029 @ 음.(음.)

112029 #3 또 옷도 상제 옷, 이 ᄒᆞᆯ 때 급ᄒᆞ민, 그 옷 ᄒᆞ기 전이 엿날에 이 이젠 그런 거 엇주만은, 급ᄒᆞ민 이 두루막 그냥 입을 때 ᄒᆞᆫ착은 꿰고 ᄒᆞᆫ착 아니 꿰영 이곰 메왕 돌아뎅기고, 경헤서. 또 우이.(또 옷도 상제 옷, 이 할 때 급하면, 그 옷 만들기 전에 옛날에 이 이젠 그런 거 없지만, 급하면 이 두루마기 그냥 입을 때 한쪽은 꿰고 한쪽은 아니 꿰서 이 동전 묶어 돌아다니고, 그렇게 했어. 또 위에.)

112029 #2 저 이 하관하기 그 저 이.(저 이 하관하기 그 저 이.)

112029 #3 성복ᄒᆞ기 전이 것도.(성복하기 전에 것도.)

112029 #2 성복허기 전에는.(성복하기 전에는.)

112029 #3 두건도 아녜연, 지냥으로.(두건도 않고 자기대로.)

112029 #2 두건도 영 그대로 둘여근엥에 영 허곡, 여기 저 옷도 ᄒᆞᆫ착은 입고 ᄒᆞᆫ착은 안 입주게.(두건도 이렇게 그대로 돌려서 이렇게 하고, 여기 저 옷도 한쪽은 입고 한쪽은 안 입지.)

112029 #3 그것도 저 권당덜 옷 ᄒᆞᆯ 때 오랑 다 꿰영 멘드는디.(그것도 저 권당들 옷 할 때 와서 다 꿰매서 만드는데.)

112029 @ 예.(예.)

112029 #3 이젠 그것도 ᄆᆞᆫ 만들앗당 사당 헤여.(이제는 그것도 모두 만들었다가 사다가 해.)

112029 @ 사단에 하고예.(사다가 하고요.)

---

325) 'ᄆᆞ작'은 '마디' 또는 '매듭'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ᄆᆞ작'은 머귀나무의 특징인 오돌토돌한 코르크를 말한다. 머귀나무는 잎자루와 줄기에 가시가 있다. 가시는 어릴 때는 녹색이고 줄기와 붙은 부분에 코르크가 발달하여 동그랗게 된다. 나이를 먹으면 가시의 날카로움이 없어지고 코르크부분만 오랫동안 남아 있다. 발화자는 그 부분을 'ᄆᆞ작'이라고 표현했다.

326) '소방소방'은 작은 매듭들이 촘촘하게 박혀있다는 표현이다.

112029 #3 엿날엔 문 만들아. 짚신도 문 사당 헷는디, 이젠 짚신 거런 거 아녀고, 엿날엔 문 짚신도 헷어, 세깍신[327].(옛날엔 모두 만들어. 짚신도 모두 사다가 했는데, 이젠 짚신 그런 거 안 하고, 옛날엔 모두 짚신도 했어, '세깍신'.)

112029 @ 아, 경헷수과?(아, 그렇게 했습니까?)

112029 #3 응. 세깍만 네영 ᄒᆞ는 거.(응. 세 총만 내서 하는 거.)

112029 #2 세깍신엔 깍 세 개뿐, 이 요디 ᄒᆞ나 요디,ᄒᆞ나 요디 ᄒᆞ나.('세깍신'에는 총 세 개뿐, 이 요기 하나 요기 하나 요기 하나.)

112029 @ 아.(아.)

112029 #2 경헹 양쪽에 ᄋᆞ슷 개.(그렇게 해서 양쪽에 여섯 개.)

112029 #3 구관, 구관제복이라고 상젠 그런 것도 입는디.(구관, 구관제복이라고 상제는 그런 것도 입는데.)

112029 @ 예.(예.)

112029 #3 이젠 그런 것도 안 입엉 넘어가고, 얼마나 간단이라. 경 아넹 식게 멩질에 출린 거 보켄헤도 이젠 당추 엿날추룩 안 출리메.(이젠 그런 것도 안 입어서 넘어가고, 얼마나 간단이야. 그렇지 않고 식게 명절에 차린 거 보겠다고 해도 이젠 당최 옛날처럼 안 차려 안 차려.)

112029 @ 거난 그 저 상복 만들 때 두건이나 복치마도 다 ᄀᆞ찌들 만들어근에 헷수과?(그러니 그 저 상복 만들 때 두건이나 복치마도 다 같이 만들어서 했습니까?)

112029 #3 응. 엿날엔 그냥 문 멘들앙 ᄒᆞ젠 ᄒᆞ민 게 급ᄒᆞ영. 상제 한 디덜은 멘들지 못헹 난리주. 손으로 숭당숭당[328] ᄒᆞ는 사름, 미싱 신 사름은 미싱도 앗다 놩 헤가는 사름 난리도 ᄒᆞ멍 기가 탁, 두건도 다 접앙 응. 그추룩 헨 ᄒᆞ여.(응. 옛날엔 그냥 모두 만들어서 하려고 하면 그게 급해서. 상제 많은 데들은 만들지 못해서 난리지. 손으로 '숭당숭당' 하는 사람, 재봉틀 있는 사람은 재봉틀도 가져다 놓아서 해가는 사람 난리도 하면서 기가 탁, 두건도 다 접어 응. 그처럼 해서 했어.)

112030 @ 게 두건은 누구한테 까지 줫수과?(그래 두건은 누구한테 까지 줬습니까?)

102030 #3 아, 두건은 상제ᄒᆞ곡 손지들ᄒᆞ곡 ᄇᆞ딘 방상이나 주엇는디, 이젠 밋밋 기냥 친묵이고 갑장이고 밋밋 줘.(아, 두건은 상제하고 손주들하고 바툰 방상이나 주었는데, 이젠 밋밋 그냥 친목이고 갑장이고 밋밋 줘.)

112030 @ 아, ᄇᆞ딘 방상들안티까지 건 줫구나예?(아, 바툰 방상들한테까지 그건 줬군요?)

112030 #3 응.(응.)

112030 @ 복치마는마씨?(복치마는요?)

112030 #3 응?(응?)

---

327) '세깍신'은 앞쪽에 총을 셋만 돋게 만들어 상제가 신는 짚신을 말한다.

328) '숭당숭당'은 바느질을 급하게 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표준어 '대강대강'에 대응한다.

112030 @ 복치마.(복치마.)

112030 #3 복치마는 상제 저 메누리, 뚤 주고 또 손지에 ᄒᆞ는딘 안 가서.(복치마는 상제 저 며느리, 딸 주고 또 손주에 하는 데는 안 가서.)

112030 @ 안 가고예.(안 가고요.)

112030 #3 응. 이제들은 문 몸빼여 하간 거 벨 거 다 헤도 아녓주.(응. 이제들은 모두 일바지야 여러 가지 거 별 거 다 해도 않았지.)

112030 #2 그전에사 문 절약헷주.(그전에야 모두 절약했지.)

112031 @ 그 영장허젠 하면 저 풋죽은 어느 편에서 썻수과?(그 영장하려고 하면 저 팥죽은 어느 편에서 썼습니까?)

112031 #3 아, 풋죽은 사둔 사둔 쪽에서.(아, 팥죽은 사돈, 사돈 쪽에서.)

112031 @ 사둔이 사둔이.(사돈이, 사돈이.)

112031 #3 응. 사둔이, 사둔이.(응. 사돈이, 사돈이.)

112031 @ 아, 경헷구나예.(아, 그랬구나.)

112031 #2 기냥 영장나믄 우선 쒀가지.(그냥 영장나면 우선 쒀가지.)

112031 @ 우선 쒀갓지예?(우선 쒀갔지요?)

112031 #3 응. 성복헹.(응. 성복해서.)

112032 @ 성복제 성복제는 뭐꽈? 그러면.(성복제 성복제는 뭡니까? 그러면.)

112032 #3 성복제는 그 저 영 일포전이 제를 허주. 성복제라민 그때.(성복제는 그 저 이렇게 일포제 전에 제를 하지. 성복제라면 그때.)

112032 #2 성복제는 복 입는 날.(성복제는 복 입는 날.)

112032 #3 응, 복 입어. 상제질 ᄒᆞ는 날 문 그.(응, 복 입어. 상제노릇 하는 날 모두 그.)

112032 #2 복 입는 날이 성복이주게. 그 복 성복제를 헤야 복을 입주. 그전에는 복을 못 입엉.(복 입는 날이 성복이지. 그 복 성복제를 해야 복을 입지. 그전에는 복을 못 입어.)

112032 #3 견데 그때 아니 ᄒᆞᆫ 방울석이라도 그때 아니 올린 거는 그 상에 못 올린덴 그 성복제에 다 ᄒᆞ는 거.(그런데 그때 아니 한 방울씩이라도 그때 아니 올린 거는 그 상에 못 올린다고 그 성복제에 다 하는 거.)

112032 @ 아, 경헷구나예.(아, 그랬군요.)

112033 @ 일포제에 대헤 ᄀᆞᆯ아줍서.(일포제에 대해 말해주세요.)

112033 #2 일포는.(일포제는.)

112033 @ 예.(예.)

112033 #2 이, 넬 영장이면 오늘이 일포거든.(이, 내일 영장이면 오늘이 일포제거든.)

112033 @ 예, 예.(예, 예.)

112033 #2 거난 오늘은 그 제 허는 거.(그러니 오늘은 그 제 하는 거.)

112033 @ 아, 그.(아, 그.)

112033 #2 오늘 저 오늘 저 우리 그 거시기헌 디도 오늘이 일포주게. 오늘, 오늘 아침에 일포제 허민 그로 일포제 끗나야 그 서 무슨 거시기를 받주게.(오늘 저 오늘 저 우리 그 거시기한 데도 오늘이 일포제지. 오늘, 오늘 아침에 일포제 하면 그리로 일포제 끝나야 그 서 무슨 거시기를 받지.)

112034 @ 그다음엔 그 조문 갈 때 일포제에 가잖아예.(그다음엔 그 조문 갈 때 일포제에 가잖아요.)

112034 #2 응.(응.)

112034 @ 그 영장도 마찬가지, 잔치 때나 영장 때나, 잔치 때는 무신 쏠 부지하고 이렇게 헷덴 헷잖아예. 근데 일포 때는 옛날엔 뭐 헷수과? 일포제 부조는 부주.(그 영장도 마찬가지, 잔치 때나 영장 때나, 잔치 때는 무슨 쌀 부주하고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근런데 일포제 때는 옛날엔 뭐 했습니까? 일포제 부조는 부조.)

112034 #3 부주는 엿날에 원 그거랏주. 일포 때나 잔치 때나 대소상 때나 헷는디.(부조는 옛날에 원 그거였지. 일포제 때나 잔치 때나 대소상 때나 했는데.)

112034 @ 예.(예.)

112034 #3 대소상 때에는 제물 떡.(대소상 때에는 제물 떡.)

112034 @ 예.(예.)

112034 #3 떡 헤가. 제물 떡 헤갓는디.(떡 해가. 제물 떡 해갔는데.)

112034 @ 아, 게난 영장 일폿날은.(아, 그러니 영장 일포제 날은.)

112034 #3 제물 떡.(제물 떡.)

112034 @ 제물 떡?(제물 떡?)

112034 #3 응. 엿날엔 제물 떡 부지를 저 무신 쏠이나 무신 그런 거 아녀고, 제물 떡.(응. 옛날엔 제물 떡 부주를 저 무슨 쌀이나 무슨 그런 거 안 하고, 제물 떡.)

112034 @ 그민 제물 떡을 이집 저집에서 다 떡을 헹 가져가마씨?(그러면 제물 떡을 이집 저집에서 다 떡을 해서 가져가나요?)

112034 #3 응. 엿날엔.(응. 옛날에는.)

112034 @ 아, 경헷수과?(아, 그랬습니까?)

112034 #3 응. 제물 떡.(응. 제물 떡.)

112034 #2 근디 그르케 제물떡 헹가민 그걸 이 그 다 그디 ᄂᆞ놔먹어사 뒐 건디.(그런데 그렇게 제물 떡 해서가면 그걸 이 그 다 거기 나눠먹어야 될 건데.)

112034 #3 견디 그 제물 떡은 권당덜허고 사둔덜은 제물 떡을 아녀주. 풋죽은 쒀가.(그런데 그 제물 떡은 권당들하고 사돈들은 제물 떡을 안 하지. 팥죽은 쒀가.)

112034 @ 풋죽은 쒀 가고예.(팥죽은 쒀 가고요.)

112034 #3 응. 그딘 부지허주.(응. 거긴 부주하지.)

112034 @ 게민 제물 떡들 헤놓면 일폿날 걸로 다 놈의영 ᄀᆞ치 다 나눠먹엇엇구나예?(그러면 제물 떡들 해놓으면 일포제 날 걸로 다 남하고 같이 다 나눠먹었었군요?)

112034 #3 응. 갈라먹고.(응. 나눠먹고.)

112035 @ 그다음엔 토신제는 어떵 지넷수과?(그다음엔 토신제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112035 #2 토신제는 건 아무나 못 지네여.(토신제는 그건 아무나 못 지내.)

112035 #3 ᄂᆞ는 집 아녀는 집 헤여.(지내는 집 안 하는 집 해.)

112035 #2 (토신제는.)

112035 @ 예.(예.)

112035 #2 이집 여기 산을 쓰젠 허믄.(이집 여기 산을 쓰려고 하면.)

112035 @ 예.(예.)

112035 #2 미릇 가 가지고 완전히 삼일 전에부터 헤 가지고 딱 한 사름 그 사름이 마탕 게 놈의 집은.(미리 가 가지고 완전히 삼일 전에부터 해 가지고 딱 한 사람 그 사람이 맡아서 그 남의 집은.)

112035 #3 부정ᄒᆞᆫ 사름은 아니뒈지.(부정한 사람은 안 되지.)

112035 #2 놈의 토신제 잘못행 죽은 사름도 이서.(남의 토신제 잘못해서 죽은 사람도 있어.)

112035 @ 아.(아.)

112035 #3 놈의 매졍 부정 안 헌 사름으로 허곡.(남에게 맡겨서 부정 안 한 사람으로 하고.)

112035 #2 거난에 그만큼 주의혜야 뒈.(그러니 그만큼 주의해야 돼.)

112035 @ 음.(음.)

112035 #3 제물두 그디서 당헹. 영장난 집의 거 아녀는 거, 부정ᄒᆞ카부덴. 그 제관이 다 당헹 ᄒᆞ민 그 깝을 문 당헤영 오는 거.(제물도 거기서 부담해서. 영장 난 집에 거 안 하는 거, 부정할까봐. 그 제관이 다 부담해서 하면 그 값을 모두 부담해서 오는 거.)

112035 #2 게 그 토신제허믄 지금도 이 저저 이 얼마니? ᄒᆞᆫ 번 지네는디 ᄉᆞ십만 원인가 오십만 원인가 헨덴.(그게 그 토신제하면 지금도 이 저저 이 얼마니? 한 번 지내는데 사십만 원인가 오십만 원인가 한대.)

112035 @ 예.(예.)

112035 #3 새로 문 당헹 오는 거.(새로 몬 당해서 오는 거.)

112035 #2 그 저 경헤근엥에 그 사름이 다 당헤근에 헤여.(그 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다 부담해서 해.)

112035 #3 경허곡 정성허고.(그렇게 하고 정성하고.)

112035 @ 정성허고예.(정성하고요.)

112035 #3 응. 삼일동안 어디 안뎅겨.(응. 삼일동안 어디 안다녀.)

112035 #2 경허근에 그 돈 얼마에 허기로 허민 돈만 네쳐불주게 지금도.(그렇게 해서 그 돈 얼마하기로 하면 돈만 내쳐버리지 지금도.)

112035 #3 영장 난 집이선 아녀, 것도.(영장 난 집에선 안 해, 것도.)

112036 @ 얼마 전까지만 헤도 상여꾼들 헤 가지고 그 상여를 들고 갓잖아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여꾼들 해 가지고 그 상여를 들고 갔잖아요?)

112036 #2 어.(어.)

112036 @ 옛날에 상여꾼은 어떵 정헤낫수과? 상여 멘가는 사람들.(옛날에 상여꾼은 어떻게 정했었습니까? 상여 매서가는 사람들.)

112036 #3 상 멩갈 때?(상여 매서갈 때?)

112036 @ 예.(예.)

112036 #3 영장 멩가는 사름덜?(영장 매서가는 사람들?)

112036 @ 예. 영장 맹갈 때.(예. 영장 매서갈 때.)

112036 #2 거 동네 청년들 뭐 그때 간 사름덜 다 ᄀᆞ찌 헷주 무신. 거 영 무신 거 별도로 사람 빈 거 아니.(그거 동네 청년들 뭐 그때 간 사람들 다 같이 했지 무슨. 그거 이렇게 무슨 거 별도로 사람 빈 거 아니.)

112036 @ 맞수다예.(맞습니다.)

112037 @ 그다음엔 그 상여를 그 집에서 장지까지 이제 멩 가잖아예?(그다음엔 그 상여를 그 집에서 장지까지 이제 매서 가잖아요?)

112037 #2 응.(응.)

112037 @ 멩 갈 때 그 막 먼 디가 뭴 때도 잇고예?(매서 갈 때 그 막 먼 데가 될 때도 있고요?)

112037 #3 가당 교대도 흐여.(가다가 교대도 해.)

112037 @ 교대로 아, 교대도 헷수과?(교대로 아, 교대도 했습니까?)

112037 #3 응.(응.)

112037 #2 아, 교대, 교대도 ᄋᆞ라 번 허주게.(아, 교대, 교대도 여러 번 하지.)

112037 @ 기구나예. 운상할 때 그 어 멩 나갈 때 옛날엔 막 선 누가 선소리하면 또 후 소리하고.(그렇군요. 운상할 때 그 어 매어 나갈 때 옛날엔 막 선 누가 선소리하면 또 후 소리하고.)

112037 #3 어. 거 멩 나가멍 허는 거.(어. 거 매어나가며 하는 거.)

112037 @ 혹시 그거 기억남수과?(혹시 그거 기억나십니까?)

112037 #2 에. 그거는.(예. 그거는.)

112037 #3 이져빗주. 이제 춤 와락와락 헤가난 이져비언. 엿날엔 다 헤낫어.(잊어버렸지. 이제 참 와락와락 해가니까 잊어버렸어. 옛날엔 다 했었어.)

112037 #2 우리 허면 우리 두린 때엔 ** 봄만 헷지. 그걸 지금도 영 보민 테르비전엔 그걸 허는 사름들 잇주게.(우리 하면 우리 어린 때엔 ** 보기만 했지. 그걸 지금도 이렇게 보면 텔레비전엔 그걸 하는 사람들 있지.)

112037 @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만헤도 고등학교 2학년 때도 경 헷거든마씨.(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만해도 고등학교 이학년 때도 그렇게 했거든요.)

112037 #2 어. 그전 사름네는 다 헷지. 그땐 그 고등학교 이학년 땐 돌아간 그때 사름들은 다 허주. 견디 지금은 지금은 뭐.(어. 그전 사람 네는 다 했지. 그땐 그 고등학교 이학년 땐 돌아간 그때 사람들은 다 하지.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뭐.)

112037 @ 혹시 그때 헷던 거 그 기억나는 대로 골아줍서. 그 상여 멘 집에서 출발할 땐 어떵 헤심광예, 그다음 가는 도중에 그 곡하는 소리도 잇고, 그다음에 장지에도 도착헨 어떵 헤신지도 골아줍서.(혹시 그때 했던 거 그 기억나는 대로 말해주세요. 그 상여 맨 집에서 출발할 땐 어떻게 했으며, 그다음 가는 도중에 그 곡하는 소리도 있고, 그다음에 장지에 도착해서 어떻게 했는지도 말해주세요.)

112037 #2 우리 거난, 그걸 아네나부난 통 몰르크라.(우리 그러니까, 그걸 안 해서서 통 모르겠어.)

112037 #3 이져비언.(잊어버려서.)

112037 @ ᄀᆞ찌 상여 멩 안 가봣수과? 상여 멘 ᄀᆞ찌 안 메낫수과? 젊은 때?(같이 상여 매서 안 가봤습니까? 상여 맨 같이 안 맸었습니까? 젊은 때?)

112037 #2 상여, 우린 나는 상여헨에 그때 저 우리 나 들은 말인데.(상여, 우린 나는 상여해서 그때 저 우리 내가 들은 말인데.)

112037 @ 음.(음.)

112037 #2 우리 사촌이 열일곱에 죽엇어.(우리 사촌이 열일곱에 죽었어.)

112037 @ 아, 예.(아, 예.)

112037 #2 지금 시체가 일본에 잇는데.(지금 시체가 일본에 있는데.)

112037 @ 예.(예.)

112037 #2 일본에 잇는데, 열일곱에도 그 후에도 자식이 엇이니깐, 그걸 그 저 올케 구신을 제라허게 만난 사혼을 헷거든.(일본에 있는데, 열일곱에도 그 후에도 자식이 없으니깐, 그걸 그 저 옳이 귀신을 제대로 만나서 사혼을 했거든.)

112037 @ 예.(예.)

112037 #2 사혼헨에 지금 저 부영골프장 잇는 디, 그디 거난 합묘헨에.(사혼해서 지금 저 부영골프장 있는 데, 거기 그러니 합장해서.)

112037 @ 음.(음.)

112037 #2 거난 우리 ᄉᆞ춘 시체는 엇고 거난 그 아즈망만 시체 잇는 거주.(그러니 우리 사촌 시체는 없고 그러니 그 아주머니만 시체 있는 거지.)

112037 @ 예.(예.)

112037 #2 경헨에 헨에 그때 헨에 그쪽 올케 이 동네 사름 쪼끔 계급이 놎은 사름이라.(그렇게 해서 해서 그때 해서 그쪽 옳이 이 동네 사람 조금 계급이 낮은 사람이라.)

112037 @ 예.(예.)

112037 #2 그 사름을 그대로 막 억지로 상예 돌아올 때 모션완에.(그 사름을 그대로 막 억지로 상여 돌아올 때 모셔왔어.)

112037 @ 음.(음.)

112037 #2 거난에 그 젊은이들이 너무헌 거지.(그러니까 그 젊은이들이 너무한 거지.)

112037 #3 누게 경 헷수과?(누구 그렇게 했습니까?)

112037 #2 어? 00이 시켜브난에 수망리 아예 땅 떠나불지 안헨냐고, 자길 나무 련 그거라고.(어? 00이 시켜버려서 '수망리' 아예 땅 떠나버리지 안했냐고, 자길 나무라서 그거라고.)

112037 #3 누게?(누구?)

112037 #2 00이.(00이.)

112037 #3 아.(아.)

112037 #2 거난 그 사름이 아무도 엇언, 올케 자식도 ᄉᆞ삼 때 그때 자식도 다 죽어빗주게.(그러니 그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옳이 자식도 사삼 때 그때 자식도 다 죽어버렸지.)

112037 @ 음.(음.)

112037 #2 다 죽어븐 사람을 나무레 가지고 그축 청년들이 웨 그러케 헷는지 몰라.(다 죽어버린 사람을 나무라 가지고 그처럼 청년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

112037 #2 음.(음.)

112037 #2 그난에 부에나 가지고 수망리 떠분 거라.(그러니까 부아나 가지고 '수망리' 떠버린 거야.)

112037 @ 아이고 세상에게.(아이고 세상에.)

112037 #2 거난 그집 성제 제산을 요디.(그러니 그집 형제 재산을 요기.)

112037 #3 아이고, 하영 ᄀᆞᆯ음도. 제산을 먹은 거를 이제 ᄀᆞᆫ지 맙서.(아이고, 많이 말함도. 재산을 먹은 거를 이제 말하지 마세요.)

112037 #2 요놈 싹 먹어 치와부럿주.(요놈 싹 먹어 치워버렸지.)

112037 @ 세상에 그러기도 하는 구나예.(세상에 그러기도 하는 군요.)

112037 #3 엿날엔 못살아. 가민 경 헤난.(옛날엔 못살아. 가면 그렇게 했어.)

112037 #2 겨난 집안 엿날도 웨 ** 집안도 그렇게 나므렛는지 몰라.(그러니 집안 옛날도 왜 ** 집안도 그렇게 나무랐는지 몰라.)

112038 @ 그다음엔 봉분예, 그 무덤, 산 만들 때 관을 하관하잖아예?(그다음엔 봉분요, 그 무덤, 묘지 만들 때 관을 하관하잖아요?)

112038 #2 어.(어.)

112038 @ 그다음부터는 어떵 할 건지 ᄀᆞᆯ아줘봅서, 봉분 만드는 과정.(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건지 말해보세요, 봉분 만드는 과정.)

112038 #2 봉분 만드는 과정 무시거, 지금 거 저 지금은 저 우의 장의사들이 허니깐 그전엔 ᄋᆞ듭 잣[329] 봉분 일곱 잡 봉분만 허는데.(봉분 만드는 과정 무엇, 지금 거 저 지금은 저 위의 장의사들이 하니깐 그전엔 여덟 '잣' 봉분 일곱 '잣' 봉분만 하는데.)

112038 @ 예, 예.(예, 예.)

112038 #2 ᄋᆞ듭 잣 ᄋᆞ듭 잣 봉분 아무나 아녀고.(여덟 '잣' 여덟 '잣' 봉분 아무나 안하고.)

329) '잣'은 '자'를 말하는 봉분의 길이를 재는 단위이다. '잣'은 '자'를 달리 발음한 것이다.

112038 @ 아, 음.(아, 음.)

112038 #2 건, 돈 한 사름덜 올케 우세 낸 올케 경 헤근에 허곡, 보통 일곱 잡 봉분인데.(건, 돈 한 사람들 옳이 남우세 낸 옳이 그렇게 해서 하고, 보통 일곱 '잣' 봉분인데.)

112038 @ 예.(예.)

112038 #2 지금 대잣[330] 봉분 허거든.(지금 '대잣' 봉분 하거든.)

112038 @ 음.(음.)

112038 #2 지금은 대잣 봉분 허는디, 지금 우리 그 가족공동묘지도 우리 저 큰어머닐 먼저 모셧는디, 큰어머니는 일곱 잡 봉분으로 허고, 네중에 큰아버진 네중에 이묘 헤단 모시니깐 ᄀᆞ찌 모셧는데.(지금은 '대잣' 봉분 하는데, 지금 우리 그 가족공동묘지도 우리 저 큰어머닐 먼저 모셨는데, 큰어머니는 일곱 '잣' 봉분으로 하고, 나중에 큰아버진 나중에 이묘 해다가 모시니까 같이 모셨는데.)

112038 @ 예.(예.)

112038 #2 큰어 큰아버지 봉분은 작고 큰어머니 봉분 크니깐 큰어머니 봉분은 까깐. 하하하하.(큰어 큰아버지 봉분은 작고 큰어머니 봉분 크니깐 큰어머니 봉분은 깎았어. 하하하하.)

112038 @ 까깐. 거 멘 처음에 관을 놓고 그다음엔 뭘 합니까?(깎아서. 거 맨 처음에 관을 놓고 그다음엔 뭘 합니까?)

112038 #2 그다음엔 저 개판.(그다음엔 저 횡대.)

112038 #3 개판.(횡대.)

112038 @ 개판 놓고.(횡대 놓고.)

112038 #2 개판 더프당 마지막 개판.(횡대 덮다가 마지막 횡대.)

112038 @ 예.(예.)

112038 #2 마지막 개판 더플 때는 막 개판 더프지 않고 세우거든.(마지막 횡대 덮을 때는 막 횡대 덮지 않고 세우거든.)

112038 @ 예.(예.)

112038 #2 세와서 자손들이 전부다 드리는 거라.(세워서 자손들이 전부다 드리는 거라.)

112038 @ 아, 음.(아, 음.)

112038 #2 거난 거기서 잔 드리켄 헌 사름은 누구나 일가들은 다 드리주, 그디다.(그러니까 거기서 잔 드리겠다고 한 사람은 누구나 일가들은 다 드리지, 거기다.)

112038 @ 음, 술 다 거기다 부어마씨?(음, 술 다 거기다 부어요?)

112038 #2 응. 잔 드리믄 받앙, 그디 강 비우국 강 비우국.(응. 잔 드리면 받아서, 거기 가서 비우고 가서 비우고.)

112038 @ 음.(음.)

330) '대잣'은 '큰 봉분'을 말한다.

112038 #2 경헤근에 마지막 이상 업덴 허믄 그제야 더퍼.(그렇게 해서 마지막 이상 없다고 하면 그제야 덮어.)

112038 @ 그다음 흙을 놓기 시작헹예.(그다음 흙을 놓기 시작해서요.)

112038 #2 응. 흑은 허믄 첫 번에 헤근에, 상제들이 흔두 삽 영 허민 그 다음 *** 모다정.(응. 흙은 하면 첫 번에 해서, 상제들이 한두 삽 이렇게 하면 그 다음 *** 모여들어서.)

112038 @ 그다음마씨, 흙 다 헤지면 흙이 다 헹 봉이 이렇게.(그다음은요, 흙 다 하면 흙이 다 해서 봉분이 이렇게.)

112038 #2 봉분 쌓아?(봉분 쌓아?)

112038 @ 만들어 지면 그다음에 떼는 언제 그때 바로 거기서?(만들어 지면 그 다음에 떼는 언제 그때 바로 거기서?)

112038 #2 아, 거기서 바로헴주.(아, 거기서 바로하지.)

112038 @ 바로 입현예.(바로 입혀서요.)

112038 #2 응.(응.)

112038 @ 거, 만일에 계절적으로 떼 입히는 계절이 가을이다 막 건조헤 가지고 떼가 죽어불 수도 있잖아예?(거, 만일에 계절적으로 떼 입히는 계절이 가을이다 막 건조해 가지고 떼가 죽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112038 #2 죽어불기는 힘들어.(죽어버리기는 힘들어.)

112038 @ 힘들어예?(힘들어요?)

112038 #2 웨 죽어부냐면 쏘곱에 돌이 엇이 전부 흑이니까.(왜 죽어버리는가 하면 속에 돌이 없이 전부 흙이니까.)

112038 @ 기구나에.(그렇군요.)

112038 #2 거고 여기는 흑이 거믄흑은 또 이 츤흑들 담도 아녀.(그리고 여기는 흙이 검은흙은 또 이 찰흙들 같지도 않아.)

112038 @ 아, 기꽈? 음.(아, 그래요? 음.)

112038 #2 흑이 완전히 테 ᄀᆞ튼 거 잘 살주.(흙이 완전히 떼 같은 거 잘 살지.)

112039 @ 그 혹시 호충[331]이라고 들어봣수과? 호충?(그 혹시 '호충'이라고 들어봤습니까? 호충?)

112039 #2 호충?(호충?)

112039 @ 예.(예.)

112039 #2 호충이엔 뭐엔 어떻게 헌다는 말인고?(호충이라고 뭐라고 어떻게 한다는 말인고?)

112039 #3 몰라, 그런 거.(몰라, 그런 거.)

112039 @ 호충예? 호충이란 말 안 들어봣수과?(호충요? 호충이란 말 안 들어봤습니까?)

---

331) '호충'은 장례에서 입관할 때나 하관할 때 바로 곁에서 그 모습을 보지 말아야 할 사람이 현장에서 피하는 일을 말한다.

112039 #2 응. 호충이란 안 들어봣는데? 거 지역마다 좀 말이.(응. 호충이란 안 들어봤는데? 거 지역마다 좀 말이.)

112039 @ 다 달라서예?(다 달라서요?)

112039 #2 응. 특히나 사투리들은.(응. 특히나 사투리들은.)

112039 @ 그 장례식 할 때 그 흑 묻으고 저 무덤 옆에 갈 때 누게는 무덤에 오지 말렌 할 때, 그 지관이 이렇게 누게는 오지 말렌허멍 소리하잖아예.(그 장례식 할 때 그 흙 묻고 저 무덤 옆에 갈 때 누구는 무덤에 오지 말라고 할 때, 그 지관이 이렇게 누구는 오지 말라고 하며 소리하잖아요.)

112039 #2 아, 거 이서.(아, 그거 있어.)

112039 @ 그거는 혹시 수망리에서 그건 어떤 식으로 정헷수과?(그거는 혹시 '수망리'에서 그건 어떤 식으로 정했습니까?)

112039 #2 아, 그거는 지관이 택일 할 때 무슨 띠 무슨 띠는 그디 보지 말라. 거 잇주 띠를.(아, 그거는 지관이 택일 할 때 무슨 띠 무슨 띠는 거기 보지 말라. 거 있지 띠를.)

112039 #3 하관홀 때나 입관홀 때나.(하관할 때나 입관할 때나.)

112039 #2 못 보는 띠가 이서 무슨 헤치.(못 보는 띠가 있어 무슨 해치.)

112039 @ 아, 음.(아, 음.)

112039 #3 무신 생 무신 생.(무슨 생, 무슨 생,)

112039 #2 건디.(그런데.)

112039 @ 거면 그 무슨 생 무슨 생 하는 건 죽은 사람하고 안 맞는 띠 얘기하는 거지예? 돌아가신 분예?(그러면 그 무슨 생 무슨 생 하는 건 죽은 사람하고 안 맞는 띠 얘기하는 거지요? 돌아가신 분요?)

112039 #3 안 맞는 거.(안 맞는 거.)

112039 #2 아, 거난에 거 택일하멍 그 사름이 허난 뭐 그 사름덜은 그 그런 뜻이주.(아, 그러니까 그 택일하면서 그 사람이 하니까 뭐 그 사람들은 그 그런 뜻이지.)

112039 @ 음.(음.)

112039 #3 택일홀 때 거 하관홀 때 입관홀 때 오지말라 허는 거.(택일할 때 거 하관할 때 입관할 때 오지마라 하는 거.)

112039 #2 무슨 띠 무슨 띠 오지말라.(무슨 띠 무슨 띠 오지마라.)

112039 @ 음.(음.)

112039 #3 가기는 가도 영 돌아사는 거라, 둣터레 돌아사.(가기는 가도 이렇게 돌아서는 거야, 뒤로 돌아서.)

112039 #2 응, 거기 가도 거 헐 때는 피헤불주.(응, 거기 가도 그거 할 때는 피해버리지.)

112039 #3 돌아살 거.(돌아설 거.)

112039 #2 그거를 말하는 거나, 여기도 그런 식 무신 띠, 거난 띠를 말하는 거

여. 무신 띠 무신 띠는 보지말라.(그거를 말하는 거나, 여기도 그런 식 무슨 띠, 그러니 띠를 말하는 거야. 무신 띠 무신 띠는 보지마라.)

112040 @ 그다음에 장지에서 그 상여꾼들한테 음식을 먹여야지 뒈잖아예?(그다음에 장지에서 그 상여꾼들한테 음식을 먹여야지 되잖아요?)

112040 #2 어.(어.)

112040 @ 대접헤야 되잖아예?(대접해야 되잖아요?)

112040 #2 어.(어.)

112040 @ 그 대접할 때는 어떻게 대접헷수과? 무신 음식을 어떤 식으로 대접헷수과?(그 대접할 때는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무신 음식을 어떤 식으로 대접했습니까?)

112040 #2 정 정심 말아, 그 갈라살 때 것ᄀᆞ라 뭐 피력[332].(정 정심 말고 그 갈라야할 때 것보고 뭐 '피력'.)

112040 #3 피력.('피력'.)

112040 #2 피력, 잇주.('피력', 있지.)

112040 @ 피력, 피력은 누가 준비헤마씨?(피력, 피력은 누가 준비해요?)

112040 #2 상가에서 저 뭐 저 뭐허지?(상가에서 저 뭐 저 뭐하지?)

112040 @ 상가에서마씨?(상가에서요?)

112040 #2 거 상가에서.(그 상가에서.)

112040 #3 아니, 상제들이 ᄒᆞ는디 그 아침 엿날에는 아침은.(아니, 상제들이 하는데 그 아침 옛날에는 아침은.)

112040 @ 예.(예.)

112040 #3 조반 상제.(조반 상제.)

112040 @ 예.(예.)

112040 #3 정심 상제.(점심 상제.)

112040 @ 예.(예.)

112040 #3 ᄎᆞᄎᆞ 알르레, 이력상뒤[333]엔 ᄋᆞ라인디.(차차 아래로, '이력상뒤'엔 여럿인데.)

112040 @ 예.(예.)

112040 #3 ᄎᆞᄎᆞ 앉은ᄎᆞ레로 가가는 거. 게난 이력상뒤.(차차 앉은차례로 가가는 거. 그러니 '이력상뒤'.)

112040 #2 ᄎᆞ레메기 허당 보민 알르레 동생들에 가 가지고 겨난 자식들이 저 동생들 동기간이 많으믄 거 저 조반허믄 큰상제가 조반하민 셋 상젠 점심허민, 그 말젯상제는 피력허게 뒈주게.(차례매기기 하다가 보면 아래로 동생들에게 가 가지고 그러니 자식들이 저 동생들 동기간이 많으면 거 저 조반하면 큰상제가 조반하면 둘째상제는 점심하면, 그 셋째상제는 '피력'하게 되지.)

---

332) '피력'은 장지에서 상두꾼들에게 고마움의 뜻으로 나눠 주는 떡을 말한다.

333) '이력상뒤'가족이나 친인척 중에서 서열이나 차례를 매겨 참석한 향도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상주를 말한다.

112041 @ 그믄 나중에 장례식이 다 끗나잖아예?(그러면 나중에 장례식이 다 끝나잖아요?)

112041 #3 응.(응.)

112041 @ 상여 멘 사람들, 이제 봉분 만들 때 같이 흑 덮어준 사람들, 이제 일 끗나 일한 사람들 잇잖아예?(상여 맨 사람들, 이제 봉분 만들 때 같이 흙 덮어준 사람들, 이제 일 끝나 일한 사람들 있잖아요?)

112041 #2 응.(응.)

112041 @ 이 사람들안틘 뭘로 답례를 헷수과?(이 사람들한테는 뭐로 답례를 했습니까?)

112041 #2 아, 건 동네에서 돌아가멍 허는 거난 뭐.(아, 건 동네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뭐.)

112041 @ 상여꾼들안티 뭐 특별하게.(상여꾼들한테 뭐 특별하게.)

112041 #2 특별헌 거 엇어.(특별한 거 없어.)

112041 #3 특별흔 게 엇어.(특별한 거 없어.)

112041 @ 어섯수과?(없었습니까?)

112041 #2 건, 건 저 엿날 대대로 네려오는 거난. 건 그건 일당주거나 뭐 이른 거 엇어.(그건, 그건 저 옛날 대대로 내려오는 거니까. 그건 그건 일당주거나 뭐 이런 것 없어.)

112041 #3 그 영 알기로는 그런 거 엇는데.(그 이렇게 알기로는 그런 거 없는데.)

112041 @ 예.(예.)

112041 #3 엿날에 그 점, 답패[334]도 아무나 못헤영.(옛날에 그 참, '답패'도 아무나 못해.)

112041 @ 예.(예.)

112041 #3 못ᄒᆞ는 답패ᄒᆞ는 사름은 춤 큰 대영장이라.(못하는 '답패'하는 사람은 참 큰 대영장이라.)

112041 @ 예.(예.)

112041 #3 그 대 답패연 흔 거 메영 가난 저 광목으로 천으로 메고.(그 대 '답패'라고 한 거 매어서 가니까 저 광목으로 천으로 매고.)

112041 @ 예.(예.)

112041 #3 못사는 사름은 줄 끈을 배끈으로 메고 영 허난.(못사는 사람은 줄 끈을 바로 매고 이렇게 하니까.)

112041 @ 예.(예.)

112041 #3 그 답패는 또 부락에 바찐다 숭 나낫서.(그 '답패'는 또 부락에 바친다고 흉 났었어.)

---

334) '답패'는 상여에 매는 줄을 뜻하는데, 상여의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매는 줄이다. 지역에 따라 '박다우줄'이라고 한다.

112041 #2 거 건 부락에 바찌는 거, 건 부락에 바찌는 거.(그 그건 부락에 바치는 거, 그건 부락에 바치는 거.)

112041 #3 이젠 빠져져야 허고 다.(이젠 빠져져야 하고 다.)

112041 @ 아, 수고한 사람들안티 특별히 뭔가 대접하면 되는데 안 허고예.(아, 수고한 사람들한테 특별히 뭔가 대접하면 되는데 안 하고요.)

112041 #3 응. 대접허는 거 엇어. 피력 기자 그거.(응. 대접하는 거 없어. '피력떡' 그저 그거.)

112041 #2 건, 저 그자.(그건, 저 그저.)

112041 #3 건 밋밋[335]ᄒᆞ는 거. 피력ᄒᆞ고 믄 술 ᄒᆞᆫ잔 대접허고, 속앗젠 ᄒᆞ여도, 엇엇어, 엿날엔.(그건 '밋밋'하는 거. '피력떡'하고 모두 술 한 잔 대접하고, 수고했다고 해도, 없었어, 옛날엔.)

112041 #2 그건 뭐 그, 느 집이나 나 집이나 이래 답례로 드는 거난 뭐 똑.(그건 뭐 그, 네 집이나 내 집이나 이리 답례로 드는 거니까 뭐 꼭.)

112042 @ 그다음에 상 차리잖아예?(그다음에 상 차리잖아요?)

112042 #3 응.(응.)

112042 @ 사십구재라든가 할 때 아니면 삭망 때 까지라든가예? 상은 상 차릴 땐 음식을 뭐 뭐 올렷수과? 제사 때 말고.(사십구재라던가 할 때 아니면 삭망 때 까지라든가요? 상은 상 차릴 땐 음식을 뭐 뭐 올렸습니까? 제사 때 말고.)

112042 #3 제사 때 말구겐 삭망 때도 간단ᄒᆞ게 메 ᄒᆞᆫ 그릇 ᄒᆞ여 놓곡, ᄒᆞ여근에 삭망 홈이라고.(제사 때 말고는 삭망 때도 간단하게 매 한 그릇 해 놓고, 해서 삭망 함이라고.)

112042 @ 삭망 때 말고, 그냥 평소에 이제 돌아가시면.(삭망 때 말고, 그냥 평소에 이제 돌아가시면.)

112042 #3 엿날에.(옛날에.)

112042 @ 집에서 상 찰리잖아예?(집에서 상 차리잖아요?)

112042 #3 상식ᄒᆞ주게.(상식하지.)

112042 @ 게난 언제까지 헷수과?(그러니 언제까지 했습니까?)

112042 #3 삼년.(삼년.)

112042 @ 삼년예.(삼년이요.)

112042 #3 응. 삼년 ᄒᆞ루 세 번 삼식.(응. 삼년 하루 세 번 삼식.)

112042 @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그때 막 어지러울 때라도 상은 올려낫수과?(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그때 막 어지러울 때라도 상은 올렸었습니까?)

112042 #3 삼 년 혓주게.(삼 년 했지.)

112042 #2 상 올릴 정신이, 저 삼 년은 헷지만은 정 그런 거 헐 수가 없지. 집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상 올릴 정신이, 저 삼 년은 했지만은 정 그런 거 할

335) '밋밋'은 ㉠물이나 기름이 그릇 위로 흘러넘치는 모양이나 ㉡거침새 없이 줄곧 넘어가는 모양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누구나 다'의 의미로 쓰인 것 같다.

수가 없지. 집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112042 @ 맞아예.(맞아요.)

112042 #3 삼 년 혓주.(삼 년 했지.)

112042 @ 삼 년 하면 그 상엔 뭐 뭐 올려낫수과?(삼 년 하면 그 상엔 뭐 뭐 올렸었습니까?)

112042 #3 그냥 때 상식.(그냥 때 상식.)

112042 @ 때 상식 아침 그냥 우리 먹는 거?(때 상식 아침 그냥 우리 먹는 거?)

112042 #2 응.(응.)

112042 #3 응. 먹어지는 대로 때 상식은 삼년.(응. 먹어지는 대로 때 상식은 삼년.)

112042 #2 아, 지금도 저.(아, 지금도 저.)

112043 #3 보름 뒈민 초ᄒᆞ루 보름 삭망도 아침 헤여근엥에 올렷당, 그땐 쏠밥이 삭망이 어떵 뒈는궁ᄒᆞ민, 쏠밥만 아널 때난.(보름 되면 초하루 보름 삭망도 아침 해서 올렸다가, 그땐 쌀밥이 삭망이 어떻게 되는가하면, 쌀밥만 안할 때니까.)

112043 @ 예.(예.)

112043 #3 아침 쏠밥 헤근엥에 삭망에 궤기구어 놓곡, 국 끓이고 헹, 헤근엥에.(아침 쌀밥 해서 삭망에 고기구어 놓고, 국 끓이고 해서, 해서)

112043 #2 아, 겐디 지금두 육지는.(아, 그런데 지금도 육지는.)

112043 @ 예.(예.)

112043 #2 그 산에 강 모시믄, 그제 강 막사 하나 짓어근엥에 삼년 동안.(그 산에 가서 모시면, 거기 가서 막사 하나 지어서 삼년 동안.)

112043 @ 게난 경헌데 허멍예?(그러니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요?)

112043 #2 경허는 사름도 잇덴, 지금도.(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대, 지금도.)

112043 @ 맞수다게.(맞습니다.)

112043 #2 겐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땐.(그런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땐.)

112043 #3 그땐 사름이 굶엉들 문 죽을 땐디.(그땐 사람이 굶어서들 모두 죽을 땐데.)

112044 @ 소상 대상은 어떵 헷수과? 소상 대상.(소상 대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상 대상.)

112044 #3 소상 대상도 떡 헤놓고 경 출령 헷주 뭐.(소상 대상도 떡 해놓고 그렇게 차려서 했지 뭐.)

112044 @ 소상 대상도예.(소상 대상도요.)

112044 #3 응. 삼 년 세 번.(응. 삼 년 세 번.)

112044 @ 이제는 소상 대상 어떵 합니까?(이제는 소상 대상 어떻게 합니까?)

112044 #2 지금 소상 대상 요세 아녀.(지금 소상 대상 요새 안 해.)

112044 #3 지금은 소상 대상 어디 심광? 대상ᄒᆞ는 디 서?(지금은 소상 대상 어디 있어? 대상하는 데 있어?)

112044 #2 아녀는 모냥이라 지금 젊은이덜.(안 하는 모양이야 지금 젊은이들.)

112044 @ 허지 안헹예.(하지 않아서요.)

112044 #2 거난 백일 탈상이여, 뭐여 헌 이유가 거거든.(그러니 백일 탈상이야, 뭐야 한 이유가 그거거든.)

112044 @ 음.(음.)

112044 #2 백일 뒈민 그디 강 엎어졍 다 자. 백일 탈상 허는 사름들 한디 뭐.(백일 되면 거기 가서 엎어져서 다 자. 백일 탈상 하는 사람들 많은데 뭐.)

112044 @ 게메예.(그러게요.)

112044 #2 그 전에는 그 소상 때는 복친은 복 벗고.(그 전에는 그 소상 때는 유복지친은 복 벗고.)

112044 @ 음.(음.)

112044 #2 대상 때 뒈야 상제는 복 벗고 경헷지.(대상 때 돼야 상제는 복 벗고 그렇게 했지.)

112044 @ 음.(음.)

112044 #2 이제는 백일 탈상이.(이제는 백일 탈상이.)

112044 #3 담제ᄁᆞ장 히엿주.(담제까지 했지.)

112044 #2 이젠, 전인 담제ᄁᆞ지 허주게.(이젠, 전엔 담제까지 하지.)

112044 @ 그니깐예.(그러니까요.)

112044 #2 담제ᄁᆞ지 허는디, 요세는 백일 탈상이야 뭐, 또 사십구제 헤근엥에 사십구재 탈상하는 사람도 잇는 모양이데.(담제까지 하는데, 요새는 백일 탈상이야 뭐, 또 사십구재 해서 사십구재 탈상하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던데.)

112045 @ 그 혹시 토롱이라고 들어봣수과?(그 혹시 토롱이라고 들어봤습니까?)

112045 #2 어.(어.)

112045 @ 임시 무덤 만드는 거예. 그 아버지 같은 경우엔 그 임시 무덤 만들어서 나중에 또 제대로.(임시 무덤 만드는 거요. 그 아버지 같은 경우엔 그 임시 무덤 만들어서 나중에 또 제대로.)

112045 #2 우리, 우리 하르바님도 토롱 헤낫어.(우리, 우리 할아버님도 토롱 했었어.)

112045 @ 아, 무사 토롱 헷수과?(아, 왜 토롱 했습니까?)

112045 #2 우리 하르바님은 에, 지금 아니 지금 우리 하르바님은.(우리 할아버님은 에, 지금 아니 지금 우리 할아버님은.)

112045 @ 예.(예.)

112045 #2 음력으로.(음력으로.)

112045 @ 예.(예.)

112045 #2 팔월 십삼일 날이 제사거든.(팔월 십삼일 날이 제사거든.)

112045 @ 예.(예.)

112045 #2 게난 팔월 십사일 날 멩질 아시날 돌아가셧어.(그러니 팔월 십사일

날 명절 전날 돌아가셨어.)
112045 @ 예.(예.)
112045 #2 거니깐 멩질은 구정 허니깐 제사는 헤야지.(거니깐 명절은 구정 하니깐 제사는 해야지.)
112045 @ 예.(예.)
112045 #2 거난에 그때는 시체를 옮겨두고 그전에 제사를 헌 거라.(그러니까 그때는 시체를 옮겨두고 그전에 제사를 한 거야.)
112045 @ 아, 예.(아, 예.)
112045 #2 경현에 그 해 겨을에 겨울날에 정식으로 영장을 헷지.(그렇게 해서 그 해 겨울에 겨울날에 정식으로 영장을 했지.)
112045 @ 아, 아버지는 어떵 헷수과?(아,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112045 #2 아버지는 그때는 죽으난, 우리어머니만 강 묻엇당, 네중에 우리 ᄒᆞ쏠 정신 출려져야 이묘헷지.(아버지는 그때는 죽으니까, 우리어머니만 가서 묻었다가, 나중에 우리 조금 정신 차려져야 이묘했지.)
112045 @ 그 사십팔 년에마씨?(그 사십팔 년에요?)
112045 #2 ᄉᆞ십팔 년에 묻은 거 그대로.(사십팔 년에 묻은 거 그대로.)
112045 @ 그대로 음.(그대로 음.)
112045 #2 그대로. 그때 그 청년단, 삽 아진 사름들. 그 사름들 그대로 땅 팔 거 없이 그자 그대로 눈 양 그대로 흑만 ᄒᆞ쏠 씌아논 거.(그대로. 그때 그 청년단, 삽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 그대로 땅 팔 거 없이 그저 그대로 누운 채 그대로 흙만 조금 씌워놓은 거.)
112046 @ 헷당 이묘 한 것과 아님 그 자리에다가?(했다가 이묘 한 것과 아니면 그 자리에다가?)
112046 #2 아, 이묘헌 거.(아, 이묘한 거.)
112046 @ 이묘한 거예?(이묘한 거요?)
112046 #2 이녁 땅에 온 거.(이녁 땅에 온 거.)
112046 @ 온 거예? 그게 한 얼마쯤 잇다가마씸?(온 거요? 그게 한 얼마쯤 있다가요?)
112046 #2 에, 한 삼 년.(에, 한 삼 년.)
112046 @ 삼 년, 그렛구나예.(삼 년, 그랬군요.)
112046 #2 겨고, 그 때 삼 년 헤도 그때도 완전히 그 폭도들이 다 씨지질 아녀니까.(그리고, 그 때 삼 년 해도 그때도 완전히 그 폭도들이 다 씨지질 안하니까.)
112046 @ 예.(예.)
112046 #2 멀리 가질 못하게 헨, 우리 아버지 바로 여기 모셔놧는디.(멀리 가질 못하게 해서, 우리 아버지 바로 여기 모셔놓았는데.)
112046 @ 기꽈?(그래요?)
112046 #2 여기 모셧단에.(여기 모셨다가.)

112046 @ 예.(예.)

112046 #2 여기 모셧단에, 또 이묘, 저 가족공동묘지 같는디, 우리 형님 바로 여기 모셔놧는데.(여기 모셨다가, 또 이묘, 저 가족공동묘지 갔는데, 우리 형님 바로 여기 모셔놓았는데.)

112046 @ 근데 그 이묘헐 때 보난 그 시신은 어떵 헤십디가?(근데 그 이묘할 때 보니까 그 시신은 어떻게 됐었나요?)

112046 #2 시신은 시신 궨찬은 거 달만게.(시신은 시신 괜찮은 거 닮았어.)

112046 @ 그냥 ᄀᆞ진 채 이섯수과?(그냥 말짱한 체 있었습니까?)

112046 #2 아니, ᄀᆞ진 챈 엇고.(아니, 말짱한 채는 아니고,)

112046 @ 그냥 백골 뒈부런마씨?(그냥 백골 돼버렸나요?)

112046 #2 응. 근데 우리 고조부님.(응. 근데 우리 고조부님.)

112046 @ 예.(예.)

112046 #2 고조부님 산소엔 간에, 이묘하면서 장의사들이 자기 그런 시체 절대 안 보고라고 허더라.(고조부님 산소엔 가서, 이묘하면서 장의사들이 자기 그런 시체 절대 안 보았다고 하더라.)

112046 #3 좋안?(좋아서?)

112046 #2 어.(어.)

112046 #3 아녈 디 헤저신게.(안할 데 해졌네.)

112046 @ 음.(음.)

112046 #2 아, 우리 고조부님은 우리 모셔온디 젤 웃대주게.(아, 우리 고조부님은 우리 모셔온 데 젤 윗대지.)

112046 @ 예, 예.(예, 예.)

112046 #2 겐 저 나 오 대, 오 대 뭔 거 아니라.(그러니 저 내가 오 대, 오 대된 거 아니야.)

112046 @ 예.(예.)

112046 #2 고조민. 건디 뼈다귀가 밧즉 고대로 이시니깐.(고조면. 그런데 뼈다귀가 바짝 그대로 있으니깐.)

112046 @ 몇 년쯤 난 헤신디마씨?(몇 년쯤 지나서 했는데요?)

112046 #2 멧 년인지 모르지.(몇 년인지 모르지.)

112046 @ 고대니깐 혼 백년은 뒈시켜예?(고대니깐 한 백년은 됐겠네요?)

112046 #2 경 뒈엇지.(그렇게 되었지.)

112046 @ 백년 뒈도예? 그다음엔.(백년 되도요? 그다음엔.)

112046 #3 하르방 본디가 백 년 뒛주 이제야.(할아버지 본데가 백 년 됐지 이제야.)

112046 #2 게메 하르방 나 본데가.(그러게 할아버지 내가 본지가.)

112047 @ 그다음에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저기 상복을 완벽하게 다 벗은 때는 몇 년 언제 다 벗엇수과?(그다음에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저기 상복을 완벽하게 다

벗은 때는 몇 년 언제 다 벗었습니까?)

112047 #2 아니, 우리헐 때는 삼년 상제는 삼년상 끗나야지.(아니, 우리할 때는 삼년 상제는 삼년상 끝나야지.)

112047 @ 끗나야 헷구나예?(끝나야 했군요.)

112047 #2 거난 삼년상이엔 허민 헷수는 이 년이주게.(그러니 삼년상이라고 하면 햇수는 이 년이지.)

112047 @ 예. 헷수는 이 년.(예. 햇수는 이 년.)

112047 #2 일 년 두에사 소상이고 이 년 후에 대상이난 헷수는 이 년이고 삼년 상이엔 헨 게 헷수는 이 년.(일 년 뒤에야 소상이고 이 년 후에 대상이니까 햇수는 이 년이고 삼 년 상이엔 한 게 햇수는 이 년.)

112047 @ 아, 경헨 대상 때 제사 헤난 다음엔 상복도 벗엇구나예?(아, 그렇게 해서 대상 때 제사 하고난 다음엔 상복도 벗었군요?)

112047 #2 어. 저 복친은 소상 때 벗고.(어. 저 유복지친은 소상 때 벗고.)

112047 @ 복친은예 소상 때 벗고예?(유복지친은요 소상 때 벗고요?)

112047 #2 어.(어.)

112047 #3 사위도 소상에 벗고.(사위도 소상에 벗고.)

112048 @ 아, 기구나예? 그다음엔 이제 장례식이랑 뭐 이런 제사랑 전반적으로 헤 가지고 특히 장례식하고 대상 때까지 그 특별하게 금하는 건 엇엇수과?(아, 그렇군요? 그다음엔 이제 장례식이랑 뭐 이런 제사랑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특히 장례식하고 대상 때까지 그 특별하게 금하는 건 없었습니까?)

112048 #2 금하는 거 엇주게.(금하는 거 없지.)

112048 @ 금하는 거 뭐 그때 대상까지는 뭐 결혼을 자녀들 안 시킨다든가?(금하는 거 뭐 그때 대상까지는 뭐 결혼을 자녀들 안 시킨다든가?)

112048 #2 경도 헤나신가?(그렇게도 했었나?)

112048 #3 엿날에 경 헤서.(옛날에 그렇게 했어.)

112048 #2 거, 몰라.(거, 몰라.)

112048 #3 엿날에 경 헤난.(옛날에 그렇게 했었어.)

112048 #2 경 헤낫젠 헴신게.(그렇게 했었다고 하네.)

112048 #3 상제뒈민 결혼 안 시켜, 엿날에. 경헷젠 말 들엇주. 우리 홀 때는 그런 말이 엇엇는디.(상제되면 결혼 안 시켜, 옛날에. 그렇게 했다고 말 들었지. 우리 할 때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112048 @ 음.(음.)

112048 #3 몰랏는디 줴인 뒈영.(몰랐는데 죄인 되어서.)

112048 #2 아, 게 이 상제가 줴인이에는 허주.(아, 그 이 상제가 죄인이라고는 하지.)

112048 #3 어멍이나 아방이나 죽으민 결혼 안 시킨덴 헤낫어.(어머니나 아버지나 죽으면 결혼 안 시킨다고 했었어.)

112048 @ 음.(음.)

112048 #3 경헐 때가 이섯주.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안 봣고.(그렇게 할 때가 있었지.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안 봤고.)

112048 @ 엇고예? 이제 ᄒᆞ끔 지처도 쪼끔 더 헤불게예? 이제는 장례식 헤근에 대상까지 마처서예.(없고요? 이제 조금 지쳐도 쪼끔 더 해버리게요? 이제는 장례식 해서 대상까지 마쳤어요.)

112048 #3 응.(응.)

112048 #2 하하하하.

제례

112049 @ 이제는 제사 하는 거에 대헤서 저가 여쭤보쿠다예. 제사 준비는 어떵 헴수과? 이젠 큰아들안티 줘불어도.(이제는 제사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사 준비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젠 큰아들한테 줘버려도.)

112049 #3 응.(응.)

112049 @ 큰아들 주기 전에 제사 준비.(큰아들 주기 전에 제사 준비.)

112049 #3 준비난 희엿주만은 제사 멋, 넬 제사민 멋 오널 쏠 컷당.(준비는 했지만 제사 뭣, 내일 제사면 뭣 오늘 쌀 컸다가.)

112049 @ 예, 쏠 컷당.(예, 쌀 컸다가.)

112049 #3 넬 아침은 그거를 아휴! 어려왓주. 남원[336]이도 엇언 서귀포를 전 강 떡 헤여 오랑.(내일 아침은 그거를 아휴! 어려웠지. '남원'에도 없어서 서귀포를 지고 가서 떡 해 와서.)

112049 @ 예.(예.)

112049 #3 떡 ᄌᆞ물앙 ᄎᆞᄎᆞ 떡이영 무시거영 출려당 그날 저녁에 영 제서.(떡 저물도록 차차 떡이랑 무엇이랑 차려다가 그날 저녁에 이렇게 제사.)

112049 @ 다 걸어갓당 걸어 왓당예?(다 걸어갔다가 걸어왔다가?)

112049 #3 응.(응.)

112049 @ 아, 우리 삼춘 진짜 나쁘다.(아, 우리 삼촌 진짜 나쁘다.)

112049 #3 아방[337] 몰라.('아버지' 몰라.)

112049 @ 게난.(그러니까.)

112049 #3 아이고, 아방 몰라.(아이고, '아버지' 몰라.)

112049 @ 음.(음.)

112049 #3 다 출려놔시민 제 지넵서 ᄒᆞ영ᄒᆞ민 ᄒᆞ는 거 뿐.(다 차려놓았으면 제 지네세요 해서하면 하는 거 뿐.)

112049 @ 음.(음.)

112049 #3 우리 집잇 아방은 무시거 신처리.(우리 집의 '아버지'는 무엇이 있는

336) '남원'은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를 말한다.
337) '아방'은 아버지를 말하나 여기서는 '남편'을 뜻한다.

줄.)

112049 #2 아니 겨고, 나는 차를 원 안 가져나니깐, 차 이시민 그런 거 모션 뎅기고 허주만은 그런 거 생각 아녀니까.(아니 그리고, 나는 차를 원 안 가져나서, 차 있으면 그런 거 모셔 다니고 하지만 그런 거 생각 않으니까.)

112049 #3 아니, 그때 우리 헐 땐 차가 엇엇주.(아니, 그때 우리 헐 땐 차가 없었지.)

112049 @ 차가 엇엇어. 예, 맞아예.(차가 없었어. 예, 맞아요.)

112049 #3 차 엇어.(차 없어.)

112049 #2 아니, 그 후예.(아니, 그 후에.)

112049 @ 예.(예.)

112049 #2 우리 벗들이.(우리 벗들이.)

112049 @ 예.(예.)

112049 #2 그 차 운전은 전부 헨디.(그 차 운전은 전부 했는데.)

112049 @ 예.(예.)

112049 #2 아, 그때 생각에 이제 나 차사근엥에 차탕 어디가리 경 들더라고. 근데 갈 데 어성, 나 이제는 나도 좀 분회장도 헤보고 헌디, 어디 영 가젠 헤, 그땐 후훼 나더라고.(아, 그때 생각에 이제 내가 차사서 차타서 어디가리 그렇게 들더라고. 근데 갈 데 없어, 나 이제는 나도 좀 분회장도 해보고 하는데, 어디 이렇게 가려고 해, 그땐 후회가 되더라고.)

112049 @ 차 없는 거예.(차 없는 거요.)

112049 #2 면허증이 엇는데 어떵 헤여.(면허증이 없는데 어떻게 해.)

112049 #3 이젠 다 늙으난 경 헤근엥에.(이젠 다 늙어서 그렇게 해서.)

112049 #2 건디 이젠.(그런데 이젠.)

112049 #3 무시거게.(무엇을.)

112049 #2 영 것 우리 우리연녕에 걸엉뎅기는 사름이 엇거든.(이렇게 그것 우리 우리연령에 걸어서 다니는 사람이 없거든.)

112049 @ 맞수다.(맞습니다.)

112049 #2 게난 우린 걸엉 뎅기난 운동은 뒈는 거 닮아.(그러니 우린 걸어서 다니니까 운동은 되는 거 같아.)

112049 @ 맞수다. 진짜, 거난 건강하게 사셧주게.(맞습니다. 진짜, 그러니 건강하게 사셨지요.)

112050 #3 탕, 탕 메물탕쉬[338]ᄒᆞ곡.(탕, 탕 '메물탕쉬'하고.)

112050 @ 예.(예.)

112050 #3 고사리도 숨곡.(고사리고 삶고.)

112050 @ 예.(예.)

338) '메물탕쉬'는 '탕쉬, 탕수, 메밀, 츠무새, 채소' 등으로 불리는데 '제사에 쓰기 위하여 삶은 고사리나 콩나물 따위에 기름, 깨 등을 쳐서 만든 음식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112050 #3 메물탕쉬ᄒᆞ곡 묵ᄒᆞ곡, 궤기 굽곡.('메물탕쉬'하고 묵하고, 고기 굽고.)

112050 @ 예.(예.)

112050 #3 저 겡ᄒᆞ곡.(저 갱하고.)

112050 @ 예.(예.)

112050 #3 밥헤영 그자 올렷당, 과일 ᄀᆞ튼 거 술헤고 감주 우런 거 헷다근에 제 지날라는 거주. 원 꼭 ᄀᆞ튼 거.(밥해서 그자 올렸다가, 과일 같은 거 술하고 감주 우린 거 했다가 제 지내려는 거지. 원 꼭 같은 거.)

112051 @ 그다음엔 그 제 지넬 때 꼭 올리는 게 콩나물이잖아예?(그다음엔 그 제 지낼 때 꼭 올리는 게 콩나물이잖아요?)

112051 #3 응.(응.)

112051 @ 그 콩나물은 어떵 준비헷수과?(그 콩나물은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112051 #3 콩ᄂᆞ물은 콩에 놓앗당 키와.(콩나물은 콩에 놓았다가 키워.)

112051 @ 예.(예.)

112051 #3 경 헨 헷주마.(그렇게 해서 했지 뭐.)

112051 #2 제주도에서 떨어전 고사리. 고사리 제주도에선 절대 안 떨어져.(제주도에서 빠져 고사리. 고사리 제주도에선 절대 안 빠져.)

112051 @ 절대 안 떨어졋지예? 고사리예?(절대 안 빠졌지요? 고사리요?)

112051 #2 일단 육지서는 거 아인디 여기는 고사린 꼭.(일단 육지서는 그거 아닌데 여기는 고사린 꼭.)

112052 @ 그다음엔 적 적 종류, 뭐 돼지고기니 쉐고기니 바닷고기는 어떵 준비헷수과?(그다음엔 적 적 종류, 뭐 돼지고기니 쇠고기니 바닷고기는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112052 #3 바닷궤기 바닷궤기는 솔라니.(바닷고기 바닷고기는 옥돔.)

112052 @ 예.(예.)

112052 #3 저, 적갈은 뭐 그 뒈아지고기.(저, 적은 뭐 그 돼지고기.)

112052 @ 예.(예.)

112052 #3 소고기, 갈치적도 헤나고 경 헹 ᄒᆞ는 거.(소고기, 갈치적도 했었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

112052 #2 건디 우리 두린 때 보믄, 우리 어머니네는 저 적차룽[339]헨 차룽헌 차반디가 있는데.(그런데 우리 어린 때 보면, 우리 어머니네는 저 적채롱해서 채롱한 채롱이 있는데.)

112052 @ 예.(예.)

112052 #2 미릇 고기를 바릇고기는 사다근엥에 말령 딱 보관헹 나두거든.(미리 고기를 바닷고기는 사다가 말려서 딱 보관해서 놔두거든.)

112052 @ 맞수다.(맞습니다.)

112052 #3 그런 것에 두께 맞은 것에 엿날에 그거.(그런 것에 뚜껑 맞는 것에

339) '적차룽'은 '제의 때 적을 담아 두는 채롱'을 말한다.

옛날에 그거.)

112052 #2 게난 지금 이에 지금 뭐 절이면 뒈며는, 그전은 일 년 전에 거 사다 근에 저기 뭐 말령 몰령 그대로 딱 보관헤 나도난.(그러니 지금 이에 지금 뭐 절이면 되면, 그전은 일 년 전에 거 사다가 저기 뭐 말려서 말려 그대로 딱 보관해 놓아두었어.)

112053 @ 아까 저건 저기 쉐고기적하고 돼지고기적하고 갈치적도 헤서마씨?(아까 저건 저기 쇠고기적하고 돼지고기적하고 갈치적도 했어요?)

112053 #3 응. 갈치적도 헤나서.(응. 갈치적도 했었어.)

112053 @ 그다음에 적으로는 그 갈치적 말고 또 다른 거 뭐 이섯수과?(그다음에 적으로는 그 갈치적 말고 또 다른 거 뭐 있었습니까?)

112053 #3 아니 잘사는 사름은 하간 거 바닷궤기로도 적ᄒᆞ곡 무시거 허엿주만은 나 혜난 건 그것만.(아니 잘사는 사람은 여러 가지 거 바닷고기로도 적하고 무엇 하였지만 내가 했던 건 그것만.)

112053 @ 거 적도 다 여자 삼춘이 헷수과?(그거 적도 다 여자 삼춘이 했습니까?)

112053 #3 아니, 그 시철엔 이 저 적 혜영 굽곡 썰엉 영 궤는 거는 나만ᄒᆞᆯ 때 이 하르방[340]이 허엿고.(아니, 그 시절엔 이 저 적 해서 굽고 썰어서 이렇게 꿰는 거는 나만할 때 이 '할아버지'가 했고.)

112053 @ 예.(예.)

112053 #3 씨아지방들 시난 씨아지방이 건 남자가 헤줘서 그때.(시아주버니들 있으니 시아주버니 그건 남자가 해줬어 그때.)

112053 @ 경헷지예?(그랬지요?)

112053 #3 응. 적ᄒᆞ는 건 나 아네연. 나 그때.(응. 적하는 건 내가 안 했어. 내가 그때.)

112054 @ 아까 떡은 이제 그전에 저기 떡 물어볼 때 떡이 다섯 가지하고 여섯 가지가 이섯잖아예? 제사헐 때는 몇 가지헷수과?(아까 떡은 이제 그전에 저기 떡 물어볼 때 떡이 다섯 가지하고 여섯 가지가 있었잖아요? 제사할 때는 몇 가지했습니까?)

112054 #3 저, 무시거게.(저, 뭐야.)

112054 @ 예.(예.)

112054 #3 저, 그.(저, 그.)

112054 #2 제사헐 때는 멩질에 똑 ᄀᆞ트주 무신.(제사할 때는 명절에 똑 같지 무슨.)

112054 #3 똑 ᄀᆞ타.(똑 같아.)

112054 #2 상에 올리는 건 똑 ᄀᆞ타.(상에 올리는 건 똑 같아.)

112054 #3 상에 올리는 거 솔펜[341], 절벤.(상에 올리는 거 '솔펜', 절편.)

---

340) '하르방'은 할아버지를 뜻하나 여기서는 남편을 말한다.

112054 @ 예. 솔펜, 절벤.(예. ‘솔펜’, 절편.)
112054 #3 인절미.(인절미.)
112054 @ 예. 인절미.(예. 인절미.)
112054 #3 약, 약궤.(약, 약과.)
112054 @ 예. 약궤.(예. 약과.)
112054 #3 약, 그건 약궤, 중궤는 저 삼년상 ᄐᆞ루.(약, 그건 약과, 중계는 저 삼년상 따로.)
112054 #2 거 약궤, 중궤는 ᄯᅳ루 올려. ᄯᅳ루 올리는 거라.(그거 약과, 중계는 따로 올려. 따로 올리는 거야.)
112054 #3 제서에는 제서에는 그런 그건 아녀고 다슷 가지만.(제사에는 제사에는 그런 그건 안 하고 다섯 가지만.)
112054 #2 약궤, 중궤는 별도라.(약과, 중계는 별도야.)
112054 @ 응.(응.)
112054 #3 응. 솔펜 응. 다슷 가지만 침 시릿떡, 솔펜, 절벤, 인절미.(응. ‘솔펜’ 응. 다섯 가지만 침 시루떡, ‘솔펜’, 절편, 인절미.)
112054 @ 예.(예.)
112054 #1 저 우찍, 다섯 가지.(저 웃기떡, 다섯 가지.)
112054 #2 육지는 ᄃᆞᆨ궤기 올린덴 헤라.(육지는 닭고기 올린다고 하더라.)
112054 @ 음.(음.)
112054 #3 네붑서게.(내버리세요.)
112055 @ 그다음엔 과일은 뭐, 뭐 준비헷수과?(그다음엔 과일은 뭐, 뭐 준비했습니까?)
112055 #3 과일은 사과.(과일은 사과.)
112055 @ 예.(예.)
112055 #3 밀감은 원 신 거난 밀감.(밀감은 원 있는 거니까, 밀감.)
112055 @ 예.(예.)
112055 #3 베, 그런 거.(배, 그런 거.)
112056 @ 체소는마씨? 아까 콩나물 잇고 고사리 잇고.(채소는요? 아까 콩나물 있고 고사리 있고.)
112056 #3 콩ᄂᆞ물, 고사리 그 무시거 무시거라 저.(콩나물, 고사리 그 무엇 무엇이야 저.)
112056 @ 호박?(호박?)
112056 #3 잡체.(잡채.)
112056 @ 잡체.(잡채.)
112056 #3 호박도 허여낫고.(호박도 하였었고.)

341) ‘솔펜’은 ‘쌀가루나 메밀가루를 반죽하여 얇게 민 다음 반달모양의 떡살로 떠서 끓는 물에 삶거나 겅그레 위에서 찐 떡을 말하며, ‘솔벤, 솔변, 수랑곤떡’이라고도 한다.

112056 @ 호박도 헤낫고예?(호박도 하였고요?)
112056 #3 응.(응.)
112056 #2 잡체허민.(잡채하면.)
112056 @ 시금치 같은 건 안 헷수과?(시금치 같은 건 안했습니까?)
112056 #3 그런 것도 ᄒᆞ고.(그런 것도 하고.)
112056 @ 시금치도 허고예.(시금치도 하고요.)
112056 #3 잡체ᄒᆞ민 그런 것에 시금치 다 들어가지.(잡채하면 그런 것에 시금치 다 들어가지.)
112056 #2 잡체, 잡체 허민 그런 거 다 들어.(잡채, 잡채하면 그런 거 다 들어.)
112056 @ 혹시 무체는 안 헷수과?(혹시 무채는 안 했습니까?)
112056 #3 아년.(안 했어.)
112056 @ 무체는 안 헷수과?(무채는 안 했습니까?)
112056 #3 응. 잡체ᄒᆞ며는 시금추 다 들어가는 거 잡체에.(응. 잡채하면 시금치 다 들어가는 거 잡채에.)
112056 @ 잡체에 시금치 다 들어가면 시금친 별도로 안 헷수과?(잡채에 시금치 다 들어가면 시금친 별도로 안 했습니까?)
112056 #3 아년. ᄯᅮ룬 아년.(안 했어. 따로는 안 했어.)
112056 @ 아, 제사 때도 잡체 헷구나예.(아, 제사 때도 잡채 했군요.)
112056 #3 응. 잡체 혀. 잡체게 거 무시거.(응. 잡채 해. 잡채야 거 무엇.)
112056 #2 겐디 명확허게 허면 딱 세 가지 허주게 하나.(그런데 명확하게 하면 딱 세 가지 하지, 하나.)
112056 #3 경ᄒᆞ민 거리는 거도 체소.(그러면 뜨는 것도 채소.)
112056 @ 음.(음.)
112056 #3 체소 세 접시. 세 개만 생각헹 거리는 거라.(채소 세 접시. 세 개만 생각해서 거리는 거야.)
112056 @ 음.(음.)
112056 #3 하간 거, 잡체도 ᄒᆞᆫ 그릇, 콩ᄂᆞ물 ᄒᆞᆫ디 서껑.(모든 거, 잡채도 한 그릇, 콩나물을 같이 섞어.)
112056 @ 음.(음.)
112056 #3 고사리. 묵메몰[342]이엔 헹 체소가 세 접시만 만드는 거. ᄒᆞᆫ디 서꺼도.(고사리. '묵메몰'이라고 해서 채소가 세 접시만 만드는 거. 같이 섞어도.)
112056 @ 음.(음.)
112056 #3 경헹 세 개만.(그렇게 해서 세 개만.)
112056 @ 음.(음.)
112056 #3 세 개 넘어 아니 만드는 거.(세 개 넘어 안 만드는 거야.)

342) '묵메몰'은 '메물탕쉬'와 마찬가지로 '탕쉬, 탕수, 메밀, ᄎᆞ무새, 채소' 등으로 불리는데 '제사에 쓰기 위하여 삶은 고사리나 콩나물 따위에 기름, 깨 등을 쳐서 만든 음식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112056 @ 음.(음.)
112056 #3 흔 그릇에만 거려비어. 체소 세 접시.(한 그릇에만 떠버려. 채소 세 접시.)
112056 #2 엿날부터 절략험으로 경헤낫주게.(옛날부터 절약함으로 그랬었지.)
112056 #3 아니, 아니 체소.(아니, 아니 채소.)
112056 #2 아, 엿날부터 엇어부난 경헨 거난 경 절략헨 거지.(아, 옛날부터 없어서 그렇게 한 거니까 그렇게 절약한 거지.)
112056 @ 음.(음.)
112056 #3 아니, 아니 체소 세 접시.(아니, 아니 채소 세 접시.)
112057 @ 진설은 게 누가 올렷수과?(진설은 그럼 누가 올렸습니까?)
112057 #3 어?(어?)
112057 @ 진설.(진설.)
112057 #3 진설 무시거?(진설 뭐?)
112057 @ 상에 올리는 거.(상에 올리는 거.)
112057 #3 아, 상에 올리는 사름은 이디 남저들이 ᄒᆞ주.(아, 상에 올리는 사람은 여기 남자들이 하지.)
112057 @ 음.(음.)
112057 #3 우리 집은 큰아들이.(우리 집은 큰아들이.)
112057 #2 요즘.(요즘.)
112058 @ 그다음에 메하고 겡은 누가 뗫수과?(그다음에 매하고 갱은 누가 떴습니까?)
112058 #3 누게가 떠, 메누리 ᄒᆞ주.(누가 떠, 며느리가 하지.)
112058 @ 메누리 헷지예.(며느리가 했지요.)
112058 #3 응.(응.)
112059 @ 그다음엔 헌관 잇잖아예? 헌관. 그 저 집사렌 합니까? 그 제사할 때.(그다음엔 헌관 있잖아요? 헌관. 그 저 집사라고 합니까? 그 제사할 때.)
112059 #2 집사는 그 저 영 무시거 잡식ᄒᆞ는 거ᄀᆞ라 집사렌.(집사는 그 저 이렇게 무엇 제반하는 거보고 집사라고.)
112059 @ 거 헌관은 누가 헷수과?(그 헌관은 누가 했습니까?)
112059 #2 헌관은 저 제사 지내는 사름이 초하, 제사 치루는 사름.(헌관은 저 제사 지내는 사람이 초하, 제사 치르는 사람.)
112059 @ 예.(예.)
112059 #3 그디.(거기.)
112059 #2 그 다음에는 아하는 그디허믄 집지으믄 그 가지에서 종손 시믄, 그 그다음 허고.(그 다음에는 아하는 거기하면 집지으면 그 가지에서 종손 있으면, 그 그다음 하고.)
112059 @ 예.(예.)

112059 #2 그데음은 그 그아이 여녕ᄎᆞ레로 허주, 우로. 게근엥에 그 아이가 허믄.(그다음은 그 그 아이 연령차례로 하지, 위로.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하면.)

112059 @ 헌관에는 아까 초관 잇고?(헌관에는 아까 초관이 있고?)

112059 #2 초헌, 아헌.(초헌, 아헌.)

112059 @ 아, 초헌.(아, 초헌.)

112059 #2 어, 초헌, 아헌, 종헌.(어, 초헌, 아헌, 종헌.)

112059 @ 초헌 잇고 아헌 잇고예.(초헌 있고 아헌 있고요.)

112059 #2 종헌.(종헌.)

112059 @ 종헌 잇고예. 음, 거믄 초 아까 초헌은 누가 헌덴 헷수과?(종헌 있고요. 음, 그러면 초 아까 초헌은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112059 #2 주인, 주인.(주인, 주인.)

112059 @ 아, 주인.(아, 주인.)

112059 #2 제 지낼 사름.(제 지낼 사람.)

112059 @ 처헌?(처헌?)

112059 #2 초헌.(초헌.)

112059 #3 큰아덜.(큰아들.)

112059 @ 초혼은.(초헌은.)

112059 #2 이제 제 출리는 사람.(이제 제 차리는 사람.)

112059 @ 예. 주인이하고예. 그다음 아헌은 누가 헷수과? 아헌.(예. 주인이하고요. 그다음 아헌은 누가 했습니까? 아헌.)

112059 #2 아헌은 그다음 저 그디서 제일.(아헌은 그다음 저 거기서 제일.)

112059 #3 ᄎᆞ례.(차례.)

112059 #2 그 다음 그디서 ᄎᆞ례로 저 가까운 사름.(그 다음 거기서 차례로 저 가까운 사람.)

112059 #3 두 번째.(두 번째.)

112059 @ 음.(음.)

112059 #2 건디 ** 만약에 저 삼 형제믄 초헌은 큰아덜, 아헌은 셋아덜, 종헌은 족은 아덜, 영 뒈는 거주게.(그런데 ** 만약에 저 삼 형제면 초헌은 큰아들, 아헌은 둘째아들, 종헌은 작은아들, 이렇게 되는 거지.)

112059 @ 음.(음.)

112059 #2 경 뒈는 거.(그렇게 되는 거야.)

112059 @ 음.(음.)

112059 #2 게난 그디 아덜덜이 ᄋᆞ라 성제 엇인 딘 다 촌수로 헤근에 가까운 촌 허주만은.(그러니 거기 아들들이 여러 형제 없는 데는 다 촌수로 해서 가까운 촌 하지만.)

112059 @ 아, 이실 땐 그런 식으로예.(아, 있을 땐 그런 식으로요.)

112059 #2 게.(그래.)

112059 @ 음.(음.)

112059 #2 우선 큰아덜 초헌, 둘째 아덜은 아헌.(우선 큰아들 초헌, 둘째 아들은 아헌.)

112059 @ 음.(음.)

112059 #3 경헌디 그런 것도 이서. 저 이디 경 삼 삼댄디 세 사름이 절ᄒᆞ게 뒈어도 웨방서 손지가 웨손.(그렇긴 한데 그런 것도 있어. 저 여기 그렇게 삼대인데 세 사름이 절하게 되어도 외방서 손지가 외손.)

112059 @ 예.(예.)

112059 #3 웨손이나 사위나 오면 그디 삼헌에 허는 디 세와주는 거라.(외손이나 사위나 오면 거기 삼헌에 하는 데 세워주는 거야.)

112059 @ 음.(음.)

112059 #2 건, 요세 대우지.(그건 요새 대우지.)

112059 @ 음, 대우로.(음, 대우로.)

112059 #3 응. 대우로 걸 세와주는 거. 이서도 이녁 집이 사름 빠여동.(응. 대우로 그걸 세워주는 거. 있어도 이녁 집의 사람 빼두고.)

112059 @ 음.(음.)

112059 #3 영 세와주는 거.(이렇게 세워주는 거.)

112060 @ 게 파제는 언제 헷수과? 파제 몇 시에?(그 파제는 언제 했습니까? 파제 몇 시에?)

112060 #3 아이고, 이젠 ᄒᆞ구젱 헌양 헴주.(아이고, 이젠 하고 싶은 대로 하지.)

112060 #2 요세는.(요새는.)

112060 @ (옛날 옛날에.)

112060 #2 옛날엔 저 ᄒᆞᆫ 시 뒈야. 원래 제는 이르는 거주게.(옛날엔 저 한 시 돼야. 원래 제는 이르는 거지.)

112060 @ 파제를예?(파제를요?)

112060 #2 제사를.(제사를.)

112060 @ 아, 제사를예.(아, 제사를요.)

112060 #2 이 셋 날 도** 헌 따문에 듯날 ᄒᆞᆫ 시 뒈야 허는데.(이 셋 날 도** 한 때문에 뒷날 한 시 돼야 하는데.)

112060 @ 예.(예.)

112060 #2 원칙은 열두시 넘으믄 ᄒᆞᆫ 시니까.(원칙은 열두시 넘으면 한 시니까.)

112060 @ 예.(예.)

112060 #2 거믄 헤근엥에 거 제 끗나믄 파제허주.(그러면 해서 그거 제 끝나면 파제하지.)

112060 @ 파제헷구나예, 아이고, 거 요즘은 멧 시에 헴수과?(파제했군요, 아이고, 거 요즘은 몇 시에 하십니까?)

112060 #2 요즘은 ᄒᆞᆫ웃어. 붉을 때 헤부는 사름도 잇는데.(요즘은 한없어. 밝을

때 해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112060 #2 하하하. 요센 ᄒᆞ구중 ᄒᆞᆫ들 헴서.(하하하. 요샌 하고 싶은 대로 해.)

112061 @ 그 문전제는 어 어떻게 지넴수과? 문전제. 지금도 문전젠 헴덴 헷잖아예?(그 문전제사는 어, 어떻게 지내십니까? 문전제사. 지금도 문전제사는 한더고 했잖아요?)

112061 #2 문전제? 저녁에 직전.(문전제사? 저녁에 직전.)

112061 @ 저녁 직전?(저녁 직전.)

112061 #2 아니, 아니. 제헤기 직전.(아니, 아니. 제사하기 직전.)

112061 @ 아, 제헤기 전에예.(아, 제사하기 전에요.)

112061 #2 응. 문제는 ᄆᆞᆫ저 허주.(응. 문전제사는 먼저 하지.)

112061 @ 문전제 헤나면 문전제 찰려놔근에 거 거둔 다음에 제를 지넷수과 아니면 놔 둔 다음에 그냥 제를.(문전제사 하고나면 문전제사 차려놓아서 그거 거둔 다음에 제를 지냈습니까 아니면 놓아둔 다음에 그냥 제사를.)

112061 #2 아니 걷어, 걷어.(아니 걷어, 걷어.)

112061 @ 아, 거둔 다음에 아.(아, 거둔 다음에 아.)

112061 #2 거 젯자리엔 헨 절허는 자리가 잇주게. 거것을 옮겨야 하니까.(그 제사자리라고 해서 절하는 자리가 있지. 그것을 옮겨야 하니까.)

112061 @ 아 경헷구나예.(아, 그랬군요.)

112062 @ 거 제반은 거 저기 제사 지네기 전에 문전제 거 다 제반 헤 놓고, 제반 지냈다는 제사 지넷다는 말이잖아예.(그거 제반은 거 저기 제사 지내기 전에 문전제사 거 다 제반 헤 놓고, 제반 지냈다는 제사 지냈다는 말이잖아요.)

112062 #2 아, 문전제 헤난 건 제 지네분건 다 치와버려야 뒈.(아, 문전제사 했던 건 제 지내버린 건 다 치워버려야 돼.)

112062 @ 치와불고예?(치워버리고요.?)

112063 @ 어. 그다음엔 그 지제 잇잖아예.(어. 그다음엔 그 지제 있잖아요.)

112063 #3 응.(응.)

112063 @ 그 제사를 마치는 거.(그 제사를 마치는 거.)

112063 #3 응.(응.)

112063 @ 지제는 몇 대까지 끗넷수과?(지제는 몇 대까지 끝냈습니까?)

112063 #2 지제는 거 집안에 딸라근에 ᄒᆞᆫ읏어.(지제는 거 집안에 따라서 한없어.)

112063 @ 삼춘네는마씨.(삼촌네는요.)

112063 #2 우리는 지금 우리 아덜의 증조까지 하고 잇주게.(우리는 지금 우리 아들의 증조까지 하고 있지.)

112063 @ 예.(예.)

112063 #2 그 전에 하면 고조.(그전에 하면 고조.)

112063 @ 예.(예.)

112063 #2 고조까지 하는데 고조도 고손 나믄 설러근에, 지금 우리 손지가 고손이란 말이여.(고조까지 하는데 고조도 고손 낳으면 끝내서, 지금 우리 손자가 고손이란 말이야.)

112063 @ 예.(예.)

112063 #2 지금 우리 아덜 제사하는 게, 우리 손지는 고손이주게.(지금 우리 아들 제사하는 게, 우리 손자는 고손이지.)

112063 @ 예, 예.(예, 예.)

112063 #2 거난 우리 지금 우리 손지가 고손인디 지금 제를 하고 잇주. 이렌 어찌 고손인디 거 끗나.(그러니 우리 지금 우리 손자가 고손인데 지금 제사를 하고 있지. 이렌 어찌 고손인데 거 끝나지.)

112063 @ 고손으로 끗날 거예.(고손으로 끝날 거지요.)

112063 #2 고손인디.(고손인데.)

112063 @ 고손 뒈면은 마치는 거. 게도 경 마청 지제올리고 헙니까? 아직 지제는 안 올련마씨?(고손 되면 마치는 거. 그래도 그렇게 마쳐서 지제올리고 합니까? 아직 지제는 안 올렸나요?)

112063 #3 안 올련.(안 올렸어.)

112063 #2 아, 지제는 허믄 지제 거 저 축 고헤불믄 그러부턴 제 아녀는 거난.(아, 지제는 하면 지제 거 저 축 고해버리면 그 후부터는 제 안 하는 거니까.)

112063 @ 건디 만일에 고 한 다음에, 제 안올리면 막 뭔가 찝찝한 마음 안 들어마씨?(그런데 만일에 고 한 다음에, 제 안올리면 막 뭔가 찝찝한 마음 안 들어요?)

112063 #3 아직 아녀보난.(아직 안 해봐서.)

112064 @ 안 헤보난예? 음, 그러면 그 저 제사 끗나잖아예? 그럼 그 다음날 묘제를 가잖아예?(안 해봐서요? 음, 그러면 그 저 제사 끝나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봉분제를 가잖아요?)

112064 #3 응.(응.)

112064 @ 묘제는 어떤 식으로 헷수과?(봉분제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112064 #2 묘제?(봉분제?)

112064 @ 예.(예.)

112064 #2 묘제는 여기는 묘제가 있는디 또 이 제주시 쪽엔 묘제가 시제라.(봉분제는 여기는 봉분제가 있는데 또 이 제주시 쪽엔 봉제가 시제라.)

112064 @ 수망리 수망리에서는 묘제는 어떵 헷수과?('수망리' '수망리'에서는 봉분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112064 #2 묘제는 봄에 허주게.(봉분제는 봄에 하지.)

112064 @ 아니, 아니 제사 하면 제삿날.(아니, 아니 제사 하면 제삿날.)

112064 #2 건 묘제가 아니지.(건 봉분제가 아니지.)

112064 @ 아.(아.)

112064 #2 묘제는 묘에 가서 하는 게 묘제지.(봉분제는 묘에 가서 하는 게 봉분제지.)

112064 @ 예. 그니까 제삿날 제사 끝나면 다음날 밝으면 그 제사음식 가저근에 묘에 강 제사 지네는디 여긴 안헤마씨?(예. 그니까 제삿날 제사 끝나면 다음날 밝으면 그 제사음식 가져서 묘에 가서 제사 지내는데 여긴 안하나요?)

112064 #3 아녀.(안 해.)

112064 #2 우린 그거.(우린 그거.)

112064 @ 아, 저가 질문한 묘제는 어떵 헷수과 물어보는 거예?(아, 제가 질문한 봉분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112064 #3 아녀.(안 해.)

112064 #2 그런 거 아녀, 묘제는.(그런 거 안 해, 봉분제는.)

112064 @ 묘제는 따로는 그럼 언제 헷수과?(봉분제는 따로는 그럼 언제 했습니까?)

112064 #2 봄에, 봄에.(봄에, 봄에.)

112064 @ 봄에? 봄에 언제마씨?(봄에? 봄에 언제요?)

112064 #2 봄에 청명에도 허는 사름 잇고 건 집안에.(봄에 청명에도 하는 사람 있고 그건 집안에.)

112064 #3 삼월 달 나사.(삼월 달 와야.)

112064 #2 거난.(그러니.)

112064 @ 삼월마씨? 음력 삼월?(삼월이요? 음력 삼월?)

112064 #2 거난 청명이주게.(그러니 청명이지.)

112064 @ 아.(아.)

112064 #2 건디 그 집안에서 그날은 묘제 할 때는 자기네 식구만 가는 게 아니거든.(그런데 그 집안에서 그날은 봉분제 할 때는 자기네 식구만 가는 게 아니거든.)

112064 @ 예.(예.)

112064 #2 그 일가는.(그 일가는.)

112064 @ 다 ᄀᆞ찌?(다 같이.)

112064 #3 방상 거 다 가.('방상' 그거 다 가.)

112064 #2 그 사름 후손은 다 가주게.(그 사람 후손은 다 가지.)

112064 @ 아.(아.)

112064 #2 후손은 다가는 따문에.(후손은 다 가기 때문에.)

112064 #3 다 출령.(다 차려서.)

112064 @ 예.(예.)

112064 #2 날짜를 딱 일가에서 정흐영.(날짜를 딱 일가에서 정해서.)

112064 @ 예.(예.)

112064 #2 메칠 날 딱 정하믄 그날 헤근엥아.(몇 날 딱 정하면 그날 해서.)

112064 @ 아, 경헨 묘제가고 헷구나예.(아, 그렇게 해서 봉분제가고 했군요.)
112064 #2 거난 그 우리는 시제로 헤근에 가을에 허는데, 거난 이 가을엔 가을 음식.(그러니 그 우리는 시제로 해서 가을에 하는데, 그러니 이 가을엔 가을 음식.)
112064 @ 아, 가을에도 헷구나예.(아, 가을에도 했군요.)
112064 #2 가을허믄 시월 달.(가을하면 시월 달.)
112064 @ 아.(아.)
112064 #2 음력 시월 달.(음력 시월 달.)
112064 @ 보통 묘제가 봄, 가을 하는데 저 여기선 삼춘넨 가을에 헷구나예.(보통 봉분제가 봄, 가을 하는데 저 여기선 삼촌네는 가을에 했군요.)
112064 #2 어.(어.)
112065 @ 그 다음엔 제사하고 관련 뒈 가지고 뭔가 금기하는 건 엇엇수과? 금하는 거.(그 다음엔 제사하고 관련 돼 가지고 뭔가 금기하는 건 없었습니까? 금하는 거.)
112065 #3 엇어.(없어.)
112065 @ 음, 예를 든다면 뭐 어디 강 뭐 헌 사름 오지 말고, 이런 건 엇언마씨?(음, 예를 든다면 뭐 어디 가서 뭐 한 사람 오지 말고, 이런 건 없었나요?)
112065 #2 거난에 금허는 건 자기가 무시거 나쁜 거 보난 헌 사름은 아예 자기가 피혜불지.(그러니까 금하는 건 자기가 무엇 나쁜 거 보거나 한 사람은 아예 자기가 피해버리지.)
112065 @ 피혜버리고예?(피해버리고요?)
112065 #2 피혜불지. 거난에 가족도 모르게 살살 피혜불드라고.(피해버리지. 그러니까 가족도 모르게 살살 피해버리더라고.)
112065 #3 그거 헐 땐 저 응, 부정헌 사름은 못가는 거주게.(그거 할 땐 저 응, 부정한 사람은 못가는 거지.)
112065 #2 게난예. 저 본인이 피혜버려야지.(그러니까. 저 본인이 피해버려야지.)
112065 #3 가지 못허는 거.(가지 못하는 거.)
112065 @ 알앗습니다.(알았습니다.)

12. 민간요법

113001 @ 이젠 민간요법에 대헤서 여쭤보겠습니다예. 그 우리가 흔히 옛날에 보민 아이들 막 저 기계충이렌 헤 가지고 막 머리에.(이젠 민간요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우리가 흔히 옛날에 보면 아이들 막 저 기계총이라고 해 가지고 막 머리에.)
113001 #3 골아가난 헴주. 우린 잊어비언. 그것도 당추 몰르켜.(말해가니까 하

지. 우린 잊어버렸어. 그것도 당최 모르겠어.)

113001 @ 거난 이발충 같은 거 이섯잖아예? 그땐 어떵 그걸 치료 헷수과?(그러니 기계총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땐 어떻게 그걸 치료 했습니까?)

113001 #3 이발충은 몰르고 그 저 버즘 헌 것에만.(기계총은 모르고 그 저 버짐 난 것에만.)

113001 @ 아, 버즘은 따로 나중에 저가 여쭤보쿠다예.(아, 버짐은 따로 나중에 저가 여쭤보겠습니다.)

113001 #3 응. 이발충엔 몰라.(응. 기계총이라고 몰라.)

113001 @ 막, 남자아이들 보면 이발 까까난, 머리만 빡빡 밀어난데 보면 허옇게 이섯잖아예? 거 어떵 헤난지 모르쿠과?(막, 남자아이들 보면 이발 깎아난, 머리만 빡빡 밀어난데 보면 허옇게 있었잖아요? 거 어떻게 했었는지 모르겠습니까?)

113001 #3 게난 거 어떵 헤난 거 알지 못 ᄒᆞ크라. 저 무시거 머리에 비듬이엔 헌거.(그러니 그거 어떻게 했던 거 알지 못 하겠어. 저 무엇 머리에 비듬이라고 한 거.)

113001 @ 예, 예예.(예, 예예.)

113001 #3 그런 것이 그거는 무신 가메귀 ᄃᆞᆨ세기헤영 ᄀᆞᆷ으민 좋나 어떵 말은 들어도 헤본 덴 엇고.(그런 것이 그거는 무슨 까마귀 알 해서 감으면 좋다, 어떻게 말은 들어도 해본 적은 없고.)

113001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13001 #3 그런 것엔 우리 신경 썬 안사난 몰라. 그런 거 모르난 아이들 키와도.(그런 것엔 우리 신경 써서 안사니까 몰라. 그런 거 모르니까 아이들 키워도.)

113002 @ 거면예? 머리에 보면 벌겋게 아까 그 이발 기계충 말고예, 벌겋게 똥그랗게 뒈가면서 머리에 막 뭐 난 독, 그거 그건 이제 독창이라고 헷엇는데예, 건 어떵 헤신지 알아지쿠과?(그러면요? 머리에 보면 벌겋게 아까 그 이발 기계총 말고요, 벌겋게 똥그랗게 돼가면서 머리에 막 뭐 난 독, 그거 그건 이제 독창이라고 했었는데요, 건 어떻게 했는지 알아지겠습니까?)

113002 #3 몰라. 그건 모른디 머리 엿날 말로 허물 알지이? 허물.(몰라. 그건 모르는데 머리 옛날 말로 허물 알지? 허물.)

113002 @ 예, 예.(예, 예.)

113002 #3 머리에 허물엔.(머리에 허물이라고.)

113002 @ 허물은 나중에 다시 저가 물어보쿠다예.(허물은 나중에 다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13002 #3 어. ᄄᆞ날 건가 그거예?(어. 다를 건가 그거하고?)

113002 @ 예.(예.)

113002 #3 난 거에 ᄀᆞ트카부덴.(난 그거에 같을까봐.)

113002 @ 그거 말고 막 이렇게 붉은 반점 벌겋게 반점이 총총총 생겨 머리 막 빠지고 헌 거.(그거 말고 막 이렇게 붉은 반점 벌겋게 반점이 총총총 생겨 머리 막

빠지고 한 거.)

113002 #3 알지 못허크라.(알지 못하겠어.)

113002 @ 알앗수다예.(알았습니다.)

113002 #3 그건 무신 약 이름 곧는 거라 어떵 ᄒᆞ는 거라?(그건 무슨 약 이름 말하는 거라 어떻게 하는 거라?)

113002 @ 게난, 그거 치료할 때 어떵 치료헤신지마씸?(그러니까, 그거 치료할 때 어떻게 치료했는지요?)

113002 #3 그런 거 몰라. 머리 어떵 헌 거 당추 우리 알아져?(그런 거 몰라. 머리 어떻게 한 거 당최 우리 알아질까?)

113002 @ 알앗수다예. 그다음 아까 마지막 것들은예, 비듬예.(알았습니다. 그다음 아까 마지막 것들은요, 비듬이요.)

113002 #3 응.(응.)

113003 @ 옛날엔 그 비듬보고 뭐렌 골앗수과?(옛날엔 그 비듬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113003 #3 비듬ᄀᆞ라 비듬이엔 ᄒᆞ멍. 머리에 비듬엔 거 소문들은 소리주.(비듬보고 비듬이라고 하면서. 머리에 비듬이라고 그 소문들은 소리지.)

113003 @ 음.(음.)

113003 #3 우린 무시거 모른디. 소문 들으메.(우린 뭐 모르는데. 소문 들으니까.)

113003 @ 예.(예.)

113003 #3 머리에 비듬 올련, 엿날엔 원 거 재기 ᄀᆞᆷ지사 안 헤부난 그런 거 나서신디 허민, 우린 아이들도 아녀 보고 아녀난 모른디.(머리에 비듬 올라서, 옛날엔 원 그거 빨리 감지를 안 해버리니까 그런 거 났었는지 하면, 우린 아이들도 안 해보고 안하니까 모르는데.)

113003 @ 예.(예.)

113003 #3 놈의 소문에.(남의 소문에.)

113003 @ 예.(예.)

113003 #3 비듬엔 ᄀᆞ메기, 가마귀 ᄃᆞ세기헹 ᄀᆞᆷ으민 존나 하난, 가마 가마귀 ᄃᆞ세기는 낭 우이만 집지성 ᄒᆞ주게.(비듬엔 까마귀, 까마귀 알 해서 감으면 좋다 하니까, 까마 까마귀 알은 나무 위만 집지어서 살지.)

113003 @ 예.(예.)

113003 #3 겨난 건 아무나 못ᄒᆞᆫ다 그런 말만 들어난.(그러니 그건 아무나 못 한다, 그런 말만 들었어.)

113003 @ 아, 경헷수과?(아, 그랬습니까?)

113003 #3 응. 아, 우린 헤보도 아녀고, 보도 아녀고.(응. 아, 우린 해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113004 @ 그다음엔 버즘예?(그다음엔 버짐이요?)

113004 #3 응.(응.)

113004 @ 이젠 버즘에 대헤서 지난번에 말씀헤 주셧잖아예? 그냥 말헐 때, 거믄예 지금 부턴예 아까 버즘 치료하는 거.(이젠 버짐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냥 말할 때, 그러면요 지금 부터는요 아까 버짐 치료하는 거.)

113004 #3 음.(음.)

113004 @ 그 무신 좁쌀 뭐헌 거랑 자세히 한 번 골아줍서.(그 무슨 좁쌀 뭐한 거랑 자세히 한 번 말해주세요.)

113004 #3 게난에 그, 그 버듬은 그 영 몸에 낭 도릿ᄒᆞ게 ᄒᆞᆫ 거ᄒᆞ민 ,그 조체지름이나 보미지름이나.(그러니까 그, 그 버짐은 그 이렇게 몸에 나서 동그랗게 한 거 하면, 그 조겨기름이나 쌀겨기름이나.)

113004 @ 예, 맞수다예.(예, 맞습니다.)

113004 #3 응, 그런 거 헤영 볼른덴.(응, 그런 거해서 바른다고.)

113004 @ 그 조체지름이나 보미지름이나 만드는 방법 가르처줍서.(그 조겨기름이나 쌀겨기름이나 만드는 방법 가르쳐주세요.)

113004 #3 응. 그거는 이 무시것에 영 그릇에 넣는 것에 ᄒᆞ민, 그 짐이 멀리 가비영 안 모여전 아니사 헴신디, 똑 엿날에 사발굽이 영 ᄒᆞ쏠 높으지?(응. 그거는 이 무엇에 이렇게 그릇에 넣는 것에 하면, 그 김이 멀리 가버려 안 모여져서 아니 했는지, 똑 옛날에 사발굽이 이렇게 조금 높지?)

113004 @ 예.(예.)

113004 #3 겨난 사발 벌러진 그 굽에 거ᄀᆞ라 반굽이엔 ᄒᆞ멍. 거 반 굽에 저 험벅헤영 싸근엥에 무시거 끈 무끄민.(그러니 사발 깨진 그 굽에 거보고 반굽이라고 하면서. 그 반굽에 저 헝겊해서 싸서 무엇 끈 묶으면.)

113004 @ 뭘 싸근에마씨?(뭘 싸서요?)

113004 #3 험벅으로 싸.(헝겊으로 싸.)

113004 @ 뭘 싸?(뭘 싸?)

113004 #3 그.(그.)

113004 @ 그릇을?(그릇을?)

113004 #3 그릇 굽을, 벌러진 그릇은 싸면.

113004 @ 예.(예.)

113004 #3 영 놎츠민, 것에 집이 경 드러남신구라.(이렇게 낮추면, 그것에 집이 그렇게 드러나는지.)

113004 @ 예.(예.)

113004 #3 그 큰 무신 사발에나 보시에나는 아니여.(그 큰 무슨 사발에나 보시기에는 안 해.)

113004 @ 예.(예.)

113004 #3 똑 그 사발 굽에 영 헹 싸면은 장항 싸듯.(똑 그 사발 굽에 이렇게 해서 싸면 장항 싸듯.)

113004 @ 예.(예.)

113004 #3 장항부리 싸듯 싸근에 그 우트레 그 봄 보미나 저 조체나 영 놩 검불부쩡 나두민, 싹 ᄒᆞ게 그거 다 강 불씨만 ᄉᆞ라 가민 폭 불어동, 그 싼 걸 영 불리 클러보면, 아래 지름이 까망 발강한 거 ᄒᆞ쏠 영 골른 거 영 접앙 ᄇᆞᆯ라난거.(장항부리 싸듯 싸서 그 위에 그 봄 쌀겨나 저 조겨나 이렇게 넣어 그걸 불붙여 놓아두면, 싹 하게 그거 다 가서 불씨만 사그라져 가면 훅 불고는, 그 싼 걸 이렇게 부리 풀어보면, 아래 기름이 까맣고 붉은 거 조금 이렇게 가라앉은 거 이렇게 집어 발랐었어.)

113004 @ 거난 보미는 뭐고 조체는 뭐꽈?(그러니 쌀겨는 뭐고 조겨는 뭡니까?)

113004 #3 조체는 조 커플, 조 ᄀᆞᆯ아와난 꺼플이가 거시기고.(조겨는 조 꺼풀, 조 갈았던 꺼풀이 거시기고.)

113004 @ 예.(예.)

113004 #3 게민 그거는 과상ᄒᆞ난[343] 지름이 잘 안 날 건디, 보미엔헌 거 지름이 하, 보미는.(그러면 그거는 '과상하니까' 기름이 잘 안 날 건데, 쌀겨라고한 건 기름이 많아, 쌀겨는.)

113004 @ 보미는예?(쌀겨는요?)

113004 #3 보미는 산뒤나 나룩이나 가까난 거 ᄉᆞ뭇 체는 빼여불고, 보미, 중간에 거 나온 거.(보미는 밭벼나 벼나 깎아난 거 사뭇 겨는 빼버리고, 쌀겨, 중간에 그거 나온 거.)

113004 @ 예.(예.)

113004 #3 것ᄀᆞ라 보미 보미지름.(것보고 쌀겨 쌀겨기름.)

113004 @ 그거를 놔서 불ᄉᆞᆯ면 거기서 지름이 사발 밑으로 가라 앉앙.(그거를 넣어서 불태우면 거기서 기름이 사발 밑으로 가라 앉아.)

113004 #3 응.(응.)

113004 @ 그 밑에는 지름이 이시믄 걸로 발랏다는 말이잖아예?(그 밑에는 기름이 있는 걸로 발랐다는 말이잖아요?)

113004 #3 응. 걸로 ᄇᆞᆯ라.(응. 걸로 발라.)

113004 @ 알아수다예.(알았습니다.)

113004 #3 그건 알아져. 건 영 아이들 버즘 나난 것도 헤보고.(그건 알 수 있어. 그건 이렇게 아이들 버짐 났었던 것도 해보고.)

113004 @ 예.(예.)

113004 #3 또 그 ᄀᆞ쎄 아이 머리에 탈진 거 모른디 머리에 허물산디 무신 그건 믄 몰라. ᄀᆞ싸 ᄀᆞᆯ아 무시거엔 헤라, 뭐라 머리에 난 거.(또 그 아까 아이 머리에 탈난 거 모르는데 머리에 허물인가 무슨 그건 모두 말라. 아까 말한 뭐라고 했지, 뭐라 머리에 난 거.)

113001 @ 기계충 저기 이발충 기게충마씨?(기계총 저기 기계총 기계총이요?)

---

343) '과상ᄒᆞ난'은 조겨가 물기 없이 잘 마른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113001 #3 아, 그런 거 ᄁᆞ장사 헤신디. 그 엿날 신낭지름이엔 헌 거.(아, 그런 거 까지도 했는지. 그 옛날 식나무기름이라고 한 거.)

113001 @ 예.(예.)

113001 #3 그거 머리엔 그거 불르민 막 ᄀᆞᆯ아나서.(그거 머리엔 그거 바르면 막 말했었어.)

113004 @ 무신 낭 지름마씨?(무슨 나무기름이요?)

113004 #3 신낭지름.(식나무기름.)

113004 @ 신낭지름?(식나무기름?)

113004 #3 응.(응.)

113004 @ 신낭지름예?(식나무기름요?)

113004 #3 신낭지름 빠는 것도 그거라, 헤단.(식나무기름 빻는 것도 그거야, 해다가.)

113004 @ 음.(음.)

113004 #3 엿날엔 빵 ᄑᆞ는 디도 잇넨.(옛날엔 빻아서 파는 데도 있대.)

113004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13004 #3 그런 거 이섯어. 머리엔 겨난 ᄀᆞ싸 ᄀᆞᆯ아 맞다.(그런 거 있었어. 머리엔 그러니까 아까 말해 맞다.)

113004 #2 신낭이엔 허난 신낭이엔 ᄀᆞᆫ는디.(식나무라고 하니까 식나무라고 말하는데.)

113004 #3 응, 고립갈란에.(응, 구분해서.)

113004 #2 이디엔 꽉 차낫는디 이젠 뭐.(여기엔 꽉 찼었는데 이젠 뭐.)

113004 @ 신낭이과? 식낭이과? 식?(신나무입니까? 식나무입니까? 식?)

113004 #3 신낭 신낭.(식나무, 식나무.)

113004 #2 신낭 신낭 허주.(식나무, 식나무 하지.)

113004 #3 신낭 신낭 ᄒᆞ는디 그 ᄋᆞ물은 어떵ᄒᆞ는고 빨강헤여.(식나무 식나무 하는데 그 열매는 어떻게 하는가, 빨강 해.)

113004 @ 예.(예.)

113004 #3 빨강 헌 거 헤당 지름 빵, 엿날엔 폼도 허고, 머리엔 원 그거나 저거나 거 불르민 준넨.(빨강 한 거 해다가 기름 빼서, 옛날엔 팔기도 하고, 머리엔 원 그거나 저거나 거 바르면 좋다고 해.)

113004 @ 아, 경헤낫구나예? 신낭지름예?(아, 그랬군요? 식나무기름이요?)

113004 #3 응. 저 머리에 ᄒᆞᆫ건 그냥 나 보통으로 들어보는 건 영 부스럼 진 디 허물 허물로 들어보는디.(응. 저 머리에 한 건 그냥 나 보통으로 들어보는 건 이렇게 부스럼 난 데 허물 허물로 들어보는데.)

113004 @ 예, 예.(예, 예.)

113004 #3 ᄀᆞ싸 이발충이여 무시거여 ᄀᆞᆯ아냐?(아까 기계총이야 뭐야 말했니?)

113004 @ 예.(예.)

113004 #3 그런 거 저런 거 몰르난 머리에 건 그거 불르민 좋나 영 헤난. 틀림엇이 머리에 아픈 디 거 아이들 거 불르민 좋넨 골안.(그런 거 저런 거 모르니까 머리에 그건 그거 바르면 좋다 이렇게 했었어. 틀림없이 머리에 아픈 데 그거 아이들 그거 바르면 좋다고 말했어.)

113004 @ 아, 경헷구나예.(아, 그랬군요.)

113004 #3 난 안 헤본 거. 소문 들은 소리.(난 안 해본 거. 소문 들은 소리.)

113005 @ 맞수다. 게 그 백선이라고 헤 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 머리에 동전만하게 허여케, 허여케 뒈는 건데 그런 것도 막 신낭지름이나 이런 보미지름 같은 거 헤신가마씨?(맞습니다. 그래 그 백선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 머리에 동전만 하게 허옇게, 허옇게 되는 건데 그런 것도 막 식낭기름이나 이런 쌀겨기름 같은 거 했는가요?)

113005 #3 그 그것ᄀᆞ라 ᄃᆞᆨ지시엔 ᄒᆞ는가 머리에?(그 그것보고 독창이라고 하는가, 머리에?)

113005 @ 예, 예예.(예, 예예.)

113005 #3 ᄃᆞᆨ지시엔 헌가?(독창이라고 하는가?)

113005 @ 예. 똥글랑허게, 예예.(예. 동그랗게, 예예.)

113005 #3 게난, 그런 거 낫젠 헌 소문은 들어도.(그러니, 그런 거 나았다고 한 소문은 들어도.)

113005 @ 예.(예.)

113005 #3 어떵사 헨 좋아신디, 엿날에 그런 사름 하나서.(어떻게 해서 좋았는지, 옛날에 그런 사람 많았어.)

113005 @ 아, 예.(아, 예.)

113005 #3 게난, 거 머리에 불르는 건 신낭지름만 알아져.(그러니, 그거 머리에 바르는 건 식나무기름만 알아.)

113005 @ 아, 예.(아, 예.)

113005 #3 이 부스름지 난 어떵ᄒᆞᆫ 거 어떵ᄒᆞ 거ᄒᆞᆫ다 소문은 들어도.(이 부스럼 나서 어떻게 한 거 그거 어떻게 한 거한다 소문은 들어도.)

113005 @ 아, 그 똥그라케 뭰 거 ᄃᆞᆨ지시렌 헷구나예?(아, 그 동그랗게 된 거 독창이라고 했군요?)

113005 #3 ᄃᆞᆨ지시엔 헌 거 이서. 헤영 ᄒᆞᆫ 거 헤영 ᄒᆞᆫ 거.(독창이라고 한 거 있어. 허영 한 거 허영 한 거.)

113005 @ 맞수다게.(맞습니다.)

113005 #3 응. ᄃᆞᆨ짓.(응. 독창.)

113006 @ 그다음에는예, 옛날에도 얼굴에 막 여드름 나는 사름들 이섯지예?(그다음은요, 옛날에도 얼굴에 막 여드름 나는 사람들 있었지요?)

113006 #3 음.(음.)

113006 @ 여드름은 어떵 헹 치료헤신고예?(여드름은 어떻게 해서 치료했는지

요?)

113006 #3 난 몰라. 그런 거사 치로, 나이뒈면은 엇어진다, 허주.(난 몰라. 그런 거야 치료, 나이되면 없어진다, 하지.)

113006 @ 음. 그렇구나.(음, 그렇구나.)

113006 #3 당추 그런 거 약 안 헤서.(당최 그런 거 약 안 했어.)

113006 @ 맞수다.(맞수다.)

113006 #3 어, 저 나이뒈민 엇어진덴. 기자 ᄒᆞ민 나이 들민 첨 엇어지주게.(어, 저 나이되면 없어진다고. 그저 하면 나이 들면 참 없어지지.)

113007 @ 얼굴에 그 여자 어른들 임신하거나 아님 막 햇빛타면 여기 꺼멓게 뒈는.(얼굴에 그 여자 어른들 임신하거나 아님 막 햇빛타면 여기 꺼멓게 되는.)

113007 #3 지미.(기미.)

113007 @ 예. 지미는 어떵 치료헷수과?(예. 기미는 어떻게 치료했습니까?)

113007 #3 지미는 무시거 약헤서게. 나두민 좋아빗주. 애기도 낭 무시거헤가민 조아지불고.(기미는 무엇 약했나. 놔두면 좋아버렸지. 아기도 나서 무엇해가면 나아져버리고.)

113007 @ 예.(예.)

113007 #3 지미엔 ᄀᆞᆫ주. 애기베면은 지미슨덴.(기미라고 말하지. 아기배면 기미낀다고.)

113007 @ 지미슨덴예.(기미낀다고요.)

113007 #2 지금은 병원은 뭐 이시난 ᄒᆞ꼼허믄 ᄃᆞᆫ주만은, 그전에는 전디는 게 공이지.(지금은 병원은 뭐 있으니까 조금하면 달리지만, 그전에는 견디는 게 공이지.)

113007 @ 맞수다.(맞습니다.)

113007 #3 여드름이나 지미에나 약 엇엇어.(여드름이나 기미에나 약 없었어.)

113007 @ 약 엇엇지예?(약 없었지요?)

113007 #2 아, 게 저 전디당 살아저시민 살아신가 헷주 무신.(아, 그래 저 견디다가 살았으면 살았나 했지 무슨.)

113007 @ 주근깨도예?(주근깨도요.)

113007 #3 응.(응.)

113008 @ 주근깨 막 주근깨 막 나는 아이들도 이섯잖아예? 옛날에예 ᄑᆞ리찜.(주근깨 막 주근깨 막 나는 아이들도 있었잖아요? 옛날에요 주근깨.)

113008 #3 아, ᄑᆞ리찜 경 나도 지 때 뒈민 좋곡 나도 판지룽[344] ᄒᆞ는디, 나이 탁 들언 지금 이거 영 뒈난 주근깨가 막 나불고, 무시거 어두른 거 부슴 나불고. 원 엇엇주. 피부가 원 빠작 헤낫주게. 겟당 바락 나난. 아이고, 이젠 늙은 생각으루 늙어가난 이거주. ᄒᆞ난 거주. 막 지금 기가멕히게 을큰헤도 약홀레기[345]는 안 헹 살안.(아, 주근깨 그렇게 나도 자기 때 되면 좋고 나도 '판지룽' 하는데, 나이 탁 들어

344) '판지룽'은 '판찍'에 가까운 말로 ㉠ 씻은 듯이 아무 것도 없는 모양. ㉡ 조금도 의심할 것 없이 말갛게. 두 의미 중에 ㉡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345) '약홀레기'는 약을 달고 산다는 의미로 보인다.

서 지금 이거 이렇게 되니까 주근깨가 막 나버리고, 뭐 어지러운 거 부스럼 나버리고. 원 없었지. 피부가 원 팽팽 했었지. 그랬다가 바락 나나니까. 아이고, 이젠 늙은 생각으로 늙어가니까 이거지. 했던 거지. 막 지금 기가 막히게 서운해도 '약홀레기'는 안 해서 살았어.)

113008 @ 기지예?(그렇지요?)

113008 #3 응. 약홀레기 안 헤연. 아무것도 엇언 멘작헨 비지 추름 깨도 엇고 멘짝헨 피부가 고와낫는디 나이드난 이추룩게 삭 저가난 이추룩도 헤불고, 게난 아이 시커멍 허고 기가 멕히게 을큰헤도 약홀레기도 아녀고 그냥 살안.(응. '약홀레기' 안 했어. 아무것도 없어서 매끈해서 비지처럼 주근깨도 없고 매끈한 피부가 고왔었는데 나이드니까 이처럼 싹 져가니까 이처럼도 해버리고, 그러니 아이 시커멓고 기가 막히게 서운해도 '약홀레기'도 않고 그냥 살았어.)

113009 @ 거 사마귀는 어떵 헷수과? 사마귀. 여기 저 점 이렇게 불뚝 불뚝 솟은 점.(그 사마귀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귀. 여기 저 점 이렇게 불뚝 불뚝 솟은 점.)

113009 #3 사막도 무신 엿날에 빤다 어떵 혼다 곧는디 어떵사 헤신디 몰라. 사막시사.(사마귀도 무슨 옛날에 뺀다 어떻게 한다 말하는데 어떻게야 했는지 몰라. 사마귀야.)

113009 @ 그냥 이시민 이신 채로 살앗지예?(그냥 있으면 있는 채로 살았지요?)

113009 #3 응. 이심 이신 대로 살앗주. 우리도 이제 아이들, 것 빠블라 무시거허렌 헤도 그거저거 허멍 무시거에 흔 세상 다 뒈난 그자 ᄒᆞ는 거.(응. 있으면 있는 대로 살았지. 우리도 이제 아이들 그것 빼버려라 무엇하라고 해도 그거저거 하면서 무엇에 한 세상 다 되니까 그저 하는 거.)

113010 @ 그다음에는요 눈에 그 눈 속에 그 뭐 나는 거 잇잖아예? 거 뭐렌 골앗수과?(그다음에요 눈에 그 눈 속에 그 뭐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 말했습니까?)

113010 #3 팔[346]?(다래끼?)

113010 @ 이 눈꺼풀 안에 그 뻘겋게 염증 생기는 거.(이 눈꺼풀 안에 그 벌겋게 염증 생기는 거.)

113010 #3 눈 영 가운디 팔 거 무시거 영 팔룽[347] 헌 거 그런 거 나.(눈 이렇게 가운데 팔, 거 뭐 이렇게 '팔룽' 한 거 그런 거 나.)

113010 @ 예, 예.(예, 예.)

113010 #3 그런 거 나면은.(그런 거 나면.)

113010 @ 그런 건 뭐렌 골앗수과?(그런 건 뭐라고 말했습니까?)

113010 #3 눈에 팔낫젠 곧지.(눈에 '다래끼' 났다고 말하지.)

113010 @ 아, 팔낫젠 골앗구나 예.(아, '다래끼' 났다고 말했군요.)

346) '팔'은 표준어 '삼'인 병으로 눈동자에 생긴 흰 점이나 붉은 점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다래끼'를 말한다.

347) '팔룽'은 앞으로 불뚝 튀어나온 상태를 말한다.

113010 #3 오. 팔 낫젠 ᄒᆞ멍 그 뭐이궁 ᄒᆞ민 그거ᄀᆞ라 팔이엔 ᄀᆞᆯ아.(어. '다래끼' 낫다고 하면서 그 뭐냐고 하면 그거보고 '다래끼'라고 말해.)

113010 @ 건 어떵 치료헷수과?(그건 어떻게 치료했습니까?)

113010 #3 팔낫젠 ᄒᆞ믄 엿날도 이상은 헷주 그 무시거 픗.('다래끼'났다고 하면 옛날도 이상은 했지 그 무엇 팥.)

113010 @ 예.(예.)

113010 #3 픗.(팥.)

113010 @ 예.(예.)

113010 #3 픗 저 영 헤근엥에 영 물에 ᄒᆞ쏠 컷당.(팥 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에 조금 담갔다가.)

113010 @ 예.(예.)

113010 #3 그 픗을 반으로 보근제[348] 께영.(그 팥을 반으로 보근제 깨어서.)

113010 @ 예.(예.)

113010 #3 것을 영 둥그렁.(그것을 이렇게 뒹굴려.)

113010 @ 예.(예.)

113010 #3 그 픗으로 둥그렁, 물르레 영 소로록[349] ᄒᆞ게 놓민, 꼭 그 닮게, 픗 반 께난 디게 꼭 그 모냥으로 나와.(그 팥으로 뒹굴려, 물에 이렇게 '소로록' 하게 놓으면, 꼭 그 닮게, 팥 반 깼던 데 꼭 그 모양으로 나와.)

113010 @ 아.(아.)

113010 #3 경헤나민 좋넨.(그래나면 낫는대.)

113010 @ 아.(아.)

113010 #3 경허고 옷, 옷 앞섭이라고 이런 거 잇주. 겐디 요영 헌 디 씰도 벵허게 박앙, 그런 거시기도 이섯고, 실로 영 감아비영.(그렇게 하고 옷, 옷 앞섶이라고 이런 거 있지. 그런데 요렇게 한 데 실도 둥글게 박아, 그런 거시기도 있었고, 실로 이렇게 감아버려.)

113010 @ 발바닥에다가 뭐 글써주고 경은 안 헤낫수과?(발바닥에다가 뭐 글써주고 그렇게는 안 했었습니까?)

113010 #3 그런 말도 서.(그런 말도 있어.)

113010 @ 발바닥에 천평지평 써근에.(발바닥에 천평지평(天平地平) 써서.)

113010 #3 아니, 쓴덴 말만 그건 들엇는디 학실하게 모르는디, 봉우지 이런 거 씰로 영 무끄나 한 거 알고. 픗은 헤다근에 영 ᄒᆞᆫ 번 둥그렁 물르레 영 물르레.(아니, 쓴다는 말만 그건 들었는데 확실하게 모르는데, 봉오리 이런 거 실로 이렇게 묶으나 한 거 알고. 팥은 해다가 이렇게 한 번 뒹굴려 물에 이렇게 물에.)

113010 #2 천평지평 쓴덴 말 나도 듣긴 들어나서.(천평지평 쓴다는 말 나도 듣긴 들었었어.)

---

348) '보근제'는 확실한 뜻을 모르겠다.

349) '소로록'은 '소르르'의 옛말인 '소로로'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표준어 '소르르' 또는 '수르르'에 대응하는 말이다.

113010 #3 응, 쓴덴 말 쓴덴 말 발창에도 쓴덴 허고, 토로록[350] 허게 영 물르레 들이치민 꼭 눈에 팔추룩 픗 방울 바눙귀 꿰난 거 그 모냥. 경헤나민 좋넨. 좋아신디 말아신지. 그런 거 들어.(응, 쓴다는 말 쓴다는 말 발창에도 쓴다고 하고, '토로록' 하게 이렇게 물에 넣으면 꼭 눈에 '다래끼'처럼 팥 방울 바늘귀 꿰었던 거 그 모양. 그렇게 하고나면 좋대. 좋았는지 말았는지.)

113010 #2 그런 거 들어서.(그런 것 들었어.)

113010 @ 기구나예.(그렇군요.)

113010 #3 난 몰라.(난 몰라.)

113011 @ 그 다음엔 뭐 막 무시거 눈에 뭐 막 먼지가 낀다든가 뭐 껴서 눈에 막 뭐 들어가잖아예?(그 다음엔 뭐 막 무엇 눈에 뭐 막 먼지가 낀다든가 뭐 껴서 눈에 막 뭐 들어가잖아요?)

113011 #3 응. 가시, 가시들메.(응. 가시, 가시들어.)

113011 @ 가시들면 건 어떵 떼낫수과?(가시들면 건 어떻게 떼었습니까?)

113011 #3 가시들면은 기자 영 벨랑 보민 시면은게 영 무시걸로 빼엿주. 영 기냥 영 실민 나와.(가시들면 그저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있으면 이렇게 뭐로 뺏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쓸면 나와.)

113011 @ 경 나왓수과?(그렇게 나왔습니까?)

113011 #3 응.(응.)

113011 @ 게, 눈이 벌겅허게 충혈 뒈불민 건 어떵헷수과?(그래, 눈이 벌겋게 충혈 되면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113011 #3 아, 늣멩 ᄒᆞ민[351] 엿날엔 약이 어디 서? 애기 어멍신디 그 젓 빌엉 쪼끔 놓민 삭아저분다, 엿날엔 경현.(아, '실핏줄이 터지면' 옛날엔 약이 어디 있어? 아기어머니에게 그 젓 빌어서 쪼금 넣으면 삭아버린다, 옛날엔 그랬어.)

113012 @ 경헷구나예. 그다음엔 막 입이, 이가 아파서 이빨이 막 아팡헐 땐 어떵헷수과?(그랬군요. 그다음엔 막 입이, 이가 아파서 이빨이 막 아파할 땐 어떻게 했습니까?)

113012 #3 늬 아픈 거는 아플만이 아파야주 약이 서?(이 아픈 거는 아플 만큼 아파야지 약이 있어?)

113012 @ 충치 먹고 하면마씨?(충치 먹고 하면요?)

113012 #3 빠렌만 헷주. 엿날엔 빠고 무시거 무신 약 놔낫주. 저 서광[352]이엔 ᄒᆞ는가, 무시거 그런 거 놓민 다 삭아졋덴 경도 골아낫어.(뽑으라고만 했지. 옛날엔 빼고 무엇 무슨 약 놓았었지. 저 '서광'이라고 하는가, 무엇 그런 거 놓으면 다 삭혔다고 그렇게도 말했었어.)

113012 @ 서광은 무시거꽈?('서광'은 무엇입니까?)

113012 #3 약 일름이 서광 서광 헨게. 아, 서광이 아이고 백분.(약 이름이 '서광'

350) '토로록'은 '소로록'의 다른 표현이다.
351) '늣멩 ᄒᆞ민'은 '실핏줄이 터지면'을 뜻한다.
352) '서광'은 백반의 상표명인 듯하다.

‘서광’ 하던데. 아, ‘서광’이 아니고 백반.)

113012 @ 백반, 백분?(백반, 백분?)

113012 #3 백분, 백분. 백분, 백분 놔. 거 아픈 디 거 놔나민 눅여사 난디, 어떵 그 밑때 늬가 거 거시기로 막 삭아빗젠 백분 놔나부난 삭안, 영 흔 소리 헨. 난 아녀봣주마는.(백반, 백반. 백반, 백반 놔. 거 아픈 데 거 넣어나면 눅여야 났는지, 어떻게 그 밑에 이가 거 거시기로 막 삭아버렸다고 백반 넣어버리니까 삭아, 이렇게 한 소리 했어. 난 안 해봤지만.)

113012 @ 예, 백분허믄 삭주게.(예, 백반하면 삭지.)

113012 #3 응, 경 골아낫어.(응, 그렇게 말했었어.)

113013 @ 그다음엔 그 우리 막 피곤하면 혓바닥에 막 그 뭐 막 나잖아예? 혓바늘 나잖아예? 여긴 그걸 뭐렌 골앗수과?(그다음엔 그 우리 막 피곤하면 혓바닥에 막 그 뭐 막 나잖아요? 혓바늘 나잖아요? 여긴 그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113013 #3 그 잠, 이딘 세 아파 흔 말 잘헷주.(그 참, 여긴 혀 아프다 한 말 잘했지.)

113013 @ 셋가시 일엇덴.(혓바늘 일었다고.)

113013 #3 응. 셋가시 일언.(응. 혓바늘 일어서.)

113013 @ 그렇게 할 땐 셋가시 일엇일 땐 건 어떵 치료헷수과?(그렇게 할 땐 혓바늘 일었을 땐 그건 어떻게 치료했습니까?)

113013 #3 거 소용엇인 말 소문 들은 소리주.(그거 소용없는 말 소문 들은 소리지.)

113013 @ 예.(예.)

113013 #3 엿날에는 밥을 많이 ᄒᆞ곡, 보리밥 ᄒᆞ난 젓는 남죽이 서.(옛날에는 밥을 많이 하고, 보리밥 하니까 젓는 죽젓개가 있어.)

113013 @ 예.(예.)

113013 #3 이젠 그런 거 엇주만은. 그 남죽을 긁어불민.(이젠 그런 거 없지만. 그 죽젓개를 긁어버리면.)

113013 @ 예.(예.)

113013 #3 긁으민 것도 엇어진덴, 아이고.(긁으면 것도 없어진다고, 아이고.)

113013 @ 아, 하하 남죽으로 글그믄 셋가시 엇어진덴.(아, 하하 죽젓개로 긁으면 혓바늘 없어진다고.)

113013 #3 응, 엇어진덴 경 헷주.(응, 없어진다고 그렇게 했지.)

113013 #2 엿날 사름덜 말장시.(옛날 사람들 말쟁이.)

113013 #3 엿날 사름덜 거.(옛날 사람들 그거.)

113014 @ 그다음엔 요번에 무신 얘기하다 보니까 그 천연두 걸려난 얘길 잠깐 하던데예? 엿날 천연두 걸렷을 땐 어떵 헷수과?(그다음엔 요번에 무슨 얘기하다 보니까 그 천연두 걸렸던 얘길 잠깐 하던데요? 옛날 천연두 걸렸을 땐 어떻게 했습니까?)

113014 #3 천연둔 호열자?(천연둔 콜레라?)

113014 #2 아니, 천연두는 그 저 이거 이거지 천연두가 이 예방으로 헨에 이디.(아니, 천연두는 그 저 이거 이거지 천연두가 이 예방으로 해서 여기.)

113014 #3 우두.(우두.)

113014 #2 우두.(우두.)

113014 @ 예, 예예.(예, 예예.)

113014 #3 우두.(우두.)

113014 @ 우두 걸렷을 때.(우두 걸렸을 때.)

113014 #3 몰라.(몰라.)

113014 @ 예방접종, 이젠 그 수망리에 누구산디 천연두 걸린 사름 이서낫덴 골앗신디게.(예방접종, 이젠 그 '수망리'에 누군지 천연두 걸린 사람 있었다고 말했는데.)

113014 #3 몰라.(몰라.)

113014 #2 몰라, 우린 안 걸려보난 모르주.(몰라, 우린 안 걸려보니까 모르지.)

113014 #3 천연둔 몰르고, 우두는 우리 놔 낫주.(천연둔 모르고, 우두는 우리 놓아 났지.)

113014 @ 우두, 예방접종예?(우두 예방접종요?)

113014 #3 응. 두린 때 헤선게, 옥안 보난 선게.(응. 어린 때 했던데, 역어서 보니까 있었어.)

113014 @ 예, 기지예.(예, 그렇지요.)

113014 #2 건 우두는 거 원, 천연두 예방이난.(그건 우두는 그거 원, 천연두 예방이니까.)

113014 @ 예.(예.)

113014 #3 우둔 놔낫주만은 어떵 헌 거 몰라.(우둔 놓았었지만 어떻게 한 거 몰라.)

113014 #2 우리 그런 거 지금도 이실 거라.(우리 그런 거 지금도 있을 거야.)

113015 @ 맞수다게. 그다음엔 그 홍역 걸렸을 땐 어떵 헷수과?(맞습니다. 그다음엔 그 홍역 걸렸을 땐 어떻게 했습니까?)

113015 #2 홍역 걸린 땐겐, 혼 일주일 이녕 어디 나가도 아녀곡, 무시거ᄒᆞ민 아픈 아이만 멩심ᄒᆞ민 넘어갓주.(홍역 걸린 땐, 한 일주일 이녁 어디 나가지도 않고, 무엇하면 아픈 아이만 명심하면 넘어갔지.)

113015 @ 그때 큰아이 홍역 걸령 막 고셍헷덴 헨게만은 그땐 어떵 헨 넘어갓수과?(그때 큰아이 홍역 걸려서 막 고생했다고 하더니만 그땐 어떻게 해서 넘어갔습니까?)

113015 #3 그때도 막 넘언에. 그 무시거 저 할망[353]에 비는 사름 헤당 비난 좋아.(그때도 막 넘어서. 그 무엇 저 '할망'에게 비는 사람 해다가 비니까 좋아.)

353) '할망'은 할머니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아기의 생육을 관장한다는 '삼승할망'을 뜻한다.

113016 @ 어, 그다음엔 학질이렌 헤근에 알아지쿠과? 학질. 학질모기 물려 가지고 막 열 심하게 나는 거.(어, 그다음엔 학질이라고 해서 알겠습니까? 학질. 학질모기 물려 가지고 막 열 심하게 나는 거.)

113016 #3 그거는 ᄒᆞ루 아프고 ᄒᆞ루 아니 아픈 거라신가?(그거는 하루 아프고 하루 아니 아픈 거였나?)

113016 @ 경 할 수도 이실 거우다예.(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113016 #3 그런 말만 들언.(그런 말만 들었어.)

113016 #2 낮 ᄒᆞ루 ᄒᆞ여난 건 날걸리엔 헤낫주.(낮 하루 했던 건 날거리엔 했었지.)

113016 @ 날거리 맞수다, 날거리예?(날거리 맞습니다, 날거리요?)

113016 #2 응.(응.)

113016 @ 날거리는 어떵 헨 치료헤신고예?(날거리는 어떻게 해서 치료했을까요?)

113016 #3 치루가 어디 서서. 기자 살당보민 죽을 사름 죽고 살 사름 살고.(치료가 어디 있었어. 그저 살다보면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 살고.)

113016 #2 우리 형님은 그 날걸리로 헨에 죽엇주게.(우리 형님은 그 날거리로 해서 죽었지.)

113016 @ 아, 몇 살 때마씨?(아, 몇 살 때요?)

113016 #2 멧 살이냐믄 그 사름 나보다 여섯 나 우인데.(몇 살이냐면 그 사람 나보다 여섯 살 위인데.)

113016 @ 예.(예.)

113016 #2 여섯 나 우인데 에, 나가 열여덜 때 육이오 터진 게, 스물넷에.(여섯 살 위인데 에, 내가 열여덟 때 육이오 터진 그래, 스물넷에.)

113016 @ 예.(예.)

113016 #3 육이오가 터지니까.(육이오가 터지니까.)

113016 @ 예.(예.)

113016 #2 그 병 허면서 그때 뭐 그때 뭐 이유가 이서서, 그때 무조꼰 발령 훈련 받앙 군인 가난, 거 누게 치료를 못 받앗지. 그대로 허난 ᄎᆞ측ᄎᆞ측 악화 뒈언.(그 병 하면서 그때 뭐 그때 뭐 이유가 있었어, 그때 무조건 발령 훈련 받아서 군인 가니까, 거 누구 치료를 못 받았지. 그대로 하니까 차측차측 악화 돼서.)

113016 @ 예.(예.)

113016 #2 막 어려우니깐 의병제대 시기니깐, 어떠케 여기 와근에 지금이믄 살아실 거라. 이디 온, 병원이라도 병원에 가봐저시카 뭐 그대로 허다 집이서 울다 울다 버청 죽어빗주.(막 어려우니깐 의병제대 시키니까, 어떻게 여기 와서 지금이면 살았을 거야. 여기 원, 병원이라도 병원에 가봐졌을까 뭐 그대로 하다 집에서 울다가 울다가 지쳐서 죽어버렸지.)

113016 #3 약이 어디 서? 죽는 게 약이주.(약이 어디 있어? 죽는 게 약이지.)

113016 #2 거난 병원 흔 번 못 가보고.(그러니 병원 한 번 못 가보고.)

113016 @ 못가보고예.(못 가보고요?)

113016 #2 거니깐 네중엔 게 기자 막 집이서 웨울름만 허당 죽엇지.(그러니깐 나중엔 그 그저 마구 집에서 외치기만 하다가 죽었지.)

113016 @ 아, 아프덴 허멍마씨?(아, 아프다고 하면서요?)

113016 #2 아프덴이 아니고, 막 완전이 정신엇언에, 정신엇언에 끄디끄디 웨울르는 거라.(아프다가 아니고, 막 완전히 정신없어서, 정신없어서 그때그때 외치는 거야.)

113016 #3 못 전디난 웬 거주게. 너무 힘들어 가난.(못 견디니까 외친 거지. 너무 힘들어 가니까.)

113017 @ 음, 경 헷구나예. 그다음에는 그 저 아이들 ᄒᆞ꼼 커 가면 그 요기 막 빵빵하게 막 부어가멍 볼에 부어가멍 막 아픈 거 이섯잖아예? 아이들 경 안 헷수과 무사? 여기 막 아파 가지고.(음, 그렇게 했군요. 그다음에는 그 저 아이들 조금 커 가면 그 요기 막 빵빵하게 막 부어가면서 볼에 부어가면서 막 아픈 거 있었잖아요? 아이들 그렇게 안 했습니까? 왜? 여기 막 아파 가지고.)

113017 #3 그런 거 엇어.(그런 거 없어.)

113017 @ 볼거리라고 하는디예? 요즘 아이들도 그런 거 허거든마씨.(볼거리라고 하는데요? 요즘 아이들도 그런 거 하거든요.)

113017 #3 몰라. 그런 거시기 엇어.(몰라. 그런 거시기 없어.)

113017 #2 아녀나부난 몰르주.(안 해버려서 모르지.)

113017 @ 안 헤봣구나예? 음, 볼거리, 그럼 혹시 나력이렌 말 들어봣수과? 나력?(안 해봤군요? 음, 볼거리, 그럼 혹시 나력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나력?)

113017 #3 아, 거 막 엿날에 어떤 사름 이 목에 이런 디 약아지에 막 부스멍 허물난 그거ᄀᆞ라 그기에 소문은 들어낫어.(아, 거 막 옛날에 어떤 사람 이 목에 이런데 목에 막 부으며 허물 난 그거보고 거기에 소문은 들어났어.)

113018 @ 아, 아이들 볼거리도 안 헨 잘 지낫구나예. 그다음엔 볼거리도 잇지만 또 목거리라는 것도 잇거든마씨. 이제는 목 목에 막 아파가는 거 허는 거 목거리.(아, 아이들 볼거리도 안 해서 잘 지났군요. 그다음엔 볼거리도 있지만 또 목거리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제는 목 목에 막 아파가는 거 하는 거 목거리.)

113018 #3 몰라.(몰라.)

113018 @ 게난 아이들이 안 아팡 다 잘 큰 거라예?(그러니 아이들이 안 아파서 다 잘 큰 거지요?)

113018 #3 응.(응.)

113019 @ 옛날 그 막 저 더우면 요즘처럼 더우면.(옛날 그 막 저 더우면 요즘처럼 더우면.)

113019 #3 똠떼기.

113019 @ 예 똠떼기.(예, 땀띠.)

113019 #3 똠떼기 나주. 힘들어 놓난 아이고 똠떼기고, 무시거고.(땀띠 나지. 힘들어 놓으니까 아이고 땀띠고, 무엇이고.)

113019 @ 똠떼기는 어떵 헨 치료헷수과?(땀띠는 어떻게 해서 치료했습니까?)

113019 #3 치루는 무시거. 철이 넘엉 서늘어와 가가민 엇어지주.(치료는 뭐. 계절이 넘어서 서늘해져 가가면 없어지지.)

113019 @ 여름에 막 애기들은 막 여기들.(여름에 막 애기들은 마구 여기들.)

113019 #3 어, 막 나. 치데, 치루, 치루가 어디 서, 네불민 좋주.(어, 막 나. 치데, 치료, 치료가 어디 있어, 내버리면 좋지.)

113019 @ 그냥 네불엇수과?(그냥 내버렸습니까?)

113019 #2 멩, 멩질믄 사는 거. 하하하하.(명, 명 길면 사는 거. 하하하하.)

113019 #3 네빗주. 똠떼기는 엿날에 기가 멕히주, 불솜앙 밥도 허곡 ****.(내버렸지. 땀띠는 옛날에 기가 막히지, 불살라 밥도 하고 ****.)

113019 #2 우리 집이 아이들은 우리 세상모르게 키와진 거라.(우리 집의 아이들은 우리 세상모르게 키워진 거야.)

113019 @ 게난예.(그러니까요.)

113019 #2 그자 헤나질 안 헤놓난.(그저 하지 안 해놓으니까.)

113020 @ 아까 그 골안 저기 말씀헷잖아예? 그 뭐렌 그 머리에 막 허물 나는 거, 게 그거는 그런 거 낫을 땐 어떵 헷수과?(아까 그 말한 저기 말씀했잖아요? 그 뭐라고 그 머리에 마구 허물 나는 거, 그래 그거는 그런 거 났을 땐 어떻게 했습니까?)

113020 #3 게메, 그거 불르민 존넨 헷주.(글쎄, 그거 바르면 좋다고 했지. 우리 몰라.)

113020 @ 그 허물에도 신낭이든 아, 신낭 신낭.(그 허물에도 식나무든 아, 식나무 식나무.)

113020 #3 그 머리에 신낭지름, 지름 그거 머리에 껀 그건 문 **가 엇다 영 헨. 소문들은 풍운소리 우린 그런 거 아니 헤여.(그 머리에 식나무기름, 기름 그거 머리의 그건 모두 **가 없다 이렇게 했어. 소문들은 풍운소리 우린 그런 거 아니 해.)

113021 @ 허물 아이들 머리에 허물 안 나봇수과?(허물 아이들 머리에 허물 안 나봤습니까?)

113021 #3 안 나봔, 안 나봔.(안 나봤어, 안 나봤어.)

113021 @ 안 낫구나예. 예.(안 났군요. 예.)

113021 #3 응, 똠떼기는 낫주게. 똠떼기는. 막 벳겨 뎅겨불민덜.(응, 땀띠는 났지. 땀띠는. 막 벗겨 다녀버리면.)

113021 @ 음.(음.)

113021 #3 똠떼기도 놔두민 내불민 지대로 좋앗주.(땀띠도 놔두면 내버리면 자기대로 나았지.)

113021 @ 음.(음.)

113021 #3 서늘아와 가민.(서늘해져 가면.)

113022 @ 그믄 아이들 막 씨러저 가지고 막 이런 디 막 그 저.(그러면 아이들 막 쓰러져 가지고 막 이런 데 막 그 저.)

113022 #3 다쳐.(다쳐.)

113022 @ 다친걸 뭐렌 골앗수과? 막 이렇게 막 긁어먹은 막.(다친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구 이렇게 마구 긁어먹은 마구.)

113022 #3 혜먹은 거ᄀᆞ라게 무시거 저 밀어빗저.(해먹은 것보고 무엇 저 상처났지.)

113022 @ 저 그건 어떵 치료헷수과?(저 그건 어떻게 치료했습니까?)

113022 #3 치로ᄒᆞ곡 하간 거. 우리 아이들 치로 아무것도 아녕 네변. 다 그냥 네비언. 아프덴 ᄒᆞ민 나둬시민 좋나 ᄒᆞ고.(치료하고 모든 거. 우리 아이들 치료 아무것도 않고 내버렸어. 다 그냥 내버렸어. 아프다고 하면 놔두면 낫는다고 하고.)

113022 @ 음.(음.)

113022 #3 모기라도 아이고, 모기 물엉 ᄀᆞ라와나민 영 춤ᄇᆞᆯ라불라 ᄒᆞ민, 신디 아이들 배운 게 그게라. 춤ᄇᆞᆯ르민 좋아비어, 엇어저.(모기라도 아이고, 모기 물어서 가려워나면 이렇게 침 발라버려라 하면, 있는 아이들 배운 게 그거라. 침 바르면 나아버려, 없어져.)

113022 @ 음.(음.)

113022 #3 어머니 이디 ᄀᆞ라운게, 꿈 ᄇᆞᆯ라비어, 영.(어머니 여기 가려워, 침 발라버려, 이렇게.)

113022 @ 음.(음.)

113022 #3 꿈 ᄇᆞᆯ라빌민 좋아, 깅헨 살안.(침 발라버리면 나아, 그렇게 해서 살았어.)

113022 @ 막 저기 이런 몸에 같은데 몸에 난 허물 같은 거는마씨?(막 저기 이런 몸에 같은데 몸에 난 허물 같은 거는요?)

113022 #3 엇어, 아녀난.(없어, 안 했었어.)

113022 @ 안 헹 그냥 가고예? 다른 사름들은 그런 걸 어떵 치료헷덴 말 안 들어낫수과?(안 해서 그냥 가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걸 어떻게 치료했다는 말 안 들었었습니까?)

113022 #3 몰라. 어떵사 헷어.(몰라. 어떻게야 했어?)

113022 @ 예를 든다면 막 고약 같은 거 발라 가지고 떼고 그런 건 안 헤낫수과?(예를 든다면 막 고약 같은 거 발라 가지고 떼고 그런 건 안 했었습니까?)

113022 #3 아, 엿날에.(아, 옛날에.)

113022 @ 큰 고약.(큰 고약.)

113022 #3 고약도 ᄇᆞᆯ른다 무신, 아이고 그른 말은 이서서. 고약 ᄇᆞᆯ른덴. 고약 ᄇᆞᆯ른다 무신 아이고 약이 어디서 그냥 살고 일허당 손을 베여도 속, 속 속헹 영 ᄲᅳ사 근엥에 그래 톡 그냥 피가 나도 영 누르떵 시면 그 가두민 그냥 일 허고, 그대로

그거헹 좋곡 경 헷주.(고약도 바른다 무슨, 아이고 그럼 말은 있었어. 고약 바른다고. 고약 바른다 무슨 아이고 약이 어디서 그냥 살고 일하다가 손을 베도 쑥, 쑥, 쑥 해서 이렇게 빻아서 그리로 톡 그냥 피가 나도 이렇게 눌러 있으면 그 가두면 그냥 일 하고, 그대로 그거 해서 좋고 그렇게 했지.)

113022 @ 그면 삼춘도 일허멍 어디 다청 그거 막 그게 막 허물지고 헤봣수과?(그면 삼촌도 일하면서 어디 다쳐서 그거 막 그게 막 허물지고 해봤습니까?)

113022 #3 아니.(아니.)

113023 @ 진짜 뭐헷수다게. 혹시예, 그 어 허물은 경헷다치고, 경허면은 발에 막 저기 무좀 말고 막 그 습진 같은 거 잇잖아예? 막 물 막 흘리멍 걸리는 발.(진짜 뭐했습니다. 혹시요, 그 어 허물은 그랬다하고, 그러면 발에 막 저기 무좀 말고 막 그 습진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물 막 흘리면서 걸리는 발.)

113023 #3 아니, 경은 아녀고, 발거림은 영 ᄀᆞ라와 경 영 ᄀᆞ라와도 기자 내불민 철 정, 여름 겨을 들어불믄 아녀주.(아니, 그렇게는 안하고, 발샅은 이렇게 가려워 그렇게 이렇게 가려워도 그저 내버리면 철지면, 여름 겨울 들어버리면 안 하지.)

113023 @ 안 하잖아예.(안 하잖아요.)

113023 #3 응.(응.)

113023 #2 지금 지금 이거 우리 기생충 이서.(지금 지금 이거 우리 기생충 있어.)

113023 #3 기자 살아.(그저 살아.)

113023 @ 맞수다게, 나도 경헙니다. 게 양말만 벗엉 여름 땐 ᄒᆞ꼼 허당 양말 신기 시작하면 싹 엇어지는 거양.(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합니다. 그게 양말만 벗어서 여름 땐 조금 하다가 양말 신기 시작하면 쓱 없어지는 거요.)

113023 #3 응, 그거 경ᄒᆞ는 거.(응, 그거 그렇게 하는 거.)

113023 @ 게 그냥 내불엇수과? 아무것도 치료 안 허고?(그래 그냥 내버렸습니까? 아무것도 치료 안 하고?)

113023 #3 아이고, 그냥 내불주 무신. 그런 거 기자 이젠 걷지 못허고 하간디 아파도 내부는 사름 무신.(아이고, 그냥 내버리지 무슨. 그런 거 그저 이젠 걷지 못하고 여기저기 아파도 내버리는 사람 무슨.)

113023 #2 허허.(허허.)

113024 @ 그다음에는예 저 혹시 생손앓이라고 헤서.(그다음에요 저 혹시 생손앓이라고 해서.)

113024 #3 응.(응.)

113024 @ 그 그건 헤낫수과?(그 그건 했었습니까?)

113024 #3 아니, 놈 셍손 알린 건 기가 멕히게 아팡헌다고.(아니, 남 생손 아린 건 기가 막히게 아파한다고.)

113024 @ 게, 그걸 뭐렌 골아낫수과?(그래, 그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113024 #3 셍손이나 셍발이나 거 아팡 막 ᄒᆞ여가민 거 셍손 알렷져, 셍발 알렷

져 굴아.(생손이나 생발이나 거 아파서 막 해가면 거 생손 아렸다, 생발 아렸다 말해.)

113024 @ 게 건 어떵 헨 치료헷인고예?(그래, 그건 어떻게 해서 치료했을까요?)

113024 #3 몰라, 우린 아녀난. 우리 그거 몰라. 셍손 알리고 하간 거, 엿날엔 경들 굴앗주만은 아플 만이 아파야 좋는 거 아니? 아플 만이 아파근엥에 알령 꺼저사 주 좋지 아녀신가?(몰라, 우린 안 해서. 우리 그거 몰라. 생손아리고 여러 가지 거, 옛날엔 그렇게들 말했지만 아플 만큼 아파야 낫는 거 아닌가? 아플 만큼 아파서 아려서 꺼져야지 낫지 않았을까?)

113024 @ 게도 그런 거 잇긴 이서낫잖아예?(그래도 그런 거 있기는 있었잖아요?)

113024 #3 응. 셍손 알렴져, 셍발 알렴져 굴아.(응. 생손 아리다, 생발 아리다 말해.)

113025 @ 그다음에는 음식 뭐 잘못 먹거나 헷을 때 막 그 저 막 나는 거 뭐렌 합니까?(그다음에는 음식 뭐 잘못 먹거나 했을 때 막 그 저 막 나는 거 뭐라고 합니까?)

113025 #3 음식 먹는 것에도 잘못 나는 가 무시거 나는가?(음식 먹는 것에도 잘못 나는 가 무엇 나는가?)

113025 @ 웨, 고등어 같은 거라든가 몸에 안 맞은 거 먹으면 막 뭐 나잖아예?(왜, 고등어 같은 거라든가 몸에 안 맞은 거 먹으면 막 뭐 나잖아요?)

113025 #2 두드레기.(두드러기.)

113025 #3 두드레기.(두드러기.)

113025 @ 예, 두드레기, 두드레기 낫일 땐 어떵 헷수과?(예, 두드러기, 두드러기 났을 땐 어떻게 했습니까?)

113025 #3 아이고, 지 아플 만이 아프민 좋주 무신.(아이고, 자기 아플 만큼 아프면 낫지 무슨.)

113025 @ 그래도.(그래도.)

113025 #3 약이 어디 서. 우리 집은 아이들이 우로 오누이가 그 도야지고기 그 소고기 그런 거 못 먹어. 그거 먹으믄 막 두드레기 낭 혀. 게난 다 좋아도 그거 못 먹는 아이만 두 개라 우로 두 개.(약이 어디 있어. 우리 집은 아이들이 위로 오누이가 그 돼지고기 그 소고기 그런 거 못 먹어. 그거 먹으면 막 두드러기 나서 해. 그러니 다 좋아도 그거 못 먹는 아이만 두 개야 위로 두 개.)

113025 @ 아, 지금도마씨?(아, 지금도요?)

113025 #3 응. 안 먹어. 군인 가오고 하간 거 다 헤도 안 먹어. 못 먹어. 먹으민 본인은.(응. 안 먹어. 군인 가오고 여러 가지 것 다 해도 안 먹어. 못 먹어. 먹으면 본인은.)

113025 #2 집고기는 못 먹어.(집고기는 못 먹어.)

113025 @ 아.(아.)

113025 #2 바닷고기는.(바닷고기는.)

113025 #3 바닷궤기는 먹어도. 그건 못 먹어도 약은 뭐 그냥 내불민 막 두드레기 파당. 게난 안 먹으민 약이주. 먹지만 못 허주. 경허는 아이 우로 오누이 경 이서.(바닷고기는 먹어도. 그건 못 먹어도 약은 뭐 그냥 내버리면 막 두드러기 피다가. 그러니 안 먹으면 약이지. 먹지만 못 하지. 그렇게 하는 아이 위로 오누이 그렇게 있어.)

113025 @ 거 닭고기도?(그거 닭고기도?)

113025 #3 아, 독궤긴 잘 먹고.(아, 닭고기는 잘 먹고.)

113025 @ 아, 게 하기사, 뒈지는 닭고기로 먹으면 뒈난예?(아, 그래 하기야, 돼지는 닭고기로 먹으면 되니까요?)

113025 #3 응, 글른 거. 약이 어디 서 내불민 좋앗주.(응, 그른 거. 약이 어디 있어 내버리면 좋았지.)

113025 @ 경 헷구나예.(그렇게 했군요.)

113025 #3 나, 애기 다슷 개 키와도 그런 거 몰라.(나, 아기 다섯 명 키워도 그런 거 몰라.)

113025 @ 두드레기는 경허고.(두드러기는 그렇고.)

113025 #3 두드레기.(두드러기.)

113025 @ 아, 여기 땀띠가 두개가 낫네.(아, 여기 땀띠가 두개가 났네.)

113027 @ 그다음엔예? 애기들 키우당 보민 막 경기하잖아예? 경기할 땐 어떵 키왓수과?(그다음은요? 아기들 키우다가 보면 막 경기하잖아요? 경기할 땐 어떻게 키웠습니까?)

113027 #3 엿날에 소문들으메 침맞넨.(옛날에 소문 들으면 침 맞는대.)

113027 @ 그 여기 아이들은 다섯 오누이가 아무도 경기도 안헷수과?(그 여기 아이들은 다섯 오누이가 아무도 경기도 안했습니까?)

113027 #3 아니, ᄒᆞ나. 지금 돼지고기 안 먹넨 ᄒᆞ는 아들 ᄒᆞᆫ 번 헤낫어. 무사 그것가 경긴고 긴디 아닌디 몰른디, 아팡 ᄀᆞ만히 내비언 내비도, 나는 아이들이 경 헌 거 몰르난 ᄒᆞᆫ으시 신경쓰지 아녓주. 아프당 좋주 허는디. 이디 난 게 겨난, 그난 그때가 애기들 키울 때 그때 엿날이난 그 애기가 지금 그 헤난 아이가 지금 오십네이라.(아니, 하나. 지금 돼지고기 안 먹는다고 하는 아들 한 번했었어. 왜 그것이 경긴가 그런지 아닌지 모르는데, 아파서 가만히 내버려 내버려도, 나는 아이들이 그렇게 한 거 모르니까 한없이 신경 쓰지 안 했지. 아프다가 낫겠지 하는데. 여기 난 것이 그러니까, 그러니 그때가 애기들 키울 때 그때 옛날이어서 그 아기가 지금 그 했던 아이가 지금 쉰네 살이야.)

113027 @ 음.(음.)

113027 #3 그 아이가 아방 이디 약 ᄒᆞᆯ 디, 이디서 약 ᄒᆞ는 걸 이디서 영 보는 거라.(그 아이가 '아버지' 이디 농약 칠 데, 여기서서 농약 치는 걸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야.)

113027 @ 예.(예.)

113037 #3 애기 두린 애기. 이디서 영 헨 보단 아이가 탁 그냥 영 즘무처분 거. 그것ᄀᆞ라 정기엔.(애기 어린 아기. 여기서 이렇게 해서 보다가 아이가 탁 그냥 이렇게 의식 잃어버린 거. 그것보고 경기라고.)

113027 @ 음.(음.)

113027 #3 그 시철에. 난 알지도 못헷는디. 겨난 놈들이 침주라, 침주라 ᄒᆞ난 침 맞으레 갓당, 애기가 버짝 죽은 거라. 그 세에 그 세에 죽으난, 침맞은.(그 시절에. 난 알지도 못했는데. 그러니 남들이 침주라, 침주라하니까 침놓으러 갔다가, 아기가 빳빳하게 죽은 거야.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죽으니까, 침놓은.)

113027 #2 난 경헤난 것도 알지 못헨.(난, 그랬던 것도 알지 못해서.)

113027 #3 정신이 엇언. 어멍 아방 몰라. 아방[354] 심상헨 이시민 나가 짊어젼 저 아레 침주는 하르방신디 가난, 침줄 셍각이 엇이 아이가 탁 죽어시난 그 침주는 할망이 물 항에 간 물 거려당 박세기에 물 거련, 바락 애기 우트레 치대기난 애기 꺼빡 사는 거라.(정신이 없어서. 어머니 '아버지' 몰라. '아버지' 심상해 있으면 내가 업어서 저 아래 침주는 할아버지에게 가니까, 침줄 생각이 없이 아이가 탁 죽었으니까 그 침주는 할머니가 물 항에 간 물 떠다가 바가지에 물 떠서, 바락 아기 위로 끼얹으니까 아기 깜빡 사는 거야.)

113027 @ 음.(음.)

113027 #3 풀락허게 살아나난 경헨 침맞안주난 그 그 ᄒᆞ쏠 깨난, 그 날 저물앙 침강 맞안 ᄋᆞ라 번 서너 번은.(풀럭하게 살아나니까 그렇게 해서 침놓아주니까 그 그 조금 깨어나서, 그 날 저물도록 침 가서 놓아서 여러 번 서너 번은.)

113027 @ 음.(음.)

113027 #3 저물앙 맞젠허난 서너 번 맞아진 거주. 쉬엉 맞고 쉬엉 맞고. 서너 번 맞이난 다신 꺼닥엇이 병원에도 ᄒᆞᆫ 번 아이간, 큰거.(저물도록 놓으려니까 서너 번 놓아진 거지. 쉬어서 놓고 쉬어서 놓고. 서너 번 놓으니까 다신 까딱없이 병원에도 한 번 안 가서, 큰아이.)

113027 @ 음,(음.)

113027 33 그것만 ᄒᆞᆫ 번 헤난. 애기 다슷 개라도 정기가 뭔지 몰랏는디. 거 아들 ᄒᆞ나 경헌 거. 지금도 도야지고기 안 먹어.(그것만 한 번 했었어. 아기 다섯 개라도 경기가 뭔지 몰랐는데. 거 아들 하나 그랬던 거. 지금도 돼지고기 안 먹어.)

113028 @ 그다음에는예 어, 또 아이 크다가 그 하다보면 화상 입엇잖아예? 그 소주로 그 손가락 헤낫잖아예?(그다음에요 어, 또 아이 크다가 그 하다보면 화상 입었잖아요? 그 소주로 그 손가락 했었잖아요?)

113028 #3 어.(어.)

113028 @ 그 약간 얼랑얼랑[355] 하난에 이제 괜찮아져신디. 그 이건 작은 화상

354) '아방'은 아버지를 뜻하나 여기서는 '남편'을 말한다.

355) '얼랑얼랑'은 몹시 야들야들하고 윤이 나는 모양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화상을 입은 후 물집이 터진 후 피부가 벗겨져 나은 상태의 피부를 말한다.

이고, 혹시나 크게 화상이나 이렇게 뒀을 때, 어차튼 물에 데든 불에 데든 건 어떵 치료헷수과?(그 약간 '얼랑얼랑' 하니까 이제 괜찮아졌는데. 그 이건 작은 화상이고, 혹시나 크게 화상이나 이렇게 됐을 때, 어쨌든 물에 데든 불에 데든 그건 어떻게 치료했습니까?)

113028 #3 우리 데어낫주. 거 애기 씨러정 데어낫는디 내비진 거 닮아, 벵훈이[356].(우리 데었었지. 거 아기 쓰러져서 데었었는데 내버려진 거 같아, 병훈이.)

113028 @ 어디다 헤신디마씨?(어디다 했는데요?)

113028 #3 딱 씨러지난, 저 엿날 화덕 그 무시거.(탁 쓰러지니까, 저 옛날 화덕 그 무엇.)

113028 @ 솟덕?(봇돌?)

113028 #3 응?(응?)

113028 @ 솟덕 솟덕예?(봇돌 봇돌에?)

113028 #3 응. 솟덕드레 딱 씨러지난, 그 이런디 아궁이가 무시거 영 막아전 불치 ᄀᆞ득ᄒᆞ민 영 파놘 엠에 영 동겨 놧당 그거 식으민 담아 불고 ᄒᆞ는, 불을 영 담아 논 디레 애기가 팍 씨러진 거 아이라. 팍 씨러지난 어딜 데는공ᄒᆞ민 이레 막 데여, 이디 데연. 게난 이제도 쪼끔 무시것가 이서도 꼭 거찌도 아녀고 ᄀᆞ만 내비진 거 닮아. 애기가 텅! 헤도. 경헨 존 거.(응. 봉덕들에 탁 쓰러지니까, 그 이런데 아궁이가 무엇 이렇게 막아져서 재 가득하면 이렇게 파놓은 옆에. 이렇게 당겨 놓았다가 그거 식으면 담아 버리고 하는, 불을 이렇게 담아 놓은 데에 아기가 팍 쓰러진 거 아니야. 팍 쓰러지니까 어딜 데었나하면 이리 막 데었어, 여기 데었어. 그러니 이제도 조금 무언가 있어도 꼭 만지지도 않고 가만히 내버려진 거 같아. 아기가 탕! 해도. 그렇게 해서 나은 거.)

113028 @ 음.(음.)

113028 #3 약 안 헤봣어.(약 안 해봤어.)

113028 @ 차가운 물로 씻어주지도 안 허고예?(차가운 물로 씻어주지도 안 하고요?)

113028 #3 씻지도 아녀고 내분 거. 무시거 불라진 것도 담다. 그 데언 헤도 그냥 내비지난 것도 좋아진 거 닮아. 애기 세 술에.(씻지도 안 하고 내버린 거. 무엇 발라진 것도 같다. 그 데어서 해도 그냥 내버려지니까 것도 좋아진 거 닮아. 아기 세 살에.)

113028 @ 음.(음.)

113028 #3 게난 지금 말 못허게 그런 그르가 쪼끔 이서도.(그러니 지금 말 못하게 그런 흉터가 쪼금 있어도.)

113028 @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화상 입었을 때 어떵 치료 헷덴 말 안 들어낫수과?(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화상 입었을 때 어떻게 치료했다는 말 안 들었었습니까?)

356) '벵훈이' 발화자의 아들 이름이다.

113028 #3 알지 못혜여. 그 아이 혼 번 데여나고 우린 그런 거 보도 아녀고.(알지 못해. 그 아이 한 번 데었었고 우린 그런 거 보도 안 하고.)

113028 @ 아니, 옛날엔 뭐 뒌장 발른다든가 막 경혜근엥 오히려 더 아파.(아니, 옛날엔 뭐 된장 바른다든가 막 그렇게 해서 오히려 더 아파.)

113028 #3 그런 거 몰라 뒌장은 개 물은 거.(그런 거 몰라 된장은 개 문 거.)

113028 @ 개 물렷일 때에예?(개 물렸을 때요?)

113028 #3 응. 개 물렷일 때, 그 집이 뒌장을 그레 처멘덴 헷어. 개 집잇 개 임제네 뒌장.(응. 개 물렸을 때, 그 집의 된장을 거기에 처맨다고 했어. 개의 집의 개 임자네 된장.)

113028 @ 혹시 이 동네에서 화상 입은 사람 엇수과? 뭔가 흉터 잇고 헌 사름.(혹시 이 동네에서 화상 입은 사람 없습니까? 뭔가 흉터 있고 한 사람.)

113028 #3 몰라, 엇어.(몰라, 없어.)

113028 @ 수망리엔 엇인 거 닮수다.('수망리'엔 없는 거 같습니다.)

112029 @ 그다음 이제는 그 동상 이섯잖아예? 동상. 옛날에 막 학교 다녕 막 동상 걸리고 헷덴 헷잖아예? 동상 걸렷을 땐 게 어떵 헷수과?(그다음 이제는 그 동상 있었잖아요? 동상. 옛날에 막 학교 다니며 막 동상 걸리고 했다고 했잖아요? 동상 걸렸을 땐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112029 #3 몰라, 그런 것도 몰르고.(몰라, 그런 것도 모르고.)

112029 #2 동상, 나가 동상을 걸려낫는디 몰르겠어. 어떵사 헤사신지.(동상, 내가 동상을 걸렸었는데 모르겠어. 어떻게 했었는지.)

112029 #3 저, 내불민 좋앗주 무신.(저, 내버리면 나았지 무슨.)

112029 #2 아니, 나 동상 걸릴 땐 군대에서 동상 걸리니깐 군대선 뭐 치료 뭐 허단 보난 것도 엇어.(아니, 내가 동상 걸릴 땐 군대에서 동상 걸리니깐 군대선 뭐 치료 뭐 하다가 보니까 것도 없어.)

112029 #3 하니 차면 좋주.(하늬 지나면 좋지.)

112029 #2 군대에서 그전에 츰 지금은 허지만은.(군대에서 그전에 참 지금은 하지만.)

112029 #3 이젠 약이 하부난.(이젠 약이 많으니까.)

112029 #2 아니, 그 전에는 입을 거나 저 신을거나 무시거 저 변변치 아녓주게. 거, 거 육이오 때 우리 육이오 때는 안 강, 그 후로 갓다 왓지만은 옷을 스뭇 우리 저 휴가 오젠 허민 놈의 옷 빌어 빌언 입어아지고 경 헷는디 뭐.(아니, 그 전에는 입을 거나 저 신을 거나 무엇 저 변변치 않았지. 거, 거 육이오 때 우리 육이오 때는 안 가서, 그 후로 갔다 왔지만 옷을 사뭇 우리 저 휴가 오려고 하면 남의 옷 빌어 빌어서 입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뭐.)

112029 #3 그 시철엔 하도 어려우난.(그 시절엔 하도 어려우니까.)

112030 @ 예, 감기 걸렷을 땐 뭐 그 아이들 감기 걸렷을 땐마씨?(예, 감기 걸렸을 땐 뭐 그 아이들 감기 걸렸을 땐요?)

112030 #3 그 저 강기 걸린 땐 그 줏이엔 헌 거, 나무에 영 낭 먹어드는 영 버베렝이 벌거지, 줏이엔 헌 거, 저 빈둑낭 줏이나, 뽕낭 줏이나 그거 헤당 그거 영 뻬영 애기덜이 그거 멕이면은 존덴 헤낫주.(그 저 감기 걸린 땐 그 나무굼벵이라고 한 거, 나무에 이렇게 나무 먹어드는 이렇게 버 애벌레 벌레, 나무굼벵이라고 한 거, 저 천선과 굼벵이나, 오디나무 굼벵이나 그거 해다가 그거 이렇게 뽑아서 아기들이 그거 먹이면 낫는다고 했었지.)

112030 @ 그게 벌레예?(그게 벌레요?)

112030 #3 응. 줏 줏.(응. 나무굼벵이, 나무굼벵이.)

112030 #2 줏 타레 잘 다녓주.(남무굼벵이 잡으러 잘 다녔지.)

112030 #3 줏 헤당 멕이민 존넨.(나무굼벵이 해다가 먹이면 낫는다고.)

112031 @ 막 기침 심하게 헐 땐 어떵 헷수과? 기침.(막 기침 심하게 할 땐 어떻게 했습니까? 기침.)

112031 #3 기침헐 때 그 시철엔 그런 거 몰랏는디, 이제덜은 그 동박지름에 그 애기, 물에 놩 동박지름 애기나 어른이나 동박지름 뼁 먹으민 경 존넨들. 경 골아낫어.(기침할 때 그 시절엔 그런 거 몰랐는데, 이제들은 그 동백기름에 그 아기, 물에 놓아 동백기름 아기나 어른이나 동백기름 빻아 먹으면 그렇게 낫는다고들. 그렇게 말했었어.)

112031 @ 애기들 막 감기 끝난 다음에 기침 막 오래허고 겅 안 헤낫수과?(아기들 막 감기 끝난 다음에 기침 막 오래하고 그렇게 안 했었습니까?)

112031 #3 그런 것도 아녀난 세상몰란.(그런 것도 안 해서서 세상모르겠어.)

112031 @ 시어른들도 나이 들언 막 기침 같은 거 안헤난마씨?(시어른들도 나이 들어서 막 기침 같은 거 안 했었나요?)

112031 #3 어서.(어서.)

112032 @ 그다음엔 딸꾹질 애기 때도 잘하잖아예? 딸꾹질할 땐 어떵 치료헷수과?(그다음엔 딸꾹질 아기 때도 잘하잖아요? 딸꾹질할 땐 어떻게 치료했습니까?)

112032 #3 틀국질은 애기 저 애기 때 추우민 저 틀국질나.(딸꾹질은 아기 저 아기 때 추우면 저 딸꾹질 나와.)

112032 @ 음.(음.)

112032 #3 추우민, 응. 추우민 나는디 뚤께기 헤지민 읏구, ᄒᆞ쏠 역은 사름은 거 뚤국질 나가민, 너 뭐시거 나두난 너 먹어불레 나 아즈가부나 경헨 딱 ᄒᆞ게시리 놀레게 골아불민 확 엇어져. 그런 거 잇주.(추우면, 응. 추우면 나는데 딸꾹질해지면 웃고, 조금 역은 사람은 거 딸꾹질 나가면, 너 무엇 놔두니까 너 먹어버리라고 내가 가져가버려서 그렇게 해서 탁하게 놀라게 말해버리면 확 없어져. 그런 거 있지.)

112033 @ 그다음 코피 같은 거 낫을 때 어떵 헷수과?(그다음 코피 같은 거 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112033 #3 코피사 나민 나는양 무신 ᄒᆞ쏠 막앙 이시민 좋주, 약이 서서?(코피야 나면 나는 대로 무슨 조금 막아서 있으면 나았지, 약이 있었어?)

112033 @ 아이들 키우멍 코피 난 적은 엇수과?(아이들 키우면서 코피 난 적은 없었습니까?)

112033 #3 아, 엇어.(아, 없어.)

112033 @ 막 삼춘네 일허당 지처근에 오면은 코피 나거나 경 안 헤봣수과?(막 삼촌네 일하다가 지쳐서 오면 코피 나거나 그렇게 안 해봤습니까?)

112033 #3 아, 코피는 강기 나우젠 ᄒᆞ민 ᄒᆞ쏠 서꺼졍 나와도 그런 거 별로 엇고, 잇당 ᄒᆞ쏠 서꺼졍 나와도 꿰 터저도 기냥.(아, 코피는 감기 나으려고 하면 조금 섞여져 나와도 그런 거 별로 없고, 있다가 조금 섞여져 나와도 꾀 터져도 그냥.)

112033 @ 게, 그냥 내부럿수과 그냥?(그래, 그냥 내버렸습니까, 그냥?)

112033 #3 내불면 좋주.(내버리면 좋지.)

112034 @ 그다음에는 가랜데 가끔 삼춘도 가래 끓잖아예? 저 젊었을 때 담배 피워낫수과?(그다음에는 가랜데 가끔 삼촌도 가래 끓잖아요? 저 젊었을 때 담배 피웠습니까?)

112034 #3 어. 믄 피어.(어. 모두 피워.)

112034 #2 담배 ᄒᆞᆫ 삼십 세까지는 피워저실 거라.(담배 한 삼십 세까지는 피웠을 거야.)

112034 @ 어, 빨리 끈엇져예?(어, 빨리 끊었네요.)

112034 #2 애기들이 못허게 헤.(아기들이 못하게 해.)

112034 @ 가래 같은 거 끓으면 지금도 가래 가끔 끓잖아예? 건 어떵 뭘로 치료헷수과?(가래 같은 거 끓으면 지금도 가래 가끔 끓잖아요? 건 어떻게 뭐로 치료했습니까?)

112034 #2 가래 나 여 중간에 기침하는 약도 좀 먹당 지금 끊어 버렷는디.(가래 내가 여 중간에 기침하는 약도 좀 먹다가 지금 끊어 버렸는데.)

112034 @ 예.(예.)

112034 #2 내가 그때 병원에 가난 기관지가 막 약허덴 허멍 헨에 허던게, 이젠 좀 괜찮아젓는디, 여기서 가래 ᄀᆞ뜬 건 누게 걸 신경을 안 써.(내가 그때 병원에 가니까 기관지가 막 약하다고 하면서 해서 하더니, 이젠 좀 괜찮아졌는데, 여기서 가래 같은 건 누가 그걸 신경을 안 써.)

112034 @ 그냥 나으면 나은 대로예?(그냥 나으면 나은 대로요?)

112034 #3 응.(응.)

112035 @ 그다음에는예, 가래톳이라고 헤가지고 그 이 허벅지하고 이 사타구니 사이에 땅땅 저 멍울 같은 거 헤 가지고 막 걷기 불편할 정도로 나는예 그런 병이 잇거든마씨. 혹시 거기 아팡 못 걸어보거나 경 안 헤봣수과? 그런 사람 본 적 엇수과?(그다음에요, 가래톳이라고 해 가지고 그 이 허벅지하고 이 사타구니 사이에 딴딴 저 멍울 같은 거 해 가지고 막 걷기 불편할 정도로 나는요 그런 병이 있거든요. 혹시 거기 아파서 못 걸어보거나 그렇게 안 해봤습니까? 그런 사람 본 적 없습니까?)

112035 #2 몰라.(몰라.)

112036 @ 거민 설사 날 땐 어떵 헷수과? 설사 날 땐.(그러면 설사 날 땐 어떻게 했습니까? 설사 날 땐.)

112036 #3 설사 날 땐 뭔 건 약이라 거 병이라, 나두민 좋주.(설사 날 땐 뭔 건 약이라 그거 병이라, 놔두면 좋지.)

112036 @ 게, 나두문 좋은 게 아니라, 설사 낫을 때 뭐 음식을 계속 먹으면 계속 설사 나면 안 뒈지 않으카마씸? 게도 뭔가 하지 안헤시카마씨예?(그래, 놔두면 좋은 게 아니라, 설사 났을 때 뭐 음식을 계속 먹으면 계속 설사 나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뭔가 하지 안했을까요?)

112036 #3 게난, 설사만썩 흔 것에 난 신경 안썽, 기자 두어 번 확 홅아지민 설러불주 다 나와지민.(그러니, 설사만한 한 것에 난 신경 안 써서, 그저 두어 번 확 홅어지면 끝나버리지 다 나와버리면.)

112036 #2 그 내가 설사 그전인 ᄌᆞ주 나낫는디양, 내중엔 보니깐 그 위가 약헌 거라.(그 내가 설사 그전엔 자주 났었는데요, 나중엔 보니깐 그 위가 약한 거야.)

112036 @ 예.(예.)

112036 #2 위가 약헤 가지고 헷는디 지금은 젊을 때 허고 완전히 내가 그것이 좀 건강헤진 거 같은데, 내가 그전에는 여름 젊어신 땐, 여 올레 소 모랑 들어오다 근엥 그게 여기 들어 말 여기 바빠 가지고.(위가 약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젊을 때하고 완전히 내가 그것이 좀 건강해진 거 같은데, 내가 그전에는 여름 젊었을 땐, 요 올레 소 몰아서 들어오다가 그게 여기 들어 말 여기 바빠 가지고.)

112036 @ 예.(예.)

112036 #2 그대로 화장실 뛰어낫나고.(그대로 화장실 뛰었었다고.)

112036 #3 이젠 아녀.(이젠 않아.)

112036 @ 게민 설사하면 따로 다른 걸로 뭐 다른 거 처방헹 뭐.(그러면 설사하면 따로 다른 걸로 뭐 다른 거 처방해서 뭐.)

112036 #2 거 그런 거 엇주. 지금이난 병원 시난. 우리 병원에 갈 생각 꿈도 안 꿔난.(거 그런 거 없지. 지금이니까 병원 있으니까. 우리 병원에 갈 생각 꿈도 안 꿔난.)

112036 #3 하르방[357] 병원 혼 번 안 강 사난.('할아버지' 병원 한 번 안 가서 사니까.)

112037 @ 아, 기꽈? 그면 이질, 설사보다 독헤 가지고 죽을 수도 있었는데 저 전쟁 때도 막 현 죽어신디, 이질 같은 건 걸렷을 땐 어떵 헤낫는지 혹시 모르쿠과?(아, 그래요? 그러면 이질, 설사보다 독해 가지고 죽을 수도 있었는데 저 전쟁 때도 막 해서 죽었는데, 이질 같은 건 걸렸을 땐 어떻게 했었는지 혹시 모르겠습니까?)

112037 #2 이질은 안 걸려나부난 몰라. 걸려나질 안 헤부난.(이질은 안 걸려서 몰라. 걸리질 안 해버려서.)

357) '하르방'은 할아버지를 뜻하나 여기서는 '남편'을 말한다.

112037 @ 게난 맞수다. 걸린 사름들 엇어낫수과?(그러니 맞습니다. 걸린 사람들 없었습니까?)

112037 #3 이젠 병원에들 뎅기고 뭣ᄒᆞ난 그거 저거 알암주. 그 시철엔 이 고망만썩 살아부난.(이젠 병원들 다니고 뭣하니까 그거 저거 알지. 그 시절엔 이 구멍만씩 살아버려서.)

112037 #2 아니, 그전에 이질 걸려난 사름들 이서나서.(아니, 그전에 이질 걸렸던 사람들 있었어.)

112037 @ 게난 그때 어떵 치료헤신고예?(그러니 그때 어떻게 치료했을까요?)

112037 #2 몰라.(몰라.)

112038 @ 그다음엔 그 곽란이라고 헤 가지고 막 속이 다 뒤집어지멍 아프는예? 막 토하고 이런 거는 어떵 헷수과?(그다음엔 그 곽란이라고 해 가지고 막 속이 다 뒤집어지면서 아픈? 막 토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112038 #3 거 곽란이엔 헤도 이제사 보난에 무시거 음식먹언에 아다로[358] 뒈는 그거 아이라? 배 아팡 막 ᄒᆞᆫ 거. 어떤 게 약인궁 ᄒᆞ민, 배를 아팡 삭삭 ᄀᆞ렐 ᄀᆞ는디 나도 두린 때에 검질메레 밧듸 갓단에 그걸 아프난, 그 무신거로 헨에, 무시거 속귀를 경 꼬아.(거 곽란이라고 해도 이제야 보니까 무슨 음식 먹어서 '식체' 하는 그거 아니라? 배 아파서 막 한 거. 어떤 게 약인가하면, 배를 아파서 삭삭 맷돌을 가는데 나도 어린 때에 김매러 밭에 갔다가 그걸 아프니까, 그 무엇으로 해서, 무엇 새끼를 그렇게 꼬아.)

112038 @ 예.(예.)

112038 #3 영 노를 영 꼬는 건디 영 웨여 끈다고. 웨여 끈 거엔 풀 ᄒᆞᆫ착에 영 딱 영 무껀, 그거 비영 자라는 거라. 거 밧듸서.(이렇게 노를 이렇게 꼬는 건데 이렇게 왼쪽으로 꼰다고. 왼쪽으로 꼰 거에 팔 한쪽에 이렇게 딱 이렇게 묶어서, 그거 배서 자라는 거야. 그 밭에서.)

112038 @ 어, 어.(어, 어.)

112038 #3 그거 영 형 자당 깨난 없어져.(그거 이렇게 해서 자다가 깨어나니까 없어졌어.)

112038 @ 웨? 무사 그걸 경 허렌 헤신고예?(왜? 왜 그걸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112038 #3 몰라, 무사 산디. 엿날 우리 할마님이, 나가 밧듸 검질메레 가는디 막 ᄀᆞ싸 광란이엔 ᄒᆞ멍 그것ᄀᆞ라. 배 아팡 막 ᄒᆞ난 ***** ᄒᆞ난 이제는 그거를 헤섹ᄒᆞ질 아녀고, 음식 잘못 먹엉 아팟다고 ᄒᆞ주만은, 그 시철에 그거엔 허멍, 일름을 그거엔 ᄒᆞ멍 무신 저 에엄에 간에 무신 정당이여 무신 거 걷어당.(몰라, 왜 그랬는지. 옛날 우리 할머님이, 내가 밭에 김매러 가는데 막, 아까 광란이라고 하면서 그것보고. 배 아파서 막 하니까 ***** 하니까 이제는 그거를 해석하지를 않고, 음식 잘못

358) '아다로'는 일본어 아다리 'あたり'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표준어 '식체'에 대응한다.

먹어서 아팠다고 하지만, 그 시절에 그거라고 하면서, 이름을 그거라고 하면서 무슨 저 옆에 가서 무슨 댕댕이덩굴이야 무슨 그거 걷어다가.)

112038 @ 음.(음.)

112038 #3 욜로 영 웨어 꼬앙.(요리로 이렇게 왼쪽으로 꼬아서.)

112038 @ 음.(음.)

112038 #3그걸 비엉 누렌 ᄒᆞ는 거 아니? 밧듸 게 영 누워이시난 ᄒᆞᆫ 줌 쑥 헹 자지는 거라. 경 배 아픈 사름이. ᄒᆞᆫ 줌 잔 깨난 엇어지난 그거ᄀᆞ라 광란이엔 경 ᄀᆞᆯ아낫어.(그걸 배서 누우라고 하는 거 아니야? 밭에 그래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한 잠 쑥 해서 자지는 거야. 그렇게 배 아픈 사람이. 한 잠 잔 깨나서 없어지니까 그것보고광란이아고 그렇게 말했었어.)

112038 @ 정낭줄로 그 꼬아 가지고 예?(댕댕이덩굴줄기로 그 꼬아 가지고요?)

112038 #3 게난.(그러니까.)

112038 #2 게나저나 그.(그나저나 그.)

112038 #3 밧듸 간 거난.(밭에 간 거여서.)

112038 #2 현재 그 잇는 걸로 ᄒᆞᆫ다는 말이주.(현재 그 있는 걸로 한다는 말이지.)

112038 #3 잇는 걸로 헌 거. 게난 그것에 뭐 꼬는 거는 대게 집이서는 영 꼬는 거헨 꼬주만은, 밧듸 간 엠에 거난, 이 무신 줄거리 헨 영 꼬안에, 영 눈 거주 밧듸서 아픈 거난. 겐게 줌자렌 허난 경 아팡 허단에 줌은 ᄒᆞᆫ 줌 부처전게 깨나난 어서 지난 난 경은 헤난. 놈은 어떵사 헴신디.(있는 걸로 한 거. 그러니 그것에 뭐 꼬는 거는 대게 집에서는 이렇게 꼬는 거해서 꼬지만, 밭에 가서 옆에 거니까, 이 무신 줄거리 해서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누운 거지 밭에서 아픈 거니까. 그러더니 잠자라고 하니까 그렇게 아파 하다가 잠은 한 잠 부쳐지더니 깨나니까 없어지니까 나는 그렇게 했었어. 남은 어떻게야 하는지.)

112039 @ 체헷을 땐 거면 어떵 헙니까? 체헤근에 막 그 곽난 아마도 저가 봣을 땐 식중독이나 이런 거 같은데예? 심하게 근데 단순히 체헷을 땐 어떵 헷수과?(체했을 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체해서 막 그 곽난 아마도 저가 봤을 땐 식중독이나 이런 거 같은데요? 심하게 그런데 단순히 체했을 땐 어떻게 했습니까?)

112039 #3 몰라, 건 어떵 산디.(몰라, 그건 어떻게 했는지.)

112039 @ 아이들 뭐 먹엉 체하지 안헤봔마씨? 배아프믄 삼춘 체 잘 헷일 건디.(아이들 뭐 먹어서 체하지 안 해봤나요? 배 아프면 삼촌 체 잘 했을 건데.)

112039 #3 아니.(아니.)

112039 @ 체헷을 때.(채했을 때.)

112039 #3 그런 거 모르고. 모르고 ᄀᆞ싸 곽난이엔 ᄒᆞ난 문득 튼네전. 나 당한 거난.(그런 거 모르고. 모르고 아까 곽난이라고 하니까 문득 떠올려져서. 내가 당한 거니까.)

112039 @ 아이들 체하거나 경 안 헤봣수과?(아이들 체하거나 그렇게 안 해봤습

니까?)

112039 #3 아.(아.)

112039 #2 체허는 건 급허게 먹으민 체허기가 쉽는디 급허게 무신거.(체하는 건 급하게 먹으면 체하기가 쉬운데 급하게 무엇.)

112039 #3 아이들 먹을 때 나 어 체헌 건 알주. 나가 무사 아는궁. 엿날에 이 이 차도 저 남원일[359] 가사 타고.(아이들 먹을 때 나는 어 체한 건 알지. 내가 왜 아는가. 옛날에 이 이 차도 저 '남원리'를 가야 타고.)

113039 @ 예.(예.)

113039 #3 서귀포ᄁᆞ장 가민.(서귀포까지 가면.)

113039 @ 음.(음.)

113039 #3 남원리 가서 타고 홀 시철에, 애기가 아시날 저 조팟티 영 메멍 엿날에 조팟디 난 저 푸께엔 헌 게 잇주.('남원리' 가서 타고 할 시절에, 아기가 전날 저 조밭에 이렇게 매며 옛날에 조밭에 난 저 꽈리라고 한 게 있지.)

113039 @ 예, 예예.(예, 예예.)

113039 #3 경혼 거 탕 애기들을 멕여서.(그런 거 따서 아기들을 먹였어.)

113039 @ 예.(예.)

113039 #3 영 먹으렌. 엿날에 우리도 먹어나고 겨난. 탄 멕엿는디, 아니 혼 둣날은 막 어, 헨 서르레 쑥 기 가가는디, 애기가 아퍈 막 콕 죽어가.(이렇게 먹으라고. 옛날에 우리도 먹어나고 그러니. 따서 먹였는데, 아니 한 뒷날은 막 어, 해서 서쪽으로 쑥 기어 가가는데, 아기가 아파서 막 콕 죽어가.)

113039 @ 음.(음.)

113039 #3 콕 죽어간에 아이고, 이걸 어떵 ᄒᆞ민 좋곤 이젠 ᄒᆞ난, 새파랑 헤가난에 아니 이제 서귀포 병원에 갈 수도 엇고, 어디 저 세둔[360]이엔 헌 디 가살 걸헤도.(콕 죽어가서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젠 하니까, 새파랗게 해가니까 아니 이제 서귀포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어디 저 '효돈'이라고 한 데 가야할 걸해도.)

113039 @ 예.(예.)

113039 #3 걸엉 저디 강 차탕 가젠허민 어둑엉 가질 못헤켜게난, 겨난 어멍손이 약손인 이 그 말 약손이엔 혼 말이 그 말이주. 애기 새파랗게 정신 엇어가난, 그 배를 영 영 막 씰어서.(걸어서 저기 가서 차타서 가려고하면 어두워서 가질 못하겠다 하니까, 그러니 어머니손이 약손인 이 그 말 약손이라고 한 말이 그 말이지. 아기 새파랗게 정신 없어가니까, 그 배를 이렇게 이렇게 막 쓸었어.)

113039 @ 예.(예.)

113039 #3 아, 요영 요영 영 영 배를 씰우제난 애기가 퀵곽 허는 거. 이 무시거 토허는 거 아니.(아,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배를 쓸어주니까 아기가 웩웩하

359) '남원리'는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를 말한다.
360) '세둔'은 제주 서귀포시 '효돈마을' 말한다.

는 거야. 이 무엇 토하는 거 아니야.)

113039 @ 예.(예.)

113039 #3 토헨 거 보난 그 푸께, 푸께 그게 연처난 거주게.(토한 거 보니까 그 꽈리, 꽈리 그게 얹혔던 거지.)

113039 #2 언친 거주게.(얹힌 거지.)

113039 #3 푸께 흔 민짝ᄒᆞ게 토헨 나오난. 그거 나오난 애기 눈떵 살아난 게 거 나대로 고치난 거.(꽈리 한 문덕하게 토해서 나오니까. 그거 나오니까 아기 눈떠서 살아난 게 그거 나대로 고쳤던 거.)

113039 #2 건 언친 거.(그건 얹힌 거.)

113040 @ 그다음에는예 어, 이 살 이렇게 베잖아예? 칼로 베기도 허고 풀로 베기도 허잖아예? 그렇게 베였을 땐 어떵 헷수과?(그다음에요 어, 이 살 이렇게 베이잖아요? 칼로 베이기도 하고 풀로 베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베였을 땐 어떻게 했습니까?)

113040 #3 ᄀᆞ싸 ᄀᆞᆯ으난게. 속 ᄒᆞ쏠 ᄐᆞ아당 부비어 누녕 영 나두민 그게민 다 뒈는 거.(아까 말하니까. 쑥 조금 뜯어다가 비벼 눌러 이렇게 놔두면 그거면 다 되는 거.)

113041 @ 모기에 물렸을 땐마씨?(모기에 물렸을 땐요?)

113041 #3 모기에 물린 데 춤 ᄇᆞᆯ르민 뒈여.(모기에 물린 데 침 바르면 돼.)

113042 @ 그민 뱀에 물린 땐마씨?(그러면 뱀에 물린 땐요?)

113042 #3 그런 건 약도 엇고 난 몰라.(그런 건 약도 없고 난 몰라.)

113042 @ 그 똘인가 뱀에 물려낫덴 허지안헷수과?(그 딸인가 뱀에 물려났다고 하지 안했습니까?)

113042 #3 게난에 피나고 아프지 아녀난 내빗주 무신. 경헌디 ᄒᆞ쏠 요수 처메진 거 닮아 요수.(그러니까 피나고 아프지 않으니까 내버렸지 무슨. 그랬는데 조금 요소 처매진 거 같아 요소.)

113042 @ 요수가 뭐꽈?('요수'가 뭡니까?)

113042 #3 밧듸 ᄒᆞ는 비루.(밭에 하는 비료.)

113042 @ 요소?(요소?)

113042 #3 어. 요소비루.(어. 요소비료.)

113042 @ 요소비료를 그 뱀 물린데?(요소비료를 그 뱀 물린데?)

113042 #3 응. 그때 ᄒᆞ쏠 처멘덴 말이 이서 처메난 거 닮아.(응. 그때 조금 처맨다고 말이 있어 처맸던 거 같아.)

113043 @ 벌에 쏘일 땐 어떵 헷수과?(벌에 쏘일 땐 어떻게 했습니까?)

113043 #3 벌 쏠 땐 저 무시거 저 기자 내불민 좋고, 이제 벌들은 경헤여도 내불민 좋은디 대게 오줌 쌍도 ᄇᆞᆯ른덴 허고, 경 ᄀᆞᆯ아낫어, 오줌 쌍 볼른덴.(벌 쏠 땐 저 무엇 저 그저 내버리민 좋고, 이제 벌들은 그래도 내버리면 좋은데 대게 오줌 싸서도 바른다고 하고, 그렇게 말했었어, 오줌 싸서 바른다고.)

113044 @ 그다음에는예 어, 우리가 그 옻 올랏덴 헷는데 칠 올른 건 어떵 헷수과?(그다음에요 어, 우리가 그 옻올랐다고 했는데 옻 오른 건 어떻게 했습니까?)

113044 #3 거 우린 안헤봇는디 엿날 소문들으메 그 나무 강 ᄉᆞ라분덴.(거 우린 안 해봤는데 옛날 소문 들으면 그 나무 가서 살라버린다고.)

113044 @ 아.(아.)

113044 #3 그런 낭 그 올른 건 어느 낭인철이 모르주게. 몰라도 칠낭을 강 봉강 ᄉᆞ라.(그런 나무 그 오른 건 어느 나무인줄 모르지. 몰라도 옻나무를 가서 주어다가 살라.)

113044 @ 그냥 솔아서 뭐 연기를 쮄다던가 이런 게 아니고.(그냥 살라서 뭐 연기를 쬔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113044 #3 아니, 영 솔아. 영 불부치멍.(아니, 이렇게 살라. 이렇게 불붙이면서.)

113044 #2 연기 쒜는 게 맞지.(연시 쐬는 게 맞지.)

113044 #3 그 그 그나무도 멧 멧.(그 그 그나무도 몇 몇.)

113044 @ 예.(예.)

113044 #3 나 몸도 멧 멧 좋으라고 경헨 ᄀᆞᆯ아, 경헌덴.(내 몸도 몇 몇 좋으라고 그랬다고 말해, 그런다고.)

113045 @ 그다음에는 멍들 때 잇잖아예? 멍들 때.(그다음에는 멍들 때 있잖아요? 멍들 때.)

113045 #3 다청 멍든 거지게 그거.(다쳐서 멍든 거지 그거.)

113045 @ 건 어떵 헷수과?(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113045 #3 것사 내불민 좋주, 무신 그런 거 ᄀᆡ장 안 헤봔.(그거야 내버리면 좋지, 무슨 그런 거 까지 안 해봤어.)

113045 @ 안 헤봇수과? 그.(안 해봤습니까? 그.)

113046 @ 다음엔 그 가끔 말을 더듬는 아이 잇잖아예? 그 말 더듬을 땐 건 어떵 고처신고예?(다음엔 그 가끔 말을 더듬는 아이 있잖아요? 그 말 더듬을 땐 그건 어떻게 고쳤을까요?)

113046 #3 몰라, 내빗주. 무신 고치국 경헷이카?(몰라, 내버렸지. 무슨 고치고 그리했을까?)

113046 @ 혹시 아이들 중에서 말 더듬엇던 아이 엇수과?(혹시 아이들 중에서 말 더듬었던 아이 없었습니까?)

113046 #3 엇어.(없어.)

113047 @ 그 다음 허리 삐엇을 땐 어떵 헙니까? 뭐 무거운 일 허당 삐끗헹 삐엇을 때.(그 다음 허리 삐었을 땐 어떻게 합니까? 뭐 무거운 일 하다가 삐끗해서 삐었을 때.)

113047 #3 아이고, 무신 저 무시거 헤근에 무신 아웨낭 썹이나 무신 걸로 헤영, 영 부침ᄒᆞ덴 헷주. 영 멘도롱ᄒᆞ게[361] 첨 영 기자, 대영 영 처미영 ᄒᆞ쏠 부침도 ᄒᆞ

361) '멘도롱ᄒᆞ다'는 '물이나 방바닥 따위가 조금 따뜻한 느낌이 있다'를 말한다.

고.(아이고, 무슨 저 무엇 해서 무슨 아왜나무 잎이나 무슨 걸로 해서, 이렇게 붙인다고 했지. 이렇게 '멘도롱하게' 참 이렇게 그저, 대어서 이렇게 처매서 조금 붙임도 하고.)

113047 @ 아웨낭 잎으로예?(아왜나무 잎으로요?)

113047 #3 아웨낭 잎으로.(아왜나무 잎으로.)

113047 @ 걸 뜨겁게 헤 가지고예.(그걸 뜨겁게 해가지고요.)

113047 #3 응.(응.)

113047 @ 거믄 쩟수과, 솖앗수과? 잎을.(그러면 쪘습니까, 삶았습니까? 잎을.)

113047 #3 쩐. 멘도롱ᄒᆞ게 처근에, 이디 영 부청 구침[362]ᄒᆞ미라고 겡헨.(쪘어. '멘도롱'하게 쪄서, 여기 이렇게 붙여 '구침'함이라고 그랬어.)

113047 @ 여기도 아웨낭 잇수과?(여기도 아왜나무 있습니까?)

113047 #3 아웨낭 하주게.(아왜나무 많지.)

113048 @ 기지예. 그다음에는 허리는 삐엇을 때 겅헷덴 허고. 발목도 삐끗허민 잘 삐잖아예? 발목 삐엇을 땐 어떵 헷수과?(그렇지요. 그다음에는 허리는 삐었을 때 그랬다고 하고. 발목도 삐끗하면 잘 삐잖아요? 발목 삐었을 땐 어떻게 했습니까?)

113048 #3 몰라, 그자 엿날엔 그런 구침헌 거 그런 거벳긘.(몰라, 그저 옛날엔 그런 '구침'한 거 그런 거밖에.)

113048 @ 게, 그 발목 삐면은 어떵 헨? 그냥?(그래, 그 발목 삐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113048 #3 몰라.(몰라.)

113048 @ 한 번도 아이들도 삔 적 엇수과?(한 번도 아이들도 삔 적 없습니까?)

113048 #3 우린 엔간헌 건 내비어. 거난 아이들.(우린 웬만한 건 내버려. 그러니 아이들.)

113048 @ 다른 아이들이나 다른 사람들 발목 삐난 어떵 헷덴 헌 말도 안 들어봔마씨?(다른 아이들이나 다른 사람들 발목 삐니까 어떻게 했다고 한 말도 안 들어봤습니까?)

113048 #3 몰르고, 기자 경정ᄒᆞᆫ 거는 배견. 기자사 요세사 ᄒᆞ쏠ᄒᆞ민 병원에 가부난 게 못 곧고, 엿날엔 영 기자 전디느니 공으로 살안. 멩이나 질민, 게난 하영들 죽엇주게. 병신도 하고 이젠 병신 뭘 일 이서?(모르고, 그저 그럭저럭한 그거는 배겼어. 그저 요새야 조금하면 병원에 가버리니까 그 못 말하고, 옛날엔 이렇게 그저 견디느니 공으로 살았어. 명이나 길면, 그러니 많이들 죽었지. 병신도 많고 이젠 병신 될 일 있어?)

113049 @ 귀에 물들어 갔을 땐 어떵 헷수과?(귀에 물들어 갔을 땐 어떻게 했습니까?)

113049 #3 몰라, 그런 거 원 우리 본데 엇이난. 아이들이나 ᄒᆞᆫ 번 뭐헤도 귀에 물들어 강 고셍은 안 헤보고. 놈은 어떵사 헴신디 몰라.(몰라, 그런 거 원 우리 본

362) '구침'은 뜨거운 것으로 살을 뜨고 침을 주어서 병을 다스리는 것을 뜻한다.

적 없으니까. 아이들이나 한 번 뭐해도 귀에 물들어 가서 고생은 안 해보고. 남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

113049 #2 그전엔 에, 내예 가근엥에 몸 곰고 뭐허난, 요세 여기가 게난.(그전엔 에, 내에 가서 몸 감고 뭐하니까, 요새 여기가 그러니.)

113049 @ 아니, 옛날에.(아니, 옛날에.)

113049 #2 요센 헤엄도 못 치잖아 게난.(요샌 헤엄도 못 치잖아 그러니.)

113049 @ 아, 옛날에 내에 강 몸 곰아 난 귀에 물들믄 어떵 헷수과?(아, 옛날에 내에 가서 몸 감은 후 귀에 물들면 어떻게 했습니까?)

113049 #3 그런 건 엇어. 그런 말 나 들은 게 엇어. 귀에 물들엇젠. 귀에 물 영 들민, 생각에 그 무시거 저 영 험벅으로나 종이로나 꼬앙 이레 영 둘러, 둘런 그거가 약이랏주. 영 둘렁 영영 헤비어.(그런 건 없어. 그런 말 나 들은 게 없어. 귀에 물들었다고. 귀에 물 이렇게 들면, 생각에 그 무엇 저 이렇게 헝겊으로나 종이로나 꼬아서 이리 이렇게 둘러, 둘러서 그것이 약이였지.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이렇게 해 버려.)

113049 #2 게, 그세 그 그 물에 무처불렘 험도 그 우리 저 몸 곰으레 가믄 영 보믄 거 내창에 몸통드레 영 헤근에홀 때 영 귀 영 헤근엥에 ᄒᆞ는 사름들도 잇곡, 게난 먹돌[363] 영.(그래, 그사이 그 그 물에 묻혀버리라고 하는 것도 그 우리 저 몸 감으러 가면 이렇게 보면 그 내에 몸통들에 이렇게 해서할 때 이렇게 귀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 '먹돌' 이렇게.)

113049 #3 아, 귀에 물든 거, 거기 놓안에 귀 눌르는 게 젤 낫아.(아, 귀에 물든 거, 거기 놓아서 귀 누르는 게 젤 나아.)

113049 #2 거 뭐 빼기렌 헌 거, 거 뭐 빼기렌 허는 거주. 영 뭐 게 물만 빠불문 뒈니까.(거 뭐 빼기라고 한 거, 거 뭐 빼기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뭐 그 물만 빼버리면 되니까.)

113049 #3 종우로구 천이로구 저 노 꼬앙 저 영 둘러불민.(종이로고 천으로고 저 노 꼬아서 저 이렇게 둘러버리면.)

113050 @ 그 다음엔 막 그 발에 무좀 같은 거 헷을 때 무좀은 어떵 치료헷인고예?(그 다음엔 막 그 발에 무좀 같은 거 났을 때 무좀은 어떻게 치료했을까요?)

113050 #3 몰라게. 무좀은 어떵사 헷인고? 우리도 게 이제 잇당 경 ᄀᆞ라워. 물 ᄀᆞ라워 물 ᄀᆞ라도 겨을 틀어가민 아멩치도 아녀난.(몰라. 무좀은 어떻게 했지? 우리도 그 이제 있다가 그렇게 가려워. 몹시 가려워 몹시 가려워도 겨울 들어가면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113050 @ 막 무좀 심하게 걸린 사름덜 엇어마씨? 주변에?(막 무좀 심하게 걸린 사람들 없어요? 주변에?)

113050 #3 엇어. 나 몰라.(없어. 난 몰라.)

113050 @ 아이들 중에서도 무좀 걸린 아이가 엇고예?(아이들 중에서도 무좀

363) '먹돌'은 아주 딴딴하고 광택이 나는 돌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현무암으로 된 너럭바위를 의미한다.

걸린 아이가 없고요?)

113050 #3 요센 약이 하난 하영 헨, 믄 글암실 테주 뭐. 겨고 엿날에 이제는 엿날추룩 살지 아녀놓난 손이 더 알앙 젓주게.(요샌 약이 많으니까 많이 해서, 모두 말할 테지 뭐. 그리고 옛날에 이제는 옛날처럼 살지 않아놓으니까 손이 더 알아서 젓지.)

110051 @ 뭐 습진도 거 마찬가지켜예?(뭐 습진도 거 마찬가지겠네요?)

110051 #3 응.(응.)

110052 @ 그다음에 혹시 그 저 이 발가락 사이에 요기 요기 사이에다가 그 뭐 이렇게.(그다음에 혹시 그 저 이 발가락 사이에 요기, 요기 사이에다가 그 뭐 이렇게.)

110052 #3 눈터.(까치눈.)

110052 @ 예, 눈 튼 거.(예, 까치눈 튼 거.)

110052 #3 거 엿날이주. 이제사 그런 거 이서? 이젠 신들 좋게 신어부난 엿날에 저 짚신 그런 거 신을 때 눈터서.(그거 옛날이지. 이제야 그런 거 있어? 이젠 신들 좋게 신어버리니 옛날에 저 짚신 그런 거 신을 때 까치눈 텄어.)

110052 @ 눈 트민 건 어떵 헷수과?(까치눈 트면 건 어떻게 했습니까?)

110052 #3 그 엿날에 그거 ᄒᆞ민 눈 트면은 게 뭐이 뭐이사 헨 약 헤신디 몰라 눈 터나서, 나도. 약이 서?(그 옛날에 그거 하면 까치눈 트면 그 뭐 무엇을 해서 약 했는지 몰라 까치눈 텄었어, 나도. 약 있어?)

110052 @ 다른 마을 조사할 때 보면 눈 틀 땐 머리에 늬 잡아 가지고.(다른 마을 조사할 때 보면 까치눈 틀 땐 머리에 이 잡아 가지고.)

110052 #3 아이고, 그 말이 맞인게. 응, 경헤난 거 닮아. 늬 잡안에 늬헤여 그 저 눈 튼 트멍드레 놔난 거 닮아.(아이고, 그 말이 맞네. 응, 그랬던 거 같아. 이 잡아서 이해서 그 저 까치눈 튼 틈들에 놓았던 거 같아.)

110052 @ 영 헹 영 뭘로 천으로 뭐 막앙예?(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로 천으로 뭐 막서요?)

110052 #3 응. 나도 눈 터낫어. 엿날에 짚신 신어근에 무시거 ᄒᆞᆯ 때. 응, 머리에 그 늬 잡앙. 경ᄒᆞ고 엿날에 늬 머리에 늬들은 막 하간 사름이 다 헷주.(응. 나도 까치눈 텄었어. 옛날에 짚신 신어서 무엇 할 때. 응, 머리에 그 이 잡아서. 그리고 옛날에 이 머리에 이들은 막 많은 사람이 다 했지.)

110052 @ 게난예.(그러니까.)

110052 #3 경헤난 베 이제 사름덜은 늬 알아, 베룩알아? 몰라, 이제 사름 몰르주. 어느 때 늬 머리에 나왓신고?(그랬던 베 이제 사람들은 이 알아, 벼룩 알아? 몰라, 이제 사람 모르지. 어느 때 이 머리에 생겼는지?)

110052 #2 군대 군대 갈 때, 늬 백쑤무마리 잡아사 줌재와 낫신디.(군대 군대 갈 때, 이 백스무 마리 잡아야 잠재워 났는데.)

110052 @ 아, 경도 헤낫수과?(아, 그렇게도 했었습니까?)

110052 #2 아이고, 아이고, 헹편 엇어낫서. 빈데.(아이고, 아이고, 형편 없었어. 빈대.)

110052 @ 예.(예.)

110052 #2 빈데.(빈대.)

110052 #3 빈데, 건 아무데나 엇어낫수게.(빈대, 건 아무데나 없었습니다.)

110052 @ 빈데도 막 사람한테 부텅예?(빈대도 막 사람한테 붙어서요?)

110052 #2 사름안테 부트는 게 아니고, 거의 벽에 벽에 이 열믄 이 속에 막 들어가주게.(사람한테 붙는 게 아니고, 거의 벽에, 벽에 이 열면 이 속에 막 들어가지.)

110052 @ 예.(예.)

110052 #2 거믄 어디 사름 하영 허는 디, 거 허믄 잘못허다근에 그거 헤근엥에.(그러면 어디 사람 많이 하는 데, 거 하면 잘못하다가 그거 해서.)

110052 #3 견디, 늬, 베룩 이제 사름덜 몰라 빈 빈덴디, 변덴디.(그런데 이, 벼룩, 이제 사람들 몰라 빈 빈댄지, 변댄지.)

110052 #2 나도 여기 그전에 휴가를 왓는디, 그거 올라지 그거 부떠온 철이 몰랏거든. 내중에 보니까 우리 집이 그게 완에 나 발견 헤낫주게. 그난 그 어디서 부떠 온 철이를 모르겟어. 허허허. 나 저 제대한 직후에나 발견 헷거든.(나도 여기 그전에 휴가를 왔는데, 그거 올랐지 그거 붙어온 줄을 몰랐거든. 나중에 보니까 우리 집에 그게 와서 내가 발견 했었지. 그러니까 그 어디서 붙어온 줄을 모르겠어. 허허허. 내가 저 제대한 직후에나 발견 했거든.)

110053 @ 어딘가 막 아파가지고 뭔가 아무튼, 지금 저가 질문한 거 말고예, 어 혹시나 삼춘네나 아니면 삼춘네 가족들이나 아니믄 그 애기들이나, 특별하게 아파서 아픈 거를 이렇게 잘 이겨낸 적은 엇수과?(어딘가 막 아파가지고 뭔가 아무튼, 지금 저가 질문한 거 말고요, 어 혹시나 삼촌네나 아니면 삼촌네 가족들이나 아니면 그 아기들이나, 특별하게 아파서 아픈 거를 이렇게 잘 이겨낸 적은 없습니까?)

110053 #2 근디 자식들이 그추룩헹 고셍헹 컬바시민 헐 건디 경 안 헤나부난 뭐.(그런데 자식들이 그처럼 해서 고생해서 커봤으면 할 건데 그렇게 안 해버려서.)

110053 @ 아니, 가족 중에 웨 무사 팔 뭐헤가지고 한.(아니, 가족 중에 왜 왜 팔 뭐해가지고 한.)

110053 #2 건 우리보단 나보단 우, 츠레 믄저 낫는디이. 거 우리 가이 거 우린 당초 몰라. 거 우리 그 저 배다른 형 말허는 건디 우리 커도 어떵헹 알아. 내중 소문만 들은 거지.(건 우리보단 나보단 위, 차례 먼저 낳았는데. 그거 우리 그 아이 그거 우린 당최 몰라. 그거 우리 그 저 배다른 형 말하는 건데 우리 커도 어떻게 해서 알아. 나중 소문만 들은 거지.)

110053 @ 아, 소문만 들은 거꽈?(아, 소문만 든 겁니까?)

110053 #2 응.(응.)

110053 @ 아, 팔 빠정 고치지 안헹 내분 거에 대헤서.(아, 팔 빠져 고치지 안

해서 내버린 거에 대해서.)
110053 #2 응, 들음 듣기만 헌 거지.(응, 들음 듣기만 한 거지.)
110053 @ 음, 그렇구나예.(음, 그렇군요.)
110053 #2 보통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보통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
110053 @ 혹시 나무에서 뭐 올라갓당 떨어진다든가 뭐 이런 적은 엇어마씨? 뭐 아이들 중에도?(혹시 나무에서 뭐 올라갔다가 떨어진다든가 뭐 이런 적은 없어요? 뭐 아이들 중에도?)
110053 #3 엇어.(엇어.)
110053 @ 음, 알앗습니다예.(음, 알았습니다.)

13. 경험담, 속담, 금기어 듣기

114001 @ 아이고, 예 지금부터는예, 경험담이나 속담, 혹은 금기어, 즉 헤서는 안 뒈는 말을 막예, 거기 가면은 그런 말 하면 안 뒌다 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잇는데, 한 가지씩 여쭤보겠습니다예. 어, 혹시나 그 살아가는 과정에서 죽을 뻔헷던 일이 이섯수과? 엇엇수과? 그 아, 아까 저 둘째, 농약 칠 때 마루에 잇단 쓰러저근엥 강 급하게 간 침맞은 거 웨로는?(아이고, 예 지금부터는요, 경험담이나 속담, 혹은 금기어, 즉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막이요, 거기 가면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한 가지씩 여쭤보겠습니다. 어, 혹시나 그 살아가는 과정에서 죽을 뻔했던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아, 아까 저 둘째, 농약뿌릴 때 마루에 있다가 쓰러져서 가서 급하게 간 침놓은 거 왜로는?)
114001 #3 응, 엇져.(응, 없지.)
114001 @ 아이들 정말 잘 컷수다예. 그다음엔, 옛날에 막 도깨비 봣덴 말하잖아예? 혹시 도깨비 불 이라던가 이런 거 봐난 적은 엇수과?(아이들 정말 잘 컷습니다. 그다음엔, 옛날에 막 도깨비 봤다고 말하잖아요? 혹시 도깨비 불 이라던가 이런 거 봤던 적은 없습니까?)
114002 #2 도깨비 불 봐난 건 없는데.(도깨비 불 봐난 건 없는데.)
114002 @ 예.(예.)
114002 #2 나가 흔 번 경험한 건 잇는데. 어떤 거냐.(내가 한 번 경험한 건 있는데. 어떤 거냐.)
114002 @ 예.(예.)
114002 #2 그 사삼사건 후예.(그 사삼사건 후에.)
114002 @ 예.(예.)
114002 #2 그 사십구 년대에 의귀리[364] 재건허고.(그 사십구 년도에 의귀리 재건하고.)

364)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를 말하는데 '수망리' 바로 아랫마을이다.

114002 @ 예.(예.)

114002 #2 오십년 대에는 수망리 재건 헷거든?(오십년 도에는 '수망리' 재건 했거든?)

114002 @ 예.(예.)

114002 #2 전화가 엇엇어.(전화가 없었어.)

114002 @ 예.(예.)

114002 #2 게난 의귀리는 출장소고, 수망리는 파견손데.(그러니 '의귀리'는 출장소고, '수망리'는 파견소인데.)

114002 @ 예.(예.)

114002 #2 암호, 우리가 암호를 받으레 가.(암호, 우리가 암호를 받으러 가.)

114002 @ 예.(예.)

114002 #2 어둑은, 암호도 붉은 때는 안 오거든?(어두운, 암호도 밝은 때는 안 오거든?)

114002 @ 예.(예.)

114002 #2 그 암호니까, 어둑어야만 오는 거라.(그 암호니까, 어두워야만 오는 거야.)

114002 @ 예.(예.)

114002 #2 경허니까 우리가 협조, 우리 그때 헨에. 협조원들인데.(그러니까 우리가 협조, 우리 그때 했어. 협조원들인데.)

114002 @ 예.(예.)

114002 #2 경찰 협조원이주게?(경찰 협조원이지.)

114002 @ 예.(예.)

114002 #2 둘리, 둘리 인젠 암호 받으레 의귀리 출장소엔 갓는디.(둘이, 둘이 이젠 암호 받으러 '의귀리' 출장소엔 갔는데.)

114002 @ 예.(예.)

114002 #2 암호 받앙 올라오는데. 지금 의귀리, 그 쪼금 올라오면 하천 그, 그 바로 그 동쪽에.(암호 받아서 올라오는데. 지금 '의귀리', 그 쪼금 올라오면 하천 그, 그 바로 그 동쪽에.)

114002 @ 예.(예.)

114002 #2 사솔왓[365]이엔 하는 밧이 이서.('사솔왓'이라고 하는 밭이 있어.)

114002 @ 예.(예.)

114002 #2 그디서 사람이 많이 죽엇거든.(거기서서 사람이 많이 죽었거든.)

114002 @ 아, 예.(아, 예.)

114002 #2 사람이 많이 죽엇는디, 하천을 넘어오니까 거기서 살려달라고 막 난리 아니여? 거 죽을 때 막 살려달렌 헤난 거지.(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하천을 넘어오니까 거기서 살려달라고 막 난리 아니야? 그 죽을 때 막 살려달라고 했던 거지.)

365) '사솔왓'은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에 있는 밭 이름을 말한다. '왓'은 '밭'을 뜻하는 제주어다.

114002 @ 아, 예.(아, 예.)

114002 #2 근디 그 날이 곧 비왐 직이 막 시작 시꺼멍 곧 비 드릴 날씨가 그렇게 뒛거든.(그런데 그 날이 곧 비올 듯이 막 시작 시꺼멓게 곧 비 드릴 날씨가 그렇게 됐거든.)

114002 @ 예.(예.)

114002 #2 하, 둘리가 갓다 오다가 서로 이젠 엉켯거든?(하, 둘이 갔다 오다가 서로 이젠 엉켰거든?)

114002 #3 누게영?(누구랑?)

114002 #2 평수영. 둘리가 막 서로 엉켜 가지고, 우리 가진 건 죽창이옌 대 고쟁이 바순 거거든? 그걸 둘리 앞에 꽂, 앞에 꽂앗단 말이여. 게니까 그 소리가 없어지드라고. 그렇게 헤서 와난 예가 잇는디.(평수하고. 둘이 막 서로 엉켜가지고, 우리 가진 건 죽창이라고 대 고쟁이 바순 거거든? 그걸 둘의 앞에 꽂, 앞에 꽂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소리가 없어지더라고. 그렇게 해서 왔던 예가 있는데.)

114002 #3 생각에 귀에 막 그 위험한 디라 부난.(생각에 귀에 막 그 위험한 데라 버려서.)

114002 @ 근데 둘 다 다 같이 들엇던 거 아니꽈예?(근데 둘 다 다 같이 들었던 거 아닙니까?)

114002 #2 에, 둘 다. 둘리가 들언디.(예, 둘 다. 둘이 들었는데.)

114002 #3 그디 막 사람, 그, 스삼 때 하영.(거기 막 사람, 그 사삼 때 많이.)

114002 #2 사솔왓이옌 헤 가지고, 사람 그디 많이 죽여 부럿주게.('사솔왓'이라고 해가지고, 사람 거기 많이 죽여 버렸지.)

114002 #3 하영, 게난 그때들 막 그디 무서완 헤낫주게.(많이, 그러니 그때들 막 거기 무서워서 했었지.)

114002 #2 게난 그디 저 나중에사 묻엇지, 그, 그대로 그 이 뼈다귀영 막 내불어놔낫어.(그러니 거기 저 나중에야 묻었지, 그, 그대로 그 이 뼈다귀랑 막 내버려놓았었어.)

114002 @ 기지예, 어 그 다음에는 혹시나예, 그 저기.(그렇지요, 어 그 다음에는 혹시나요, 그 저기.)

114002 #3 헛소리 들은 거, 그때는.(헛소리 들은 거야, 그때는.)

114002 #2 어, 헛소리지.(어, 헛소리지.)

114003 @ 참외나 수박서리 같은 거 하는데, 여기는 참외나 수박 같은 거 안 갈아낫잖아예?(참외나 수박서리 같은 거 하는데, 여기는 참외나 수박 같은 거 안 갈았었지요?)

114003 #3 응.(응.)

114003 @ 옛날에도예?(옛날도요?)

114003 #3 응, 아녀난.(응, 안 했었어.)

114003 @ 그믄 혹시나예, 젊었을 때 재미로, 같이 들 헨 뭐 훔쳐당 뭐 헤먹어

본 적은 엇수과? 아, 엇수과?(그르면 혹시나요, 젊었을 때 재미로, 같이 들 해서 뭐 훔쳐다가 뭐 해먹어 본 적은 없습니까? 아, 없습니까?)

114003 #3 아녜여. 하르방[366]이나 나나 너믜 굳작허게 컷어.(안 해. '할아버지' 나 나나 너무 곧게 컸어.)

114003 @ 아니, 게난 다른 사람들 헤먹엇덴 소리 안 들어낫수과?(아니, 그러니 다른 사람들 해먹었다는 소리 안 들었었습니까?)

114003 #3 헌디 경헌디 아녀난, 아 아니, 순ᄒᆞ게 아녀난, 기엉 막 자마리[367] 쎄고, ᄋᆞ망진[368] 사람이 그런 거 ᄒᆞ주. 우리는 아녀주게, 그런 거.(한데 그런데 안하니까, 아 아니, 순하게 안하니까, 그렇게 막 장난이 심하고, '뛰어난' 사람이 그런 거 하지. 우리는 안 하지, 그런 거.)

114003 @ 음.(음.)

114003 #3 못ᄒᆞ여. 경헌 축엔 못 들어가.(못해. 그런 축엔 못 들어가.)

114003 @ 음.(음.)

114003 #3 저 집이 영 헤보민 그 ᄉᆞ삼 때에 영 보초 사는디 영 ᄒᆞᆫ디 지커는 것도 잇어낫는디, 막 집이 껏도 아정오라근엥 후문으로 아정오랑 막 먹고 아이들 경헤도.(저 집에 이렇게 해보면 그 사삼 때에 이렇게 보초 사는데 이렇게 함께 지키는 것도 있었는데, 막 집의 것도 가져와서 후문으로 가져와서 막 먹고 아이들 그래도.)

114003 @ 음.(음.)

114003 #3 우리는 경 아녜여. 먹도 아녀고 부모도 쉑이도 아녀고 겡헨 살안.(우리는 그렇게 안했어. 먹도 않고 부모도 속이지 않고 그렇게 살았어.)

114003 @ 음.(음.)

114003 #3 집의 것도 막 아정오랑덜 그거 입초 사는 디 오랑 겡 먹어불곡, 막 헨.(집의 것도 막 가져와서들 그거 입초 사는 데 와서 그리 먹어버리고, 막 했어.)

114003 @ 무시걸마씸?(뭘요.)

114003 #3 아무 거라도. 감저도 아저오랑 쳥 먹어불고. 쏠이 얼마나 어려와시카 부덴? 어려운 쏠도 아정오랑 막 밥헹 먹어불엉.(아무 거라도. 고구마도 가져와서 쪄 먹어버리고. 쌀이 얼마나 어려웠을까봐? 어려운 쌀도 가져와서 막 밥해서 먹어버리고.)

114003 #2 부, 부모 몰래 헤 먹어벳주.(부, 부모 몰래 해먹어버렸지.)

114003 #3 부모 몰래 부모칩이 거, ᄂᆞᆷ의 거를 아정오는 게 아니고.(부모 몰래 부모집의 거, 남의 거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114003 @ 음.(음.)

114003 #3 경헨 우린 부모 ᄒᆞᆫ 번 쉑이질 안헨 살ᄀᆞ라 이 말이라. 그런 것엔 등도 아녓주게. 아니 내멍 먹어저게? 먹지도 아녀 난.(그래서 우린 부모 한 번 속이질

366) '하르방'은 할아버지를 뜻하나 여기서는 '남편'을 말한다.
367) '자마리'는 제주어 '자파리'를 달리 발음한 것이다. '자파리'는 표준어 '장난'에 대응하는 말이다.
368) 'ᄋᆞ망지다'는 미련하지 아니하고 영리하고 똑똑하다는 의미로 표준어 '뛰어나다'에 대응하는 말이다.

안 해서 살았다 이 말이야. 그런 것엔 등도 안했지. 아니 내면서 먹어질까? 먹지도 안 해 나는.)

114004 @ 경허믄 어렷을 때 자라면서 잇잖아예? 사삼 전이나 뭐 사삼 후에도 상관없지만은 뭔가 막 재미잇엇던 거, 뭔가 막 기억헤서 옛날 말 곧듯이 곧고 싶은 거 엇수과? 어렷을 때 기억.(그러면 어렸을 때 자라면서 있잖아요? 사삼 전이나 뭐 사삼 후에도 상관없지만 뭔가 막 재미있었던 거, 뭔가 막 기억해서 옛날 말 말하듯이 말하고 싶은 거 없습니까? 어렸을 때 기억.)

114004 #1,2 엇어.(없어.)

114004 @ 지금 아이들은 그걸 경험하지 못할 그런 기억들.(지금 아이들은 그걸 경험하지 못할 그런 기억들.)

114004 #3 엇어. 잘 부모 말이나 듣고, 고정케 살아부난, 원 어떵 점 뒈는 걸 몰라.(없어. 잘 부모 말이나 듣고, 고지식하게 살아버려서, 원 어떻게 참 되는 걸 몰라.)

114004 #2 이 저 ᄉᆞ삼 때도.(이 저 삼삼 때도.)

114004 #3 속이멍도 못 살안게.(속이면서도 못 살았어.)

114004 #2 그대롬 이 저 사 산에 곱으레 뎅겨난 사람들은 기억이 잇는디, 우린 그 때는 신흥리[369] 내령 살아부리니까.(그대로 이 저 사 산에 숨으러 다녔던 사람들은 기억이 있는데, 우린 그 때는 신흥리 내려서 살아버리니까.)

114004 #3 곱으렌 안 뎅겨부니까.(숨으러 안 다녀버리니까.)

114004 #2 곱으러 안 뎅겨부니까 몰라.(숨으러 안 다녀버리니까 몰라.)

114004 #3 이레부난 몰라.(이래버려서 몰라.)

114005 @ 어, 그면은 어, 그 옛날 부모님들이 삼춘네안티 무슨 속담 같은 거 그런 거 얘기해 준 적 엇수과?(어, 그러면 어, 그 옛날 부모님들이 삼촌네한테 무슨 속담 같은 거 그런 거 얘기해 준 적 없습니까?)

114005 #2 속담 헤봐도, 아부지 일찍 죽어불고 저 뭐니 어머니 혼자 지금 우리 여섯, 육 남매. 여, 육 남매라? 뚤은 ᄒᆞ나토 엇주. 그 키우젠 허난에 정신이 엇엇주.(속담 해봐도, 아버지 일찍 죽어버리고 저 뭐니 어머니 혼자 지금 우리 여섯, 육남매. 여, 육남매라? 딸은 하나도 없지. 그 키우려고 하니까 정신이 없었지.)

114005 #3 아들만 ᄋᆞ슷 개.(아들만 여섯 명.)

114005 @ 속담 같은 거 막 아, 막 곧지 안헷수과? 뭐 헤가민 뭐뭐한다, 하멍. 그런 말 안 헤봣수과?(속담 같은 거 막 아, 막 말하지 안했습니까? 뭐 해가면 뭐뭐한다, 하면서. 그런 말 안 해봤습니까?)

114005 #3 아니, 때 엇고. 말을 들으면 나쁜 말인 그거주. 들으며는 그 들은 디 버리고, 그 뭐 다시 옮겨가민 소두리 뭰다는 거주. 들으민 그 말 닮지 아년 말은 들은 체 말고. 그런 것만 잘 ᄒᆞ라고 키왓주.(아니, 때 없고. 말을 들으면 나쁜 말인 그거지. 들으면 그 들은 데 버리고, 그 뭐 다시 옮겨가면 말전주 된다는 거지. 들으면

369) '신흥리'는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를 말한다. 바닷가 마을이다.

그 말 같지 않은 말은 들은 체 말고. 그런 것만 잘 하라고 키웠지.)

114005 @ 그걸 뭐렌 ᄀᆞᆯ앗수과?(그거 뭐라고 말했습니까?)

114005 #3 아니뭴 말은 들으면 그 자리에서 이쳐비여근에 말 옮기지 말고, 나쁜 말.(아니 될 말은 들으면 그 자리에서 잊어버려서 말 옮기지 말고, 나쁜 말.)

114005 @ 예, 게 그걸 제주도말로 뭐랜 ᄀᆞᆯ읍디가? 들으민.(예, 그래 그걸 제주도말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들으면.)

114005 #3 들은 디 버리라고.(들은 데 버리라고.)

114005 @ 들으민 들은 디 버리라.(들으면 들은 데 버리라.)

114005 #3 응, 말답지 않은 소리는 귀 안틔레 놓지 말라.(응, 말답지 않은 소리는 귀 안으로 넣지 말라.)

114005 @ 들으민 들은 데 데껴불라? 버리라?(들으면 들은 데 던져버려라? 버려라?)

114005 #3 응, 버리라. 들으민 들은 대로 버려불라.(응, 버리라. 들으면 들은 대로 버려버려라.)

114005 @ 게, 그거를 우리 제주도 말로 뭐렌 ᄀᆞᆯ앗수과?(그래, 그거를 우리 제주도 말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114005 #3 응, 제주도 말로. 그 맞잖은 말은 귀안틔레 놓지말라. 듣기 실픈 말은 귀안티레 놓지 말라. 소두리는 ᄒᆞ지 말라는 거라. 소두리라는 거는 맞촹보민 ᄏᆞ뚱ᄒᆞᆫ다[370]. 영 가당도, 가당도 ᄂᆞᆷ의 아무마니 말희여도, 가당도 이녁 생각이 맞아비지 아녀민 가당 질 뒈돌아오랑 가지 말라. 그런 거 배완. 부모들안티.(응, 제주도 말로. 그 맞지 않은 말은 귀안으로 넣지 말라. 듣기 싫은 말은 귀 안으로 넣지 말라. 말전주는 하지 말라는 거야. 말전주라는 거는 맞춰보면 '코뚱하다'. 이렇게 가다가도, 가다가도 남이 얼마나 말해도, 가다가도 이녁 생각이 맞아 보이지 않으면 가던 길 되돌아와서 가지 말라. 그런 거 배웠어. 부모들한테.)

114005 @ 게난 그런 걸 말할 때, 소두리 옮기지 말라, 이렇게 할 때 제주도 말로 얘기하면, 아까 들은 때.(그러니 그런 걸 말할 때, 말전주 옮기지 말라, 이렇게 할 때 제주도 말로 얘기하면, 아까 들은 때.)

114005 #3 들은 대로.(들은 대로.)

114005 @ 들은 데 들은 데 데껴불라, 버려불라. 들은 데, 들은 대로 이렇게 하면 그건 지금 말이잖아예? 지금 말인데, 옛날에는 들은 듸 들은 대로라고 하지 않고, 뭐렌 ᄀᆞᆯ앗수과? 제주도 말로.(들은 데 들은 데 던져버려라, 버려버려라. 들은 데, 들은 대로 이렇게 하면 그건 지금 말이잖아요? 지금 말인데, 옛날에는 들은 데 들은 대로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주도 말로.)

114005 #3 우리 보기엔 경 배완, 들으면, 나쁜 말은 들으민 들은 디 버리라. 옮기지 말라.(우리 보기엔 그렇게 배웠어, 들으면, 나쁜 말은 들으면 들은 데 버려라. 옮기지 말라.)

370) 'ᄏᆞ뚱ᄒᆞ다'는 길이나 크기 따위가 가지런하고 고르다는 것을 말한다.

114005 @ 들으민 들은 대로 버리라.(들으면 들은 대로 버려라.)

114005 #3 어, 옮기지 말라. 응, 저 영.(어, 옮기지 말라. 응, 저 이렇게.)

114005 #2 아니, 게난 건 표준어니까 우리 제주도 사투리로 뭐옌 ᄀᆞᆫ는냐 이거지.(아니, 그러니 건 표준어니까 우리 제주도 사투리로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지.)

114005 @ 예, 어머니가 뭐렌 ᄀᆞᆯ앗수과?(예, 어머니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114005 #3 우리 들으민.(우리 들으면.)

114005 #2 여기 사투리로 ᄀᆞᆯ으라는 말 아니?(여기 사투리로 말하라는 말 아니?)

114005 @ 들으민 들은 대로 버리라.(들면 들은 대로 버려라.)

114005 #3 소두리 하지 말라. 영허난, 거 그 배운 게 그게난게. 원래.(말전주 하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거 그 배운 게 그거니까. 원래.)

114006 @ 어, 그다음엔예 옛날에 힘들게 살긴 헤낫잖아예? 지금 삶하고 그 힘들엇지만 옛날 삶하고 비교헷을 때, 가장 어떤 것들이 많이 달라젓수과?(어, 그다음에요 옛날에 힘들게 살긴 했었잖아요? 지금 삶하고 그 힘들었지만 옛날 삶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어떤 것들이 많이 달라졌습니까?)

114006 #3 아이고, 지금 삶이사 대통령 삶이주. 다 엿날 닮은 게 ᄒᆞ나도 엇어.(아이고, 지금 삶이야 대통령 삶이지. 다 옛날 같은 게 하나도 없어.)

114006 @ 지금 삶이 더 좋아마씸?(지금 삶이 더 좋아요?)

114006 #3 좋음으로 말이라? 아이고, 엿날.(좋음으로 말이야? 아이고, 옛날.)

114006 @ 사람들하고의 관계는마씸?(사람들하고의 관계는요?)

114006 #3 관계도.(관계도.)

114006 @ 동네 사람들하고의 어떤 그런 그 관계는.(동네 사람들하고의 어떤 그런 그 관계는.)

114006 #3 우리네는 뭐 동네 사람들광도 베랑 경, 저 사람이 나쁘다ᄒᆞ게 셍각은 원 아년 살안. 다 좋아베이주. 어디 저 모른디 가면은 또 영 생각현 함부로 말을 말아야지.(우리네는 뭐 동네 사람들하고도 별로 그렇게, 저 사람이 나쁘다하게 생각은 원 않고 살았어. 다 좋아 보이지. 어디 저 모른데 가면 또 이렇게 생각해서 함부로 말을 말아야지.)

114006 #2 겐디, 영 우리가 보믄 영 놈들 ᄀᆞᆫ는 거 보믄, 그전에는 잇는 사름허고 없는 사름덜허고 차별을 헷어.(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렇게 남들 말하는는 거 보면, 그전에는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들하고 차별을 했어.)

114006 @ 아, 수망리에서예?(아, '수망리'에서요?)

114006 #2 아아, 원 딴 디도 보믄, 영 보믄 좀 차별헤 가지고 영 보믄 우리 영이 모든 듸 가도, 쪼끔 난처한 놈은 그 끼리만 모인단 말여. 거기서 쪼끔 저 뭐 그 쪼끔 저 그디서도 쪼끔 뭐 놈만이 못하는 뭐하는 이, 남은 똘라버린단 말이야.(아아, 원 다른 데도 보면, 이렇게 보면 좀 차별해 가지고 이렇게 보면 우리 이렇게 이 모든 데 가도, 쪼끔 난처한 놈은 그 끼리만 모인단 말이야. 거기서 쪼끔 저 뭐 그 쪼끔 저 거기서도 쪼끔 뭐 남만큼 못하는 뭐하는 이, 남은 따돌려버린단 말이g야.)

114006 @ 예.(예.)

114006 #2 그런 게 잇어.(그런 게 있어.)

114006 #3 지금, 지금? 지금.(지금, 지금? 지금.)

114006 #2 지금도 이서. 모든 듸 가믄 딱 찔, 찌리찌리가 이서.(지금도 있어. 모든 데 가면 딱 질, 끼리끼리가 있어.)

114006 @ 예, 맛수다예. 아이고, 알앗습니다.(예, 맞습니다. 아이고, 알았습니다.)

연구 참여자

이름	소속	분야	구분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연구 책임 · 총괄 표선면 성읍리
강영봉	(사)제주어연구소	국어학(제주도방언)	교열 및 감수
김미진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조천읍 함덕리 성산읍 삼달리
김보향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구좌읍 한동리 애월읍 고내리
허영선	제주대학교 강사	한국학(제주역사)	표선면 성읍리
최연미	돋을양지책드르	국문학	남원읍 수망리
김승연	(사)제주학연구소	한국학(제주무속)	서귀포시 하원리
김성용	귀일중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안덕면 대평리
신우봉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대정읍 신도리
안민희	민요패 소리왓	한국학(제주민요)	한경면 청수리
현혜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재학	국어국문학	연구 보조

2018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15

발행인 김동전
발행일 2018년 12월 28일
발행처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시 동광로 51(이도1동) 3층
전화 (064) 726-5623 **팩스** (064) 747-6140
누리집 www.jst.re.kr

□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